

최종보고서

# 한·중FTA 농림수산물분야 대응방안 연구

2015. 11.





# 제출문

---

충청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한·중FTA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원장 강 현 수





# Contents

## 제1부 연구의 개요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5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6
3. 연구의 추진체계 .....	10
4. 연구의 방법 및 추진경과 .....	12
5. 연구의 한계 .....	13

## 제2부 중국 및 충남의 농림수산업 현황

### 제1장 중국의 농림수산업 현황

1. 정책동향 .....	19
2. 교역동향 .....	26
3. 생산동향 .....	29

### 제2장 한국의 농림수산업 현황

1. 정책동향 .....	35
2. 교역동향 .....	36
3. 생산동향 .....	41

### 제3장 충남의 농림수산업 현황

1. 정책동향 .....	45
2. 교류협력 현황 .....	48
3. 교역동향 .....	53
4. 생산동향 .....	54

# 제3부 한중FTA 체결과 영향분석

## 제1장 한중FTA 협상결과

1. 추진경과 .....	61
2. 협상내용 .....	61
3. 국내 보완대책 .....	66

## 제2장 부문별 영향분석

제1절 시나리오 .....	77
제2절 한중FTA에 따른 농림어업 피해액 .....	78
1. 농업 부문 .....	78
2. 임업 부문 .....	80
3. 어업 부문 .....	81
제3절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액 .....	83
제4절 농림어업 위험가구 붕괴 시 피해액 .....	84
1. 충남의 농림업 위험가구 .....	84
2. 충남의 어업 위험가구 .....	85
제5절 총괄 .....	86

## 제3장 분석대상 품목 도출

1. 프로세스 .....	91
2. 분석대상 품목 도출 .....	93

## 제4장 요약

1. 한중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	107
2.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액 .....	108
3. 위험가구(한계가구) 붕괴 시 피해액 .....	109

## 제4부 충남의 농수산물 주요품목 종합분석

### 제1장 분석개요

1. 분석방법 .....	115
2. 분석품목 확인 및 분석자료 .....	122

### 제2장 주요품목 종합분석

제1절 농산물 .....	127
1. 중국의 정책이슈 분석 .....	127
2. 기초현황 분석 .....	130
3. 지역특화 분석 .....	131
4. 생산구조 분석 .....	135
5. 비용비교 분석 .....	136
6. 교역구조 분석 .....	137
7. 경쟁력 분석 .....	138
8. 설문조사 분석 .....	139
제2절 임산물 .....	145
1. 중국의 정책이슈 분석 .....	145
2. 기초현황 분석 .....	147
3. 지역특화 분석 .....	148
4. 교역구조 분석 .....	150
5. 설문조사 분석 .....	151
제3절 수산물 .....	156
1. 중국의 정책이슈 분석 .....	156
2. 기초현황 분석 .....	158
3. 지역특화 분석 .....	159
4. 생산구조 분석 .....	163
5. 교역구조 분석 .....	164
6. 경쟁력 분석 .....	165
7. 설문조사 분석 .....	166

### 제3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및 시사점 .....	175
-------------------	-----

## 제5부 충남의 기본구상과 대응방안

### 제1장 기본구상

제1절 핵심이슈 및 키워드 .....	183
1. 문제인식 .....	183
2. 핵심이슈 .....	194
3. 키워드 도출 .....	196
제2절 비전 및 전략 .....	197
1. 기본원칙 .....	197
2. 비전 및 목표 .....	198
3. 추진전략 .....	201
4. 부문별 핵심사업 .....	202
5. 본 대책의 정책비교 .....	204
6. 10대 핵심전략 개요 .....	207

### 제2장 충남의 대응방안

제1절 농촌생활소득의 보전 .....	231
소득 및 권익증진 부문 .....	232
1. 공익적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강화 .....	232
2.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	242
3. 농어민권익보호 및 증진 .....	248
4.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 .....	252
제2절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 .....	262
농림수산업 부문 .....	265
1.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생산유통기반 조성 .....	265
2.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	281
지역 및 교류협력 부문 .....	291
1. 지역브랜드 강화 .....	291
2.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	297
수출 부문 .....	307
1. 농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	307
지역경제 부문 .....	314
1. 농어업 구조개선 및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	314

## 제3장 권역별 추진전략

제1절 기본방향 .....	323
1. 권역별 방향 및 전략 .....	323
2. 기존 상위계획과의 비교 .....	324

## 제6부 시군별 대응방안

제1절 소비교류 거점권역 .....	327
1. 천안 .....	328
2. 아산 .....	331
3. 당진 .....	335
제2절 융복합 거점권역 .....	341
1. 태안 .....	343
2. 서산 .....	350
3. 보령 .....	355
4. 서천 .....	361
제3절 지역성 지속권역 .....	367
1. 공주 .....	369
2. 계룡 .....	373
3. 홍성 .....	377
4. 예산 .....	383
5. 청양 .....	388
6. 금산 .....	392
7. 논산 .....	395
8. 부여 .....	398

## 제7부 소요예산

제1절 소요예산 .....	403
1. 연도별 소요예산 .....	403
2. 자원별 소요예산 .....	406
3. 연도별 자원별 소요예산 .....	409
제2절 자원마련 방안 .....	411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농정분야 예산 현황 .....	411
2.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의 수산발전기금의 활용 .....	416
3.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활용 .....	419

## 부록

부록1. 한중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	423
------------------------------	-----

부록2. 회의록 .....	427
----------------	-----

1. 착수보고회 .....	427
2. 시군별 순회간담회 .....	431
3. 대응추진단 회의 및 분야별 워크숍 .....	436
3-1. 농림업분야 워크숍 .....	436
3-2. 수산분야 워크숍 .....	439
4. 중간보고회 .....	443
5. 전문가 워크숍 .....	447
6. 분야별 농림어업인과 현장간담회 .....	453
6-1. 현장간담회 (농업분야) .....	453
6-2. 현장간담회 (어업분야) .....	455
6-3. 현장간담회 (임업분야) .....	457
7. 최종보고회 .....	460

부록3. 설문조사 .....	464
-----------------	-----

참고문헌 .....	478
------------	-----

# 표 목차

표 1-1. 연구진 구성 .....	10
표 1-2. FTA 대응 추진단 실무작업반 구성 .....	11
표 1-3. 연구의 추진경과 .....	12
표 2-1. 농산물무역촉진자금 내역 .....	23
표 2-2. 최근 3년간 중국농업동향 .....	24
표 2-3. 중국의 전체 수출입 .....	26
표 2-4. 중국의 농수산물 수출액 .....	27
표 2-5.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액 .....	28
표 2-6. 중국의 국내총생산 .....	29
표 2-7. 중국의 농촌인구 .....	30
표 2-8. 중국의 농작물 재배면적 .....	30
표 2-9. 중국의 농림수산업 생산액 .....	31
표 2-10. 한국의 전체 수출입 .....	37
표 2-11. 대중국 전체 및 농림수산물 수출입 .....	39
표 2-12. 대중국 가공품 수출입 .....	40
표 2-13. 대중국 주요 가공품별 수입 현황 .....	40
표 2-14.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분야별 FTA 대응전략 (요약) .....	47
표 2-15. 충남도 대중국 교역협력 협정체결 현황 .....	50
표 2-16. 시군별 대중국 교역협력 협정체결 현황 .....	50
표 2-17. 충남의 농림수산물 수출입 .....	53
표 2-18.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 및 농림어업 비중 .....	54
표 2-19. 충남의 부가가치 및 농림어업 비중 .....	54
표 2-20. 충남의 총인구 및 농림어가 인구 .....	55
표 2-21. 충남의 논밭 경지면적 .....	56
표 2-22. 충남의 주요 품목부류별 생산량 .....	56
표 3-1. 한중FTA 협상 추진경과 .....	61
표 3-2. 한중FTA 한국측 농축산물 양허결과 .....	62
표 3-3. 한중FTA 중국측 농축산물 양허결과 .....	63
표 3-4. 한중FTA 한국측 수산물 양허결과 .....	64
표 3-5. 농림업 부문 투융자 계획 .....	72
표 3-6. 어업 부문 투융자 계획 .....	73
표 3-7. 한중FTA에 따른 국가 및 충남의 농산물 피해액 .....	79
표 3-8. 한중FTA에 따른 국가 및 충남의 임산물 피해액 .....	80
표 3-9. 한중FTA에 따른 국가 및 충남의 수산물 피해액 .....	82
표 3-10.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액 .....	83

표 3-11. 충남의 농림업 위험가수 붕괴 시 피해액 .....	84
표 3-12. 충남의 어업 위험가수 붕괴 시 피해액 .....	85
표 3-13. 한중FTA로 인한 충남의 농림어업 피해액 총괄 .....	86
표 3-14. 한중FTA로 인한 전국 및 충남의 농림어업 피해액 비교 .....	87
표 3-15. 한중FTA에 따른 시군별 제ان품목 .....	93
표 3-16. 시군별 제ان품목 사유 .....	94
표 3-17. 충남의 농산물 특화품목 .....	95
표 3-18. 충남의 임산물 특화품목 .....	96
표 3-19. 충남의 수산물 특화품목 .....	97
표 3-20. 한중FTA에 따른 국가 피해품목 .....	98
표 3-21. 충남의 주력 대응품목 .....	99
표 3-22. 한중FTA에 따른 충남 농산물 품목별 타결내용과 정성적 영향 .....	101
표 3-23. 한중FTA에 따른 충남 수산물 품목별 타결내용과 정성적 영향 .....	103
표 4-1. 중국의 정책이슈 분석 .....	115
표 4-2. 기초현황 분석방법 및 해석 .....	115
표 4-3. 지역특화 분석방법 및 해석 .....	116
표 4-4. 생산구조 분석방법 및 해석 .....	117
표 4-5. 비용비교 분석방법 .....	118
표 4-6. 경쟁력 분석방법 및 해석 .....	119
표 4-7. 경쟁력 분석방법 및 해석 .....	120
표 4-8.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	121
표 4-9. 분석대상 품목의 확인 .....	122
표 4-10. 분석에 사용된 자료 .....	123
표 4-11. 충남의 농산물 주요 품목별 기초현황 .....	130
표 4-12. 충남의 농산물 주요 품목별-지역별 특화도 지수 .....	132
표 4-13. 중국과 충남의 농산물 주요 품목별 생산구조 비교 .....	135
표 4-14. 중국과 충남의 농산물 주요 품목별 비용비교 .....	136
표 4-15. 충남의 농산물 주요 품목별 교역구조 .....	137
표 4-16. 충남의 농산물 주요 품목별 경쟁력 지수 .....	138
표 4-17. 한중 간 농산물 경쟁력 및 경영위험인식 평가 .....	140
표 4-18. 기존 농업 분야의 FTA대책에 대한 주관 평가 .....	141
표 4-19. 한중FTA 농업 대책수립 시 방향에 대한 의견 .....	142
표 4-20. 중의약사업발전 12·5규획 발전 목표 .....	146
표 4-21. 충남의 임산물 주요 품목별 기초현황 .....	147
표 4-22. 충남의 임산물 주요 품목별-지역별 특화도 지수 .....	148
표 4-23. 충남의 임산물 주요 품목별 교역구조 .....	150
표 4-24. 한중간 임산물 경쟁력 및 경영위험인식 평가 .....	152
표 4-25. 기존 임업 분야의 FTA대책에 대한 주관 평가 .....	153
표 4-26. 한중FTA 임업 대책수립 시 방향에 대한 의견 .....	155
표 4-27. 전국 현대어업 및 양종업 시범장 명단 (42곳 중 충남 주산품 관련 명단) .....	156
표 4-28. 충남의 수산물 주요 품목별 기초현황 .....	158



표 4-29. 충남의 수산물 주요 품목별-지역별 특화도 지수 .....	160
표 4-30. 중국과 충남의 수산물 주요 품목별 생산구조 비교 .....	163
표 4-31. 충남의 수산물 주요 품목별 교역구조 .....	164
표 4-32. 충남의 수산물 주요 품목별 경쟁력 지수 .....	165
표 4-33. 한중간 수산물 경쟁력 및 경영위험인식 평가 .....	167
표 4-34. 기존 어업 분야의 FTA대책에 대한 주관 평가 .....	168
표 4-35. 한중FTA 어업 대책수립 시 방향에 대한 의견 .....	169
표 5-1. 기존 FTA 주요 품목별 관세철폐 시간표 .....	184
표 5-2. 기존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	187
표 5-3. 선진국 농정동향 (공통점) .....	190
표 5-4. 주체별 정책수요 중 농림어업 공무원 .....	191
표 5-5. 주체별 정책수요 중 농림어업분야 전문가 .....	192
표 5-6. 주체별 정책수요 중 농림어업인 .....	193
표 5-7. 2대 목표, 5대 부문, 10대 전략, 10대 핵심사업 .....	202
표 5-8. 농어업분야 대책의 비교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연계) .....	204
표 5-9.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 요약 .....	212
표 5-10. 농촌생활소득의 보전 요약 .....	231
표 5-11. 충남형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사업의 기본방향 .....	241
표 5-12. 시군의 각종 자원현황 (당진시 사례) .....	242
표 5-13.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 요약 .....	262
표 5-14. 지역별 관련 중점추진과제 (예시) .....	266
표 5-15. 지역별 관련 중점추진과제 (예시) .....	268
표 5-16. 발농업기계화 기술개발의 단계별 개발예정 기술 .....	269
표 5-17. 지역별 관련 중점추진과제 (예시) .....	273
표 5-18. 전국 5위권 이내 충남의 임산물 생산현황 .....	275
표 5-19.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현황 (2015년 현재) .....	275
표 5-20. 산림청의 품목별 생산기반 강화대책 .....	277
표 5-21. 충청남도 관련 중점추진과제 (경쟁력있는 임산업 육성 중) .....	277
표 5-22. 지역별 관련 중점추진과제 (예시) .....	277
표 5-23. 산림청의 산림자원 생산기반 강화대책 .....	278
표 5-24. 충청남도 관련 중점추진과제 (예시) .....	278
표 5-25. 지역별 관련 중점추진과제 (예시) .....	278
표 5-26. 한중FTA 대책실행을 위한 3대 권역별 추진전략 .....	323
표 5-27. 충청남도 중장기 통합계획의 4대 개발경영권 설정과 권역별 발전방향 .....	324
표 6-1. 품목과 충남-시군의 대응방안 종합연계도 : 소비교류 거점권역 .....	327
표 6-2. 천안시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	328
표 6-3. 천안시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	328
표 6-4. 아산시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	331
표 6-5. 아산시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	332
표 6-6. 당진시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	335
표 6-7. 당진시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	336

표 6-8. 품목과 충남-시군의 대응방안 종합연계도 : 융복합 거점권역 .....	341
표 6-9. 태안군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	343
표 6-10. 태안군 최근 5년간 정책지원 현황 .....	344
표 6-11. 태안군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	345
표 6-12. 서산시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	350
표 6-13. 서산시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	351
표 6-14. 보령시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	355
표 6-15. 보령시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	356
표 6-16. 서천군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	361
표 6-17. 서천군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	362
표 6-18. 서천군의 분야별 역점 추진과제 .....	363
표 6-19. 품목과 충남-시군의 대응방안 종합연계도 : 지역성 지속권역 .....	367
표 6-20. 공주시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2010년 기준) .....	369
표 6-21. 공주시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	370
표 6-22. 계룡시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	373
표 6-23. 계룡시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	374
표 6-24. 홍성군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	377
표 6-25. 홍성군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	378
표 6-26. 예산군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	383
표 6-27. 예산군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	384
표 6-28. 청양군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	388
표 6-29. 청양군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	389
표 6-30. 금산군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	392
표 6-31. 금산군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	392
표 6-32. 논산시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2010년 기준) .....	395
표 6-33. 논산시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	395
표 6-34. 부여군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2010년 기준) .....	398
표 6-35. 부여군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	398
표 7-1. 2대 목표 및 5대 부문 연도별 소요예산 .....	403
표 7-2. 10대 전략별 연도별 소요예산 .....	404
표 7-3. 전략별 단위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	405
표 7-4. 2대 목표 및 5대 부문 자원별 소요예산 .....	406
표 7-5. 10대 전략별 자원별 소요예산 .....	407
표 7-6. 전략별 단위사업 자원별 소요예산 .....	408
표 7-7. 10대 전략의 연도별.자원별 소요예산 .....	409
표 7-8. 농식품부 예산규모 변화(2013-2015) .....	411
표 7-9. 국가-충남-시군의 재정규모 .....	413
표 7-10. 충남-시군 자원별 재정규모 .....	413
표 7-11. 충남 농정구조 : 사업주체별 현황 (2014년 기준 결산) .....	415

# 그림 목차

그림 1-1. 충청남도 농정분야 상위계획 현황과 한중FTA 대책의 포지션	8
그림 1-2. 연구내용의 차별성	9
그림 1-3. FTA 대응 추진단 체계도	10
그림 1-4. 연구의 방법	12
그림 2-1. 백제(충남)의 대중국 교류 역사와 흔적	48
그림 2-2. 자치단체의 대중국 교류협력 확대분야	49
그림 2-3. 대중국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	49
그림 2-4.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체결지역 주요 교류활동 현황	51
그림 3-1. 국내 보완대책 중 개방시대 과제와 농업부문의 대응전략	66
그림 3-2. 부문별 영향분석 시나리오	77
그림 3-3. 피해품목 도출 프로세스	91
그림 3-4. 충남의 농산물 특화품목 분포도	95
그림 3-5. 충남의 임산물 특화품목 분포도	96
그림 3-6. 충남의 수산물 특화품목 분포도	97
그림 3-7. 충남의 15개 시군별 최종품목 분포도	100
그림 3-8. 국가피해액을 바탕으로 한 충남의 생산감소액(피해액)도출 프로세스	107
그림 3-9. 대(對)중국 농산물 수입증가를 바탕으로 한 충남의 생산감소액(피해액)도출 프로세스	108
그림 3-10. 위험가구 붕괴를 바탕으로 한 충남의 생산감소액(피해액)도출 프로세스	109
그림 4-1. 충남의 농산물 주요 품목별 지역특화도 분석	133
그림 4-2. 중국과 충남의 고추 품목의 종합 비교	143
그림 4-3. 중국과 충남의 마늘 품목의 종합 비교	144
그림 4-4. 충남의 임산물 주요 품목별 지역특화도 분석	149
그림 4-5. 충남의 수산물 주요 품목별 지역특화도 분석	161
그림 4-6. 중국과 충남의 바지락과 김 품목의 종합 비교	170
그림 4-7. 중국과 충남의 전복과 해삼 품목의 종합 비교	171
그림 4-8. 중국과 충남의 경영 측면 총괄 비교	175
그림 4-9. 중국과 충남의 경쟁력 총괄 비교	176
그림 4-10. 충남의 농어가 인식조사 결과	177
그림 5-1.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서명·타결 국가	183
그림 5-2. 기존 FTA 주요 품목별 관세철폐 시간표	185
그림 5-3. 전국-충남 경지면적 분포의 변화 (2000&2010)	188
그림 5-4. 농업소득 분포 (2008&2013, 2010=100)	189
그림 5-5. 전국-충남 농축산물 판매금액 분포의 변화 (2000&2010)	189
그림 5-6. 전국 대비 충남의 농가분포 현황(연령,소득,규모)	195
그림 5-7. 비전 및 목표	198

그림 5-8. 연령·소득구간, 경지규모별 정책대상 .....	199
그림 5-9. 정책대상별 예산투자 방향 .....	199
그림 5-10. 정책성격별 예산투자 방향 .....	200
그림 5-11 “농촌생활소득의 보전” 주요 전략 .....	207
그림 5-12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 주요 전략 .....	207
그림 5-13. 10대 핵심사업별 추진시기와 주체별 역할 .....	208
그림 5-14. 충남 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분포도 (2013년 기준) .....	257
그림 5-15. 시·군별 전략 농수산물 예시(안) .....	265
그림 5-16. 산동성 영성시 해양박람회센터 .....	300
그림 5-17. 중국 농업부 관계자 충남도 농어업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방문 .....	304
그림 5-18. 충남 내 GAP 관리시설 현황 (2014년 기준) .....	309
그림 5-19. 중국의 고급건전복 및 건해삼 .....	311
그림 5-20. 중국의 고급해삼요리 .....	313
그림 5-21. 한중FTA 대책에 따른 충남 농림어업 3대 권역별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	323
그림 5-22. 충청남도 중장기 통합계획의 권역별 구분과 특성 .....	324
그림 7-1. 농식품부 분야별 예산 중 3개년 간 FTA 기금사업 .....	412
그림 7-2. 충남 농정구조 : 영역별 결산규모 (2014년 기준) .....	414

## 제1부 연구의 개요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2년 5월 2일 북경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중FTA의 본격적인 협상 시작
  - FTA 공식협상에 돌입한 지 2년 6개월 만에 타결, 2단계 협상구조 채택
  - 협상문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규정, 농식품 검역 등 22개 장 구성
- 2014년 11월 10일 북경에서 한중 정상 간 한중 FTA협상이 실질 타결됨을 공식 선언
  - 상품의 경우 중국은 품목 수 91%, 수입액 85%에 대해서, 한국은 품목 수 92%, 수입액 91%에 대해 각각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농산물의 경우 품목 수 70%, 수입액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
  - 우리나라는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한 세 번째 국가가 되었음
- 전국 기준 농림업 규모가 3위에 속하는 충남은 농도로서 농림수산업 분야 파급영향 예상
  - 중국은 우리나라 및 충남 제1의 교역국으로 한중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
  - 충남은 경지면적, 농림수산물 생산액 기준으로 전국 3위에 속하는 전형적인 농도(農道)임
  - 한중FTA로 인해 충남의 주력 품목군인 원예농산물 품목군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
  - 특히 농수산물 가공품목(TRQ허용)에 대한 우회적인 수입량이 점차 가시화, 증가 예상
- 파급영향에 따른 충남 농어업의 미래예측, 대응방향 및 세부전략 도출 필요
  - 농수산업은 그간 여러 차례의 FTA 등 수입개방 파고를 거치면서 직간접적 피해 누적 심각
  - 한중FTA체결에 따른 경영불안정성, 미래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위축요인 작용 중
  - 농가인구 감소와 노령화 추세에 따라 충남의 원예농산물 생산구조 변화에 큰 영향 예상
  - 한중FTA에 따른 충남의 15개 시군별 주력 품목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과 전략 도출 필요

### 2) 연구의 목적

- 한중FTA에 따른 충남의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계측
- 한중FTA에 따른 충남의 주요 피해품목에 대한 정밀진단
- 한중FTA에 따른 충남의 농림수산업 분야 대응방안 수립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 연구의 범위

- 시간 범위 : 2014년 기준
- 공간 범위 : 충청남도 전역
- 대상 범위 : 농림수산업 분야(※ 농업 중 축산물 제외, 임업 중 목재산업 분야 제외)
- 내용 범위(※ 과업지시서 상 명시된 내용)
  - 중국 농림수산물 생산·유통·소비시장 현황과 추이 분석
  - 충남 농림수산물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전체 피해영향 계측결과에 따른 충남의 피해규모(득과 실)
  - 한중 FTA에 대응한 충남의 주요 품목별 경쟁력 분석
  - 충남 농림수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발전방향
  - 분야별 차별화된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 지자체의 역할정립, 중앙정부 건의과제 발굴

### 2) 연구의 내용

- 중국 및 충남의 농림수산업 현황
  - 중국의 농림수산업 현황
  - 한국의 농림수산업 현황
  - 충남의 농림수산업 현황
- 한중FTA 체결과 영향분석
  - 추진경과 및 협상내용
  - 부문별 영향분석
  - 품목별 영향분석
- 충남의 농림수산물 주요품목 종합분석
  - 품목군별 중국의 정책이슈 분석

- 품목별 기초현황 분석
- 품목별 생산구조 분석
- 품목별 지역특화도 분석
- 품목별 비용비교 분석
- 품목별 교역구조 분석
- 품목별 경쟁력 분석
- 품목군별 설문조사 분석

#### ■ 충남의 기본구상과 대응방안

- 문제인식 및 핵심이슈
- 기본구상
- 충남의 대응방안
- 국내대책과 충남대책의 비교(정책과 예산)
- 권역별 기본구상

#### ■ 시군별 대응방안

- 소비교류 거점권역(북부권)
- 융복합 거점권역(서해안권)
- 지역성 지속권역(금강내륙권)

#### ■ 소요예산

- 연도별 소요예산
- 재원별 소요예산
- 재원마련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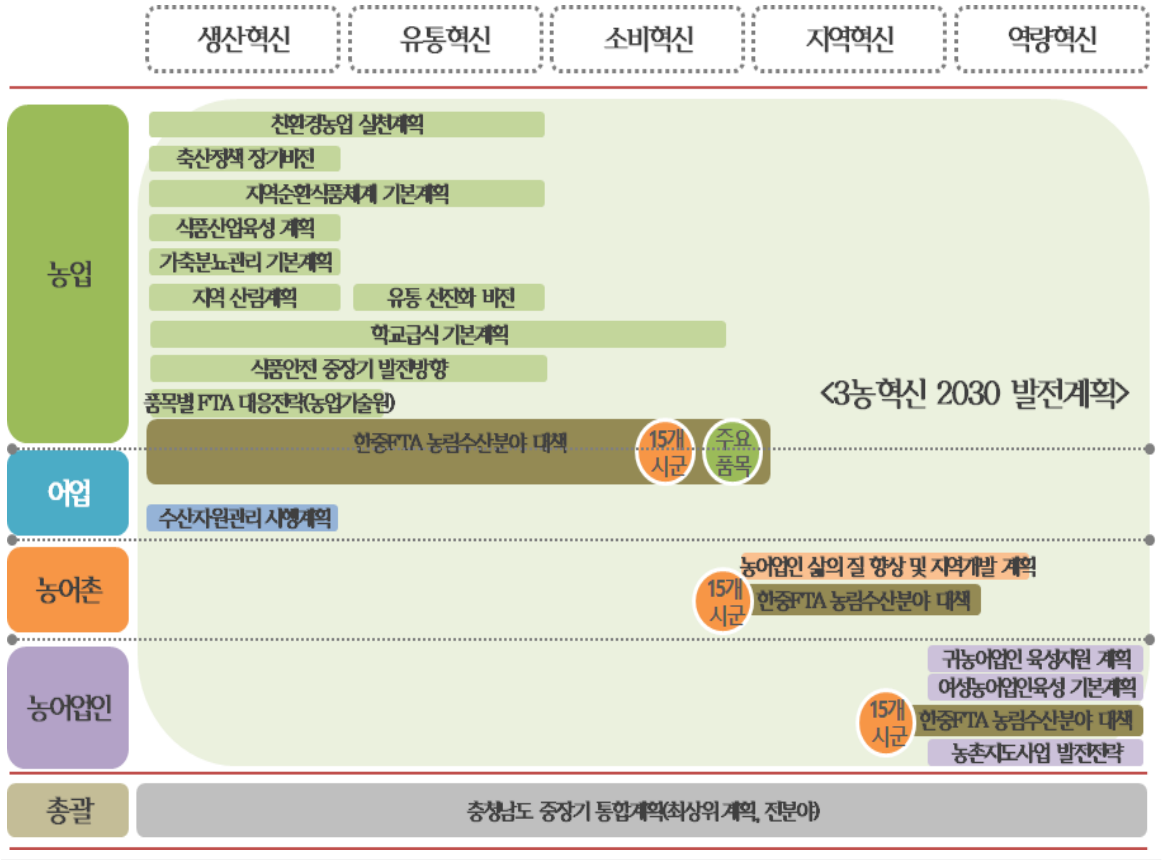
### 3) 연구의 성격 및 차별성

#### ■ 한중 FTA 대책의 성격

- 법정계획, 상위계획과 시군별 중장기 계획과의 중간지점 성격
- 산업중심적, 특정영역적 성격
- 한중FTA 발효에 따른 중국산 농림수산업 동향 등 정보제공 성격

그림 1-1. 충청남도 농정분야 상위계획 현황과 한중FTA 대책의 포지션

계획명칭	부문	영역	계획 구분
충청남도 중장기 통합계획(2011-2020)	전체	전영역	종합(최상위)
서해안비전 추진계획(2015-2030)	전체	해양 전영역	종합 계획
3농혁신 2030 발전계획(2015-2030)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	농정 전영역	종합 계획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계획(2011-2015)	농업	친환경	영역 계획
축산정책 추진전략과 장기비전(2015-2030)	농업	축산	부문 계획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2010-2021)	농업	축산	영역 계획
지역산림계획(2013-2017)	임업	산림	부문 계획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기본계획(2013-2015)	농업,농촌	유통	부문 계획
농산물 유통 선진화 비전(2014-2018)	농업	유통	영역 계획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시스템 기본계획(2013-2014)	농업	유통	영역계획
식품산업육성 계획(2011-2014)	농식품	식품	부문 계획
식품안전 중장기 발전방향(2013-2017)	농식품	식품	부문 계획
귀농어업인 육성지원 5개년 계획(2011-2015)	농어업인	인력	영역 계획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2011-2015)	농어업인	인력	영역 계획
농촌지도사업 10개년 발전전략(2013-2022)	농업인	인력	영역 계획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2015)	어업	자원	부문 계획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15-2019)	농어촌	삶의질	부문 계획
★ 한중FTA 농림수산물 분야 대책	농어업	산업전체 영역	부문 계획 (지역,품목,산업)
3농혁신과 연계한 충남농업의 품목별 FTA 대응 전략	농업	R&D	영역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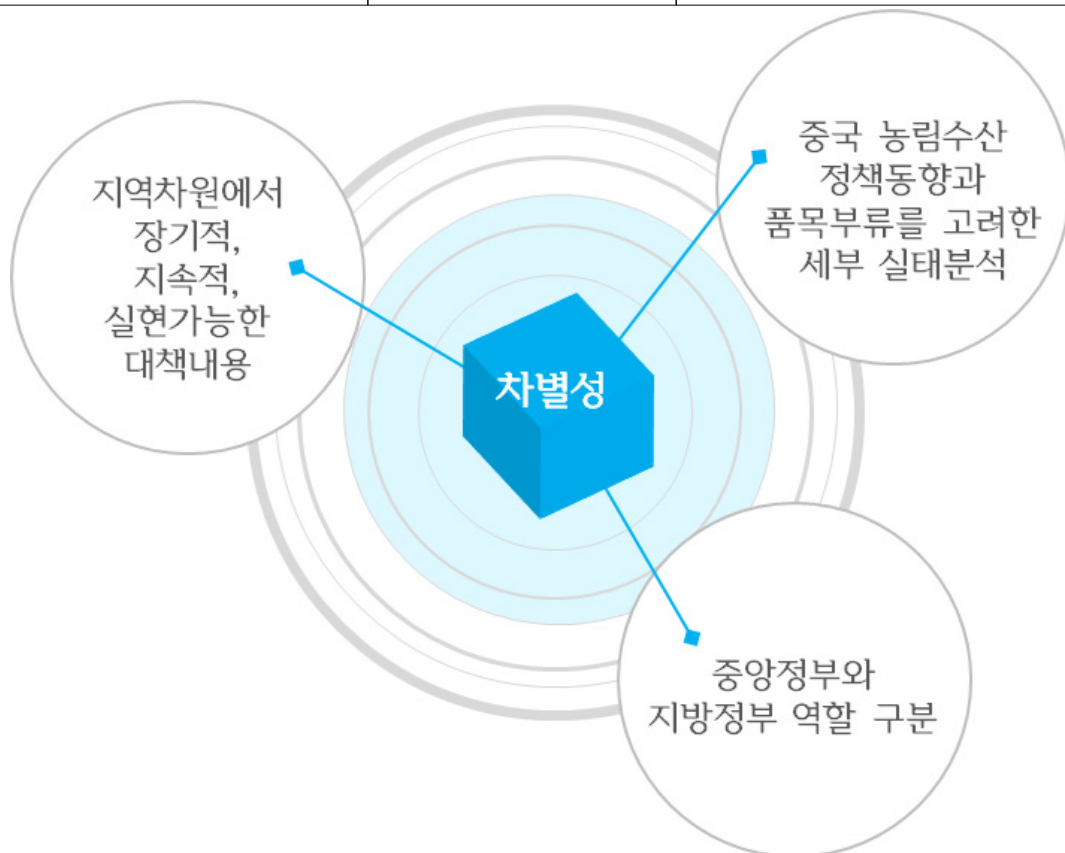


## ■ 한중FTA 대책의 차별성

- 산업중심적이고 특정영역적 성격을 기본으로 하되 농촌 영역 포함, 문화와 교류부분 확대
- 주요 피해품목 중심으로 시군별 대응방안 도출 등

그림 1-2. 연구내용의 차별성

기존 FTA 대책	구분	금번 FTA 대책
해당국 전체 현황분석	현황분석	중국 내 특정품목 부류 현황분석
정량적 파급 영향분석	영향분석	정성적 파급영향 분석 추가
직접피해 예상품목	경쟁력분석	간접피해 품목·품목부류 분석
경쟁력 제고 중심	발전방향	농촌생활소득과 농어업 지속성 중심
품목중심적 접근대책	대책성격	농어업과 지역연계 종합대책 지향
위기에 따른 방어전략	대응방향	지역 내 현실조정, 지역 외 교류지향
물적교류 중심(수출 등)	세부과제	인적교류 중심(문화, 지역성 등)
국가와 지역	역할분담	중앙정부 역제안, 충남과 시군 역할
정책평가 미이행	정책평가	정책평가 결과 반영한 대응방안
중앙대책 수립 시기중복	수립시기	중앙대책 이후 지역대책 수립



3. 연구의 추진체계

FTA 종합 대응체계도

- 한중FTA 대응 연구용역 자문단 : 도, 도의회, 학계·전문가, 3농혁신위원회 등
- FTA 대응 추진단 : 관련 실·국 실무부서 참여(실무총괄, 분야별 부서 최소 3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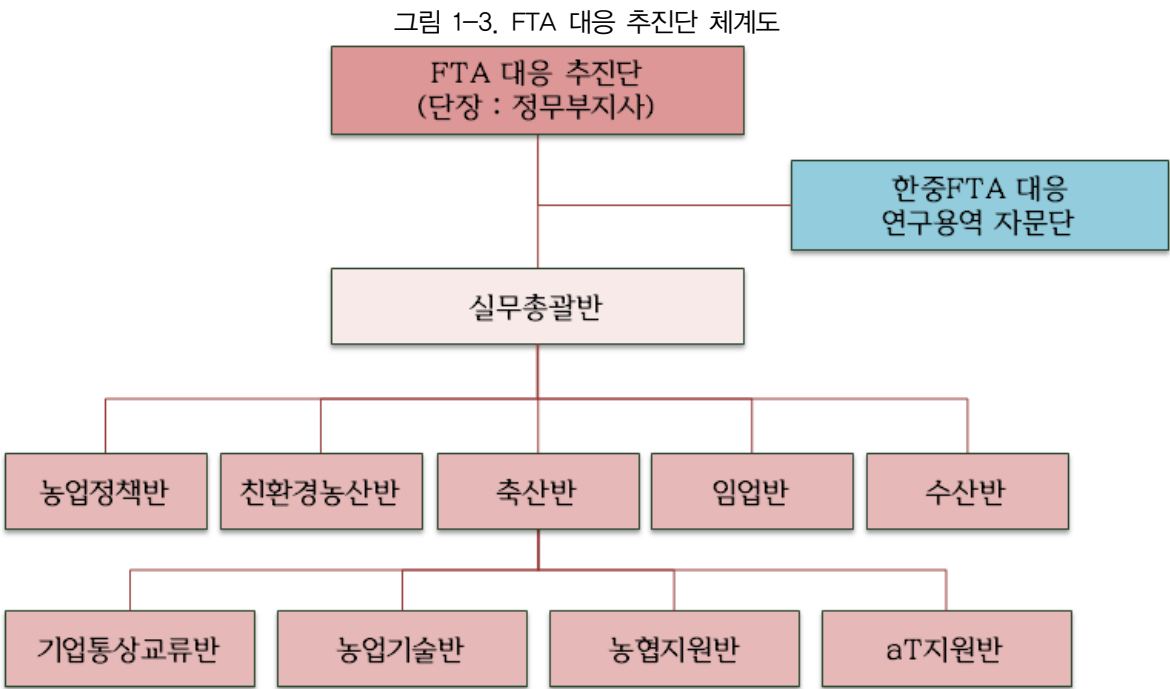


표 1-1. 연구진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직 급	전 공	주요 담당분야
연구책임	강 마 아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농업경제	연구총괄 품목분석, 기본구상, 충남과 시군 대응방안
연구간사	여 민 수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원	농업경제	연구보조 및 진행간사 자료수집, 기초현황 분석, 시군 대응방안
연구참여자	김 양 중	산업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미시경제	충남의 부문별 영향분석, 분석대상 품목 도출, 품목별 지역특화 분석
	박 경 철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농촌사회	중국 정책동향, 부문별(권익증진, 지역교류/협력) 대응방안, 시군 대응방안
	김 중 화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농업경제	부문별(수산업, 수출, 지역교류/협력) 대응방안 시군 대응방안
	김 정 하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원	공간개발	품목별 공간시각화, 종합분석도 등
외부전문가	리금	전국도시농업무역센터 연합회(全国城市农贸中 心联合会)	전문요원 (경제학 박사)	농업경제	중국 주요품목별 기초통계 총괄수집 및 정리, 각종 참고자료 제공 등
	리중수	중국청도농업대학(青岛 农业大学) 경제관리학원	부원장 (경제학 박사)	농업경제	통상 전반해석, 중국 농업정책 동향 정리, 각종 참고자료 제공 등

표 1-2. FTA 대응 추진단 실무작업반 구성

구 분	직 위(급)	성 명	연락처(행정)
〈실무총괄반장〉	농산물유통과장	추 욱	2560
실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병규	4152
주 무 관	지방행정주사	양근배	4165
〈농업정책반장〉	농업정책과장	방선엽	2510
실무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심후석	4003
주 무 관	지방농업주사	박유석	4021
〈친환경농산반장〉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	2520
실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길병성	4031
주 무 관	지방행정주사	이학규	4041
〈축 산 반 장〉	축산과장	오형수	2540
실무팀장	지방농업사무관	백두현	4091
주 무 관	지방농업주사	이형구	4102
〈임 업 반 장〉	산림복지과장	이돈규	2740
실무팀장	지방복지사무관	이상춘	4493
주 무 관	지방복지주사보	김영배	4508
〈수 산 반 장〉	해양정책과장	정낙춘	2760
실무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김중환	4752
주 무 관	지방행정주사	권경선	4765
〈기업통상교류반장〉	기업통상교류과장	고일환	2220
실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홍성갑	3343
주 무 관	지방행정주사	한소영	3360
〈농업기술반장〉	원예연구과장	이순계	6070
실무팀장	지방농업연구사	이두희	6043
〈농협지원반장〉	연합사업단장	윤일근	042-229-6231
실무과장	연합사업팀과장	송원섭	042-229-6235
〈aT 지원반장〉	수출유통부장	윤승식	042-389-5011
실무팀장	수출유통팀과장	조명희	042-389-5023

4. 연구의 방법 및 추진경과

■ 연구의 방법

그림 1-4. 연구의 방법



■ 연구의 추진경과

표 1-3. 연구의 추진경과

일자	내용
2월 16일	착수보고회
3월 03일	FTA대응추진단 1차 회의
3월 12일	도-시군 간 농정부서 합동워크샵 연구용역 설명회(*도청 주관)
3월 25일	개방대책 지역토론회 참석(*농림축산식품부 주관)
4월 ~ 5월	시군별 정책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통계자료 구축
6월 09일 ~ 6월 23일	1차 시군별 순회간담회
6월 30일	FTA대응추진단 2차 회의 및 1차 농산분야 워크샵
7월 16일 ~ 7월 24일	시군별 분석대상 품목 의견수렴
7월 30일	2차 수산분야 워크샵
8월 04일 ~ 8월 20일	농어업인 대상 설문조사(마을이장, 어촌계장)
8월 26일	중간보고회
9월 22일	전문가 워크샵
10월 20일	농어업인 현장간담회
11월 16일	최종보고회



## 5. 연구의 한계

### ■ 연구의 한계

- 본 연구주제가 중국 전체 對 충남 지역 구도로서 비교규모의 차이라는 태생적 한계
- 지역차원 한중FTA 대응책 마련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 중앙정부의 파급효과 결과 예의 주시
- 충남 지역통계 부족(지역 내 중국산 농수산물 및 가공품 유통실태 등 전무)
- 중국 정보접근 한계(중국의 특성상 정보접근성 제약조건 상존)
- 향후 한중FTA 대응방안(외부지향)과 현재 3농혁신(내부지향) 정책간 연계성 확보 문제

### ■ 연구의 핵심방향

-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할 수 있는 과제, 해야 할 과제 발굴 구분 명확화
-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장기 핵심프로젝트 설계 집중
- 기존 FTA 대책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한 충남 3농혁신의 가치를 담은 기본구상
- 중국의 농정전반 및 지역정부의 세부전략에 의거한 충남의 대응방안 도출 초점



## 제2부

### 중국 및 충남의 농림수산업 현황



## 제1장 중국의 농림수산업 현황



## 1. 정책동향

### 1) 2015년 중앙1호 문건<sup>1)</sup>

■ 농업정책으로 대표되고,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담겨있는 2015년도 중앙1호 문건에는 2004년 이후 3농문제에 초점이 맞춰있음

■ 2015년도 중앙1호 문건의 핵심은 작년의 ‘농촌개혁의 심화와 농업의 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이어 5대 중대(重大)와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개혁혁신 강화와 농업현대화 건설 가속화’ 하는 것임

#### • 5대 중대는 다음과 같음

- 중대 과제: 중국의 경제발전은 뉴노멀에 진입해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음. 경제증가속도가 둔화하는 배경에서 농업의 기초 지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촉진하는 방법
- 중대 시련: 국내 농업생산 비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벌크 농산물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보편적으로 높음. 이러한 ‘이중 압력’ 하에서 농업지원보장정책을 혁신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
- 중대 도전: 중국은 농업자원 부족, 개발 과도, 오염 과중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 자원환경의 하드웨어적인 구속 하에서 농산품의 효율적인 수급과 품질 안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을 보장하는 방법
- 중대 문제: 도시와 농촌의 자원 요소 유동을 가속화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관계가 증강됨. 도시화가 심도 있게 발전하는 배경에서 신농촌 건설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방법
- 중대 임무: 이러한 난제 해결이 향후 일정시기 ‘삼농’업무의 중대한 임무임

#### • 5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음

- 현대농업 건설을 위한 농업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 농민 소득증대 촉진을 위한 해농(惠农)정책 강도 확대
- 도농발전 통합화를 위한 신농촌 건설의 심도있는 추진
- 농촌의 발전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전면적 농촌개혁 심화
- ‘삼농’업무를 잘하기 위한 농촌 법치건설 강화

1)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http://moa.gov.cn>)

## 2) 채소산업정책

### (1) 채람자공정<sup>2)</sup>

■ 중국은 1988년 ‘채람자공정’이 실시되면서 농산물의 산출량과 품종 및 품질의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채람자공정(shopping basket program)은 1988년 식품공급 부족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농업부가 출범한 정책으로서 소비자가 소비하는 신선농산물을 말함
-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요구사항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10년 ‘신규 채람자공정의 통합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 새로운 ‘채람자공정’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갖고 있음

- 생산능력의 구축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를 잘 다짐
- 현대적 물류체계와 정보화에 초점을 둔 시장체계를 구축함
- 발전방식을 전환하여 품질안전 수준을 제고함
- 거시조정체계를 완비하고 과학기술 발전수준을 제고시킴
- 지역 간 녹색통로 개통, 농민전업합작회사와 슈퍼의 연결, 전국채소산업 발전규획 제정 등 시행함

### (2) 채소중점지역 발전계획(2009~2015년)<sup>3)</sup>

■ 중국의 채소산업은 빠른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동안 통일된 발전계획이 없기에 생산지역 배치가 불합리하고, 시장공급이 불안정함

- 이에 중국정부는 ‘전국 채소 중점지역 발전계획’을 실행하여 채소산업을 비교우위지역에 집중시켜 생산지역 배치를 최적화 하고 시장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농민소득 증대를 꾀함

■ 채소중점지역 발전계획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음

- 목표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교우위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
- 안전채소 생산 원칙을 견지함
-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음
- 중점생산지역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원칙을 견지함

2) 자료 : 중국농업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년 가을호)

3) 자료 : 중국농업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년 가을호)



■ 2015년까지 강한 시장경쟁력과 특색을 갖춘 8개 채소 중점생산지역을 우선적으로 건설함

- 이들 지역의 채소 파종면적, 생산량, 수출량, 수출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2%, 48%, 90%, 9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채소 상품의 품질은 무공해식품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상품화율과 정밀가공율은 65% 이상이 되도록 함
- 채소 생산 특징에 맞추어 8개 중점생산지역(657개 현)을 선정함-화남, 장강, 황토고원, 운귀고원, 환황해환발해, 동남연해, 서북내륙, 동북변경

(3) 전국채소산업 발전계획(2011~2020년)<sup>4)</sup>

■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상무부, 수리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통계국 등은 2012년 1월 ‘전국채소산업 발전계획(2011~2020)’을 발표함

- 이 계획은 연구조사를 진행하여 중국 채소산업 발전성과 경험을 종합하였고, 채소생산 및 소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와 원인을 분석함. 또한 향후 10년간 채소산업 발전에 대한 수요도 함께 분석해 대책을 마련함

■ 전국채소산업 발전계획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각종 생산요소가 적절한 곳에 배치되어 채소의 생산 및 유통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시장공급 안정화를 꾀함
- 생산의 표준화를 실시하여 상품의 품질 및 안전 수준을 제고함
-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여 생산과 유통을 인도하도록 함
- 농민전업합작사와 농업 선도기업을 발전시켜 조직화 및 산업화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 시스템과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하여 시장과 가격의 파동을 억제하도록 함

■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채소산업 발전의 기본 근거가 될 것임

3) 중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정책<sup>5)</sup>

(1) 농업무역 촉진계획(2011~2020)

■ 국제 농산물 시장의 경쟁이 과열화 되고 농산물 수출 증가가 농민의 수입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며 농산물 수출이 식량안보와 농업발전방식 개선에 기여함에 따라 중국은 기존의 농산물 무역정책을 바탕으로 ‘농업무역 촉진계획(2011~2020)’을 발표함

■ 농업무역 촉진계획의 5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4)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중국농업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년 가을호)

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제175호(2015.3)

- ① 농산물 무역체제 완비, ② 농산물 우수브랜드 개발, ③ 농산물 수출시장 다변화, ④ 농산물의 수량과 품질 안정성 제고, ⑤ 농업의 산업안전보장능력 향상의 5가지 주요목표를 중심으로 3가지 중점 추진계획을 제시함

### ■ 농업무역 촉진계획의 3가지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농산물의 대외 마케팅 촉진 업무 강화
  - 수출농산물 시범기지 건설 장려
  - 수출농산물 브랜드 개발 지원
  - 농산물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농산물 수출 시범 기업의 육성
  - 국제적 수준의 농업박람회 유치
  - 기업과 협회의 국제전시회 참여 유도
- 농산물 무역 정보체계화 구제업무 추진
  - 농업부문 산업피해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체계 강화
  - 핵심농산물의 수출모니터링과 조기경보체계 강화
  - 다자간, 양자간 농업협력 강화
- 농산물 무역정보와 연구업무 강화
  - 농산물 무역정보 수집과 DB구축 강화
  - 농산물 무역 정보서비스 수준 제고
  - 농산물 무역 관련 연구수준 향상

### (2) 중국의 농산물 수출 5대전략 및 수출지원정책<sup>6)</sup>

#### ■ 농산물 수출 5대 전략

-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노동집약형 농수산물 수출의 지속적 확대
- 수출농식품의 품질경쟁력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고품질 기반 구축에 집중 투자
-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TBT(무역기술장벽) 등 수출대상국 비관세장벽 극복
- 전통적 수출시장(일본, 한국, 홍콩) 등 시장점유율 유지 및 확대
- 잠재시장과 신흥시장 시장개척 및 다변화 도모

#### ■ 수출지원정책

- 무역촉진 및 무역정보서비스를 위하여 정책자금지원, 금융서비스, 교육훈련서비스, 법률서비스, 시장서비스 등을 제공함

6) 자료 : 정민국 외(2013), 한권으로 보는 중국 농업, 중국농업자료집 D3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기타 수출장려 정책

#### ■ 철도 수송비의 면제

- 2002년부터 국내시장 판매를 위한 식량수송비를 면제하였으나, 이 규정을 2006년부터 수출 농산물에도 적용하여 철도를 이용한 수출농산물 수송비를 면제함

#### ■ 농산물무역촉진자금 지원

- 중국은 2005년부터 농산물, 경공업제품 및 방직품 산업의 구조조정, 품질제고 및 국제경쟁력 제고와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 경공업제품, 방직품 무역촉진자금잠정 관리법’을 시행함. 이 법에 의거 2008년도 농산물 무역촉진자금 신청업무 수행에 관한 통지를 공고
- 이 통지는 단순한 무역촉진이 아니고 수출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지원임

표 2-1. 농산물무역촉진자금 내역

구분		내용
지원영역	수출농산물산업 내 공공기술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산업 내 수출조직, 기업, 기타사회단체 등, 기업의 독립투자, 합작, 공동창업 등을 포괄함</li> <li>· 지원분야 : 수출시장, 연구개발설계품질제어상품검사 등에 필요한 기술과 설비, 실기술 표준 제정교류보급자문훈련수출상품 자체검사사전검사 등 서비스 제공</li> </ul>
	수출농산물 이력추적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수출기업이 GAP, HACCP, 유기농산물기준 등을 위한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li> <li>· 기업 의무사항 :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후 농약수의약품종묘종축농작물 재배양식유통 등의 내용을 기록</li> </ul>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 무역 촉진 프로젝트별로 부분지원</li> <li>· 중서부와 동북지역은 프로젝트당 실제 투자액의 70%, 기타 지역은 50%를 초과하지 않음</li> <li>· 농산물 수출 산업 내 공공기술 플랫폼에 대한 지원 금액은 2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음</li> <li>· 이력추적제 구축을 위한 지원금액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음</li> </ul>
심사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부·재정부 합동으로 관련 법규에 의거, 신청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지원금액을 확정함</li> <li>· 지방기업이 수행한 프로젝트는 성급 상무부서 검수합격 이후 성급 재정 부서에 지급심의와 허가를 신청함</li> </ul>

#### ■ 농산물 검사검역비 감면

- 2010년 국무원이 발표한 ‘도농발전의 전면적 확대를 꾀하고 농업농촌의 기초발전 진일보를 위한 의견’에 따라 농산물의 대외 무역과 농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실시하고 있는 검사검역 수출입 상품 목록 중의 농산물 수출입 검사검역비는 면제받음

## 4) 최근 중국농업 동향

표 2-2. 최근 3년간 중국농업동향

시기	내용	영역
2015.09.27	2020년까지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촌지역 빈곤인구의 구제	농정 일반
2015.09.24	슈퍼배 신품종 시험재배 성공	생산
2015.09.25	농업분야 전자상거래 발전계획 발표	유통
2015.09.22	연간 국내관광객 36억 명 중 절반이 농촌관광 선택	농정 일반
2015.09.19	중국 종자산업 완전시장경쟁단계 진입	생산, 유통
2015.09.22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 정책 발표	농정 일반
2015.08.28	중국은 유전자변형 제품 표시가 가장 많은 국가	농정 일반
2015.08.25	국가 현대농업과학기술 시범지역 발표	농업 기술
2015.08.25	농촌 도급토지경영권 및 농민주택 재산권 담보대출 시범사업 실시	농정 일반
2015.08.14	농간지역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전략 발표	생산
2015.08.19	농작물 병충해 방제 위해 6.5억 위안 예산 배정	생산
2015.08.12	도급토지 유상회수 시범사업 실시	농정 일반
2015.08.07	농업부 유전자변형 농산물 심사방법 제정	식품안전
2015.08.10	2015년 농산물에 대한 저울관세할당(TRQ) 재배정	교역
2015.08.05	중국산 영유아 조제분유 중 10%가 불합격 판정	식품안전
2015.08.04	재정부, 규모화 영농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실시	생산
2015.08.04	농업 신용대출 담보시스템 3년 내 전국 실시 예정	농정 일반
2015.08.01	국내 외 가격 격차로 인해 식량 생산량, 수입량, 저장량 모두 증가	생산, 교역
2015.07.30	농민전업합작조직 발전 위해 중앙재정 20억 위안 투입	농정 일반
2015.07.24	2020년까지 화학비료, 농약사용량 증가율 0% 달성 계획	농정 일반
2015.07.22	식량품질안전 관리감독 방법 발표	농정 일반
2015.07.22	농촌 빈곤지역 지원 및 개발에 중앙재정 140억 위안 배정	농정 일반
2015.07.17	쌀, 밀에 대한 최저수매가격제 지속 실시	농정 일반
2015.07.16	중국 하곡 총 생산량 1억 4,106만 톤	생산
2015.07.08	2014년 전자상거래 통한 농산물 거래액 1천억 위안 초과	유통
2015.06.12	소고양고기 총 생산량 1,300만 톤 예상	생산
2015.06.14	2014년 축산업 총 생산액 2.9조 위안 돌파	생산
2015.05.28	2020년 농업성장에서 과학기술 기여율 60% 이상 도달	농업 기술
2015.06.11	상무부 인터넷 유통 행동계획 발표	유통
2015.05.22	보조정책 조정 통해 식량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	농정 일반
2015.05.04	농업부, 종자산업 발전 위한 정책 발표	생산
2015.04.28	운남성 지리적 표시 상품의 연간 생산액 519억 위안에 달해	생산, 유통
2015.04.27	새로운 식품안전법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	식품안전
2015.04.08	2015년 중앙재정 통한 농업보조 1,434억 위안 규모	농정 일반
2015.03.06	2014년 중국 식량 수입량 1억 톤에 달해	교역
2015.03.06	2014년 중국 식량 수입량 1억 톤에 달해	교역
2015.03.06	유전자변형(GMO)분야 기술혁신 장려	농업 기술
2015.02.05	중국 아이스크림 시장, 한국 제품이 주도	소비
2015.01.27	강소성, 2014년 불합격 처리된 수입식품 321.7만 달러에 달해	소비
2015.01.22	2014년 중국 요식업 매출액 2.8조 위안에 달해	소비
2015.01.16	2012~14년 농산물 단순가공시설에 대해 16억 위안 보조	유통
2015.01.07	중국, 내염성 대두 유전자연구에 큰 진척	농업 기술
2015.01.01	하남성 정주시에 육류수입 전용항구 건설	교역
2014.12.24	중국, 식품안전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	농정 일반
2014.12.20	한국, 온라인쇼핑몰 통한 대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추진	교역
2014.12.05	2014년 식량 총생산량, 6억 710만 톤 기록	생산
2014.12.4	농업의 브랜드화 발전을 위해 “농산물 브랜드 목록제도” 실시 예정	유통
2014.12.01	올해 흑룡강성 식량 총생산량 6,800t에 이를 전망	생산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동향스크랩(<http://www.krei.re.kr/web/www/51>)

표 2-2. 중국농업동향(계속)

시기	내용	영역
2014.12.08	채소 생산기지 건설을 통한 채소의 수급 안정 도모	생산, 유통
2014.11.29	정주시, 항공물류 통한 최대 수입과일집산지로 부상	교역
2014.11.27	중국 이리그룹, 뉴질랜드에 세계 최대 유제품 생산기지 설립	생산, 교역
2014.11.28	2015년까지 5천만 톤에 이르는 식량 비축창고 건설	유통
2014.11.25	세계 대두 교역량의 65%를 중국이 수입	교역
2014.11.06	중국 최대의 인삼시장 개장	교역
2014.10.30	전자상거래 통한 농산물 판매액 연 200% 증가	유통
2014.10.09	방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삼계탕, 홍삼이 큰 인기	소비
2014.10.09	중국, 올해 8월까지 영유아 조제분유 7,89만 톤 수입	교역
2014.10.10	식량 생산 후 손실량, 매년 3,500만 톤에 달해	생산
2014.10.9	중국, 황금연휴 기간 대중외식소비 큰 폭 증가	소비
2014.09.23	중국, 세계 4위의 유기식품 소비국으로 부상	소비
2014.09.23	2014년 농작물 우량종자 보조금으로 214억 위안 지급	농업 기술
2014.09.20	길림성 무송현, 인삼 홍보를 위한 이벤트 개최	유통
2014.09.18	버섯, 중국 제5대 농산물로 부상	생산
2014.09.09	중국의 유제품 수입 급증	교역, 소비
2014.09.08	북경시 농업기업, 타 지역에서 채소 재배할 경우 정부보조금 지원	생산
2014.09.06	산동성, 수입 유기농과일에 대해 처음으로 입국검사 실시	교역
2014.08.12	중국의 식량 수입량, N자형으로 증가	교역
2014.08.21	상반기 대형 농산물가공기업의 매출액 10% 증가	소비
2014.08.12	조선족 김치제조기술, 중국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	소비
2014.07.13	중국 대도시 사무직계층 40%가 외식	소비
2014.08.22	중국, 식량 수입량 상반기에 급증	교역
2014.08.07	중국, 대량의 육류 수입은 없을 것으로 예측	교역, 소비
2014.08.04	상반기 채소 수출액 9% 증가	교역
2014.07.09	농업부 12개 품종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허가	교역
2014.07.03	올 하반기 중국 농업발전이 직면한 5가지 문제	농정 일반
2014.06.26	최근 5년간 중국의 식품 순수입 규모 2.3배 증가	교역
2014.06.26	중국의 냉동식품산업, 매년 10% 이상 성장 전망	소비
2014.05.28	농업부, 시설채소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마련 중	생산
2014.05.29	발작물 농업기술 보급 위해 10억 위안의 정부예산 배정	농정 일반
2014.05.23	농업부, 시설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농정 일반
2014.05.14	절강성, 100만 무의 식량생산기능구역 신설	생산
2014.05.13	중국, 하이브리드 벼의 전세계 보급 확대 추진	생산
2014.05.06	상무부, 수출입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교역
2014.04.29	대도시 채소경작지, 기본 농경지로 영구 난입	생산
2014.04.11	2013년 6억 톤의 식량생산 능력 달성	생산
2014.04.12	절강성 온주시, 2014년 1분기 식품수입액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	교역
2014.03.26	시설채소 재배면적 5,700만 무, 대도시 자급률은 70% 이하	생산
2014.02.14	돼지고기 수입 증가가 국내시장에 영향 초래	교역
2014.02.12	중국 식량정책의 전환 : 식량 수입규모 적절히 확대	농정 일반
2014.01.29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 증가 추세	교역
2013.11.29	10년 연속 식량 증산 전망, 2013년 식량 생산량 6억 194만 톤	생산
2013.06.20	중국 유제품 수입 급속 증가	교역, 소비
2013.06.15	농업부, 유전자변형 대두 수입 승인	농업 기술
2013.05.23	유기농 우유, 고급시장 성장점으로 등극	소비
2013.03	FTA 배경 하의 한·중 농산품 무역 문제 분석	교역
2013.04.08	중국, 돼지고기 비축 착수	생산, 소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동향스크랩(<http://www.krei.re.kr/web/www/51>)

## 2. 교역동향

### 1) 전체 수출입

■ 2014년 중국의 총 교역량은 4조 3천억 달러로 이는 전년도의 약 4조 1천억 달러보다 약 4% 증가한 수치임

- 2014년도 수출액은 약 2조 3천억 달러로 전년도 보다 약 6%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1조 9천억 달러로 전년도 보다 약 1% 가량 증가함
- 최근 5년간 연평균 9.9%의 교역량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수출은 10.5%, 수입은 9.3%로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2014년 한국과의 교역은 약 3천억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약 7%를 차지함

- 중국의 교역에 있어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평균 6.7%임
- 한국과의 교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연평균 수출 증가 10.1%, 수입증가 8.5%)
- 2014년 한국으로의 수출은 약 1천억 달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천 9백억 달러로 이는 전년도 보다 각각 10.8%, 6.1% 증가한 수치임

표 2-3. 중국의 전체 수출입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액	1,578,444,201	1,899,314,102	2,050,109,239	2,210,771,856	2,343,222,126
수입액	1,393,909,267	1,741,624,120	1,817,344,026	1,941,465,999	1,963,105,197
총 교역량	2,972,353,468	3,640,938,222	3,867,453,265	4,152,237,855	4,306,327,323
대(對)한국 수출액	68,810,578 (4.4)	82,924,697 (4.4)	87,646,836 (4.3)	90,652,715 (4.1)	100,401,646 (4.3)
대(對)한국 수입액	138,023,449 (9.9)	161,673,311 (9.3)	166,589,712 (9.2)	179,358,591 (9.2)	190,286,020 (9.7)
대(對)한국 교역량	206,834,027 (7.0)	244,598,008 (6.7)	254,236,548 (6.6)	270,011,306 (6.5)	290,687,666 (6.8)

주 : ( )은 중국의 수출(수입)액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2) 농수산물 수출입

■ 2014년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694억 달러로 이는 전년도의 654억 달러보다 약 6% 가량 증가한 수치임

- 최근 중국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0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약 13% 대의 수출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체 수출액 중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약 3.0%임
- 2014년기준 농수산물 중 가장 수출이 가장 많은 품목군은 hs03류(어패류), 16류(육어류 조제품), 07류(채소), 20류(채소과실 조제품)로 각각 20.3%, 12.8%, 11.9%, 11.0%의 비중을 차지함
-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군은 hs05류(기타 동물성 생산품), hs13류(식물성 엑스), hs23류(조제사료) 순으로 나타남
- hs10류(곡물)의 경우 2008년까지 수출이 꾸준히 늘었지만 중국정부의 곡물류 수출제한조치로 인하여 수출량은 감소추세임
-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은 일본, 홍콩, 미국, 한국 등이며, 주요 수출지역은 산둥, 복진, 광둥, 요녕, 절강 등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표 2-4. 중국의 농수산물 수출액

(단위 : 천 달러)

HS	종류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01	산동물	328,757	451,863	570,854	583,237	580,662	585,548
02	육과 식용설육	742,376	993,865	1,075,527	980,662	988,491	1,182,216
03	어패류	4,360,735	8,815,893	10,989,851	11,341,119	12,530,961	14,080,214
04	낙농품조란천연꿀	267,628	404,499	498,660	533,954	544,960	586,099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1,011,293	13,574,176	1,839,103	2,057,234	2,201,008	2,293,419
06	산수목·꽃	77,129	205,796	229,370	256,206	277,086	411,957
07	채소	3,053,701	7,477,785	8,721,251	6,913,259	7,867,858	8,229,272
08	과실견과	1,067,668	2,678,191	3,189,172	3,772,560	4,173,057	4,318,017
09	커파차향신료	926,855	1,656,608	2,204,301	1,940,090	2,245,742	2,451,639
10	곡물	1,412,713	539,157	608,561	362,627	513,997	445,365
11	제분공업제품	200,045	551,328	586,747	602,352	610,904	612,540
12	채유·종자·공용·용식물 사료	1,383,574	2,047,797	2,346,101	2,628,084	2,925,193	3,116,670
13	식물성 엑스	113,152	646,833	981,429	989,444	1,151,887	1,305,569
14	기타 식물성 생산품	49,260	63,681	85,255	91,340	89,260	103,615
15	동식물성 유지	284,085	369,837	544,217	562,813	607,052	644,750
16	육어류 조제품	4,367,779	5,868,474	7,866,533	8,952,345	8,983,171	8,880,410
17	당류 및 설탕과자	422,787	1,061,877	1,289,977	1,266,653	1,451,970	1,540,510
18	코코아 및 그 제품	110,485	212,635	314,925	332,968	386,287	475,789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760,096	1,159,356	1,504,608	1,500,490	1,531,777	1,574,846
20	채소·과실 조제품	3,098,770	5,548,616	6,984,435	7,564,903	7,861,400	7,636,485
21	기타 조제식료품	710,464	1,564,015	2,007,727	2,223,140	2,465,546	2,712,848
22	음료, 주류 및 식초	714,903	994,984	1,183,256	1,381,489	1,341,567	1,651,583
23	조제사료	478,567	1,954,489	2,057,470	2,933,126	2,735,441	3,260,689
24	담배	535,960	1,020,303	1,140,519	1,261,905	1,321,144	1,283,912
	계	26,478,782	59,862,058	58,819,849	61,032,000	65,386,421	69,383,962

주 : 전체 hs코드 83개 중 농수산물에 해당되는 1~24류를 분석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제2부 중국 및 충남의 농림수산업 현황

■ 2014년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1,082억 달러로 이는 전년도의 1,008억 달러보다 약 7% 가량 증가한 수치임

- 최근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200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약 19%대의 수입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체 수입액 중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약 5.5%임
- 2014년기준 농수산물 중 가장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군은 hs12류(채유용 종자, 공업용·약용 식물, 사료), 15류(동식물성 유지)로 각각 42.4%, 8.4%의 비중을 차지함
- 한편 hs12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두(1201류)로서, hs12류 중 약 88%의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이 수입하는 농산물 중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군은 hs02류(육과 식용설육), hs04류(낙농품조란·천연꿀), hs19류(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순으로 나타남
- 농산물의 주요 수입시장은 미국,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며, 주요 수입지역은 산둥, 광둥, 북경, 상해, 강소 등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표 2-5.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액

(단위 : 천 달러)

HS	종류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01	산동물	109,017	274,362	377,094	511,009	432,993	835,817
02	육과 식용설육	587,194	2,223,429	3,405,881	4,106,091	5,926,908	5,838,137
03	어패류	2,890,266	4,371,049	5,585,105	5,492,389	5,995,250	6,598,191
04	낙농품조란·천연꿀	462,431	1,999,748	2,658,344	3,254,484	5,244,621	6,488,664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220,483	416,755	427,907	445,406	497,123	478,306
06	산수목·꽃	68,660	103,137	129,043	136,752	173,776	191,282
07	채소	523,769	1,513,104	1,823,773	2,407,766	2,548,539	2,592,332
08	과실·견과	656,290	2,136,087	3,034,858	3,803,386	4,088,034	5,132,090
09	커파차·향신료	41,700	149,998	232,540	306,268	254,920	342,568
10	곡물	1,394,914	1,501,426	2,014,071	4,749,854	5,053,669	6,174,770
11	제분·공업제품	174,669	451,859	540,410	577,584	799,653	962,531
12	채유용종자·공업용·약용 식물·사료	8,159,002	27,058,697	32,146,751	38,534,535	42,651,603	45,954,087
13	식물성 엑스	63,172	120,859	160,384	203,678	224,349	234,481
14	기타 식물성 생산품	67,981	200,644	244,025	192,629	184,954	198,317
15	동식물성 유지	3,306,835	8,884,142	11,538,692	13,043,066	10,829,405	9,123,601
16	육어류 조제품	28,781	100,280	180,958	183,082	197,184	249,102
17	당류 및 설탕과자	451,629	1,032,572	2,131,586	2,544,000	2,362,073	1,786,272
18	코코아 및 그 제품	176,884	437,254	604,623	623,965	714,467	870,917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40,063	1,220,117	1,630,511	1,949,166	2,584,248	2,814,851
20	채소·과실 조제품	156,935	463,192	592,098	623,640	662,065	766,112
21	기타 조제식료품	304,079	682,751	859,305	963,112	1,205,985	1,406,117
22	음료, 주류 및 식초	409,459	1,649,794	2,557,422	3,102,136	3,057,019	3,151,988
23	조제사료	1,305,156	3,231,333	3,100,352	3,051,176	3,654,043	3,983,046
24	담배	383,809	790,712	1,137,964	1,316,016	1,459,659	2,092,762
계		22,183,178	61,013,301	77,113,697	92,121,190	100,802,540	108,266,341

주 : 전체 hs코드 83개 중 농수산물에 해당되는 1~24류를 분석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3. 생산동향

#### 1) 국내총생산

- 2013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6천 364억 위안으로 이는 전년대비 8.2% 상승한 수치임
- 2014년기준 산업별 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3차산업이 4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차산업은 42.6%, 1차산업은 9.2%의 비중을 차지함
- 1차산업의 경우 2001년 14.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4년 9.2%로 4.9%p하락하였고, 제조업, 건설업 등 2차산업 역시 2001년 44.7%에서 2014년 42.6%로 2.1%p 하락함
- 그러나 3차산업의 경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며 2014년의 경우 전체 GDP의 48.2%를 차지함
- 2014년 1인당 GDP는 46,652백만 위안으로 이는 전년대비 약 7.7% 상승함. 1인당 GDP는 최근 5개년(2010~2014년) 연평균 11.2%의 상승을 기록함

표 2-6. 중국의 국내총생산

(단위 : 백만 위안, 위안, %)

구분	2001	2004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1차산업 (백만 위안)	15,548 (14.1)	20,893 (13.0)	27,874 (10.4)	39,255 (9.6)	45,992 (9.5)	50,742 (9.5)	55,274 (9.4)	58,555 (9.2)
2차산업 (백만 위안)	49,291 (44.7)	73,607 (45.8)	125,165 (46.7)	188,913 (46.2)	223,181 (46.1)	240,355 (45.0)	256,964 (43.7)	271,133 (42.6)
3차산업 (백만 위안)	45,542 (41.3)	66,214 (41.2)	114,980 (42.9)	180,735 (44.2)	214,467 (44.3)	243,026 (45.5)	275,781 (46.9)	306,775 (48.2)
총 GDP (백만 위안)	110,270	160,714	268,019	408,903	484,124	534,123	588,019	636,463
1인당 GDP (위안)	8,670	12,400	20,337	30,567	36,018	39,544	43,320	46,652

주 : ( )는 총 GDP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중국통계연감(<http://www.stats.gov.cn>)

#### 2) 농촌인구 및 농업생산

- 2014년 중국의 총 인구수는 약 13억 6천 명으로 전년대비 약 0.5% 증가함
- 2014년 기준 중국의 도시인구는 약 7억 3천만 명, 농촌인구는 약 6억 3천만 명으로 각각 53.7%, 46.3%의 비중을 차지함
- 최근 5개년간 중국의 연평균 인구는 약 0.5% 증가하였고 도시인구는 3.2% 증가한 반면 농촌인구는 2.2% 감소함
- 2001년의 경우 농촌인구의 비중이 62.3%, 도시인구가 37.7%로 농촌인구의 비중이 약 24.6%p 높았지만 최근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농촌인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도시인구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제2부 중국 및 충남의 농림수산업 현황

표 2-7. 중국의 농촌인구

(단위 : 만 명)

구분	2001	2004	2007	2010	2011	2012	2013	2014
도시인구	48,064 (37.7)	54,283 (41.8)	60,633 (45.9)	64,512 (48.3)	66,978 (49.9)	69,079 (51.3)	71,182 (52.6)	73,111 (53.7)
농촌인구	79,563 (62.3)	75,705 (58.2)	71,496 (54.1)	68,938 (51.7)	67,113 (50.1)	65,656 (48.7)	64,222 (47.4)	62,961 (46.3)
총인구	127,627	129,988	132,129	133,450	134,091	134,735	135,404	136,072

주 : ( )는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http://data.stats.gov.cn>)

### ■ 2012년 중국의 농작물 재배면적은 약 1억 6천3백만 ha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부류별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그 비중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
- 가장 큰 변화는 식량작물임. 식량작물은 1991년 75.1%의 비중을 차지하다가 2012년도에는 68.1%로 약 7%p가 감소함
- 반면 채소 및 과수면적은 각각 4.4%에서 12.5%, 3.6%에서 7.4%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표 2-8. 중국의 농작물 재배면적

(단위 : 천 ha)

구분	1991	2008	2009	2010	2011	2012
식량작물	112,314 (75.1)	106,793 (68.3)	108,986 (68.7)	109,876 (68.4)	110,573 (68.1)	111,205 (68.1)
유지작물	11,530 (7.7)	12,825 (8.2)	13,654 (8.6)	13,890 (8.6)	13,855 (8.5)	13,930 (8.5)
면화	6538 (4.4)	5,754 (3.7)	4,949 (3.1)	4,849 (3.0)	5,038 (3.1)	4,688 (0.9)
마류	453 (0.3)	221 (0.1)	160 (0.1)	133 (0.1)	118 (0.1)	101 (0.1)
당료	1,947 (1.3)	1,990 (1.3)	1,884 (1.2)	1,905 (1.2)	1,948 (1.2)	2,030 (1.2)
엽연초	1,804 (1.2)	1,326 (0.8)	1,391 (0.9)	1,345 (0.8)	1,461 (0.9)	1,597 (1.0)
채소	6,546 (4.4)	17,876 (11.4)	18,390 (11.6)	19,000 (11.8)	19,639 (12.1)	20,353 (12.5)
약재	169 (0.1)	1,194 (0.8)	1,181 (0.7)	1,242 (0.8)	1,385 (0.9)	1,560 (1.0)
과수	5,318 (3.6)	10,734 (6.9)	11,140 (7.0)	11,544 (7.2)	11,831 (7.3)	12,140 (7.4)
기타	7,521 (5.0)	6,029 (3.9)	5,686 (3.6)	6,047 (3.8)	5,876 (3.6)	5,544 (3.4)
합계	149,586	156,266	158,614	160,675	162,283	163,416

주 : ( )는 총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중국통계연감(<http://www.stats.gov.cn>)

■ 2013년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총 생산액은 96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약 8.4% 증가함

- 1990년과 비교했을 때 재배면적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꾸준한 생산성 증가로 1,00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중국의 농업생산은 비약적으로 증가함
- 특히 농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축산업과 수산업의 비중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2009~2013)간 부류별 연평균 생산액 증가량은 농업이 13.8%, 임업이 15.6%, 축산업이 10.2%, 수산업이 14.4%로 총 12.6%의 성장률을 기록함

표 2-9. 중국의 농림수산업 생산액

(단위 : 천만 위안)

구분	1990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업생산액	4,954 (64.7)	13,874 (55.7)	30,778 (51.0)	36,941 (53.3)	41,989 (51.6)	46,940 (52.5)	51,497 (53.1)
임업생산액	330 (4.3)	937 (3.8)	2,193 (3.6)	2,595 (3.7)	3,121 (3.8)	3,447 (3.9)	3,902 (4.0)
축산업생산액	1,967 (25.7)	7,393 (29.7)	19,468 (32.3)	20,826 (30.0)	25,771 (31.7)	27,189 (30.4)	28,435 (29.3)
수산업생산액	411 (5.4)	2,713 (10.9)	5,626 (9.3)	6,422 (9.3)	7,568 (9.3)	8,706 (9.7)	9,635 (9.9)
합계	7,662	24,916	60,361	69,320	81,304	89,453	96,995

주 : ( )는 총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http://data.stats.gov.cn>)



## 제2장 한국의 농림수산업 현황



## 1. 정책동향<sup>7)</sup>

### 1)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조직화·규모화) 들녘단위 공동경영체, 받기반정비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생산 비절감, 품질제고로 영세농의 한계를 극복
- (ICT 융복합) ICT 기술을 접목한 원예·축산업의 첨단화를 통해 효율성과 新부가가치 창출
- (6차산업·농촌관광) 지역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외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외국인이 찾아오는 농촌 건설
- (유통) 로컬푸드, 전용홈쇼핑 신설 등 유통경로 개선

#### ■ 성장기반 조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생산) 친환경·안전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첨병화
- (제조·가공) 중국할랄 등 시장맞춤형 상품개발,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 (외식) 외식산업-농업과의 연계 강화 및 음식관광·해외진출 등으로 국내외 소비기반 확대
- (유통·수출) 기업의 투자유치·유통망 활용, 수출 창구의 조직화·전문화, 관세·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지원
- (협력 촉진) 협력 농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화,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생산·유통·수출 쏠분야에서 시너지 창출

#### ■ 농업·농촌 안전망 강화 및 정책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소득안전망) 재해보험 품목·보장범위 확대 등으로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경감 및 발직불제 등을 통한 소득안정 도모
- (영세·고령농 배려) 국민연금 지원 등 농촌 특화형 복지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 및 지원 내실화로 농업인의 체감도 제고
- (인력육성) 젊은 인재 유입도모 및 기존·신규 농업인구 역량 강화
- (정책금융) 농업 정책자금, 세제지원,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체계를 개선하고 모태펀드 등을 통해 농업 투자증진 유도
- (지역 맞춤형 정책) 지역별 생산여건, 농촌자원 등 특성을 감안

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11.10.),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 2) 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 ■ 생산 경쟁력 제고

- (양식어업) 규모화·첨단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
- (어선어업) 어선의 현대화·적정화 및 소형 어선의 효율성 제고
- (자원관리) 수산자원 관리 강화 및 불법어업 근절

### ■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

- (유통·가공 기반 조성) 유통·가공 혁신을 통해 산지에서 소비지 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체계를 구축
- (수산물 안전 강화)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에 수산물 안전성 제고
- (수출·투자 활성화)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

### ■ 어촌 정주여건 개선

- (소득·경영 안전망) 영세어가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어촌·어항의 6차 산업화 추진
- (수산인력 육성) 후계 수산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귀어·귀촌 확대

## 2. 교역동향

### 1) 전체 수출입

#### ■ 2014년 한국의 총 교역액은 약 1조 1천억 달러로 이는 전년도의 약 1조 7백억 달러보다 약 2% 증가한 수치임

- 2014년도 수출액은 약 5천 7백억 달러로 전년도 보다 약 2.3%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5천 2백억 달러로 전년도 보다 약 1.9% 가량 증가함
- 최근 5년간(2010~2014) 연평균 5.7%의 교역액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수출은 5.5%, 수입은 5.9%로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 2014년 중국과의 교역은 약 2천 3백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약 21%를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과의 교역은 최근 5년간(2010~2014년) 연평균 6.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연평균 수출 증가 5.8%, 수입증가 6.4%)
- 2014년 중국으로의 수출은 약 1천 4백억 달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9백억 달러임



- 1990년 한국의 교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2.1%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0년 9.0%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 21.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향후 FTA가 발효된다면 중국과의 교역은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됨

표 2-10. 한국의 전체 수출입

(단위 : 천 달러, %)

구분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액	65,015,731	172,267,510	466,383,762	555,213,656	547,869,792	559,632,434	572,664,607
수입액	69,843,678	160,481,018	425,212,160	524,413,090	519,584,473	515,585,515	525,514,506
총 교역액	134,859,409	332,748,528	891,595,922	1,079,626,746	1,067,454,265	1,075,217,949	1,098,179,113
대(對)중국 수출액	584,854 (0.9)	18,454,540 (10.7)	116,837,833 (25.1)	134,185,009 (24.2)	134,322,564 (24.5)	145,869,498 (26.1)	145,287,701 (25.4)
대(對)중국 수입액	2,268,137 (3.2)	12,798,728 (8.0)	71,573,603 (16.8)	86,432,238 (16.5)	80,784,595 (15.5)	83,052,877 (16.1)	90,082,226 (17.1)
대(對)중국 교역액	2,852,991 (2.1)	31,253,268 (9.4)	188,411,436 (21.1)	220,617,247 (20.4)	215,107,159 (20.2)	228,922,375 (21.3)	235,369,927 (21.4)

주 : ( )은 중국의 수출(수입)액 중 중국과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 2) 농림수산물 수출입

### ■ 2014년 한국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82억 달러로 2013년보다 약 4.7% 증가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축산물이 각각 10.2%, 7.8% 상승하였으며 임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10.7%, 3.9% 하락함
- 임산물과 수산물이 다소 하락하였지만 최근 5년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연평균 약 9.5%의 성장세를 기록함
- 농림수산물 수출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류는 농산물(63.3%), 수산물(25.1%), 임산물(5.9%), 축산물(5.7%) 순으로 농산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 2014년 한국의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약 361억 달러로 2013년보다 약 5.7% 증가함

-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농산물 순으로 각각 19.9%, 15.7%, 3.1%, 1.1% 증가함
- 최근 5년간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9.4%의 성장세를 기록함
- 농림수산물 수입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류는 농산물(53.4%), 임산물(18.6%), 수산물(15.6%), 축산물(12.5%) 순으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농산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임

## 제2부 중국 및 충남의 농림수산업 현황

- 최근 5년간 대중국 농림수산물 수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수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절대적 수치가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많아 무역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무역적자는 약 35억 달러에서 2014년은 약 47억 달러로 약 80억 달러로 약 32% 증가한 수준임
- 2014년 농림수산물 교역 중 대중국 수출액은 약 13억 달러로 전년보다 1.6% 감소함
  - 대중국 농림수산물 수출은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17.3%의 증가세를 보임
  - 대중국 농림수산물 수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류는 농산물과 수산물로 각각 54.6%, 23.9%의 비중을 차지함
  - 1997년의 경우 대중국 수출에서 수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7.3%, 농산물 수출비중이 23.2% 였지만 최근 수출구조가 농산물이 수산물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중국의 축산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1997년 축산물 수출비중이 1.0%에서 2014년 13.3%로 큰 폭으로 늘어남
- 2014년 농림수산물 교역 중 대중국 수입액은 약 60억 달러로 전년보다 3.8% 증가함
  - 대중국 농림수산물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대중국 농림수산물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류는 농산물, 임산물로 각각 44.6%, 32.9%의 비중을 차지함
  - 농산물은 수출과는 달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61.1%에서 2014년 44.6%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임산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임산물 수입은 1997년 기준 전체 수입 중 18.0%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14년 32.9%로 수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2-11. 대중국 전체 및 농림수산물 수출입

(단위 : 천 달러, %)

구분		1997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농산물	1,187,862	1,133,481	3,721,680	4,940,837	4,784,954	4,741,045	5,223,696
	축산물	319,909	121,044	146,052	176,276	395,079	435,673	469,769
	임산물	344,881	254,539	214,122	266,408	464,777	547,864	489,277
	수산물	1,494,244	1,503,342	1,798,162	2,307,798	2,361,250	2,151,322	2,066,966
	계	3,346,895	3,012,407	5,880,016	7,691,320	8,006,060	7,875,904	8,249,709
수입	농산물	6,284,659	5,104,468	13,987,712	18,362,009	18,717,091	19,105,811	19,307,869
	축산물	1,050,730	1,385,031	3,457,341	4,189,853	3,975,272	3,893,301	4,504,747
	임산물	2,595,325	1,652,815	5,219,128	5,560,746	6,009,534	6,506,876	6,705,421
	수산물	1,324,407	1,676,171	3,123,000	5,071,394	4,720,489	4,687,722	5,621,885
	계	11,255,121	9,818,486	25,787,181	33,184,002	33,422,386	34,193,710	36,139,922
대중국 수출	농산물	46,592 (3.9)	58,964 (5.2)	446,601 (12.0)	816,125 (16.5)	654,288 (13.7)	674,956 (14.2)	707,696 (13.5)
	축산물	1,910 (0.6)	3,134 (2.6)	23,381 (16.0)	36,902 (20.9)	130,333 (33.0)	145,143 (33.3)	172,221 (36.7)
	임산물	37,255 (10.8)	55,477 (21.8)	86,156 (40.2)	62,380 (23.4)	121,765 (26.2)	127,410 (23.3)	107,226 (21.9)
	수산물	114,889 (7.7)	84,163 (5.6)	231,223 (12.9)	464,642 (20.1)	372,131 (15.8)	370,423 (17.2)	309,211 (15.0)
	계	200,645 (6.0)	201,739 (6.7)	787,361 (13.4)	1,380,049 (17.9)	1,278,517 (16.0)	1,317,931 (16.7)	1,296,354 (15.7)
대중국 수입	농산물	933,490 (14.9)	1,152,019 (22.6)	1,945,736 (13.9)	2,462,896 (13.4)	2,363,694 (12.6)	2,747,018 (14.4)	2,658,091 (13.8)
	축산물	272,089 (25.9)	475,435 (34.3)	1,095,679 (31.7)	1,250,189 (29.8)	1,082,767 (27.2)	1,025,676 (26.3)	1,174,441 (26.1)
	임산물	275,173 (10.6)	217,067 (13.1)	1,228,465 (23.5)	1,476,313 (26.5)	1,711,896 (28.5)	1,824,835 (28.0)	1,962,353 (29.3)
	수산물	47,814 (3.6)	23,411 (1.4)	53,344 (1.7)	60,315 (1.2)	138,237 (2.9)	141,582 (3.0)	163,575 (2.9)
	계	1,528,565 (13.6)	1,867,932 (19.0)	4,323,225 (16.8)	5,249,713 (15.8)	5,296,595 (15.8)	5,739,111 (16.8)	5,958,460 (16.5)

주 : ( )은 중국의 수출(수입)액 중 중국과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aTkati, <http://www.kati.net>)

3) 대중국 가공품 수출입

■ 대중국 가공품 수출액은 전체 농림축산식품 교역의 55.9%, 수입액은 22.6% 차지함

표 2-12. 대중국 가공품 수출입

(단위 : 천 불, %)

품목군	2010		2014		연평균 증감율(2010-2014)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물성 물질	26,348	351,439	25,569	619,575	6.2	16.0
식물성 재료	29,562	93,139	37,408	105,282	7.5	3.4
기호식품	220,818	227,096	322,019	238,171	11.4	2.4
농산가공품	110,015	273,034	219,939	343,375	19.4	6.2
축산가공품	31,950	25,400	119,856	38,684	40.3	11.3
소계(A)	418,693	970,108	724,791	1,345,087	-	-
농림축산식품 전체 교역량(B)	787,361	4,323,225	1,296,354	5,958,460	-	-
비중(A/B)	53.2	22.4	55.9	22.6	-	-

주 : 각 분류는 MTI 코드 기준으로 통계를 구축함(식물성 물질-013, 식물성 재료-014, 기호식품-015, 농산가공품-016, 축산가공품-024)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aTkati)

표 2-13. 대중국 주요 가공품별 수입 현황

(단위 : 천 불, %)

품목군	2010	2014	연평균 증감율(2010-2014)
박류(013500)	181,899(18.8)	391,343(29.1)	23.2
기타농산가공품(016900)	163,927(16.9)	185,232(13.8)	3.3
사료(013600)	98,234(10.1)	127,001(9.4)	6.6
면류(016400)	63,525(6.5)	86,699(6.4)	8.6
기타소스류(014390)	75,826(7.8)	80,878(6.0)	1.9
식물성 한약제	61,846(6.4)	78,035(5.8)	6.1
기타당류(015890)	55,700(5.7)	52,669(3.9)	-0.1
식물성 액즙(013400)	28,559(2.9)	46,167(3.4)	13.5
기타식물성 물질(013900)	19,823(2.0)	30,440(2.3)	13.3
사탕	17,140(1.8)	28,791(2.1)	14.9

주 : 1. 각 분류는 MTI 코드 기준으로 통계를 구축함(식물성 물질-013, 식물성 재료-014, 기호식품-015, 농산가공품-016, 축산가공품-024)

2. ( )는 전체 가공식품 중 해당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3. 박류는 옥수수박, 밀박, 쌀박 등, 기타 농산가공품 김치, 잼, 두부 등, 기타소스류는 춘장, 메주 등, 기타당류는 유당, 포도당 등, 식물성 액즙은 오미자 추출물, 당귀 추출물 등, 기타식물성 물질은 전분, 진피, 멜론껍질 등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aTkati)

### 3. 생산동향

- 2013년 국내 총생산은 약 1,429조 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약 3.8% 증가함
  - 국내 총생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함. 특히 2013년은 2000년보다 약 2배 이상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였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5.6%를 기록함
- 농업부문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음
  - 2013년 농업부문 국내 총생산은 304조 원으로 전체 국내 총생산에서 약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국내 총생산이 2000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하였지만 농업부문 국내총생산은 불과 21% 증가하는데 그침
  - 농업부문 국내 총생산은 2000년의 경우 약 4%로 많지 않았고 또한 최근 들어 그 비중이 더욱 감소하는 추세임
- 2013년 우리나라의 총 부가가치는 1,304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2% 증가함
  - 2000년 대비 약 127.6%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간 증가율은 약 5.8%임
  - 총 부가가치 중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임. 농업부문 부가가치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14년 전국 총 인구수는 약 5천만 명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총 인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농림어가인구는 5년간 연평균 약 2.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기준 총 인구 중 농림어가 인구는 약 6.2%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농림어가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차지하는 부류는 농가, 임가, 어가 순으로 각각 5.5%, 0.5%, 0.3%로 나타남
- 2014년 전국의 경지면적은 169만 ha로 2013년보다 약 1.2% 감소함
  - 전국의 경지면적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음. 최근 5년간 평균 1.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과 비교했을 때 약 20%의 면적이 감소함
  - 상대적으로 밭 면적 보다 논 면적 감소가 큰 편이며 1990년과 비교하여 밭 면적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논 면적은 약 31%가량 감소함
  - 2014년 경지면적 중 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2%, 밭이 차지하는 비중은 44.8%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 밭 면적 비중은 증가 추세임



## 제3장 충남의 농림수산업 현황





## 1. 정책동향<sup>8)</sup>

### 1) 충남의 3농혁신

- 충청남도는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충남 도정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3농혁신'을 선정
  - 2014년까지의 추진결과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창조 확산 및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수용·전환, 거버넌스형 농정 추진체계 및 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 통합형 농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음
  - 이전의 성과 분석을 통해 2단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미래농정의 패러다임 및 핵심가치와 농어업인의 현장요구 등 현실을 반영, 참여형 거버넌스 농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현장실천력 강화를 위해 사업중심에서 과제중심 체제로 개편함
  - 이를 위해 생산유통·소비지역역량 등 5대 혁신부문, 15개 전략과제, 50개 중점사업으로 추진 전략을 구조화함

### 2) 부문별 정책방향

#### ■ 농어업 부문

-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 충남 농수산물 특화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소비자 인지도 강화
- 지역순환농식품체계 구축 및 농어업·6차산업화 활성화
- 유통체계 및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
- 기후변화 대응 및 첨단과학영농 시대를 준비하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 ■ 농어촌 부문

-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 낙후된 생산기반 및 기초생활환경 등의 지속적인 여건 개선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제고를 통한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농어촌마을의 공동화·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적 관심 확대 및 대응책 마련

#### ■ 농어업인 부문

- 농정주체 확대 및 3농혁신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 미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 행복중시 충남형 농어촌복지 정책 마련

8) 자료 : 충청남도(2015), 3농혁신 2단계 추진계획

### 3) 부문별 중점사업

■ 생산혁신 : 지속가능한 농어업, 신성장 농산업 육성

- (과제 1) 지속가능한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 직불금 제도개선
- (과제 2) 자연친화형 선진 축산업 육성
- (과제 3)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및 임산물 경쟁력 강화
- (과제 4) 수산자원의 미래 산업화
- (과제 5) 지역맞춤형 미래농업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 유통혁신 : 농산물 유통선진 체계구축 및 융복합 산업 육성

- (과제 6) 지역순환형 로컬푸드 소비활성화 기반조성
- (과제 7) 산지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 (과제 8) 농산어촌 융복합 산업화로 부가가치 창출

■ 소비혁신 : 도시농촌 상생발전과 착한소비 정착 기반마련

- (과제 9) 공정팜핑에 기초한 도-농 쌍방향적 교류활성화
- (과제10) 농업가치 교육 및 농촌어메니티 활성화

■ 지역혁신 :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삶터일터쉼터 가꾸기

- (과제 11)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및 지역혁신모델 구축
- (과제 12)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농업기반 구축

■ 역량혁신 : 농어촌주민 역량강화 및 협치농정 체계 구축

- (과제 13) 농어촌 인력의 체계적 발굴·육성·관리
- (과제 14) 농어촌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확충
- (과제 15) 농업인 주체의 협치농정 실현

※ 참고자료 : 농림업 기술분야 대응전략

표 2-14.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분야별 FTA 대응전략 (요약)

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 (중점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방향)
식량작물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 다양화를 위한 기능성 특수미(米) 품종 육성 및 보급확대</li> <li>- 고품질 생력 쌀 생산 기술 개발 연구</li> <li>- 화학비료 및 농약 절감을 통한 안전한 지속가능 농업 구현</li> <li>- 수확후 관리 연구 강화로 고품질 유지 기술 개발</li> <li>- 두류 및 맥류의 신수요 창출을 위한 산업화 기술 개발</li> </ul>
채소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추 수량성 향상 및 종합 방제체계 기술개발</li> <li>- 충남 서해안 마늘 특성화 기술개발</li> <li>- 생강 고품질 우량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종합관리기술 개발</li> <li>- 수박, 멜론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li> <li>- 오이 재배작형별 적품종 선발 및 육묘기술 개발</li> <li>- 친환경 농자재 미생물제 이용 품질향상 기술개발</li> <li>- 농가 실용화 관비재배 기술 개발</li> <li>- 시설재배 안정생산 기술개발 보급</li> </ul>
과수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수 유전자원 수집, 특성평가, 고품질 품종 육성 및 보급 확대</li> <li>- 사과 저수고 밀식 및 배 Y자재배 등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및 보급</li> <li>- 주요 과서류 생산비절감 및 안정재배 기술개발 연구</li> <li>- FTA대응 대체과종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li> <li>- 과수 GAP, 최고과실생산(Top Fruits) 매뉴얼 제작 및 패키지화</li> <li>- 홈페이지 구축 및 도지사 품질인증 등 브랜드 강화</li> </ul>
화훼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기호성 일류 품종 육성 및 보급 확대</li> <li>- 고품질 절화, 분화 안정생산 및 수출경쟁력 향상 연구</li> <li>- 꽃향기 이용기술 및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li> <li>- 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 연구 강화</li> </ul>
특용작물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량다수성 고기능성함유 품종개발</li> <li>- GAP 규격화 연구 및 농산물 생산 이력제 정착화</li> <li>- 단지의 규모화 및 기계화 적응 일관화 재배법 확립 보급</li> <li>- 특용작물의 잔답 유통 효율적 이용기술 확립</li> <li>- 고기능성 제품개발 및 해외시장 홍보·마케팅 강화</li> </ul>

자료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2012), 3농혁신과 연계한 충남농업의 품목별 FTA 대응전략

2. 교류협력 현황<sup>9)</sup>

## 1) 중요성 및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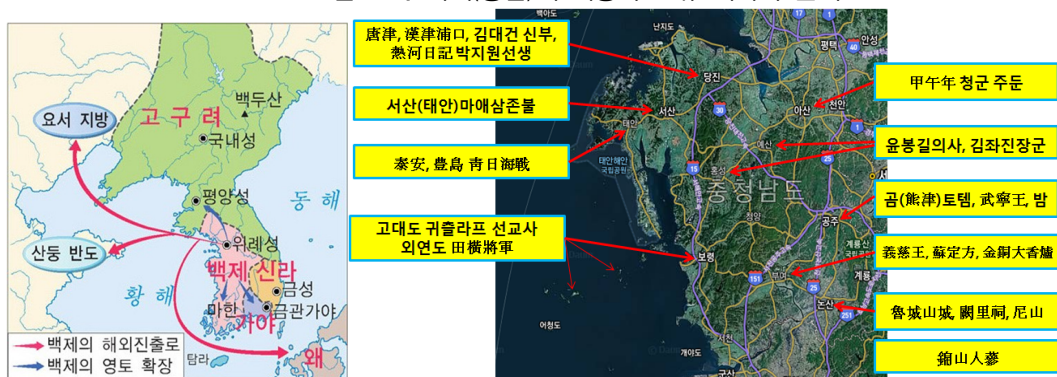
## ■ 충남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중요성

- 경제적으로 슈퍼 파워로 등장
- 정치, 문화, 환경적으로도 영향력 지속 확대
- 충남도의 입장: 중국과의 교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

## ■ 충남의 대중국 교류의 역사

- 북방문화 뿌리인 백제, 중국과 교류를 통해 융성
  - 무녕왕(462 ~ 523)의 대외 교류(남조의 梁나라와 왜와 교류)
    - ※ 무녕왕릉 내부(중국식 벽돌, 관은 일본식 등)
  - 백제금동대향로: 중국 것을 모방했으나 그 것을 뛰어넘음
    - ※ 융합문화의 최고봉: 불교+도교+민족신앙(낭가사상)
- 대중국 교류의 흔적은 다양함
  - 종교: 불교(서산, 태안마애삼존불), 기독교(귀족라프 선교사), 천주교(우리나라 최대성지), 유교(노성 산성, 궐리사) 등
  - 전쟁: 당나라 소정방, 청일대전, 갑오년 청군 진입, 외연도 전횡장군 등
  - 문화: 唐津, 漢津, 먼천(연암 박지원), 기호학파, 곰토템(熊津) 등
  - 항일: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조선의용대 박철동·최철호 열사 등

그림 2-1. 백제(충남)의 대중국 교류 역사와 흔적



## • 과거 백제의 패망 원인

- 신라의 삼국통일은 외교력의 승리라고 평가
- 반면 백제의 패망의 원인은 대외정세 인식의 부족, 대(對)중국 외교관계의 부재로 평가. 하지만 지금 형세도 크게 다르지 않는 상태
- ☞ 대중국 교류협력의 중요성 자각의 계기가 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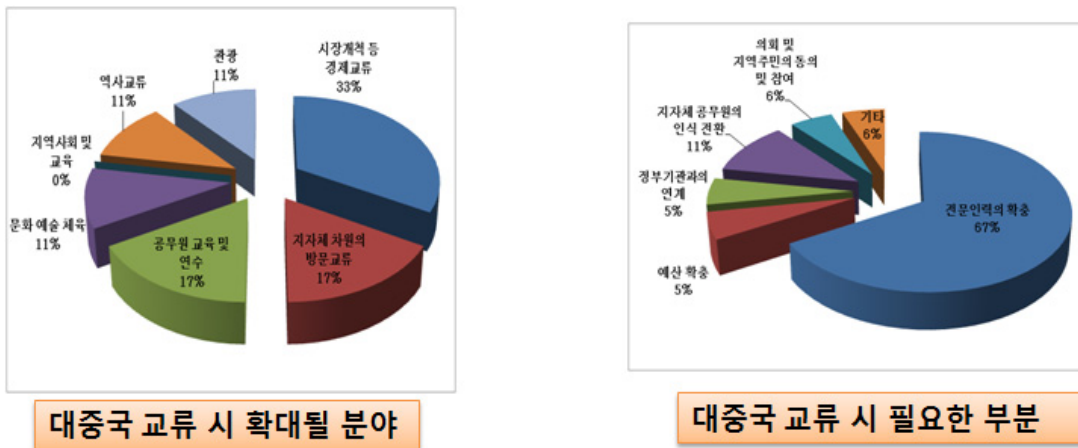
9) 자료 : 박경철 외(2014),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전략연구 2014-09, 충남연구원

## 2) 정책수요

### ■ 충남 자치단체의 대중국 교류 의견(2014년 5월 조사)

- 충남도 각 지자체장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음
  - 그 주된 이유는 지역상품의 시장 확대에 있음
- 대중국 교류협력의 확대 분야로는 시장개척 등 경제교류가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지자체 차원의 방문교류와 공무원 교육 및 연수 차지
  - 대중국 교류 시 필요한 부분은 예산보다는 전문인력의 확충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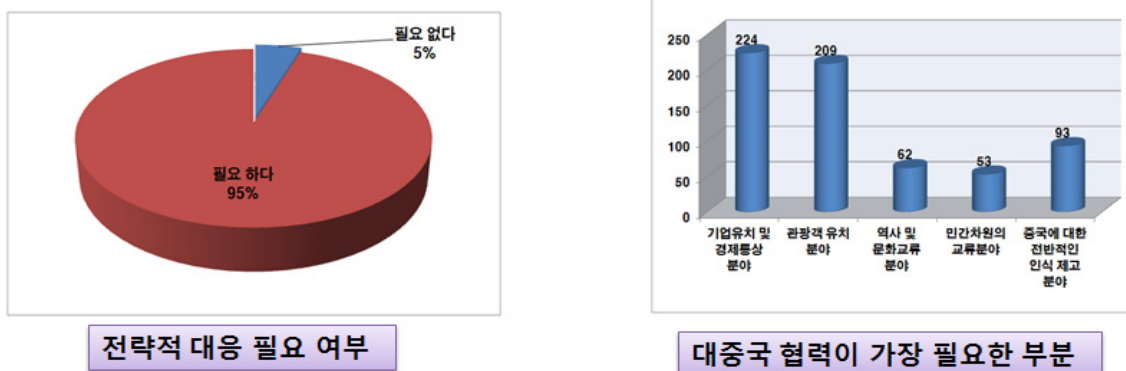
그림 2-2. 자치단체의 대중국 교류협력 확대분야



### ■ 충남도민의 대중국 교류협력 의견(2014년 5월 조사)

-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강점은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시설 우위
  - 다음으로 서해안의 생태 및 깨끗한 자연환경을 꼽음
  - 반면, 약점으로는 관광시설 및 아이템의 부족,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의 부족을 꼽음
- 충남도민의 대부분은 대중국 교류협력 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김
  - 또한, 대중국 교류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기업유치 및 경제통상과 관광객 유치라고 응답

그림 2-3. 대중국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



3) 성과와 한계

■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행정교류 현황

- 충남도의 대중국 자매결연 지역은 2개 성, 우호협력은 10개 성 및 지역
  - 1994년 허베이성과 처음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후 금년 1월 헤이룽장성과 자매결연 체결
  - 충남도의 대중국 우호협력 체결연 1995년 산둥성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 성 및 지역

표 2-15.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 협정체결 현황

구분	단체(체결 연도)
자매결연	1)허베이성(1994), 2)헤이룽장성(2015)
우호협력	1)산둥성(1995), 2)옌벤조선족자치주(2002), 3)지린성(2005), 4) 장쑤성(2005), 5)쓰촨성(2008), 6)상하이시(2008), 7)랴오닝성(2010), 8)윈난성(2013), 9)구이저우성(2014), 10) 칭하이성(2014)

- 충남도 각 시군과 중국지역과의 교류협정은 자매결연 10건, 우호협력 16건
  - 이 가운데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의 교류 활동이 활발
  - 최근들어, 서산시는 대산항 개항준비로, 논산시는 유교문화 교류 차원에서 교류가 활발함

표 2-16. 시군별 대중국 교류협력 협정체결 현황

구분	자매결연	우호협력
천안시	1건, 허베이성 스자좡시	1건, 웨이하이시 원딩구
공주시	-	1건, 랴오닝성 선양시
보령시	1건, 상하이시 칭푸구	1건, 톈진시 빈해신구
아산시	1건, 광둥성 둥관시	2건, 산둥성 웨이팡시, 룡청시
서산시	1건, 산둥성 룡청시	1건, 안후이성 허페이시
논산시	-	2건, 랴오닝성 진저우시, 허베이성 랑팡시
계룡시	-	1건, 베이징시 화유구
당진시	1건, 산둥성 르자오시	3건, 랴오닝성 티에링현, 지린성 왕칭현, 산둥성 자오난시
금산군	1건, 지린성성 안투현	-
부여군	1건, 허난성 뤼양시	-
서천군	-	-
청양군	1건, 랴오닝성 덩타시	1건, 후베이성 수현
홍성군	1건, 산둥성 린이시 이수이현	1건, 헤이룽장성 하이린시
예산군	-	2건, 헤이룽장성 지동현, 장시성 이춘시
태안군	1건, 산둥성 타이안시	-
합 계	10건	16건

## 그 동안의 교류활동 현황

그림 2-4. 충청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체결지역 주요 교류활동 현황

구분	단체	교류내용
자매결연	허베이성	2010 세계대백제전 대표단 참가('10. 9, 5명) 허베이성 경제관계자 방문 도내 기업체 벤치마킹(3회) 충남서예가협회단 허베이성 방문 백제문화제 허베이성 예술단 공연 충남공예조합 허베이성 방문, 양 지역 공예협회 간 교류 청소년 교류(9회, 92명)
	1. 산둥성	산둥성 청소년문화예술학교 방문공연('13. 8.15, 100명) 공무원교육원 중국어 과정 현지 어학연수('09. 10, 산동대 15명) 칭다오경제무역박람회 및 산둥성 청소년 밀레니엄 행사 참가('01)
우호협력	2. 연변조선족자치주	투자유치설명회 상호교차 개최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연변주 농식품업체(3개) 참가('09. 9월) 농림수산환경, 문화관광체육 교류 : 20회 223명 청소년 교류 등(4회/44명)
	3. 지린성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 폐막식에 지린성 부성장 참석 인삼엑스포 대표단 및 전기업체 참가('11. 9, 14명) 지린성 동북아청소년축제 공연단 참가(2회)
	4. 장쑤성	송석두 행정부지사 환경교류회 및 환경박람회 참가('13.11) 환경분야 시책교류회 개최(매년) 공무원교육원 정예공무원과정 중국어 연수('09.~'11, 동남대, 57명) 장쑤성 노인복지포럼 참가('11. 10, 복지보건국장)
	5. 쓰촨성	쓰촨대지진('08. 5.12) 피해복구 성금 전달(2,000만 원) 서부박람회 참가 및 우수상품전 개최('10. 10, 투자통상실장 등 대표단 7명)
	6. 상하이시	실국장 신도시 건설관련 벤치마킹('09. 2월) 기획실장 일행 상하이엑스포 초청 참가('10. 5) 투자유치 설명회, 우수상품전 개최
	7. 랴오닝성	랴오닝성 잉커우항과 항만교류를 위한 실무 방문('13. 4)
	8. 윈난성	2000년 윈난성 군민국제 화훼박람회 참가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벤치마킹 우호교류협정체결 및 제1회 중국-남아시아 박람회 참가('13. 6)



자료 : 충청남도청 내부자료(2014), 충남연구원 CNI 인포그래픽 제8호(2015.04.30.)

### ■ 교류의 한계와 문제점

- 전략 및 비전의 부재, 핵심 프로젝트의 부재
- 시군 연계협력의 부재, 전문인력 부족
- 통합 네트워크의 부재, 도-각 시군-연구원-각급 기관 및 단체간 연계 체계 미흡
- 역사문화 자원 이용 미흡, 일본 편중의 역사문화교류 ➡ 역사문화 활용한 요우커 유치 필요
- 백제역사문화 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 ■ 추진방향

- 허베이성, 대중국 교류협력 교두보로 적극 활용
- 3농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한중 항일투쟁의 역사 교류
- 한중 FTA시대 산동성 연해도시와의 교류 강화 필요: 고대 해상루트 복원
- 교류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핵심프로젝트 개발



### 3. 교역동향

#### 1) 농림수산물 수출입

■ 2014년 충남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3천 3백만 달러로 전년대보다 약 3.7% 감소함

- 2014년 충남의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보다 다소 감소하였지만 최근 5개년 연평균 수출은 약 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농림수산물 수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순으로 각각 65.0%, 14.0%, 13.0%, 8.0%임
- 충남의 농림수산물 수출액 중 농산물 수출은 2009년 7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최근 농산물 수출액은 줄어들고 수산물과 임산물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2014년 충남의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1억 1천 달러로 전년대보다 약 26.6% 감소함

- 2014년 충남의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최근 5개년 연평균 약 1.5%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 충남의 농림수산물 수입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순으로 각각 75.5%, 11.4%, 7.3%, 5.8%임
- 충남의 농림수산물 수입액 중 농산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56.4%에서 2014년 75.5%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임산물 수입액은 2009년 34.6%에서 2014년 7.3%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2-17. 충남의 농림수산물 수출입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농산물	172,641	202,696	252,086	210,887	215,251	220,549
	축산물	10,718	19,021	33,676	36,282	40,776	47,668
	임산물	19,515	32,463	31,270	35,852	68,050	44,251
	수산물	17,752	22,896	24,870	30,185	28,405	26,989
	계	220,626	277,076	341,903	313,207	352,482	339,456
수입	농산물	552,661	637,142	899,087	999,053	1,025,725	873,325
	축산물	33,020	34,689	38,839	45,730	60,485	67,080
	임산물	338,576	531,859	457,066	401,336	371,354	84,653
	수산물	55,085	99,693	153,328	151,325	117,742	131,709
	계	979,342	1,303,383	1,548,320	1,597,445	1,575,305	1,156,768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aTkati)

## 4. 생산동향

## 1) 지역내 총생산 및 부가가치

■ 2013년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약 990조 원으로 이는 2012년보다 약 4.0% 증가한 수치임

- 2000년과 비교하여 2013년은 약 3배에 가까운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5.8%로 그 성장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음

■ 2013년 충남의 농림어업 부문 지역 내 총생산은 약 3.9조 원으로 2012년보다 약 1.4% 감소함

- 2013년도 농림어업 부문 지역내 총생산은 2000년과 비교하여 불과 15% 남짓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전체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에서 4%까지 감소함

표 2-18.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 및 농림어업 비중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국내총생산	635,184,588	1,151,707,830	1,265,307,957	1,332,681,007	1,377,456,678	1,429,445,400
	농림어업 부문	25,049,400	27,033,400	28,297,400	30,454,000	30,775,100	30,437,200
	국내총생산	(3.9)	(2.3)	(2.2)	(2.3)	(2.2)	(2.1)
충남	지역내 총생산	31,895,010	71,756,116	83,166,818	91,816,385	95,307,922	99,154,337
	농림어업 부문	3,468,975	3,465,773	3,660,177	3,899,613	4,044,921	3,988,264
	지역내 총생산	(10.9)	(4.8)	(4.4)	(4.2)	(4.2)	(4.0)

주 : 1. 명목가격 기준

2. ( )는 농림어업 부문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통계청 지역소득자료

■ 2013년 충남의 총 부가가치는 89조 원으로 전년대비 약 4.1% 증가함

- 충남의 총 부가가치는 2000년과 비교하였을 때 210% 가량 증가함
- 농림어업 부문 부가가치는 2000년 12.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갈수록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 2013년은 4.5%의 비중을 차지함

표 2-19. 충남의 부가가치 및 농림어업 비중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0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총 부가가치	573,066,146	1,043,250,708	1,145,266,068	1,208,858,330	1,251,807,752	1,304,209,675
	농림어업 부가가치	25,711,958	27,057,896	28,312,873	30,512,366	30,820,843	30,521,185
	부가가치	(4.5)	(2.6)	(2.5)	(2.5)	(2.5)	(2.3)
충남	총 부가가치	28,653,759	64,664,506	74,671,541	83,135,034	85,605,757	89,095,480
	농림어업 부가가치	3,468,975	3,465,773	3,660,177	3,899,613	4,044,921	3,988,264
	부가가치	(12.1)	(5.4)	(4.9)	(4.7)	(4.7)	(4.5)

주 : 당해연도 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자료

## 2) 농가인구 및 농업생산

■ 2014년 충남의 총 인구수는 약 2백 7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1%가량 증가함

- 전국적인 추세와 더불어 총 인구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농림어가인구는 5년간 연평균 4.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기준 충남의 총 인구 중 농림어가 비율은 약 17.8%임. 전국적인 추세와 다르게 충남은 농림어가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농림어가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류는 농가, 어가, 임가 순으로 각각 15.8%, 1.0%, 0.9% 순임

표 2-20. 충남의 총인구 및 농림어가 인구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총 인구	49,410,366	49,779,440	50,004,441	50,219,669	50,423,955
	농가인구	3,062,956 (6.2)	2,962,113 (6.0)	2,911,540 (5.8)	2,847,435 (5.7)	2,751,792 (5.5)
	임가인구	253,656 (0.5)	240,108 (0.5)	248,188 (0.5)	235,919 (0.5)	230,534 (0.5)
	어가인구	171,191 (0.3)	159,299 (0.3)	153,106 (0.3)	147,330 (0.3)	141,344 (0.3)
	농림어가인구	3,487,803 (7.1)	3,361,520 (6.8)	3,312,834 (6.6)	3,230,684 (6.4)	3,123,670 (6.2)
충남	총 인구	2,075,612	2,108,206	2,041,513	2,059,746	2,078,771
	농가인구	394,324 (19.0)	378,094 (17.9)	367,944 (18.0)	356,158 (17.3)	328,993 (15.8)
	임가인구	23,622 (1.1)	23,195 (1.1)	22,530 (1.1)	19,424 (0.9)	19,365 (0.9)
	어가인구	27,302 (1.3)	24,150 (1.1)	22,270 (1.1)	21,375 (1.0)	21,059 (1.0)
	농림어가인구	445,248 (21.5)	425,439 (20.2)	412,744 (20.2)	396,957 (19.3)	369,417 (17.8)

주 : ( )는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장래인구추계

■ 2014년 충남의 경지면적은 22만 ha로 2013년보다 약 6% 감소함

- 전국과 마찬가지로 충남 역시 경지면적이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최근 5년간 연평균 6.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과 비교했을 때 약 22%의 면적이 감소함
- 전국적으로 경지면적에서 논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밭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충남은 2014년 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70.5%, 밭 면적이 29.5%로 1990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임

## 제2부 중국 및 충남의 농림수산업 현황

표 2-21. 충남의 논밭 경지면적

(단위 : 천 ha)

구분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전체면적	2,109	1,889	1,715	1,698	1,730	1,711	1,691
	논 면적	1,345 (63.8)	1,149 (60.8)	984 (57.4)	960 (56.5)	966 (55.8)	964 (56.3)	934 (55.2)
	밭 면적	764 (36.2)	740 (39.2)	731 (42.6)	738 (43.5)	764 (44.2)	748 (43.7)	757 (44.8)
충남	전체면적	280	257	234	232	235	225	219
	논 면적	199 (71.1)	188 (73.1)	169 (72.3)	166 (71.3)	167 (71.2)	160 (71.1)	155 (70.5)
	밭 면적	81 (28.9)	69 (26.9)	65 (27.7)	67 (28.7)	68 (28.8)	65 (28.9)	65 (29.5)

주 : ( )는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 2014년 주요 품목부류별 생산량 중 충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류는 과채류로서 약 23%의 비중을 차지함

- 충남의 재배면적은 2014년 기준 과채류 다음으로 식량작물, 근채류, 엽채류, 조미채류, 과실류로 각각 18.3%, 9.8%, 8.6%, 5.9%, 4.4% 순으로 나타남
- 전국 재배면적 중 충남의 과채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1%였지만 비중이 점차 늘면서 2014년은 23.3%로 약 12.7%p 증가함
- 과채류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과실류, 엽채류, 조미채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표 2-22. 충남의 주요 품목부류별 생산량

(단위 : 톤)

구분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전 국	식량작물	—	5,911,374	4,836,456	4,775,135	4,565,223	4,825,079	4,827,885
	과실류	1,766,248	2,428,691	2,489,134	2,458,489	2,374,247	2,522,616	2,696,676
	과채류	1,257,015	2,406,699	2,052,198	1,932,947	2,067,741	2,032,903	2,179,553
	근채류	1,847,203	1,914,494	1,141,461	1,330,491	908,524	1,080,930	1,380,286
	엽채류	3,675,547	3,744,547	2,264,865	3,270,673	2,327,040	2,622,200	3,111,412
	조미채류	1,501,302	2,417,466	2,435,866	2,586,021	2,215,112	2,460,273	2,709,497
충 남	식량작물	—	961,099 (16.3)	828,946 (17.1)	838,533 (17.6)	823,856 (18.0)	870,996 (18.1)	881,321 (18.3)
	과실류	123,667 (7.0)	173,319 (7.1)	128,195 (5.2)	112,161 (4.6)	85,207 (3.6)	114,941 (4.6)	118,079 (4.4)
	과채류	137,124 (10.9)	412,714 (17.1)	416,603 (20.3)	371,532 (19.2)	456,859 (22.1)	440,402 (21.7)	507,351 (23.3)
	근채류	237,738 (12.9)	213,973 (11.2)	90,523 (7.9)	200,373 (15.2)	130,670 (14.4)	125,259 (11.6)	135,673 (9.8)
	엽채류	510,679 (13.9)	399,590 (10.7)	239,801 (10.6)	339,570 (10.4)	249,969 (10.7)	237,888 (9.1)	266,397 (8.6)
	조미채류	139,100 (9.3)	184,910 (7.6)	114,462 (4.7)	128,595 (5.0)	125,651 (5.7)	126,989 (5.2)	160,200 (5.9)

주 : ( )는 전국대비 충남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 제3부 한중FTA 체결과 영향분석



## 제1장 한중FTA 협상결과





## 1. 추진경과

- 2007년 3월부터 한중FTA 관련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12년 5월 2일 협상개시 선언, 이후 14차례 협상을 개최하면서 약 3년 7개월 만에 한중FTA 발효

표 3-1. 한중FTA 협상 추진경과

일자	내용
2012년 05월 02일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
2012년 05월~2014년 11월	14차례 협상 개최
2014년 11월 10일	한중FTA 협상타결 선언
2015년 02월 25일	한중FTA 가서명
2015년 06월 01일	한중FTA 정식서명 및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2015년 06월	영향평가결과 및 국내보완대책 발표
2015년 0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2015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합의
2015년 12월 20일	한중FTA 발효

자료 : FTA포털(<http://fta.go.kr/main/situation/kfta/ov>)

## 2. 협상내용<sup>10)</sup>

### 1) 농축산물

- 한국측의 농축산물 양허결과를 살펴보면, 양허제외를 포함한 자유화율(관세철폐율)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타결됨
- 전체 농산물(1,611개) 중 초민감품목은 581개(36.1%),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은 589개(36.6%)로 합의, 이 중 216개 품목은 즉시 철폐, 나머지 양허제외 548개 품목을 제외한 847개 품목은 점진적 개방을 결정함
-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의 농림축산물 관세철폐율은 품목수 기준 64%, 수입액 기준 42%로 타결, 주로 사료용·종자용·가공원료로서 중장기 위기 품목임

10) 자료 : 1.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11.10.),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11.10., 2015.06.05.), 개방시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책 : 한중 및 한베 FTA 국내 보완대책  
 3. 강마야(2014),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충남리포트 제140호, 충남연구원  
 4. 강마야(2015), 한중 FTA에 따른 충남 농림어업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구상, 충남리포트 제199호, 충남연구원

- 초민감품목 중 쌀, 축산물, 과실류, 채소특작류 등 대부분의 신선농림축산물은 양허제외, 기존 수입의존도가 높은 김치·혼합조미료·기타소스·팥·들깨·고사리 등은 부분감축, 참깨·팥·대두·맥아·고구마전분 등은 TRQ에 포함
  - (초민감품목) 581개 중 548개(94.3%) 양허제외, 7개(1.2%) TRQ, 26개(4.5%) 부분감축 합의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①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은 양허제외, ② WTO/TRQ를 통해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국내 산업 보호 및 수급 안정 도모, ③ 대중 수입이 많은 국내 민감품목은 부분 감축으로 합의하여 개방 최소화
  - (민감품목) 레몬,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하여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타 한약재, 기타 과실견과(조제), 기타 과실(잼제리)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20년 비선형 철폐 적용
  - (일반품목) 신선농산물 중 저율 관세품목, 가축 사료원료 등 수입 의존 품목,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 등은 10년 내 관세 철폐

표 3-2. 한중FTA 한국측 농축산물 양허결과

양허유형		품목수(개)	품목수- 비중(%)	주요 품목	구분
일반품목	즉시철폐	216	13.4	번식용 소돼자오리, 채소종자(토마토, 양배추, 무 등), 대두, 양모 등	한국측 위기 (단기)
	5년철폐	209	13.0	해바라기씨유(조유/기타), 조제식품류(오트밀), 우황, 식혜, 사향, 건빵, 면실유, 대두유, 옥수수박, 스파게티, 양조식초 등	
	10년철폐	164	10.2	코냑, 코코넛(기타), 베이커리제품(기타), 마요네스, 쿠키 및 크래커, 아몬드(탈각), 소나무(분재용) 등	
민감품목	15년철폐	202	12.5	해바라기씨유(정제유), 팜핵유, 망고스틴(신선/건조), 배합사료	한국측 위기 (중장기)
	20년철폐	239	14.8	도라지(신선/냉장), 데어리 스프레드, 채소류의 혼합물, 춘장, 기타 콩, 인삼차 및 인삼음료	
초민감품목	TRQ	7	0.4	참깨(24,000t), 팥(건조/기타 3,000t), 대두(콩나물콩/기타, 10,000t), 맥아(5,000t), 고구마전분(5,000t) 등	중국측 관심품목  (중국의 대한민국 시장접근기회확대)
	부분감축	26	1.6	김치(조제저장처리), 혼합조미료, 기타소스(다대기), 팥(조제저장), 들깨, 고사리(건조), 송이버섯(냉동) 등	
		양허제외	548	34.0	쌀, 보리, 감자, 신선 쇠고가돼지고가닭고기, 감귤류, 사과배포도, 마늘, 양파, 호박, 고추, 인삼류 등
총합계		1,611	99.9		

주 : 여기서 말하는 품목수는 엄밀하게 말하면 세번수를 말하고 세번수의 의미는“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목분류 체계(HS)에 따라 특정품목에 부여된 품목번호를 말하며 HS Code로도 불림. HS 품목분류체계는 통상 가공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므로 번호가 바뀌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바뀌게 됨. 세계적 표준에 따라 물품을 1류부터 99류까지 대분류하고 통계산출, 과표근거, 통관조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물품마다 부여하는 국제기준의 코드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10단위를 사용함, 이하 동일하므로 주석생략함. (출처 : 관세청 FTA용어)

자료 : 1.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11.10.),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11.10., 2015.06.05.), 개방시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책 : 한중 및 한베 FTA 국내 보완대책

■ 중국측의 농축산물 양허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측 주요 수출품목은 대부분 양허제외,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은 대부분 신선농축산물로 채워짐

- 전체 농축산물 1,131개 중 221개 품목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 양허제외 101개 품목을 제외한 809개 품목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 개방
- 일반품목과 민감품목의 경우 외형상 한국측의 기회라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 자급률 100%에 못미치는 신선농축산물로 대중국 수출확대 가능성 낮음
- 초민감품목 중 ‘양허제외’ 품목은 한국측의 주요 수출품목인 쌀, 설탕, 밀가루, 식물성유지, 담배, 조제분유, 건조인삼, 밤 등 대중국 수출증대 효과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황
  - (초민감품목) 기체결 FTA에서도 양허제외한 전통적 민감품목인 쌀, 설탕, 밀가루, 식물성 유지, 담배 등 101개 품목을 양허제외
  - (민감품목) 쇠고가돼지고가닭고기 등 신선 육류, 김치 등 조제저장 채소, 커피 조제품, 과채류 가공품, 파스타, 인스턴트 면 등은 20년 내 관세 철폐
  - (일반품목) 냉동 쇠고가돼지고가닭고기, 신선 사과배포도 등 과실류, 채소류는 신선냉동을 불문하고 전 품목 10년 내 관세 철폐

표 3-3. 한중FTA 중국측 농축산물 양허결과

양허유형		품목수 (개)	품목수 비중(%)	주요 품목	구분
일반품목	즉시철폐	221	19.5	사료용 조제품, 참과실제리, 채소 종자 등	한국측 기회 (단기)
	5년철폐	65	5.7	단백질계 물질, 양모, 수모, 생사, 가축원피, 냉동 오렌지 주스, 볶지 않은 커피	
	10년철폐	439	38.8	사과배포도·복숭아딸기(신선), 쇠고 가 돼지 고가닭고기(냉동), 소시지, 볶은 커피, 물 등	
민감품목	15년철폐	203	17.9	쇠고가돼지고가닭고기(신선), 파스타, 과일주스, 채소주스, 천연꿀, 가공치즈 등	한국측 기회 (중장기)
	20년철폐	101	8.9	김치, 무알콜 음료, 기타 조미료, 인스턴트 면류, 커피 조제품, 곡분 조제품, 간장, 발효주, 냉동 오리고기 등	
초민감품목	TRQ				중국측 보호
	부분감축	1	0.1	기타 조제식료품(20%→18.4%)	
	양허제외	101	8.9	쌀, 설탕, 건조 인삼, 밤(미탈각), 식물성 유지, 밀크와 크림, 밀, 밀가루, 당류 등	
총합계		1,131	99.8		

자료 : 1.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11.10.),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11.10., 2015.06.05.), 개방시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책 : 한중 및 한베 FTA 국내 보완대책

■ 종합해보면 타결 내용의 외형만 봤을 때, 한국측은 주요 548개 신선농축산물 품목(34%)은 양허제외,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관련품목 등 1,063개 품목(66%)은 개방을 허용한 반면, 중국측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101개 품목(8.9%) 양허제외, 식량자급률이 부족한 우리 신선농축산물 품목 1,030개 품목(91.1%)은 개방을 허용한 절반의 성과

- 한국측의 신선농축산물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2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인 사료용·종자용·가공원료 품목 1,030개(64%)는 점진적 관세철폐 예정, 중국의 관심품목 33개(2%)는 TRQ와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 확대
- 중국측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을 개방대상에서 제외, 국내자급률이 100%에 못 미치는 신선농축산물 1,029개 품목(90.9%) 위주로 점진적 관세철폐 예상, 한국의 관심품목인 기타조제 식료품 1개(0.1%)만 부분 감축하는 결과

2) 수산물<sup>1)</sup>

- 전반적으로 수산업 분야에서는 한중FTA로 인해 국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품목이 초민감 또는 민감품목으로 선정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산 수산물 수입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20대 생산품목(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이 대부분 초민감품목에 포함
  - 농어, 돔, 민어, 뱀장어 등 조정관세품목과 대게, 소라, 전갱이, 홍어 등 자원관리품목 대부분도 초민감품목에 포함

표 3-4. 한중FTA 한국측 수산물 양허결과

양허유형		품목수 (개)	품목수 비중(%)	대중수입액 (백만불)	수입액 비중(%)	주요 품목	구분
일반품목	10년철폐	113	17.9	2	0.2	연어, 패각 등	한국측 위기 (단기)
민감품목	20년철폐	429	68.3	384	35.5	새우류, 새우살(냉동), 주꾸미, 전어 등	한국측 위기 (중장기)
초민감품목	TRQ	14	2.2	313	29.2	바지락(활, 냉장, 냉동), 낙지(활, 냉장, 냉동), 아귀(냉장, 냉동)등 중국 2차 리퀘스트 중 수입불가피 품목	중국측 관심품목 (중국의 대한국 시장접근기회확대)
	부분감축	9	1.4	50	4.7	굴, 김, 꽃게(냉동), 복어(냉동) 등 중국 2차 리퀘스트 중 고관세 위주	
	양허제외	64	10.1	327	30.4	꽃게(활, 냉장), 조기(냉동), 갈치(냉동),넙치(활, 냉동),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고등어(냉동), 가자미(냉동) 등 불법조업대상및 주요 생산자원 관리어종	한국측 보호
총합계		629	99.9	1,076	100		

자료 : 1.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11.10.),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4.11.10., 2015.06.05.)

11) 자료 : 김종화(2014),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수업의 위기와 기회, 충남리포트 제141호, 충남연구원

- 수산분야 타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민감품목 87개(수입액 기준 64.3%)를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입액 기준 35.7%를 양허하였음
- 기존의 타 FTA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으로 개방하여 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특히 중국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를 100%를 끌어 내 우리 수산물의 대 중국 수출확대 가능성이 커짐
  -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대 중국 주요 수출품목의 대부분이 즉시 관세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
-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불가 입장에 따라 주요 불법어획물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 양허제외, 부분감축, TRQ 등으로 대응함
  - 양허제외: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넙치(활),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고등어(냉동), 가자미(냉동) 등
  - 부분감축: 꽃게(냉동)는 관세 1% 감축하여 기존 14%에서 13.86%로 전환
  - TRQ(저율관세수입물량): 아귀(냉장, 냉동)는 물량의 10%만 부여

3. 국내 보완대책<sup>12)</sup>

## 1) 비전 및 추진과제

- (UR 이후 시장개방, FTA 확대 등 완전 개방 시대의 전개) '95년 WTO체제 출범 이래 모든 농산물이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되고 쌀도 금년부터 관세화 이행, FTA 미체결국과의 협상이 지속 추진되고 세계적 추세인 거대 FTA(한중일FTA, RCEP 등)의 영향력도 더욱 거세질 전망
- (개방확대 영향과 전망) 농축산물 수입액은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13년 농업생산액(47조원)의 75% 수준인 317억불에 이를 전망, 수입증가에 따른 판매감소 및 농산물 가격 하락과 투입재 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로 농가소득감소 예상, 농가수와 인구의 감소, 노령층 확대와 청년층 축소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농업·농촌의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할 전망
- (국내 보완대책) 개방시대 과제에 맞는 농업부문의 대응전략을 다음 그림과 같이 발표함

그림 3-1. 국내 보완대책 중 개방시대 과제와 농업부문의 대응전략

비전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정책기조	•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
정책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육성 : 직업교육, 창업지원 귀농·귀촌</li> <li>• 금융 등 개선 : 정책금리 합리화, 세제지원, 농신보 개선</li> <li>• 추진체계 : 품목업종별 맞춤형 정책</li> </ul>
추진과제	<div> <div>글로벌 경쟁력 제고</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화 및 규모화</li> <li>• ICT 융복합과 R&amp;D</li> <li>• 6차산업화 및 농촌관광</li> <li>• 유통개선 및 수급안정</li> </ul> </div> <div> <div>성장기반 및 수출확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및 안전 농식품</li> <li>• 고부가가치 식품 및 외식산업 육성</li> <li>• 수출확대</li> <li>• 기업과 상생협력</li> </ul> </div> <div> <div>안전망 강화</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과 경영 안정</li> <li>• 영세농, 고령농 배려</li> <li>• 정주여건 배려</li> </ul> </div>
FTA피해 보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보전 : 발농업, 임업, 양봉업 경쟁력 제고</li> <li>• FTA활용 : 해외시장 개척 지원, 수출애로 해소 등 수출확대</li> <li>• 제도개선 : 무역이득공유제 검토,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정책금리 인하, 검역 및 원산지 관리 강화 등</li> </ul>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5.06.05.), 개방시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책 : 한중 및 한베 FTA 국내 보완대책

- 12) 자료 : 1.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11.10.),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2. 농림축산식품부(2015.06.05.), 개방시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책 : 한중 및 한베 FTA 국내 보완대책  
 3. 산림청(2015), 한중FTA 대응 경쟁력 제고방안  
 4. 국회 보도자료(2015.11.30.), 추가 국내 보완대책

## 2) FTA 보완대책(① 피해보전 대책)

### (1) 발농업 경쟁력 제고

- (공동경영체 육성)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발작물 주산지에 발 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기 위한 단계별·유형별 지원 추진
  - 지역의 경영체와 지자체가 주산지 육성방안 등을 수립 후, 이를 종합평가하여 패키지로 정책 지원, 통합마케팅조직과 유통계열화하고 의무출하비율 확대 추진
- (발농업 기계화) 주산지 품목별 일괄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의 여성친화형 운영, 농기계 R&D 및 농작업대행 확대로 기계화율 제고
  - 일괄기계화란 주산지 임대사업소에는 품목 특성에 맞추어 생산준비부터 수확까지 전과정의 기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일괄기계화 체계를 구비한 것을 말함
  - 주산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하고 작목별 필수 농기계 구매확대를 통해 필요 농기계 부족 문제 해소
  - 기계화율이 낮은 고추마늘 등 9개 작물의 파종정식수확분야에 대해 발농업 기계 개발 추진
  - 농기계은행, 농작업대행 복덕방을 활용하여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
- (수입보장보험 및 수급안정) 수입보장보험<sup>13)</sup> 도입·확산, 발작물의 시장가격 안정화,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수확량 변동과 가격위험으로부터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득안정 + 경영안정’체계 구축
  - 지자체·생산자 단체 중심의 사전작자율적 수급안정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이고 신속한 수급 대책을 실시하도록 수급조절 매뉴얼 개선
- 발농업 고정직불금 및 받기반 정비
  - 모든 품목에 대해 ‘20년 60만 원/ha까지 단계적 인상, 그 외 받기반정비사업 제도개선(연구용역 실시 예정)
-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 2% 인하
- 전기요금 인하
  - RPC도정시설,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 20% 할인,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 운영/자가소비 전용 TMR 전기요금 농사용으로 전환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한도 확대
  - 현행 3천만 원→5천만 원으로 확대, 그 외 농신보담보제도 제도개선(연구용역 실시 예정)

13) 주 : 수입보장보험이란 농산물의 가격 하락, 생산량 감소 시 농가의 품목별 조수입이 일정수준(기준가격의 70~80%)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말함

## (2) 임업 경쟁력 제고

- (규모화·전문화) 임산물 전문생산단지, 융·복합 산업화단지 및 목재전문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규모화, 클러스터화 추진
  - (단기 임산물)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단지, 생산·가공·유통 융복합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단지 조성, 생산설비 및 기반시설 지원
  - (목재) 임도시설 밀도개선, 기계장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목재 산업계의 안정적·효율적 목재 공급
- (가공·유통 효율화) 시설·장비 현대화 및 생산자 중심으로 가공·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
  - 생산자 중심의 산지종합유통센터 구축으로 유통 효율화 추진 및 표고버섯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표고버섯 톱밥배지 시설 구축
  - 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가공산업 활성화 추진
  - 제재·건조·방부시설 현대화 및 권역별 목재유통센터 구축 등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 추진
- (R&D 확충) 신제품,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재배·가공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기술 보급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 기능성, 내재해성 등 신제품 개발 보급 및 자급률 제고(고사리, 호두 등), 기계화 등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보급
  - 신물질,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 및 가공기술 개발
  -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등을 활용한 품목별 연구·지도인력 확충 및 네트워크화
- (임산물 수출 확대) 주력 품목의 수출기반 구축, 중국 고급시장을 겨냥한 상품개발과 식품안전성 관리강화, 중국시장 전략적 마케팅 강화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및 수출용 공동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품목별 수출연구사업단 발족으로 수출현장형 R&D 추진
  - 전략상품 개발 및 포장·유통법 연구, 임산물 수출이력관리 및 식품인증비용 지원을 통한 식품안전성 강화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마케팅(연 2억 원), 물류센터 지원, 고급·친환경 목제품 시장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등 지원

## (3) 수산업 경쟁력 제고

-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맨손·나잠, 종묘생산 등 영세어가 대상
  - 어촌 공동체의 기반인 맨손·나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 (3→2%)
  - 양식산업의 기반인 종묘생산 어가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 (3→2%)



- 재해, 적조,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경영 안정자금 운영 (이자보전, 금리 1.8%)

#### ■ (정책보험 내실화) 어업 재해보험 확대 및 수입보장보험 도입

- 양식어가의 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 확대
- 시장여건 변화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어가수입이 일정수준으로 유지 되도록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 도입
- 소득수준과 연계한 어가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어업 경영체 등록 의무화도 추진 ('15년 50%→'19년 100%)

#### ■ (연안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연안어업 주요 품목 생산자단체 조직화

- 연안어업 생산자들이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단체를 육성하고 시장 교섭력과 자율적인 수급조절 역량을 제고
- 홍보·마케팅을 통한 품목별 단체 조직화 → 경영·자원관리 컨설팅 실시 → 자조금 조성 및 정부 1:1 매칭 출연

#### ■ (소형어선 지원확대) 노후어선 개량 및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

- 주변 국가에 대한 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형 어선원의 안전 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 어선 개량 사업 확대
- 폐기 또는 유실되는 폐어구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영세 어업인의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확대

#### ■ (지속가능 자원관리) 불법어업 단속강화 및 수산자원 정밀조사 추진

- 불법어업이 심각한 해역의 단속 강화를 위해 국가 어업지도선의 단속정 승하강 장치(데비트) 교체 지원 (~'18)
- 서해 5도, 이어도 등 연근해 특정해역에 대한 ICT 기반의 수산자원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어업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 ■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인증제 내실화를 기반으로 친환경 인증 수산물 생산 촉진

- 친환경 인증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초기에 증가하는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여 친환경 양식 육성
- 이를 위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 내실화를 추진하는 등 사전 기반 구축 추진

#### ■ (양식 어업인 직접지원 강화)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보급,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양식 수산물 자조금 지원 확대 추진

-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을 개발·보급하여 국산 양식 수산물의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질병을 저감하여 수입산과 차별화 도모

- 육상 양식장에 히트펌프, 인버터 등의 도입을 확대하여 전기료, 유류비 등 비용 절감을 유도
- 양식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소비촉진, 수급조절 등을 통해 시장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식 수산물 자조금 지원 확대

#### ■ (취약분야 특화지원) 내수면 품목, 소금산업 대상

- 수출 경쟁력이 취약한 내수면 품목을 수입산과 차별화하기 위해 주요 소비지에 유통판매센터 건립 ('16~'18, 1개소)
- 영세 천일염 생산어가에 생산자동화 설비를 지원(~'18)하여 영세 어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경비 절감을 지원

#### ■ (가공식품 육성 기반 확충) 지역별 특산 수산식품 육성을 위해 영세한 생산·가공업체의 규모화·집적화를 지원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

- 가공업체들이 거점단지를 활용하여 수산식품 개발, 상품화 등 공동 연구개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거점단지 운영을 내실화

#### ■ (수산물 유통 자동화) 양륙·선별 자동화 설비 및 전처리 자동포장시스템 도입 추진

- 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주요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양륙·선별 자동화 설비 도입 ('18~)
- 수산물을 전처리 후 개별 자동 포장하여 장기간 유통이 가능하도록 산지 거점 유통센터 내에 전처리 자동포장시스템 도입

#### ■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비과세 금액 2천만 원→ 3천만 원 인상

#### ■ 조건불리직불제

-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 포함
- 2017년부터 4년 간 단계적 인상 ('20년까지 농지 70만 원/ha, 어가 70만 원/어가)
- 현행 : 농지 50만 원/ha, 어가 50만 원/ha

### 3) FTA 보완대책(② FTA활용대책)

#### ■ (수출조직화) 농가-수출업체 계열화한 수출선도조직을 중심으로 수출 전문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마케팅·물류비 등을 집중 지원

- 대규모 법인은 농식품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여 무역금융 혜택 및 해외 마케팅 사업선정 우대(산업부 협조)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를 R&D와 결합된 식품 가공기지로 육성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국산 원료 공급·OEM 등 통한 해외 진출 추진

- (정보조사) aT·KREI 등 관계기관 합동 시장정보 조사를 통해 전략품목 발굴, 현지화 된 상품 개발을 위한 체계적 지원 추진
  - 전략품목은 맛포장상품화마케팅 등 ‘현지화 종합 컨설팅’ 지원
- (판매채널 확대 및 홍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한국 농식품 판매관’ 확대 및 입점 희망업체 홍보·컨설팅 지원
  - 기업 유통망(TV홈쇼핑, 대형마트 등) 활용 국산 농식품 판촉 등 추진
  - 2·3선 내륙도시를 중심으로 한국 농식품 상품展(K-Food Fair) 개최, 안테나숍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신규 거래선 발굴 및 수출 저변 확대
- (수출 애로 해소) 농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 수출자 등록·라벨등록 등 통관지원, SPS(검역·위생기준)해소 지원 추진

#### 4) FTA 보완대책(③ 각종 제도개선)

- (FTA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시행기간, 이의절차, 절차간소화, 무역이득공유, 정책금리 및 세제
  - (보전비율) 보전비율 90%에서 95%로 인상
  - (시행기간) 현행 법정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피해보전효과 확대
  - (이의절차) 대상품목 결정에 대한 농업인의 불복절차 제도화
  - (절차 간소화) 직불금 신청·지급 절차를 간소화, 수입기여도 산정방식/절차 공정한 검증, 최종 결정 전 이의제기 절차 마련
  - (무역이득공유)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검토 중이며,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논의 예정
  - (정책금리 및 세제) 추가 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가액 한도 확대(5억원→15)를 법제화
  - \* 피해보전직불금=(기준가격-당해연도 가격)×보전비율×수입기여도
  - \* 기준가격=(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90%
- (농축산 검역관리 강화) 중점관리품목 지정 및 운영, 장비 등의 확충
  - (중점관리품목 지정·운영) 고위험 품목,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관리대상품목 지정, 불법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상시 감시망 구축
  - (장비 등 확충) 농축산물 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 보강 추진
- (원산지표시제 실효성 강화) 원산지 표시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원산지 표시) 원산지 거짓표시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 수준 강화
  - (소비자보호) 원산지 표시강화 등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할 예정

■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 기금 조성
- 기업의 자발적 기부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
-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 추진예정

5) 투융자계획

■ 국내 보완대책을 토대로 한 농림어업 부문의 투융자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3-5. 농림업 부문 투융자 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내용	투융자규모 ('16~'25년)	연평균 투융자 규모
발농업 경쟁력 제고	발 공동경영체 육성	465	46.5
	농기계 임대	400	40.0
	농업수입보장보험	300	30.0
임업 경쟁력 제고	목재산업시설현대화	210	21.0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100	10.0
수출촉진	임산물 수출	20	2.0
	수출기반 강화	60	6.0
수입안전 체계구축	동축산물 검역검사	20	2.0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20	2.0
농업 소계 (한·중)		1,595	159.5

주 : 국회가 발표한 추가 국내 보완대책(2015.11.30.) 내용에서 추가 투융자계획은 발표되지 않았기에 본 표에 있는 최종 투융자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자료 : 1.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11.10.),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2.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5.06.05.), 개방시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책 : 한중 및 한베 FTA 국내 보완대책

표 3-6. 어업 부문 투융자 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내용	투융자규모 ('16~'25년)	연평균 투융자 규모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	어촌공동체, 수산종묘자금(이차보전)	100	10.0
	긴급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34	3.4
	어업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포함)	400	40.0
	어업경영체등록	140	14.0
어선어업 분야지원	연안어업인 자조단체 육성	172	17.2
	노후어선 부분개량	310	31.0
	친환경어구 보급사업	104	10.4
	불법조업 대응역량 강화	90	9.0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132	13.2
양식어업 분야지원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146	14.6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100	10.0
	친환경 에너지보급	200	20.0
	수산물 자조금 지원	150	15.0
	내수면 양식 지원	100	10.0
	천일염 산업 특화 지원	69	6.9
가공유통 인프라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136	13.6
	수산물유통자동화설비	101	10.1
수출지원	수산물해외시장개척	434	43.4
검역관리 강화	수산물원산지관리	260	26.0
	수산물이력제	10	1.0
수산업 합계 (한·중, 한·베)		3,188	318.8

주 : 1. 수산업 부문의 피해대책은 한중FTA, 한베FTA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2. 국회가 발표한 추가 국내 보완대책(2015.11.30.) 내용에서 추가 투융자계획은 발표되지 않았기에 본 표에 있는 최종 투융자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자료 : 1.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11.10.),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5.06.05.)



## 제2장 부문별 영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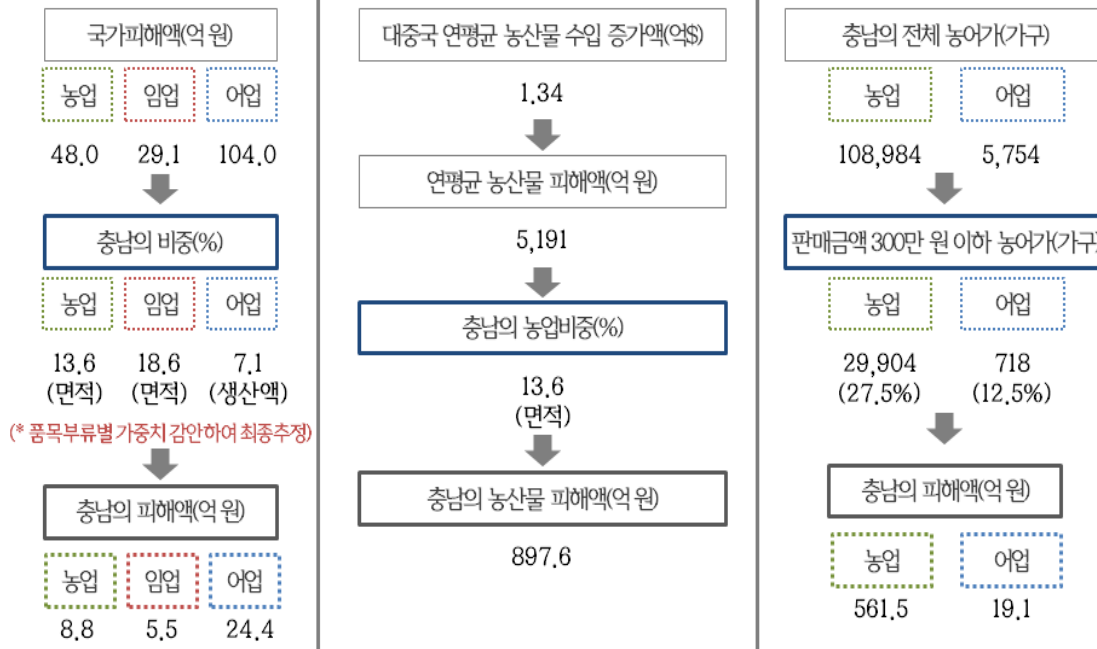
## 제1절 시나리오

■ 한중FTA로 인한 부문별 영향분석의 3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 한중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 관세효과로 인한 농림어업 부문의 연평균 생산감소액
-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액 : 관세효과 없이 발생하는 농업의 생산감소액
- 위험가구(한계가구) 붕괴 시 피해액 : 연간 300만원(판매금액) 이하인 농가를 위험가구(한계가구)로 보고 이들의 판매금액과 가구수를 곱하여 산출

그림 3-2. 부문별 영향분석 시나리오

① 한중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②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액 ③ 위험가구(한계가구) 붕괴 시 피해액



자료 : 1. 농업과 임업은 농림어업총조사(2010)  
2. 어업은 수산정보포털통계(2013)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5)  
주 : 충남의 연간 농림수산물 생산액 3,9조 원~4조 원 수준

자료 : 농업과 어업은 농림어업총조사(2010)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직접피해액) ① 한중FTA로 인한 농림어업 피해액은“산업통상자원부(20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결과”,“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11.10.),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등을 참고함
- (간접피해액) ②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액도 상기자료와 동일함
- (간접피해액) ③ 위험가구(한계가구) 붕괴 시 피해액은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 제2절 한중FTA에 따른 농림어업 피해액

### 1. 농업 부문

■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 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20년(2016~2035년) 연평균 48억 원(누적 958억 원) 수준이며 동기간 평균 농업 총생산액의 0.009%에 해당, 피해는 제한적

- 품목별로는 유지류(참깨, 들깨, 땅콩), 고추, 연초, 두류, 마늘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될 전망, 한중FTA로 농산물 무역수지적자는 연평균 123만 달러(누적 2,454만 달러) 확대예상
-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생산액을 발표하는 주요 품목 85개 가운데 78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양허제외 이외 신선농산물과 조제저장처리한 제품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거나 부분 감축하는 방법으로 양허하였음
-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인 식용대두, 참깨, 고구마 전분, 팔, 보리(맥아)는 품목에 따라서 3,000~24,000톤을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이 불포함되어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 부담 없이 타결되어 과일류, 축산물의 신선농산물 수입가능성은 없음

■ 품목부류별 예상수준은 다음과 같음

- 단순가공농산물 개방으로 간접적 영향이 예상, 이는 혼합조미료, 김치, 토마토 가공품, 건조 및 냉동 과실채소 등 해당
- 재배업 생산 감소액은 20년 평균 46억 원(누적 920억 원) 수준, 이는 동기간의 재배업 총생산액의 0.016%에 해당되며 총 피해액의 96% 수준
- 축산업 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20년 평균 2억 원(누적 38억 원)의 생산 감소 예상되며, 이는 동기간 평균 축산업 총생산액의 0.001%에 해당하는 수준 및 총 피해액의 4% 차지

■ 충남 농업 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20년(2016~2035년) 평균 8.8억 원(누적 164.2억 원) 수준

- 충남의 농산물 피해액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전체 피해액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재산정
- 농산물은 품목부류별 대표품목의 전국 대비 충남의 면적 비중으로 피해액을 산정함(고구마, 시설배추, 배, 인삼)
- 축산물은 품목부류별 대표품목의 전국 대비 충남의 가축수 비중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였음(젖소사육두수)
- 재배업 생산 감소액은 20년 평균 8.4억 원(누적 156.6억 원) 수준
- 축산업 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20년 평균 0.4억 원(누적 7.6억 원) 수준

표 3-7. 한중FTA에 따른 국가 및 충남의 농산물 피해액

(단위 : 억 원)

우리나라 피해액		연차별 피해액					20년 누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전체(재배업+축산업)		-48	-26	-40	-54	-71	-958
재배업		-46	-23	-38	-52	-71	-920
(기준 불명확)	곡물류	-6	-3	-5	-7	-9	-120
(기준 불명확)	채소류	-21	-12	-17	-23	-33	-430
(기준 불명확)	과실류	-4	-1	-3	-4	-6	-71
(기준 불명확)	특용작물, 기타	-15	-7	-13	-17	-22	-298
축산업		-2	-3	-2	-2	-1	-38

전국 대비 충남 면적 비중		비중					20년 누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고구마면적 (최대비중)	곡물류	17.0%	17.0%	17.0%	17.0%	17.0%	17.0%
시설배추면적 (최대비중)	채소류	16.0%	16.0%	16.0%	16.0%	16.0%	16.0%
배면적 (최대비중)	과실류	22.0%	22.0%	22.0%	22.0%	22.0%	22.0%
인삼면적 (최대비중)	특용, 기타	21.0%	21.0%	21.0%	21.0%	21.0%	21.0%
젓소사육두수 (최대비중)	축산업	19.0%	19.0%	19.0%	19.0%	19.0%	19.0%

충남 피해액		연차별 피해액					20년 누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전체(재배업+축산업)		-8.8	-4.5	-6.9	-9.1	-12.1	-164.2
재배업		-8.4	-3.9	-6.5	-8.7	-11.9	-156.6
고구마면적 (최대비중)	곡물류	-1.0	-0.2	-0.4	-0.6	-0.7	-9.6
배추면적 (최대비중)	채소류	-3.4	-1.9	-2.7	-3.7	-5.3	-68.8
배면적 (최대비중)	과실류	-0.9	-0.2	-0.7	-0.9	-1.3	-15.6
인삼면적 (최대비중)	특양용, 기타	-3.2	-1.5	-2.7	-3.6	-4.6	-62.6
축산업		-0.4	-0.6	-0.4	-0.4	-0.2	-7.6

- 주 : 1. 농림업 부분은 부류별 생산액 자료가 없으므로 품목부류별 전국 대비 면적의 최대치 비중으로 사용  
 2. 국가에서 품목별 세부 산출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품목부류에서 피해품목 위주의 최대치 비중을 사용하여 추정  
 3. 산업통상자원부(2015)자료를 통해 재추정 하였음

2. 임업 부문

■ 국가 전체적으로 임업의 피해액(즉, 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20년(2016~2035년) 평균 29억 원(누적 582억 원)으로 예상함

- 목재류 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20년 평균 15억 원(누적 308억 원) 예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20년 평균 14억 원(누적 274억 원) 예상
- 품목별로는 제재목, 합판, 냉동 송이버섯, 건조 고사리 등을 중심으로 피해 집중되며, 한중 FTA에 따른 임산물 무역수지적자는 평균 628만 달러(누적 1억 2,562만 달러)로 예상됨

■ 충남 임업 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20년(2016~2035년) 평균 5.5억 원(누적 110.5억 원) 예상

- 충남의 임산물 피해액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전체 피해액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산정
- 임산물은 목재 및 단기소득임산물 각각 전국 대비 충남의 재배면적 비중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였음
- 목재류 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20년 평균 2.9억 원(누적 58.4억 원) 예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20년 평균 2.6억 원(누적 52.1억 원) 예상

표 3-8. 한중FTA에 따른 국가 및 충남의 임산물 피해액

(단위 : 억 원)

우리나라 피해액	연차별 피해액					20년 누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전체	-29	-28	-23	-41	-25	-582
목재	-15	-5	-15	-32	-10	-308
단기소득임산물	-14	-23	-8	-8	-15	-274

▼

전국 대비 충남 면적 비중	비중					20년 누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목재	19.0%	19.0%	19.0%	19.0%	19.0%	19.0%
단기소득임산물	19.0%	19.0%	19.0%	19.0%	19.0%	19.0%

▼

충남피해액	연차별 피해액					20년 누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전체	-5.5	-5.3	-4.4	-7.7	-4.7	-110.5
목재	-2.9	-0.9	-2.8	-6.1	-1.9	-58.4
단기소득임산물	-2.6	-4.4	-1.6	-1.6	-2.8	-52.1

주 : 산업통상자원부(2015)자료를 통해 재추정하였음

### 3. 어업 부문

- 한중FTA로 수산물 수입은 20년 연평균 1,830만 달러, 20년 누적 약 3억 6,5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부류별로는 어류가 연평균 690만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패류 460만 달러, 갑각류 420만 달러, 연체류 140만 달러 등의 순임
  - 어류는 까나리, 새치, 쥐치, 다랑어, 가오리, 붕어, 기타활어 등, 패류는 가리비, 바지락, 백합, 홍합, 재첩 등, 갑각류는 새우, 기타게 등, 연체류는 주꾸미, 낙지 등의 수입이 증가함
- 한중FTA로 수산물 수출은 20년 연평균 900만 달러, 20년 누적 1억 8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 부류별로는 연체류가 연평균 340만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해조류 180만 달러, 어류 180만 달러, 패류 160만 달러 등의 순임
  - 연체류는 기존 대중국 수출이 가장 많은 오징어갑오징어가 증가하고, 해조류는 김의 수출 증가가 가장 많고 미역, 기타해조류, 다시마 등이 증가
  - 어류는 기타어류, 명태, 다랑어, 고등어, 대구 등이, 패류는 굴, 해삼, 가리비 등이 증가함
- 요약하면, 한중FTA로 수산물 수입은 연평균 1,830만 달러, 수산물 수출은 900만 달러 증가하여 연간 930만 달러, 20년 누적 약 1억 8,600만 달러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한중 FTA에 따른 수산물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수입의 증가가 많아 수산물 생산은 20년 연평균 104억 원, 20년 누적 약 2,07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됨
  - 부류별 감소액은 갑각류가 5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어류가 48억 원, 패류 36억 원 등의 순이며, 수출이 증가하는 연체류와 해조류는 각각 19억 원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 증가가 많은 부류와 품목의 생산이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출 증가가 많은 부류와 품목의 생산이 비례적으로 증가함
  - 업종별로는 일반해면(연근해) 어업의 생산 영향이 가장 크고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염업 등의 순임
- 충남의 수산물 생산은 20년 연평균 24.4억 원, 20년 누적 약 491.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충남의 수산물 피해액은 전국대비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재산정하였는데 품목부류별 전국 대비 충남의 생산액 비중으로 피해액을 산정하였음(\*참고: 인구수 14.5%, 가구수 15%)
  - 부류별 감소액은 연평균 갑각류가 13.7억 원으로 가장 많고, 패류가 11.2억 원, 어류 3.1억 원 순(20년 누적으로 각각 62.9억 원, 274억 원, 225.8억 원 감소 예상), 수출증가로 인해 연체류와 해조류는 각각 1.3억 원, 2.3억 원 생산액이 증가 예상(20년 누적 연체류는 26.6억 원, 해조류는 44.6억 원 증가 예상)

표 3-9. 한중FTA에 따른 국가 및 충남의 수산물 피해액

(단위 : 억 원)

우리나라 피해액	연차별 피해액					20년 누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전체	-104	-26	-72	-127	-190	-2,079
어류	-48	-12	-33	-59	-88	-961
갑각류	-52	-15	-40	-64	-89	-1041
패류	-36	-10	-26	-45	-65	-726
연체류	19	5	14	24	33	379
해조류	19	6	15	23	30	372
소금	-8	-2	-6	-10	-14	-165

▼

전국 대비 충남 생산액 비중	비중					20년 누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어류	6.5%	6.5%	6.5%	6.5%	6.5%	6.5%
갑각류	26.3%	26.3%	26.3%	26.3%	26.3%	26.3%
패류	31.1%	31.1%	31.1%	31.1%	31.1%	31.1%
연체류	7.0%	7.0%	7.0%	7.0%	7.0%	7.0%
해조류	12.0%	12.0%	12.0%	12.0%	12.0%	12.0%
소금	-	-	-	-	-	-

▼

충남 피해액	연차별 피해액					20년 누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전체	-24.4	-6.77	-17.99	-30.26	-43.49	-491.5
어류	-3.1	-0.8	-2.2	-3.9	-5.8	-62.9
갑각류	-13.7	-3.9	-10.5	-16.8	-23.4	-274.0
패류	-11.2	-3.1	-8.1	-14.0	-20.2	-225.8
연체류	1.3	0.4	1.0	1.7	2.3	26.6
해조류	2.3	0.7	1.8	2.8	3.6	44.6
소금	-	-	-	-	-	-

주 : 산업통상자원부(2015)자료를 통해 재추정하였음

### 제3절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액

■ 한중 FTA 관세감축이 없어도 중국 농산물 수입 연평균 1.34억 달러 증가 전망

- 농업생산액 누적 피해액(2016~2035) 10조 3,825억 원 추정(연평균 5,191억 원)
- 피해액의 99.9%는 재배업에 집중되며, 양념류, 인삼류, 엽근류 등을 중심으로 피해 집중
- 다만 한중 FTA 관세감축이 없어도, 중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
- 농업생산액 누적 피해액(2016~2035) 1조 7,796억 원 추정(연평균 897.6억 원) 추정

■ 국가 전체적으로 한중 FTA에 따른 수산물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수입의 증가가 많아 수산물 생산은 20년 연평균 104억 원, 20년 누적 약 2,07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됨

- 부류별 감소액은 갑각류가 5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어류가 48억 원, 패류 36억 원 등의 순이며, 수출이 증가하는 연체류와 해조류는 각각 19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 증가가 많은 부류와 품목의 생산이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출 증가가 많은 부류와 품목의 생산이 비례적으로 증가함
- 업종별로는 일반해면(연근해) 어업의 생산 영향이 가장 크고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염업 등의 순임

표 3-10.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액

(단위 : 억 원)

구분	연평균					20년 누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015년 기준 수입량 대비	5,191					103,825
2015년 기준수입량 대비	-897.6					-17,796

주 : 산업통상자원부(2015)자료를 통해 재추정하였음

## 제4절 농림어업 위험가구 붕괴 시 피해액

### 1. 충남의 농림어업 위험가구

■ 충남의 농업 위험가구는 농업수입뿐이거나 농업 수입이 더 많은 가구 중 지난 1년 간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

표 3-11. 충남의 농림어업 위험가구 붕괴 시 피해액

(단위 : 만 원)

판매금액	충남		충남 피해액	
	가구	비중	최대 피해액	누적
판매 없음	5,912	5.4	0	0
120만 원 미만	8,788	8.1	1,054,560	1,054,560
120~300만 원	15,204	14.0	4,561,200	5,615,760
300~500만 원	15,447	14.2	7,723,500	13,339,260
500~1천만 원	19,785	18.2	19,785,000	33,124,260
1천~2천만 원	16,701	15.3	33,402,000	66,526,260
2천~3천만 원	10,064	9.2	30,192,000	96,718,260
3천~5천만 원	8,162	7.5	40,810,000	137,528,260
5천~1억 원	5,872	5.4	58,720,000	196,248,260
1억~2억 원	1,994	1.8	39,880,000	236,128,260
2억 원 이상	1,055	1.0	31,650,000	267,778,260
계	108,984	100.0	267,778,260	

주 : 위험가구는 농어업 소득이 기타소득 보다 더 많은 가구 중에서 연평균 판매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정의  
자료 : 통계청(2010), 농림어업 총조사

- 충남에서 농업수입뿐이거나 농업수입이 더 많은 가구는 총 108,984가구이며 이중 지난 1년간 판매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29,904가구(전체 대비 27.5%)로 이 가구들은 잠재적인 위험가구로 볼 수 있음
- 이 가구들은 부정적인 외부충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중 FTA로 인해 판매에 차질이 생긴다면 농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음
- 이들 가구의 농업 포기로 인한 충남의 피해액은 562억 원 정도임



## 2. 충남의 어업 위험가구

■ 충남의 어업(해수면) 위험가구는 어업 수입뿐 이거나 어업 수입이 더 많은 가구 중 지난 1년 간 수산물의 판매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

- 충남에서 어업 수입뿐 이거나 어업 수입이 더 많은 가구는 총 5,754가구이며 이중 지난 1년간 판매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718가구(전체 대비 12.5%)로 이 가구들은 잠재적인 위험가구로 볼 수 있음
- 이 가구들은 부정적인 외부충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중 FTA로 인해 판매에 차질이 생긴다면 수산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음
- 이들 가구의 어업 포기로 인한 충남의 피해액은 19억 원 정도임

표 3-12. 충남의 어업 위험가구 붕괴 시 피해액

(단위 : 만 원)

판매금액	충남		충남 피해액	
	가구	비중	최대 피해액	누적
판매 없음	9	0.16	0	0
120만 원 미만	122	2.12	14,640	14,640
120~300만 원	587	10.2	176,100	190,740
300~500만 원	681	11.84	340,500	531,240
500~1천만 원	1188	20.65	1,188,000	1,719,240
1천~2천만 원	960	16.68	1,920,000	3,639,240
2천~3천만 원	595	10.34	1,785,000	5,424,240
3천~5천만 원	601	10.44	3,005,000	8,429,240
5천~1억 원	525	9.12	5,250,000	13,679,240
1억~2억 원	240	4.17	4,800,000	18,479,240
2억 원 이상	246	4.28	7,380,000	25,859,240
계	5,754	100.0	25,859,240	

주 : 위험가구는 농어업 소득이 기타소득 보다 더 많은 가구 중에서 연평균 판매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 정의  
 자료 : 통계청(2010), 농림어업 총조사

## 제5절 총괄

■ ① 분석방법 : 한중FTA로 인한 국가가 제시한 농림어업 연평균 피해액 181억 원을 근거로 충남의 비중을 감안하여 연평균 약 38.7억 원의 피해액 예상되고 직접피해액으로 구분함

- 농업 부문에서는 국가는 48억 원, 충남은 8.8억 원 생산액 감소 예상
- 임업 부문에서는 국가는 29억 원, 충남은 5.5억 원 생산액 감소 예상
- 어업 부문에서는 국가는 104억 원, 충남은 24.4억 원 생산액 감소 예상

■ ② 분석방법 : 한중FTA 관세감축이 없어도 중국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한 전국의 연평균 피해액은 농업부문에서만 5,191억 원, 충남은 897.6억 원으로 예상, 간접피해액으로 구분함

- 관세효과 없이 매년 1.34억 달러씩 증가하여 농업 부문은 5,191억 원 생산액 감소, 충남 재배면적 비중이 13.6% 달하여 충남 농업은 897.6억 원 생산액 감소 예상

■ ③ 분석방법 :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한계가구로 보고 붕괴 시 연평균 피해액은 580.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간접피해액으로 구분함

- 충남의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농가는 전체의 27.5%, 어가는 12.5% 비중 차지하여 이들의 판매금액 누적액을 합산하여 보면 연평균 피해액은 약 580.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
- 단, 한계가구 붕괴는 자연적 감소로 인한 원인이 주를 이루지만 한중FTA로 인해 붕괴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분석한 결과

표 3-13. 한중FTA로 인한 충남의 농림어업 피해액 총괄

(단위 : 억 원)

구분		지역	농업	임업	어업	계
직접피해액	① 한중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전국	-48.0	-29.1	-104.0	-181.1
		충남	-8.8	-5.5	-24.4	-38.7
간접피해액	②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전국	-5,191	미산정	미산정	-5,191.0
		충남	-897.6	미산정	미산정	-897.6
	③ 위험가구(한계가구) 붕괴 시 연평균 피해액	전국	미산정	미산정	미산정	0.0
		충남	-561.5	미산정	-19.1	-580.6
소계		충남	-1,467.9	-5.5	-43.5	-1,516.9
※ 참고 : 직접피해액	① 한중FTA로 인한 20년 누적 피해액	전국	-958.0	-582.0	-2,079.0	-3,619.0
		충남	-175.0	-110.5	-491.5	-777.0

자료 : 강마야(2015), 한중FTA에 따른 충남 농림어업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구상, 충남리포트 제199호, 충남연구원구원구원

## ■ 전국 및 충남의 농림수산물 피해액 비교

- 한중FTA가 발효될 경우, 발농업임업을 중심으로 향후 20년간 총 1,540억 원, 연평균 77억 원의 농산물 생산액 감소 추정
- 부문별로는 재배업 920억 원(연 46억 원), 임업 582억 원(연 29억 원), 축산업 38억 원(연 2억 원) 규모의 생산액 감소 예상

표 3-14. 한중FTA로 인한 전국 및 충남의 농림어업 피해액 비교

(단위 : 억 원)

구분	품목부류	국가의 연평균 피해액	충남의 비중	충남의 연차별 피해액(억 원)					충남의 20년 누계 (억 원)	국가의 20년 누계 (억 원)
		(억 원)	(%)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농업	전체(재배업+축산업)	-48	-	-8.8	-4.7	-7.4	-9.7	-13.0	-175.0	-958
	재배업	-46	-	-8.4	-4.1	-7.0	-9.3	-12.8	-167.4	-920
	곡물류	-6	17.0%	-1.0	-0.5	-0.9	-1.2	-1.5	-20.4	-121
	채소류	-21	16.0%	-3.4	-1.9	-2.7	-3.7	-5.3	-68.8	-430
	과실류	-4	22.0%	-0.9	-0.2	-0.7	-0.9	-1.3	-15.6	-71
	특약용, 기타	-15	21.0%	-3.2	-1.5	-2.7	-3.6	-4.6	-62.6	-298
	축산업	-2	19.0%	-0.4	-0.6	-0.4	-0.4	-0.2	-7.6	-38
임업	전체(임업)	-29	-	-5.5	-5.3	-4.4	-7.7	-4.7	-110.5	-582
	목재	-15	19.0%	-2.9	-0.9	-2.8	-6.1	-1.9	-58.4	-308
	단기소득임산물	-14	19.0%	-2.6	-4.4	-1.6	-1.6	-2.8	-52.1	-274
어업	전체(어업)	-104	-	-24.4	-6.8	-18.0	-30.3	-43.5	-491.5	-2,142
	어류	-48	6.5%	-3.1	-0.8	-2.2	-3.9	-5.8	-62.9	-961
	갑각류	-52	26.3%	-13.7	-3.9	-10.5	-16.8	-23.4	-274.0	-1,041
	패류	-36	31.1%	-11.2	-3.1	-8.1	-14.0	-20.2	-225.8	-726
	연체류	19	7.0%	1.3	0.4	1.0	1.7	2.3	26.6	379
	해조류	19	12.0%	2.3	0.7	1.8	2.8	3.6	44.6	372
	소금	-8	-	-	-	-	-	-	-	-165

주 : 1. 단기소득임산물은 건조고사리, 냉동 송이버섯, 목이버섯, 기타 산림수, 죽순, 기타 등을 합한 것임

2. 어업의 국가 수치는 원인불명으로 인해 총합계 수치가 맞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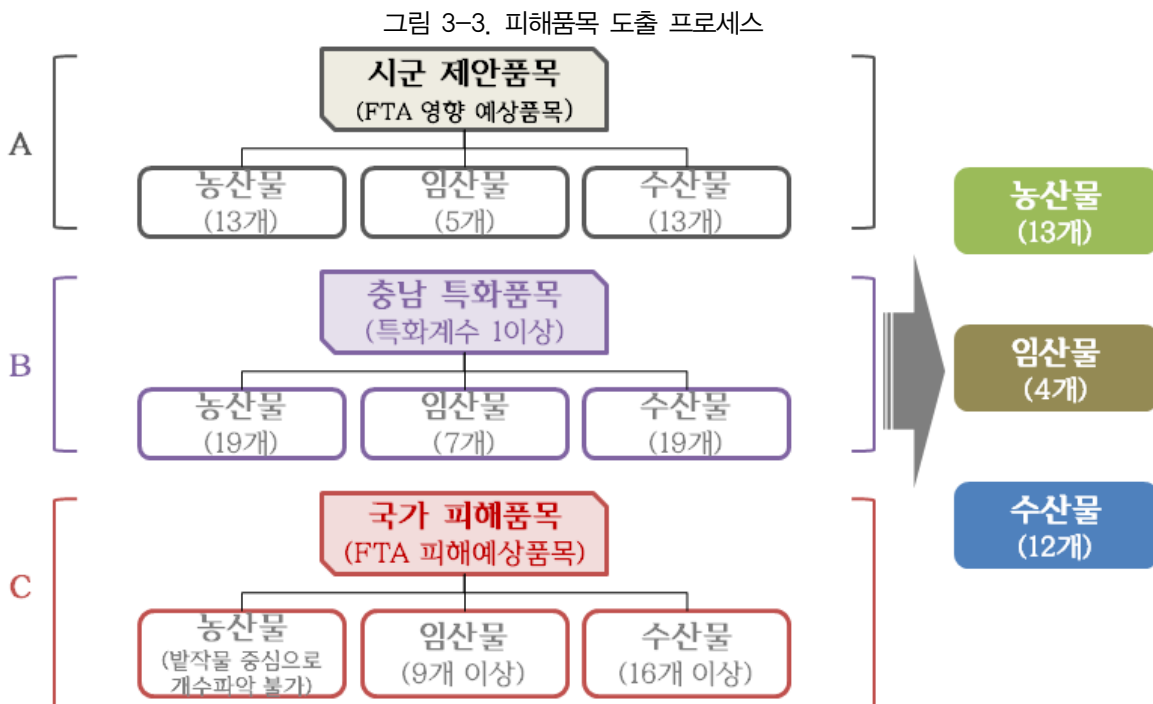
## 제3장 분석대상 품목 도출



## 1. 프로세스

■ 중요도 계수를 바탕으로 충남의 피해품목 도출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과 같음

- (A) 한중FTA로 인하여 시군 자체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농림수산물 품목
- (B) 충남의 농림수산물 품목 중 특화계수가 1 이상인 품목
- (C) 한중FTA로 인하여 국가에서 제시한 피해예상 품목군



\* 최종 주력대응품목 \*

$$A(0.25) + B(0.25) + C(0.5) = \text{중요도 계수}$$

1. ( )는 가중치임

2. 중요도 계수는 약(0.5미만), 중(0.5~0.9), 강(1.0)임

■ 가중치를 국가 피해품목 0.5, 충남 특화품목 0.25, 시군 제안품목 0.25으로 부여하고 합산한 값을 중요도 계수로 봄

- (A), (B), (C) 3가지를 각각 0.25, 0.25, 0.5의 가중치를 두어 중요도 계수를 산출함
- 중요도 계수 값이 “강”은 1, “중”은 0.5 이상 ~ 0.9이하, “약”은 0.5 미만임
- 최종적으로 분석대상 품목이자 충남의 최종 주력대응 품목 선정은 중요도 계수(충남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도)가 “0.75~1”인 품목으로 한정함
- 해당지역 선정은 충남 내 시군별 특화계수에서 1이상으로 나온 해당지역을 선정, 충남특화계수 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지역을 선정함

- 중요도 계수 산출결과 농산물 13개 품목, 임산물 4개, 수산물 12개 품목을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고 이는 향후 충남이 주력으로 대응해야 할 품목으로 봄

####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A) 시군 제안품목은 “2015년 4월~5월 수요조사 시 시군작성 자료”에 의거함
- (B) 충남 특화품목은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를 사용함
- (C) 국가 피해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20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11.10.),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등을 참고함



## 2. 분석대상 품목 도출

### 1) 시군 제안품목

■ 한중 FTA에 따른 시군의 제안품목(농산물 13개, 임산물 5개, 수산물 13개)은 다음과 같음

표 3-15. 한중FTA에 따른 시군별 제안품목

구분	품목명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농산물	포도	v														
	인삼									v						
	토마토(방울포함)			v			v				v					
	생강					v										v
	마늘					v										v
	고추												v			v
	사과								v						v	
	배	v			v		v									
	고구마			v										v		v
	들깨	v	v	v	v	v	v	v			v	v	v	v	v	
	땅콩	v				v	v								v	v
	콩	v	v					v		v			v		v	v
	배추			v	v	v			v					v	v	v
임산물	밤		v								v		v			
	기타약용작물(약초)									v						
	표고버섯										v		v			
	구기자			v									v	v	v	
	은행			v											v	
수산물	산양삼			v		v				v		v			v	
	주꾸미			v								v				
	바지락			v		v			v					v		v
	김			v								v		v		
	멸치			v												
	조피볼락					v			v							
	넙치					v			v							
	굴					v			v							
	키조개			v												
	낙지					v										v
	전복			v												
	해삼			v												v
	꽃게			v												
	새우(대하)			v												

자료 : 시군 작성자료(2015)

표 3-16. 시군별 제안품목 사유

구분	품목	선택사유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농산물	배	수출주력품목 O, 피해품목 X	v	v		v											
수산물	전복	수출주력품목 O, 피해품목 X			v					v							v
	해삼	수출주력품목 O, 피해품목 X			v		v						v				v
	김	수출주력품목 O, 피해품목 X			v								v				
임산물	밤	수출주력품목 O, 피해품목 X		v								v		v			
	표고버섯	수출주력품목 O, 피해품목 X										v		v			

주 : 피해품목 외에 충남이 적극적 공략할 품목으로서 배, 전복, 해삼, 김, 밤, 표고버섯 등을 추가 의견으로 제출함  
자료 : 시군 작성자료(2015)

## 2) 충남 특화품목

■ 충남의 특화계수가 1 이상인 품목(농산물 19개, 임산물 7개, 수산물 9개)은 다음과 같음

표 3-17. 충남의 농산물 특화품목

품목부류	세부품목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곡물	콩	V	V					V		V	V	V	V		V	V
	감자					V			V					V		
	고구마			V	V		V					V		V		V
양념채소	고추		V	V		V			V	V		V	V	V		V
	마늘					V										V
	배추			V	V	V			V					V	V	
과실	배	V	V		V											
	포도(노지)	V		V							V					
	포도(시설)			V			V	V		V	V	V				V
	사과					V			V					V	V	V
과채	오이	V	V		V											
	수박										V	V				
	토마토		V	V	V		V	V			V	V	V			
	딸기						V	V								
	상추	V		V	V	V										
	기타버섯			V	V						V	V				
유지	들깨	V	V	V	V		V	V			V	V	V	V	V	
	땅콩	V				V	V								V	V
특작	인삼						V	V		V						
화훼	화초작물				V											V

자료 :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그림 3-4. 충남의 농산물 특화품목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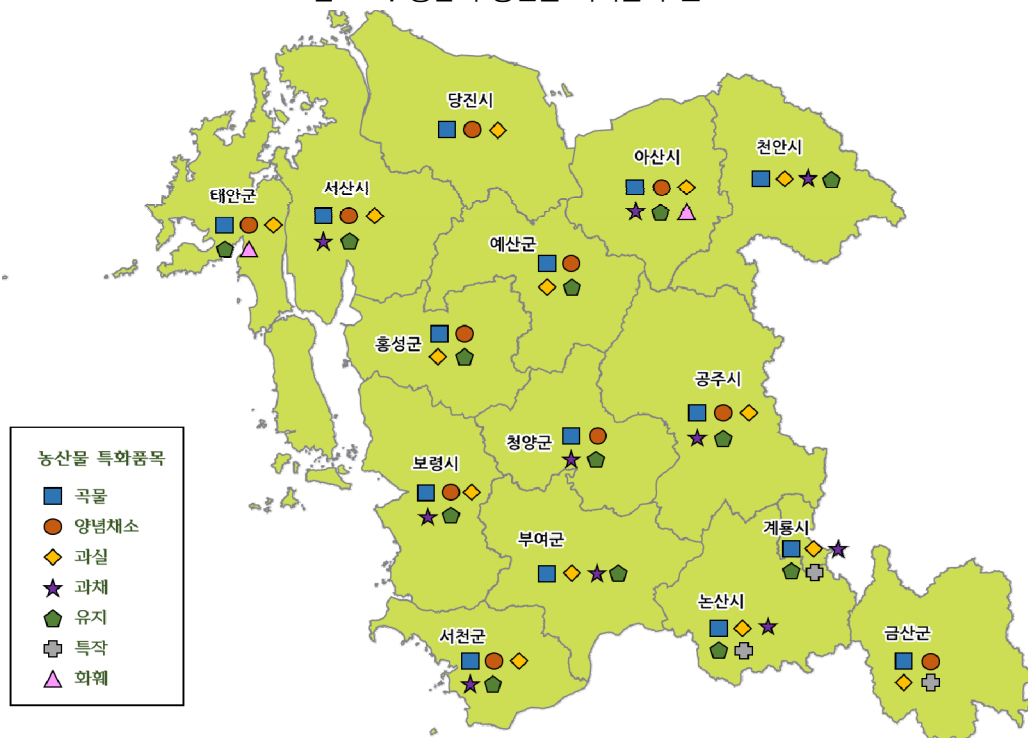


표 3-18. 충남의 임산물 특화품목

품목부류	세부품목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단기소득 임산물	구기자			v									v	v	v	
	밤		v								v		v			
	은행	v	v	v	v			v				v		v	v	
	취나물			v	v					v		v		v	v	
	표고버섯		v								v		v			
	산양삼			v		v				v		v			v	
	기타약용작물	v		v	v		v		v	v		v		v	v	v

자료 :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그림 3-5. 충남의 임산물 특화품목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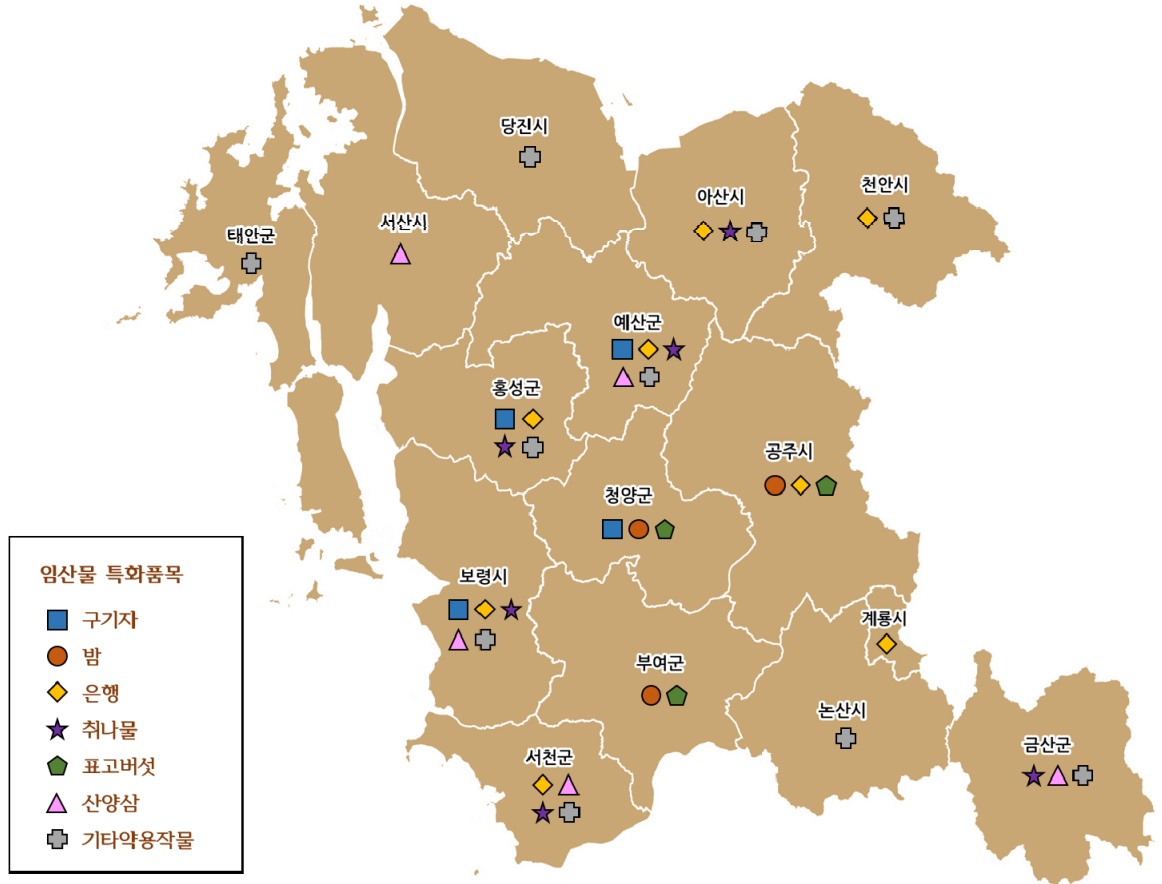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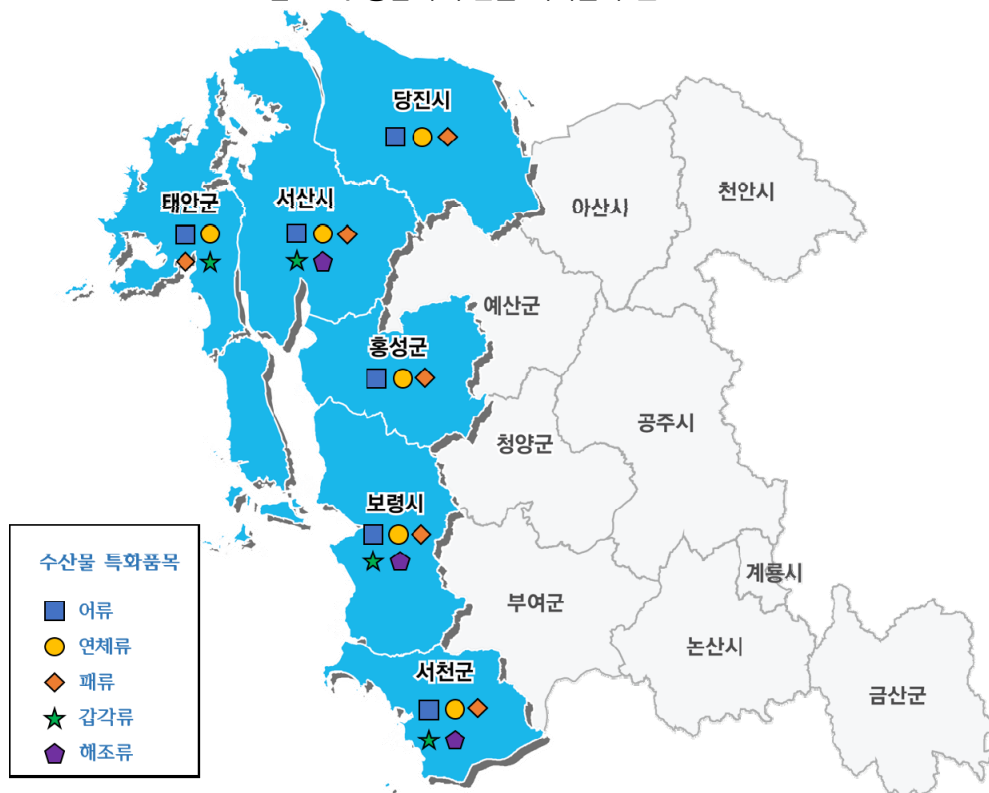


표 3-19. 충남의 수산물 특화품목

품목부류	세부품목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어류	조피볼락			√		√			√					√		√
	가무락					√										√
	넙치			√		√			√							√
	노래미류													√		√
	농어류					√						√				
	멸치류			√								√	√			
	기타어류															√
연체류	낙지					√			√							
	주꾸미			√								√		√		√
	기타연체동물					√										√
패류	바지락			√												√
	굴			√		√			√			√		√		√
	전복류			√					√							√
	기타패류			√					√			√				
갑각류	꽃게					√						√				√
	기타갑각류			√												
해조류	김			√		√						√				
	기타해조류+종묘			√		√										
	기타해조류			√		√						√				

자료 :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서천과 청양은 통계에 잡히나 실제 지역특성에 비추어볼 때 특화지역엔 미포함)

그림 3-6. 충남의 수산물 특화품목 분포도



## 3) 국가 피해품목

■ 한중 FTA에 따른 국가가 제시한 피해예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

- 농산물은 발작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정확한 품목개수 파악 불가능
- 임산물은 단기소득임산물 중심으로 약 9개 품목 제시
- 수산물은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류 중심으로 약 16개 품목 제시

표 3-20. 한중FTA에 따른 국가 피해품목

품목군	품목부류	세부품목	협상내용
농산물	유지류	땅콩(조제저장), 들깨, 참깨	5년간 10% 인하, 부분감축(현행관세 40~50%)
	특작류	연초(권련 및 잎담배), 팽이버섯	20년간 관세철폐
	곡물류	두류	TRQ
	축산물(기타)	양잠산물	즉시철폐
	곡물류	녹두/탈각/조제저장/냉동 팥(조제저장), 땅콩(조제저장), 들깨	20년간 관세철폐 5년간 10% 부분감축
	곡물 등 일부	식용대두, 참깨, 고구마 전분, 팥, 보리(맥아)	TRQ(3,000톤~24,000톤)
	사료및종자용	귀리(조분 등), 밀(조분 등), 옥수수(종자용), 스위트콘, 매니옥, 토란 등	10년간 관세율 130% 인하, 부분감축
	가공농산물	기타과실(냉동, 건조), 기타채소(마늘, 양파, 파, 생강, 당근)	20년간 관세철폐(현행관세 30%) 5년간 10% 인하, 부분감축(현행관세 20%)
	혼합조미료 및 기타소오스	건고추, 마늘, 양파, 생강	1년간 1% 인하, 부분감축(현행관세 45%)
	김치	(조제저장처리) 배추, 무, 고춧가루, 깬마늘, 대파, 쪽파, 생강	1년간 1% 인하, 부분감축(현행관세 20%)
임산물	단기소득임산물	토마토 페이스트, 토마토 케찹, 토마토 소스, 토마토(조각상,조제저장처리), 토마토 기타(조제저장처리) 등을 말하므로 직간접적으로 “토마토”	20년간 관세철폐
		건조고사리, 냉동 송이버섯, 목이버섯(아우리콜라리아), 죽순(조제저장처리), 도라지(신선,냉장), 초파(신선), 대(청환죽, 기타죽), 칠파리(기타), 도토리(사료용 등) 및 도토리분, 생칠, 기타산림수(기타) 등	건조고사리 : 5년간 균등철폐(현행 10%) 냉동송이버섯 : 5년간 균등철폐(현행 10%)
수산물	어류	까나리, 새치, 쥐치, 다랑어, 가오리, 붕어, 기타활어	기타활어 : 20년간 관세철폐
	패류	가리비, 바지락, 백합, 홍합, 제첩	바지락(산것,신선,냉장,냉동,염장등) TRQ
	갑각류	새우,기타게	기타 새우류(염장,염수장) 양
	연체류	주꾸미, 낙지	낙지(산 것,신선,냉장,냉동) TRQ
합 계	약 11개 부류		

주 : 1. 세부품목은 국가에서 제시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가 품목부류에 의해서 투입되는 원료농산물 품목을 자체 작성한 것임(예를 들면, 김치 품목이라고 되어 있으면 해당하는 양념채소류 품목을 나열함)

2. 임산물의 경우 목재(목재패릿, 성형목탄, 제재목, 단판, 파티클보드, 합판, 목제틀, 기타목재류, 건축용목제품, 목재 식탁용품, 목제장식품상자, 생활목재류)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표시하지 않았음

자료 : 1. 산업통상자원부(20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결과

2.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11.10.),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 4) 최종품목

■ 중요도 계수를 바탕으로 선정된 충남의 주력대응 품목(최종 분석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최종적으로 농산물은 13개, 임산물 4개, 수산물은 12개로 도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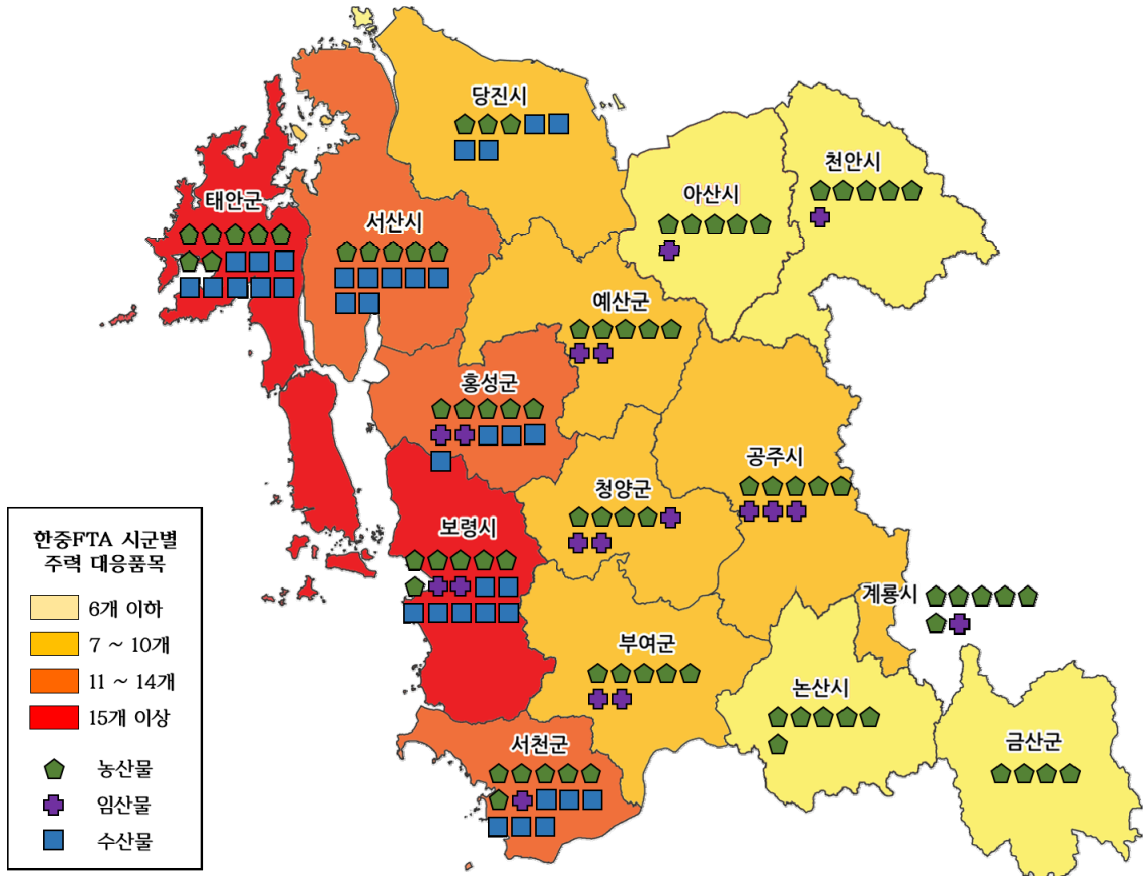
표 3-21. 충남의 주력 대응품목

구분	연번	품목	시군명	충남 특화계수	시군제한 품목	충남특화 품목	국가제시 품목	중요도 계수	중요도
농산물	1	고구마	보령, 아산, 논산, 서천, 홍성, 태안	1.96		0.25	0.50	0.75	중
	2	대두(콩)	천안, 공주,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1.11		0.25	0.50	0.75	중
	3	고추	공주, 보령, 서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1.11	0.25	0.25	0.50	1.00	강
	4	마늘	서산, 태안	1.14	0.25	0.25	0.50	1.00	강
	5	배추	보령, 아산, 서산, 계룡, 당진, 홍성, 예산	1.01		0.25	0.50	0.75	중
	6	생강	서산, 태안	1.15	0.25	0.25	0.50	1.00	강
	7	토마토	공주, 보령, 아산, 논산, 계룡, 부여, 서천, 청양	1.32	0.25	0.25	0.50	1.00	강
	8	사과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1.00	0.25	0.25	0.50	1.00	강
	9	포도	천안, 보령,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태안	1.53	0.25	0.25	0.50	1.00	강
	10	배	천안, 공주, 아산	3.56	0.25	0.25		0.50	중
	11	인삼	논산, 계룡, 금산	1.89	0.25	0.25	0.50	1.00	강
	12	들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계룡,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1.76		0.25	0.50	0.75	중
	13	땅콩	천안, 서산, 논산, 예산, 태안	1.25		0.25	0.50	0.75	중
임산물	1	밤	공주, 부여, 청양	2.41	0.25	0.25		0.50	중
	2	표고버섯	공주, 부여, 청양	-	0.25	0.25		0.50	중
	3	구기자	보령, 청양, 홍성, 예산	1.84	0.25	0.25		0.50	중
	4	은행	천안, 공주, 보령, 아산, 계룡, 서천, 홍성, 예산	1.87	0.25	0.25		0.50	중
수산물	1	조피볼락	보령, 서산, 당진, 홍성, 태안	1.79	0.25	0.25		0.50	중
	2	넙치	보령, 서산, 당진, 태안	1.64	0.25	0.25	0.50	1.00	강
	3	멸치	보령, 서천, 홍성	2.08	0.25	0.25		0.50	중
	4	새우(대하)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1.37		0.25	0.50	0.75	중
	5	꽃게	서산, 서천, 태안	1.48	0.25	0.25	0.50	1.00	강
	6	바지락	보령, 태안	2.43	0.25	0.25	0.50	1.00	강
	7	전복	보령, 당진, 태안						
	8	굴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1.05	0.25	0.25	0.50	1.00	강
	9	김	보령, 서산, 서천	1.59	0.25	0.25		0.50	중
	10	주꾸미	보령, 서천, 홍성, 태안	5.31	0.25	0.25	0.50	1.00	강
	11	낙지	서산, 당진	4.11		0.25	0.50	0.75	중
	12	해삼	보령, 서산, 서천, 태안	3.07	0.25	0.25		0.50	중

주 : 1. 농산물 중 생강은 기타노지작물에 포함

2. 수산물의 경우 해삼은 기타수산동물, 낙지는 기타연체동물, 새우는 기타갑각류, 낙지는 기타어류에 포함

그림 3-7. 충남의 15개 시군별 최종품목 분포도



### 3. 쟁점사항 및 정성적 영향

#### 1) 쟁점사항<sup>14)</sup>

- 가공품과 발작물 : 발작물을 이용한 가공품 수입증가로 생산기반 위축과 농가경영 악화
- 원산지규정(PSR) :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의 적용 문제
- 비관세장벽협상 : 위생·검역, 식품안전성기준, 지역화 등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영향
- 농수축산물 품목수 기준 66%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철폐 혹은 부분감축(관세인하) 예정, 우회적인 방법(가공품)의 수입가능성으로 직간접적 피해 불가피
- 중국산 신선농축산물이나 가공식품 원료는 한중FTA 타결 이전에도 이미 국내시장을 점령하고 있었던 만큼 현재보다 직간접적 피해 가속화

14) 자료 : 강마야(2014),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충남리포트 제140호, 충남연구원



## 2) 농산물<sup>15)</sup>

### ■ 충남 농산물의 주력 품목별 타결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 식량작물 : 콩, 감자, 고구마 등 중국산 가공원료를 이용한 가공형태 수입 증가 전망으로 생산 기반 위축 불가피
- 과채류 :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이나 가공형태 수입가능성 배제 못함
- 양념채소류 : 김치 관세감축으로 인해 해당품목 생산기반 위축 불가피
- 특작류 : 대부분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인삼의 경우 가공품(차, 음료)을 중심으로 수입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기반 위축
- 과일류 :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상 열대과일 관세철폐로 과일소비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 예상
- 축산물 :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으나 육우와 젖소 등 즉시철폐로 한우 및 낙농업에 영향, 수입위생조건 검역협상에서 지역화 통과여부 관건
- 축산물기타 : 저렴한 가격으로 사료시장 공략 가능, 위생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중국산 사료를 먹일 경우 축산농가 및 소비자에게 간접적 피해 노출
- 가공식품 : 김치, 다대기, 인삼가공품의 10%이내 관세감축 및 관세철폐는 관련 품목류(양념 채소류, 특작류)에 직접피해로 연결, 기반위축 원인 제공
- 표고버섯 : 양허제외로 단기간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중국 수입증가로 향후 피해가 예상됨
- 단, 지금 소개한 내용은 현재 정부가 공개한 주요 품목 타결내용에 국한한 것이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발생 가능성 있음

표 3-22. 한중FTA에 따른 충남 농산물 품목별 타결내용과 정성적 영향

품목부류	주력 품목	타결내용	영향
식량작물	쌀	쌀 및 쌀 관련 16개 세 번 :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콩	식용콩 : 현행관세유지 + TRQ 10,000톤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사료용 : 양허제외	· 수입의존도가 높은 만큼 기반붕괴 가속화 · 장기적으로 중국산 콩 이용한 가공품 수입 급증 예상
	감자	식용·칩용·종자용·냉동건조, 감자분, 전분 :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고구마	냉동, 발효주정 : 양허제외 전분 : 현행관세유지 + TRQ 5,000톤	고구마를 이용한 가공품 수입 가속화

15) 자료 : 강마야(2014),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충남리포트 제140호, 충남연구원

표 3-22. 한중FTA에 따른 충남 농산물 품목별 타결 내용과 정성적 영향(계속)

품목부류	주력 품목	타결내용	영향
과채류	딸 기	양허제외 *기타딸기(나무,조제저장처리,쥬스) :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토마토	신선,냉장, 쥬스 : 양허제외 조제저장처리, 케첩, 소스 : 20년 철폐 토마토 페이스트 : 15년 철폐	토마토를 이용한 가공품 수입 가속화
	방울토마토	현재 공개되지 않음	-
	수박, 멜론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오이, 호박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깻잎, 양송이버섯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양념 채소류	쪽 파	건조파, 쪽파, 조제저장처리 : 양허제외	쪽파 이용한 우회적 가공형태 수입가능성 김치 관세인하로 쪽파생산 기반 위축
	고 추	신선, 건조, 고춧가루, 냉장,냉동 : 양허제외	김치 관세인하로 고추생산 기반 위축
	마늘	통마늘, 깃마늘, 건조마늘, 일시저장처리, 냉동마늘, 조제저장처리 : 양허제외	다대기 관세인하로 마늘생산 기반 위축
	생강	신선건조기타, 설탕저장처리 : 양허제외	김치 관세인하로 생강생산 기반 위축
특작류	인삼	인삼류 23개 주요 품목 : 양허제외 (단, 인삼차인삼음료는 20년 철폐)	인삼 주요가공품인 차와 음료시장 개방으로 인삼생산 기반 위축 불가피
	기타	도라지 : 20년 이내 관세철폐 참깨 : 현행관세유자+TRQ24,000톤 들깨 : 기존 관세 10% 감축(5년 균등) 참기름, 들기름 : 양허제외	· 도라지 생산기반 위축, 한약재로서 중국산 도라지 수입 가속화 · 참깨 및 들깨는 현재도 중국산 수입의존도 큰 품목으로 향후 기반 붕괴
임산물	밤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표고버섯, 구기자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양허제외로 단기간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중국 수입증가로 향후 피해예상함
과일류	배	양허제외	· 바나나, 망고, 구아바, 두리안 등 열대과일 15년 이내 관세철폐 · 과일은 가격변동에 따른 소비대체성이 매우 강한 부류인 만큼 배포도·사과소비 체계의 급속한 변화 초래
	포도, 사과	양허제외	
화훼류	국화	양허제외	단기적으로 급한 위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
가공식품	김치	기존 관세의 10%이내 감축	· 현행 관세 20%에서도 요식업체 중심으로 중국산 김치일반화(수입 8위) · 관세감축으로 수입가속화 전망 · 관련 양념채소류에 직접적 영향
	다대기	기존 관세의 10%이내 감축	· 마늘생산기반 위축
	땅콩가공품	피넛버터 : 20년 이내 관세철폐 조제저장처리 : 기존 관세 10%감축(5년 균등)	· 땅콩이 고율관세(230.5%)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땅콩 이미 잠식한 상황으로 땅콩생산기반 위축
	인삼가공품	인삼차인삼음료 20년 이내 관세철폐	· 중국내 인삼품질고급화 전략 진행 중 · 차와 음료를 시작으로 한국시장 진출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 가능성

## 2) 수산물<sup>16)</sup>

### ■ 충남 수산물의 주력 품목별 타결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음

- 중국의 불법조업과 관련하여 넙치, 멸치 등의 어류가 양허제외되어 관련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FTA 영향보다는 불법어업에 따른 자원감소가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바지락은 현재에도 대 중국 수입액이 32,232천 달러이며 수입물량 전부가 중국산으로 TRQ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으나, 향후 저율관세에 따라 일정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굴과 김은 부분감축 품목으로 분류되어 제한적 감축(2% 이내)이 있을 것으로 보여 수입량 증가가 예상되나 큰 폭의 시장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꽃게는 활어와 냉장은 양허제외 품목이고, 냉동은 부분감축 품목으로 냉동꽃게의 수입량은 증가할 수 있으나 꽃게시장 전체의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낙지는 대 중국수입액이 106,807천 달러이며 전체 수입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8%로 TRQ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으나, 향후 저율관세에 따라 일정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3-23. 한중FTA에 따른 충남 수산물 품목별 타결내용과 정성적 영향

품목	타결내용	영향
멸치	(건) 양허제외 품목으로 현 관세 유지	시장에 큰 영향 없음
넙치	(활, 냉동) 양허제외 품목으로 현 관세 유지	시장에 큰 영향 없음
바지락	(활, 냉장, 냉동) TRQ 대상품목을 일정량을 저율관세로 수입	현재도 중국 수입량이 많은 품목이며, 향후 수입량 증가 예상
굴	(냉장, 염장) 부분감축 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감축	현재 약 20%수준이나 향후 2%이내에서 관세 감축
김	(조미, 건조) 부분감축 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감축	현재 10~20%대의 수준이나 향후 약 2%이내에서 관세 감축
꽃게	(활, 냉장) 양허 제외 (냉동) 부분감축 품목으로 분류되어 관세감축	(냉동)현재 14% 수준이나 향후 약 1% 내에서 관세 감축되어 13.86% 예상
낙지	(활, 냉장, 냉동) TRQ 대상품목을 일정량을 저율관세로 수입	중국 수입량 증가 예상

16) 자료 : 김종화(2014),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수업의 위기와 기회, 충남리포트 제141호, 충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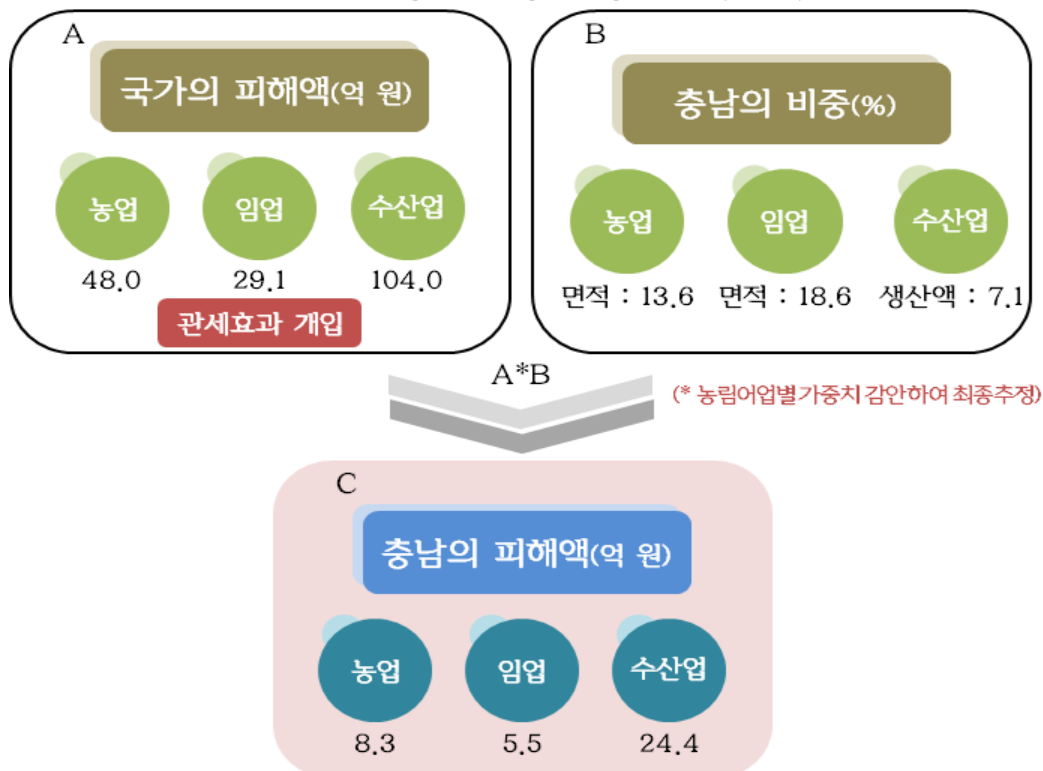
## 제4장 요약



## 1. 한중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 2015년 6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중FTA의 관세감축으로 농업부문의 피해액(생산액 감소분)은 20년 누계 약 958억 원으로 나타남
  - 연평균 약 48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주로 재배업 위주의 피해가 예상됨
- 임업 부문의 생산 감소액은 20년 누계 약 582억 원으로 나타남
  - 연평균 약 29.1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목재류는 연평균 약 15억 원,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 연평균 약 1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됨
- 수산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20년 누계 약 2,079억 원으로 예상됨
  - 연평균 약 104억 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며 농산물과는 달리 양허제외품목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국가의 피해액을 바탕으로 충남의 면적 및 가구수 비중으로 환산한 결과 연평균 피해액은 38.2억 원으로 나타남
  - 농업, 임업, 수산업 각각 약 8.3억 원, 5.5억 원, 24.4억 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됨

그림 3-8. 국가피해액을 바탕으로 한 충남의 생산감소액(피해액)도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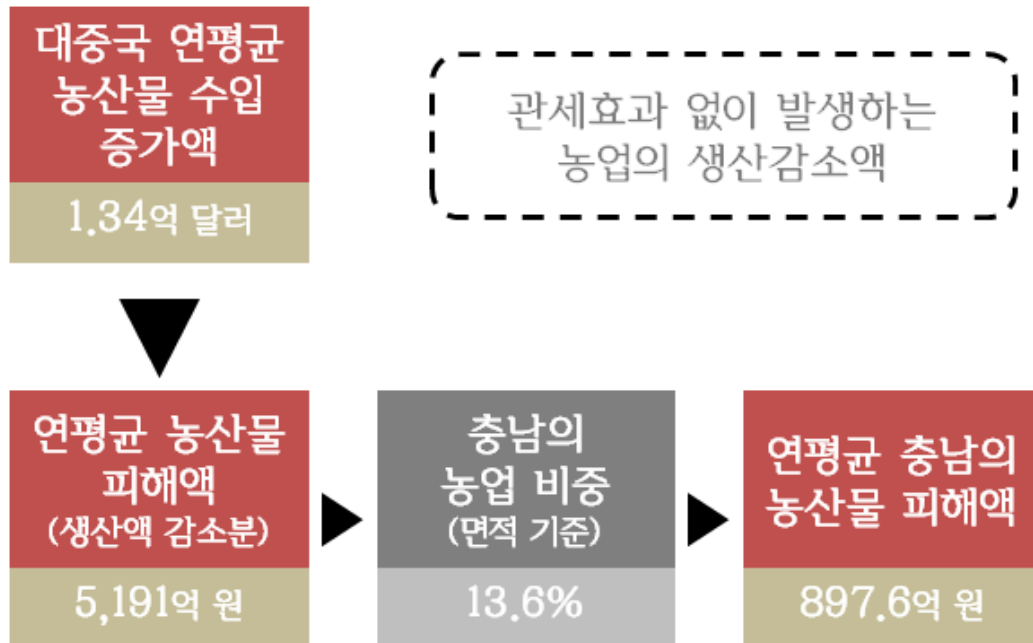


자료 : 1. 농업과 임업은 농림어업총조사(2010)  
 2. 어업은 수산정보포털통계(2013)  
 3. 산업통상자원부(20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결과

## 2.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액

- 한중FTA로 인한 관세효과가 없어도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은 연평균 약 1.34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산업통상자원부, 2015)
  - 이에 따른 농업생산액 감소는 20년간 약 10조 3,825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평균으로 산정했을 때 약 5,191억 원임
  - 피해액의 99.9%는 양념류, 인삼류, 엽근류를 중심으로 한 재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관세효과 없이 발생하는 농업의 생산감소액을 기준으로 충남의 연평균 농산물 피해액은 약 897.6억 원임
  - 국가의 연평균 피해액 5,191억 원을 충남의 농업면적비중 13.6%로 나누어 도출한 결과 충남은 연평균 약 897.6억 원의 피해가 예상됨

그림 3-9. 대(對)중국 농산물 수입증가를 바탕으로 한 충남의 생산감소액(피해액)도출 프로세스



주 : 충남의 연간 농림수산물 생산액 3.9조 원~4조 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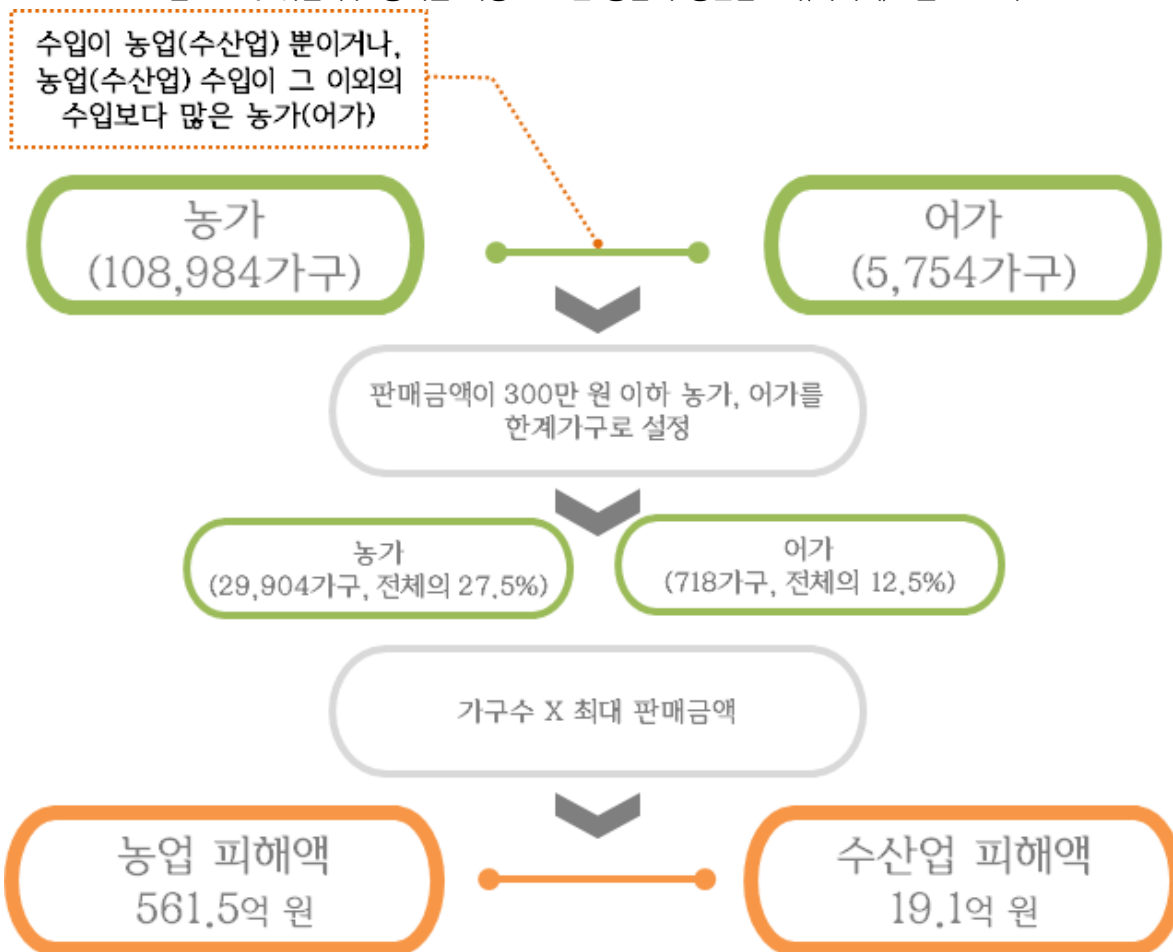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결과



### 3. 위험가구(한계가구) 붕괴 시 피해액

- 2010년 농림어업 총조사를 바탕으로 농업인과 어업인 중 위험가구를 선정함
  - 위험가구는 농가(어가)의 소득이 농업(어업) 뿐이거나, 농업(어업)외소득보다 농업(어업) 수입이 더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농산물(수산물) 판매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선정
- 피해액 산정결과 농업부문은 약 561.5억 원, 수산업 부문은 약 19.1억 원으로 나타남
  - 이들 위험가구는 다른 농가(어가)에 비해 농업(어업)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농업 외(어업 외)소득이 농업(어업)소득보다 많은 농가들에 비해 한중FTA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음

그림 3-10. 위험가구 붕괴를 바탕으로 한 충남의 생산감소액(피해액)도출 프로세스



자료 :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 제4부 충남의 주요품목 종합분석



## 제1장 분석개요



## 1. 분석방법

### ■ 중국의 정책이슈 분석

표 4-1. 중국의 정책이슈 분석

구분	항목	세부 내용
농업	식량작물	- 곡류, 유지류, 대두 등 생산 현황 - 관련 정책 동향
	원예작물	- 양념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등 생산 현황 - 관련 정책 동향
	특용작물	- 인삼 관련 생산 및 유통 현황 - 관련 정책 동향
임업	임산물	- 표고버섯, 약용작물(약초), 밤, 산양삼, 고사리 등 생산 현황 - 관련 정책 동향
어업	수산물	- 패류, 어류, 갑각류, 연체류, 해조류 등 생산현황 - 중국 내 전략적 육성지역 현황 - 관련 정책 동향

### ■ 기초현황 분석

표 4-2. 기초현황 분석방법 및 해석

구분	분석방법	해석
분석항목	전국 생산량(액), 전국 재배면적 충남 생산량(액), 충남 재배면적 전국 대비 충남 생산량(액) 전국 재배면적, 충남 재배면적	
_ 전국 대비 충남 생산량	$\frac{Q_{ij}}{Q_i}$ 해당품목의 충남 생산량/전국 생산량	전국에서 해당품목이 차지하는 충남의 포지션 파악(생산량 기준)
_ 전국 대비 충남 재배면적	$\frac{A_{ij}}{A_i}$ 해당품목의 충남 재배면적/전국 재배면적	전국에서 해당품목이 차지하는 충남의 포지션 파악(면적 기준)
_ 전국 대비 충남 생산액	$\frac{M_{ij}}{M_i}$ 해당품목의 충남 생산액/전국 생산액	전국에서 해당품목이 차지하는 충남의 포지션 파악(생산액 기준, 수산물에 해당)

주 : 이하의 분석표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각주 처리하지 않고 상기 자료로 모두 대체함

지역특화 분석

표 4-3. 지역특화 분석방법 및 해석

구분	분석방법	해석
분석항목	충남 내 시군별 해당품목 특화도 지수	공간분포도로 한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
해당품목의 충남 내 특화도 지수	$\frac{Q_{ik}}{Q_k} \frac{A_{ik}}{A_j}$ $Q_{ik}$ : k시군의 i품목의 재배면적 $Q_k$ : k시군의 총 재배면적 $A_{ik}$ : 충남의 i품목 재배면적 $A_j$ : 충남의 총 재배면적	충남에서 해당품목이 차지하는 시군의 포지션 파악 (재배면적 기준)

주 : 이하의 분석표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각주 처리하지 않고 상기 자료로 모두 대체함



## ■ 생산구조 분석

표 4-4. 생산구조 분석방법 및 해석

구분		분석방법	해석
분석항목		경영불안정성(변이계수) 지역특화계수 생산량, 생산량 비중 생산액, 생산액 비중 재배면적, 재배면적 비중 면적당 생산량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한국- 충남 통계자료 구축 (일부 한국통계, 충남통계, 중국통계 수치 없음)
분석자료		(*중국통계 부재한 품목 : 고구마, 생강, 들깨, 임산물, 조피볼락, 넙치, 멸치, 주꾸미, 낙지)	* 마늘의 경우 산동성 자료 * 인삼의 경우 길림성 자료 * 수산물의 경우 양식기준 자료
세부내용	경영불안정성 (변이계수)	$\text{coefficient of variation } CV = \frac{\sigma}{\bar{x}}$ $\sigma$ : 해당기간의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액 표준편차 $\bar{x}$ : 해당기간의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액 평균 - 농산물은 재배면적 기준으로 함 - 수산물은 생산액 기준으로 함	0.1~0.2 : 약간 불안정(저위험군) 0.2~0.4 : 불안정(중위험군) 0.4 초과 : 매우 불안정(고위험군)
	지역특화계수	$RQ_{ij} = \frac{Q_{ij}}{Q_j} / \frac{Q_i}{Q}$ $Q_{ij}$ : j지역의 i품목의 재배면적 $Q_j$ : j지역의 총 재배면적 $Q_i$ : 전국의 i품목 재배면적 $Q$ : 전국의 총 재배면적 -농산물은 재배면적 기준으로 함 -수산물은 생산액 기준으로 함	-한 지역에서 어떤 특정 품목 농산 물의 재배면적 집중정도를 나타냄. -1보다 크면 경쟁력 있다고 추정함.
	생산량 비중	(농림산물, 수산물) 해당지역(충남)의 해당품목 생산량/전국의 해당품목 생산량	해당품목의 전국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수치
	생산액 비중	(수산물) 해당지역(충남)의 해당품목 생산액/전국의 해당품목 생산액	해당품목의 전국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수치
	재배면적 비중	(농림산물) 해당지역(충남)의 해당품목 재배면적/전국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해당품목의 전국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수치
	면적당 생산량	생산량(톤)/재배면적(ha)	

주 : 이하의 분석표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각주 처리하지 않고 상기 자료로 모두 대체함

비용비교 분석

표 4-5. 비용비교 분석방법

구분	분석방법	
분석항목	중간재비, 경영비, 생산비 자가노동·각종자재·고용노동·토지임차 비중 부가가치, 부가가치율 소득, 소득율, 최종소득, 최종소득율 (* 2010=100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로 환산)	
분석자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한국-충남 통계자료 구축 (*중국통계 부재한 품목 : 고구마, 마늘, 생강, 포도, 배, 인삼, 들깨, 임산물 및 수산물 전체) (* 자료 : 마늘은 산동성 통계, 인삼은 길림성 통계, 수산물은 양식기준 자료)	
세부내용	중간재비	종자비+비료비+농약비+농막비+물비용+연료동력비+기술서비스비+도구재료비+수리보수비+기타직접비
	경영비	중간재비+임대작업비(기계작업비+배관비+축력비)+고용비
	생산비	경영비+고정자산감각비+자가노력비
	자가노동비중	자가노동비/생산비
	각종자재비중	각종자재비/생산비
	고용노동비중	고용노동비/생산비
	토지임차비중	토지비용(이전토지임대비+자가경영지임대상각비)//생산비
	부가가치	조수입(생산액합계)-중간재비
	소득	조수입(생산액합계)-경영비
	최종소득	조수입(생산액합계)-생산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조수입(생산액합계)
	소득율	소득/조수입(생산액합계)
	최종소득율	최종소득/조수입(생산액합계)

주 : 1. 본문에는 지면관계 상 음영처리 된 분석항목만 소개함  
2. 이하의 분석표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각주 처리하지 않고 상기 자료로 모두 대체함

## 교역구조 분석

표 4-6. 경쟁력 분석방법 및 해석

구분		분석방법	해석
분석항목		최근 5개년간 대(對)중국 평균 교역규모 최근 5개년간 대(對)중국 교역 연평균 증감율 대(對)중국 현행 관세율 한중 FTA 양허유형	
세부내용	평균 교역규모	$\frac{\sum_{i=1}^5 E_{ic}^j}{5}$ 5개년간 대중국 해당품목 세부품목의 수출입액 평균규모	대중국과 지난 5개년 간 해당품목의 교역규모 파악(양적 규모)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 사용
	평균 교역증감율	$\left( E_{i=2014,c}^j - E_{i=2010,c}^j \right) \wedge (1/4) - 1$ 5내년간 대중국 해당품목 세부품목의 수출입액 연평균증감율	대중국과 지난 5개년간 해당품목의 교역규모 변화 파악
	관세율	해당품목의 현행관세율	대중국과 해당품목의 기존 관세수준(높을수록 보호수준 높고 낮을수록 보호수준 낮음)
	양허유형	한중FTA 협정문 의거	금번 한중FTA로 인하여 양국간 해당품목의 보호수준치 측정척도
	주요 교역상품	품목별 수출액 혹은 수입액이 가장 많은 세부품목으로 선정함	
	주의사항 (양허유형)	- E는 기준관세율 유지, 양허제외 - pr-1은 발효일 기준으로 즉시 기준세율의 1% 감축(기준세율의 99% 유지) - pr-10은 기준관세율의 10%를 5년간 균등 인하, 5년차부터 기준관세의 90% 유지 - TRQ는 이중관세 정책(수입물량과 관세 합친 것)으로 정해놓은 수입할당물량까지 지는 저율 혹은 무관세, 할당물량이 초과되면 고관세 적용 - 5는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5년차 1월 1일 무관세) - 10는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10년차 1월 1일 무관세) - 15는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15년차 1월 1일 무관세) - 20은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20년차 1월 1일 무관세)	
분석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a href="http://www.kita.net">www.kita.net</a> ) 한중FTA 협정문	

주 : 이하의 분석표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각주 처리하지 않고 상기 자료로 모두 대체함

경쟁력 분석

표 4-7. 경쟁력 분석방법 및 해석

구분		분석방법	해석
분석항목		수출경쟁력(RCA) 수입경쟁력(CAC) 가격경쟁력, 비용경쟁력 주요 교역품목 수출입량 주요 교역품목 수출입액 현행 관세율, 발효이후 양허관세율	1990년부터 2013년까지 구축 무역협회 HS코드 10단위 사용 교역량이 많은 품목 중심 2014년 이전 2015년 이후
세부내용	수출경쟁력	현시비교우위지수 (RCA :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_{ic}^j = \frac{E_{ic}^j}{E_c} / \frac{E_i^j}{E_i}$ $E_{ic}^j = i\text{국의 } j\text{품목 } c\text{국 수출액}$ $E_c = i\text{국의 } c\text{국 총 수출액}$ $E_i^j = c\text{국의 } j\text{품목 수입액}$ $E_i = c\text{국의 총 수입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보다 크면 우리나라의 특정품목이 해당지역 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 즉, 수출경쟁력 있음. (안전군)</li><li>- 1보다 크면 수출경쟁력 있음</li><li>- 1보다 작으면 수출경쟁력 없음</li></ul> <p>* 수치의 크기에 따라 수치가 높을수록 저위험군, 수치가 낮을수록 고위험군으로 나눌 수 있음.</p>
	수입경쟁력	국별비교우위지수(CAC : 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y) $CAC_{ic}^j = \frac{E_{ic}^j}{E_c} / \frac{E_i^j}{E_i}$ $E_{ic}^j = i\text{국의 } j\text{품목 } c\text{국 수입액}$ $E_c = i\text{국의 } c\text{국 총 수입액}$ $E_i^j = i\text{국의 } j\text{품목 수입액}$ $E_i = i\text{국의 총 수입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보다 크면 해당지역의 특정품목이 우리나라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봄, 즉, 수입경쟁력 있음.(위험군)</li><li>- 1보다 크면 수입경쟁력 있음</li><li>- 1보다 작으면 수입경쟁력 없음</li></ul> <p>* 수치의 크기에 따라 수치가 낮을수록 저안전군과 수치가 높을수록 저안전군으로 나눌 수 있음.</p>
	가격경쟁력	가격경쟁력 지수 = $\frac{FP_c^j}{DP_i^j}$ $FP_k^j : c\text{국(해외 국가)의 } j\text{품목 도매가격}$ $DP_i^j : i\text{국(자국)의 } j\text{품목 도매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보다 크면 국내품목 가격우위</li><li>- 1보다 작으면 수입품목 가격우위</li></ul>
	비용경쟁력	비용경쟁력 지수 = $\frac{FC_c^{jc}}{DC_i^{jc}}$ $FC_c^{jc} : c\text{국(해외 국가)의 } j\text{품목 총 생산비용}$ $DC_i^{jc} : i\text{국(자국)의 } j\text{품목 총 생산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보다 크면 수입국 생산비용 과다</li><li>- 1보다 작으면 국내 생산비용 과다</li></ul>

주 : 이하의 분석표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각주 처리하지 않고 상기 자료로 모두 대체함

## ■ 설문조사 분석

표 4-8.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구분	개요 및 분석	
조사기간	2015년 8월 4일 ~ 8월 20일 ( 15일간)	
조사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 15개 시군 마을 이장(157명)</li> <li>- 어업인 : 6개 시군(당진,보령,서산,서천,태안,홍성) 어촌계장 (155명)</li> </ul>	
조사방법	1:1 대면조사/방문조사	
조사목적	한중FTA 대책수립을 위한 현장의 농업인, 어업인 의견수렴	
조사내용	한중FTA 총괄평가, 기존 FTA대책 평가, 향후 충남의 한중FTA 대책수립 방향 등 80개 항목	
조사기관	총괄기획 : 충남연구원, 조사대행 : (주) 충남리서치	
분석방법	빈도분석, 교차분석, 비교분석(전체 평균 대비 농림어업 분야 응답 비교)	
세부내용	한중간 농림수산물 경쟁력 및 경영위험 인식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농림산물 경쟁력(현재와 미래)</li> <li>- 농가에 미치는 영향정도, 생산량 변화 예상수준</li> <li>- 가장 타격이 큰 구간, 직접피해 발생 예상시기,</li> <li>- 경영위험도 예상수준, 경영유지 최대 한계점</li> <li>- 자구책 전략, 경영포기 의향, 경영승계 의향</li> </ul>
	기존 농림어업 분야의 FTA대책에 대한 주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위협적인 FTA</li> <li>- 정책별 필요성</li> <li>- 정책에 대한 주관 평가</li> </ul>
	한중FTA 대책수립 시 방향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효과성(실효성), 연계 필요성</li> <li>- 충남의 전략방향, 실질적인 정책</li> <li>- 3농혁신 지향가치</li> <li>- 농업인의 문제점, 주체별 강조영역</li> <li>- 단계별 정책순위, 우선 해결과제</li> </ul>
주의사항	“전체 평균”이란 농림어업 조사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임(이하 표에서는 설명 생략)	

주 : 이하의 분석표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각주 처리하지 않고 상기 자료로 모두 대체함

## 2. 분석품목 확인 및 분석자료

표 4-9. 분석대상 품목의 확인

구분	품목	중국 정책이슈	기초현황 분석	지역특화 분석	생산구조 분석		비용비교 분석		교역구조 분석	경쟁력 분석	설문조사 분석
					중국	충남	중국	충남			
농업	고구마	●	●	●	×	●	×	●	●	●	●
	대두(콩)	●	●	●	●	●	●	● (전국)	●	●	●
	고추	●	●	●	●	●	●	●	●	●	●
	마늘	●	●	●	●	●	×	●	●	●	●
	배추	●	●	●	●	●	●	●	●	●	●
	생강	●	●	●	×	●	×	●	●	●	●
	토마토	●	●	●	●	●	●	●	●	●	●
	사과	●	●	●	●	●	●	●	●	●	●
	포도	●	●	●	●	●	×	●	×	×	●
	배	●	●	●	●	●	×	●	×	×	●
	인삼	●	●	●	●	●	×	●	●	●	●
	들깨	●	●	●	×	●	×	×	●	●	●
	땅콩	●	●	●	●	●	●	×	●	●	●
임업	밤	●	●	●	×	×	×	×	●	×	●
	표고버섯	●	●	●	×	×	×	×	●	×	●
	구기자	●	●	●	×	×	×	×	●	×	●
	은행	×	●	●	×	×	×	×	●	×	●
어업	조피볼락	×	●	●	×	●	×	×	●	●	●
	넙치	×	●	●	×	●	×	×	●	●	●
	멸치	×	●	●	×	●	×	×	●	●	●
	새우(대하)	×	●	●	●	●	×	×	●	●	●
	꽃게	×	●	●	●	●	×	×	●	●	●
	바지락	×	●	●	●	●	×	×	●	●	●
	전복	●	●	●	●	●	×	×	●	●	●
	굴	×	●	●	●	●	×	×	●	●	●
	김	×	●	●	●	●	×	×	●	●	●
	주꾸미	×	●	●	×	●	×	×	●	●	●
	낙지	×	●	●	×	●	×	×	●	●	●
	해삼	●	●	●	●	●	×	×	●	●	●

주 : × 된 부분은 국내 통계 혹은 중국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품목별 분석이 일관적이지 않음

표 4-10. 분석에 사용된 자료

구분	중국	한국
농림업	<p>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연감 中国统计年鉴 (<a href="http://www.stats.gov.cn/">http://www.stats.gov.cn/</a>) 중국 농업통계자료 中国农业统计资料 중국 농업연감 中国农业年鉴 전국농산비용수익통계자료 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중국 농산품가공비연감 中国农产品加工业年鉴 중국 농산품가격조사연감 中国农产品价格调查年鉴 길림통계연감 전국농산물도매시장가격정보망 (全国农产品批发市场价格信息网) FAO데이터(<a href="http://faostat3.fao.org/home/E">http://faostat3.fao.org/home/E</a>)</p>	<p>농림축산식품부(각연도), 통계연보 농림축산식품부(각연도), 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각연도), 농림업생산지수 농림축산식품부, 인삼통계자료집 농수산물유통공사(각연도),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aTkti)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각연도), 농림어업조사 통계청(각연도), 농작물생산조사 통계청(각연도), 농업면적조사 통계청(각연도),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각연도), 지역소득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충청남도(각연도), 통계연보 및 기본통계 15개 시군(각연도), 통계연보 농촌진흥청(각연도),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 산림청(2015), 2014년 임업통계연보</p>
어업	<p>중국국가통계국 中国国家统计局 中国渔业统计年鉴 (양식면적)</p>	<p>통계청, 어업총조사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fips)</p>
무역	<p>한국무역협회(각연도), 무역통계(<a href="http://www.kita.net">www.kita.net</a>)</p>	<p>한국무역협회(각연도), 무역통계(<a href="http://www.kita.net">www.kita.net</a>) 한중FTA 협정문</p>

주 : 이하의 분석표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연도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상기 자료로 모두 대체함





## 제2장 주요품목 종합분석



# 제1절 농산물

## 1. 중국의 정책이슈 분석

### ■ 식량작물 정책이슈<sup>17)</sup>

- 곡류 및 유지류 주요 생산현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며 대두의 경우에는 1무<sup>18)</sup>당 10위안의 직불금을 지급함
- 세계 대두 교역량의 65%를 중국이 수입
  - 2013년 세계 대두 총 생산량 2억 5천만 톤 중 1억 톤이 국제유통
  - 이 중 중국이 수입하는 대두는 6,383톤으로 약 65% 차지
  - 식량안보 차원에서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대두 목표가격 보조금에 관한 재정부의 지도의견: 2014년 동북(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지역 및 네이멍구 지역에 대두, 목표가격 시범사업 실시, 목표가격의 체계적 지도 강화, 보조금 공시 및 정보 문서 관리제도 마련, 감독 및 검사 강화, 정책 홍보 확대
- 중국, 내염성 대두 유전자연구에 큰 진척(중국, 호주의 10년간 연구협력을 통해 대두의 내염성 유전자 발견)
- 농업부, 유전자변형 대두 수입 승인(2013. 07)
  - 중국은 “국가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위원회” 평심을 거쳐 이미 유전자변형 면화, 유전자변형 대두, 유전자변형 옥수수, 유전자변형
  - 유채 등 4종류의 작물에 대해 수입안전증서를 발부하였다고 전함

### ■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생강, 쪽파, 양파, 배추, 무) 정책이슈

- 고추 주산지 귀주성 준의현 재배면적 증가 위한 투자 확대 중(공동육묘장 운영 및 종자, 비닐, 비노 등 무료제공)(2012). 세계고추원 건립 확정(2011)
- 채소산지의 저장, 신선도 유지, 건조 등과 관련된 1차 가공시설 건설 추진 가속화(2014)
- 주산지 산동성에서는 금향마늘 브랜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세계 유명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
  - 중국 마늘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110만 톤 규모의 마늘정밀가공 공업단지 금향현에 설립. 산동성 금향현에서 단수는 일반마늘에 비해 25% 낮지만 가격은 10배 가량 높은 유기마늘 재배 시작 (200ha 시범단지)(2012)
- 채소 생산기지 건설을 통한 채소의 수급 안정 도모(2014. 12)
  - 채람자공정은 품종 다변화, 품질 향상, 시장시스템 개선 등 안정적 발전을 이루며 채소의 공급과 시장 안정에 기여

17) 자료 : 중국농업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 주 : 중국 통상적으로 토지면적 단위로서 1무(亩, 모, 이랑는 666.7㎡, 15무는 1ha에 해당함)

- 채람자공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채소 생산기지 건설을 강화해 자급능력을 향상, 도시와 산지간 안정적 생산판매 관계 구축 통한 수급안정 달성 목표
- **북경시 농업기업, 타 지역에서 채소 재배할 경우 정부보조금 지원(2014. 09)**
  - 채소 재배지역 중 절반이 지하수를 과도하게 개발 및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 채소 재배면적의 확장을 금지하는 조치 통과시킴
  - 농기업이 타 지역에 채소기지를 새롭게 건설할 경우 일정금의 보조금 지원
- **조선족 김치제조기술, 중국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2014. 09)**
  - 길림성 연변주의 조선족 김치제조기술이 제4차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됨
- **채소농장을 규모화해 채소생산단지를 확대하고 고품질, 표준화, 브랜드화된 상품을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한 시범단지 건설을 확대함(2015. 5. 3)**

### ■ 과실류(사과, 배, 포도) 정책이슈

- **과일산지의 저장, 신선도 유지, 건조 등과 관련된 1차 가공시설 건설 추진 가속화(2014)**
  - 중국 정부는 산지 생산 과실류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지에 1차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대폭 건설한다고 발표함.
  - 이를 통해 과실의 저장, 신선도 유지, 건조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표준화된 생산을 통해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임
- **정주시, 항공물류 통한 최대 수입과일집산지로 부상**
  - 정주시는 33개의 직통항로 개설, 전국 34개 도시와 화물기 항로를 개설하는 등 주 92편의 화물기 항공편 개통함
  - 처음으로 전용 화물기 통한 신선과일 수입 시도, 또한 수입된 과일은 최단시간 내로 신속한 운송 실시
- **산동성, 수입 유기농과일에 대해 처음으로 입국검사 실시**
  - 뉴질랜드산 키위 18톤에 대해 처음으로 검사검역국에서 검사 실시
  - 중국소비자는 수입유기농제품을 소비할 경우 제품 포장에 표시되어있는 정보를 통해 중국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인지 여부 확인 가능
- **과수농장을 규모화해 과수생산단지를 확대하고 고품질, 표준화, 브랜드화된 상품을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한 시범단지 건설을 확대함(2015. 5. 3)**

### ■ 화훼류 정책이슈

- **중국 화훼수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 가운데 운남성의 발전은 독보적임**
  - 중국 화훼수출은 주로 운남, 절강, 복건, 광둥 등 네 개 성이며 이들 성의 전국 점유율은 76.9%임. 그 가운데 운남의 신선절화, 복건의 분재식물, 절강의 묘목과 신선절지와 절엽, 광둥의 분경과 관엽식물은 모두 가장 대표적인 화훼 수출품임
  - 그 가운데 운남성 화훼수출액은 전년(2013년) 대비 같은 기간 53.7%가 증가했고 신선절화 수출액은 전국 절화수출액의 56.2% 차지함
- **중국 운남성은 자체적으로 화훼 신제품 연구 개발 결과 최근 장미, 백합 등 200여 품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보호를 신청함**
  - 운남성은 일찍이 화훼산업이 발전된 지역으로 성 자체적으로 《운남성 인민정부 화훼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운남성 인민정부 화훼산업 승급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문건은 새로운 화훼 신제품 개발에 중점을 둔 것임

- 그리고 운남성은 2009년 9월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성 법률법규인 《운남화훼산업발전조례》를 제정해 화훼신품종 개발과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운남성이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한 화훼 신품종은 200여 종임. 여기에는 장미, 백합, 거베라 등 주종 철화와 수국, 진달래, 동백, 함소화 등 특색 화훼가 포함됨. 이 가운데는 세계 저명 화훼 기업의 허가를 받는 등 국제시장에서 운남성이 주동적으로 화훼신품종 연구 개발을 추진함

#### • 식용화훼 등 가공류 화훼 신속한 발전 추세

-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가공류 화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운남성 지역이 특히 주목됨. 운남성 가공화훼 재배면적은 60만 무에 달하며, 그 가운데 식용장미 위주의 식용화훼와 등잔화, 잇꽃, 철피석국 위주의 약용화훼 재배면적은 48.2만 무, 그리고 만수국 위주의 공업용 화훼는 10.7만 무에 달함
- 그 가운데 특히 식용장미는 주목을 받고 있어 운남, 산둥, 감숙 등지에서 신선과자, 음료, 오일, 화장품 등 생산되는 가공품만해도 100여 가지에 이룸. 뿐만 아니라 식용장미는 화훼관광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활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 • 산둥성 청주시(青州市) 화훼도시로 발전 계획

- 최근 들어 산둥성 청주시는 “东方花都, 青州花卉”를 모토로 화훼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청주시는 그 동안 화훼산업이 소규모 영세판매에서 전자상거래로 변화하고 있는 변화의 추세에 맞춰 화훼생산, 화훼유통, 화훼시장, 화훼파생산업 그리고 年宵花(음력 대그믐날 각지에서 벌어지는 꽃시장) 등 5개 항목을 전문적으로 연구조사해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 과채류(토마토, 방울토마토) 정책이슈

#### • 농업부, 시설채소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마련 중(2014. 06)

- 북방지역 시설채소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전국 시설채소생산 발전규획>을 편성, 지역 간 분업과 특색이 뚜렷한 시설채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급균형, 품질안전, 생산효율 등 발전방안을 마련함

### ■ 특용작물(인삼) 정책이슈

#### • 중국 정부는 최근 인삼을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분류하는 법률을 개정하며 인삼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중국 위생부는 2012년 ‘보건식품’으로 분류하던 5년근 이하 인삼을 일반식품의 하나인 신선자원식품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함
- 이 때문에 중국 길림성을 비롯 인삼주산지에서의 인삼재배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인삼가공품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음

#### • 중국 최대의 인삼시장 개장(2014. 11)

- 길림성 집안시 청하진에 최대 인삼시장 개장함
- 청하진은 중국 최대의 산삼 거래시장이자 동북3성 인삼 거래의 집산지임

#### • 길림성 무송현, 인삼 홍보를 위한 이벤트 개최(2014. 09)

- 무송현 특산물 인삼홍보를 위해 인삼물만두 빚기 대회 개최, 기네스 기록을 세움

2. 기초현황 분석

■ 전국 대비 충남의 생산측면 비중

- 전국 대비 충남의 생산량 및 재배면적 비중이 10% 이상 되는 품목은 고구마, 토마토, 배, 인삼, 들깨, 땅콩이나 고추는 생산량 기준으로 8.8%이나 재배면적 기준은 10.2% 차지

■ 지역특화계수

- 지역특화계수가 1이상인 품목은 고구마, 생강, 토마토, 배, 인삼, 들깨, 땅콩 등으로 나타남

표 4-11. 충남의 농산물 주요 품목별 기초현황

품목	전국 생산량 (천 톤)	충남 생산량 (천 톤)	전국 대비 충남 생산량 (%)	전국 재배면적 (천 ha)	충남 재배면적 (천 ha)	전국 대비 충남 재배면적 (%)	지역특화계수
고구마	329.5	47.0	14.3	22.2	3.2	14.4	1.1
대두(콩)	154.1	13.6	8.8	80.0	7.3	9.1	0.7
고추	298.9	26.2	8.8	50.2	5.1	10.2	0.8
마늘	412.3	40.3	9.8	29.4	2.9	9.9	0.8
배추	2,120.4	207.4	9.8	28.3	2.4	8.5	0.6
생강	24.5	5.1	20.8	1.8	0.4	22.2	1.8
토마토	388.6	61.1	15.7	6.1	1.2	19.7	1.5
사과	493.7	22.6	4.6	30.4	1.4	4.6	0.4
포도	260.3	11.4	4.4	16.9	1.0	5.9	0.5
배	282.2	58.8	20.8	13.7	2.4	17.5	1.3
인삼	22.0	3.4	15.5	15.8	2.0	12.7	1.0
들깨	33.3	6.2	18.6	30.1	5.6	18.6	1.4
땅콩	10.9	1.8	16.5	4.4	0.6	13.6	1.1

### 3. 지역특화 분석

#### ■ 품목별 특화도가 높은 지역

- 고구마의 경우는 충남 내에서 보령, 아산, 논산, 서천, 홍성, 태안 지역이 특화도가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대두(콩)의 경우는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홍성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노지고추와 시설고추가 약간씩 지역별 상이한데 공통인 지역은 공주, 보령, 서천, 청양, 홍성, 태안으로 특화도가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마늘의 경우는 서산, 태안이 각 2.1, 3.3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노지배추와 시설배추가 지역별 상이하나 공통인 지역은 보령, 아산, 당진, 홍성, 예산이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토마토는 공주, 보령, 아산, 논산, 계룡, 부여, 서천, 청양 등 특화도가 1이상으로 나와서 주로 남부권 지역에 몰려있음을 알 수 있음
- 사과는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지역이 특화도가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포도는 시설포도와 노지포도 공통인 지역으로 보령, 부여 등, 배는 천안, 공주, 아산 지역이 특화도가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인삼의 경우는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이 특화도가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들깨는 서산, 당진, 금산, 태안을 제외하고 전 시군에서 특화도가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땅콩은 천안, 서산, 논산, 예산, 태안 지역이 특화도가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태안은 그 중에서도 2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제4부 충남의 농수산물 주요품목 종합분석

표 4-12. 충남의 농산물 주요 품목별-지역별 특화도 지수

품목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고구마			1.3	1.0		2.3					1.0		1.0		1.0
대두(콩)	1.2	1.3					1.3		1.4	1.4	1.0	1.6		1.1	1.3
노지고추		1.5	1.3							1.6	1.3	3.0	1.0		1.7
시설고추		2.8	2.2		1.5			3.6	1.2		2.0	4.0	1.7		2.4
마늘					2.1										3.3
노지배추			1.5	2.0			1.0	2.2					1.8	1.0	
시설배추			4.1	1.2	4.8			1.5					4.5	2.9	
생강															
시설 토마토		1.0	1.3	1.6		1.1	1.7			1.3	1.1	1.9			
사과					1.5			2.9					2.2	3.2	2.6
노지포도	2.0		3.2							1.6					
시설포도			4.2			4.5	1.7		8.6	2.6	1.9				1.1
배	1.5	1.1		1.5											
인삼						1.8	2.3		5.9						
들깨	1.3	1.9	1.3	1.0	-	1.1	2.2	-	-	2.2	1.9	1.3	1.2	1.6	-
땅콩	1.1				1.5	1.4								1.7	2.9
지역별 품목소계 (중복제외)	5	5	6	5	5	6	6	3	4	5	6	4	5	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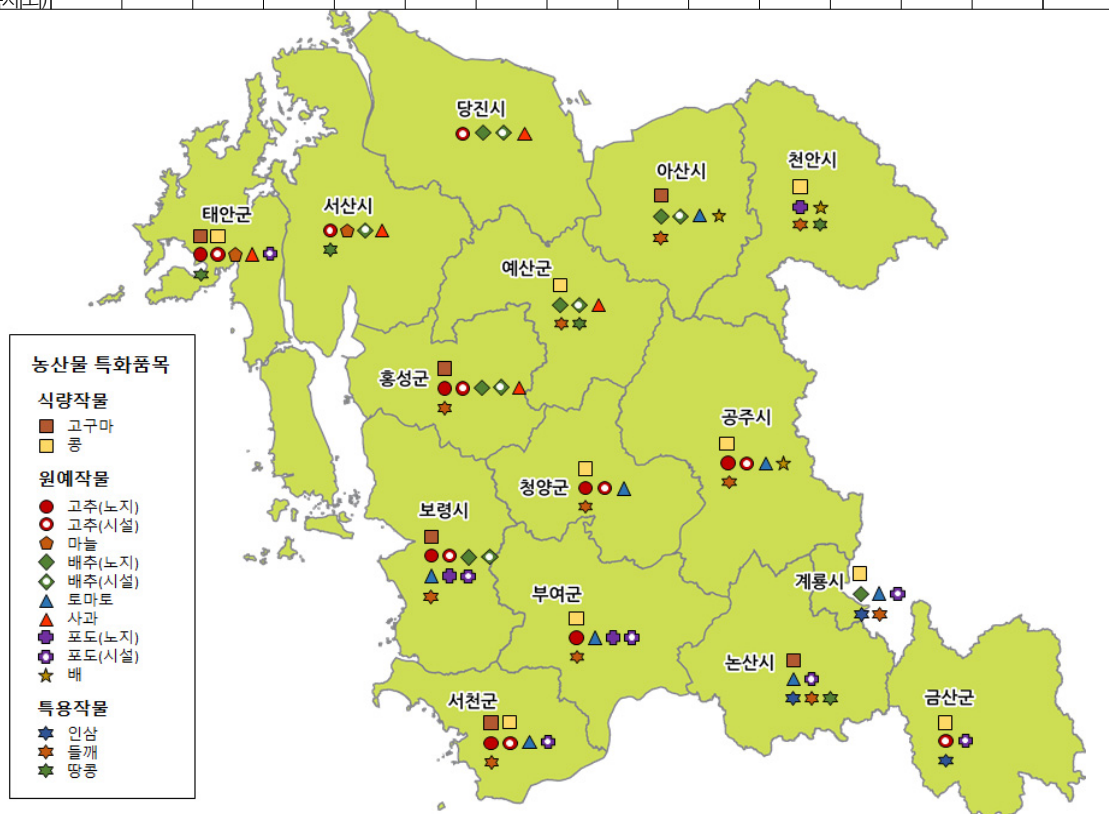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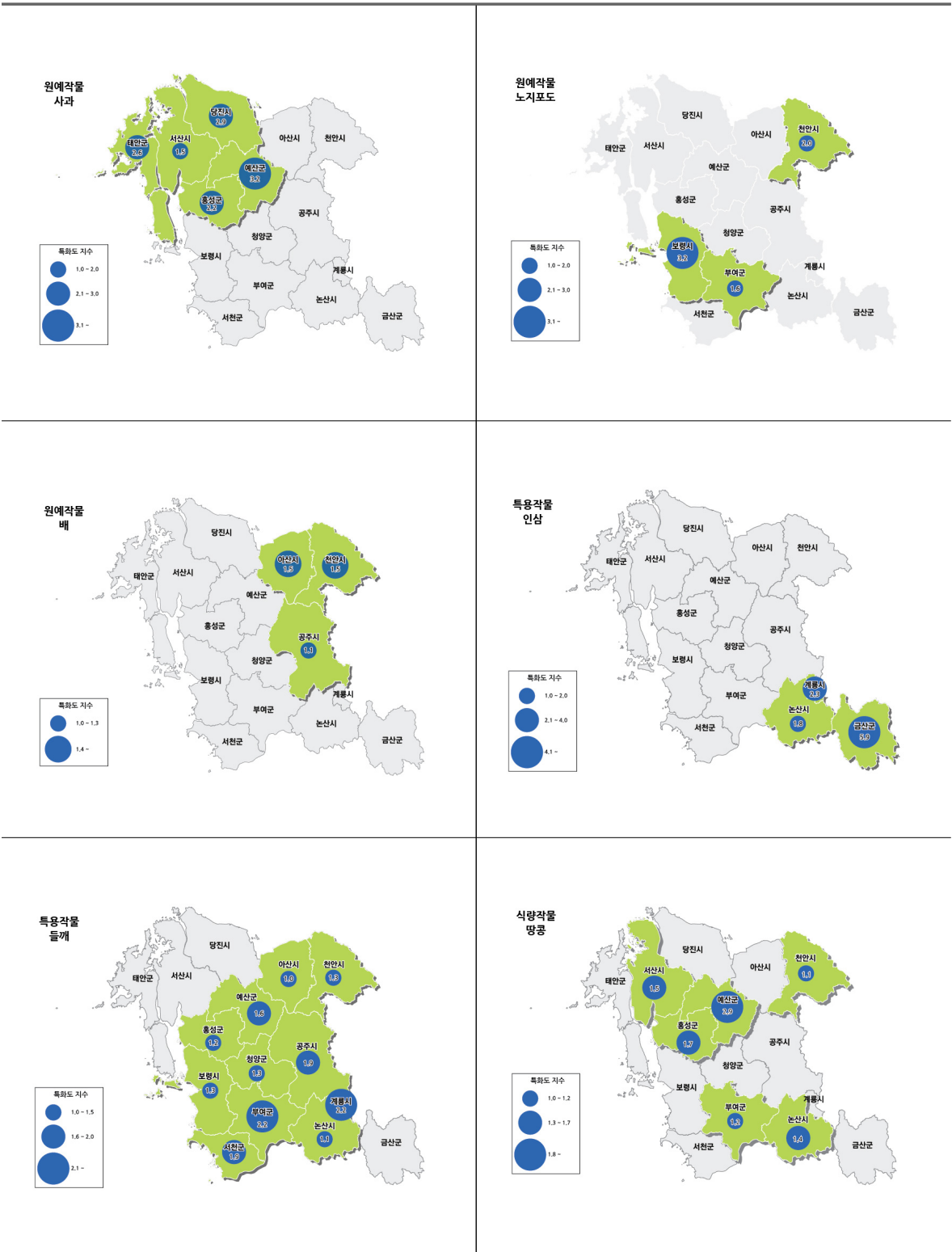






그림 4-1. 충남의 농산물 주요 품목별 지역특화도 분석(계속)



## 4. 생산구조 분석

### ■ 면적당 생산량

- 고추, 마늘, 인삼 등은 충남과 많은 차이가 있는 반면, 콩, 토마토, 사과, 포도, 배추, 토마토 등 시설작물은 우리지역이 중국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경영불안정성

- 0.1~0.2 저위험군 품목은 중국의 경우 콩, 마늘, 토마토, 사과, 배인 반면 충남의 경우 콩, 들깨인 것으로 나타남
- 0.2~0.4 중위험군 품목은 중국의 경우 인삼 정도이나 충남의 경우 고구마, 고추, 마늘, 배추, 토마토, 사과, 배, 인삼, 땅콩인 것으로 나타남
- 0.4 이상은 고위험군 품목으로 중국의 경우 배추, 충남의 경우 생강, 포도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3. 중국과 충남의 농산물 주요 품목별 생산구조 비교

품목	면적당 생산량		재배면적 비중		경영불안정성	
	중국	충남	중국	충남	중국	충남
고구마	—	47.0톤/ha	—	14.2%	—	0.3
대두(콩)	1.8톤/ha	1.9톤/ha	4.1%	9.1%	0.1	0.1
고추	22.3톤/ha	5.1톤/ha	2.7%	10.2%	0.3	0.2
마늘	24.7톤/ha	13.9톤/ha	0.5%	9.9%	0.1	0.2
배추	33.7톤/ha	88.1톤/ha	0.6%	8.3%	0.4	0.2
생강	—	12.1톤/ha	—	23.7%	—	0.4
토마토	51.6톤/ha	51.3톤/ha	0.6%	19.7%	0.1	0.3
사과	16.5톤/ha	16.1톤/ha	1.5%	4.6%	0.1	0.2
포도	15.8톤/ha	11.1톤/ha	0.4%	6.1%	0.3	0.4
배	13.6톤/ha	24.7톤/ha	0.8%	17.3%	0.1	0.2
인삼	9.7톤/ha	1.7톤/ha	—	12.7%	0.2	0.2
들깨	—	1.1톤/ha	—	18.6%	—	0.1
땅콩	3.7톤/ha	2.9톤/ha	2.8%	14.2%	0.1	0.3

5. 비용비교 분석

■ 중간재비 연평균증감율

- 중국의 경우 고추, 배추, 토마토, 사과, 땅콩의 연평균 증감율은 10%~30%내외로 높아지는 추세이고 충남의 경우 배추, 토마토, 배의 경우 20%이상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음

■ 생산비 및 최종소득 차이

- 중국과 충남의 생산비 차이는 최소 배추의 경우 2.85배에서 최대 토마토의 경우 21.8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서 비용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소득 연평균증감율

- 중국의 경우 고추, 배추는 (-)의 증감율을 보이는 반면, 충남의 경우 고구마, 대두(콩), 마늘, 배추, 생강, 토마토가 (-)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4. 중국과 충남의 농산물 주요 품목별 비용비교

품목	중간재비 연평균증감율		생산비 차이 (2013)	최종소득 차이 (2013)	최종소득율 연평균증감율	
	중국	충남			중국	충남
고구마	-	18.4%	-	-		-6.6%
대두(콩)	10.1%	-14.9% (전국)	4.39	4.56	13.2%	-6.1%
고추	32.3%	7.4%	6.54	-0.53	-13.8%	-
마늘		8.0%(전국)	2.48	4.37	-	-13.3%
배추	26.3%	24.9%	2.85	1.56	-0.6%	-11.4%
생강		4.1%	-	-		-0.1%
토마토	17.1%	27.3%	21.89	3.45	14.4%	-16.4%
사과	29.0%	0.3%	2.7	1.93	23.1%	14.4%
포도		-1.7%				4.9%
배		27.6%				16.4%
인삼		6.7%				-6.6%
들깨	-	-	-	-	-	-
땅콩	17.6%	-	-	-	-11.3%	-

## 6. 교역구조 분석

### ■ 최근 5개년 교역규모

- 교역규모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콩, 김치, 생강, 토마토의 경우 최근 5개년 수입규모 연평균증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김치, 토마토를 제외하고는 양허제외 품목

표 4-15. 충남의 농산물 주요 품목별 교역구조

품목	세부품목	최근 5개년 평균 교역규모		최근 5개년 연평균 증감율		관세율 (%)	양허 유형
		수출액 (천 불)	수입액 (천 불)	수출액 증감(%)	수입액 증감(%)		
고구마	냉동	68	695	—	12.9	45.0	E
콩	대두류	111	71,243	44.7	53.5	487% 또는 956원/kg	E
고추	냉동	—	102,496	—	6.6	27.0	E
마늘	냉동	61	30,542	—	-6.7	27.0	E
배추	신선	37	1,121	-100.0	-59.6	27.0	E
김치	김치	89	110,884	-77.1	1.3	20	pr-1
생강	신선	—	3,523	—	72.9	377.3%또는 931원/kg	E
토마토	페이스트	87	12,167	-38.3	5.7	5	15
사과	당침	7	104	1,100.0	41.3	45.0	E
포도	—	—	—	—	—	—	—
배	—	—	—	—	—	—	—
인삼	추출물	596	2,304	90.3	0.7	20.0	E
들깨	들깨	18	38,469	—	17.8	5.0	5
땅콩	피넛버터	4	3,287	-86.4	7.5	50.0	20

## 7. 경쟁력 분석

### ■ 수출입경쟁력

- 인삼을 제외하고는 전품목에서 수출입경쟁력이 1.0이하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가격경쟁력

- 인삼을 포함한 전품목이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비용경쟁력

- 전품목이 1이하로서 국내생산비용이 과다함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토마토의 경우 비용경쟁력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6. 충남의 농산물 주요 품목별 경쟁력 지수

품목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비용경쟁력	주요 교역상품 (수입)	주요 교역상품 (수출)
고구마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	냉장, 냉동 고구마	
대두(콩)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0.29	대두	
고추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0.17	냉동고추	
마늘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0.39	냉동마늘	
배추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0.40	신선배추, 김치	
생강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	신선, 가루 생강	
토마토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0.04	토마토케찹, 토마토페이스트	
사과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0.31	당침사과	
포도	—	—	—	—	건포도	
배	검역문제로 교역량 전무	검역문제로 교역량 전무	검역문제로 교역량 전무	검역문제로 교역량 전무	검역문제로 교역량 전무	
인삼	1.0 이상	1.0 이하	1.0 이하	—		인삼, 인삼차류
들깨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	들깨	
땅콩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	피넛버터, 기타가공땅콩	

## 8. 설문조사 분석

### (1) 한중FTA 총괄평가

#### ■ 한국산 농산물에 대비한 중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미래에는 중국산 농산물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는 농림어업 전체적으로 가격경쟁력, 유통경쟁력, 품질경쟁력, 수출경쟁력 평균은 5점 만점 중 3.4점, 농산물도 이와 동일한 평점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품질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래는 농림어업 전체적으로 가격경쟁력, 유통경쟁력, 품질경쟁력, 수출경쟁력 평균은 5점 만점 중 2.8점으로 하락한 가운데 농산물도 동일한 평점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품질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한중FTA로 인하여 농가에 미치는 생산량 변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향 수준

- 한중FTA로 인하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5점 만점 중에서 전체 평균의 경우는 3.7점, 농산물의 경우는 3.9점으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전체 평균 및 농산물의 경우 모두 현재 수준에서 약 20% 이상의 생산량 감소를 동일하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타격이 큰 구간으로는 경지면적 기준 1.0ha~2.0ha으로 전체 평균과 농산물의 경우 동일하게 나타났고 판매금액 기준 전체 평균이 1천만 원~3천만 원인데 비해 농산물의 경우는 300만 원에서 1천만 원 구간으로 예상
- 직접적으로 경영에 직접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전체 평균과 동일하게 농산물의 경우도 발효 이후 1년~3년 뒤로 보고 있음

#### ■ 한중FTA 발효이후 주관적,심리적으로 느끼는 경영위험도 정도

- 전체 평균과 농산물의 경우 동일하게 3.7점으로 나타나서 경영위험에 대한 부담을 예상하고 있는데 모두 시장 및 가격에 대한 위험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음
- 전체 평균과 농산물의 경우 농가들은 현재 소득대비 약 20%의 소득감소를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최대 한계점으로 보고 있고 그 이상 수준이 되면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음
- 하지만 이런 경영위험에 대비한 농가들의 자구책(전략)은 없는 편이고 경영포기 의향도 없는 편이나 경영승계 의향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임을 알 수 있음

표 4-17. 한중 간 농산물 경쟁력 및 경영위험인식 평가

대분류	중분류	(단위)	전체 평균	농산물
중국산 농림산물 경쟁력(현재)	가격경쟁력	점	2.8/5점	2.9/5점
	유통경쟁력	점	3.2/5점	3.0/5점
	품질경쟁력	점	4.3/5점	4.3/5점
	수출경쟁력	점	3.2/5점	3.2/5점
	평균		3.4	3.4
중국산 농림산물 경쟁력(미래)	가격경쟁력	점	2.0/5점	1.8/5점
	유통경쟁력	점	2.5/5점	2.4/5점
	품질경쟁력	점	3.8/5점	3.8/5점
	수출경쟁력	점	2.8/5점	2.8/5점
	평균		2.8	2.7
농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점	3.7/5점	3.9/5점
생산량 변화 예상수준		%	(-)20%	(-)20%
가장 타격이 큰 구간	경지면적	ha	(농) 1.0ha~2.0ha (어) 15ha~20ha	1.0ha~2.0ha
	판매금액	천만 원	1천만 원~3천만 원	300만 원~ 1천만 원
직접피해 발생 예상시기		년뒤	1년~3년 뒤	1년~3년 뒤
경영위험도 예상수준	자연,기술적 생산위험	점	3.7/5점	3.5/5점
	시장 및 가격위험	점	4.1/5점	4.3/5점
	제도적 위험	점	3.4/5점	3.4/5점
	경제적 위험	점	3.8/5점	3.9/5점
	인적 및 책임 위험	점	3.7/5점	3.6/5점
	평균		3.7	3.7
경영유지 최대 한계점		%	(-)20%	(-)20%
자구책 전략		-	없음	없음
경영포기 의향		-	없음	없음
경영승계 의향		-	없음	없음

(2) 기존 정책평가

■ 정부가 금번 발효한 “한중FTA 국내보완대책” 의 정책별 필요성에 대한 평가

-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FTA는 한중FTA인 것으로 응답하였고 전체 평균 및 농산물의 경우 모두 수출촉진 및 수입안전 체계구축 정책 필요성이 경쟁력 제고 정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존 각종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

- 가장 공정한 정책하고 성공한 정책은 전체 평균 및 농산물의 경우 모두 농자재 지원정책으로 보고 있음



- 전체 평균의 경우 가장 실패한 정책을 농산물 유통정책으로, 농산물의 경우 인력육성 정책으로 보고 있음
- 가장 만족한 정책과 FTA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전체 평균 및 농산물의 경우 모두 6차산업화 정책으로 보고 있음
- 향후 강조할 정책은 전체 평균 및 농산물의 경우 모두 농산물 유통 정책을 선택하고 있음

표 4-18. 기존 농업 분야의 FTA대책에 대한 주관 평가

대분류	중분류	(단위)	전체 평균(농업)	농산물
가장 위협적인 FTA		-	한중FTA	한중FTA
정책별 필요성	발농업 경쟁력 제고	점	4.3/5점	4.3/5점
	임업 경쟁력 제고	점	4.1/5점	4.1/5점
	수출촉진	점	4.6/5점	4.5/5점
	수입안전 체계구축	점	4.5/5점	4.5/5점
정책에 대한 주관 평가	가장 공정한 정책	-	농자재 지원 정책	농자재 지원 정책
	가장 성공한 정책	-	농자재 지원 정책	농자재 지원 정책
	가장 실패한 정책	-	농산물 유통 정책	인력육성 정책
	가장 만족한 정책	-	6차산업화 정책	6차산업화 정책
	FTA 도움되는 정책	-	6차산업화 정책	6차산업화 정책
	향후 강조할 정책	-	농산물 유통 정책	농산물 유통 정책

### (3) 향후 충남의 한중FTA 대책수립 방향

#### ■ 한중FTA 대책수립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실효성), 필요성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한중FTA 대책수립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3농혁신 정책과 시군 농정간 연계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남의 FTA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방향은 방어적(농업보호) 전략과 공격적(수출지향) 전략 두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중립적인 전략을 선호하고 있음
- 농업인이 말하는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은 정책”이라 함은 전체적으로 현물지원 확대를 의미하고 있음
- 참고로 3농혁신 지향하는 가치는 현재로서 경제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미래에는 비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전체평균 및 농산물의 경우 동일한 비중으로 응답함

#### ■ 한중FTA 대책에서 주체별 강조할 정책의 영역

-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모두 가릴 것 없이 농산물 유통 영역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는 중앙정부 역할을 수출 영역에 좀더 많은 강조를 하고 있음
-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 영역에 충실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으나 농업인 스스로의 문제점은 높은 정부정책 의존도로 보고 있음

#### ■ 충남도가 개방화에 대비해서 영역별 우선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 생산 영역에선 전체평균 시설현대화 지원확대, 농산물의 경우 농자재 지원정책을 선택함
- 유통 영역에선 전체평균 우수브랜드 육성, 농산물의 경우 로컬푸드 확산을 선택함
- 가공 영역에서는 전체평균 및 농산물의 경우 모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선택함
- 인력 영역에서는 전체평균 후계농업인 육성을, 농산물의 경우 귀농·귀향인력 전문성 강화를 선택함
- 소득 영역에서는 직불금 확대를, 수출영역에서는 중점수출육성 품목의 확대를, 소비영역에서는 도농교류 확대를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선택함

표 4-19. 한중FTA 농업 대책수립 시 방향에 대한 의견

대분류	중분류	전체 평균	농산물
정책효과성(실효성)	국가차원의 FTA대책	4.2/5점	4.1/5점
	충남차원의 FTA대책	4.3/5점	4.3/5점
연계 필요성	3농혁신-한중FTA대책	4.3/5점	4.4/5점
	3농혁신-시군농정	4.4/5점	4.5/5점
충남의 전략방향		중립적 전략(방어+공격)	중립적 전략(방어+공격)
실질적인 정책		현물지원 확대	현물지원 확대
3농혁신 지향가치	현재	경제적 가치(소득향상)	경제적 가치(소득향상)
	미래	비경제적 가치(삶의질 향상)	비경제적 가치(삶의질 향상)
농업인의 문제점		높은 정부정책 의존도	높은 정부정책 의존도
주체별 강조영역	중앙정부(농식품부)	유통 영역	수출 영역
	광역지자체(충청남도)	유통 영역	유통 영역
	기초지자체(시군)	유통 영역	유통 영역
	생산자(농업인)	생산 영역	생산 영역
우선 해결과제	생산 영역	시설현대화 지원확대	농자재 지원정책
	유통 영역	우수브랜드 육성	로컬푸드 확산
	가공 영역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인력 영역	후계농업인 육성	귀농·귀향인력 전문성 강화
	소득 영역	직불금 확대	직불금 확대
	수출 영역	중점수출육성 품목확대	중점수출육성 품목확대
	소비 영역	도농교류 확대	도농교류 확대

그림 4-2. 중국과 충남의 고추 품목의 종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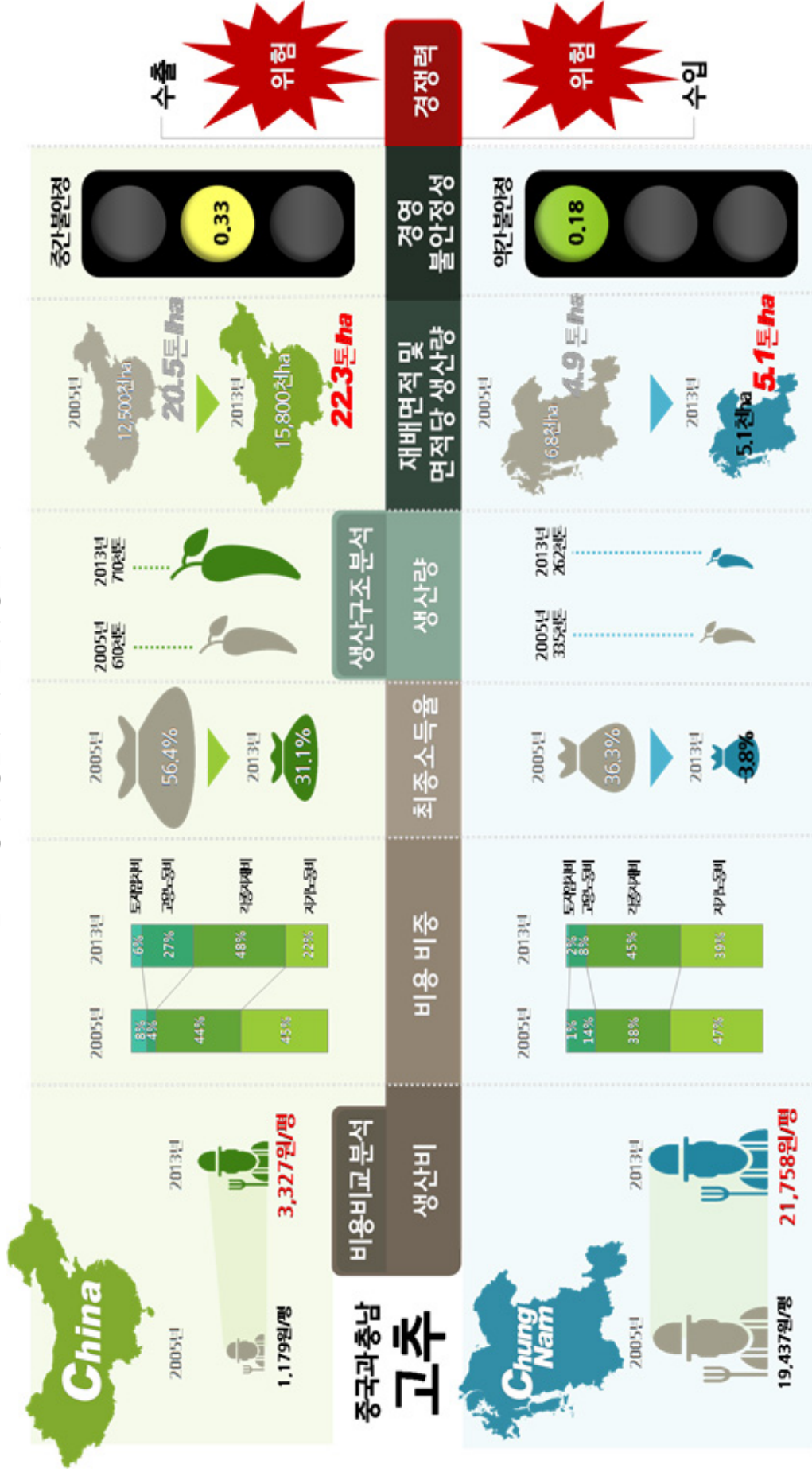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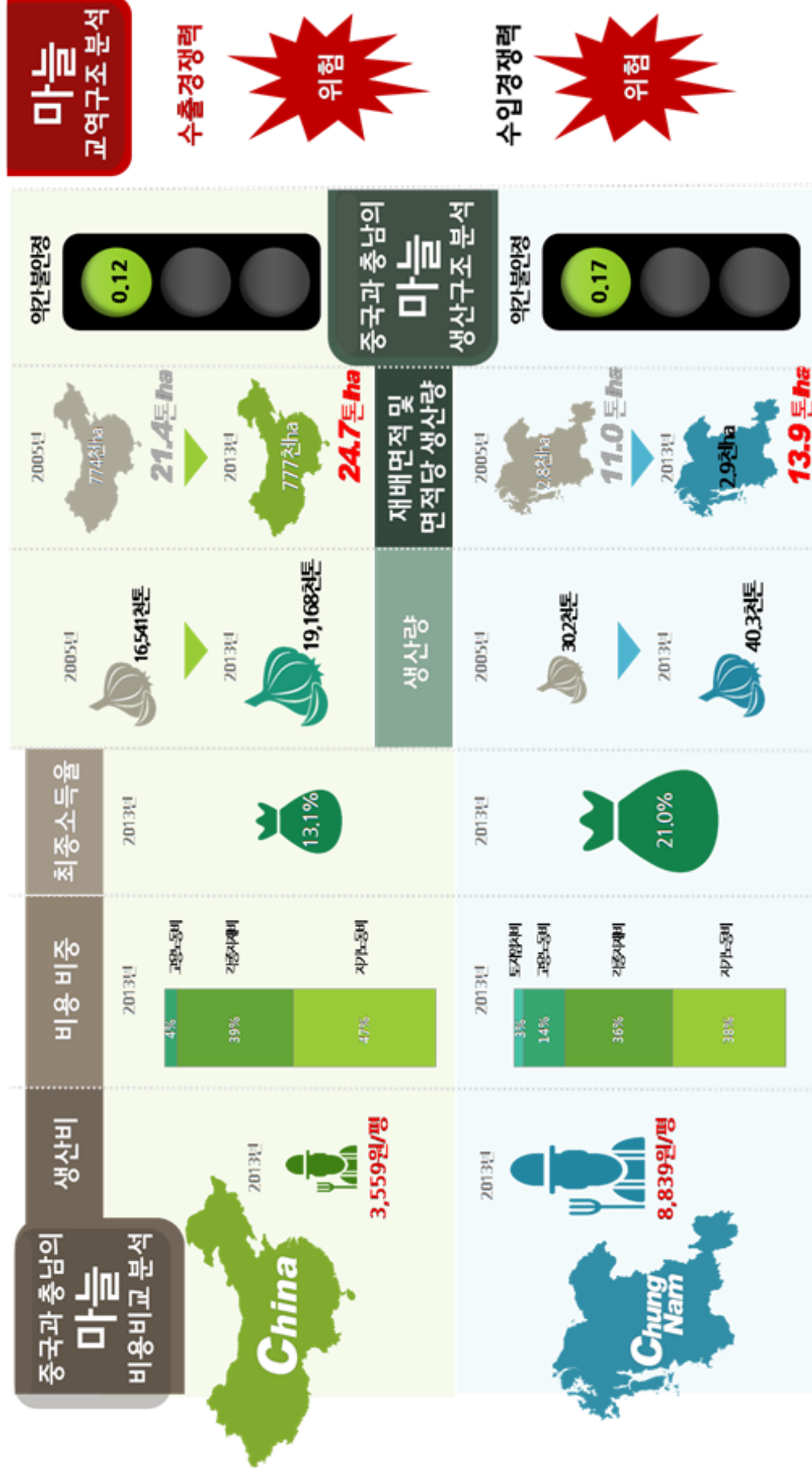


그림 4-3. 중국과 충남의 마늘 품목의 종합 비교



## 제2절 임산물

### 1. 중국의 정책이슈 분석

#### ■ 임산물(표고버섯, 약용작물(약초), 밤, 산양삼, 고사리)

- 버섯, 중국 제5대 농산물로 부상(2014. 09)
  - 연간 생산량이 2,800만 톤을 초과, 생산액이 2,000억 위안을 넘어서면서 식량, 식용유, 과일, 채소에 이어 중국의 5대 농산물
  - 세계 최대의 버섯 생산국이자 세계 총 생산량의 75%

#### ■ 약용작물<sup>19)</sup>

- 중의학이 공식적인 국가 의료전달체제로 편입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의의료서비스 및 중약에 대한 발전에서 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1980년대 중후반 중국 개혁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중국 정부가 입안하여 공표하는 각종 국가적 산업발전계획에서 중의약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음
- 중국 중의약 주관부처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며 각종 약품, 의료 기기와 보건의료의 연구, 생산, 유통과 사용에 대한 행정과 기술을 감독함.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 약품 감독관리 부문은 각 행정구역내의 약품 감독 관리를 담당함. 중국 위생부 산하의 “국가 중의약관리국”은 국가위생, 약품 관련 정책과 법률, 중의약산업의 특성에 근거한 중의약산업의 교육, 기술에 대한 지도와 실행을 주관함. 중의약 산업 자율기관으로 “중국중의약학회”가 있으며 전국 13개 산업협회와 지방협회를 두고 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중의약관리국은 1996년 [95계획(九五計劃<sup>20)</sup>)]의 하부 계획으로 “중약현대발전전략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1998년에 “중약현대화과기산업행동계획(現代化科技產業行動計劃)”이 95계획 과학기술분야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었음.
- 중의약의 미래정책 방향에 대해 가장 최근에 제안된 중국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전략은 [중의약사업발전 12·5규획(中醫藥事業發展 12·5規劃)]임. 중의약 사업발전 12·5규획에서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중약 공업총생산액을 5,500억 위안에 도달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중약산업 발전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이에 따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약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중약관리 강화, 중약 생산기술발전과 중의약 산업기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중약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약재 품종의 산업화, 도지약재 생산기지 건설, 중의약 제조과정 품질관리 선진기술 시범 사용 등을 추진함

19) 자료 : 리금(2015), 중국 약용작물산업 현황

20) 주 : 중국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 1950년대부터 순차별 5개년 계획을 제정, “9.5”는 제9기 5개년 계획 기간으로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임. “12.5”는 제12기 5개년 계획 기간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임.

- 신의료개혁 정책에 따라 ‘중서병용(中西并用, 한·양방 결합치료)’을 추진하여 중국 중의약 산업 수준 제고함
- 2011년 상반기에 최근 3년간 한약재 수급불안 및 투기 등의 영향에 따른 가격 폭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제공 플랫폼 육성 및 정보 활용을 중시하고 있음. 한약재 정보제공을 통해 무분별한 생산 및 낭비 감소, 악의적 가격조작 및 폭리 방지 등 약재 자원의 합리적 생산과 판매 등 가시적인 효과 거양으로 정보산업도 중요한 약재산업의 하나로 인식함

표 4-20. 중의약사업발전 12·5규획 발전 목표

분야	발전 목표
의 료	· 의료서비스체계 정비, 중의약 장점 부각으로 의료위생 기본제도 확립
보 건	· 예방보건서비스 네트워크 기초 구축 · 비상사태 대처능력 향상 · 주요 질병예방과 치료능력 향상
과학연구	· 계승 및 혁신체계 확립 · 중의약 서비스 능력향상과 중약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적 기여도 상승
교 육	· 인재 자질 향상의 구조 합리화 실현
산 업	· 중약의 품질기준과 규범체계 개선 · 중국 약재생산의 종합능력 강화 · 중약의 현대적 산업체계 건설, 산업혁신능력 강화, 중약산업의 국제시장경쟁력 향상
문 화	· 중의약 관련 문화업종의 형태 다양화 · 중의약 문화자원의 효과적 개발
정 책	· 중의약의 법제, 표준화, 정보화 건설 강화 및 중의약 입법 실현 · 중의약 감독관리체계 기초 구축 ·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 관련 제도 제정
국 제	·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 및 국제 전통의약분에서의 영향력 강화

자료 : 한국한의학연구원(2012)

## 2. 기초현황 분석

### ■ 전국 대비 충남의 비중

- 전국 대비 충남의 생산량 및 재배면적 비중이 구기자 및 표고버섯은 30% 이상, 은행은 면적 기준 34%이나 생산량 기준 23%, 밤은 면적기준 44.7%이나 생산량 기준 52%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단기소득임산물의 현재 비중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 지역특화계수

- 지역특화계수가 구기자 1.8, 은행 1.9, 밤 2.4등으로 나타남

표 4-21. 충남의 임산물 주요 품목별 기초현황

(단위 : 가구, ha, 천 봉, 톤, 백만 원)

품목	전국 생산량 (톤)	충남 생산량 (톤)	전국 대비 충남 생산량 (%)	전국 재배면적 (ha)	충남 재배면적 (ha)	전국 대비 충남 재배면적 (%)	지역특화계수
구기자	503	172	34.2	74	25	33.8	1.8
은행	3,973	908	22.9	342	119	34.8	1.9
밤	59,465	31,062	52.2	25,486	11,403	44.7	2.4
표고버섯	18,456	6,405	34.7	48,763 (천 봉)	15,290 (천 봉)	31.4	-

표 4-21. 충남의 임산물 주요 품목별 기초현황(계속)

(단위 : 가구, ha, 천 봉, 톤, 백만 원)

품목	전국 재배임가 (가구)	충남 재배임가 (가구)	전국 대비 충남 임가 (%)	전국 생산액 (백만 원)	충남 생산액 (백만 원)	전국 대비 충남 생산액 (%)
구기자	432	169	39.1%	21,487	7,345	34.2%
은행	849	253	29.8%	14,826	3,149	21.2%
밤	12,411	3,993	32.2%	117,997	69,997	59.3%
표고버섯	3,495	992	28.4%	154,069	51,285	33.3%

주 : 1. 재배임가 및 재배면적은 2010년 기준임

2. 표고버섯 재배면적은 재배본(봉)수이고 표고버섯 생산량 및 생산액은 생표고 기준임

자료 : 1. 산림청(2015), 2014년 임업통계연보

2.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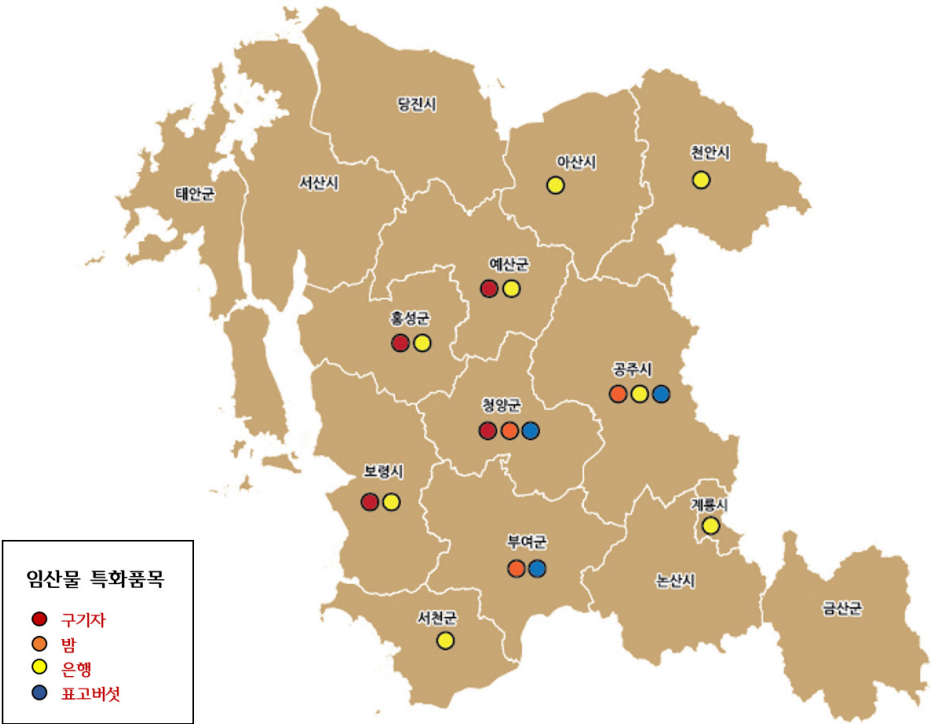
3. 지역특화 분석

■ 충남의 임산물 중에서 표고버섯은 특화된 품목

- 충남의 표고버섯 생산량은 2014년 기준 전국 1위로 34%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생산량 전국 5위 이내 시군이 모두 충남지역일 만큼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수출량도 전국 1위로서 2014년 기준 29.5%를 차지함
- 생표고의 전국 점유율은 부여(10.7%), 청양(7.3%), 천안(4.4%), 공주(3.2%) 순이고 건표고의 전국 점유율은 청양(4.1%), 천안(3.3%) 순임

표 4-22. 충남의 임산물 주요 품목별-지역별 특화도 지수

품목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구기자			2.6									4.7	1.6	12.6	
은행	2.4	1.4	3.0	1.3			1.3				1.2		1.3	6.6	
밤		1.2								1.2		1.2			
표고버섯		10.3								34.6		16.3			
	(4.4%)	(3.2%)								(10.7%)		(7.3%)			
지역별 품목소계 (중복제외)	1	3	2	1			1			2	1	3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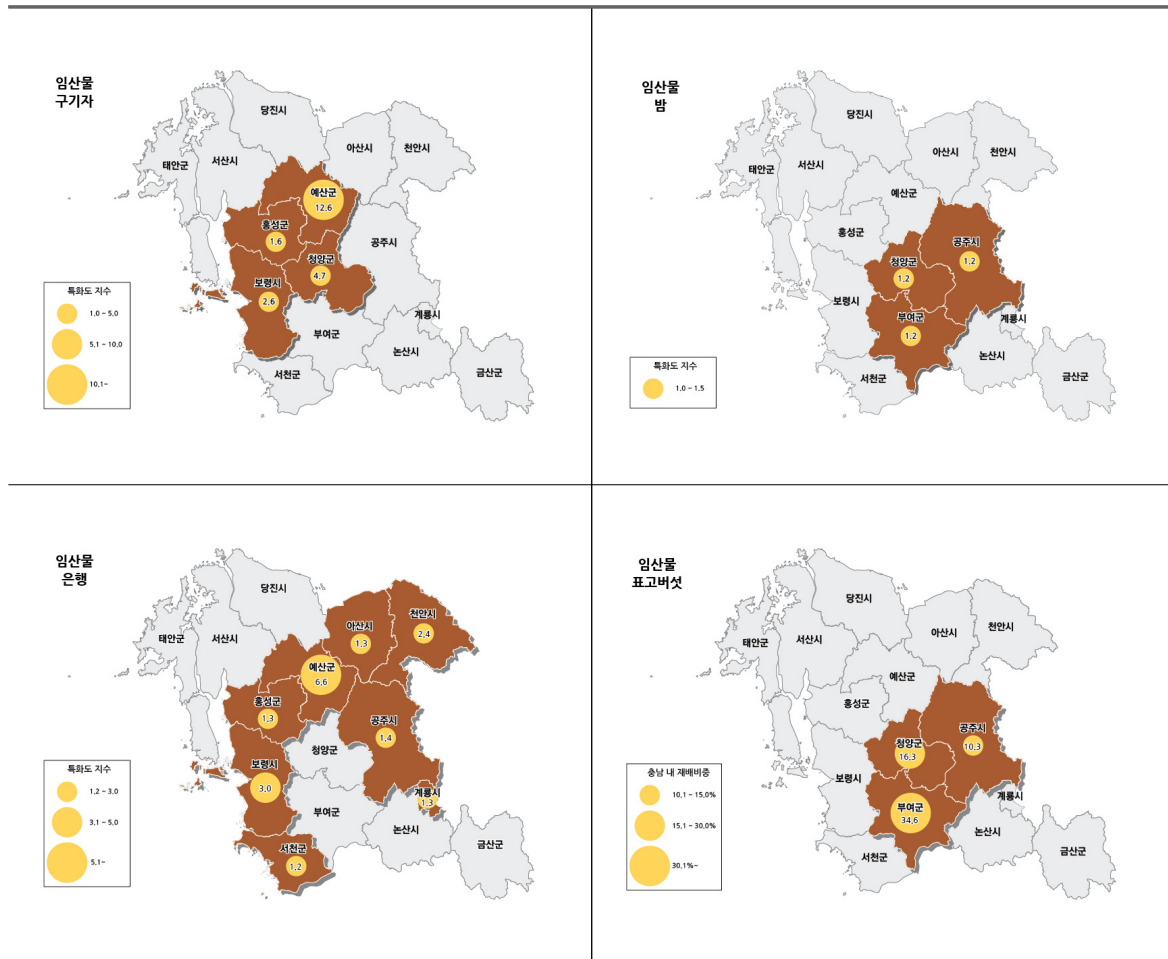
주 : 1. 표고버섯의 지역특화지수 대신 충남 내 재배비중 10%이상인 지역만 표기하고 지도상에 이를 반영함  
2. 표고버섯의 경우 ( )는 특화도 지수 대신 2014년 전국 대비 생산량 비중(%)임



## ■ 품목별 특화도가 높은 지역

- 구기자의 경우는 보령, 청양, 홍성, 예산 지역이 특화도가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은행의 경우는 천안, 공주, 보령, 아산, 계룡, 서천, 홍성, 예산 지역이 특화도가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서 임산물 품목 중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음
- 밤과 표고버섯의 경우 공주, 부여, 청양 지역이 동일하게 특화도가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3지역은 밤과 표고버섯 특화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4-4. 충남의 임산물 주요 품목별 지역특화도 분석



4. 교역구조 분석

■ 최근 3개년 교역규모

- 밤과 표고버섯(신선)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이 월등히 높은 품목인 것으로 나타남
- 밤의 경우는 수출이 -23.9%를 보이면서 감소추세이나 표고버섯의 경우는 냉동을 제외하고 표고버섯(건조, 신선) 수입은 10%이상 증감율을 보이고 있음

표 4-23. 충남의 임산물 주요 품목별 교역구조

품목	세부품목	최근 3개년 평균 교역규모		최근 3개년 평균 교역 증감율		관세율 (%)	양허 유형
		수출액 (천 불)	수입액 (천 불)	수출액 증감(%)	수입액 증감(%)		
구기자	구기자	45	1,720	17.5	-10.8	8	E
밤	신선	20,748	3,634	-23.9	5.6	219.4% 또는 1,47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밤	냉동	-	10,222	-	-6.2	30	E
표고버섯	건조	3	11,534	-	12.4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E
표고버섯	신선	-	24,495	-	29.3	40% 또는 1,625원/kg, 양자 중 고액(율)	E
표고버섯	기타가공	17	5,735	-	7.1	20	E

## 5. 설문조사 분석

### (1) 한중FTA 총괄평가

#### ■ 한국산 임산물에 대비한 중국산 농림산물의 경쟁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미래에는 중국산 임산물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는 농림어업 전체적으로 가격경쟁력, 유통경쟁력, 품질경쟁력, 수출경쟁력 평균은 5점 만점 중 3.4점이나 임산물은 3.5점으로 조금 높은 편, 그 중에서 품질경쟁력을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미래는 중국산, 한국산 경쟁력 모두 이전수치보다 하락한 전체 및 임산물 모두 평균 2.8로 예상, 미래에도 역시 품질경쟁력이 다른 경쟁력 항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함

#### ■ 한중FTA로 인하여 임가에 미치는 생산량 변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향 수준

- 전체의 경우 3.7점보다 임산물의 경우 3.8점으로 조금 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와 임산물 모두 현재 수준에서 약 20% 이상의 생산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타격이 큰 구간으로는 임산물의 경우 경지면적 기준 0.5ha~2.0ha로 예상, 판매금액은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임산물은 다른 품목부류보다 좀 더 큰 규모의 구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직접적으로 경영에 직접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다른 품목부류와 달리 더 늦은 시기인 발효 이후 3년~5년 뒤로 보고 있음

#### ■ 한중FTA 발효 이후 주관적.심리적으로 느끼는 경영위험도 정도

- 전체의 경우 3.7점보다 임산물의 경우 3.8점으로 경영위험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큼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시장 및 가격에 대한 위험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위험인 것으로 나타남
- 임산물 농가들은 전체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 현재 소득대비 약 40%의 소득감소를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최대한계점으로 보고 있고 그 이상 수준이 되면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음
- 하지만 이런 경영위험에 대비한 농가들의 자구책(전략)은 없는 편, 경영포기 의향도 없는 편이나 경영승계 의향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임을 알 수 있었음

표 4-24. 한중간 임산물 경쟁력 및 경영위험인식 평가

대분류	중분류	(단위)	전체 평균	임산물
중국산 농림산물 경쟁력(현재)	가격경쟁력	점	2.8/5점	2.9/5점
	유통경쟁력	점	3.2/5점	2.9/5점
	품질경쟁력	점	4.3/5점	4.7/5점
	수출경쟁력	점	3.2/5점	3.4/5점
	평균		3.4	3.5
중국산 농림산물 경쟁력(미래)	가격경쟁력	점	2.0/5점	1.4/5점
	유통경쟁력	점	2.5/5점	2.3/5점
	품질경쟁력	점	3.8/5점	4.1/5점
	수출경쟁력	점	2.8/5점	3.1/5점
	평균		2.8	2.7
농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점	3.7/5점	3.9/5점
생산량 변화 예상수준		%	(-)20%	(-)20%
가장 타격이 큰 구간	경지면적	ha	(농) 1.0ha~2.0ha (어) 15ha~20ha	0.5ha~2.0ha
	판매금액	천만 원	1천만 원~3천만 원	1천만 원~5천만 원
직접피해 발생 예상시기		년뒤	1년~3년 뒤	3년~5년 뒤
경영위험도 예상수준	자연, 기술적 생산위험	점	3.7/5점	3.3/5점
	시장 및 가격위험	점	4.1/5점	4.2/5점
	제도적 위험	점	3.4/5점	3.6/5점
	경제적 위험	점	3.8/5점	4.0/5점
	인적 및 책임 위험	점	3.7/5점	3.9/5점
	평균		3.7	3.8
경영유지 최대 한계점		%	(-)20%~(-)30%	(-)40%
자구책 전략		-	없음	없음
경영포기 의향		-	없음	없음
경영승계 의향		-	없음	없음

(2) 기존 정책평가

■ 정부가 금번 발효한 “한중FTA 국내보완대책”의 정책별 필요성에 대한 평가

-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FTA는 한중FTA인 것으로 모두 응답하였음
- 발농업경쟁력 제고, 임업경쟁력제고, 수출촉진, 수입안전 체계구축 모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임산물 및 특용작물의 경우 수출촉진 정책 및 수입안전 체계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

## ■ 기존 각종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전체 및 임산물특용작물 모두 가장 공정하고 성공한 정책은 농자재 지원정책으로 보고 있음
- 가장 실패한 정책은 6차산업화 정책이고 임산물특용작물의 경우는 친환경농업 정책으로 보고 있음
- 전체 및 임산물특용작물 모두 가장 만족하고 FTA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6차산업화 정책을 선택하고 있고 향후 강조할 정책은 바로 농산물 유통 정책으로 뽑고 있음.

표 4-25. 기존 임업 분야의 FTA대책에 대한 주관 평가

대분류	중분류	(단위)	전체 평균(농업)	임산물
가장 위협적인 FTA		-	한중FTA	한중FTA
정책별 필요성	발농업 경쟁력 제고	점	4.3/5점	4.1/5점
	임업 경쟁력 제고	점	4.1/5점	5.0/5점
	수출촉진	점	4.6/5점	4.9/5점
	수입안전 체계구축	점	4.5/5점	4.5/5점
정책에 대한 주관 평가	가장 공정한 정책	-	농자재 지원 정책	농자재 지원 정책
	가장 성공한 정책	-	농자재 지원 정책	직불 등 소득정책
	가장 실패한 정책	-	농산물 유통 정책	농자재 지원 정책
	가장 만족한 정책	-	6차산업화 정책	직불 등 소득정책
	FTA 도움되는 정책	-	6차산업화 정책	6차산업화 정책
	향후 강조할 정책	-	농산물 유통 정책	농산물 유통 정책

### (3) 향후 충남의 한중FTA 대책수립 방향

## ■ 한중FTA 대책수립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실효성), 필요성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한중FTA 대책수립은 5점 만점 중 4.4~4.6점으로 나타나서 매우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3농혁신 정책과 시군 농정 간 연계 필요성은 5점 만점 중에서 4.6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임산물의 경우도 충남의 FTA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방향은 공격적(수출지향) 전략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음
- 임산물의 경우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은 정책”이라 함은 현금지원 확대와 현물지원 확대를 동일한 비중으로 응답함
- 참고로 3농혁신 지향하는 가치는 현재로서 비경제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미래에는 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뒀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전체 평균과 반대되는 양상을 보임

### ■ 한중FTA 대책에서 주체별 강조할 정책의 영역

-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모두 가릴 것 없이 농산물 유통 영역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임업인들은 생산 영역에 충실히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으나 농업인 스스로의 문제점은 높은 정부정책 의존도, 경영위험 관리노력의 부족, 소비자와 함께하려는 의식결여 등으로 보고 있음

### ■ 충남도가 개방화에 대비해서 영역별 우선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 생산 영역에선 전체평균 시설현대화 지원확대, 임산물의 경우 농자재 지원정책
- 유통 영역에선 전체평균 우수브랜드 육성, 임산물의 경우 로컬푸드 확산 및 불법유통 단속 강화 정책
- 가공 영역에서는 전체평균 농식품가공 산업육성, 임산물의 경우 지역산 가공원료 사용의 확대를 선택함
- 인력 영역에서는 전체 및 임산물의 경우 모두 후계농업인 육성을 선택하였고 소득 영역에서는 직불금 확대를, 수출영역에서는 중점수출육성 품목의 확대를 동일하게 선택함
- 소비영역에서는 전체평균 도농교류 확대를, 임산물의 경우 학교급식의 확대를 선택함

표 4-26. 한중FTA 입업 대책수립 시 방향에 대한 의견

대분류	중분류	전체 평균	임산물
정책효과성(실효성)	국가차원의 FTA대책	4.2/5점	4.4/5점
	충남차원의 FTA대책	4.3/5점	4.6/5점
연계 필요성	3농혁신-한중FTA대책	4.3/5점	4.6/5점
	3농혁신-시군농정	4.4/5점	4.6/5점
충남의 전략방향		중립적 전략(방어+공격)	공격적 전략(수출지향)
실질적인 정책		현물지원 확대	현금 및 현물지원 확대
3농혁신 지향가치	현재	경제적 가치(소득향상)	비경제적 가치(삶의질향상)
	미래	비경제적 가치(삶의질향상)	경제적 가치(소득향상)
농업인의 문제점		높은 정부정책 의존도	경영위험 관리노력 부족 높은 정부정책 의존도 소비자와 함께하는 의식결여
주체별 강조영역	중앙정부(농식품부)	유통 영역	유통 영역
	광역지자체(충청남도)	유통 영역	유통 영역
	기초지자체(시군)	유통 영역	유통 영역
	생산자(농업인)	생산 영역	생산 영역
우선 해결과제	생산 영역	시설현대화 지원확대	농자재 지원 정책
	유통 영역	우수브랜드 육성	로컬푸드 확산 불법유통 단속 강화
	가공 영역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역산 가공원료 사용 확대
	인력 영역	후계농업인 육성	후계농업인 육성
	소득 영역	직불금 확대	직불금 확대
	수출 영역	중점수출육성 품목확대	중점수출육성 품목확대
	소비 영역	도농교류 확대	학교급식 확대

## 제3절 수산물

### 1. 중국의 정책이슈 분석

■ 수산물(바지락蛤仔, 새우, 주꾸미短蛸, 낙지章鱼, 전복鲍鱼, 해삼海参, 굴洞穴, 김紫菜, 海苔, 꽃게海螃蟹, 넙치比目鱼, 멸치鯧鱼, 조피볼락黑鲷黑石鲷, 키조개江珧)

- 2012년 9월부터 정부는 42억여 위안을 해양어선 개선에 사용함
  - 어선 개조는 어민의 자원의 원칙으로 실시됐으며 주로 오래되고 연료소비가 많은 어선을 중심으로 개조함
- 농업부 2013년 전국 현대어업 및 양종업 시범장 지정 및 명단 통지
  - 각 부분의 추천과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북경어부수산물기술개발중심 등 42개 기관을 선정해 전국 현대어업 및 양종업시범장을 지정통보함

표 4-27. 전국 현대어업 및 양종업 시범장 명단 (42곳 중 충남 주산품 관련 명단)

순서	지역	기업명	취급 품종
1	하북성	河北鑫海水产生物技术有限公司	南美白对虾 (남미 흰참새우)
2	요녕성	盘锦光合蟹业有限公司	中华绒螯蟹(참게)
3	산둥성	昌邑市海丰水产养殖有限责任公司	中国对虾(참새우)、三疣梭子蟹(꽃게)
4	산둥성	威海长青海洋科技股份有限公司	鲍(전복)
5	광둥성	湛江恒兴南方海洋科技有限公司	南美白对虾(남미 흰참새우)
6	광둥성	湛江海茂水产生物科技有限公司	南美白对虾(남미 흰참새우)
7	광서자치구	广西壮族自治区水产科学研究院	南美白对虾(남미 흰참새우)
8	요녕성 대련시	獐子岛集团股份有限公司大连海珍品原良种场	扇贝(가리비)
9	요녕성 대련시	大连棒棰岛海参发展有限公司	海参(해삼)
10	요녕성 대련시	大连壹桥海洋苗业股份有限公司	扇贝(가리비), 海参(해삼)

- 중국 해양어업의 지속적이면서도 건강한 발전을 위한 국무원 의견 피력(2013. 6. 25)
  - 중국 해산물 생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어민 소득도 크게 증가했지만 중국 해양어업은 여전히 낙후해 과도한 포획과 환경오염을 남발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2015년까지 해수산물 양은 3000만 톤에 달할 것이며 해수양식면적은 220만km<sup>2</sup>로 안정적일 것임. 그 가운데 해수양식면적은 115만km<sup>2</sup> 이내로 통제할 계획임. 특히 근해 어획은 강하게 통제할 계획임
- 2014년 어업자원보호와 업종전환 및 이주를 위해 지불한 자금은 4억 위안에 달함
  - 그 중 수생생물 증식 및 방류에 3억 600만 위안, 해양목장 시범구 건설에 9400만 위안을 사용함. 2015년에도 이러한 사업은 계속 실시되고 있음



- 산둥성 위해(威海)시 해삼양식면적 5년 내 100만 무 돌파, 전국 대비 30% 점유 전망
  - 《위해시 해삼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의견》의 계획에 따르면, 위해시는 2015년까지 해삼양식 면적은 100만 무를 돌파하고 신선해삼 생산량은 6만 톤을 돌파할 것을 예상. 이러한 수치는 2009년에 비해 각각 3배, 1배 증가한 것임
  - 육묘, 양식, 가공, 유통 등 해삼산업의 연쇄 부가가치는 200억 위안에 달함
  - 앞으로 위해시는 현재의 양식장을 입체적으로 개발하고 가두리양식을 현대화하고, 공장화와 천해 시설 양식을 확대하고, 고품질 해삼양식을 실시하며 단위생산량을 높일 계획임
- 유기해삼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
  - 유기해삼은 수심 20m 정도 해역에서 생장함. 저족(底足)행동으로 식물을 찾기 때문에 길이는 짧고 조잡함. 유기해자삼은 4~5년을 생장해서 잡을 수 있는데 오래 될수록 영양이 풍부해 보양품으로 가치가 높음. 이 때문에 해삼가격의 진폭이 크더라도 유기해삼 가격은 높게 형성됨
- 중국 정부는 국가급 해양목장시범구 건설을 통지함(2015. 6. 3)
  - 해양목장은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양식을 증대하며 수역생태환경의 회복에 중요수단으로 여겨져 중국 정부가 재정 배정을 통해 해양목장 건설을 적극 지원하게 됨

2. 기초현황 분석

■ 전국 대비 충남의 생산측면 비중

- 전국 대비 충남의 생산량 비중이 10%이상인 품목은 조피볼락, 새우, 꽃게, 바지락, 주꾸미, 해삼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전국 대비 충남의 생산액 비중이 10%이상인 품목은 조피볼락, 멸치, 새우, 꽃게, 바지락, 주꾸미, 해삼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특화계수

- 지역특화계수가 높은 순으로 보면, 새우, 주꾸미, 꽃게, 바지락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 전복, 굴, 넙치, 김, 낙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8. 충남의 수산물 주요 품목별 기초현황

품목	전국 생산량 (톤)	충남 생산량 (톤)	전국대비 충남 생산량 (%)	전국 생산액 (백만 원)	충남 생산액 (백만 원)	전국대비 충남 생산액 (%)	지역특화계수
조피볼락	26,978	3,176	11.8	226,915	31,716	14.0	2.4
넙치	46,196	1,600	3.5	443,788	13,479	3.0	1.0
멸치	220,954	26,824	12.1	353,950	60,721	17.2	2.5
새우(대하)	667	484	72.6	15,346	11,884	77.4	17.6
꽃게	25,661	10,789	42.0	261,206	111,883	42.8	13.1
바지락	20,127	10,223	50.8	55,180	27,107	49.1	10.2
전복	9,147	76	0.8	309,579	3,153	1.0	0.1
굴	303,731	9,876	3.3	225,125	13,552	6.0	0.5
김	397,872	38,558	9.7	308,377	27,085	8.8	1.9
주꾸미	2,530	1,531	60.5	47,143	30,008	63.7	14.5
낙지	5,328	381	7.2	154,702	10,045	6.5	1.8
해삼	2,148	614	28.6	27,606	9,091	32.9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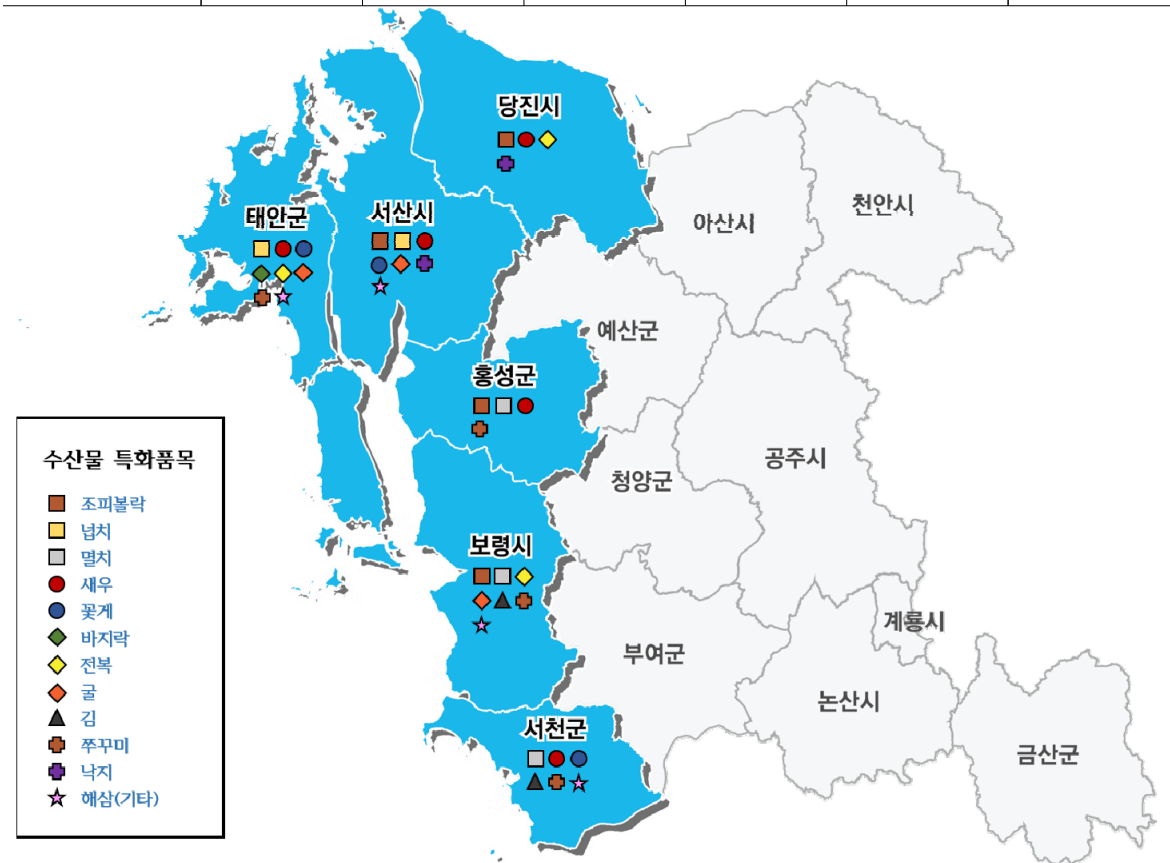
### 3. 지역특화 분석

#### ■ 품목별 특화도가 높은 지역

- 조피불락의 경우 보령, 서산, 당진, 홍성 지역이 특화도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넙치의 경우 서산, 태안 지역이 특화도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바지락은 태안, 전복은 보령과 당진, 굴은 보령과 서산, 김은 보령, 서산, 홍성 지역이 특화도가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해삼은 보령, 서산, 서천, 태안 지역이 특화도가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가구수 기준으로 살펴본 품목별 특화도 지수는 멸치의 경우 보령, 서천, 홍성 지역이, 꽃게의 경우 서산, 서천 지역이, 주꾸미의 경우는 보령, 서천, 홍성 지역이, 낙지의 경우는 서산, 당진 지역이 특화도가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서해안 지역에 있는 시군은 대부분이 품목이 연관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태안군이 가장 많은 품목수인 8개에 해당하고 그 다음으로 보령, 서산 지역이 각 7개의 품목에 해당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음

표 4-29. 충남의 수산물 주요 품목별-지역별 특화도 지수

품목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조피볼락	1.4	1.0	1.5		1.5	
넙치		1.7				1.1
멸치(가구수)	2.0			2.9	1.5	
새우(대하)		1.2	1.4	1.4	1.4	1.4
꽃게(가구수)		1.1		1.1		1.1
바지락						1.1
전복	7.2		9.0			1.2
굴	2.0	1.8				1.1
김	1.0	1.0		1.0		
주꾸미(가구수)	1.9			2.3	1.5	1.1
낙지(가구수)		1.1	1.7			
해삼(기타수산물)	1.0	1.0		1.0		1.0
지역별 품목소계 (중복제외)	7	7	4	6	4	8



주 : 멸치, 꽃게, 주꾸미, 낙지는 어가수 기준으로 본 특화도 지수, 나머지 품목은 양식업 면적 기준으로 본 특화도 지수

그림 4-5. 충남의 수산물 주요 품목별 지역특화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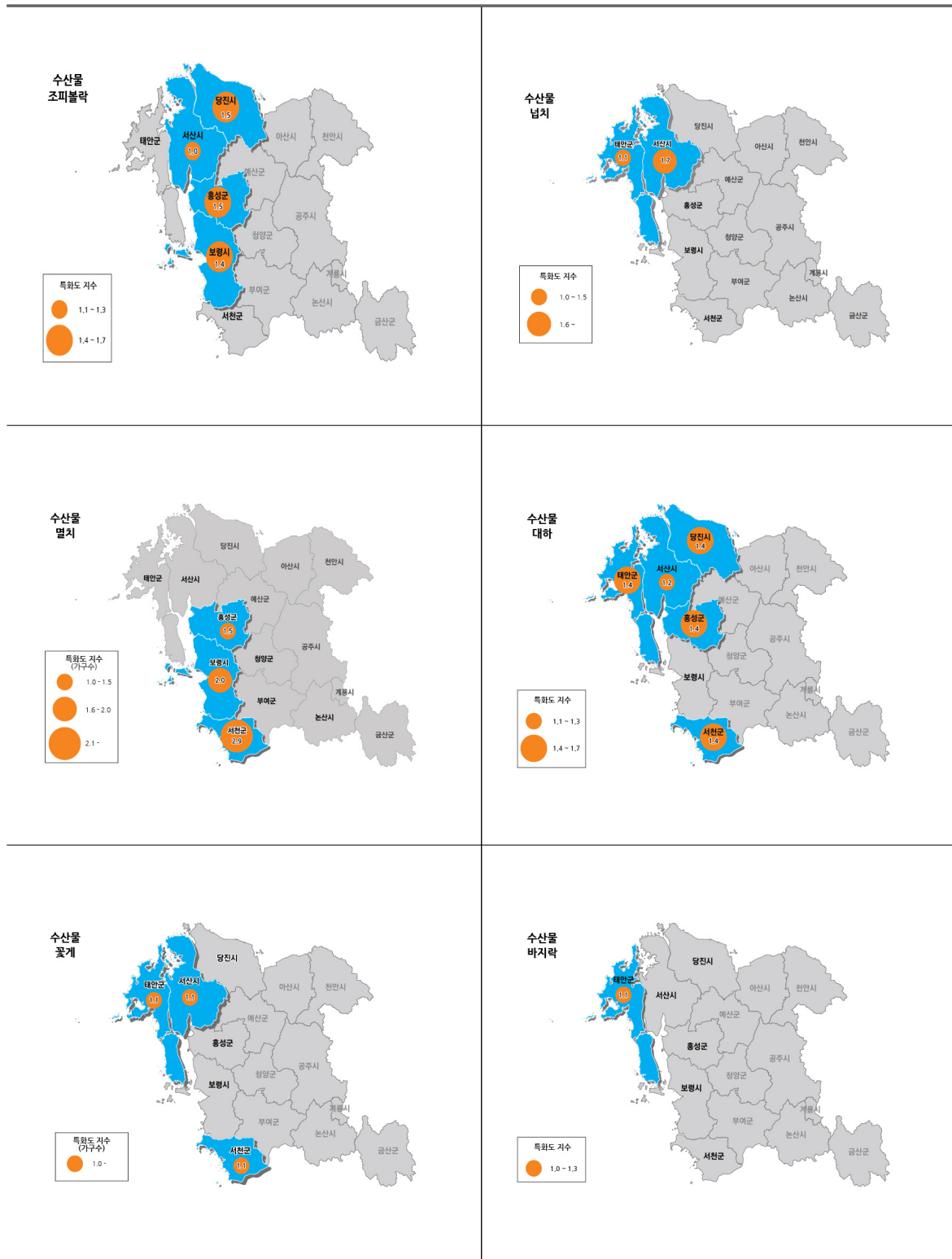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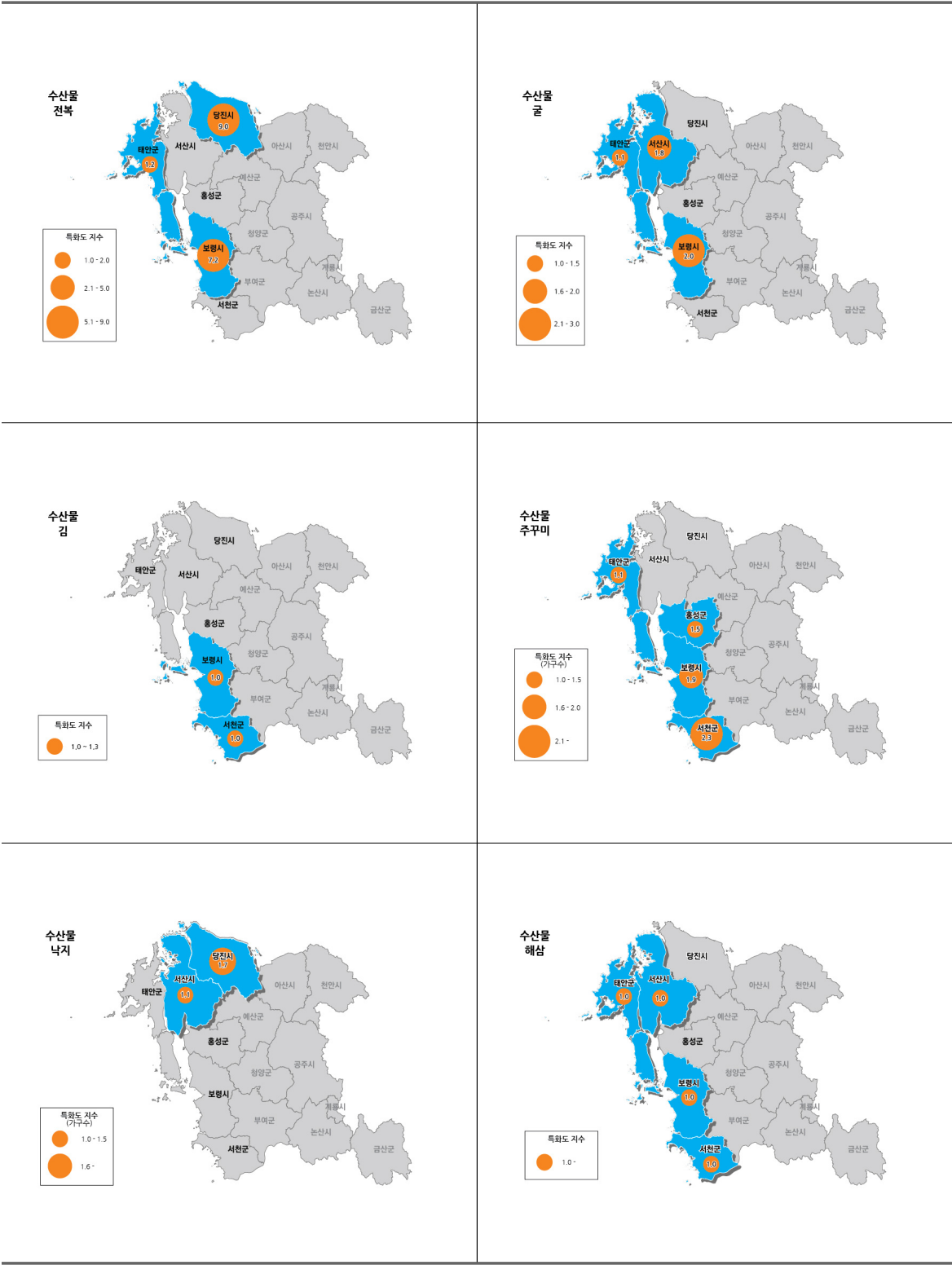


그림 4-5. 지역특화도 분석(계속)



## 4. 생산구조 분석

### ■ 경영불안정성

- 중국의 경우 12개의 수산물 품목 대부분이 0.2 이하로서 경영불안정성에서는 중간수준이나 충남의 경우는 해삼을 제외하고 전품목에서 경영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서 위험군에 속하고 있음

표 4-30. 중국과 충남의 수산물 주요 품목별 생산구조 비교

품목	면적당 생산량		생산액 비중		경영불안정성	
	중국	충남	중국	충남	중국	충남
조피볼락				10.5%	0.2	0.3
넙치				2.8%	0.2	0.7
멸치				14.5%		0.4
새우(대하)	4.8톤/ha			73.6%	0.0	0.7
꽃게	3.7톤/ha			46.8%	0.1	0.7
바지락	9.5톤/ha			41.3%	0.0	0.4
전복	8.2톤/ha			0.4%	0.2	0.6
굴	32.2톤/ha			5.4%	0.1	0.4
김	1.8톤/ha			8.3%	0.1	0.4
주꾸미				58.7%		0.3
낙지				6.5%		0.6
해삼	0.9톤/ha			27.8%	0.2	0.1

5. 교역구조 분석

■ 최근 5개년 평균 교역규모

- 대중국 교역규모를 살펴보면,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높은 품목으로서 조피볼락, 넙치, 멸치, 새우, 꽃게, 바지락, 주꾸미, 낙지 등으로 나타남. 하지만 5개년 연평균증감율은 조피볼락, 새우의 경우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반면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비슷하거나 높은 품목은 전복, 굴, 김, 해삼 등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5개년 연평균증감율을 보면 굴과 김은 점차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4-31. 충남의 수산물 주요 품목별 교역구조

품목	세부품목	최근 5개년 평균 교역규모		최근 5개년 평균 교역 증감율		관세율 (%)	양허 유형
		수출액 (천 불)	수입액 (천 불)	수출액 증감(%)	수입액 증감(%)		
조피볼락	볼락	14	680	-100.0	-73.4	10.0	5
넙치	활어	17	616	23.9	835.6	10.0~20.0	E
멸치	건조	80	1,222	64.2	3.7	20.0	E
새우	기타 건조새우	-	12,871	-	-18.5	20.0	20
꽃게	기타조리	157	21,439	-82.7	-0.1	20.0	pr-1
바지락	신선	-	20,888	-	6.1	20.0	TRQ 15,800톤/년
전복	냉동	13	70	-	-	20.0	20
굴	냉동	972	114	-11.9	-19.4	20.0	pr-10
김	조제	504	2	-24.7	1,350.0	10.0~20.0	5
주꾸미	신선	-	6,335	-	37.4	20.0	20
낙지	기타	16	111,633	-99.6	14.4	20.0	TRQ/ 19,400톤/년
해삼	삶거나 찐 것	1,638	16	52.8	40.0	20.0	15



## 6. 경쟁력 분석

### ■ 수출입경쟁력

- 대부분이 품목이 수출입경쟁력이 1.0이하로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김과 해삼은 수출경쟁력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대중국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도 좋을 것으로 보임

### ■ 가격경쟁력

- 하지만 해삼의 경우만 제외하면 가격경쟁력도 모두 1.0이하로서 대중국 수출시장을 공략할 시 다른 부문의 경쟁력을 발굴하고 홍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중국 수출시장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임

표 4-32. 충남의 수산물 주요 품목별 경쟁력 지수

품목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주요 교역상품 (수입)	주요 교역상품 (수출)
조피볼락	1.0 이하	1.0 이상	-	볼락, 적어	볼락, 적어
넙치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활어 넙치	신선, 냉장 넙치
멸치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건조 멸치	건조 멸치
새우(대하)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가공 새우	가공 새우
꽃게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기타조리 꽃게	기타조리 꽃게
바지락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신선, 염장 바지락	
전복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냉동 전복	냉동 전복
굴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냉동, 염장, 염수장 굴	
김	1.0 이상	1.0 이하	1.0 이하	조제김	조제김
주꾸미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신선, 냉동 주꾸미	
낙지	1.0 이하	1.0 이상	1.0 이하	신선, 기타 낙지	
해삼	1.0 이상	1.0 이하	1.0 이상	삶은, 찐 해삼	삶은, 찐 해삼

## 7. 설문조사 분석

### (1) 한중 총괄평가

#### ■ 한국산 수산물에 대비한 중국산 수산물의 경쟁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미래에는 중국산 수산물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는 농림어업 전체적으로 가격경쟁력, 유통경쟁력, 품질경쟁력, 수출경쟁력 평균은 5점 만점 중 3.4점, 수산물도 3.4로 동일하게 보통 수준인 것으로 평가
- 경쟁력 항목 중에서는 수산물의 품질경쟁력을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미래는 중국산, 한국산 경쟁력 모두 이전수치보다 하락한 전체 평균 2.8, 수산물도 2.8로 예상, 미래에도 역시 품질경쟁력이 다른 경쟁력 항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 ■ 한중FTA로 인하여 어가에 미치는 생산량 변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향 수준

- 전체 평균과 수산물 모두 5점 만점 중에서 3.5~3.7점으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 수준에서 약 20% 이상의 생산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전체 및 식량작물 동일)
- 가장 타격이 큰 구간으로는 수산물의 경우 어촌계 어장면적 기준 15ha~20ha로 예상, 판매 금액은 어가당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구간으로 예상하고 있음
- 직접적으로 경영에 직접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발효 이후 당해연도부터일 것으로 예상함

#### ■ 한중FTA 발효이후 주관적심리적으로 느끼는 경영위험도 정도

- 전반적으로 3.7점으로 나타나서 어느 정도 경영위험에 대한 부담을 예상하고 있음
- 그 중에서 수산물의 경우는 시장 및 가격에 대한 위험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그 다음 순위로는 자연기술적 위험, 생산에 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음.
- 어가들은 현재 소득대비 약 20%의 소득감소를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최대 한계점으로 보고 있고 그 이상 수준이 되면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음(전체 및 수산물 동일)
- 하지만 이런 경영위험에 대비한 어가들의 자구책(전략)은 없는 편, 경영포기 의향도 없는 편이나 경영승계 의향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임을 알 수 있었음(전체 및 수산물 동일)

표 4-33. 한중간 수산물 경쟁력 및 경영위험인식 평가

대분류	중분류	(단위)	전체 평균	수산물
중국산 수산물 경쟁력(현재)	가격경쟁력	점	2.8/5점	2.7/5점
	유통경쟁력	점	3.2/5점	3.4/5점
	품질경쟁력	점	4.3/5점	4.2/5점
	수출경쟁력	점	3.2/5점	3.3/5점
	평균		3.4	3.4
중국산 수산물 경쟁력(미래)	가격경쟁력	점	2.0/5점	2.3/5점
	유통경쟁력	점	2.5/5점	2.6/5점
	품질경쟁력	점	3.8/5점	3.7/5점
	수출경쟁력	점	2.8/5점	2.7/5점
	평균		2.8	2.8
어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점	3.7/5점	3.5/5점
생산량 변화 예상수준		%	(-)20%	(-)20%
가장 타격이 큰 구간	어장면적	ha	(농) 1.0ha~2.0ha (어) 15ha~20ha	15ha~20ha
	어가소득	천만 원	1천만 원~3천만 원	1천만 원~3천만 원
직접피해 발생 예상시기		년뒤	1년~3년 뒤	발효 후 당해년도부터
경영위험도 예상수준	자연,기술적 생산위험	점	3.7/5점	3.8/5점
	시장 및 가격위험	점	4.1/5점	3.9/5점
	제도적 위험	점	3.4/5점	3.5/5점
	경제적 위험	점	3.8/5점	3.7/5점
	인적 및 책임 위험	점	3.7/5점	3.7/5점
	평균		3.7	3.7
경영유지 최대 한계점		%	(-)20%	(-)20%
자구책 전략		-	없음	없음
경영포기 의향		-	없음	없음
경영승계 의향		-	없음	없음

## (2) 기존 FTA 대책 평가

### ■ 정부가 금번 발효한 “한중FTA 국내보완대책”의 정책별 필요성에 대한 평가

-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FTA는 한중FTA인 것으로 모두 응답하였음.
-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 어선어업 분야지원, 양식어업 분야 지원, 가공유통 인프라, 수출지원, 검역관리 강화 모두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전체적으로는 수출촉진 정책 및 검역관리 강화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 기존 각종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

- 어가에게 가장 공정한 정책은 수산자원관리 정책, 가장 성공한 정책은 직불 등 소득정책으로 보고 있는 반면 가장 실패한 정책 수산물 유통 정책으로 봄.
- 가장 만족하고 FTA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6차산업화 정책으로 보고 있으나 향후에 강조할 정책은 수산물 유통정책으로 보고 있음

표 4-34. 기존 어업 분야의 FTA대책에 대한 주관 평가

대분류	중분류	(단위)	전체 평균(어업)	수산물
가장 위협적인 FTA		-	한중FTA	한중FTA
정책별 필요성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	점	4.6/5점	4.6/5점
	어선어업 분야지원	점	4.4/5점	4.4/5점
	양식어업 분야 지원		4.5/5점	4.5/5점
	가공유통 인프라		4.6/5점	4.6/5점
	수출지원		4.8/5점	4.8/5점
	검역관리 강화	점	4.7/5점	4.7/5점
정책에 대한 주관 평가	가장 공정한 정책	-	수산자원관리정책	수산자원관리정책
	가장 성공한 정책	-	수산자원관리정책	직불 등 소득정책
	가장 실패한 정책	-	수산물 유통정책	수산물 유통정책
	가장 만족한 정책	-	6차산업화 정책	6차산업화 정책
	FTA 도움되는 정책	-	6차산업화 정책	6차산업화 정책
	향후 강조할 정책	-	수산물 유통 정책	수산물 유통 정책

### (3) 향후 충남의 한중FTA 대책수립 방향

#### ■ 한중FTA 대책수립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실효성), 필요성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한중FTA 대책수립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3농혁신 정책과 시군 농정간 연계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남의 FTA대응을 위한 어업분야의 전략적인 방향은 방어적(농업보호) 전략보다는 공격적(수출지향) 전략을 선호하고 있음
- 어업인이 말하는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은 정책”이라 함은 누구나 공평한 보조금 정책 시행을 의미하고 있었음.
- 참고로 3농혁신 지향하는 가치는 현재로서 경제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미래에는 비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뒀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 ■ 한중FTA 대책에서 주체별 강조할 정책의 영역

-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모두 가릴 것 없이 농산물 유통 영역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생산자인 어업인은 생산 영역에 충실히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으나 어업인 스스로의 문제점은 높은 정부정책 의존도로 보고 있음

## ■ 충남도가 개방화에 대비해서 영역별 우선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 생산 영역에선 시설현대화 지원확대, 유통 영역에선 수산물 지역브랜드, 가공 영역에서는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선택함.
- 인력 영역에서는 지역가공업체 연계 강화를, 소득 영역에서는 직불금 확대를, 수출영역에서는 수출물류 확대를, 소비영역에서는 도농교류 확대를 선택함

## ■ 충남도가 개방화에 대비해서 영역별 우선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 생산 영역에선 시설현대화 지원확대, 유통 영역에선 수산물 지역브랜드, 가공 영역에서는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선택함.
- 인력 영역에서는 지역가공업체 연계 강화를, 소득 영역에서는 직불금 확대를, 수출영역에서는 수출물류 확대를, 소비영역에서는 도농교류 확대를 선택함

표 4-35. 한중FTA 어업 대책수립 시 방향에 대한 의견

대분류	중분류	전체 평균	수산물
정책효과성(실효성)	국가차원의 FTA대책	4.2/5점	4.2/5점
	충남차원의 FTA대책	4.3/5점	4.4/5점
연계 필요성	3농혁신-한중FTA대책	4.3/5점	4.1/5점
	3농혁신-시군농정	4.4/5점	4.3/5점
충남의 전략방향		중립적 전략(방어+공격)	공격적(수출지향) 전략
실질적인 정책		현물지원 확대	누구나 공평한 보조금 정책
3농혁신 지향가치	현재	경제적 가치(소득향상)	경제적 가치(소득향상)
	미래	비경제적 가치(삶의질 향상)	비경제적 가치(삶의질 향상)
어업인의 문제점		높은 정부정책 의존도	높은 정부정책 의존도
주체별 강조영역	중앙정부(해수부)	유통 영역	유통 영역
	광역지자체(충청남도)	유통 영역	유통 영역
	기초지자체(시군)	유통 영역	유통 영역
	생산자(어업인)	생산 영역	생산 영역
우선 해결과제	생산 영역	시설현대화 지원확대	시설현대화 지원확대
	유통 영역	우수브랜드 육성	수산물 지역브랜드
	가공 영역	농식품가공 산업육성	농식품가공 산업육성
	인력 영역	후계농업인 육성	지역가공업체 연계강화
	소득 영역	직불금 확대	직불금 확대
	수출 영역	중점수출육성 품목확대	수출물류 확대
	소비 영역	도농교류 확대	도농교류 확대

그림 4-6. 중국과 충남의 바지락과 김 품목의 종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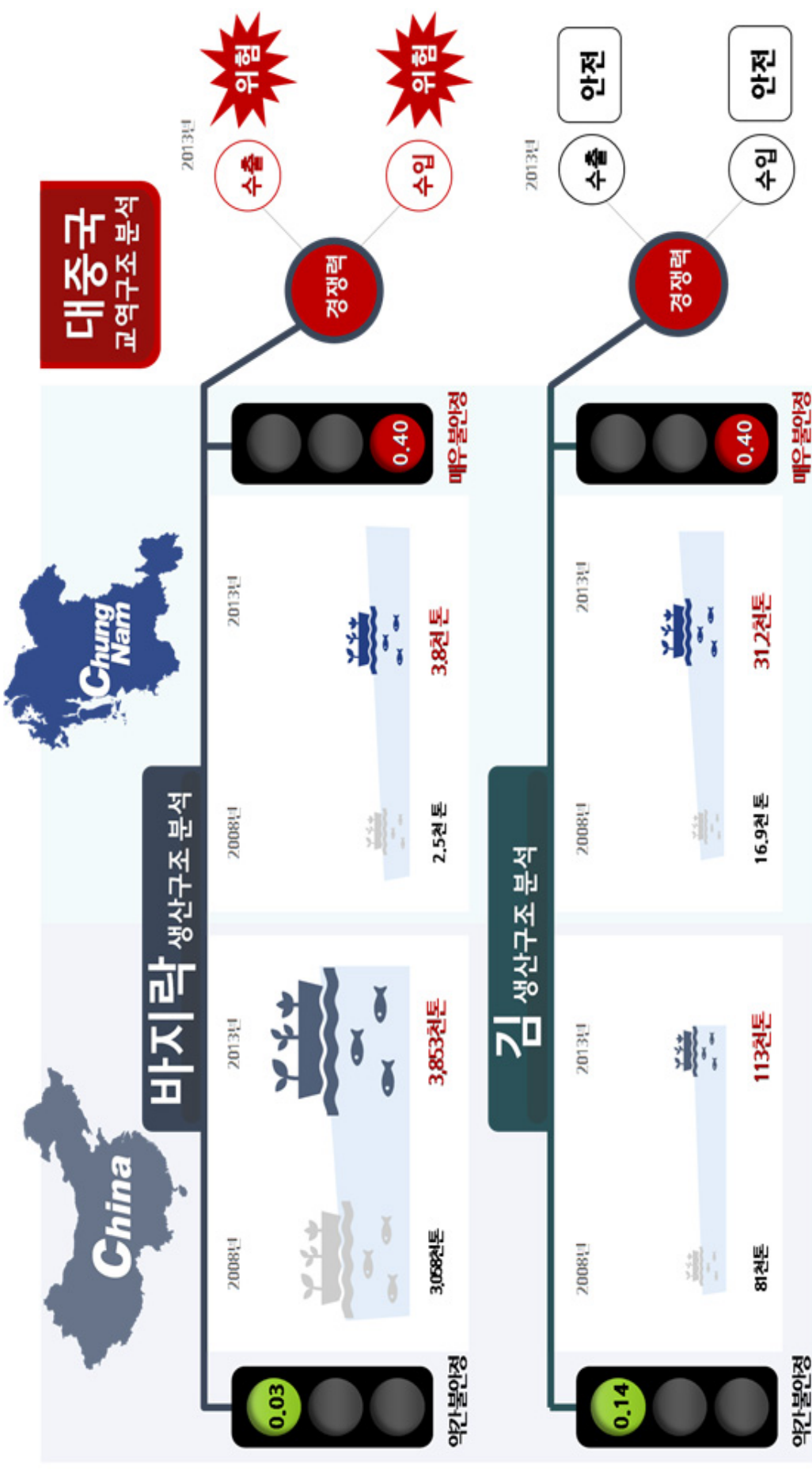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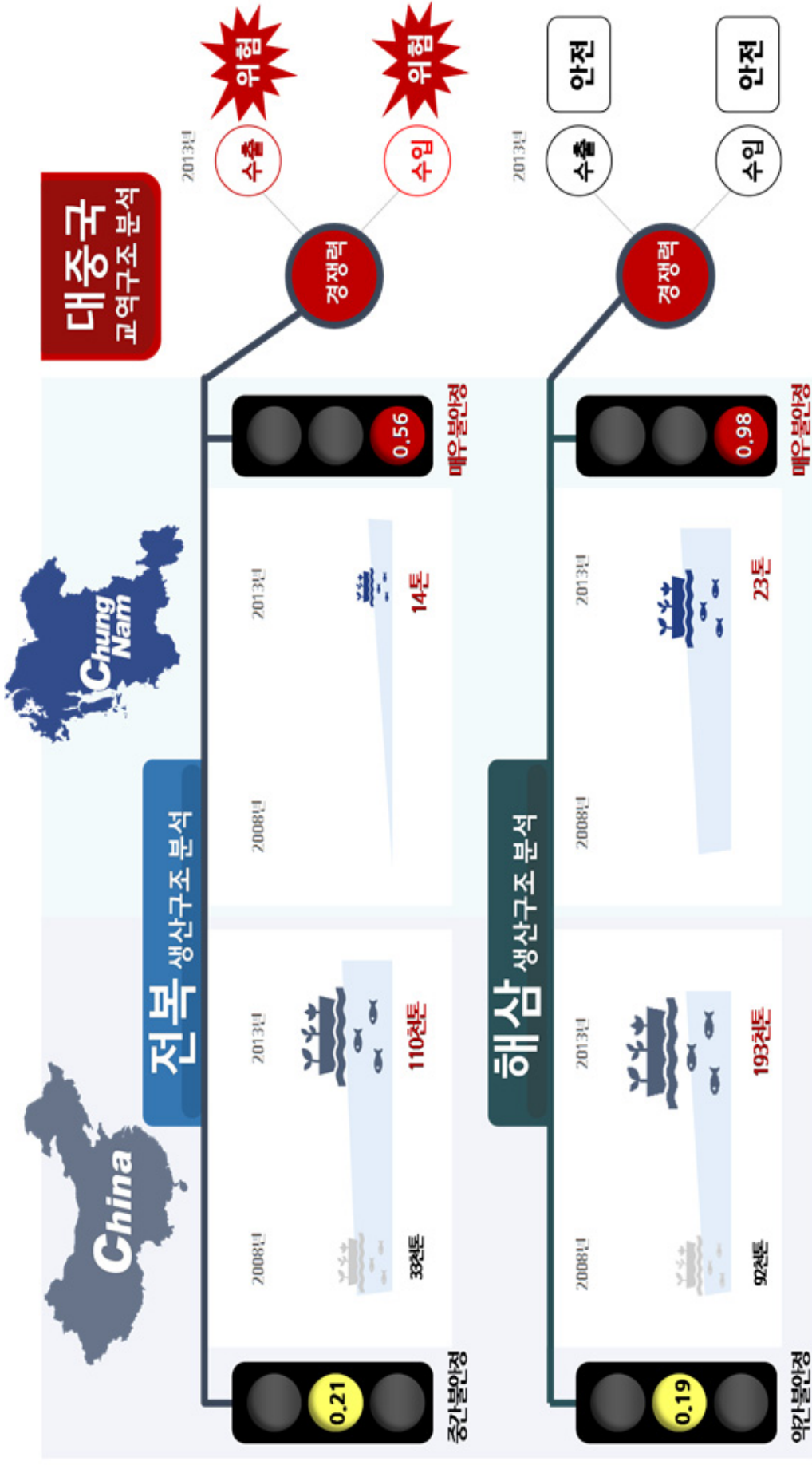


그림 4-7. 중국과 중남의 전복과 해삼 품목의 종합 비교







## 제3장 요약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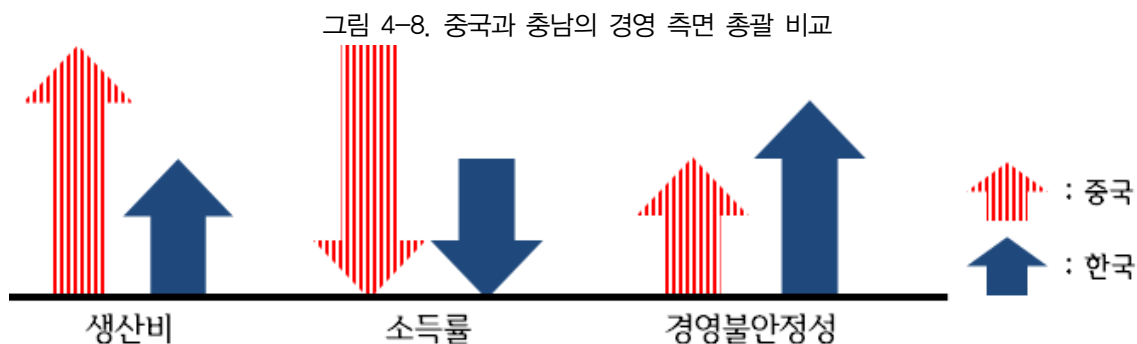
## 1. 요약 및 시사점

### 1) 생산비 증가 및 소득을 하락 추세 동일

- 중국과 한국(충남) 모두 생산비의 연평균증감율 높은 편
- 자가노동비 및 각종자재비가 전체 생산비에서 약 80%이상 차지
- 생산비에서 중국보다 한국(충남)이 높으나 최종소득에서는 한국이 높은편

### 2) 품목별 경영불안정성 심화 동일

- 중국과 한국의 경영불안정성 정도는 불안정한 수준으로 동일한 구조
  - 저위험군(0.1~0.2) : 대두(콩), 들깨
  - 중위험군(0.2~0.4) : 토마토, 고추, 마늘, 배추, 사과, 배, 인삼, 땅콩, 고구마
  - 고위험군(0.4 이상) : 생강, 포도



### 3)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생산성 향상

- 중국의 경우 시설현대화 및 기술투자의 확대에 의해 면적당 생산량 증가
- 생산성의 향상은 농산물 공급불안정과 가격등락폭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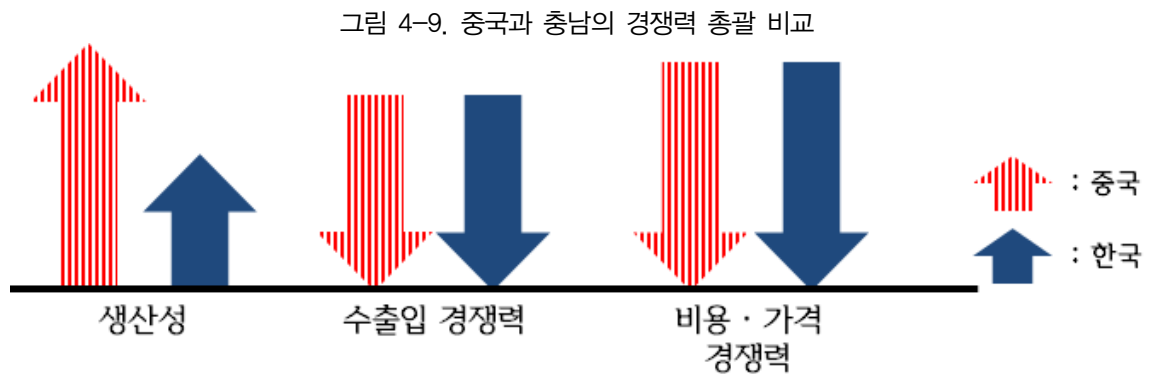
### 4) 수출입경쟁력 및 비용.가격경쟁력 열위

-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은 대부분 열위, 수입경쟁력도 열위
- 가격경쟁력도 중국산에 비해서 한국(충남)산 농수산물 열위

- 비용경쟁력도 중국산에 비해서 한국(충남)산 농수산물 열위
- 수산물의 일부 품목(해삼, 전복, 조미김) 수출경쟁력 우위

#### 5) 수입유형은 가공식품 중심의 교역구조

- 대부분의 농수산물은 원물보다 1,2차 가공형태의 수입상품이 주 교역상품
- 이로 인한 것은 한국산 농림수산물 생산측면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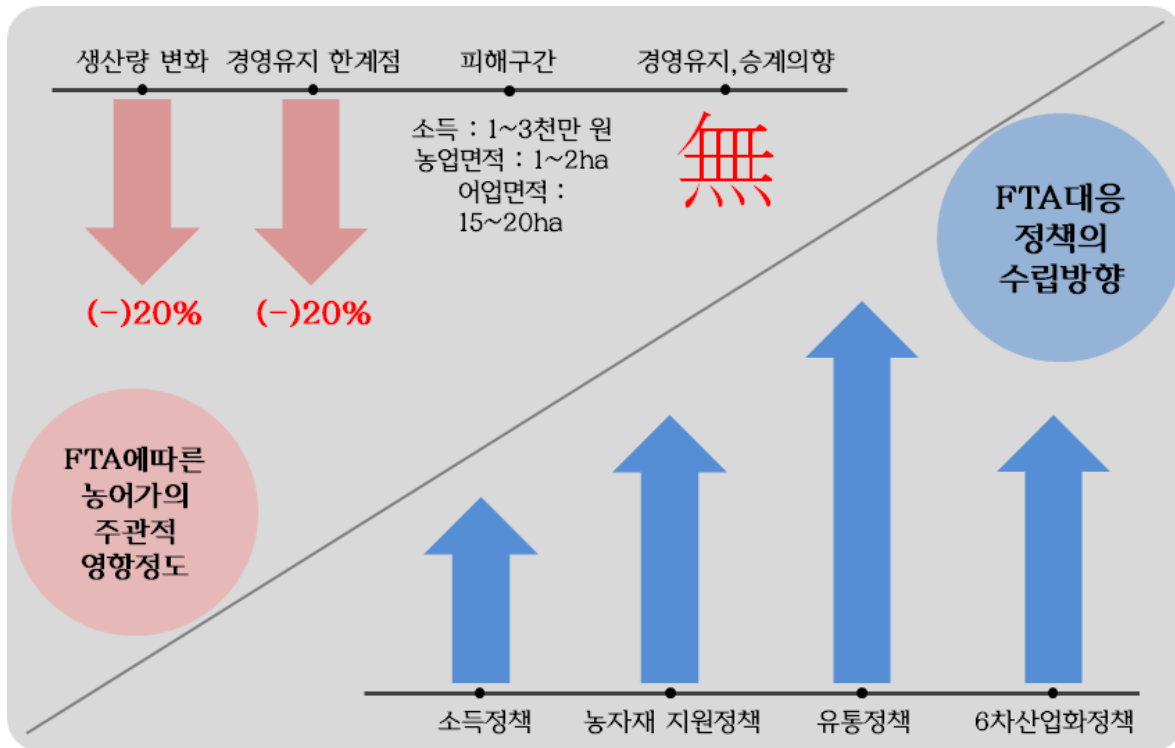
#### 6) 농어가의 심적 한계점은 (-)20%, 향후 농어업 경영승계 의지 전무

- 향후 한중FTA로 인한 생산량 변화는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로 인한 경영유지 심적 한계점은 20%로 설정하고 있음
- 경영유지 및 승계의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농어업의 후계인력 양성 급선무
-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으로 소득수준의 경우 연간 1~3천만 원, 농업면적의 경우 1~2ha, 어업면적의 경우 15~20ha로 보고 있음

#### 7) FTA 대응정책 수립방향은 농수산물 유통정책 중심 강조

- 정책 수립방향의 1순위는 농수산물 유통정책, 2순위는 6차산업화 정책, 3순위는 농자재 지원정책, 4순위는 직불금 등 소득정책 순으로 보고 있음

그림 4-10. 충남의 농어가 인식조사 결과





## 제5부

# 충남의 기본구상과 대응방안





## 제1장 기본구상



# 제1절 핵심이슈 및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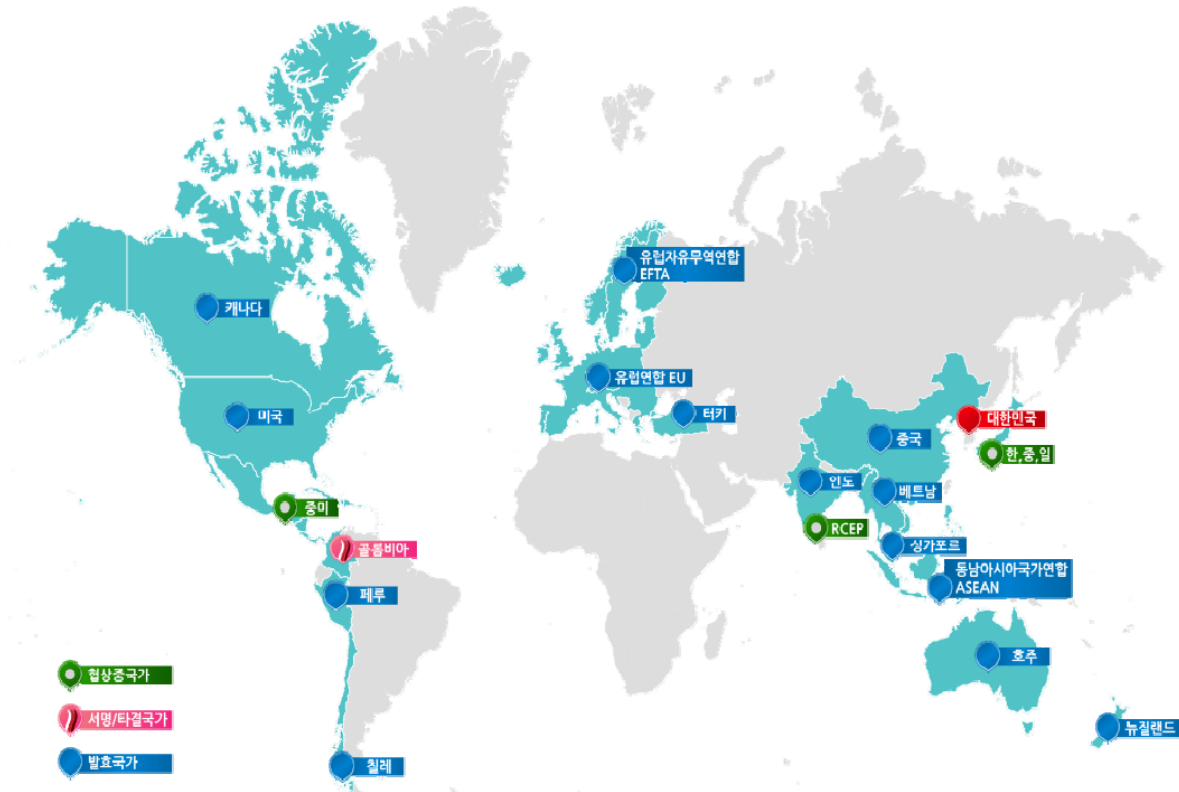
## 1. 문제인식

### 1) 계속되는 무한경쟁과 수입개방 농정시대

#### ■ FTA 진행 현황

- 발효 14건, 타결 1건, 협상중 4건, 협상재개 및 여건조성 4건, 협상준비 및 공동연구 3건
- 양국간 협상인 FTA를 뛰어넘어서 다자간 협상, 권역별 협상 등의 다양한 방식 진행 예상
- 앞으로도 수입개방 물결은 가속화될 것이며 모든 영역이 경쟁체제로 돌입되는 구조로 전환
- 농림어업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상대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될 것은 자명한 사실, 농림어업 소득자체의 확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

그림 5-1.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서명·타결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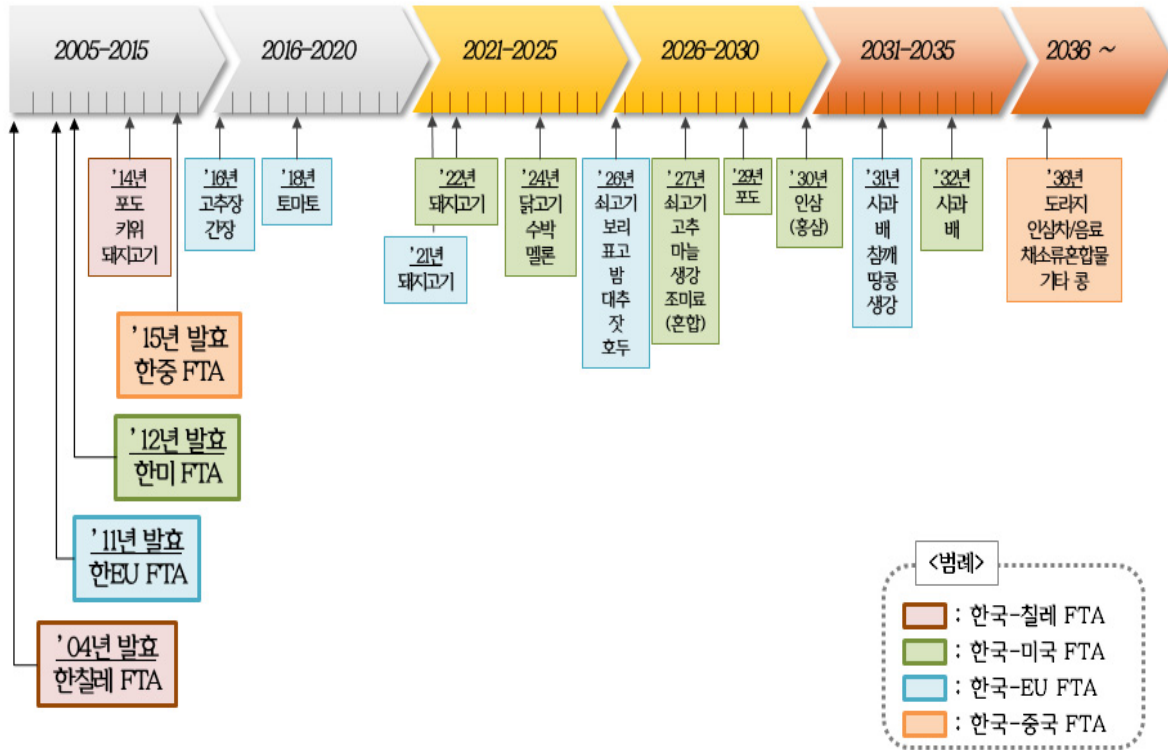
주 :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 FTA포털([www.fta.go.kr](http://www.fta.go.kr))

표 5-1. 기존 FTA 주요 품목별 관세철폐 시간표

구분	발효	품목부류	품목군	협정관세(협상내용)	발표시작	관세철폐
한칠레 FTA	04.04.01.	원예작물	포도	계절관세, 10년 균등철폐	2005	2014
		원예작물	키위	10년 균등철폐	2005	2014
		축산물	돼지고기	10년 균등철폐	2005	2014
한EU FTA	11.07.01.	축산물	쇠고기(신선,냉장,냉동)	15년 균등철폐+ASG	2012	2026
		축산물	돼지고기(냉장)	10년 균등철폐+ASG	2012	2021
		원예작물	사과(후지)	20년 균등철폐+ASG	2012	2031
		원예작물	배(동양)	20년 균등철폐	2012	2031
		원예작물	포도	계절관세	2012	-
		원예작물	토마토	7년 균등철폐	2012	2018
		원예작물	고추(냉동), 마늘(냉동)	15년 균등철폐	2012	2026
		원예작물	양파	12년 균등철폐	2012	2023
		식량작물	보리(맥아,맥주맥)	15년 균등철폐+TRQ	2012	2026
		식량작물	콩(식용)	양허제외	2012	-
		특작	참깨, 땅콩, 생강	18년 균등철폐	2012	2031
		특작	인삼(가공품 등)	10-15년, ASG	2012	2021-2026
		임산물	표고버섯, 밤, 대추, 잣, 호두	15년 균등철폐	2012	2026
		가공품	고추장, 간장	5년 균등철폐	2012	2016
한미 FTA	12.03.15.	축산물	쇠고기(신선,냉장,냉동)	15년 균등철폐+ASG	2013	2027
		축산물	돼지고기(냉장)	10년 균등철폐+ASG	2013	2022
		축산물	닭고기	12년 균등철폐	2013	2024
		식량작물	콩(식용)	현행관세유지+TRQ	2013	-
		원예작물	사과(후지)	20년 균등철폐+ASG	2013	2032
		원예작물	배(동양)	20년 균등철폐	2013	2032
		원예작물	포도	계절관세, 17년 균등철폐	2013	2029
		원예작물	수박, 멜론, 양파	12년 균등철폐	2013	2024
		원예작물	고추, 마늘, 생강 등 냉동	15년 균등철폐, ASG	2013	2027
		특작	인삼(가공품 등)	10-15년, ASG	2012	2021-2026
		가공품	인삼(뿌리삼류 등)	18년 균등철폐+TRQ+ASG	2013	2030
		가공품	혼합조미료	15년 균등철폐	2013	2027

자료 : 1. 한칠레 FTA 협정문(2004), 한EU FTA 협정문(2011), 한미FTA 협정문(2012)  
2. 문한필 외(2014),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 제8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각 FTA별 주요내용, 상세설명자료 등 참고(FTA포털)  
4. 농림축산식품부(2015.06.05.), 개방시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책 : 한중 및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그림 5-2. 기존 FTA 주요 품목별 관세철폐 시간표



자료 : 1. 한칠레 FTA 협정문(2004), 한EU FTA 협정문(2011), 한미FTA 협정문(2012)  
 2. 문한필 외(2014),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 제8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FTA포털(각국 FTA 협정문)  
 4. 농림축산식품부(2015.06.05.), 개방시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책 : 한중 및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 2) 한중FTA에 따른 농어가의 심리적 경영위험 및 경영불안정성 심화

### ■ 한중FTA에 따른 농어가의 심리적 경영위험도 증가

- 앞서 살펴보았던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7~3.8점으로 나타나서 경영위험에 대한 부담을 높게 예상하고 있는데 영역별로는 “시장 및 가격에 대한 위험”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음
- 현재보다 약 20% 이상의 생산량 변화를 예상하고 있었고 현재 소득대비 약 20%의 소득감소를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최대 한계점으로 보고 있고 그 이상 수준이 되면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음
- 하지만 이런 경영위험에 대비한 농가들의 자구책(전략)은 없는 편이고 경영포기 의향도 없는 편이나 경영승계 의향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써 농어업 경영에 대한 열정, 의지가 매우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런 심적인 위험요인이 농어업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함

### ■ 계속되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불안정성 심화

- 농업에서는 식량작물을 제외하고는 원예작물 중에서도 과채류와 과실류 농가들이 경영불안정성(변이계수)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어업에서는 패류 중에서도 바지락, 굴 품목에 종사하는 어가, 어류 중에서는 넙치, 새우, 꽃게 등에 종사하는 어가들이 경영불안정성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서해안의 불법조업 및 자원관리 어종에 대한 관심도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

### 3) 중첩적이고 반복되는 국내보완대책

#### ■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중첩적 구조의 국내보완대책

- 2008년부터 2013년간 11.9조 원이 FTA 대책으로 집행
- 주로 피해보전 직접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골자로 하고 있음
- 지원규모의 70~80%는 산업경쟁력 강화, 성장동력 기반 확충에 투자, 20% 미만은 직접소득 지원에 투자

표 5-2. 기존 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대책명	지원규모	주요 내용
한칠레 FTA 국내보완대책	2004년~2010년 1.2조 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설치 - 7년 간 1.2조 원 기금 조성	FTA 이행지원특별법 제정 과수분야의 경쟁력제고 지원 경영안정지원 - 경쟁력지원 76.8%, 23.1%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1차 보완대책(`07.6) (2008년~2017년 21.1조원)	직접적 피해지원 산업별 경쟁력 강화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2차 보완대책(`11.8) (2008년~2017년 21.1조원)	직접피해보전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각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3차 보완대책(`12.1) (2008년~2017년 24.1조원)	피해산업의 지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2011년~2020년 2조 원 추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축산업 직접피해보전 - 유통개선 39%, 생산성향상 31.5%, 경영지원 16%, 수급안전 12.5%, 위생안전 1.5%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015년~2024년 2.2조 원 추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비용 절감 및 품질고급화 중점)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재배업 분야의 피해품목 생산 및 유통효율화 각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농축산분야 지원을 위한 한.뉴간 협력 추진
한중FTA 및 한베FTA 국내보완대책	(농림업) 2016년~2025년 2,259억 원 추가 - 한중 1,595억 원 - 한베 664억 원	글로벌 경쟁력 제고(발농업, 임업, 양봉업 성장기반 및 수출 확대) 농업농촌 안전망 강화 및 정책인프라 강화
	(어업) 2016년~2025년 3,188억 원 추가 (한뉴까지 감안한 지원규모)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 분야 지원 가공유통 인프라 지원 수출지원 및 검역관리 강화

자료 : FTA포털([www.fta.go.kr](http://www.f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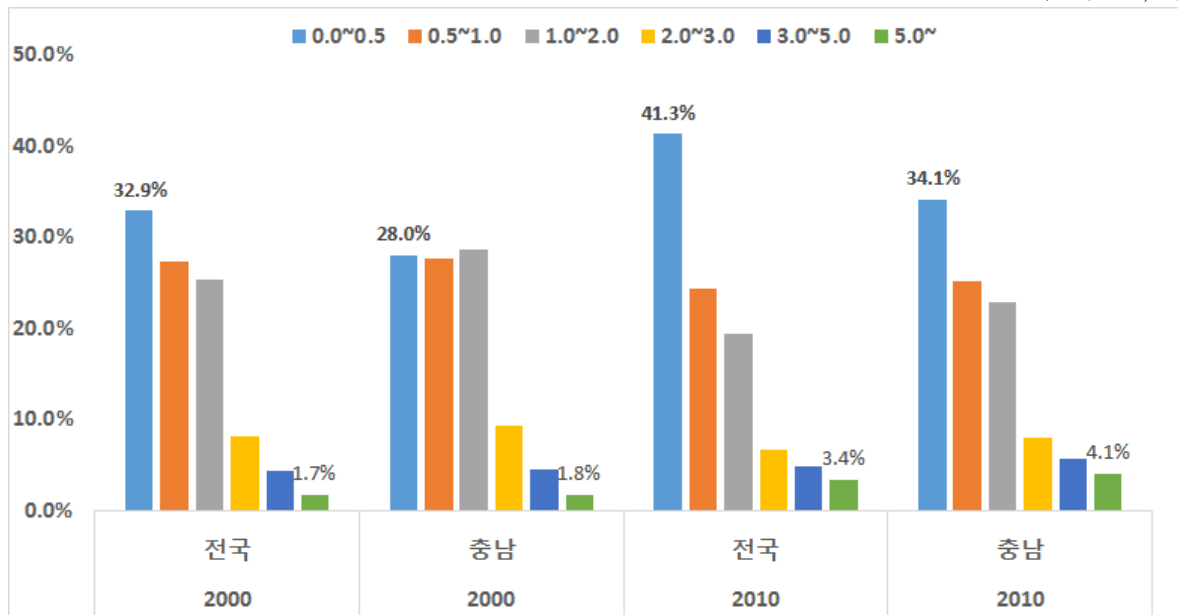
## 4) 악화되는 농업·농촌 경제상황

## ■ 0.5ha 미만 경지면적 농가비중 증가와 더불어 5ha 이상 농가비중 증가

- “0.5ha 미만”농가는 전국의 경우 2000년 32.9%에서 2010년 41.3%, 충남은 28.0%에서 34.1%로 증가
- “5.0ha 이상”농가는 전국의 경우 2000년 1.7%에서 2010년 3.4%로 증가, 충남은 1.8%에서 4.1%로 증가

그림 5-3. 전국·충남 경지면적 분포의 변화 (2000&amp;2010)

(단위 :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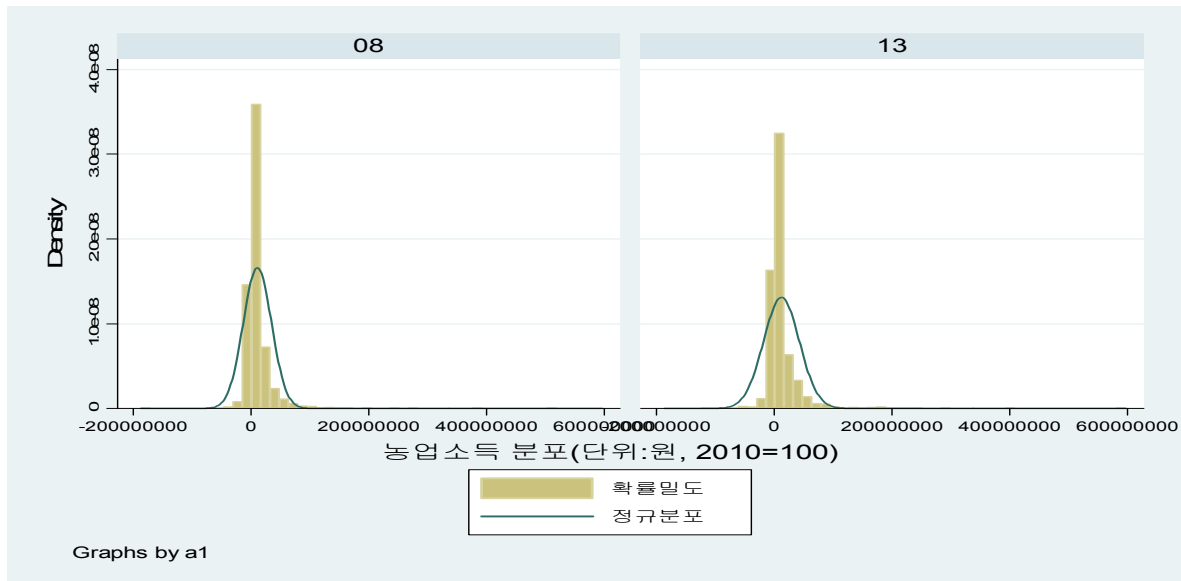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연도), 농림어업총조사

## ■ 농업소득의 하방집중화 구조 뚜렷

- 대부분의 농가들은 농업소득 (-)5백만 원사이에서 1천만 원 사이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
- 농업소득“1천만 원” 미만 구간의 농가가 2008년 대비 2013년 더 높은 밀도로 분포



그림 5-4. 농업소득 분포 (2008&2013, 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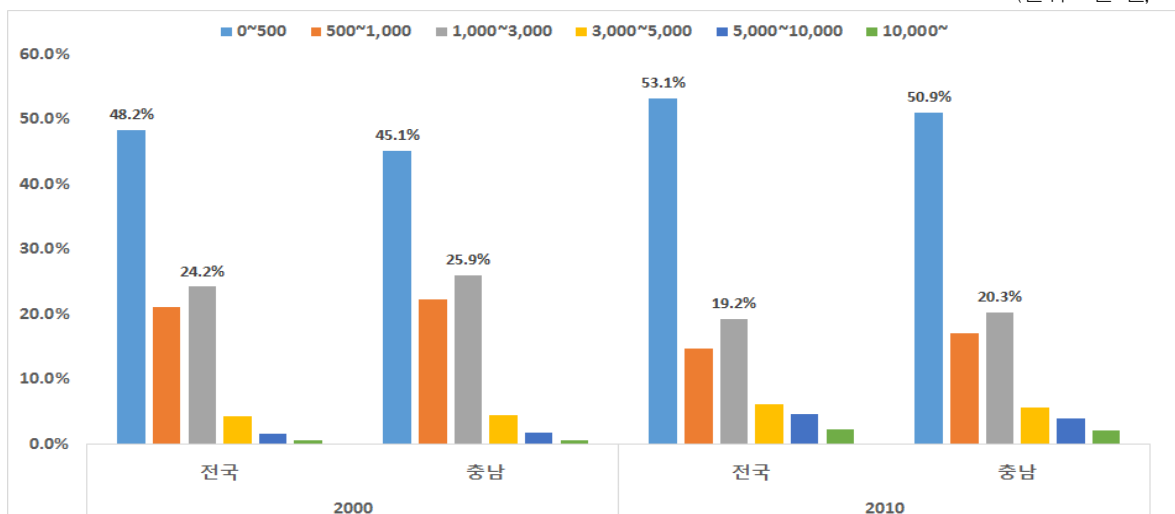
주 :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 2010=100)  
자료 : 통계청(농가경제조사, 각연도)

#### ■ 500만 원 이하 판매금액 농가비중 증가, 5천만 원 이상 농가비중 증가

- “500만 원 이하”농가는 전국의 경우 2000년 48.2%에서 2010년 53.1%, 충남은 45.1%에서 50.9%로 증가
- “1천만 원~3천만 원”구간의 농가는 전국의 경우 2000년 24.2%에서 2010년 19.2%로 감소, 충남은 25.9%에서 20.3%로 감소
-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구간의 농가는 2000년보다 2010년에 2배 이상 분포(2%→ 6%)

그림 5-5. 전국-충남 농축산물 판매금액 분포의 변화 (2000&2010)

(단위 : 만 원, %)



자료 : 통계청(각연도), 농림어업총조사

## 5) 선진국 농정변화 주목

■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업정책에서 지역정책으로서 농업·농촌 통합정책으로 전환

-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이를 지원하는 산업지향 정책시스템은 결국 한계 봉착했음을 인정
- 전반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기존에는 경제성, 현재 혹은 미래는 “다양성, 지역성” 강조
- 농업과 농촌의 존재가치는 공익적·다원적 기능 향상을 위한 미래 투자개념으로 전환 필요

표 5-3. 선진국 농정동향 (공통점)

구분	과거	현재와 미래
정책목표	규모화·효율성 농가소득 향상 농가경쟁력 제고	농촌지역의 경쟁력 지역자산의 가치 실현 미활용 자원의 활용과 영역의 다양화
정책성격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업정책 생산중심주의 농업(산업형 농업)	지역정책으로서의 농업·농촌정책 탈생산주의적 농업(다기능적 농업) 통합적인 농촌정책, 다기능 농업과 농촌
경제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강조 (자본과 토지의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극대화, 비용 최소화)	범위의 경제, 농업의 다기능성 극대화 (농가의 협동화를 통한 농촌경제 다각화)
환경	농업 자연자원의 무시 자연자원 고투입으로 인한 고갈	자연자원의 재생 활용
사회	식량의 양적공급 위주	소비자와의 공정한 신뢰관계 지역사회 주체간의 협력관계
핵심부문	농업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의 분리	농촌경제의 다양한 영역 (6차산업화, 농촌관광, ICT, 사회서비스 등) 농업을 농촌의 다양한 부문 중 하나로서 인식
정책대상	중대농, 기업농(값싼 원료 공급자로서의 농민)	중소농, 가족농, 고령농, 귀농인, 귀촌인 등 (다원적 기능과 공공재를 공동생산하는 농민)
정책수단	농업보조금	농업·농촌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
정책주체 정책방식	중앙정부, 농업인 설계주의적 농정과 하향식 지역개발	모든 정부(초국가, 중앙, 광역, 기초지자체) 농촌 다양한 이해당사자(공공, 민간, NGO 등) 지방분권적 농정과 내발적 지역발전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 상향식(중앙-민간)
정책기조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장가격지지, 농가소득 감소분 직접지불, 농업보조금의 철폐 등) 생산주의적 농업의 지원(기술, 투입재, 하드웨어 우선지원) 품목별 시장정책 중심 농업소득에 대한 보상: 보조로서의 직불금 개별농가 현금보상(대농에 유리)	농업의 다기능성 극대화 (공공재 기능에 대한 직접지불, 6차산업화를 통한 내발적 농촌발전) 농촌경제의 다각화활동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중간지원: 거버넌스 형성 지원 다기능적 농업의 지원 농업 자연자원, 농촌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전 지역공동체 활동 장려, 소농 지원대책 마련
(예시) 생산방식	단작, 외부투입물 의존한 고투입·고비용 구조 표준화, 획일화된 농식품 생산 지역외부, 중앙시장, 수출시장 지향	다품목 소량생산, 저투입·저비용 구조 지역성을 갖는 고품질 농식품 생산 로컬푸드 직판, 다기능농업 활성화, 지역시장 지향

자료 : OECD(2006 ; p.60), 허남혁 외(2013 ; pp 14-22), 강마야 외(2014;pp.38-40)를 일부 수정 및 보완, 재구성함.

## 6) 현실에서의 주체별 정책수요

### ■ 농림어업 공무원

표 5-4. 주체별 정책수요 중 농림어업 공무원

구분	내용
시군이 갖고 있는 문제점 (정책문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차례의 시장개방으로 현장에서의 체감도, 긴장감 저하</li> <li>○ 관련정보파악의 어려움</li> <li>○ 별도의 한중FTA 대응책 부재로 정책방향 설정의 어려움</li> <li>○ 정부의 대책과 시군에서의 체감도 상 온도차이로 인한 불신 존재</li> </ul>
정책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방향 설정의 변화 : 정책대상과 지원의 “선택과 집중” 차별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정책, 구조조정 정책 시행</li> <li>- 복지 및 직접적인 소득지원 정책의 확대 점차 강조</li> <li>- 농업분야의 노동인력 유입 및 후계인력 육성 정책,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조</li> <li>- 생산-유통-소비 등의 영역별 명확한 정책목표의 설정과 연계</li> <li>- 도농간의 소득격차 및 농촌 내 소득격차 해소방안 마련 필요</li> <li>- 피해품목에 대해서 최저생산비 보장제도 마련</li> <li>- 피해보상금의 현실화(증액)</li> </ul> </li> <li>○ 정책지원방식과 내용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중심 보조금으로 인한 생산과잉, 가격폭락, 수익악화 등의 악순환 구조 해결</li> <li>- 보조사업 지원중심이 아닌 농가 및 소비자 인식을 위한 교육 부분의 투자 확대</li> <li>- 폐업지원 등의 농업포기 정책보다는 경쟁력 강화정책 필요</li> <li>- 생산정책과 유통정책 간 내용의 연계 확보 필요(예, 고품질농산물과 공선공출 간 연동)</li> <li>- 소모성 자재 및 시설지원 정책 지양(시설지원 확대에 대한 적절히 필요하다는 의견)</li> <li>- 다수의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사업 구상 필요</li> <li>- 고령화에 따라 신기술 수용능력이 줄어듦에 있어 생산지원 보다는 인력육성에 초점</li> </ul> </li> <li>○ 시군별 특색에 맞는 농정예산 집행을 위한 재량권 및 자율성 확대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량,다품목 생산구조, 다수 영세소농 분산 등 해결을 위한 농가조직화, 계약체계 구상</li> <li>- 미작중심의 시군과 발작물 중심의 시군, 시설작물 중심의 시군간 자원내용 차등화</li> <li>- 중국FTA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군 특색에 맞는 작목정보 제공</li> </ul> </li> <li>○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역발상의 전략구사, 중국 농식품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농수산물 유통경로, 품목별 소비자 성향, 수출입조건, 정책동향, 위생검역조건 등</li> <li>- 한중FTA에 따른 피해와 이득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세부전략 마련 필요</li> <li>- 피해보는 품목만이 아닌 공격적으로 접근할 품목에 대한 제시 필요</li> <li>- 대중국 수출경험 부족, 특히 중국의 세부정보 파악이 미흡한 관계로 높은 장벽 해결</li> <li>- FTA 및 농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 필요</li> <li>- 수출증가를 위해서는 우리의 선호도 보다는 상대국의 선호도 맞춘 가공품 등의 개발 필요</li> <li>- 중국 내 고급시장 공략을 위해 우리나라의 안전한 농식품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책마련 필요</li> </ul> </li> <li>○ 원물, 원재료에 대한 관심, 대형농식품 기업과 지역농가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기반(인프라, 소프트웨어)을 활용하는 전략 구상 필요</li> <li>- 대기업 농수산 식품산업 진출에 따른 조직화된 산지 장악력 확대에 따른 지역의 대응방안</li> <li>- 원물 생산보다 지역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품 및 기초원료 개발에 주력</li> <li>- 재배에 원료가 되는 부분에 대한 국내산 자재 사용기반 확충 필요(예, 버섯배지 등)</li> <li>- 지금까지 투자가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가공인프라 지원 필요(예, 수산물 가공)</li> </ul> </li> <li>○ 국가-광역-기초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차원 : 어족자원 보호, 불법유통(보따리상을 통한 교역) 실태파악, 원산지 표시, 불법조어 단속 문제 해결, 비관세장벽 활용방법 안내 등</li> <li>- 광역차원 : 기초통계 구축 철저, 수출기지화 지원, 브랜드 충돌문제 해결, 광역마케팅 등</li> <li>- 지자체차원 : 로컬푸드 영역의 확장(직매장, 학교급식에서 벗어나서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변 판매장에 대한 인프라 및 지원방식 재정비), 농어촌 환경 및 경관정비</li> </ul> </li> </ul> <p>현장의 목소리를 중요시 하여야 함. 기술센터, 농민들과의 면담 통한 목소리 청취 중요</p>

자료 : 시군별 순회간담회(2015.06.09.~ 06.23.) 요약 및 정리

## ■ 농림어업분야 전문가

표 5-5. 주체별 정책수요 중 농림어업분야 전문가

구분	내용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문제점 (정책문제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업이 늘어나면서 환경문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li> <li>○ 중앙-지방정부간 매칭사업이 많아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음</li> <li>○ 생산 및 유통을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의 부재</li> <li>○ 면적단위 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 발생</li> <li>○ 중앙의 획일적 정책시행의 실패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감 증가</li> <li>○ 한중FTA 뿐만 아닌 다른 나라와의 FTA 효과가 겹쳐서 피해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우려</li> <li>○ 기존의 FTA 대응정책은 대부분 경쟁력 강화 부문에 많은 투자가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정책은 생산기반에 대한 시설투자방식이 많기 때문에 농업인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li> </ul> </li> </ul>
정책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응책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개방이 된다면 우리의 농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함</li> <li>○ 농가의 기본소득을 통한 소득증대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지만 비 농업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당성 마련이 필요함</li> </ul> </li> <li>○ 유럽 사례를 참고해 예산 분석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연계사업 검토 필요</li> <li>○ 전략작물 육성 등 한 가지에 집중하다보면 당장의 소득엔 도움이 되어도 리스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 필요함</li> <li>○ 지방정부의 예산운영의 효율성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예산 매칭방식이 아닌 지역에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 필요</li> <li>- 포괄보조금 영역을 넓혀 도에서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증가</li> </ul> </li> <li>○ 전국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대응할 수 있는 품목별 전국단위 조직 설립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소규모 영농 중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됨</li> </ul> </li> <li>○ 전업농, 대농과 그렇지 않은 다수의 농가를 분리한 정책마련 필요함</li> <li>○ 직불금 지급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상한제도의 폐지</li> <li>- 직불금 금액을 줄이고 대신 농가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모두 나눠주는 방식</li> <li>- 상위구간, 하위구간을 분리하여 가중치를 다르게 하여 지급하는 방식</li> </ul> </li> <li>○ 지방정부 자체적 사업예산 확보, 자율성 확보를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 수립 필요</li> <li>○ 한중FTA 자체만을 보고 대응방안 수립이 아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시행한 시장개방을 바탕으로 하나의 변화방향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방법 모색 필요</li> <li>○ 어업-어촌, 농업-농촌간 서로 연계된 정책마련 필요</li> <li>○ 별도의 지원센터 개설 통한 문화, 일자리창출, 관광, 예술, 교육 등과 결합된 대책을 컨트롤 할 필요성이 있음</li> <li>○ 어촌의 경우 수산물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 임산물과 연계한 정책마련 필요</li> <li>○ 좋은 정책이 나와도 재정이 없다면 안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분석 선행되어야 할 것임</li> <li>○ 중앙정부의 재정확보를 위해 적절한 근거기준 마련 필요</li> <li>○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WTO 규정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함</li> <li>○ 사업(계획, 대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의 마련 필요</li> </ul>

자료 : 전문가 워크숍(2015.09.22.) 요약 및 정리

## ■ 농림어업인

표 5-6. 주체별 정책수요 중 농림어업인

구분	내용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문제점 (정책문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 대한 기대 자체를 포기한 농림어업인이 늘어나고 있음</li> <li>○ 6차산업화 등 사업의 선정에 있어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농가)만 계속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li> <li>○ 각종 규제로 인하여 농림어업인의 사업에 걸림돌이 많음</li> <li>○ 농림어업의 각종 통계 부재에 따른 사업화의 어려움</li> </ul>
정책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의 규모별, 작물별 피해계측에 따른 대안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농이 얼마의 피해를 입는지 연차별 피해는 얼마인지,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등 세부적인 데이터가 필요함</li> </ul> </li> <li>○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지양하여야 함</li> <li>○ 현장에서 의미없는 용어(고품질, 명품농산물) 등 주관적 판단이 포함된 단어는 지양하여야 함</li> <li>○ 중앙정부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중소농 육성, 진정한 의미의 로컬푸드 정책의 활성화 필요</li> <li>○ 정권이 바뀌면 정책 또한 바뀔, 일관적인 정책마련 필요</li> <li>○ 수출위주의 정책보다는 내수위주의 정책 필요</li> <li>○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 필요</li> <li>○ 농가별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화가 필요하고 신청비용 지원이 필요함</li> <li>○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발굴 필요</li> <li>○ 예산 확보와 연계될 수 있는 정책발굴 필요</li> <li>○ 현실적인 피해보전 직불금 마련 필요</li> <li>○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고 공익과 사익이 조화된 계획 필요함</li> <li>○ 임업분야의 경우 미래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제림 조림사업이 필요함</li> <li>○ 각종 규제(공원지역, 보존지역 등)에 대한 규제개선이 필요함</li> <li>○ 가공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연구사업 등이 필요함</li> <li>○ 국가소유의 산림, 대지 등을 활용하여 후계농림어업인을 위해 임대해 주는 제도 필요</li> <li>○ 생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매 지원 필요</li> <li>○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마련 필요</li> <li>○ 품목별 대응방안 마련 필요</li> <li>○ 현재의 법, 규율 등을 잘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li> </ul>

자료 : 농림어업인 현장간담회(2015.10.20.) 요약 및 정리

## 2. 핵심이슈

### 1) 한중FTA 체결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누적적인 피해 축적

- 수차례 수입개방으로 인해 현장의 민감성 반응정도 미약(시군 현장간담회 결과)
- 금번 피해영향 결과가 현실에서의 체감규모와 상이함
- 한중FTA가 체결되기 이전부터 이미 대중국 교역량 증가로 인한 피해 축적

### 2) 한중FTA에 따른 심리적 위험인식 및 경영불안정성 심화

- 타 FTA보다도 한중FTA에 대한 심리적 위험인식 높은 편
- 한중FTA로 인한 농어의 심리적 경영불안정성 심화와 경영포기 의지 강화

### 3) 기존 FTA 대책내용에 관한 실효성 의문 제기, 정책신뢰도 저하

- 주로 경쟁력제고 대책 및 구조조정 중심의 대책과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양분화
- 기존 FTA대책은 경쟁력 제고 중심, 소득 및 경영안정 대책은 보완적 대책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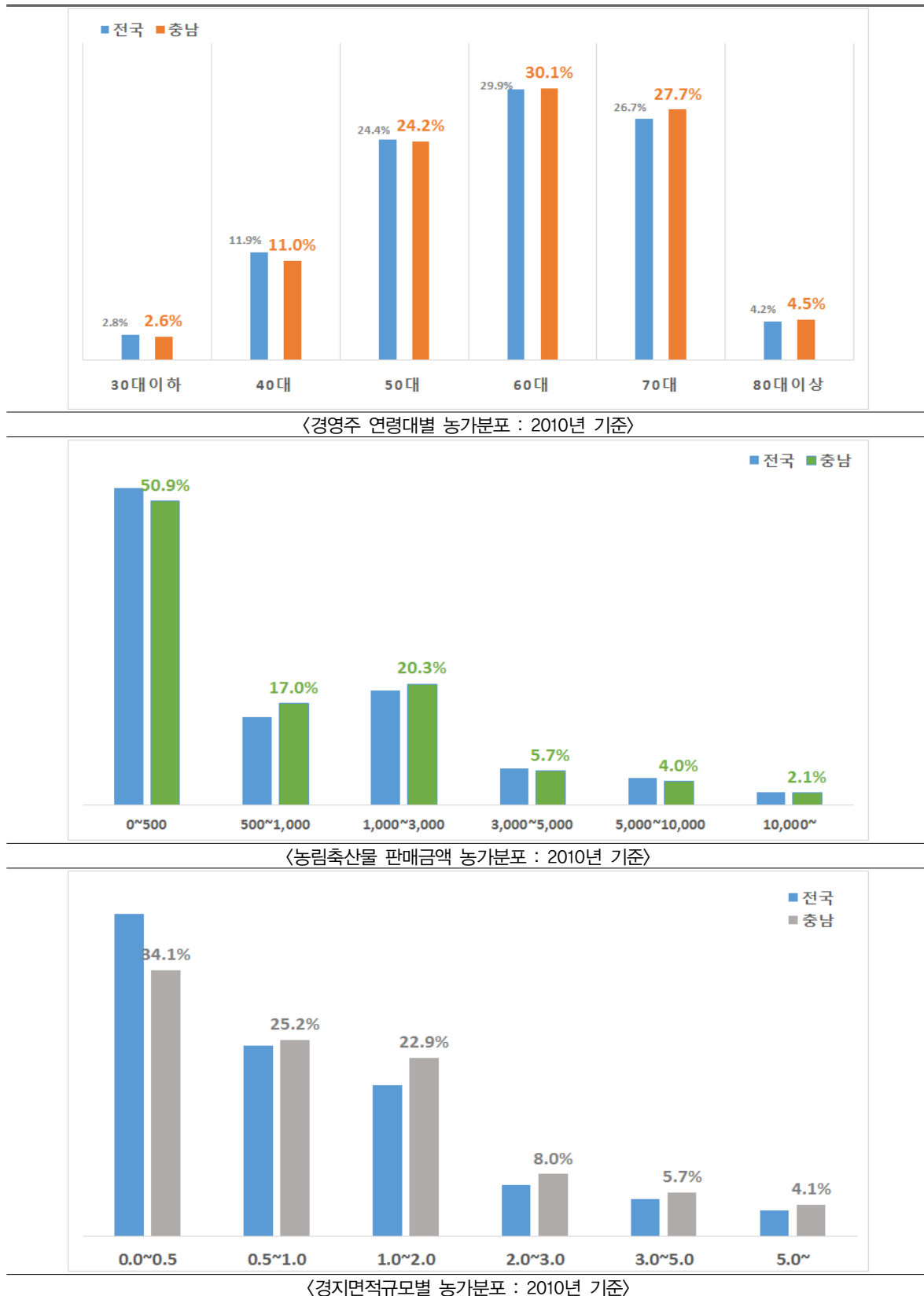
### 4) 각종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 지표 악화

- 소규모 경지면적 농가와 대규모 경지면적 농가 양분화
- 농축산물 판매금액, 농업소득 등 직접적인 소득관련 지표의 악화

### 5) 농어의 존립·유지기반 정책으로의 근본적인 전환

- 도농 간 양극화, 농어 간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사회안전망의 구축
- 농어업 생산활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그림 5-6. 전국 대비 충남의 농가분포 현황(연령,소득,규모)



자료 : 통계청(2010), 농림어업총조사

### 3. 키워드 도출

#### 1) 다수의 중소농 존립과 유지를 위한 최저생활안전망 구축

- 다수 중소농의 최소한 소득수준 유지는 삶.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 사항
- 심리적 불안정성, 존립과 유지기반 위협이 결국 산업위축으로 연결되는 구조 해결
- 다양한 농외, 어외 소득원 창출기반 확보

#### 2) 전업농을 살리는 농어업 지속성 강화

- 전업농 중심으로 각 영역별 정책역량 집중(생산·유통·가공·소비·판매 영역별 관리)
- 내수시장과 대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별적 대책
- 산업중심 영역에서 지역중심 영역(사회, 문화 등)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전환

#### 3) 기존 대책의 신뢰성과 실효성 극복을 위한 핵심역량 집중

- 새로운 성격의 대책으로의 전환, 신규사업 발굴보다 기존사업의 점검과정 필요
- 집행방식의 변화를 통한 사업효과 향상에 역량 집중
- 충청남도과 15개 시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할 시기(선택과 집중)
- 기존 정책, 사업, 보조금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과정(농정예산 재구조화)



## 제2절 비전 및 전략

### 1. 기본원칙

#### 1) 지역중심 정책으로 변화 (정책 축의 이동)

- 농정주체·농정집행방식·농정영역의 다양화
- 다양한 농어외 소득원의 창출과 발굴 노력

#### 2) 정책집행방식의 변화 (정책방식의 이동)

- 정책방향과 목적의 명확화
- 정책대상과 내용의 프로그램화
- 충남도와 15개 시군 역할과 기능 구분(\* 기존 정책, 사업, 보조금 등 검토 필요)

#### 3) 중소농의 강조 (정책대상의 이동)

- 소득 및 규모에 있어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중간계층 영역(허리, 중심부) 강조
- 기본 생활기반 확충과 더불어 “농업” 이란 산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노동 대가 보장

#### 4)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정책영역의 이동)

- 농정주체·농정집행방식·농정영역의 다양화
- 다양한 농어 외 소득원의 창출과 발굴 노력
- 중국이 위협대상이 아닌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사업영역 확장

#### 5) 주체와 자원 간 연계와 순환 (연계고리의 이동)

- 농어업과 농식품 기업, 유통업체 간 연계 등 기존의 물적·인적자원 간 최대한 활용
- 농어업과 학교 간, 농어어업과 소비자 간 등 지역 내 선순환구조

#### 6) 농어업의 외부지향화 (정책관점의 이동)

- 농어업의 문제를 농어업 내부에서만 해결하지 않고 외부의 주체와 공동으로 모색
- 도시소비자 및 대중국 교류와 협력, 충남 농촌문화와 농업문화의 융복합화와 확산

## 2. 비전 및 목표

### 1) 비전

#### ■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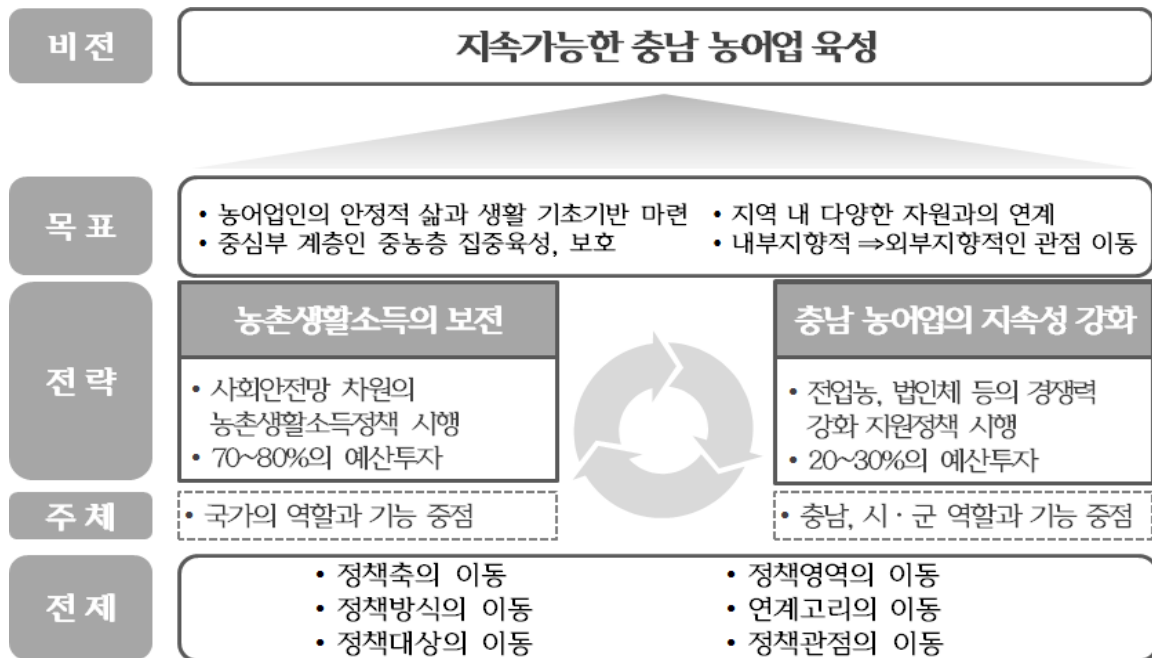
- 상위계획인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과 연계
  - 장기비전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충남 농어업.농어촌”
  - 중기비전 :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 함께하는 3농혁신”
- 상위계획인 DDA, 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의 비전과 연계
  - 경쟁력있는 농수산업 육성과 지속발전 가능한 농어촌 조성

### 2) 목표

#### ■ 충남 농어업.농어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장치 구축

- 충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삶과 생활 기초기반 마련
- 중심부 계층인 중농층을 집중육성, 보호
- 지역 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 연계와 활용
- 내부지향적인 관점에서 외부지향적인 관점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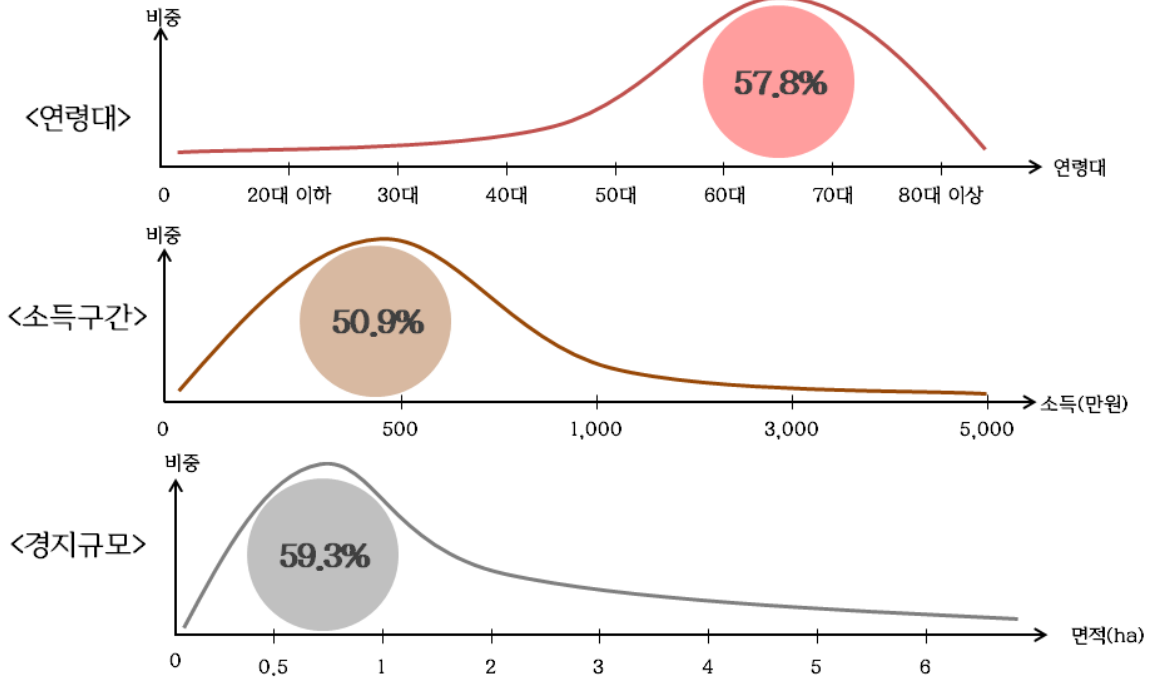
그림 5-7. 비전 및 목표



### 3) 예산투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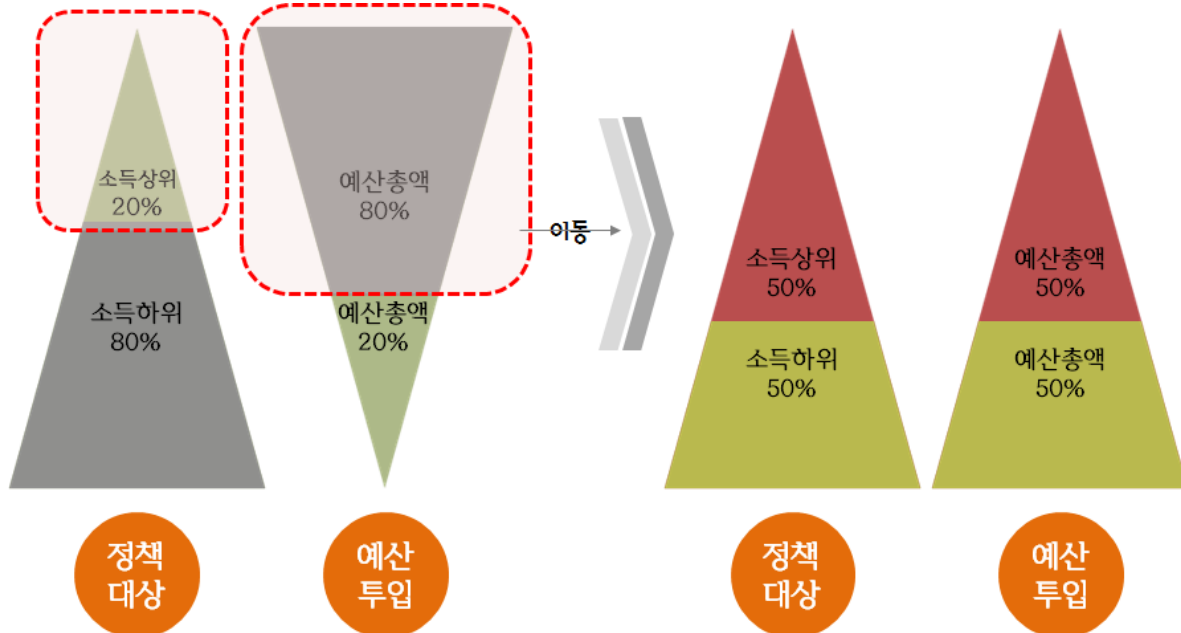
#### ■ 고려해야 할 정책대상

그림 5-8. 연령·소득구간·경지규모별 정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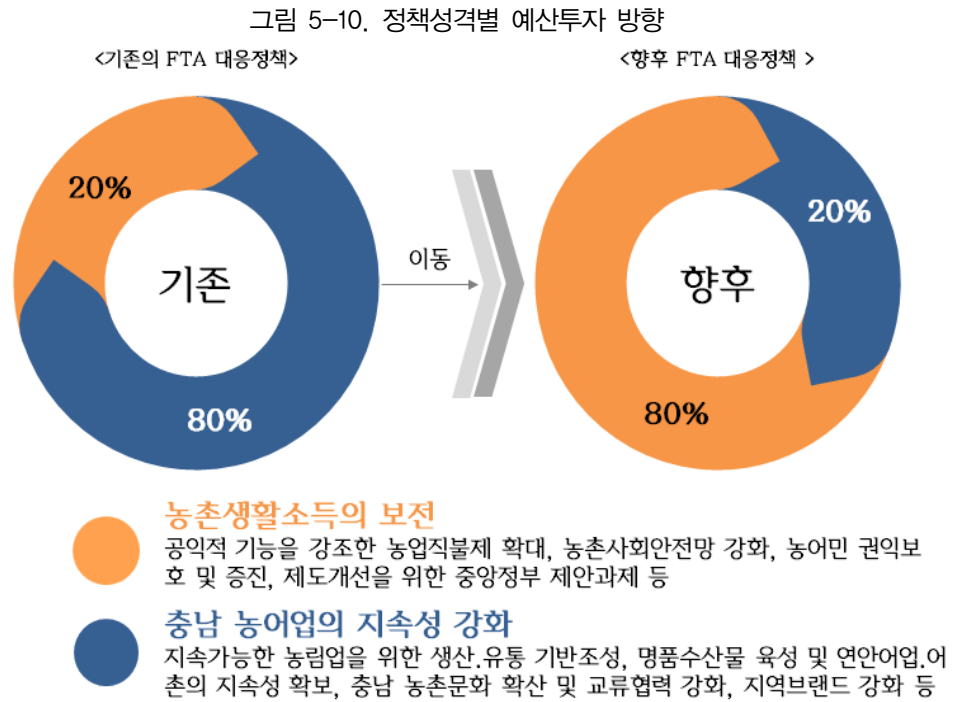


#### ■ 정책대상별 예산투자 방향

그림 5-9. 정책대상별 예산투자 방향



정책성격별 예산투자 방향



### 3. 추진전략

#### (1) 농촌생활소득의 보전 (중앙정부 중심)

- 다수의 중소농 생계기반 유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농촌생활소득 정책 시행
- 전체 투자지원규모의 70~80% 비중으로 대폭 확대
- 기본 사회보장 시스템의 구축은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중점

- 1-1.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확대
- 1-2.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 1-3. 농어민권익보호 및 증진
- 1-4.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8대)

#### (2)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 (지방정부 중심)

- 전업농, 법인경영체 등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 시행
- 전체 투자지원규모의 20~30% 비중으로 축소(기존 정책과 사업 조정과정 필수)
- 광역지자체인 충청남도, 기초지자체인 15개 시군의 역할과 기능에 중점

- 2-1. 농림수산업
  -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생산·유통기반 조성
  -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 2-2. 지역교류 및 협력
  - 지역브랜드 강화
  -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 2-3. 수출
  - 농수산물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 2-4. 지역경제
  - 농어업 구조 개선 및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 4. 부문별 핵심사업

표 5-7. 2대 목표, 5대 부문, 10대 전략, 10대 핵심사업

목표	부문	전략	핵심사업	성격	역할	기간
농촌 생활 소득의 보전	소득 및 권익 증진	1.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확대	농업생태 직불 프로그램 - 벼짚환원사업, 논둑방 조성사업, 삼포식 농법사업, 논습지 조성사업 - 비닐하우스 없는 농지환경 조성사업 - 농업생태 완충지대 조성사업  * 장기적으로는 농어민 기본소득제 도입 검토 필요	가치 추구	국가	장기
		2.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각종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 일자리 창출 - 지역 관광문화, 역사 등자원을 활용한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 - 지역 농특산자원을 활용한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 - 마을단위 공동체조직과 일자리 연계 활성화	가치 추구	충남 시군	중기
		3. 농어민권익보호 및 증진	우리농어업 가치홍보 강화 - 3농(농어민, 농어촌, 농어업)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도농교류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가치 이해	가치 추구	국가 충남 시군	계속
		4.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	〈8대 제안과제〉 ① 식품안전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② 지역과 대형유통업체 간 지역산 농수산물 판매의무 조항 법 제화 ③ 불법유통쌀 판매금지를 위한 제도개선 ④ 지역 내 농식품제조가공업체의 지역산 원료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⑤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양질의 농자재 R&D 투자 ⑥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폐지에 따른 직접투자방식에서 간접투자방식으로 전환 ⑦ 지역성을 강조한 농식품과 지역문화 수출하는 컨트롤타워 기능과 수출사업 전면 전환 ⑧ TPP 등 동시다발적인 수입개방에 따른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	가치 추구	국가	단기 중기

표 5-7. 2대 목표, 5대 부문, 10대 전략, 10대 핵심사업(계속)

목표	부문	전략	핵심사업	성격	역할	기간
충남 농어업 지속성 의 강화	농림 수산업	5.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생산유통기반 조성	(농업부문) 건강한 토양·물·종자 만들기 프로젝트 - 건강한 토양 만들기 사업 - 건강한 물 만들기 사업 - 건강한 토종종자 만들기 사업	실천 지향	국가 충남	단기 중기
			(임업부문) 지속가능한 임산물, 산림자원 생산 및 가공 기반 구축 - 임산물 융복합단지 조성(전문생산, 가공, 자재공급 기능) - 임산물 재배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임대사업 - 임산물의 다양한 형태의 가공과 상품개발 -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확대지원	실천 지향	충남 시군	단기 중기
		6.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 마을어업·양식어업을 활용한 어업·어촌 6차산업화 추진 - 해양수산교육을 통한 도어교류 활성화 - 귀어·귀촌을 통한 어촌활력 증진 - 여성어업인 역할 강화를 통한 「어촌감성」 증진 - 자율관리공동체를 사회적기업(마을기업)으로 육성 - 충남 어촌사랑운동 및 수산물 소비운동 전개	실천 지향	국가 충남	단기
	지역 교류 및 협력	7. 지역브랜드 강화	도시농업 및 소비교류 사업 - 착한소비·식생활」 운동 추진·전개 - 학교·회사 논·밭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농업 실현 - 소비자 중심의 “찾아가는 로컬푸드·농촌관광” 추진	실천 지향	충남 시군	중기
		8.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중국인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위한 지역단위 기반 구축 - 충남 농촌체험관광 홍보사업 - 중국 관광객 편의를 위한 기반정비 - 충남도 고품질 농수산품의 대중국 수출 지역단위 기반 구축 - (가)충남도 친환경농산물 대중국 수출 특화 지구조성	실천 지향	충남 시군	중기
	수출	9. 농수산물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대중국 수출농산물 전문마케팅 조직 육성 - 대중국 수출농가조직화 역량강화 교육 - 대중국 수출기획단 운영 - 대중국 수출전문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실천 지향	국가 충남	장기
	지역 경제	10. 농어업 구조 개선 및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농어촌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사회적 농기업 육성 - 농어촌 지역의 지역주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성 - 지역상생을 위한 마을기업·사회적 농기업 육성 - 농어촌 사회적기업 리더양성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	가치 추구	충남 시군	장기

5. 본 대책의 정책비교

표 5-8. 농어업분야 대책의 비교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연계)

(단위 : 억 원)

중앙정부			충청남도	
추진전략	대응방안(세부사업)	투융자금모 ('16~'25년)	추진전략	대응방안(단위사업, 세부사업)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발농업 고정직불금	(미공개)	농촌생활소득의 보전	공익적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강화
	FTA피해보전직불제	(미공개)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농어민권익보호 및 증진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중앙정부 제안과제(8대)
발농업 경쟁력 제고	발기반정비	(미공개)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생산,유통기반 조성	지역별 전략 농산물 육성 지원
	발 공동경영체 육성	465		마을단위 공동농장 육성과 소량 다품목 생산구조 전환사업
	농기계 임대	400		건강한 토양,물,종자 만들기 프로젝트
	농업수입보장보험	300		농산물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임업 경쟁력제고	목재산업시설현대화	210		지속가능한 임산물, 산림자원 생산 및 가공 기반 구축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100		임산물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유통,지역가공 기반 강화
수출촉진	임산물 수출	20	농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대중국 수출농산물 전문마케팅 조직 육성
	수출기반 강화	60		대중국 수출용 농가공식품 산업 육성
				충남 식문화 및 외식산업 대중국 진출지원
수입안전 체계구축	동축산물 검역검사	20	-	
	식물검역검사 등	20		
자금융자 및 조세지출	정책자금 금리인하	(미공개)	-	
	농신보 위탁보증한도 확대	(미공개)		
	전기요금 인하	(산출불가)		
농업 소계 (한·중)		481		



표 5-8. 농어업분야 대책의 비교(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연계) (계속)

(단위 : 억 원)

중앙정부			충청남도	
추진전략	대응방안(세부사업)	투융자금모	추진전략	대응방안(단위사업, 세부사업)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	수산조건불리지역직불제	(미공개)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마을어업·양식어업을 활용한 어업·어촌 6차산업화 추진
	어촌공동체, 수산종묘자금(이차보전)	100		해양수산교육을 통한 도어교류 활성화
	긴급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34		귀어·귀촌을 통한 어촌활력 증진
	어업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포함)	400		여성어업인 역할 강화를 통한 「어촌감성」 증진
	어업경영체등록	140		자율관리공동체를 사회적기업(마을기업)으로 육성
어선어업 분야지원	연안어업인 자조단체 육성	172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환경해권 수산업 공동상생 발전사업)	충남 어촌사랑운동 및 수산물 소비운동 전개
	노후어선 부분개량	310		한중 충남-산동성 간 수산업 공동 상생, 발전 협력
	친환경어구 보급사업	104		
	불법조업 대응역량 강화	90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132		
양식어업 분야지원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146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충남 명품수산물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충남 명품 4대 수산물 내수 및 수출 확대 종합계획 수립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100		해삼 클러스터를 통한 중국시장 교두보 마련
	친환경 에너지보급	200		중국 소비자가 좋아하는 조미김 산업 육성
	수산물 자조금 지원	150		광역 브랜드화를 통한 바지락 산업의 전략적 육성
	내수면 양식 지원	100		고급 식재료로서의 갯벌 참굴 육성
	천일염 산업 특화 지원	69		수출용 전복 산지로서의 위상 강화
가공유통 인프라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136	수산물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산지중심 마케팅조직 육성
	수산물유통자동화설비	101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 “수산물 로컬푸드” 추진
수출지원	수산물해외시장개척	434	농수산물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어업·어촌 6차산업화 및 수산산업 육성
				대중국 수출농산물 전문마케팅 조직 육성
				대중국 수출용 농가공식품 산업 육성
검역관리 강화	수산물원산지관리	260	-	충남 식문화 및 외식산업 대중국 진출지원
	수산물이력제	10		
정책자금 및 조세지출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산출불가)	-	
수산업 소계 (한·중, 한·베)		3,188		

표 5-8. 농어업분야 대책의 비교(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연계) (계속)

(단위 : 억 원)

중앙정부			충청남도	
추진전략	대응방안(세부사업)	투융자금모	추진전략	대응방안(세부사업)
-			농어업 구조 개선 및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농어촌 가치 중심의 농어업 구조개선
				농어촌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사회적 농기업 육성
				R&D개발을 통한 연계된 농어업 지속성 강화
-			지역브랜드 강화	푸드 비즈니스 및 투어 육성 사업
				ICT를 이용한 6차산업화 경쟁력 강화
				도시농업 및 소비교류 사업
-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중국인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위한 지역단위 기반 구축
				대중국 교류,협력의 거점 확보
				지역 농업 문화·유산 계승 발전 사업
				중국 농촌지도자 및 농정담당자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중국농업 이해 및 현지연수 프로그램 개발
재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00조 원		
지역정책 소계				

## 6. 10대 핵심전략 개요

### 1) 전체 구조

- 요약 : 2대 목표-5대 부문-10대 전략-10대 핵심사업
- 목표1 : 농촌생활소득의 보전 (전략1~전략4)

그림 5-11. “농촌생활소득의 보전”주요 전략



- 목표2 :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 (전략5~전략10)

그림 5-12.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주요 전략



## 2) 추진시기 및 주체별 역할

그림 5-13. 10대 핵심사업별 추진시기와 주체별 역할



### 3) 세부 내용

#### 전략1.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확대

##### 핵심사업 : 농업생태 직불 프로그램

- 사업목표 : 농지의 농업생태 보전 및 복원
- 사업성격과 개념 : 생태보전활동을 통해 관행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한 생산손실분에 대한 보상
- 정책대상 : 참여하는 개별농가 및 참여구역 농가집단, 마을단위
- 사업내용
  - 벼짚환원사업
  - 논둑병 조성사업
  - 삼포식 농법사업
  - 논습지 조성사업
  - 비닐하우스 없는 농지환경 조성사업
  - 농업생태 완충지대 조성사업
- 성과지표
  - 경지면적 유지, 논형상 유지, 생물서식률 증가, 생물다양성 확보, 녹지율/초지율 증가
  - 환경친화적 농법실천농가 증가, 친환경적 농산물 생산증가 여부 등
- 추진방법
  - 1단계 : 프로그램 세부사업 지침 구성, 공모
  - 2단계 : 직불 프로그램 사업 대농가 교육사업 운영
  - 3단계 : 정기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 추진체계 : 도는 종합컨트롤타워로서 공모지침, 세부 프로그램 개발, 자체 도비예산 확보(가급적 70% 이상의 도비 예산 매칭)
- 사업기간 : 시범사업(2016년~2017년), 본사업(2018년 이후~)

**전략2.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핵심사업 : 각종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 일자리창출**

■ 사업목표

- 사회안전망 차원의 농어촌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활성화, 창출 기반의 마련
- 농어촌지역의 농어업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창출, 사회참여기회 제공

■ 정책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다수, 그 외에도 영세농, 고령농 등 포함

■ 사업내용

- 지역 관광(문화, 역사 등)자원을 활용한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
- 지역 농특산자원을 활용한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
- 마을단위 공동체조직과 일자리 연계 활성화

■ 추진방법

- 1단계 : 15개 시군 내 읍면별 주요 자원발굴과 아카이브 구축
- 2단계 : 농촌지역 일자리 수요 및 공급 총괄조사, 일자리창출사업단 구성
- 3단계 : 일자리연계 지원사업 본격 실시, 중간모니터링과 과정평가 등의 실시

■ 추진체계

- 농촌지역 일자리창출사업단의 구성과 출범
- 도와 시군 간 해당부서(농정국 소관 부서 외에도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주민행정지원과 등 연계)

■ 연계사항

-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고령자 인재은행, 고용센터의 취업사업,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제도)
- 여성가족부의 농촌여성일자리사업(식품가공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문화복지형 구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사업 시행 중

■ 사업기간 : 2016년 이후부터 실시

### 전략3. 농어민권익보호 및 증진

#### 핵심사업 : 우리 농어업 가치 홍보 강화

##### ■ 사업목적

- 우리나라(충남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정확히 홍보하고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알림

##### ■ 사업내용

- 3농(농어민, 농어촌, 농어업)의 가치 이해확산 교육과 홍보사업
- 상생 도농교류사업

##### ■ 정책대상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어린 학생들
- 농촌현장을 찾는 체험 및 관광객
- 초중고 학생

##### ■ 추진방법

- 1단계 : 언론매체를 활용한 공익홍보 활동 강화
- 2단계 : 농촌을 찾는 체험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
- 3단계 : 학교수업 혹은 특별 활동 시간을 활용한 교육 실시

##### ■ 추진체계

- 충청도 <우리 농어업 농어촌 가치 홍보단>을 구성해 추진
- 도 자체 홍보비 또는 농정예산 확보

##### ■ 기타 연계사항

- 충청도 <학교 텃밭 만들기사업>과 연계해 추진
- 학교급식(로컬푸드)사업과 연계해 추진
- 농촌체험 활동과 연계해 추진

##### ■ 사업기간 : 2016년~2020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전략4.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8대)

표 5-9.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 요약

구분	제안과제명	
법률개정 제안	식품안전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식품위생법 개정, 소비자에게 알권리 보장하는“예외없는 식품안전표시제” 추진
	지역과 대형유통업체간 지역산 농수산물 판매의무 조항 법제화	
	불법유통쌀 판매금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역 내 농식품제조가공업체의 지역산 원료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R&D투자 제안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양질의 농자재 R&D 투자	
수출방식 전환 제안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폐지에 따른 간접투자방식으로 전환	
	지역성을 강조한 농식품과 지역문화 수출하는 컨트롤타워 기능과 수출사업 전면 전환	
근본적 대책수립 제안	TPP 등 동시다발적인 수입개방에 따른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	



#### 전략4.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8대) 제안과제 영역1> 법률개정 제안

##### ①-1 식품안전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 ■ 제안배경

-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가중, 식품 원산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점 제기 추세
- 현행 법률 상 수입산 원료를 국내에 들여와서 가공을 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하게 되는데 가공기준과 원산지 표시 간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2015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식품위해단속 현황은 총 19,882건으로 하루 평균 54.4건, 충남은 874건으로 전국에서 4.3% 단속실적 보임
- 이 중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이 전체의 96.5%(19,190건)를 차지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와 관련한 법률개정 필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전체의 64.7%를 차지, 충남은 62.9%를 차지

###### ■ 현황 및 문제 : 현행 표시기준

- 농수산물 자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시행 2015.6.4.)
-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 표시
-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 가공한 것 포함)

###### ■ 제안내용

- 국내산과 더불어 지역산 표기 의무화(지금은 권장사항)
- 소비단계에서가 아닌 생산 및 가공 전 과정에서의 생산이력제 도입, 통신판매 예외조항을 허용으로 변경
-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수 명령,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 3진 아웃제 도입, 사업자명만 바뀌서 개업신고하는 일 없도록 추적보완 제도 장치 마련
-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 가급적 “지역명”까지 표기하도록 법률 개정 건의
- 상품생산단계부터 가공원료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입산 포함되면 수입산(국가명, 지역명)까지 표기
-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 가급적 “지역명”까지 표기하도록 법률 개정 건의

###### ■ 참고사항

- 혼합되는 모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서 국가와 품목 비율 모두 표시(국내보완대책 내용 포함)

**전략4.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8대)  
제안과제 영역1) 법률개정 제안**

**①-2 식품안전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 식품위생법 개정, 소비자에게 알권리 보장하는 “예외없는 식품안전표시제” 추진**

■ 제안배경

- 수입개방에 따른 전세계의 정체불명 식재료를 우리는 이미 섭취하고 있고 특히 중국과의 농수축산물 교류확대 추세에 따라 식품가공형태의 수입증가 예상
- 식품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식품첨가물 등에 따른 화학적 위해요소, 두 번째는 알레르기, 세 번째는 원료, 성분, 함량 등 표시와 광고, 식품사고 유형으로는 가공식품(36%), 농산물(22%)이 대부분 차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중 하나는 허술한 식품표시제에 대한 보완
- 2014년 3월 한국소비자원은 완전표시제 요구, 생협단체에서도 활발히 캠페인 전개 중
- 특히 유전자변형식품의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 가속화

■ 현황 및 문제(7대 쟁점사항 : 의무표기 최소화, 대부분은 기업자율에 맡기는 구조)

- 첨가물 이름은 기재할 필요없이 용도명만 표기하면 됨
- 복합원재료의 경우 사용된 첨가물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표기 의무 없음
- 반제품에 들어있는 첨가물 표기의무 면제(예, 간장을 사용한 소시지의 경우 간장 속의 보존료 표시 기재 불필요)
- 포장크기가 작은 제품은 완전표시 원칙에서 예외(종전과 같이 5가지 원료만 기재)
- 이중포장 제품의 경우 내포장에는 표시의무 면제
- 즉석 제조식품은 포장지 표시 의무 불필요(예, 베이커리 제품)
- 중간용매나 GMO가 최종생산물에 남지 않으면 표기 생략

■ 제안내용

- 용도명과 함께 첨가물 기재
- 복합원재료 경우 사용된 첨가물은 예외조항 폐지
- 반제품에 들어있는 첨가물 표기의무, 포장크기가 작은 제품도 완전표시 원칙
- 포장크기 작으면 내부 속지를 사용하여 완전표시 원칙
- 이중포장 제품의 경우 내포장에도 표시의무
- 즉석 제조식품도 포장지 표시의무
- 중간용매나 GMO 최종생산물에 남지 않아도 GMO사용했다는 표기

#### 전략4.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8대) 제안과제 영역1> 법률개정 제안

##### ② 지역과 대형유통업체간 지역산 농수산물 판매의무 조항 법제화

###### ■ 제안배경

- 지역에 입주한 대형유통업체(SM, SSM)에서 지역산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지역에서의 소비자가 지역내의 농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별도의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로컬푸드 인식의 확산과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 필요

###### ■ 현황 및 문제

- 현재 입주한 지역내 대형유통업체에서 지역산 농수산물 판매를 찾아볼 수 없음
- 지역단위 로컬푸드 매장설치로만으로는 지역산 농수산물 소비기회와 접근성 부족
- 지역외부로 유출되는 비율은 100%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매우 심각함

###### ■ 제안내용

- 이미 입주한 업체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인 업체의 경우 지역과 별도의 의무조항 법제화
- 유통업체 매장 내에 “충남산 로컬푸드 판매코너”를 별도로 마련
- 우선 광역단위 브랜드 농산물(청풍명월, 오감, 토바우 등)상품부터 납품
- 매대의 상품에는 “특정출하지역”, 출하자명까지 표기
- 더 나아가서 유통업체 매장코너에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농수산물 코너와 국내산 농산물 코너를 명확하게 공간을 구분하여 판매토록 하는 사항도 제안

###### ■ 관련 개정법률

- 공정거래법 위반여지에 대한 사전해석 필요, 지역과 대기업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접근

전략4.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8대)  
제안과제 영역1) 법률개정 제안

③ 불법유통쌀 판매금지를 위한 제도개선

■ 제안배경

- 외국산 쌀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의 불법유통 증가 추세(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수입쌀 부정유통적발실태에 따르면, 2010년 33건, 2014년 310건으로 증가)
-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원산지 속이거나, 국내산 및 외국산 쌀 혼합비율 허위 표시 등 쌀 유통시장 혼란현상은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가는 행위

■ 현황 및 문제

-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에 수확연도별 혼합비율 표시만 하면 판매가능
- 원산지와 혼합비율만 표시하면 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 혼합판매 가능
- 국내산 햅쌀과 묵은 쌀 혼합을 20%까지 인정하는 등 품종 간 혼합판매 가능
- 생산 및 가공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만 표기하게 되어 있어서 중간 유통경로과정 불투명
- 이중포장사용으로 표기내용 안보이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 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
- 판매소재지가 쌀 주산지명 사용해 시판(미국산 95%, 국내산 5% : OO쌀 판매)

■ 제안내용

- 현재 단속만으로는 한계에 있으므로 혼합판매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제안
- 쌀에 대한 전단계 이력추적제 혹은 유통이력제 도입적용 제안

■ 관련 개정법률

-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의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전면 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략4.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8대)  
제안과제 영역1> 법률개정 제안

④ 지역 내 농식품제조가공업체의 지역산 원료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 제안배경

- 중국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문제 제기
- 현장수요조사 결과, 농수산물의 판로안정을 위하여 지역내 농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지역산 농수산물 원료사용 건의의견 다수
- 농가와와의 계약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지역산 농식품 생산 가능

■ 현황 및 문제

- 충남에는 현재 1,203개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분포함
- 전통주 94개소, 전통식품 248개소, 일반식품 837개소, 전처리반가공 24개소 등이 있음
- 하지만 이들의 지역산 원료조달실태는 미미하고 실제 조달규모 파악 불가능한 상황

■ 제안내용

- 지역산 농수산물이 지역 농식품기업에게 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우선구매제 제도의 활용, 지자체와 지역 내 입주한 농식품기업간 협약
- 인센티브로서 세제감면 혜택 부여(단, 지방세가 아닌 국세)
- 지역 내 입주한 기업에서 급식재료로서 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 관련 개정법률 : 농공단지 지원 특별법 개정

전략4.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8대)  
제안과제 영역 2) R&D투자제안

⑤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양질의 농자재 R&D 투자

■ 제안배경

- 양질의 농자재를 둘러싼 내외부 위협요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 시기임
- 저가의 저품질 농자재(종자, 종묘, 종패, 배지 등) 수입 증가, 외국산 자재를 사용한 농수산물에 대한 진정한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 단기적으로 경영비 절감에 도움은 되나 장기적으로 농수산물 품질저하, 국내산 농수산물의 품질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

■ 현황 및 문제

- 현재 농식품부는 골든씨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사업 추진 중
- 선진국에 수입종자에 대한 로열티(UPOV;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연맹)납부 의무화(2012년)로 인한 국부유출
- 중국산 불량품종 국내 유입하여 불법유통 및 불량농자재로 사용, 품질저하로 연결
- 예. 마늘의 경우, 중국산 ‘담로중갑’을 국내산 ‘경남창녕산 육종원’ 불량종자 유통(농수산물 유통공사)
- 예. 생강의 경우, 종자용 생강을 식품용으로 둔갑시키는 사례(2014.09.03.)
- 농업의 현대화 전략으로서 중국산 종자산업의 빠른 발전과 경쟁력 향상(중앙1호 문건 등에 의거)

■ 제안내용

- 민간 전문육종가의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종자 및 정보채널 강화
- 종자 품질을 보증제도 도입
- 토종종자 보호운동전개(전여농, 한살림 생산자연협회, 흥동 토종종자도서관 등에서 시행 중)
- 각종 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
- 현재의 농작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불량종자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적용기준 및 옵션 추가(농어업인이 옵션을 선택하여 보험료 납부)

■ 정책대상

- 농림수산물별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 농자재 중심(종자, 종묘, 종패, 배지 등)

#### 전략4.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8대) 제안과제 영역 3) 수출방식 전환 제안

##### ⑥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폐지에 따른 간접투자방식으로 전환

###### ■ 제안배경

- 수출물류비 지원은 농산물 수출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 수출업체의 인지도, 이용도,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나 DDA협상에 따라 2021년 이후 폐지
- DDA 협상초안(2008.12)에 의하면 선진국은 2013년, 개발도상국은 2016년, 개발도상국 우대는 2021년까지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 ■ 현황 및 문제

-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한식세계화지원사업 등 추진 중
- 그 중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수출물류비지원사업과 인프라강화사업으로 구성되고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예산의 75%가 직접지원방식의 수출물류비지원사업에 배분
- 수출물류비 예산: 30,970백만 원(2013년), 32,921백만 원(2014년)
-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은 과거 1년간 단일 품목(국내산 과일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등 10개 부류) 수출실적이 25만 달러 이상인 수출자 또는 제조자

###### ■ 제안내용

- 주요 항공사 해운사 업체 간 교섭을 통한 운임료 할인, 수출물류기지 설치와 공동 이용방안 모색 건의
-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 수출 물류인프라 공동구축이라는 간접투자방식 정책전환 건의
- 물류비용의 절감 모색방안 건의

전략4.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8대)  
제안과제 영역 3) 수출방식 전환 제안

⑦ 지역성을 강조한 농식품과 지역문화 수출하는 컨트롤타워 기능과 수출사업 전면 전환

■ 제안배경

- 지금까지의 농식품 수출사업 성공률은 저조한 편
- 수입국의 경제상황(환율, 경기), 동식물 질병발생 및 검역 등의 상황에 따라 교역조건 불안정
- 지금까지의 농산물 수출은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밀어내기 전략(Push) 중심
- 중저가의 품질 수출, 물류 및 유통 과정의 허점(적재, 하역과정 등), 중저급 판매처(고급시장 이 아닌 중저가시장, 시장가판대 등) 등으로 인한 한국산 농산물 이미지 추락

■ 현황 및 문제

- 수출브랜드 ‘휘모리’ 유명무실
- 수출지원사업의 불편한 진실(국내산 원료 사용비중은 과자류(10.9%), 면류(4.0%), 장류(27.4%)로서 낮은 수준임, 수출물류비는 기업이익으로 귀속)
- 최근 대통령(15.11.01.)이 한국산 쌀과 삼계탕, 김치 등에 대한 중국 수출합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와 전망에 대한 의견은 수출로 인한 최종 수혜혜택은 농가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보다 수출전문기업 등으로 귀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활성화로 인한 농업경제의 활성화 연계는 비현실적
-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으로서 충남산 농산물을 원료사용과 가공산업과의 연계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제안내용

- 농산물 원물수출 전략에서 탈피하여 지역농식품과 지역문화 등을 결합한 상품을 수출
- 지역농식품에 스토리를 더하고, 지역의 문화를 더하여 새로운 개념의 농식품 문화를 수출
- 국가 차원의 수출컨트롤 타워 기능 역할 수행(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능재편과 확장)



#### 전략4.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8대) 제안과제 영역 4) 근본적 대책수립 제안

##### ⑧ TPP 등 동시다발적인 수입개방에 따른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

###### ■ 제안배경

- 현재와 같이 FTA가 중첩되고 대상국가가 확장됨에 따라 FTA별 영향을 분리하여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게 되고 예측수치가 체감수치와는 많이 뒤떨어지는 상황
- 농산물은 광범위한 대체성으로 인해 특정품목 수입 증가로 인한 영향이 매우 넓고 넓게 나타나므로 품목별 영향 예측이 학계의 지식 한계점 봉착
- 정확한 예측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제는 의미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을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이정환(2015))
- 최근 TPP 협정문 공개내용에 의하면 농업의 추가개방 수위가 높고 국영기업과 환경(수산보조금 지원 금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수출보조금 폐지 등

###### ■ 현황 및 문제

- 기존 FTA대책은 기존 사업에다가 신규자금지원사업 일부를 추가하여 내놓은 대책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농가에게 혜택이 제대로 귀결되었는지에 대한 알 수 없음
- 금번 한중FTA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보듯이 체감하는 현실수치와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한계, 비판제기 중

###### ■ 제안내용

- FTA별 또는 품목별 피해를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는 기존의 방식은 이제 지양 혹은 포기하고 모든 농산물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 신개방시대에 맞는 포괄적 대책으로 전환 필요
-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기능을 더욱 강조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어야 함
- TPP에 따른 수산보조금 지원 금지, 농업의 수출보조금 폐지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
- 국영기업 활동제한 대상으로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마사회 및 관련단체 등이 포함되는지 면밀한 분석 요구
- 특히 수산의 경우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섬 지역 외에도 연안마을로 확장하여 다수의 영세어업인의 소득보완 장치 마련

###### ■ 관련 개정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략5.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핵심사업 : ① 농업부문> 건강한 토양-물-종자만들기 프로젝트**

■ 사업목적

- 중국과의 농산물경쟁력에서 유일하게 우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품질경쟁력으로서 충남의 농산물은 고품질로서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함
- 진정한 고품질. 명품 농산물은 건강한 땅에서 자란(토양환경), 건강한 물을 먹고 자란(수질환경), 건강한 씨앗을 통해 자란 것임에 착안하여 이를 위한 농업환경개선 프로젝트 실시함

■ 사업내용

- 건강한 토양 만들기 사업 : 윤혼작 및 삼포식농법 보급, 벧짚환원농법
- 건강한 물 만들기 사업 : 농약사용 절감을 통한 지하수개선, 가축폐수 정화조 설치
- 건강한 토종종자 만들기 사업 : 토종종자 수집 및 지역종자도서관 설립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토양과 물의 정책대상은 전체 15개 시군 해당
- 종자의 정책대상은 일부 해당 지역

■ 추진방법

- 1단계 : 환경 실태조사
- 2단계 : 개선사항 도출 및 정책수립
- 3단계 : 환경개선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농촌진흥청 및 충남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 기타 연계사항

- 국민안전처,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자체간 물관리 일원화 대책 연계가능

■ 사업기간 : 2016년~계속

## 전략5.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 핵심사업 : ② 임업부문> 지속가능한 임산물, 산림자원 생산 및 가공기반 구축

#### ■ 사업목적

- 향후 점차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 산림자원 중 하나인 임산물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생산 및 가공, 자재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앞으로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이 선도적으로 임산물을 비롯한 충남 내 산림자원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함

#### ■ 사업내용

- 임산물 융복합단지 조성(전문생산, 가공, 자재공급 기능)
- 임산물 재배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임대사업
- 임산물의 다양한 형태의 가공과 상품개발
-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확대지원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정책대상 지역은 충남 전체 15개 시군의 임업인
- 대상품목은 오감 공동브랜드 품목 중 임산물 부류, 기타 작목 추가

#### ■ 추진방법

- 1단계 : 전문생산단지 조성 위한 이용 가능한 경작지 매입, 임대
- 2단계 : 농기계 개발, 작목의 선택
- 3단계 : 가공기능 결합한 다양한 상품 구색
- 4단계 : 단기소득 임산물을 비롯한 각종 산림자원의 유지와 보호 노력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한중 FTA 대책'에 의거한 임산물 분야 대책과 연계

#### ■ 기타 연계사항

-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발작물 기계화 사업 추가
- 충남농업기술원 연구진도 참여하여 공동개발

#### ■ 사업기간 : 2016년~2030년

**전략6.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핵심사업 :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 사업목적

- 한중 간 수산물 교역 증대, 한중FTA를 피해가 예상되는 연안 어업·어촌의 지속성 강화

■ 사업내용

- 마을어업·양식어업을 활용한 어업·어촌 6차산업화 추진
- 해양수산교육을 통한 도어교류 활성화
- 귀어·귀촌을 통한 어촌활력 증진
- 여성어업인 역할 강화를 통한 「어촌감성」 증진
- 자율관리공동체를 사회적기업(마을기업)으로 육성
- 충남 어촌사랑운동 및 수산물 소비운동 전개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연안 6개 시·군 어촌계 및 어업인 등

■ 추진방법

- 1단계 : 연안 어업·어촌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 추진
- 2단계 :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 3단계 : 연안 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협의회 운영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충남 연안 6개 시·군 어촌계 및 어업인

■ 기타 연계사항

- 충남 3농혁신 각 단, 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필요

■ 사업기간 : 2018년~2030년

**전략7. 농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핵심사업 : 대중국 수출 농산물 전문마케팅 조직 육성**

■ 사업목적

- 충남 농산물의 대중국 시장 진출 및 수출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 육성

■ 사업내용

- 대중국 수출농가조직화 역량강화 교육
- 대중국 수출기획단 운영
- 대중국 수출전문브랜드 개발 및 홍보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공선·공출 생산자조직 및 수출농가
- 충남을 대표하고, 고급화가 가능한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

■ 추진방법

- 1단계 : 대중국 수출농가조직을 위한 TF팀 구성
- 2단계 : 대중국 수출농가조직화 추진
- 3단계 : 대중국 수출지원단 구성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대중국 수출지원단을 중심으로 행정체계 개편
- 과채류를 생산하는 시·군이 주도

■ 기타 연계사항

- 충청남도 광역브랜드 “충남오감”과의 연계방안 모색
- 우수 공선출하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조직을 활용하여 수출농가조직으로 육성

■ 사업기간 : 2017년~2030년

- 단기적인 성과 위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추진하여 중국시장 진출 추진

**전략8.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핵심사업 : 중국인 농촌체험관광객 유치에 위한 기반 구축**

■ 사업목적

- 농업부분의 손실을 농촌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대도시 위주로 몰리는 중국 관광객의 충남도 농촌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사업내용

- 충남 농촌체험관광 홍보사업
- 중국 관광객 편의를 위한 기반정비
- 충남도 고품질 농수산품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지역단위 기반 구축
- (가칭)‘충남도 친환경농산물 대중국 수출 특화 지구’(이하 ‘특화 지구’) 조성

■ 정책대상

- 우선적으로 여건이 가능한 농촌체험관광 관련 마을과 농가
-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및 판매 농가나 단체
- 고품질 농수산물 가공 및 판매 단체나 기업
-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및 판매가 특화된 사군 지자체

■ 추진방법

- 1단계 : 중국인 관광객의 우리나라 농촌체험 및 휴양 실태 파악
- 2단계 : 중국인 농촌체험 관광객을 위한 거점별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체험농가를 지정
- 3단계 :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평가가 좋을 경우 확대 실시

■ 추진체계

- 충남도와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
- 일반 명승지와 도로 및 입간판의 중국어 안내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동

■ 기타 연계사항

- 중국관광객 유치 : 전문여행사, 에이전시와 연계해 추진
- 농촌체험관광 관련 중국인 교육 및 연수 : 중국의 지방정부나 관련 기관과 연계해 추진

■ 사업기간 : 2016년~2030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 전략9. 지역브랜드 강화

### 핵심사업 : 도시농업 및 소비교류 사업

#### ■ 사업목적

- 도시농업과 소비교류를 통한 지역 농업, 농산물, 농식품에 대한 가치 제고

#### ■ 사업내용

- “착한소비·식생활” 운동 추진·전개
- 학교·회사 논·밭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농업 실현
- 소비자 중심의 “찾아가는 로컬푸드·농촌관광” 추진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15개 시·군 주민 및 농어업인

#### ■ 추진방법

- 1단계 : “착한소비·식생활”운동 추진
- 2단계 : 학교·회사 논·밭 프로젝트 추진
- 3단계 : “찾아가는 로컬푸드·농촌관광” 추진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충남도, 충남 15개 시·군이 협력적으로 추진 필요

#### ■ 기타 연계사항

-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사업과 연계 필요

#### ■ 사업기간 : 2014년~2030년

- 현재 추진 중인 3농혁신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확대방안 마련 필요

**전략10. 농어업 구조 개선 및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핵심사업 : 농어촌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사회적 농기업 육성**

■ 사업목적

-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상생하는 농어촌 조성

■ 사업내용

- 농어촌 지역의 지역주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성
- 지역상생을 위한 마을기업·사회적 농기업 육성
- 농어촌 사회적기업 리더양성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15개 시·군 주민 및 농어업인

■ 추진방법

- 1단계 : 농어촌에 대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 2단계 : 지역상생의 마을기업, 사회적 농기업 육성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충남도, 충남 15개 시·군이 협력적으로 추진 필요
- 충남 3농혁신 2단계 목표 및 추진전략을 계승하고, 실현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

■ 기타 연계사항

- 충남 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의 연계 필요
-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관계 유지 필요

■ 사업기간 : 2016년~2030년

- 현재 추진 중인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



## 제2장 충남의 대응방안



## 제1절 농촌생활소득의 보전

표 5-10. 농촌생활소득의 보전 요약

전략	사업
1.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확대	1) 식량자급 직불 프로그램 - 토종종자 경작 혹은 재배사업 - GAP 실천확대사업 - 작물다양화 사업
	2) 농업생태 직불 프로그램(*핵심사업) - 벚집환원사업, 논둑병 조성사업, 삼포식 농업사업, 논습지 조성사업 - 비닐하우스 없는 농지환경 조성사업 - 농업생태 완충지대 조성사업
	3) 농촌경관 직불 프로그램 - 자연경관 조성사업 - 생활경관 조성사업 - 문화역사경관 조성사업
2.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1) 각종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 일자리 창출(*핵심사업) - 지역 관광(문화, 역사 등)자원을 활용한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 - 지역 농특산자원을 활용한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 - 마을단위 공동체조직과 일자리 연계 활성화
	2) 다기능농업의 육성과 다양한 소득원 발굴 - 어린이 및 장애인 치유농장 조성, 노인 및 취약계층 돌봄농장 조성 - 농촌지역 로컬푸드 직판장 및 농산물 가공체험,교육사업 - 다기능성을 강조한 농촌관광 사업, 레크레이션 및 교육농장 운영 -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절감마을 운영
	3) 충남 농촌사회보장 프로그램 - 농촌마을 환경개선 프로젝트, 농촌노인층 돌봄 및 가사교육서비스 지원 - 농촌지역과 마을의 다양한 자원관리 활동, 지역과 마을의 각종 시설관리 활동 - 농촌노인 및 취약계층 마을공동급식, 가사교육서비스 지원
3. 농어민권익보호 및 증진	1) 우리 농어업 가치 홍보 강화(*핵심사업) - 3농(농어민, 농어촌, 농어업)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도농교류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가치 이해
	2) 농지보호를 위한 농민의 권한 강화 - 농지전용 심의회 등에 농업인 대표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지전용 및 허가와 관련해 농업인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충남도내 농지개발 분쟁지역 및 휴경지 현황 파악
4.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8대)	〈8대 제안과제〉(*핵심사업) ① 식품안전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② 지역과 대형유통업체 간 지역산 농수산물 판매의무 조항 법제화 ③ 불법유통쌀 판매금지를 위한 제도개선 ④ 지역 내 농식품제조가공업체의 지역산 원료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⑤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양질의 농자재 R&D 투자 ⑥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폐지에 따른 직접투자방식에서 간접투자방식으로 전환 ⑦ 지역성을 강조한 농식품과 지역문화 수출하는 컨트롤타워 기능과 수출사업 전면 전환 ⑧ TPP 등 동시다발적인 수입개방에 따른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

소득 및 권익증진 부문

1. 공익적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강화<sup>21)</sup>

1) 식량자급 직불 프로그램

■ 사업목표

- 영농활동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농업생산 확보

■ 사업성격

- 농산물 생산의 안정화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

■ 설계구조

- 기본직불(현행 쌀고정직불+밭직불)은 현행대로 지급
- 가산직불로서 본 프로그램 사업이행시 추가지급
- 상호준수조건은 필수적으로 협약내용에 포함

■ 정책대상

- 개별농가, 마을단위

■ 사업내용

- 토종종자 경작 혹은 재배사업
  - 활동방법 : 전통적으로 가치있고,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토종종자를 채집복원·재배식재 등
  - 지급기준 : 토종종자 품종재배 했을 때와 관행재배 품종재배 했을 때 (생산성 저하로 인한) 생산량 손실 혹은 소득차액 보전
  - 지급대상 : 토종종자 재배하는 개별농가
- GAP 실천확대사업
  - 활동방법 : 최소한 GAP 실천이지만 실질적으로, 점진적으로 저농약 인증수준 이상 시행
  - 지급기준 및 방식 : 관행농법에서 GAP로 전환했을 때와 관행농법을 유지했을 때 생산량 손실 혹은 소득차액 보전
  - 지급대상 : 최소 GAP를 실천하는 개별농가

21) 주 : 2016년 현재 충청남도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충남연구원에서 작성한 세부지침(안) 일부 인용함.  
자료 : 충청남도(2014),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충남연구원 수행)

- **작물다양화 사업**

- 활동방법 : 쌀 이외에 자급률이 저조한 식량작물(보리, 밀, 옥수수, 콩 혹은 논두렁콩,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류), 특용작물(참깨 등) 등 재배하거나 동계 및 춘계 이모작 활동
- 지급기준 및 방식 : 기존 식재하던 농작물 재배했을 때와의 자가고용인건비 차액, 소득차액 보전
- 지급대상 :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개별농가, 최소 300평 이상 재배하는 경우 모두 해당

- **성과지표**

- 가족농 유지, 소농 유지, 경영포기농가 증감 여부
- 농산물 재배면적 유지 여부, 재배품목(생산물) 종류 혹은 개수 증가 등

- **추진방법**

- 1단계 : 프로그램 세부사업 지침 구성, 공모
- 2단계 : 직불 프로그램 사업 대농가 교육사업 운영
- 3단계 : 정기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 **추진체계**

- 도는 종합컨트롤타워로서 공모지침, 세부 프로그램 개발
- 자체 도비예산 확보(가급적 70% 이상의 도비 예산 매칭)

- **연계사항**

- 국가단위의 쌀고정직불, 밭고정직불과 연계, 단, 관련 직불제 시행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
- 충남도의 3농혁신 2단계 직불 시범사업과 연계(2016년부터 시범사업 예정으로 준비 중)

- **사업기간**

- 시범사업 : 2016년~2017년
- 본사업 : 2018년 이후

## 2) 농업생태 직불 프로그램

### ■ 사업목표

- 농지의 농업생태 보전 및 복원

### ■ 사업성격과 개념

- 생태보전활동을 통해 관행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한 생산손실분에 대한 보상

### ■ 설계구조

- 기본직불(현행 친환경직불)은 현행대로 지급
- 가산직불로서 본 프로그램 사업이행 시 추가지급
- 세부내용 참고해서 마을별 지자체와 협약
-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2-3개 사업 선택

### ■ 정책대상

- 참여하는 개별농가 및 참여구역 농가집단, 마을단위

### ■ 사업내용

- 벼짚환원사업
  - 활동방법 : 추수 이후 겨울철 농지 보호를 위하여 벼짚 거둬들이지 않고 덮어두는 활동 등
  - 지급기준 및 방식 : 벼짚 등 조사료 판매기업에게 지불하는 사일리지 제조비(베일러, 랩핑 작업비 포함)
- 논둑병 조성사업
  - 활동방법 : 농경지 가장자리(모서리)에 작은 둑병을 만들어서 가뭄시에는 용수로 이용, 논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하는 활동 등
  - 지급기준 및 방식 : 조성면적 만큼 손실된 면적에 해당하는 생산량 및 소득차액 보전, 둑병조성비 포함
- 삼포식 농법사업
  - 활동방법 : 윤작과 휴경 병행, 논습지(논에 벼농사 경작하지 않고 물만 대주기) 유지
  - 지급기준 및 방식 : 소득작물 재배했을 때와 재배하지 않았을 때 생산량 손실 및 소득차액 보전
- 논습지 조성사업
  - 활동방법 : 마을내 일정구역을 정해 벼 수확 후 겨울철 논에 물을 대어 습지상태 유지
  - 지급기준 및 방식 : 이모작 등 농산물 재배했을 때와 재배하지 않았을 때 생산량 손실 및 소득차액 보전

- 비닐하우스 없는 농지환경 조성사업

- 활동방법 :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노지작물 재배시행, 비닐하우스 간 차단벽 조성(생태뿐만 아니라 경관조성 기여) 등
- 지급기준 및 방식 : 관행 시설농법과 관행 노지농법 간 생산량 손실 및 소득차액 보전,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영농자재 구입 및 설치비 포함

- 농업생태 완충지대 조성사업

- 활동방법 : 경계식생군락(관목 및 초본과 같은 생울타리 조성, 논밭 가장자리 수목유지, 경지경계간 휴경지/나대지) 등
- 지급기준 및 방식 : 농업 생산활동과 비생산활동 간 소득차액 보전, 완충지대 조성을 위한 각종 수목자재 구입비 포함

## ■ 성과지표

- 경지면적 유지, 논형상 유지, 생물서식률 증가, 생물다양성 확보, 녹지율/초지율 증가
- 환경친화적 농법실천농가 증가, 친환경적 농산물 생산증가 여부 등

## ■ 추진방법

- 1단계 : 프로그램 세부사업 지침 구성, 공모
- 2단계 : 직불 프로그램 사업 대농가 교육사업 운영
- 3단계 : 정기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 ■ 추진체계

- 도는 종합컨트롤타워로서 공모지침, 세부 프로그램 개발
- 자체 도비예산 확보(가급적 70% 이상의 도비 예산 매칭)

## ■ 연계사항

- 국가단위의 친환경농업직불과 연계, 단, 친환경직불 시행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
- 충남도의 3농혁신 2단계 직불 시범사업과 연계(2016년부터 시범사업 예정으로 준비 중)

## ■ 사업기간

- 시범사업 : 2016년~2017년
- 본사업 : 2018년 이후

### 3) 농촌경관 직불 프로그램

#### ■ 사업목표

- 마을의 농촌경관 복원

#### ■ 사업성격과 개념

- 경관보전 비용에 대한 보상, 주거공간 중심으로 경관조성

#### ■ 설계구조

- 기본직불(현행 경관보전직불)은 현행대로 지급
- 가산직불로서 본 프로그램 사업이행 시 추가지급
- 세부내용 참고해서 마을별 지자체와 협약
-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2-3개 사업 선택
- 상호준수조건도 협약내용 포함

#### ■ 정책대상

- 농가조직(그룹)단위, 마을단위

#### ■ 사업내용

- 자연경관 조성사업
  - 활동방법 : 경관식재, 공지유지(잡초관리 안하고 나대지로 놔두기), 겨울철 동계작물 식재, 생울타리 조성(관목 및 초본 군락, 보리·조·수수 등 작물 식재), 마을 야생숲 조성, 경계초본군락 조성, 벽면 축화 조성 등
  - 지급기준 및 방식 : 활동시간별 최저지급 적용 혹은 공공근로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 지불
- 생활경관 조성사업
  - 활동방법 : 마을 내 야생화 서식환경 조성, 돌담 유지, 기존 수목관리 활동, 전통건축물 복원 및 유지, 폐가 및 공가 등 빈집정비 등
  - 지급기준 및 방식 : 활동시간별 최저지급 적용 혹은 공공근로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 지불
- 문화역사경관 조성사업
  - 활동방법 : 당산목 보호 및 유지활동(투수성 포장유지, 불투수성 포장사용 지양), 마을자산 공동관리 활동 등
  - 지급기준 및 방식 : 활동시간별 최저지급 적용 혹은 공공근로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 지불



## ■ 추진방법

- 1단계 : 프로그램 세부사업 지침 구성, 공모
- 2단계 : 직불 프로그램 사업 대농가 교육사업 운영
- 3단계 : 정기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 ■ 추진체계

- 도는 종합컨트롤타워로서 공모지침, 세부 프로그램 개발
- 자체 도비예산 확보(가급적 70% 이상의 도비 예산 매칭)

## ■ 연계사항

- 국가단위의 경관직불과 연계, 단, 경관직불 시행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
- 충남도의 3농혁신 2단계 직불 시범사업과 연계(2016년부터 시범사업 예정으로 준비 중)
- 농지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동검토 필요

## ■ 성과지표

- 경관보전 대상지정 여부, 경관훼손 저해요인 제거여부
- 마을별 자연경관 대상 보호활동 여부, 문화경관 대상 보호활동 여부
- 녹지 및 초지조성 여부 등

## ■ 사업기간

- 시범사업 : 2016년~2017년
- 본사업 : 2018년 이후

## ※ 참고1 : 주요 선진국의 농업직불금 정책동향

## ■ EU : 2013 CAP(공동농업정책) 개혁을 통한 지원방식의 진화, 여전히 농가소득 지원 중점

- EU의 가장 중요한 농업정책인 공동농업정책(CAP)은 50여년 동안 수많은 변화를 거듭
- 가격지지정책이 1992년 보상직불제로 전환, 2003년 단일직불제로, 2013년 목표특정적 직불제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 중, 형식적으로는 지원 축소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더 진화, 발전해 나가는 형태
- 일련의 CAP개혁(유럽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정책인 공동농업정책) 과정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더 부합하도록 재설계하고 있지만 CAP를 관통하는 핵심은 여전히 '농가소득 지원'에 있고 2013년 이후 CAP 예산지출의 대부분도 여전히 직불금 투입
- 환경에 유익한 농업 기능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된 '녹색화 직불금' 역시 소농의 경우 수급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의 준수 의무가 면제돼 사실상 기존 직불금과 다를 바가 없으나 많은 비평가들은 녹색화 직불금이 단지 고비용의 농가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세탁(green wash)이라는 비판도 있음

## ■ 스위스 : 2014-2017 5단계 농정개혁을 통한 직불금 위주의 농정기조 유지 천명

- 연방헌법에 정부의 농업발전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독특한 국가로서 '정부는 농업이 국민을 위한 식품공급, 자연과 경관 보전,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분산을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헌법에 입각하여 모든 농업정책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
- 스위스는 전체 농업예산의 70% 이상을 직불금으로 지출, 평균 농가소득의 절반 이상은 직불금으로 구성됨
- 예. 2014년 직불금 예산은 28억900만 프랑(3조2000억 원) 규모, 수출보조금 폐지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개혁 중이나 앞으로도 직불금 위주의 농정 유지 방침
- 중장기 농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최근 대대적인 설문조사 실시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의 농업 보조금이 적절하거나 부족한 수준'이라고 응답, 현 직불금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정책시행 예정

## ■ 미국 : 2014 농업법 개정을 통한 농가의 위험관리를 통한 소득뒷받침 농정기조로 초점

- 미국 농정의 핵심은 단연 2014 농업법의 '리스크(위험) 관리', 농정의 초점은 농가 수입 증가
- 2014년 농업법(Farm Bill) 개정을 통해 ▲가격손실보상제도(PLC) ▲유통지원융자제도 ▲수입손실보상제도(ARC) ▲보충보상옵션(SCO) ▲누적소득보호계획(STAX)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도입
- 재정적자 감축을 이유로 가격하락대응직불(CCP) 등 고정직접직불금을 없앴지만 더 촘촘한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예. 큰 손실은 작물보험으로, 경미한 손실은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
- 현재 미국 농가의 평균소득은 5만 달러를 넘어서 미 전체 가구 평균소득을 상회하는 추세

자료 : 농업농촌의 길 2015 심포지엄, GS&J인스티튜트

## ※ 참고2 : 농어민기본소득제(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책)

### ■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통해 소득 형평성 제고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

\* 참고: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보편적 소득보장제를 말하는데 이는 현재 선택적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소득보장 방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고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음.

### ■ 사업내용

- 과소고령화지역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 준산간지역 등 경지 면적이 적고 인구고령화로 인해 마을의 존립이 어려운 지역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
- 생태환경불리지역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 농어업 위주의 수변지역 및 생태보호지역 가운데 농어업을 통해서는 더 이상 생계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
- 이후 일반 농어촌까지 점차적으로 확대(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
  -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민기본소득제가 지역사회 유지에 긍정적이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를 중앙정부에서 확대 실시

### ■ 사례 : 인도의 농민기본소득

- 개요
  - 인도는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험적으로 실시한 최초의 국가임
  - 유니세프(UNICEF)로부터 기금지원을 받아 2011년부터 18개월 동안 인도의 가난한 농촌지역인 마다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의 8개 마을 6,000명 이상의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분석했는데 부정보다는 긍정의 효과가 훨씬 많았음
- 기본소득의 효과적 측면
  - 각종 활동과 재정 참여의 증가
  - 주택과 위생시설의 개선
  - 영양상태와 식습관의 개선
  - 건강과 의료서비스의 개선
  -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 교육수준의 향상
  - 경제 활동, 노동, 생산성의 향상
  - 채무가 감소하고 저축이 향상
- 전체적 평가
  - 기본소득제는 인도지역의 가계와 공동체를 잠재적으로 변화시키고 여러 제약들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됨

### ■ 정책대상

- 우선적으로 낙후지역이면서 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조건불리지역 농어촌지역
  - 주로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함.
- 농업과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단, 은퇴농과 은퇴어민 같은 경우 별다른 소득이 없이 소규모의 자영농 및 자영어업을 하는 자

### ■ 추진방법

- 1단계 : 농어민 기본소득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기본 방향 수립
  -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 농어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회 개최
  -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공청회 실시
- 2단계 :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대상마을 선정을 위한 기준안 마련
  - 시범대상마을은 일반 마을과 조건불리지역을 동시에 선정
  - 시범사업은 처음 1~3년을 기준으로 실시
  - 금액은 개별 농민과 농업인에게 매달 30~4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
  - 원래 기본소득은 조건없이 지급되나 상황에 따라서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조건은 연령, 공익활동, 거주기간 등이 있을 수 있음.
- 3단계 : 시범사업 평가 및 확산
  - 시범사업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함
  - 평가 결과 긍정적일 경우 이를 충남도 내에서 확대하고 중앙정부 단위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 추진

### ■ 추진체계

- 충남도가 <농어민 기본소득 추진단> 구성해 추진
  - 충남도와 농민단체 간 거버넌스를 구성하되 사업평가는 충남연구원 중심으로 실시
- 자체 도비예산 확보
  - 농업융복합사업 등에서 일부 전용

### ■ 기타 연계사항

- 충남도 농업융복합사업과 연계해 추진
  - 일부 시군이 이 사업에 대해 실시 의향이 있을 경우 도에서 사업 지원 후 외부 평가
- 충남도 농업직불금제도 개선 사업과 연계
  - 농어민 기본소득제 실시가 이른 시일 내 도입이 어려울 경우 농업직불금제도 개선 사업을 기본 소득제 개념을 도입해 실시

### ■ 사업기간 : 시범사업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계속 확대 실시

## ■ 쟁점사항

- 1) 대상: 농민 VS 농촌주민
  - 농민기본소득의 대상이 농민인지 전체 농촌주민인지 모호
  - 의견수렴 결과 농민기본소득의 대상은 노동시간과 주 소득을 농업활동을 통해 얻는 자로 하되 은퇴농도 포함
- 2) 지급 방식 : 개별 농민 VS 농가 단위
  - 개별 농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소득 취지에 맞고 농가가 좀 더 영농에 매진할 수 있음. 이 경우 농가 내 남녀평등을 좀 더 실현할 수 있음. (조사 결과)
- 3) 농업직불제와의 통합 문제
  - 농업직불제 본래의 취지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만 살리되 나머지는 농민기본소득제로 통합 (김성훈 전 장관 주장)
- 4) 소득 및 재산(토지 포함)과의 연계 여부
  - 기본소득제의 전제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장하되 소득과 재산(토지 포함)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
  - 따라서 소득과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소득층, 대토지 소유자를 일정부분 배제하는 것도 고려 필요 (연구자 판단)
- 5) 연령과의 연계성 : 청년층 VS 노년층
  - 농촌의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청년층 우선, 소득 여건이 불리한 노년층을 우선 실시하는 의견 대립
- 6) 마을단위 시범사업 실시 : 일반 마을 VS 조건불리 마을
  - 농민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충남도가 마을단위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어떤 마을을 우선 대상인지 판단 필요
  -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가 증명되면 충남도 → 전국 단위 확대 필요

표 5-11. 충남형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사업의 기본방향

항목	실시 내용	참고 사항
사업명	충남형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사업	“농민기본소득”이 어려울 경우 “농민배당”으로도 개칭 가능
대상인	농민(법률상의 농업인+고령은퇴농+소작농)	법적 농업인의 정의를 확대 적용
대상마을	일반 마을 2곳, 특수마을 4곳	특수마을: 생태환경보전 및 낙후·피해마을
실시 기간	2년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
소요금액	매년 6억 9,120만 원	마을당 1억 1,520만 원 (26가구 기준)
예산출처	3농혁신특화사업비 / 농정융복합사업비	기존 농림사업 가운데 일몰사업비를 재배정 / 가능 시 정부 및 민간기금 활용 방안 강구 필요
평가방법	인도 프라데시 농민기본소득제 평가방법 준용	우리나라 및 충남도 특수성 반영
추진 방법	1단계: 시범사업 / 2단계: 긍정 평가시 충남도 내 확대 / 3단계: 전국 확대 건의	궁극적으로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전국 확대 실시
대안	우선 당장 충남형 농민기본소득제 실시가 어려울 경우 농업직불제 제도 개선사업(생태환경 부문)과 결부해 실시	대상마을 선정은 농업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지로 하되 보상을 기본소득제 방식으로 실시
정책 효과	중앙정부 농업직불제와 차별화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 모델 제시	단순 “농업직불제 개선사업”에서 “공익농민배당”과 같이 새로운 이름 부여를 통해 정책마케팅 효과 극대화
실시 및 평가 주체	실시: 충청남도도와 각 시군 평가: 지자체+연구기관+민간단체	실시는 지자체에서 평가는 민+관+연이 연계해 평가

자료 : 박경철, 강마애(2015), 충남형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2.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1) 각종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 일자리창출

■ 사업목표

- 사회안전망 차원의 농어촌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활성화, 창출 기반의 마련
- 농어촌지역의 농어업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창출, 사회참여기회 제공

■ 정책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다수, 그 외에도 영세농, 고령농 등 포함

■ 사업내용

- 지역 관광(문화, 역사 등)자원을 활용한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
  - 문화자원, 역사자원, 인물자원, 관광자원, 경관자원 등을 총망라하고 일자리와 연계
- 지역 농특산자원을 활용한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
  - 농촌 여성농업인 및 귀촌인이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가공창업, 제철꾸러미사업 등
- 마을단위 공동체조직과 일자리 연계 활성화
  - 텃밭공동체, 공동두레농장, 공동은퇴농장, 귀농인.귀향인을 위한 예비창업농장의 운영

표 5-12. 시군의 각종 자원현황 (당진시 사례)

구분	자원명
농어업자원	해나루쌀, 파리고추,
문화자원	기지사줄다리기, 합덕제, 농촌생활체험: 황토염색체험(영전황토마을)
역사자원	솔뫼성지, 합덕성당, 합덕농민항쟁
인물자원	심훈(민족저항시인), 김대건 신부(조선 최초)
관광자원	6차산업화: 면천 두견주, 삼교호 관광지, 낚시(바다낚시, 방파제낚시)
경관자원	왜목마을 경관, 서해대교 및 고속도로
환경생태자원	내포문화숲길, 대호방조제
마을공동체자원	왜목마을, 영전황토마을, 좋은 엄마품앗이 협동조합

자료 : 유학열 외(2014), 시군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 추진방법

- 1단계 : 15개 시군 내 읍면별 주요 자원발굴과 아카이브 구축
  - － 농어업, 문화, 역사, 관광, 인물, 경관, 환경생태, 마을공동체 자원 등
- 2단계 : 농촌지역 일자리 수요 및 공급 총괄조사, 일자리창출사업단 구성
- 3단계 : 일자리연계 지원사업 본격 실시, 중간모니터링과 과정평가 등의 실시

## ■ 추진체계

- 농촌지역 일자리창출사업단의 구성과 출범
- 도와 시군 간 해당부서(농정국 소관 부서외에도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과, 주민행정지원과 등 연계)

## ■ 연계사항

-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고령자 인재은행, 고용센터의 취업사업,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제도)
- 여성가족부의 농촌여성일자리사업(식품가공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문화복지형 구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사업 시행 중

## ■ 사업기간

- 2016년 이후부터 실시

## 2) 다기능농업의 육성과 다양한 소득원 발굴

### ■ 사업목표

- 농업의 시장실패로 인한 외부효과인 다기능성을 농업의 소득사업으로 전환
- 농업생산활동을 넘어서 외부효과를 이용한 농업이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 중 하나 이상 제공

### ■ 정책대상

- 농촌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체 참여가능, 제한두지 않음
- 민간영역의 NGO,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 ■ 사업내용(치유, 체험, 관광, 직판 등)

- 어린이 및 장애인 치유농장 조성
- 노인 및 취약계층 돌봄농장 조성
- 농촌지역 로컬푸드 직판장 및 농산물 가공체험, 교육사업
- 다기능성을 강조한 농촌관광 사업
- 레크레이션 및 교육농장 운영
-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절감마을 운영

### ■ 추진방법

- 1단계 :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사업별 카테고리화
- 2단계 : 가능성있는 농장, 법인, 마을 대상의 다기능성 농업 교육
- 3단계 : 다기능성 농장, 학교, 법인, 마을 조성

### ■ 국내외 사례<sup>22)</sup>

- 국내 : 금산군 아토피 안심학교, 산청군 차황자원순환영농조합법인, 하동군 야생차산업 등
- 해외 : 네덜란드의 에이크후퍼(치유농장, 사회적기업 농장), 이탈리아 토스카나

### ■ 연계사항

-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6차산업화 정책의 적극적 연계
- 다기능농업에 대한 개념 도입과 이를 정책과 연계하는 충남형 정책으로 전환 필요

### ■ 사업기간 : 2016년 이후부터 실시 가능

22) 자료 : 정현희 외(2013), 농업의 다기능성과 다기능농업 활성화 정책, 전략연구 2013-06, 충남발전연구원



### 3) 충남 농촌사회보장 프로그램

#### ■ 사업목표

- 농어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직접 제공
- 특정 사회복지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직접 소득보조 지원장치 마련

#### ■ 정책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프로그램 참가하는 주민, 참여구역 집단(그룹)
- 마을단위 및 공동체 단위 모두 가능

#### ■ 사업내용

- 농촌마을 환경개선 프로젝트
  - 농촌에 있는 논과 밭의 주변정리, 빈집 정비, 각종 마을안길 환경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
- 농촌노인층 돌봄 및 가사교육서비스 지원
  - 농촌지역의 빈곤노인층, 독거노인층,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지역주민이 직접 제공
  - 노인돌봄비를 활용한 독거노인에 대한 각종 제품사용법, 취사방법 등 가사실습 교육
- 농촌지역과 마을의 다양한 자원관리 활동
  - 지역과 마을에 있는 문화, 역사, 생활, 관광자원 모두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관리하는 활동
- 지역과 마을의 각종 시설관리 활동
  - 노인당, 마을회관, 창고, 가공공장,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에 대한 시설물 점검, 관리활동
- 농촌노인 및 취약계층 마을공동급식, 가사교육서비스 지원
  -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동취사시설 설치하고 정기적인 공동급식사업 진행
  - 지역의 독거노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식단 공급을 통해 복지실현

#### ■ 추진방법

- 1단계 : 지역과 마을에 필요한 사회복지수요 영역 발굴조사
- 2단계 : 참여 가능한 단체와 개인 모집과 사전교육 실시
- 3단계 :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중간지원창구(제3섹터) 설립

#### ■ 추진체계

- 도와 시군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
- 농촌사회안전망 구축 전담팀(인력)의 배치와 예산 배정

### 연계사항

- 농특회계로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 농촌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및 홍보, 농촌 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 문화,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홍보 등 사업운영주체 역량강화

### 사업기간 : 2017년 이후부터 실시

### 해외사례

- 2004년부터 시작된 아일랜드의 RSS(Rural Social Scheme : 농촌사회보장 프로그램)

### ※ 참고3 : 아일랜드의 농촌사회보장 프로그램 RSS : Rural Social Scheme

#### 개요

- 농촌사회보장 프로그램(RSS)은 2004년 5월 17일 처음 도입되었음
- RSS의 목표는 현재 몇 가지 사회보장(Social Welfare) 수당을 받고 있는 농민과 어민들에게 소득 보조를 제공하면서 농촌지역사회에 득이 되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즉 RSS는 농업·어업 활동으로부터 적절한 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저소득 농민과 어민들이 보조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줌
- RSS의 운영책임이 중앙정부의 사회보호부(Department of Social Protection)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 운영은 지역수준에서 이루어짐
- 사회보호부를 대신하여 지역개발회사(Local Development Companies: LDCs)가 집행을 맡으며, 개별 지역에서는 Udaras na Gaeltachta가 집행기관이 됨

#### 성과

- RSS는 농촌지역사회의 어메니티와 시설들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함
- 지역사회들은 지역 농민 및 어민들이 가진 기술과 재능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됨
- 참여자들은 기존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
- RSS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득 증대 이외에 자신감 향상, 사회적 접촉 증대, 생활수준 향상, 체계적인 생활 유지, 가족유대 증진, 대인관계 향상,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RSS에 대한 아일랜드 정부의 비용편익조사 결과, 실질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이 1:2.89로 추정되었음. 국고에서 실제로 지출된 1유로마다 2.89유로의 계량가능한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는 점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음

## ■ 사업내용

### •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 예. 지적도 상의 길, 지적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보도 혹은 도보길, 소택지의 길을 유지보수 및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노인층과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절약 관련 프로젝트, 마을 및 시골 개선 프로젝트, 노인층에 대한 보살핌 혹은 사회적 보살핌(social care), 미취학아동 및 방과 후 아동들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의 보살핌 관련 프로젝트, 비영리 문화센터 및 비영리 지역전통 관련 시설에 대한 프로젝트, 지역사회의 행정 및 서류작업 지원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기타 적절한 지역사회 프로젝트

- 한편 각 집행기관은 매년 4월 1일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주민들로부터 받아 프로그램의 내용 다양화 시도 중

## ■ 참여자격

- 참여자는 매주 19.5시간 일해야 하며, 농어민의 여건에 맞춰 작업 일정이 설정됨
- 참여자의 연간 휴가일수는 관련 노동법(Organisation of Working Time Act, 1997)에 따라 계산됨
- RSS에 참여할 자격이 되려면 농어민보조(Farm/Fish Assist)나 특정한 사회보장(구직자수당, 편부모가족수당, 장애인수당 등) 수당 중 하나를 받고 있어야만 함

## ■ 지급규모

- 성인 피부양자가 없는 참여자: 주당 208유로
- 성인 피부양자가 있는 참여자: 주당 332.80유로
- 각 아동 피부양자 1명당 추가: 29.8유로
- 2012년 RSS 예산규모는 4,560만 유로(아일랜드 인구는 450만명)

자료 : 1. 충청남도(2013),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 RSS 홈페이지([www.welfare.ie/en/Pages/Guide-to-the-Rural-Social-Scheme.aspx](http://www.welfare.ie/en/Pages/Guide-to-the-Rural-Social-Scheme.aspx))

### 3. 농어민권익보호 및 증진

#### 1) 우리 농어업 가치 홍보 강화

##### ■ 사업목적

- 우리나라(충남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정확히 홍보하고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알림
  -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정확히 알려 농산물 수입의 확대보다는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림
  - 또한 수입 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현실을 정확하게 홍보해 국민들을 우리나라 농업과 농어민 보호의 지지세력으로 유도

##### ■ 사업내용

- 3농(농어민, 농어촌, 농어업)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 3농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 생태, 문화, 역사, 공동체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고 이를 지키는 것은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일임을 알림
- 도농교류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가치 이해
  - 실제 농업과 농촌 현장을 찾은 일반 시민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확대

##### ■ 정책대상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어린 학생들
  -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주로 언론매체를 활용해 실시
  -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활용해 홍보 실시
- 농촌현장을 찾는 체험 및 관광객
  - 특히, 학교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해 농촌을 방문한 학생들
- 초·중고 학생
  - 학교급식의 중요성,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소비의 중요성 등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농어촌과 농어업의 가치 홍보 실시

##### ■ 추진방법

- 1단계 : 언론매체를 활용한 공익홍보 활동 강화
  - 농업: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중요성 홍보
  - 농촌: 농촌의 자연, 환경 보호 가치, 삶터, 배움터, 공동체적 터전으로써의 농촌의 중요성 홍보
  - 농민: 국토와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먹거리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로서의 농민의 중요성 홍보

- 2단계 : 농촌을 찾는 체험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
  - 농촌체험 및 관광을 위해 농촌을 찾는 일반 시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 홍보
  - 이를 위해 먼저 농촌체험마을 대표, 교육농장 대표, 체험농장 대표, 마을사무장 등 현장 교육자에게 이와 관련된 교육 실시
  - 필요 시 자격요건 부여
- 3단계 : 학교수업 혹은 특별 활동 시간을 활용한 교육 실시
  - 농어업 현장 전문, 식농교육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우리 농어업 가치 홍보 교사들이 학교수업 등을 찾아가 교육

## ■ 추진체계

- 충남도 <우리 농어업 농어촌 가치 홍보단>을 구성해 추진
  - 농촌체험마을, 교육농장 종사자, 식농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을 구성함
- 도 자체 홍보비 또는 농정예산 확보
  - 농업교육, 농정홍보 예산 등을 확보

## ■ 기타 연계사항

- 충남도 <학교 텃논 만들기사업>과 연계해 추진
  - 친환경농업 실시 농업인들이 도시 학교 방문 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 학교급식(로컬푸드)사업과 연계해 추진
  - 학교급식의 정당성 확보와 학생들의 이해 차원에서 우리 먹거리의 가치와 중요성 홍보
- 농촌체험 활동과 연계해 추진
  - 농촌체험 활동 과정에서 우리 농어촌, 농어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 교육 실시

## ■ 사업기간 : 2016년~2020년

- 계속사업으로 추진

## 2) 농지보호를 위한 농민의 권한 강화

### ■ 사업목적

- 최근 충남지역 내 신도시 건설과 도로, 공장입지, 공장식 축사 건설 등 개발압력이 높아감에 따라 많은 농지들이 잠식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도 빈발해 대책 필요
-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마을을 시작으로 조건불리지역에서는 휴경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휴경지가 주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무엇보다 농지를 지키는 일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식량위기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데 최우선 과제임

### ■ 사업내용

- 농지전용 심의회 등에 농업인 대표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예를 들어 각 시군의 농지전용심의회 혹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지전용 및 허가와 관련해 농업인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주변 마을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충남도내 농지개발 분쟁지역 및 휴경지 현황 파악
  - 농지 전용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중요
  - 한계마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휴경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 ■ 정책대상

- 각 시군 단체장 및 농지 업무 담당자
- 일반 사군민 전체

### ■ 추진방법

- 1단계 : 농지전용과 관련한 분쟁 현황 및 휴경지 현황 파악
  - 농지전용으로 인한 갈등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점 파악
  - 한계마을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휴경지와 무단 점용에 관한 현황 파악
- 2단계 : 지역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농지전용을 막고 휴경지 보호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 농지전용과 개발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잠재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 휴경지의 발생 현황과 유지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 3단계 : 농지와 휴경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지개발 혹은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농민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심의회에 농민대표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 추진체계

- 기존 농지전용과 도시계획심의회 기구에 농민대표 또는 주민대표 참여 확대
  - 충남도와 각 시군의 농지전용 및 도시계획심의회 등에 농민대표 참여 확대
  - 농지개발 관련 정보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
- 시군 중심으로 농지전용 관련한 공청회 개최
  - 농지개발과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침

## ■ 기타 연계사항

- 농지전용 갈등 사례 조사
- 한계마을을 중심으로 한 휴경농지 발생 현황 조사
  - 휴경농지 활용에 법률 및 제도 사례 파악

## ■ 사업기간 : 2016년~2020년

- 계속사업으로 추진

## 4.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

## 1) 식품안전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 ■ 제안배경

-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가중, 식품 원산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점 제기 추세
- 현행 법률 상 수입산 원료를 국내에 들여와서 가공을 한 경우에는 최종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하게 되는데 가공기준과 원산지 표시 간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2015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식품위해단속 현황은 총 19,882건으로 하루평균 54.4건, 충남은 874건으로 전국에서 4.3% 단속실적 보임
- 이 중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이 전체의 96.5%(19,190건)를 차지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와 관련한 법률개정 필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전체의 64.7%를 차지, 충남은 62.9%를 차지

## ■ 현황 및 문제 : 현행 표시기준

- 농수산물<sup>23)</sup>
  - 국산 농수산물 :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또는 농산물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 혹은 시·군·구명 표시, 단,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시·도명 혹은 시·군·구명을 표시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 혼합 비율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혼합비율 표시, 혹은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표시
  - 2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까지 품목 대상으로 표시
-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시의 원산지 표시
-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 가공한 것 포함)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 각각 표시

## ■ 제안내용

- 국내산과 더불어 지역산 표기 의무화(지금은 권장사항)

23) 자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시행 2015.6.4.)



- 소비단계에서가 아닌 생산 및 가공 전 과정에서의 생산이력제 도입, 통신판매 예외조항을 허용으로 변경
-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이수 명령,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 3진 아웃제 도입, 사업자명만 바뀌서 개업신고하는 일 없도록 추적보완 제도 장치 마련
-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 가급적 “지역명”까지 표기하도록 법률 개정 건의
- 상품생산단계부터 가공원료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입산 포함되면 수입산(국가명, 지역명)까지 표기

## ■ 참고사항

- 혼합되는 모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서 국가와 품목 비율 모두 표시(국내보완대책 내용 포함)

(2) 식품위생법 개정 : 소비자에게 알권리 보장하는 “예외없는 식품안전표시제” 추진

## ■ 제안배경<sup>24)</sup>

- 수입개방에 따른 전세계의 정제불명 식재료를 우리는 이미 섭취하고 있고 특히 중국과의 농수축산물 교류확대 추세에 따라 식품가공형태의 수입증가 예상
- 식품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식품첨가물 등에 따른 화학적 위해요소, 두 번째는 알레르기, 세 번째는 원료, 성분, 함량 등 표시와 광고, 식품사고 유형으로는 가공식품(36%), 농산물(22%)이 대부분 차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중 하나는 허술한 식품표시제에 대한 보완
- 2014년 3월 한국소비자원은 완전표시제 요구, 생협단체에서도 활발히 캠페인 전개 중
- 특히 유전자변형식품의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 가속화

## ■ 현황 및 문제(7대 쟁점사항 : 의무표기 최소화, 대부분은 기업자율에 맡기는 구조)<sup>25)</sup>

- 첨가물 이름은 기재할 필요없이 용도명만 표기하면 됨
- 복합원재료의 경우 사용된 첨가물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표기 의무 없음
- 반제품에 들어있는 첨가물 표기의무 면제(예, 간장을 사용한 소세지의 경우 간장 속의 보존료 표시 기재 불필요)
- 포장크기가 작은 제품은 완전표시 원칙에서 예외(종전과 같이 5가지 원료만 기재)

24) 자료 : 1. 식품안전정보원(2015), 2014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

2. 컨슈머와이드(2015.08.03.),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권리다.

25) 자료 : 1. 한겨레21칼럼(2006.09.20.), 식품안전표시제의 함정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136000/2006/09/021136000200609200628010.html>)

2. 한겨레(2015.06.30.), 예외없는 ‘식품안전표시제’ 시행을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98201.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98201.html))

3. 한겨레(2015.10.13.), 예외조항 투성이, 식품안전 소비자가 나섰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712604.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712604.html))

- 이중포장 제품의 경우 내포장에는 표시의무 면제
- 즉석 제조식품은 포장지 표시 의무 불필요(예. 베이커리 제품)
- 중간용매나 GMO가 최종생산물에 남지 않으면 표기 생략

### ■ 제안내용

- 용도명과 함께 첨가물 기재
- 복합원재료 경우 사용된 첨가물은 예외조항 폐지
- 반제품에 들어있는 첨가물 표기의무, 포장크기가 작은 제품도 완전표시 원칙
- 포장크기 작으면 내부 속지를 사용하여 완전표시 원칙
- 이중포장 제품의 경우 내포장에도 표시의무
- 즉석 제조식품도 포장지 표시의무
- 중간용매나 GMO 최종생산물에 남지 않아도 GMO사용했다는 표기

### ■ 참고 : 관련 법률정보 현황

- 공통으로 적용하는 법률이고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고 소비단계에서 많은 법률 적용하는 편
- 농수산물은 생산계에서는 해당업계 기본법, 품질관리법 적용, 수입-제조가공-유통단계에서는 광범위하게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되고 특히 유통단계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적용
- 가공식품의 경우는 전과정에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먹는물관리법 적용
- 가공식품의 식품안전법령정보로는 농축산물보다 훨씬 엄격하고 많은 법률 적용, 생산단계를 제외한 전 단계에 걸쳐서 법률 적용

## 2) 지역과 대형유통업체간 지역산 농수산물 판매의무 조항 법제화

### ■ 제안배경

- 지역에 입주한 대형유통업체(SM, SSM)에서 지역산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지역에서의 소비자가 지역내의 농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별도의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로컬푸드 인식의 확산과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 필요

### ■ 현황 및 문제

- 현재 입주한 지역내 대형유통업체에서 지역산 농수산물 판매를 찾아볼 수 없음
- 지역단위 로컬푸드 매장설치로만으로는 지역산 농수산물 소비기회와 접근성 부족
- 지역외부로 유출되는 비율은 100%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매우 심각함

### ■ 제안내용

- 이미 입주한 업체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인 업체의 경우 지역과 별도의 의무조항 법제화
- 유통업체 매장 내에 “충남산 로컬푸드 판매코너”를 별도로 마련
- 우선 광역단위 브랜드 농산물(청풍명월, 오감, 토바우 등)상품부터 납품
- 매대의 상품에는 “특정출하지역”, 출하자명까지 표기
- 더 나아가서 유통업체 매장코너에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농수산물 코너와 국내산 농산수산물 코너를 명확하게 공간을 구분하여 판매토록 하는 사항도 제안

### ■ 관련 개정법률

- 공정거래법 위반여지에 대한 사전해석 필요, 지역과 대기업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접근

### 3) 불법유통쌀 판매금지를 위한 제도개선<sup>26)</sup>

#### ■ 제안배경

- 외국산 쌀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의 불법유통 증가 추세(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수입쌀 부정유통적발실태에 따르면, 2010년 33건, 2014년 310건으로 증가)
-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원산지 속이거나, 국내산 및 외국산 쌀 혼합비율 허위 표시 등 쌀 유통시장 혼란현상은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가는 행위

#### ■ 현황 및 문제

-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에 수확연도별 혼합비율 표시만 하면 판매가능
- 원산지와 혼합비율만 표시하면 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 혼합판매 가능
- 국내산 햅쌀과 묵은 쌀 혼합을 20%까지 인정하는 등 품종 간 혼합판매 가능
- 생산 및 가공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만 표기하게 되어 있어서 중간 유통경로과정 불투명
- 이중포장사용으로 표기내용 안보이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 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
- 판매소재지가 쌀 주산지명 사용해 시판(미국산 95%, 국내산 5% : OO쌀 판매)

#### ■ 제안내용

- 현재의 단속만으로는 한계에 있으므로 혼합판매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관련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제안
- 쌀에 대한 전단계 이력추적제 혹은 유통이력제 도입적용 제안

#### ■ 관련 개정법률

-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의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전면 개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6) 자료 : 1. 국회입법조사처(2014), 2014 국정감사 자료집  
2. 농촌여성신문(<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76>)  
3.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0370>)  
4.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145>)  
5. 쌀생존전략 리포트([http://www.nongmin.com/project/ar\\_se\\_detail.htm?se\\_id=1011&ar\\_id=256555](http://www.nongmin.com/project/ar_se_detail.htm?se_id=1011&ar_id=256555))

#### 4) 지역 내 농식품제조가공업체의 지역산 원료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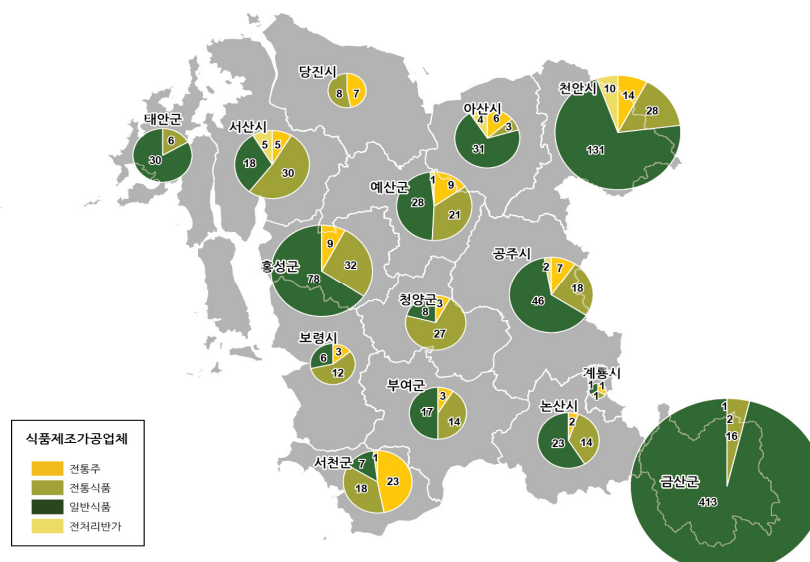
##### ■ 제안배경

- 중국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문제 제기
- 현장수요조사 결과, 농수산물의 판로안정을 위하여 지역내 농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지역산 농수산물 원료사용 건의의견 다수
- 농가와의 계약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지역산 농식품 생산 가능

##### ■ 현황 및 문제

- 충남에는 현재 1,203개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분포함
- 전통주 94개소, 전통식품 248개소, 일반식품 837개소, 전처리반가공 24개소 등이 있음
- 하지만 이들의 지역산 원료조달실태는 미미하고 실제 조달규모 파악 불가능한 상황

그림 5-14. 충남 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분포도 (2013년 기준)



##### ■ 제안내용

- 지역산 농수산물이 지역산 농식품기업에게 원료로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우선구매제 제도의 활용
- 지자체와 지역 내 입주한 농식품기업간 협약
- 인센티브로서 세제감면 혜택 부여(단, 지방세가 아닌 국세)
- 지역 내 입주한 기업에서 급식재료로서 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 ■ 관련 개정법률 : 농공단지 지원 특별법 개정

## 5)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양질의 농자재 R&D 투자

### ■ 제안배경

- 양질의 농자재를 둘러싼 내외부 위협요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 시기임
- 저가의 저품질 농자재(종자, 종묘, 종패, 배지 등) 수입 증가, 외국산 자재를 사용한 농수산물에 대한 진정한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 단기적으로 경영비 절감에 도움은 되나 장기적으로 농수산물 품질저하, 국내산 농수산물의 품질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

### ■ 현황 및 문제

- 현재 농식품부는 골든씨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사업 추진 중
- 선진국에 수입종자에 대한 로열티(UPOV;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연맹)납부 의무화(2012년)로 인한 국부유출
- 중국산 불량품종 국내 유입하여 불법유통 및 불량농자재로 사용, 품질저하로 연결
- 예. 마늘의 경우, 중국산 '담로종갑'을 국내산 '경남창녕산 육종원' 불량종자 유통(농수산물 유통공사)
- 예. 생강의 경우, 종자용 생강을 식품용으로 둔갑시키는 사례(2014.09.03.)
- 농업의 현대화 전략으로서 중국산 종자산업의 빠른 발전과 경쟁력 향상(중앙1호 문건 등에 의거)

### ■ 제안내용

- 민간 전문육종가의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종자 및 정보채널 강화
- 종자 품질을 보증제도 도입
- 토종종자 보호운동전개(전여농, 한살림 생산자연협회, 흥동 토종종자도서관 등에서 시행 중)
- 각종 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
- 현재의 농작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불량종자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적용기준 및 옵션 추가(농어업인이 옵션선택하여 보험료 납부)

### ■ 정책대상

- 농림수산물별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 농자재 중심(종자, 종묘, 종패, 배지 등)

## 6)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폐지에 따른 직접투자방식에서 간접투자방식으로 전환<sup>27)</sup>

### ■ 제안배경

- 수출물류비 지원은 농산물 수출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 수출업체의 인지도, 이용도,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나 DDA협상에 따라 2021년 이후 폐지
  - DDA 협상초안(2008.12)에 의하면 선진국은 2013년, 개발도상국은 2016년, 개발도상국 우대는 2021년까지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

### ■ 현황 및 문제

-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한식세계화지원사업 등 추진 중
- 그 중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은 수출물류비지원사업과 인프라강화사업으로 구성되고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예산의 75%가 직접지원방식의 수출물류비지원사업에 배분
- 수출물류비 예산: 30,970백만 원(2013년), 32,921백만 원(2014년)
-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은 과거 1년간 단일 품목(국내산 과일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등 10개 부류) 수출실적이 25만 달러 이상인 수출자 또는 제조자

### ■ 제안내용

- 주요 항공사 해운사 업체 간의 교섭을 통한 운임료 할인, 수출물류기지 설치와 공동 이용방안 모색 건의
-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 수출 물류인프라 공동구축이라는 간접투자방식 정책전환 건의
- 물류비용의 절감 모색방안 건의

27)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4), 2014 국정감사 자료집

## 7) 지역성을 강조한 농식품과 지역문화 수출하는 컨트롤타워 기능과 수출사업 전면 전환

### ■ 제안배경

- 지금까지의 농식품 수출사업 성공률은 저조한 편
- 수입국의 경제상황(환율, 경기), 동식물 질병발생 및 검역 등의 상황에 따라 교역조건 불안정
- 지금까지의 농산물 수출은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밀어내기 전략(Push) 중심
- 중저가의 품질 수출, 물류 및 유통 과정의 허점(적재, 하역과정 등), 중저급 판매처(고급시장이 아닌 중저가시장, 시장가판대 등) 등으로 인한 한국산 농산물 이미지 추락

### ■ 현황 및 문제

- 수출브랜드 ‘휘모리’ 유명무실
- 수출지원사업의 불편한 진실(국내산 원료 사용비중은 과자류(10.9%), 면류(4.0%), 장류(27.4%)로서 낮은 수준임, 수출물류비는 기업이익으로 귀속)
- 최근 대통령(15.11.01.)이 한국산 쌀과 삼계탕, 김치 등에 대한 중국 수출합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와 전망에 대한 의견은 수출로 인한 최종 수혜혜택은 농가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보다 수출전문기업 등으로 귀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활성화로 인한 농업경제의 활성화 연계는 비현실적
-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으로서 충남산 농산물을 원료사용과 가공산업과의 연계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 제안내용

- 농산물 원물수출 전략에서 탈피하여 지역농식품과 지역문화 등을 결합한 상품을 수출
- 지역농식품에 스토리를 더하고, 지역의 문화를 더하여 새로운 개념의 농식품 문화를 수출
- 국가 차원의 수출컨트롤 타워 기능 역할 수행(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능재편과 확장)



## 8) TPP 등 동시다발적인 수입개방에 따른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sup>28)</sup>

### ■ 제안배경

- 현재와 같이 FTA가 중첩되고 대상국가가 확장됨에 따라 FTA별 영향을 분리하여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게 되고 예측수치가 체감수치와는 많이 뒤떨어지는 상황
- 농산물은 광범위한 대체성으로 인해 특정품목 수입 증가로 인한 영향이 매우 넓고 넓게 나타남으로 품목별 영향 예측이 학계의 지식 한계점 봉착
- 정확한 예측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제는 의미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을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이정환(2015))
- 최근 TPP 협정문 공개내용에 의하면 농업의 추가개방 수위가 높고 국영기업과 환경(수산물 조금 지원 금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수출보조금 폐지 등

### ■ 현황 및 문제

- 기존 FTA대책은 기존 사업에다가 신규자금지원사업 일부를 추가하여 내놓은 대책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피해농가에게 혜택이 제대로 귀결되었는지에 대한 알 수 없음
- 금번 한중FTA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보듯이 체감하는 현실수치와 동떨어진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한계, 비판제기 중
- 최근 야당 측에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한중FTA 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를 제기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다시 의뢰를 결정한 바 있음
- 최근 TPP 농업개방 수위는 우리나라가 모든 FTA협상에서 쌀 협상에서 제외한 만큼 TPP가입과정에서 큰 압박받을 수 있는 가능성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 제안내용

- FTA별 또는 품목별 피해를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는 기존의 방식은 이제 지양 혹은 포기하고 모든 농산물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 신개방시대에 맞는 포괄적 대책으로 전환 필요
-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기능을 더욱 강조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어야 함
- TPP에 따른 수산물보조금 지원 금지, 농업의 수출보조금 폐지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
- 국영기업 활동제한 대상으로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마사회 및 관련단체 등이 포함되는지 면밀한 분석 요구
- 특히 수산의 경우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섬 지역 외 에도 연안마을로 확장하여 다수의 영세어업인의 소득보완 장치 마련

### ■ 관련 개정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28) 자료 : 1.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37>)

2. 이정환(2015), “왜 신시대, 신농업, 신농정을 논해야 하는가”, 시선집중 GS&J 제208호, GS&J인스티튜트

3.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1023175833244>)

## 제2절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

표 5-13.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 요약

부문	전략	사업
농림수산업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생산·유통기반 조성	1) 지역별 전략 농산물 육성 지원 - 각 사군별 대표 농수산물 지정을 통한 전략 품목 육성 지원 2) 마을단위 공동농장 육성과 소량 다품목 생산구조 전환사업 - 마을단위 공동농장 조성을 통한 공동영농활동 - 소량 다품목 생산구조로의 전환사업 - 자원순환 복합영농, 연중작부체계 구축사업 3) 건강한 토양-물-종자 만들기 프로젝트(*핵심사업) - 건강한 토양 만들기 : 윤혼작 및 삼포식농법 보급, 벼짚환원농법 - 건강한 물 만들기 : 농약사용 절감을 통한 지하수개선, 가축폐수 정화조 설치 - 건강한 토종종자 만들기 : 토종종자 수집 및 지역종자도서관 설립 4) 농산물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 산지 중심의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광역브랜드 “충남오감” 브랜드 파워 강화 - 충남 통합온라인쇼핑몰 “농사랑”의 기능 강화 -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도매시장 운영 등 로컬푸드 직거래 방안 추진 5) 지속가능한 임산물, 산림자원 생산 및 가공 기반 구축(*핵심사업) - 임산물 전문생산단지 및 가공, 자재공급과 결합한 융복합단지 조성 - 임산물 재배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임대사업 - 임산물의 다양한 형태의 가공과 상품개발 -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추가확대를 통한 자원보호 6) 임산물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유통·지역가공 기반 강화 - 거점권역별 임산물산지유통센터(산림조합중앙회) 설치 및 이용지역 확대 - 임산물 지역유통 영역의 확장 - 임산물 지역가공인프라 확장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1) 충남 명품 수산물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충남 명품 4대 수산물(해삼, 김, 바지락, 참굴)의 내수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해삼 클러스터를 통한 중국시장 교두보 마련 - 중국 소비자가 좋아하는 조미김 산업 육성 - 광역 브랜드화를 통한 바지락 산업의 전략적 육성 - 고급 식재료로서의 갯벌 참굴 육성 - 수출용 전복 산지로서의 위상 강화 2)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핵심사업) - 마을어업·양식어업을 활용한 어업·어촌 6차산업화 추진 - 해양수산교육을 통한 도어교류 활성화 - 귀어·귀촌을 통한 어촌활력 증진 - 여성어업인 역할 강화를 통한 「어촌감성」 증진 - 자율관리공동체를 사회적기업(마을기업)으로 육성 - 충남 어촌사랑운동 및 수산물 소비운동 전개 3) 수산물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 산지중심의 마케팅조직 육성 -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 “수산물 로컬푸드” 추진 4) 환경해권 수산업 공동 상생·발전 사업 - 한중 충남-산동성 간 수산업 공동상생 발전협력

표 5-13.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요약(계속)

부문	전략	사업
지역교류 및 협력	지역브랜드 강화	1) 푸드 비즈니스 및 투어 육성 사업 - 각 시·군의 농수축산물을 활용하여 시·군별 향토음식 개발 - 지역 가공식품, 향토식품을 통한 푸드 비즈니스 추진 - 지역 농수산물, 가공식품, 향토식품과 연계한 푸드 투어 추진
		2) ICT를 이용한 6차산업화 경쟁력 강화 - 첨단 정보통신산업과 전통 향토산업의 전략적 연계 추진 - 온라인 - 오프라인 결합을 통한 6차산업화 모델 창출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통한 농어업 6차산업화 투자모델 개발
		3) 도시농업 및 소비교류 사업(*핵심사업) - 착한소비·식생활” 운동 추진·전개 - 학교·회사 눈·밭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농업 실현 - 소비자 중심의 “찾아가는 로컬푸드·농촌관광” 추진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1) 중국인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위한 지역단위 기반 구축(*핵심사업) - 충남 농촌체험관광의 매력과 우수성 홍보 - 안내판 등 전반적으로 중국 관광객 편의를 위한 간판 정비 - 충남도 고품질 농수산품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지역단위 기반 구축 - (가칭)충남도 친환경농산물 대중국 수출 특화 지구(이하 ‘특화 지구’) 조성
		2) 대중국 교류·협력의 거점 확보 - 산동성에 충남도 사무소 설치 - 농업, 수산업, 일반 산업, 문화, 교류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 진행
		3) 지역 농업 문화·유산 계승 발전 사업 - 중요 농어업유산의 지속적 발굴과 보전 - 농촌마을 아카이브 사업 확대 추진 - 농촌마을축제 지원
		4) 중국 농촌지도자 및 농정담당자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 중국 고위급 농정담당 지도자 정책연수 - 중국 시현급 농정담당 지도자 정책연수 - 중국 농촌마을 지도자 정책연수
		5) 중국농업 이해 및 현지연수 프로그램 개발 - 중국농업 이해를 위한 현지 연수 실시 - 충남도 농정담당 공무원, 농민단체 및 농업종사자, 농식품 가공 및 유통 관련 종사자 대상

표 5-13.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계속)

부문	전략	사업
수출	농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1) 대중국 수출농산물 전문마케팅 조직 육성(*핵심사업) - 대중국 수출농가 조직 구성 및 육성 - 대중국 수출기획단 조직 및 운영 -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전문 브랜드 개발 - 충남도 우수 농수산물 대중국 수출지원센터 설립
		2) 대중국 수출용 농가공식품 산업 육성 - 대외 경쟁력이 있는 농가공식품을 선정하여 대중국 수출상품으로 육성 - 일정한 품질과 규격을 제시하고, 안전과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구축 - 수출기업 또는 식품기업과 연계를 통한 중국수출의 영역 확대
		3) 충남 식문화 및 외식산업 대중국 진출지원 - 충남의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대표 향토음식을 바탕으로 전통 충남식 개발 및 보급 - 단순한 향토음식 판매점 또는 식당의 역할에서 머무르지 않고 충남의 문화, 자연·경관, 역사, 산업 등을 소개하는 복합 센터의 역할 수행 - 충남의 전통문화인 백제문화, 기호유교문화, 서해안 해양문화 등을 중국인에게 소개하는 창구로서 “찾아가고 싶은 충남” 이미지 구축 - 충남의 농수산물 및 농가공식품 수출을 위한 홍보·프로모션의 전진기지로 활용
지역경제	농어업 구조 개선 및 순환경제시스 템 구축	1) 농어촌 가치 중심의 농어업 구조개선 -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농업의 전략적 육성 -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자원의 가치 재창출 - 어업·어촌 가치 재창출을 통한 수산업 진흥
		2) 농어촌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사회적 농기업 육성(*핵심사업) - 농어촌 지역의 지역주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성 - 지역상생을 위한 마을기업·사회적 농기업 육성 - 농어촌 사회적기업 리더양성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
		3) R&D개발을 통한 연계된 농어업 지속성 강화 - 친환경 농업 개발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성 증대 - 종자산업을 육성을 통한 충남 토종 농산물 보급·확대 -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수산물 육성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첨단 농업기반 시설(스마트팜 등) 조성

## 농림수산업 부문

### 1.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생산유통기반 조성

#### 1) 지역별 전략 농산물 육성 지원

##### ■ 사업목적

- 각 시·군별 대표 농수산물 육성을 통한 지역 농수산물의 시장경쟁력 강화

##### ■ 사업내용

- 각 시·군별 대표 농수산물 지정을 통한 전략 품목 육성 지원
  - 현재 각 시·군을 대표하는 품목 2~3개를 지정하여 산지유통조직 육성 및 수출조직 등 지원
  - 각 시·군 전략품목에 대한 스토리텔링, 캐릭터 상품, 전문 요리 개발 등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 로컬푸드 직매장, 외식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상품성 제고
  - 각 시·군 대표 품목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특판 행사 등 추진

그림 5-15. 시·군별 전략 농수산물 예시(안)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15개 시·군 주민 및 농어업인

## 제5부 충남의 기본구상과 대응방안

### ■ 추진방법

- 1단계 : 시·군별 전략품목 선정 및 T/F팀 구성
  - 충남도 시·군을 대표하는 전략품목 2~3개 선정
  - 충남도, 시·군,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전략품목 선정 위원회 구성
  - 시·군 전략품목 지원방안 논의
- 2단계 : 시·군 전략품목 육성사업 추진
  - 충남도 시·군 전략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각 시·군 산지유통계획, 충남도 공선출하·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
  - 스토리텔링, 외식산업과 연계방안 모색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충남도, 충남 15개 시·군이 협력적으로 추진 필요
  - 충남 3농혁신 2단계 목표 및 추진전략을 계승하고, 실현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

표 5-14. 지역별 관련 중점추진과제 (예시)

지역	품목	예정사업
천안	오이	고품질 오이 명품화 사업
보령	버섯	표고 및 양송이 버섯 유통시설 확충
논산	과수	고소득 과수묘목 지원사업
계룡	채소	과채류 수경재배기술 확대 보급
계룡	임산물	산채재배단지 조성
금산	인삼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한 인삼경작지 조성
금산	인삼	FTA 대응 우량인삼종자 보급사업
금산	갯잎	갯잎 재배시설현대화 및 개보수사업
금산	갯잎	금산 추부 갯잎특구 지정
부여	양송이	굿뜨래 양송이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서천	고추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사업
청양	블루베리	블루베리 특화단지 조성사업
예산	사과	예산사과 수출단지 조성사업

자료 : 2015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

### ■ 기타 연계사항

- 각 시·군 산지유통종합계획, 충청남도 산지유통종합계획, 충남지역농협 “연합마케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충남오감, 산지 공선출하조직·통합마케팅 조직 등 사업과 연계 필요

### ■ 사업기간 : 2016년~2030년

- 현재 추진 중인 6차산업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신규사업 추가

## 2) 마을단위 공동농장 육성과 소량 다품목 생산구조 전환사업

### ■ 사업목적

- 마을(행정리 단위)의 농업인구 고령화 및 감소화에 대비하여 잔존농업노동 인력 및 농가, 주민들이 함께 공동작업 방식을 채택
- 이들간 협업체계를 구축, 농장별로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 ■ 사업내용

- 마을단위 공동농장 조성을 통한 공동영농활동
  - 마을기금으로 공동토지를 매입 혹은 마을소유의 토지를 주로 활용
  - 공동농장 조성을 위한 참여자의 소규모 출자,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
  - 참여자간 협업체계(영농활동 일수, 방법, 역할분담, 조별 편성 등)완성하여 공동영농활동
- 소량 다품목 생산구조로의 전환사업
  - 주로 고령화된 인력들이 생산하기에 수월한 작목을 선택
  - 환경친화적인 농법, 적합한 품종선택 등의 영농기술 지도와 컨설팅
  - 식재부터 수확까지 소형 발작물 농기계 적용과 연계, 식재방식도 이에 맞게 조정
- 자원순환 복합영농, 연중작부체계 구축사업
  - 이모작 형태의 복합영농단지화 사업
  - 저비용,저투입 방식의 생산기술 지향(자연스럽게 친환경, 유기농으로 전환유도)
  - 지역내 물질순환구조(경종과 축산간 자원순환 등)를 적용하여 경영활동에 활용
  - 마을별 품목재배와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연중작부체계 구축하여 다양한 농산물이 연중 출하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정책대상은 전체 15개 시군 해당, 대부분의 농업인
  - 이들을 농업인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될 것인가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농업농촌의 지속성에 역할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음
  -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업농, 기업농이 아닌 농업의 지속유지 관점에서 가족농, 영세소농, 고령농, 부부농, 귀농인 등이 대상이 될 것임
- 해당품목은 발작물 전체 해당
  - 1순위로는 한중FTA로 인해 김치수입 증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부류인 양념채소류
  - 2순위로는 한중FTA로 인해 가공원료 수입증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과채류 및 특작류

### ■ 추진방법

- 1단계 : 마을단위 참여자 구성
  - 참여가능한 농업인이 일정수준의 출자금 납부
  - 마을단위 영농법인 혹은 협동조합 구성

## 제5부 충남의 기본구상과 대응방안

- 2단계 : 마을단위 공동토지 구입
  - 공동토지를 구입하여 공동농장을 조성
  - 혹은 마을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조성
- 3단계 : 공동영농활동 계획 수립
  - 공동농장을 조성하여 참여자간 논의를 통해 공동영농활동 계획수립
  - 재배품목, 재배방식 및 기술, 작부체계, 순환구조 등의 구상
  - 특히 판매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같이 논의할 필요(직거래,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등)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시군 농업기술센터
  - 고령화된 인력에 대한 최적화된 재배방법, 적합한 품종 선택 등의 기술지도와 영농컨설팅
  - 마을의 공동농장별 정기적으로 순회 현장방문지도 서비스 이행
- 시군과 생산자단체 등의 연계
  - 생산된 품목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의 개척활동
  - 특히 소량 다품목은 대규모화로 상업화된 유통경로보다는 로컬푸드 및 직거래 판매방식 적합
  - 시군별 운영 중인 농림축산물 쇼핑몰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꾸러미상품 등) 연계
- 시군의 3농혁신 중점추진과제

표 5-15. 지역별 관련 중점추진과제 (예시)

지역	품목	예정사업
계룡	임산물	산채재배단지 조성
금산	전체	로컬푸드 농산물 연중생산 하우스 설치
서천	전체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는 자원순환농업단지 조성
서천	전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기계지원
서천	전체	농업인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교육
청양	전체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홍성	전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자료 : 2015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

### ■ 기타 연계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중 FTA 대책 및 한미 FTA 대책’에 의거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연계
  - 2025년까지 주요 20여개 발작물 주산지 발 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기 위한 단계별 유형별 지원하기로 함
  - 다만, 본 대책의 내용이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지역과 마을의 현실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과 건의를 통해 적용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중 FTA 대책 및 한미 FTA 대책’에 의거 발농업기계화사업 연계
  - 주산지 품목별 일관기계화 및 기계화율 제고 추진, 2016년부터 관련 기술개발 연구과제 진행



- 지역별, 농업노동력 특성별 필요한 기술수요 조사를 통해서 정부 및 농촌진흥청 건의 필요
- 대상품목 : 배추, 고추, 마늘, 콩, 잡곡, 양파 등
- 기계유형 : 정식기, 수확기, 작업기 등

표 5-16. 발농업기계화 기술개발의 단계별 개발예정 기술

단계	적용기술
정식 前단계 적용 농기계 개발	고효율 복합 작업기 개발
	고령자·여성 친화형 다기능 소형·저가형 다목적 작업기 개발
정식~생산단계 적용 농기계 개발	고추, 배추, 콩, 잡곡 등 플러그묘에 범용 적용 가능한 자동정식기 개발
	고령자·여성 친화형 소형·저가형 정식기 개발
수확단계 적용 농기계 개발	마늘·양파 등에 활용 가능한 범용 수확기 개발
	고령자·여성 친화형 소형·저가형 수확기 개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5-449호),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 중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 충남의 3농혁신 2030발전계획

- 장기 과제로서 순환복합영농체계 및 연중작부시스템 조성에서 이모작형태의 복합영농단지화 사업, 마을읍면단위 농가조직화 및 공동영농활동사업, 광역친환경농업벨트조성 및 충남 시설원에 산업밸리 조성 등 연계
- 중기 과제로서 친환경농업 기반 내실화 및 소비확대 등 연계

#### ■ 사업기간 : 2016년~2020년

- 기계화 기술이 개발완료되어 적용하기까지는 시간 소요
- 하지만 그전에 공동농장을 조성하여 영농활동을 공동으로 하기에는 내년부터 시행가능

### 3) 건강한 토양-물-종자 만들기 프로젝트

#### ■ 사업목적

- 중국과의 농산물경쟁력에서 유일하게 우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품질경쟁력으로서 충남의 농산물은 고품질로서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함
- 진정한 고품질, 명품 농산물은 건강한 땅에서 자란(토양환경), 건강한 물을 먹고 자란(수질환경), 건강한 씨앗을 통해 자란 것임에 착안하여 이를 위한 농업환경개선 프로젝트 실시함

#### ■ 사업내용

- 건강한 토양 만들기 : 윤혼작 및 삼포식농법 보급, 벼짚환원농법
  - 윤작은 같은 땅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해마다 바꾸어 심는, 농산물을 돌려짓는 방식
  - 혼작은 한 곳에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심는 농법으로 섞어짓는 방식을 말함
  - 삼포식농법은 농지를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 3개로 나누어 해마다 돌리는 농법, 특히 그 가운데 하나를 번갈아 가며 휴경지로 하여 지력을 회복하는 경작방식
  - 벼짚환원 농법은 겨울철 농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벼짚을 사료로 활용하지 않고 경지에 그대로 두어서 다양한 양분(질소, 인, 칼륨, 규산 등)을 토지에 공급하는 방식
  - 불량부산물 퇴비 사용의 자제
- 건강한 물 만들기 : 농약사용 절감을 통한 지하수개선, 가축폐수 정화조 설치
  - 농업용수 오염원은 가정용 생활오폐수, 농업용 저수지 오염, 축사시설 오폐수 등
  - 오염원 개선을 통하여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전방위적인 노력 필요
  - 주요 대책으로서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확대, 수질개선 공법 개발, 수질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 농업토지의 경우 자연스럽게 농약과 비료를 덜쓰는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전환하여 지하 수질개선
  - 축사시설의 정화조 설치, 가축분뇨정화시설 의무화 등
- 건강한 토종종자 만들기 : 토종종자 수집 및 지역종자도서관 설립
  - 지금도 농촌지역에서는 일부 가구들이 토종종자를 수집하여 그것을 직접 재배하는 현상 증가 추세
  - 글로벌 종자기업이 생산한 변형된 종자가 아닌 우리땅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토종종자를 유지, 계승
  - 생협 소속의 생산자공동체, 전여농의 토종종자 살리기 운동, 토종종자 은행 등과 유사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토양과 물의 정책대상은 전체 15개 시군 해당
  - 충남의 전체 경지(논과 밭)를 대상으로 함
  - 농업용 지하수 지구수가 많은 지역 우선 실시(충남의 전체 지하수 이용시설 지구수는 46개소, 이 중 예산군 10개소, 아산시 7개소, 공주,당진,부여 각 4개소 등 ; 충남통계연보)
- 종자의 정책대상은 일부 해당 지역
  - 토종종자는 현재 집계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 부재,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나름대로 농업인들 스스로 모으는 실천을 행하는 중
  - 본 사업의 시작은 실천을 행하는 가구 중심으로 실태파악 우선 실시

## ■ 추진방법

- 1단계 : 환경 실태조사
  - 토양, 물, 종자의 현재 상태를 전수조사를 통하여 실태조사
  - 토양환경,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실태조사 및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 종자수집 현황조사 등
- 2단계 : 개선사항 도출 및 정책수립
  -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원인파악,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
  - 단계적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을 수립, 특히 관련한 시설인프라에 정책지원 우선 투자 필요
- 3단계 : 환경개선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가구별로 토지와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노력과 실천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
  - 자가노력을 강조하여 농촌의 토양과 수질환경 개선할 수 있는 홍보 및 캠페인 확산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농촌진흥청 및 충남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 기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토양환경정보시스템(SIS) DB구축 결과 활용
  - 충남농업기술원은 본 통계시스템 구축결과와 더불어 충남 내 농촌지역의 토양환경 정밀진단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원
  - 기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 결과활용
  - 농촌용수는 지하용수와 농업용수로 나뉘는데 공사에서는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 조사실시 중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 기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정보 활용

## ■ 기타 연계사항

- 국민안전처,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자체간 물관리 일원화 대책 연계가능
  - 농촌용수 종합정보시스템은 농어촌용수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재해정보, 수자원 등 정보의 통합관리 체계
  - 국민안전처는 구 소방방재청이 운영하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연동 운영
  - 환경부는 물환경정보시스템, 국토해양부는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 연동 운영

## ■ 사업기간 : 2016년~계속

#### 4) 농산물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 ■ 사업목적

- 충남의 농림산물 산지조직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 충남의 농림산물 로컬푸드를 통한 중·소 농업인 유통경쟁력 강화

##### ■ 사업내용

- 산지 중심의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광역브랜드 “충남오감” 브랜드 파워 강화
  - 공동선별·출하조직 ‘14년 30개소 → ‘18년 70개소,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14년 4개소 → ‘18년 10개소로 양적 성장 추진
  - 산지조직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품질, 경영, 마케팅 등의 지속적 교육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컨설팅 강화
  -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품목별 산지조직 컨트롤센터 운영방안 추진
  - “충남오감” 대외인지도 강화를 위한 프로모션 강화 및 대중국 수출 브랜드로의 육성방안 마련
- 충남 통합온라인쇼핑몰 “농사랑”의 기능 강화
  - 농산물 쇼핑몰 “농사랑”을 농수산물 판매 중심에서 농촌체험관광, 지역축제, 지역문화행사 등 지역을 소개하는 정보전달 매개체로 전환
  - “농사랑”의 온라인 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농사랑”오프라인 매장(또는 정기적인 직거래장터) 개설
  - 6차산업 안테나숍과 연계방안 모색
-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도매시장 운영 등 로컬푸드 직거래 방안 추진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전 시·군에 설치하고 광역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안정적인 학교급식센터 모델 구축(‘17년까지 전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 대형 소비처에서 손쉽게 로컬푸드를 구매할 수 있는 전문 도매시장 개설(천안농산물도매시장 등)
  - 지역 농업인과 로컬푸드 소비처(식당 등) 간의 정보교류, 거래촉진을 위한 전문 웹사이트 개설(농사랑 활용)
  - 소비자 집객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스타 로컬푸드 직매장 육성
  - 이동형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차량 운행을 통한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사업 운영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농업 전반 및 15개 시·군 농어업인
  - 농업 및 임업은 모든 시·군 해당
- 대상품목은 1순위로 오감 공동브랜드 품목, 2순위로 특용작물
  - 밤, 잣잎, 고구마, 감자, 표고버섯, 오이, 토마토 등 7개 품목
  - 이 중 한중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는 고구마, 토마토 등으로 우선시 되어야 함

## ■ 추진방법

- 1단계 : 민선6기 충남 3농혁신 2단계 정책 중 단·장기과제로 추진 중
  - 현재 민선 6기 3농혁신 2단계 추진전략 및 목표를 계승
- 2단계 : 민선6기 이후,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하여 실현
  - 향후 3농혁신 생산혁신분야 장기과제로 지속적인 추진 필요
  - 신규사업은 충남도를 중심으로 시·군, 농업인,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충남도, 충남 15개 시·군이 협력적으로 추진 필요
  - 충남 3농혁신 2단계 목표 및 추진전략을 계승하고, 실현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

표 5-17. 지역별 관련 중점추진과제 (예시)

지역	예정사업
천안	로컬푸드 직매장 체계 구축
공주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공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보령	표고,양송이 유통시설 확충
아산	아산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아산	사회적협동조합 중심의 생산·가공·유통 연계형 지역순환식품사업
당진	로컬푸드 및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부여	굿뜨래 양송이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충남, 부여	충남오감 남부권 과수포장재 지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예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자료 : 2015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

## ■ 기타 연계사항

- 충남 3농혁신 사업 및 각 시·군 농업발전계획과 유기적 연계 필요
  - 현재 3농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근간에 추진될 사업도 존재
  - 각 시·군이 구상하고 있는 농업발전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방안 모색 필요

## ■ 사업기간 : 2014년~2030년

- 현재 3농혁신 2단계 추진사업으로 2030년까지 달성 목표
  - 객관적인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를 통하여 실현성 제고 필요
-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 및 관계자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 5) 지속가능한 임산물, 산림자원 생산 및 가공기반 구축

### ■ 사업목적

- 향후 점차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 산림자원 중 하나인 임산물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생산 및 가공, 자재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앞으로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남이 선도적으로 임산물을 비롯한 충남 내 산림자원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도록 함

### ■ 사업내용

- 임산물 전문생산단지 및 가공, 자재공급과 결합한 융복합단지 조성
  - 지역별 도유림, 사유림, 사유림 중 임산물 전문생산단지 조성
  - 가공기능, 자재공급 기능(배지공급시설 등)과 결합한 임산물 융복합단지 조성
  - 지자체가 나대지, 경작포기지 등을 임대방식으로 매입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방법
- 임산물 재배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임대사업
  - 경사가 있는 곳에서 재배하게 되므로 임야지대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
  - 임산물 전용 농기계 개발(밤 및 호두 수확기), 임업인에게 임대사업 실시
  - 다양한 임산물 품종의 소개와 선택의 폭 확장
- 임산물의 다양한 형태의 가공과 상품개발
  - 임산물 특성 상 단순 날것보다 기본적으로 1차가공 필수
  - 건조시설을 기초로 해서 파쇄 및 분말시설, 포장 개발, 다양한 상품구색 갖추기
  - 충남의 임산물 관련 연합마케팅을 위한 조직화 필요
-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추가확대를 통한 자원보호
  - 지역별 특산품목의 집중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적극 권장과 장려 필요
  - 현재 전국 5위권 내에 드는 임산물로서 밤, 호두, 은행, 도토리, 건표고, 생표고, 목이, 두릅, 취나물류, 독활, 산양삼, 오갈피가 있으나 지리적표시 등록된 것은 밤, 호두, 구기자, 표고버섯 정도
  -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가로 확대하여 충남의 임산물자원 유지와 보호 정책 전개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정책대상 지역은 충남 전체 15개 시군의 임업인
  - 전체 시군이 거의 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책대상에 포함
  - 특히 청양, 부여, 보령과 같이 기존 주요 임산물 생산지역은 1순위
- 대상품목은 오감 공동브랜드 품목 중 임산물 부류, 기타 작목 추가
  - 기존 공동브랜드 품목인 밤, 표고버섯 등 연합마케팅에 임업인 조직화 적극 동참 필요
  - 그 외 산채나물류(취나물은 보령), 구기자(청양), 고사리(전지역), 산양삼(홍성), 약초(금산) 등 작목 추가

표 5-18. 전국 5위권 이내 충남의 임산물 생산현황

품목	지역	생산량(톤)	생산액(억 원)
밤	부여군	15,620	390
	공주시	12,178	284
	청양군	3,993	94
호두	천안시	100	21
은행	공주시	105	5.2
도토리	당진시	1.6	—
견표고	청양군	54.3	11.6
생표고	부여군	2,062	175.3
	청양군	1,320	77.9
	천안시	890	77.6
	서천군	607	
	공주시	—	43.6
목이	부여군	8,730	34.9
두릅	금산군	73.0	10.8
	보령시	69.1	13.7
	천안시	68.1	6.7
취나물류	부여군	606	27.0
	보령시	555	—
독활	금산군	764.2	126.8
산양삼	서천군	—	10.5
오갈피	천안시	141	18.3

자료 : 한국임업진흥원(2015), 우리나라 임산물 생산지도

표 5-19.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현황 (2015년 현재)

등록번호	등록품목	등록일자	대상지역
제4호	정안밤	2006.09.15.	공주시
제11호	청양구기자	2007.02.01.	청양군
제18호	천안호두	2008.12.23.	천안시
제47호	청양표고	2013.12.03.	청양군
제48호	청양밤	2013.12.03.	청양군

자료 : 산림청 제공자료

### ■ 추진방법

- 1단계 : 전문생산단지 조성 위한 이용 가능한 경작지 매입, 임대
  - 임산물 특성 상 넓은 대단위 단지조성보다는 경작포기지, 나대지 등을 중심으로 지대물색
  - 시군 혹은 도가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매입하여 경작자에게 일정계약 기간동안 재임대
- 2단계 : 농기계 개발, 작목의 선택
  - 최근 국내산 임산물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작목을 소개하도록 함
  - 임산물 재배에 적합한 소형 농기계 개발도 국가에 건의, 도 농업기술원 연구진도 공동 참여
- 3단계 : 가공기능 결합한 다양한 상품 구색
  - 충남의 공동브랜드 및 연합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임산물 품목 확대(조직화 가능성 높음)
  - 임산물 유통사업에 결합하기 위한 다양한 임산물 가공상품도 동시에 고려하여 상품구색 준비
- 4단계 : 단기소득 임산물을 비롯한 각종 산림자원의 유지와 보호 노력
  - 지리적표시등록제 품목을 추가확대
  - 임산물을 비롯한 충남 내 각종 산림자원(숲, 모목 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한중 FTA 대책'에 의거한 임산물 분야 대책과 연계
  - 규모화 및 전문화를 위한 전문생산단지, 융·복합 산업화단지 등 조성 추진
  - 가공 및 유통효율화를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생산자 중심
  - R&D확충으로서 신제품,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재배·가공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기술보급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산림청에서 제시한 '한중 FTA 대책 : 10개 품목별 산업발전대책'에 의거한 단기소득 임산물 분야 대책과 연계
  - 주요 임산물 10개 품목(FTA 영향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거나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품목) : 밤, 뽕은감, 대추, 호두, 표고버섯, 산나물류, 산지역용식물, 산양삼, 조경수, 분재 등 단기 소득 임산물
  - 대규모 현대화 시설을 갖춘 생산, 유통,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신제품 개발 등 국내소비와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임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강화, 연구개발을 확대 예정
  - 그 중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서 생산단지의 집단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생산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생산성 제고, 지역특성 및 수출 등을 고려한 신제품 개발 계획 등 예정
  - 가공지원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 및 소비 촉진(저장·가공 기술개발 및 식품 소재화 연구 추진, 품목별 효능 및 요리법 등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 품목별 주산단지를 거점으로 융·복합 산업화 추진(생산·가공·유통 등 6차 산업화로 재배임가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200억 원 투입

### ■ 기타 연계사항

-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발작물 기계화 사업 추가
  - 현재 진행 예정인 발작물 기계화 사업에 더해서 임산물 재배전용 농기계 개발 건의
- 충남농업기술원 연구진도 참여하여 공동개발
  - 경사지가 있고 토양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임산물 재배특성을 고려한 농기계 개발
  - 이를 위해서는 임산물 생산분포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함



■ 사업기간 : 2016년~2030년

■ 참고1 : 단기소득임산물의 산림청-충청남도-지역별 정책

표 5-20. 산림청의 품목별 생산기반 강화대책

품목	예정사업
표고버섯	표고자목 공급확대 및 톱밥배지 표고버섯 생산량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표고자목 전문생산단지 지정확대·공급, 권역별 톱밥배지센터를 설치하여 원활한 배지공급
산나물류	대면적 산나물류 생산단지 조성으로 생산기반을 현대화규모화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나물산 약초 산업화단지」 조성 추진 - 작물생산단지 조성 : ('13까지) 140 → ('14) 42 → ('18까지) 200개소 - 복합경영단지 조성 : ('13까지) 40 → ('14) 27 → ('18까지) 85개소 - 산나물류, 한약초 테마공원 및 체험장 시설 등 지역브랜드화 지원
산지약용식물	생산단지의 집단지화, 규모화를 통해 대량생산 및 산업화 추진 대면적(산지 5ha 이상)의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하여 대량생산 유도 - 조성규모 : ('13) 30개소 90억 원 → ('18) 80개소 240억 원
산양삼	산양삼 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지원 확대 및 우량 산양삼 종자의 안정적 보급을 위한 권역별 종자공급원 조성 - 작업로, 감시시설, 야생조수 퇴치시설 등에 국고 지원 -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에 산양삼 종자종묘 공급원 조성

자료 : 산림청 한중FTA 대책(2014)

• 충청남도의 임산물 관련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

표 5-21. 충청남도 관련 중점추진과제 (경쟁력있는 임산업 육성 중)

품목	예정사업
전체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재, 묘목 공급기능 강화
전체	유기농 임산물의 전환 및 재배단지의 규모화
전체	임산업의 6차산업화 정책 추진
전체	희망산촌 마을만들기의 지속적 추진 및 추진방식 개선
전체	전문임업인 단체 육성 및 유통구조의 확대

자료 : 2015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

• 공주, 보령, 계룡, 부여, 서천, 청양, 홍성군의 임산물 관련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

표 5-22. 지역별 관련 중점추진과제 (예시)

지역	품목	예정사업
공주	밤	밤 연구소 설립
보령	버섯류, 나물류	친환경임산물유통센터 운영 중, 국내산 배지공급기반시설 구축
계룡	산채나물류	산채재배단지 조성
부여	전체	희망산촌 만들기 지원사업, 밤 등 가공제품 기반 조성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서천	전체	특용자원을 조립하여 단기소득과 부가가치 창출
청양	구기자	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활성화 밤 및 표고버섯 단지조성을 통해 수출전용 생산기반 구축
홍성	전체	산림소득 증대사업

자료 : 2015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

참고2 : 산림자원의 산림청-충청남도-지역별 정책

- 산림청에서 제시한‘한중 FTA 대책 : 10개 품목별 산업발전대책’에 의거한 산림자원 대책과 연계

표 5-23. 산림청의 산림자원 생산기반 강화대책

품목	예정사업
수실류	생산단지의 규모화·집단화를 위한 생산기반 시설·장비 지원 및 우량 신품종의 개발·보급으로 경쟁력 강화 - 겸업 위주의 재배형태를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형태로 육성 - 친환경·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 - 지역별·용도별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 확대로 조경수의 규격화·표준화 - 전업임가 중심의 조경수 생산·유통 지원 확대 - 규격화·표준화를 위한 컨테이너 생산체계로의 전환 지원
분재	분재문화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및 해외시장 다변화 - 대중성 있는 중·저가 분재상품의 개발·보급으로 분재수요 창출 - 해외 현지에 맞는 수종 개발·공급 등을 통한 수출 확대

자료 : 산림청 한중FTA 대책(2014)

- 충청남도의 산림자원 관련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

표 5-24. 충청남도 관련 중점추진과제 (예시)

과제	예정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충남 100년의 명품숲조성 및 숲가꾸기사업
	목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자재로 전환
산림병해충 등 산림자원의 보호	산불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의 강화
	사방사업 대상지 실태조사 및 DB구축
	간선임도, 작업임도, 기설임도의 유지·보수
산림휴양 문화 조성 관리	도시숲 확충과 산림경관의 보전 및 관리
	생애 주기별 맞춤형복지 서비스의 확대

자료 : 2015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

- 계룡시 및 서천군의 산림자원 관련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

표 5-25. 지역별 관련 중점추진과제 (예시)

지역	예정사업
청양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서천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특용자원을 조림하여 단기소득과 고부가가치 창출
	우량임목 보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자료 : 2015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

## 6) 임산물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유통·지역가공 기반 강화

### ■ 사업목적

- 충남산 특화된 임산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유통과 지역 내 가공 기반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임업생산-유통-가공체계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 ■ 사업내용

- 거점권역별 임산물산지유통센터(산림조합중앙회) 설치 및 이용지역 확대
  - 보령시의 친환경임산물산지유통센터 가동률 향상을 위한 인근시군의 이용확대
  - 임업인 경영체 품목별 조직화 구성과 작부체계, 생산기술 등의 표준화
  - 지역산 임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자재공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재구성
- 임산물 지역유통 영역의 확장
  -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지역별 로컬푸드 판매장에 충남산 임산물 공급을 확대
  - 영역을 확장하여 농사랑 쇼핑몰 입점상품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및 도로변 판매장 정비를 통한 상품 공급도 고려
  - 임산물은 대부분 건조상품으로서 신선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유통 영역 확장 가능성 높음
- 임산물 지역가공인프라 확장
  - 그동안 농산물 가공인프라에 투자되었던 자금을 임산물의 지역가공 시설구축으로 일부 전환
  - 지역내 유통을 지역내 가공기반 영역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내실을 기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
  - 다양한 상품구색을 위한 기초시설로서 구성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임산물 특화시군 및 해당지역 임업인
  - 임산물 특화시군은 천안, 보령, 부여, 금산, 청양, 서천 등
  - 충남은 밤, 표고버섯, 취나물, 은행, 약초식물 등으로 전국에서 상위순위권 품목 포진(특화도 높음)

### ■ 추진방법

- 1단계 : 충남 내 임산물 생산-유통-가공지도 구성
  - 임산물 특성 상 모든 통계수치가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것도 대다수
  - 충남 시군별 임산물 생산-유통-가공현황을 지도로서 구성
- 2단계 : 생산과 유통, 가공현황에 맞는 인프라 구축
  - 생산은 많으나 지역유통과 지역가공 수요와 불균형하는 지점을 발견
  - 해당지역 혹은 권역별 생산량과 유통량 맞출 수 있는 관련 인프라 구축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대부분의 시군이 생산기반 확충에 집중하는 편으로서 점차 임산물 유통사업 관심 필요
  - 보령시의 경우 친환경임산물유통센터 및 국내산 배지공급기반 시설 구축
  - 점차 임산물 특화시군은 유통센터, 자재공급센터, 가공센터 등의 인프라에 관심 필요

### ■ 국내사례

- 강원도 인제군의 하늘내린산채세상(임산물유통센터, 국도변 지역임산물 직판장)
  - 인제 남면 임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친환경산채 전시판매장, 인제군 임산물산지유통센터
  - 인제 남면 남전1리, 남전2리, 관대리, 부평리, 갑둔리, 정자리 등 6개 마을이 모여서 법인 구성
  - 산림특화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하여 청하람 공동상표 제작, 관련 상품개발
  - FSC 산림인증제도 취득, 다양한 상품구색 갖추
  - 예. 곰취, 질경이, 고사리, 친환경시래기, 묵나물모듬, 얼려지, 인진쑥, 겨울살 등

### ■ 기타 연계사항

- 산림청에서 제시한‘한중 FTA 대책 : 10개 품목별 산업발전대책’에 의거한 단기소득 임산물 분야 유통지원 대책과 연계
  - 상품가치 제고를 위한 명품·브랜드화 지원 : 지역별 특산품목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의 관리 강화
  -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 : 지역별 전문유통센터, 홍수출하 방지 및 가격안정을 위한 시설 등 지원, 상품보호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가공제품의 표준규격 유통체계 구축 등
- 산림조합중앙회의 각종 산하시설 및 사업간 연계
  -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산물유통센터, 임업기술훈련원, 임업기계지원센터 등 시설인프라 적극 신청
  - 생산·유통관련 사업인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공급 및 수출지원 사업
  - 산림버섯연구센터의 산림버섯 종균생산·공급 및 신품종 연구개발, 표고톱밥배지 공급사업 등
  - 임업기술훈련원의 임업기능인 교육, 임업전문교육 등 인적자원 역량강화 사업 연계
  -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장비대여 사업 연계

### ■ 사업기간 : 2018년~2025년

## 2.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 1) 충남 명품 수산물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 사업목적

- 충남 명품 수산물(4대 수산물 + 전복)의 육성을 통한 시장경쟁력 및 수출경쟁력 확보

#### ■ 사업내용

- 충남 명품 4대 수산물(해삼, 김, 바지락, 참굴)의 내수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내수 확대를 위한 수산가공산업 육성 및 산지유통계획 수립
  - 국내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상품 개발
  - 향후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삼, 조미김에 대한 수출전략 수립 및 기반조성
- 해삼 클러스터를 통한 중국시장 교두보 마련
  - 태안, 보령 주변을 해삼 클러스터 산업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 해삼 종묘, 양식기술, 가공기술 등의 선진기술 습득 및 기술 개발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시장 분석 및 판로개척
- 중국 소비자가 좋아하는 조미김 산업 육성
  -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내 조미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원초김과 조미김의 산지인 충남의 김산업을 전략적 육성
  - 현재 “광천 김”, “대전 김”, “서천 김” 등 여러 브랜드를 통하여 수출용 브랜드 개발
  - 조미김 업체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수출방안 마련 및 중국시장에 대한 마케팅 조사·분석
- 광역 브랜드화를 통한 바지락 산업의 전략적 육성
  - 내수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 균일화 및 광역 브랜드 개발
  - 지역 어촌계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현재 일본에 한정되어 있는 수출망을 동남아, 중국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급화 전략 추진
  - 바지락을 활용한 음식개발 및 전통 어업체험, 바지락 축제 등 개최
- 고급 식재료로서의 갯벌 참굴 육성
  - 고급 씨푸드 레스토랑 식재료로서 갯벌 참굴의 가치 홍보·프로모션
  - 프랑스 식재료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중국·홍콩·싱가폴 등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프로모션 강화
  - 원활한 종묘 수급을 통한 생산력 확보 및 어가에 대한 기술 이전 필수
- 수출용 전복 산지로서의 위상 강화
  - 국내에서는 완도가 전복의 산지로서 알려져 있으나, 중국에서는 한국산 전복은 “태안”이라는 이미지를 강화

## 제5부 충남의 기본구상과 대응방안

- 전복 생산의 최적지인 태안을 중심으로 중국시장 진출방안 마련
- “태안 전복”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네이밍 구축을 위한 홍보·프로모션 전개
- 지역 내 종묘 생산, 양식기술 개발, 품질관리, 유통관리 등을 통한 품질균일화 및 브랜드화 추진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어업인(해삼, 전복, 김, 바지락) 및 조미김 생산업체
  - 해삼, 전복, 김, 바지락을 생산하는 어업인 및 전후방산업 관계자
  - 보령, 홍성, 서천의 조미김 생산자
- ※ 참굴은 현재 시범양식 중

### ■ 추진방법

- 1단계 : 명품 수산물 내수·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TF팀 구성
  - 명품 수산물 내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진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및 합의
  - 각 품종별 생산자, 전문가, 학계, 업체의 의견 수렴
  - 각 품종별 분과협의회를 통한 별도의 내수·수출전략방안 모색
- 2단계 : 명품 수산물 생산자조직 구성
  - 5대 수산물 품종별 수출 생산자조직 구성을 통한 수출방안 모색
  - 비관세 장벽(검역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품질 규격화
  - 내수·수출을 위한 유통비, 물류비 공동 대응방안 마련
  - 우수 종묘 공급과 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 방안 마련
- 3단계 : “광역 유통·마케팅조직” 및 “대중국 수출지원단”을 통한 판로개척
  - 내수시장은 “광역 유통·마케팅 조직”을 통한 대형 유통시장과의 직접 교섭
  - 수출은 농산물, 농가공식품과 마찬가지로 “대중국 수출지원단”을 통하여 통합 운영
  - 내수 및 수출시장의 동향 및 트렌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시장 조사·분석
  - 시장진출을 위한 수산물 프로모션 개발 및 수출전략 수립 등
- ※ “광역 유통·마케팅 조직”은 「수산물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참조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명품 수산물 내수·수출 경쟁력 확보 위한 TF팀 구성
  - 충남도, 시·군, 어업인, 유통업계, 수출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
  - 어업인 간의 이해관계, 어업인과 업계 간의 이해관계 등에 따른 갈등 조정
  - 내수 및 수출 수산물 브랜드 개발방안 마련 (예, “충남오감” 계승)
  - 시장진출 및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계획 수립
- 각 시·군별 주요 품종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
  - 해삼 : 보령, 태안

- 전북 : 태안
- 김 : 보령, 홍성, 서천
- 바지락 : 태안, 서산, 홍성, 보령, 서천
- 갯벌참굴 : 태안

## ■ 기타 연계사항

- 충남오감 연합마케팅 사업과의 연계방안 모색 필요
  - 광역 브랜드 “충남오감”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브랜드 위상 강화
- 해양수산부 K-seafood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수산물 수출 증대 및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통합 마케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 사업기간 : 2018년~2030년

-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장기과제로 추진

## 2)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 ■ 사업목적

- 한·중 간의 수산물 교역 증대, 한·중 FTA를 피해가 예상되는 연안 어업·어촌의 지속성 강화

### ■ 사업내용

- 마을어업·양식어업을 활용한 어업·어촌 6차산업화 추진
  - 갯벌체험 및 갯벌 수산물을 활용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어업·어촌 6차산업화 추진
  - 충남 갯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충남 갯벌 활용 및 육성 계획」 수립 및 추진
  - 충남 해양 관광·레저와의 융·복합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방안 모색
  - 마을어업, 양식어업 산지 마케팅조직 육성, 브랜드화를 통한 판로 개척 및 시장경쟁력 강화
  - 각 시·군별 지역 수산물을 이용하는 외식업체(음식점 등)를 인증하는 「참바다」 제도 운영
  - 거점별 수산물 전문 가공시설, 로컬푸드 레스토랑 설치를 통한 지역 수산물 소비 증진
    - ※ 충남 농어업 6차산업화센터 적극 활용
- 해양수산교육을 통한 도어교류 활성화
  - 갯벌과 양식을 해양수산 교육의 장으로 육성하고, 해양수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6차산업화 추진 (체험, 견학, 수학 등)
  -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충남 해양수산캠프」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도시민 유치
    - ※ 「충남 해양수산캠프」는 전국의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갯벌체험, 낚시체험, 어업체험을 주관하는 한시적 기관으로 갯벌, 어업, 낚시 등 전문가들이 안전시설, 장비를 갖추고 운영
  - 충남 “어촌체험마을”을 현재 8개소에서 최대 2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광역단위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마케팅 추진 (※ 공동 마케팅을 위한 「어촌감성」 육성·지원)
  - 중국 요우커가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고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
- 귀어·귀촌을 통한 어촌활력 증진
  - 젊은 층의 귀어·귀촌 장려를 통하여 6차산업화, 해양수산캠프, 어촌체험마을의 우수한 인재로 활용
  - 어업·어촌 멘토·멘티제도를 신설하여 귀어·귀촌인들에게 지역의 선배 어업인이 어업기술을 전수하여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멘토·멘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을기업 등 육성 지원
  - 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 자금 지원 추진
- 여성어업인 역할 강화를 통한 「어촌감성」 증진
  - 충남 고유의 어업·어촌문화, 수산물 식문화, 어촌의 자연경관 등을 대외로 홍보하는 「어촌감성」 정책 추진
  - 「어촌감성」 정책의 추진주체로서 충남 여성어업인 조직을 활용하고, 이를 통한 마케팅, 홍보, 프로모션, 음식개발, 지역경관 소개 등의 역할 부여



- 여성어업인에 대한 역할 부여를 통한 여성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여성어업인 소득 창출 기여
-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적극 참여를 통한 어촌사회 복지제도 확대
- 어촌체험마을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육성

#### • 자율관리공동체를 사회적기업(마을기업)으로 육성

- 수산자원관리의 최소단위 실행주체였던 자율관리공동체를 우수 공동체에 한하여 사회적기업(마을기업)으로 육성
- 기존의 자율관리공동체는 어업자원보호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어업인 소득창출 및 증대를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미흡
- 조성된 자원을 바탕으로 수산물 가공, 어촌체험, 어촌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으로의 육성방안 모색
- 현재 우수 공동체로서 졸업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원방안 및 사업자 공모 추진

#### • 충남 어촌사랑운동 및 수산물 소비운동 전개

- 충남 수산물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개발, 요리경진 대회, 어촌걷기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충남 어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 증대
- 지역 기업과 연계한 어촌방문, 해양 쓰레기 수거, 어촌 일손 돕기 등 적극 장려
- 「재밋고 활력있는 충남 어촌」을 캐치 프레이즈(catch-phrase)로 하는 광역차원의 충남 어촌사랑운동 전개
- 지역 내 크고 작은 수산물 축제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연계한 통한 수산물 축제 개최
- 중국 요우커들을 충남 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시설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도시의 관광서, 기업,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자매결연을 통한 도시민 유치 및 수산물 판로 확보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 충남 연안 6개 시·군 어촌계 및 어업인 등

- 어업·어촌 6차산업화 : 연안 6개 시·군 어업인
- 도어교류 활성화 : 연안 6개 시·군 어업인
- 귀어·귀촌 : 연안 6개 시·군 어업인 및 귀어·귀촌인
- 여성어업인 「어촌감성」 : 연안 6개 시·군 여성 어업인
- 자율관리공동체 사회적기업 : 연안 6개 시·군 자율관리공동체
- 충남 어촌사랑 : 연안 6개 시·군 어업인

### ■ 추진방법

#### • 1단계 : 연안 어업·어촌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 추진

- 연안 어업·어촌 지속성 확보를 위한 충남도, 시·군, 어업인, 전문가 등의 공론화를 통한 정책 방향 설정
- 각 세부사업에 대한 시·군, 어업인,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세부 사업계획 수립

- 2단계 :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 현재 추진 중인 어업·어촌 6차산업화, 어촌체험마을, 귀어·귀촌 정책에 안정적 정착 유도
  - 신규사업인 해양수산교육을 통한 도어교류, 여성어업인 「어촌감성」, 자율관리공동체 사회적기업, 어촌사랑운동 등에 대한 단계적 추진으로 정책 효율성 제고
- 3단계 : 연안 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협의회 운영
  - 과소화·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수입 수산물 증대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점점 결여되는 충남 연안 어업·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논의기구 설립 필요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충남 연안 6개 시·군 어촌계 및 어업인
  - 어업·어촌 6차산업화 : 연안 6개 시·군 어업인 (※ 충남 농어업 6차산업화센터 중간지원)
  - 도어교류 활성화 : 연안 6개 시·군 어업인 (※ 충남 농어업 6차산업화센터, 충남수산연구소 중간지원)
  - 귀어·귀촌 : 연안 6개 시·군 어업인 및 귀어·귀촌인 (※ 충남수산물관리소 중간지원)
  - 여성어업인 「어촌감성」 : 연안 6개 시·군 여성 어업인 (※ 충남 농어업 6차산업화센터 중간지원)
  - 자율관리공동체 사회적기업 : 연안 6개 시·군 자율관리공동체 (※ 충남 사회적경제센터 중간지원)
  - 충남 어촌사랑 : 연안 6개 시·군 어업인 (※ 충남 농어업 6차산업화센터 중간지원)

### ■ 기타 연계사항

- 충남 3농혁신 각 단, 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필요
  - 3농혁신 내 청정수산추진단, 유통혁신추진단, 소비혁신추진단, 지역혁신추진단, 역량강화추진단과 긴밀한 협조 필요

### ■ 사업기간 : 2018년~2030년

-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장기과제로 추진

### 3) 수산물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 ■ 사업목적

- 수산물 산지조직화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 로컬푸드를 통한 어가 및 어촌계의 시장경쟁력 강화

#### ■ 사업내용

- 산지중심의 마케팅조직 육성을 통한 충남 수산물 브랜드 개발 추진
  - 충남 수산물 브랜드를 통한 시장경쟁력 및 교섭력 강화 필요
  - 충남 대표 수산물 중 산지조직화가 가능한 품종을 대상으로 브랜드화 추진
  - 산지중심의 마케팅조직 육성을 통한 유통, 물류, 프로모션·홍보 비용 절감
  -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 및 시장에 대한 광역차원의 공동대응
  - 브랜드 수산물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 등을 통한 품질 균일성 및 규격화 추진
  - 바지락, 꽃게, 해삼, 전복, 조피볼락, 김 등 추진 가능
    - ※ 타지역 수산물 브랜드: 경남 청경해, 영광법성포 굴비, 안동간고등어 등
-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 “수산물 로컬푸드” 추진
  -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 로컬푸드 정책과 연계를 통한 수산물 로컬푸드 실현
  - 충남에서는 2016년까지 전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 (※ 현재 8개 시·군 운영 또는 설립 중)
  -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급식용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충남도 차원의 대비 미비
  - 미래 소비주체인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 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수산물 소비자 확보
  - 지역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을 통한 유통망 확대 필요
    - (※ 주로 농산물 중심의 로컬푸드 직매장이기 때문에 광역단위 수산물 공급 필요)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수산업 전반 및 연안 6개 시·군 어업인
  - 산지조직화 : 바지락, 꽃게, 해삼, 전복, 조피볼락, 김 어업인
  - 로컬푸드 : 연안 6개 시·군 어업인
  - 6차산업화 및 수산산업 : 연안 6개 시·군 어업인

#### ■ 추진방법

- 1단계 : 충남 수산물 유통확대 TF팀 운영
  - 현재 충남 수산물 유통확대 TF팀 운영을 통한 산지조직 육성, 수산물 브랜드, 로컬푸드, 6차산업화 대하여 논의 중
  - 충남도, 수협, 어업인 단체, 수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 하여 운영 중

- 2단계 : 수협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유통·마케팅조직” 육성
  - 지역 수협을 중심으로 사·군별 동일 업종의 어촌계를 묶는 산지 마케팅조직 전략적 육성
  - 산지 마케팅조직을 총괄하는 역할로서 “광역 유통·마케팅조직” 운영
  -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 납품을 위한 전처리 시설 설치 추진 (FPC 등 설립)
  - 공동 유통·물류, 공동마케팅을 통한 비용절감 및 시장교섭력 강화
- 3단계 : “광역 유통·마케팅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사업 확장
  - 산지 마케팅조직 및 광역 유통·마케팅조직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가
  - 각종 유통·물류, 프로모션, 홍보 비용 절감을 통한 어업경영 개선
  - 홈쇼핑, 인터넷 쇼핑, 대형마트 납품 등을 통한 유통판로 개척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충남도는 수협의 참여를 독려하고, 산지 마케팅조직, 수산물 브랜드 개발, 시설지원 등을 위한 주도적 역할 필요
- 충남도, 충남 6개 시·군의 협력관계 필요
  - 산지 마케팅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충남도 및 각 시·군의 절대적인 협조 필요
- 지역 수협의 주도적 역할 주문
  - 산지 마케팅조직을 총괄하고, “광역 유통·마케팅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협의 주도적인 역할 필요

### ■ 기타 연계사항

- 충남 농산물 광역브랜드 “충남오감”의 노하우를 배우고, 연계방안 모색 필요
  - 기 추진 중인 “충남오감”과의 연계방안 모색을 통한 통합 브랜드로서의 위상 강화
- 해수부의 수협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 FPC 추진 등 수협을 중심으로 하는 수산물 유통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필요

### ■ 사업기간 : 2016년~2030년

- 철저한 사업준비를 통한 중·장기 과제로 추진 필요

#### 4) 환황해권 수산업 공동 상생·발전 사업

##### ■ 사업목적

- 불법어업으로 얼룩진 서해안권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충남도 - 산둥성 간의 공동 상생·발전
- 서해어장을 둘러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접근으로 해결 불가능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관계형성과 협력 논의
  - 양국 어업인이 중심이 되어 민간차원에서의 접근과 상생발전방안 모색

##### ■ 사업내용

- 한중의 충남-산둥성 간 수산업 공동상생 발전 협력
  - 해당 지자체 어업인(충남도, 중국 산둥성) 간의 논의의 장 마련 및 민간협력 방안 모색
  - 어업인 인적 교류 및 어업문화 공유, 어족자원 보호 공감대 형성, 어업권 논의 등을 통한 민간 교류로 불법어업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 미래 어업인 세대의 한-중 교류 촉진 및 중국 양식기술 습득을 위한 인적 교류 추진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및 중국 산둥성 인근 연안 어선어업자
  - 충남의 꽃게, 멸치, 넙치 등의 어선어업인 및 연안 어업인
  - 중국 산둥성의 연안 어선어업인 (불법어업자 포함)

##### ■ 추진방법

- 1단계 : 충남도와 중국 산둥성 간의 불법어업 관련 협의회 추진
  - 양 지자체 간의 불법어업 공동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와 관련된 협의회 추진
  - 양 지자체별로 연안 어업인 설득 및 협의회 참여 독려
- 2단계 : 충남 어업인과 중국 산둥성 어업인 간의 민간협의회 구성 및 교류촉진
  - 양 지자체 간의 협의회 외 민간차원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 확보
  - 같은 어업종사자로서의 유대감 확인 및 서해안 어족자원 보호, 불법어업 퇴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3단계 : 어업 문화, 역사, 산업 등에 대한 전방위적 교류
  - 양 지자체간 어업 문화, 역사, 산업 등에 대한 교류 활성화로 불법어업 퇴출 방안 모색
  - 양 지자체간 교류를 통한 수산업 발전 및 환황해권 어업문화 정착 도모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충남 연안 6개 시·군의 연안 어선어업인
  - 특히 불법어업의 피해자인 꽃게 어선어업인 중심
  - 충남의 해양수산업뿐만 아니라 대외협력 담당부서에서도 관심 필요

- 충남과 서해안을 맞대고 있는 산둥성 등의 중국 지자체
  - 산둥성을 정면으로 맞대고 있으나, 필요 시 인근 강소성, 하북성, 요녕성과의 추진

### ■ 기타 연계사항

- 해양수산부 불법어업대책 및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방안 모색 필요
  - 국가의 불법어업대책의 연장선에서 추진하고, 가능한 민간협력차원의 교류라는 점을 강조
  - 인근 지자체(인천, 경기, 전북)와의 공동연계방안 모색 필요
- 불법어업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어업문화 보전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큼
  - 환황해권 어업 및 어업문화 보존·확산은 환황해권 발전을 위한 기본전제라는 인식 필요

### ■ 사업기간 : 2018년~2030년

-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장기과제로 추진

## 지역 및 교류협력 부문

### 1. 지역브랜드 강화

#### 1) 푸드 비즈니스 및 투어 육성 사업

##### ■ 사업목적

- 시·군 농산물, 향토식품을 활용한 지역 비즈니스·산업 진흥

##### ■ 사업내용

- 각 시·군의 농수축산물을 활용하여 시·군별 향토음식 개발
  - 추사밥상, 교항밥상, 무령왕 수라상, 고수록, 계국지, 조피불락젓국, 참계탕, 박속낙지탕, 박대젓국 등 지역 대표 향토음식을 육성하여 외식산업으로 연계방안 추진
  - 개발한 향토음식을 외식업체에 보급하여 지역 향토음식으로 전파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
  - 충남의 지역적 특색인 발효식품에 대한 전략적 육성 및 마케팅 강화
  - 시·군별 외식업체 지정, 道외 진출업체 지정
- 지역 가공식품, 향토식품을 통한 푸드 비즈니스 추진
  - 지역 가공식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략 가공식품 선정, 먹거리 페어 등을 통한 지역 가공식품의 실태 파악 및 대외 인지도 제고
  - 지역 원물을 활용한 단계적·체계적 사업을 통한 푸드 비즈니스 추진
  - 쌀, 친환경 농산물 등 가공이 어렵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농수산물 가공으로 가치 제고
- 지역 농수산물, 가공식품, 향토식품과 연계한 푸드 투어 추진
  - 충남 지역 농수산물, 가공식품, 향토식품을 연결하는 투어 맵(tour map) 개발
  -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농업 체험 및 가공 체험
  - 충남 전통문화권, 자연경관과 결합하여 해당 시·군의 식문화와 연계된 4계절 관광상품 개발
  - 음식을 통한 중국 요우커 유치를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 기여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15개 시·군의 농업인 및 식품가공업체
  - 충남의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해당 농업인
- 충남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및 가공식품이 대상
  - 추사밥상, 교항밥상, 고수록, 계국지, 조피불락젓국, 참계탕 등

##### ■ 추진방법

- 1단계 : 충남 대표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디렉토리 구축 및 육성방안 마련

- 충남의 식품가공업체에 대한 디렉토리 구축을 통한 실태 조사
- 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 마련
- 2단계 : 지역 가공식품, 향토식품을 통한 푸드 비즈니스 추진
  - 전략 가공식품 및 향토식품 선정, 지역 먹거리 페어 등 개최
  - 인재 육성, 전문가 초청 세미나·워크숍·박람회 개최, 판매채널 개척, 식품가공산업 D/B 구축 등
- 3단계 : 지역 먹거리와 연계한 푸드 투어 추진
  - 지역내 먹거리와 연계한 푸드 투어 상품 개발
  - 푸드 투어 맵 개발을 통한 상품성 제고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충남도, 충남 15개 시·군이 협력적으로 추진 필요
  - 충남 3농혁신 2단계 목표 및 추진전략을 계승하고, 실현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

### ■ 기타 연계사항

- 농식품부의 6차산업화 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 기타 농식품부, 충남도 사업과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
- “충남 식문화 및 외식산업 대중국 진출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우수 시·군 가공식품, 향토음식은 선별하여 중국시장 진출 유도

### ■ 사업기간 : 2018년~2030년

-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장기과제로 추진



## 2) ICT를 이용한 6차산업화 경쟁력 강화

### ■ 사업목적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6차산업화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 ■ 사업내용

- 첨단 정보통신산업과 전통 향토산업의 전략적 연계 추진
    - ICT를 활용하여 농촌체험마을, 체험농장, 관광농원 등의 도농교류 강화
    - SN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도시 소비자 대상의 관계마케팅 강화
    - 지역 홍보·안내, 6차산업화 경영체 소개, 로컬푸드 정보 제공 등 소비자와의 소통 매개체로 활용
    - “농사랑”등의 官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지역정보 제공
  - 온라인 - 오프라인 결합을 통한 6차산업화 모델 창출
    - 오프라인 중심의 6차산업화 경영체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현재 운영 중인 “안테나숍”의 인터넷 판매를 통한 소비자와의 교류 강화
    - 통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체험·관광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모집하고, 실제 체험·관광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 결합 모델 추진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통한 농어업 6차산업화 투자모델 개발
    - 인터넷을 활용하여 개별 투자자로부터 소액을 투자받아 6차산업화 경영체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에 현물로 투자금액을 돌려주는 방식
    - 현재 “농사펀드”라는 인터넷 업체가 농업분야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官 중심의 crowd funding 조성으로 공익성 강화
    - 6차산업화 제품은 가공식품으로 신선 농산물로 투자금액을 상환하는 농업분야보다 투자금에 대한 손실 우려가 적음
    - 농어촌 지역의 향토자원, 역사·문화 등을 활용하여 사업 아이템으로의 개발역량 강화
- \* 참고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란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하여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출처 : 위키백과사전)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15개 시·군 주민 및 농어업인

### ■ 추진방법

- 1단계 : “농사랑”등을 활용한 소비자와의 소통·교류 강화
  - “농사랑”, SNS를 활용하여 소비자와의 소통강화
  - 인터넷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지역정보, 관광·체험정보 제공 등 정보전달 강화
  - 지역 브랜드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관계마케팅의 매개체로 활용

- 2단계 : 온·오프라인 결합형 6차산업화 추진
  - “안테나숍”의 온라인 판매 추진
  - 도농교류에서의 온·오프라인 복합모델 창출
- 3단계 : crowd funding을 통한 투자모델 개발
  - crowd funding을 통한 6차산업화 투자모델 개발로 농업인의 자금부담 감소
  - 투자금 부담 감소를 통한 상품개발 증진 기대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충남도, 충남 15개 시·군이 협력적으로 추진 필요
  - 충남 3농혁신 2단계 목표 및 추진전략을 계승하고, 실현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

### ■ 기타 연계사항

- 현재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농사랑”과의 전략적 제휴 필요
  - “안테나숍”, “crowd funding” 등 사업에서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사이트에 집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사업기간 : 2014년~2030년

- 현재 추진 중인 6차산업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신규사업 추가

### 3) 도시농업 및 소비교류 사업

#### ■ 사업목적

- 도시농업과 소비교류를 통한 지역 농업, 농산물, 농식품에 대한 가치 제고

#### ■ 사업내용

- “착한소비·식생활” 운동 추진·전개
  - 충남도 출향인 또는 지역주민에게 지역 농산물 애용을 위한 「착한소비」 운동 추진
  - 농산물 가격변동에 따라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농업, 농촌, 농업인의 가치를 고려하여 구매하자는 적정가격 구매운동 추진
  - 식품쓰레기 절감 및 바른 영양 섭취를 위한 식생활 가이드라인 지정 추진
  - 지역 어린이·청소년에게 지역 농수산물을 제공하여 미래 소비자로 육성하기 위한 운동 전개
- 학교·회사 논·밭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농업 실현
  - 도시민의 농업, 농촌, 농산물, 농업인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학교 및 회사의 공터를 활용한 소규모 논·밭 프로젝트 추진
  -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착한 소비”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육성 (강연회, 세미나, 워크숍 등도 함께 추진)
  - 지역 학생들에게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미래의 농업인, 소비자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도시 직장인에게 귀농·귀촌 계기를 제공하고, 귀농·귀촌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 소비자 중심의 “찾아가는 로컬푸드·농촌관광” 추진
  -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 농촌체험마을을 지역 농산물 소비의 거점으로 육성
  -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촌체험마을 육성
  - 산지 로컬푸드 직매장의 영역을 확대 하여 단순한 소매점의 역할이 아닌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농업·농촌 복합 문화시설로 육성
  - 현재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직거래 장터의 D/B를 구축하여 지역 역사, 문화, 스토리, 경관, 공연, 사람들과 연계될 수 있는 「향토문화시장」으로 육성
  - 농촌체험마을에 로컬푸드 식당, 마을형 직판장 등을 운영하여 체험마을을 찾은 소비자가 지역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로컬푸드 직매장, 농촌체험마을의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탐차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마을 직판장 사업」 추진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15개 시·군 주민 및 농어업인

#### ■ 추진방법

- 1단계 : “착한소비·식생활”운동 추진

- 현재 충남도 차원의 착한소비, 식생활 개선 운동 추진 중
-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통한 “착한소비·식생활”운동의 안정적 정착유도 필요
- 2단계 : 학교·회사 눈·발 프로젝트 추진
  - 농업·농촌의 가치 제고, 로컬푸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도시농업 사업 추진
  - “착한소비·식생활” 및 “귀농귀촌”과 연계 필요
- 3단계 : “찾아가는 로컬푸드·농촌관광” 추진
  -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로컬푸드 직거래 방안 마련
  - 다양한 직거래 루트 개발을 통한 소비자와의 교류 확산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충남도, 충남 15개 시·군이 협력적으로 추진 필요
  - 충남 3농혁신 2단계 목표 및 추진전략을 계승하고, 실현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

### ■ 기타 연계사항

-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사업과 연계 필요
  - 충남도 로컬푸드 정책과의 연계 필요
  - 기존 로컬푸드, 도농교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시민·소비자와의 교류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 사업기간 : 2014년~2030년

- 현재 추진 중인 3농혁신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확대방안 마련 필요

## 2.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 1) 중국인 농촌체험관광객 유치에 위한 기반 구축

#### ■ 사업목적

- 농업부분의 손실을 농촌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굳이 한중FTA 체결이 아니더라도 향후 우리나라 농업은 중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을 농촌에서 찾을 필요가 있음
  -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농촌건설, 향촌개발, 신형도시화 등 농촌개발사업들이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개발 경험을 배우길 희망함
- 대도시 위주로 몰리는 중국 관광객의 충남도 농촌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현재 관광의 패턴이 쇼핑 위주에서 체험과 힐링 위주로 변화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2016년부터 서산시 대산항에서 산동성 룡청시 룡연항으로 가는 여객선이 취항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의 농촌 유치에 대한 준비가 필요

#### ■ 사업내용

- 충남 농촌체험관광의 매력과 우수성 홍보
  - 충남 농촌체험관광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중국어 자료 제작
  - 홍보 책자, 팸플렛, 레플렛 등 충남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
  - 충남 농촌을 소개하는 동영상 제작해 중국 내 지방방송사(특히, 산둥지역)에서 홍보
- 안내판 등 전반적으로 중국 관광객 편의를 위한 간판 정비
  - 도로 안내판, 입간판, 유명 관광지 및 유적지 입간판 및 설명서, 농촌관광 관련 안내판 및 설명서 등 전체적으로 정비 진행
- 충남도 고품질 농수산품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지역단위 기반 구축
  - 중국은 현재 지역단위에서 한중FTA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도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시장에서 각광을 받거나 발전 잠재력이 있는 농수산물에 관한 정보와 수출상품이 생산 및 집결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가칭)‘충남도 친환경농산물 대중국 수출 특화 지구’(이하 ‘특화 지구’) 조성
  - 현재 홍성군이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된 것과 같이 아산, 부여, 서산 등 친환경농수산품이 많이 생산 및 판매되고 있는 지역을 ‘충남도 친환경농산물 대중국 수출 특화 단지’로 지정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 ■ 정책대상

- 우선적으로 여건이 가능한 농촌체험관광 관련 마을과 농가
  -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농촌마을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충남도 전체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및 판매 농가나 단체
- 고품질 농수산물 가공 및 판매 단체나 기업
-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및 판매가 특화된 사군 지자체

### ■ 추진방법

- 1단계 : 중국인 관광객의 우리나라 농촌체험 및 휴양 실태 파악
  - 특히, 제주도 및 경기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우리나라 농촌관광 실태 파악
- 2단계 : 중국인 농촌체험 관광객을 위한 거점별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체험농가를 지정
  - 외국인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춘 농촌체험휴양마을 혹은 체험농가 가운데 거점별 몇 개 마을을 선정하고 중국인 농촌체험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 3단계 :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평가가 좋을 경우 확대 실시
  - 2016년 서산 대상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촌체험관광 시범 실시
  - 이후 성과가 좋을 경우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감.

### ■ 추진체계

- 충남도와 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
  - 충남도 농정과-충남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각 사군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체험마을 및 체험 농가가 연계해 추진
- 일반 명승지와 도로 및 입간판의 중국어 안내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동
  - 환황해시대를 맞아 충남도 전체가 중국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선 명승지, 주요 시설, 도로 안내판과 입간판 등을 서서히 중국어 병기 실시
- 충남도
  - 농촌체험마을, 교육농장 종사자, 식농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을 구성함
  - 농업교육, 농정홍보 예산 등을 확보

### ■ 기타 연계사항

- 중국관광객 유치 관련해서는 전문여행사, 에이전시와 연계해 추진
  - 서산 대상항에서 중국 왕래 여객선이 취항하는 만큼 해당 여객선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체험관광 관련 여행상품 개발 필요
- 농촌체험관광 관련 중국인 교육 및 연수 관련해서는 중국의 지방정부나 관련 기관과 연계해 추진
  - 예를 들어, 충남도 및 각 사군의 교류단체와 협약을 통해 중국인 농촌체험관광 연수단을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특히, 충남도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무원교육원 등 관련 연수시설에서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 농촌체험관광 연수단 교육과정을 개설해 실시함

### ■ 사업기간 : 2016년~2030년

- 계속사업으로 추진

## 2) 대중국 교류협력의 거점 확보

### ■ 사업목적

- 농수산업을 비롯해, 산업, 정보, 문화,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거점 확보 필요
  - 충남도는 현재 중국 상하이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산동성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고 향후에도 이 지역과 교류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판단해 이 지역에 대한 거점 기지 확보 필요
  - 특히,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농산물의 대부분은 산동성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농업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정보 수집과 우리 농수산품의 대중국 수출의 교두보로서 산동성 지역에 거점 기지 건설 필요함

### ■ 사업내용

- 산동성에 충남도 사무소 설치
  - 산동성 가운데 대도시이자 해안도시인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중 한 곳에 충남도 사무소를 설치해 교류협력의 교두보를 마련
- 농업, 수산업, 일반 산업, 문화, 교류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 진행
  - 산동성은 충남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역사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특히, 2016년부터 서산시 대산항과 룡청시 룡옌항 간 여객선 취항 예정인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지역 정보 수집 및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함

### ■ 정책대상

- 사무소 설치는 중국 산동성 연해안 도시지역
- 이용 대상은 모든 충남도민
  - 그 가운데 특히, 농식품 생산 및 유통업자, 일반 산업체 관계자, 무역업자, 유학생, 문화예술인 등이 주로 이용

### ■ 추진방법

- 1단계 : 중국 내 충남도 중국사무소 추가 설치 의견 타진
  - 충남도청 내 범부서적인 의견 수렴 필요
  - 타 지자체 중국사무소 설치 현황 파악
- 2단계 : 충남도 주중 중국사무소 추가 설치에 의견이 높은 경우 본격 준비
  - 사무소 추가 설치 허가 시 TF팀을 구성에 본격 착수
  - TF팀에서는 사무소 위치, 예산, 인원, 역할 등을 결정
- 3단계 : 중국 산동성 내 충남도 중국사무소 설치 및 활동 개시
  - 만약 충남도 차원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산하기관에서 중국 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리포터 운영
  - 리포터 운영은 충남연구원, 충남경제진흥원 등에서 운영할 수 있음

## 제5부 충남의 기본구상과 대응방안

### ■ 추진체계

-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충남도 15개 시군과 산하 기관과 연계해 추진
  - 충남도청 경제산업실 기업통상교류과가 총괄 담당해 추진
  - 필요시 충남도청-충남연구원-충남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추진

### ■ 기타 연계사항

- 필요 시 당진시,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등 중국 진출에 관심이 많은 연해안 시군 지자체와 연계해서 추진함
  - 서산시의 경우 2016년 산둥성 룡청시에 여객선을 취항시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서산시와 협력해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음
- 충남경제진흥원에서 대중국 수출 전시 및 상담에 관한 여러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사무소 설치 고려 필요
  - 현재 상하이사무소 한 곳으로는 충남도 대중국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더욱이 환황해지역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더욱 긴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 필요
  - 경기도의 경우 중국 내 여러 대도시에 경기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 경기도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중국 진출 편의 제공하고 있음

### ■ 사업기간 : 2016년~2020년

- 만약 충남도 주중 사무소 추가 설치가 결정된다면 2020년까지 설치 완료 필요

그림 5-16. 산둥성 영성시 해양박람회센터



자료 : 중국현지촬영(2015.10.30)



### 3) 지역 농업 문화유산 계승 발전 사업

#### ■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과소·고령화와 도시의 확장으로 사라져가는 농촌마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마을의 오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보전·계승해 이를 마을발전에 활용

#### ■ 사업내용

- **중요 농어업유산의 지속적 발굴과 보전**
  - 금산 인삼농업이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받은 것처럼 충남도 내 중요 농업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존해 나감
    - \* 금산 인삼농업은 현재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 받는데 이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금산 인삼농업에 이어 충남도 내 각지에 산재한 다양한 농어업 자원이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 나아가 세계 중요 농어업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 현재 태안·독살이 어업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 **농촌마을 아카이브 사업 확대 추진**
  - 농촌마을을 기반으로 한 선조들의 유구한 전통문화와 유산이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의 확대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록하고 보존·계승함
  - 최근 충남도 내 천안시, 공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지역 및 마을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통해 지역 및 마을 내 역사, 문화, 전통, 유산, 인물 등에 관해 기록하는 작업을 실시 중에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기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
- **농촌마을축제 지원**
  - 지역에서 보존가치가 높고 농촌주민들에게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자원, 역사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한 축제의 경우 지자체가 일정 부분 예산 및 홍보 지원
  - 현재 지자체 단위로 수많은 축제가 개최되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지원에 대해 반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기존의 축제는 대규모 관 주도의 낭비성 축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는 마을주민이 주도해 마을의 역사문화를 보전하고 농업유산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소규모 마을축제에 대한 지원은 필요

#### ■ 정책대상 및 내용

- **중요 농어업 유산**
  - 충남도 내 중요 농어업 유산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세계급, 국가급, 충남도 및 시군급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
  - 중요 농어업 유산을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 **농촌마을 아카이브**
  - 농촌마을 가운데 보존 및 계승 가치가 있는 마을에 대해 마을조사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
  -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우선 시·군 단위로 실시함. 해당 지역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전 자료조사와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중요 마을을 선정해 조사함

- 마을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자료(마을지)는 마을에 보급해 마을의 전통문화와 만들기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 • 농촌마을축제

- 농촌마을축제는 농업자원, 전통문화자원, 생태자원, 지역인물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이 가운데 농촌마을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발전시키고 마을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축제를 선정해 지원

## ■ 추진방법

### • 1단계 : 농업자원과 마을에 관한 기초 실태 파악

- [중요 농업유산] : 중요 농업유산 실태 파악
- [농촌마을 아카이브] :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마을에 대한 기초 정보 파악
- [농촌마을축제] :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마을축제 파악

### • 2단계 : 중요 농업유산 및 마을에 대한 보존 및 계승 활동 전개

- [중요 농업유산] : 중요 농업유산 지정 및 활용
- [농촌마을 아카이브] : 마을의 역사, 문화, 인물, 생태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수집해 기록 및 정리
- [농촌마을축제] : 소규모 마을축제 개최

### • 3단계 : 중요 농업유산 및 마을 자원의 지속적, 체계적 관리 운영

- [중요 농업유산] : 중요 농업유산의 지속적 발굴과 체계적 운영 및 활용을 통해 농어촌의 부가가치 창출
- [농촌마을 아카이브] : 각 시군, 동·읍·면, 리 등 지역단위 다양한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유도하고 이를 충남도 혹은 각 시·군에서 통합 관리함
- [농촌마을축제] : 기본적으로 마을주민이 주도해서 축제를 추진하되 필요시 행정기관 및 외부 사회 단체와 연계해 추진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 충남도가 주도하되 실시는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농촌마을축제는 마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외부 지원

## ■ 기타 연계사항

- 세계 중요 농업유산 지정은 우선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추진
- 농촌마을 아카이브 구축은 각종 마을만들기사업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 충남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잠정)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사업기간 : 2016~2030년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

#### 4) 중국 농촌지도자 및 농정담당자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 ■ 사업목적

- 충남도의 선진적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중국 농정담당자들의 관심 증가에 따른 교육 기회 제공
- 중국 농정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충남도의 농업·농촌정책 홍보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

##### ■ 사업내용

- 중국 고위급 농정담당 지도자 정책연수
  - 중국의 성(省)단위, 직할시 단위 농정담당 고위급 인사를 대상으로 한 충남도 농업·농촌정책 연수
  - \* 2015년 9월,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이 주관한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당시 중국측 지방정부 고위 농정지도자와 연구원들은 충남도의 3농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도-성 간 교류뿐만 아니라 기층단위 농정 담당자들 간 인적교류 활동을 희망
- 중국 시현급 농정담당 지도자 정책연수
  - 중국의 시, 현 단위 농정담당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충남도 농업·농촌정책 연수
- 중국 농촌마을 지도자 정책연수
  - 중국 각 농촌지역의 촌장(촌서기), 향장, 진장(鎮長) 등 기층단위 농정담당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충남도 농업·농촌정책 연수

##### ■ 정책대상 및 교육 내용

- 정책대상은 충남도의 자매결연 및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를 우선 대상으로 함
  - 현재 충남도는 중국의 하북성 및 흑룡강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산둥성, 연변조선족자치주, 길림성, 강소성, 운남성 등 10개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농정에 관심이 있는 중국의 각 성과 지방정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정책연수를 실시함
  - 특히, 충남도 각 시·군과 자매결연 및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의 각 지방정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함.
- 교육 및 연수 내용은 농촌관광, 농업6차산업화, 친환경농업 및 로컬푸드 등 충남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진적 농업·농촌정책임
  - 최근 중국은 빠른 경제발전과 과도한 도시화로 인해 환경오염과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도시인들이 점차 전원생활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어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농어업6차산업화사업은 충남도의 대표적인 농정사업으로 현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음.
    - \* 최근 중국 농업부 농정담당자들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충남연구원 농어업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방문해 충남도의 농업6차산업에 관한 정책을 학습하기도 함.
  - 충남 홍성군은 우리나라 최초로 ‘유기농업특구’지정될 만큼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로컬푸드와 학교급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은 향후 중국 농정 추진 담당자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그림 5-17. 중국 농업부 관계자 충남도 농어업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방문



자료 : 충남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 지원센터(2015.09.02.)

### ■ 추진방법

- 1단계 : <중국 농정지도자 충남도 정책연수>(가칭) 실시를 위한 TF팀(또는 협의회) 구성
  - TF팀 구성은 충남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경제산업실 기업통상교류과(중국팀), 충남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과,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등으로 구성
  - TF팀에서 중국측에 대한 정책연수 수요 파악 및 프로그램 구성
- 2단계 : <중국 농정지도자 충남도 정책연수>(가칭)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은 각 성급, 직할시급 지방정부의 농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시범사업 비용은 충남도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이후 사업이 정착되면 충남도는 숙박비 정도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국측에서 부담하도록 유도
  - 시범사업 기간은 단기과정(5일~2주일) 위주로 실시하되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3단계 : 시범사업 평가 후 긍정적인 결과 도출 시 확대 실시
  - 대상별, 기간별, 주제별 정책연수를 실시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 시 지속사업으로 추진

### ■ 해당 기관 및 추진체계

- 충남도(농정국, 경제산업실, 농업기술원, 공무원연수원)-충남연구원-각 시군-농촌체험마을과 유기적 연계 실시
  - 정책연수 수요는 충남도 농정국과 경제산업실에서 파악하고 교육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원과 충남연구원 등에서 구성하며 연수는 공무원연수원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견학 실시

### ■ 기타 연계사항

- 각 시군 농정 관련 조직, 농촌체험마을 및 농가, 로컬푸드매장, 농협 등과 연계해 추진
  - 연계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관 및 조직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 사업기간 : 2016년 시범사업 실시 후 지속 추진

## 5) 중국농업 이해 및 현지 연수 프로그램 개발

### ■ 사업목적

- 한중FTA 타결로 인해 중국의 농업시스템의 변화가 향후 우리나라 농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농업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필요
- 중국농업시스템에 대한 이해 확대를 통해 충남도 농업과 농식품의 중국시장 진출 모색

### ■ 사업내용

- 중국농업 이해를 위한 현지 연수 실시
  - 중국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국가(집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체계가 다르지만 국가와 지방정부 주도의 빠른 산업화와 규모화를 통해 수출농업을 적극 추진해 현재 전 세계에 많은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음
    - \*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산둥성, 강소성, 흑룡강성 등에서는 수출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규모 지역 단위 농식품수출기지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농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마을단위 집체경영이 매우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기업(충남도의 두레기업)의 경영에 많은 시사점 제시
  - 반면, 중국은 내부적으로 고질적인 식품불안전문제가 존재해 중국의 중산층 이상의 소비계층에서는 한국 등 선진국기들에서 생산된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친환경농식품의 대중국 수출 잠재력은 높은 편임
  - 따라서 이러한 중국농업체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향후 충남도 농식품의 중국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실시

### ■ 정책대상 및 내용

- 충남도 농정담당 공무원, 농민단체 및 농업종사자, 농식품 가공 및 유통 관련 종사자
  - 농정담당 공무원은 주로 중국 농업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진행
  - 농업종사자와 농식품 가공 및 유통 관련 종사자는 친환경농식품의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실시
  - 중국 내 주요 연수 대상 지역은 우리나라와 기후와 풍토가 비슷한 산둥성의 수광시(중국 내 최대 채소생산 및 가공수출단지), 연태시(사과 및 포도 주산지), 위해시(해산물 주산지), 청도시(농식품 가공 및 수출단지) 등임

### ■ 추진방법

- 1단계 : 중국농업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교육
  - 충남도 농업기술원 및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공무원교육원, 경제진흥원 등에서 중국농업과 농식품 수출 확대에 관한 교육 실시
- 2단계 : 중국 현지 시찰
  - 중국 내 주요 농산물 품목별 생산지, 가공 및 유통단지 시찰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충남도 농정당국, 각 시군 농업담당,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농민단체, 농협 등 공공기관, 가공 및 유통사업자 등이 연계해 추진
  - 매 해 1~2차례 주제를 통해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 ■ 기타 연계사항

- 농정담당 공무원 및 농업인 역량강화사업을 실시되고 있는 선진지 견학사업의 일정 부분을 중국농업시스템 이해 교육연수로 할당해 실시
  - 현지 시찰은 충남연구원의 중국연구팀과 충남도의 중국 상해사무소를 적극 활용
- 2016년 서산 대산항-산동성 영성 용안항 간 여객선 취항 예정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

### ■ 사업기간 : 2016~2025

- 앞으로 10년 동안 꾸준한 사업 추진 필요

## 수출 부문

### 1. 농수산물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 1) 대중국 수출 농산물 전문마케팅 조직 육성

##### ■ 사업목적

- 충남 농산물의 대중국 시장 진출 및 수출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 육성

##### ■ 사업내용

- 대중국 수출농가 조직 구성 및 육성
  - 기존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대중국 수출농가 조직 구성
  -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한 품목별 농가조직으로 정보 교류 및 행정지원 혜택
  - 중국 농산물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대응 및 공동마케팅 추진
  - 대중국 수출용 농산물의 품질 균일화 추진
- 대중국 수출기획단 조직 및 운영
  - 대중국 농산물 시장의 실태 및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하고 농가에게 전달하는 역할
  - 대중국 수출농가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및 수출지원
  - 중국 농식품기업, 중국 유통업체, 국내 수출업체와의 협력적 관계형성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 담당
  - 대중국 수출 관련 박람회 및 상품설명회 개최
  - 충남 외식산업의 중국진출 지원 및 홍보·프로모션 추진
-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전문 브랜드 개발
  - 중국시장에서 인지될 수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대중국 수출 브랜드 개발
  - 기존 광역 브랜드 “충남오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연계선 상에서의 전문 브랜드 개발 필요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중국 시장 및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 충남도 우수 농수산물 대중국 수출지원센터 설립
  - 충남도 생산 고품질 우수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농·산·관으로 구성된 조직체 구성
  - 충남도가 제도적 틀을 만들고 실제 운영은 각 사군 지자체에서 전담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공선·공출 생산자조직 및 수출농가
  - 대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
  - 기존의 농산물 수출농가 중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농가
  - 기존에 중국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농가 등

- 충남을 대표하고, 고급화가 가능한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
  - 쌀, 양송이, 파프리카, 수박, 메론, 사과, 배 등 곡류, 과실류, 채소류 등

### ■ 추진방법

- 1단계 : 대중국 수출농가조직을 위한 TF팀 구성
  - 대중국 농산물 수출증진을 위한 TF팀 구성 (충남도, 수출업계, 대표농가, 유통전문가 참여)
  - 대중국 수출농가조직 구성을 위한 중국시장 여건, 전략품목, 농가조직 등 검토
  - 기존 수출농가, 수출희망농가, 전략품목 재배 농가
- 2단계 : 대중국 수출농가조직화 추진
  -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전략품목 선정 및 품목별 수출농가 조직화
  - 비관세 장벽(검역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품질 규격화
  - 수출을 위한 유통비, 물류비 공동 대응방안 마련
  - 우수 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 3단계 : 대중국 수출지원단 구성
  - 대중국 수출농가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단 육성
  - 전략 품목에 대한 계획 재배, 품종 개량 등의 기술적 지원
  - 중국시장의 여건 및 트렌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중국시장 조사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전략 수립
  -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조직 간의 중간역할 담당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대중국 수출지원단을 중심으로 행정체계 개편
  - 충청남도 차원의 수출지원단 구성 및 업계, 학계가 자문위원으로 참여
  - '함주도의 수출지원단에서 출발하여 民으로 주도권 이양
  - 범위적으로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농(수산)가공식품도 전담하는 포괄적 조직
- 과채류를 생산하는 시·군이 주도
  - 과채류를 많이 생산하는 천안시, 아산시, 부여군, 예산군 등

### ■ 기타 연계사항

- 충청남도 광역브랜드 “충남오감”과의 연계방안 모색
  - 수출용 브랜드를 별도로 개발하는 것보다 광역브랜드 “충남오감”의 수출용 브랜드를 계승
  - 국내에서 인정받는 “충남오감”브랜드가 중국시장을 진출한다는 상징적 의미 부여
- 우수 공선출하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조직을 활용하여 수출농가조직으로 육성
  - 기존의 우수 생산자 조직을 수출농가조직으로 육성하여 생산자조직화에 따른 물리적 비용 절감

### ■ 사업기간 : 2017년~2030년(장기적인 안목을 추진하여 중국시장 진출 추진)



## 2) 대중국 수출용 농가공식품 산업 육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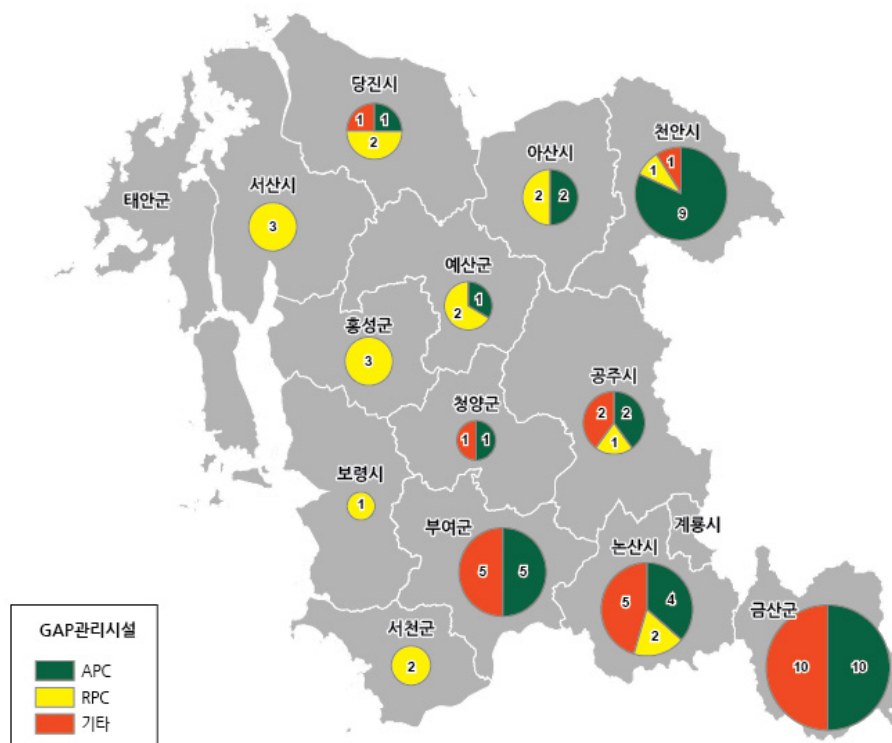
### ■ 사업목적

- 충남이 선도하고 있는 6차산업화를 바탕으로 지역 농가공식품의 중국시장 진출

### ■ 사업내용

- 대외 경쟁력이 있는 농가공식품을 선정하여 대중국 수출상품으로 육성
  - 충남에서 생산하는 농가공식품을 선정하여 대중국 수출상품으로 집중 육성
  - 장류, 건조·분말 농산물, 음료, 전통주, 젓갈류 등 지역을 대표하는 농(수산)가공식품
- 일정한 품질과 규격을 제시하고, 안전과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구축
  - 각 농가공식품별 품질 및 규격 통일
  - HACCP 또는 GAP 등을 통하여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수출기업 또는 식품기업과 연계를 통한 중국수출의 영역 확대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가공품이 수출기업 또는 식품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 다양한 판로를 통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 다변화 추진

그림 5-18. 충남 내 GAP 관리시설 현황 (2014년 기준)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4)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농가공식품 업체 및 6차산업화 경영체
  - 장류(궁골마늘), 젓갈(어리굴젓, 토굴새우젓), 건조 농산물(사비빔), 전통주(사과와인), 햄(벨라몽), 한과(백석올미) 등 전문업체

### ■ 추진방법

- 1단계 : 농가공식품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농가공식품의 품질, 안전성, 포장 등 상품 경쟁력 강화
  - 농가공식품 경쟁력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 마련
  - 충남도, 시·군, 업체, 학계 간의 협의를 통한 수출전략 수립
- 2단계 : 농가공식품 업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 중국 수출방안에 대한 업체의 공동 대응방안 모색
  - 官, 업계, 학계 등과 연계한 품질 향상 및 수출증대 방안 모색
  - 전략적인 수출상품 선정 및 물량 확보, 브랜드 개발
- 3단계 : 중국 수출을 위한 판로개척
  - “대중국 수출지원단”과 연계를 통한 중국내 수출가능 지역(전략지역) 선정 및 시장조사
  - 수출기업 및 식품기업과 연계를 통한 중국시장 판로개척 방안 마련
  - 지속적인 홍보, 프로모션을 통한 중국내 인지도 확산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농가공식품 업체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주도의 사업 추진
  - 민에서 주도하고 官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 추진
  - 농가공식품 업체의 네트워크가 주축이 되어 사업추진
- 대중국 수출지원단을 통한 통합 운영
  - 농산물 수출과 마찬가지로 농가공식품도 대중국 수출지원단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 wprh
  - 중국시장 마케팅, 수출기업·식품기업 교섭 등의 행정지원
- 농산물은 충남 15개 시·군 공동대응, 수산물은 서산, 홍성 대응
  - 농산물 : 15개 시·군의 농가공식품
  - 수산물 : 서산(어리굴젓), 홍성(토굴새우젓)

### ■ 기타 연계사항

- 농식품부의 K-food, 6차산업화지구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국내 식품·외식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K-food 사업과 연계하여 원물 공급 또는 식재료 공급 등 추진
  - 6차산업화지구 등을 통하여 대단위 규모의 농가공식품 생산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18년~2030년

-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장기과제로 추진

그림 5-19. 중국의 고급건전복 및 건해삼



자료 : 중국현지촬영(2015.10.30)

### 3) 충남 식문화 및 외식산업 대중국 진출지원 사업

#### ■ 사업목적

- 풍부한 식재료를 이용하여 고유한 음식문화를 발전시킨 충남 식문화를 중국 외식시장 진출

#### ■ 사업내용

- 충남의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대표 향토음식을 바탕으로 전통 충남식 개발 및 보급
  - 추사밥상, 교황밥상, 무령왕 수라상, 고수록, 계국지, 조피불락젓국, 참게탕, 박속낙지탕, 박대젓국 등 지역 대표 향토음식으로 중국 외식시장 진출
  - 충남 농수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향토음식 제공 및 판매
- 단순한 향토음식 판매점 또는 식당의 역할에서 머무르지 않고 충남의 문화, 자연·경관, 역사, 산업 등을 소개하는 복합 센터의 역할 수행
  - 현지 중국인이 충남의 농수산물, 음식을 접할 뿐만 아니라 충남의 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충남의 전통문화인 백제문화, 기호유교문화, 서해안 해양문화 등을 중국인에게 소개하는 창구로서 “찾아가고 싶은 충남” 이미지 구축
  - 한국 전통의 관습, 풍습, 멋 등을 소개함과 더불어 충남만의 고유한 전통, 문화, 역사, 자연 등을 소개하는 창구 역할
- 충남의 농수산물 및 농가공식품 수출을 위한 홍보·프로모션의 전진기지로 활용
  - 충남 식재료에 대한 중국 현지인의 관심 유도를 통한 충남 농수산물의 가치 상승 기대
  - 식재료, 음식을 통한 중국관광객 유치기지로 활용 가능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의 농가맛집 및 외식업체 등
  - 충남 농가맛집 등이 연계하여 중국시장 진출 도모
  - 충남(또는 국내) 외식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장진출 추진
- 충남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이 대상
  - 추사밥상, 교황밥상, 고수록, 계국지, 조피불락젓국, 참게탕 등

#### ■ 추진방법

- 1단계 : 충남 대표 향토음식에 대한 디렉토리 및 스토리텔링 구축
  - 충남 대표 향토음식의 매뉴얼, 레시피, 소비자 만족도,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조사 필수
  - 충남 농업기술에서 발간한 “충남향토음식”, “이야기가 있는 충남의 맛” 등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 강화
- 2단계 :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농가맛집,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 농가맛집, 외식업체의 공감대 형성 및 중국진출을 위한 조직 구성
  - 품평회를 등을 통하여 중국시장에 진출 가능한 향토음식 선정

- 3단계 : 중국 현지시장 조사 및 연계 · 제휴기업 모색
  - 중국 내 판매점 또는 식당이 입점 가능한 대상지 및 연계 · 제휴기업 모색
  - “대중국 수출지원단”이 담당하여 추진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충남 15개 시 · 군이 모두 해당되며, 희망하는 시 · 군을 중심으로 추진
  - 중국시장에 지역의 음식, 문화, 역사, 자연 · 경관을 홍보하기를 희망하는 시 · 군 대상
- 충남도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희망 시 · 군, 농가맛집 네트워크 등과 협력하여 추진
  - 중국시장에 외식산업이 진출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직 필요

#### ■ 기타 연계사항

- 농식품부의 K-food 사업과 연계
  - 농식품부의 해외 프랜차이즈 및 외식업체 진출을 돕는 K-food 사업과 연계
- “푸드 비즈니스 및 투어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국내 소비자를 위한 “푸드 비즈니스 및 투어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우수 시 · 군 향토음식은 선별하여 중국시장 진출 유도

#### ■ 사업기간 : 2018년~2030년

-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장기과제로 추진

그림 5-20. 중국의 고급해삼요리



자료 : 중국현지촬영(2015.10.30)

## 지역경제 부문

### 1. 농어업 구조개선 및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 1) 농어촌 가치 중심의 농어업 구조 개선

##### ■ 사업목적

- 농어촌의 다기능 및 가치에 중심을 둔 농어업 구조 재편

##### ■ 사업내용

-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농업의 전략적 육성
  - 윤·혼작 보급 및 벚짚환원으로 건강한 토양 환경보전 사업 추진
  - 토종종자 살리기, 지역종자 도서관 사업을 통한 충남 농산물을 뿌리산업 육성
  - 광역단위 친환경농업벨트, 시설원에 산업벨트, 원예특작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성 증대
  - 농산물 생산정보시스템, 복합영농단지, 마을단위 공동영농조직 사업 추진
  - 경축연계를 통한 경종과 축종 간의 유기순환체계 도입 및 가축분뇨화 사업 추진
-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자원의 가치 재창출
  - 유기임산물 전환 및 재배단지 규모화, 산채작물 명품화 추진
  - 임산업·산촌 6차산업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 모색
  - 충남 10년 명품숲 조성 및 목재산업 육성으로 임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산림바이오매스 및 친환경 농자재의 공급망 확충
- 어업·어촌 가치 재창출을 통한 수산업 진흥
  - 어업·어촌 6차산업화 및 도어교류 추진을 통한 도시민 유치(귀어·귀촌)
  - 충남 어촌사랑운동 및 수산물 소비운동 전개
  - 섬마을 중심의 특화단지 조성 및 친환경 전략 양식수산물 육성
  - 충남 명품수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 중국진출 수산물의 전략적 육성 및 신시장 개척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농수산업 전반 및 15개 시·군 농어업인
  - 농업 및 임업은 모든 시·군 해당
  - 수산업은 연안 6개시·군

## ■ 추진방법

- 1단계 : 민선6기 충남 3농혁신 2단계 정책 중 장기과제로 추진 중
  - 현재 민선 6기 3농혁신 2단계 추진전략 및 목표를 계승
- 2단계 : 민선6기 이후,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하여 실현
  - 향후 3농혁신 생산혁신분야 장기과제로 지속적인 추진 필요
  - 신규사업은 충남도를 중심으로 시·군, 농어업인,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충남도, 충남 15개 시·군이 협력적으로 추진 필요
  - 충남 3농혁신 2단계 목표 및 추진전략을 계승하고, 실현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

## ■ 기타 연계사항

- 충남 3농혁신 사업 및 각 시·군 농업발전계획과 유기적 연계 필요
  - 현재 3농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근간에 추진될 사업도 존재
  - 각 시·군이 구상하고 있는 농업발전계획과의 유기적 연계방안 모색 필요

## ■ 사업기간 : 2014년~2030년

- 현재 3농혁신 2단계 추진사업으로 2030년까지 달성 목표
  - 객관적인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를 통하여 실현성 제고 필요
-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 및 관계자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

## 2) 농어촌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사회적 농기업 육성

### ■ 사업목적

-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상생하는 농어촌 조성

### ■ 사업내용

- 농어촌 지역의 지역주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성
  - 농어촌 개발, 6차산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개발, 고용확대 등의 자립형 지역경제 순환형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어촌의 사회적경제 시스템 구축
  - 귀농(어)·귀촌, 지역리더 육성 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실질적 소득창출, 고용확대가 가능한 형태로 육성 필요
  -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식을 농어촌 전파하고, 농어업인의 인지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 농어촌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체험마을, 마을기업 등에 사회적경제의 이념이 투영될 수 있는 교육 필요
- 지역상생을 위한 마을기업·사회적 농기업 육성
  - '14년 기준 두레기업 25개소 조성으로 '18년 56개소 육성 목표
  - 현재 생산, 가공, 관광·체험이 연계된 농촌 공동체 형태의 두레기업 육성 기조 유지
  - 전통시장 상인과 연계, 지역 외식업자와 연계 등 타 산업과의 연계형 마을기업(사회적 농기업) 육성
  - 농어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반 사업자, 개인사업자가 지역농산물을 활용하고, 지역고용을 확대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적 농기업” 지정·장려
- 농어촌 사회적기업 리더양성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
  - 농어촌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리드할 수 있는 사회적 농기업 리더 교육·양성
  - 기획, 인사·회계, 마케팅 등의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리더 육성
  - 농어촌 지역의 향토자원, 역사·문화 등을 활용하여 사업 아이템으로의 개발역량 강화
  - 기존 경제공동체(농업회사, 어업회사, 어촌계 등)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유도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15개 시·군 주민 및 농어업인

### ■ 추진방법

- 1단계 : 농어촌에 대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확대
  - 귀농(어)·귀촌, 지역리더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확대
  - 농어촌 지역 내 법인설립 시 사회적기업의 이념이 투영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유도
- 2단계 : 지역상생의 마을기업·사회적 농기업 육성
  - 현재 두레기업 육성 등의 기본 기조 유지



- “사회적 농기업”정책 신설을 통한 타 산업과 농어업의 융·복합 추진
- 기존 경제공동체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의 전환 유도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충남도, 충남 15개 시·군이 협력적으로 추진 필요
  - 충남 3농혁신 2단계 목표 및 추진전략을 계승하고, 실현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

#### ■ 기타 연계사항

- 충남 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의 연계 필요
  -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관계 유지 필요

#### ■ 사업기간 : 2016년~2030년

- 현재 추진 중인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

### 3) R&D 개발을 통한 연계된 농어업 지속성 강화사업

#### ■ 사업목적

- R&D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의 기초산업 육성 및 지속성 강화

#### ■ 사업내용

- 친환경 농법 개발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성 증대
    -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축적
    - “충남 친환경농업 종합 컨트론타워”를 중심으로 병충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농법 개발·보급
    - 친환경 미생물제, 방제용 농업미생물 등 유기 농자재 개발
    - 토양, 수질, 양분 등 친환경 농업에 기반이 되는 기초 자원 분석
    - 친환경 농법, 농자재의 보급·확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컨설팅 추진
  - 종자산업을 육성을 통한 충남 토종 농산물 보급·확대
    - 충남의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종자보급사업 추진
    - 친환경 농업의 기반이 되는 우수 종자를 전략적으로 보전·보호
    - 유기종자 보전을 위한 농약대체 소득방법 연구, 소득하지 않는 원예종자 보급 등에 대한 방안 마련
    - 충남 종자 박물관 등 개설을 통한 종자산업 홍보 및 지원
  -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수산물 육성
    - 무항생제 양식어장 지정·지원을 통한 친환경 수산물 생산기반 마련
    - 친환경 수산물 양식 관련 기술 개발 및 종묘 생산 기술 확립
    - 친환경 수산물의 원활한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종묘 대량생산기반 시설 구축
    - 친환경 양식 수산물에 대한 인증 및 브랜드화를 통하여 소비자 인지도·신뢰도 향상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첨단 농업기반 시설(스마트팜 등) 조성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첨단 원예시설(스마트팜) 개발 및 보급
    -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용수, 배수, 온도조절, 수분공급, 농약제 공급 등이 가능한 첨단 시설농법 개발 추진
    - 수산업에서도 용수, 배수, 온도조절, 먹이공급 등이 가능한 스마트 양식장 개발 및 조성
    - 농촌체험마을,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도 사물인터넷 적용으로 농업인의 편의성 제고
- \* 참고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약어로 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 여기서 사물이란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블 컴퓨터 등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됨(출처 : 위키백과사전)

#### ■ 정책대상 및 해당품목

- 충남 15개 시·군 주민 및 농어업인

## ■ 추진방법

- 1단계 : (농업) 친환경 농업 개발 및 보급
  - “충남 친환경농업 종합 컨트롤타워”를 통하여 친환경 농업 개발 및 보급 지속
  -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농업 육성 방안 마련
  - 친환경 농업관련 자원분석, 컨설팅 등 추진
- 2단계 : (농업) 충남 종자산업 육성
  - 충남 토종종자 신탄파악을 통하여 보호·육성해야 하는 종자 디렉토리 작성
  - 우수 종자 보호·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 2단계 : (수산업) 친환경 수산물 및 중요산업 육성
  - 무항생제 양식장 지정 및 친환경 수산물 지원·확대방안 마련
  - 수산물 중요 생산기반 시설 구축 및 대량 생산체계 구축
- 3단계 : (농업, 수산업) IoT를 활용한 스마트팜(스마트 양어장) 조성
  - IoT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스마트팜, 스마트 양어장 조성
  - 스마트팜, 스마트 양어장에 대한 행정 및 기술 지원
  - 실효성 인증 후 확대 보급 방안 마련

## ■ 해당시군 및 추진체계

- 충남도, 충남 15개 시·군이 협력적으로 추진 필요
  - 충남 3농혁신 2단계 목표 및 추진전략을 계승하고, 실현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

## ■ 기타 연계사항

- “충남 농업기술원”, “충남 수산연구소”, “충남 수산물관리소”와 연계하여 추진
  - 충남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각 시·군의 기술 보급 필요

## ■ 사업기간 : 2014년~2030년

- 현재 추진 중인 3농혁신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신규사업 추가



## 제3장 권역별 추진전략



# 제1절 기본방향

## 1. 권역별 방향 및 전략

그림 5-21. 한중FTA 대책에 따른 충남 농림어업 3대 권역별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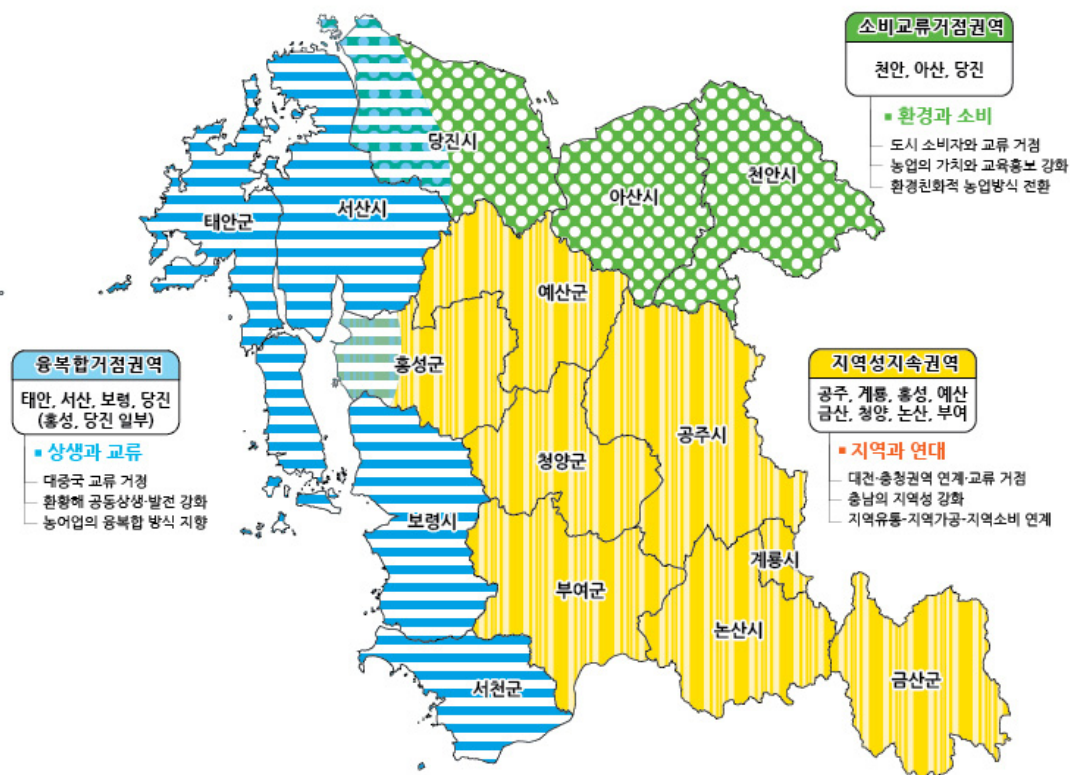


표 5-26. 한중FTA 대책실행을 위한 3대 권역별 추진전략

구분	기존권역명	대상지역(해당시군)	추진전략	키워드
소비교류 거점권역 (소비혁신)	북부권	천안, 아산, 당진	도시 소비자와 교류 거점 농업의 가치와 교육홍보 강화 환경친화적 농업방식 전환	환경과 소비
융복합 거점권역 (역량혁신)	서해안권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과 당진 일부)	대중국 교류 거점 환황해 공동상생·발전 강화 농어업의 융복합 방식 지향	상생과 교류
지역성 지속권역 (지역혁신)	내륙금강권	공주, 계룡, 홍성, 예산, 청양, 금산, 논산, 부여	대전·충청권역 연계·교류 거점 충남의 지역성 강화 지역유통-지역가공-지역소비 연계	지역과 연대

## 2. 기존 상위계획과의 비교

## ■ 충청남도 중장기 통합계획(2011~2020)의 4대 개발경영권

- 지리적 여건과 산업·환경·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간 연계 개발을 위한 4대 개발경영권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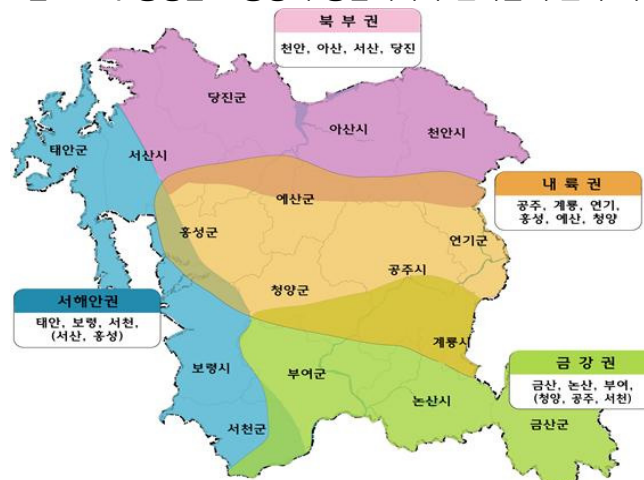
표 5-27. 충청남도 중장기 통합계획의 4대 개발경영권 설정과 권역별 발전방향

구분	대상지역	충청남도 종합계획상 발전방향
북부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교역거점, 광역도시권의 성장관리 > • 항만·철도망·도로망의 입체적 구축과 물류유통 거점기능을 확충 • 내륙지역은 정보·기술집약적 첨단산업, 연안지역은 임해산업을 중심으로 배치 • 산업단지·간지역간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대덕R&D특구 등과의 기능적 연계 강화 •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국제적 교류·교역거점지역으로 성장 유도 •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생산·R&D 첨단산업 집적지 조성
서해안권	태안, 보령, 서천, (서산, 홍성)	< 환황해권 교역 전진기지, 해양휴양관광의 메카 > • 거점항만과 항공물류기지 확충, 국제적 교역·교류의 거점으로 육성 • 항만 배후지와 고속도로 IC연접부를 중심으로 신산업 집적·자물류유통거점 등을 조성, 무역항과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 • 서해안 해양관광벨트의 중핵기능을 담당, 통합적 연안환경 관리, 풍부한 어족자원 육성, 미래형 해양산업의 거점지대로 개발 • 태안기업도시를 국제적 레저스포츠시설을 갖춘 가족휴양지로 개발, 서해안 레저관광활동 중심지역으로 육성
내륙권	공주, 계룡, 연기, 홍성, 예산, 청양	< 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축,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 > • 인구 10만의 다기능 내포신도시를 개발, 새로운 성장거점을 형성 • 주변지역과 연계체계를 구축, 지역간 지역균형발전을 촉진 •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 대덕R&D특구를 연계, 관련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중추연계축 구축 • 백제·내포문화권을 연계, 역사문화·녹색관광 벨트 구축
금강권	금산, 논산, 부여, (청양, 공주, 서천)	< 역사·문화관광, 생명·정보산업, 도농 복합생활공간 형성지대 > • 금강의 수자원, 역사·문화자원, 경관·환경자원, 토지자원 등 다양한 농촌 어메니티자원을 활용 → 남부지역 발전을 견인 •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 개발수요를 연계,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 금강권역을 특성화·브랜드화 •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테마형 광역관광벨트 구축 • 중부권 물류유통의 거점, 첨단생명산업 및 정보산업 육성 • 근교·관광농업 활성화와 다양한 형태의 도시근교형 전원주거지, 수자원 관광 개발 및 도시근교형 산림수변 생태공원 조성

주 : ( )안은 행정구역의 일부가 포함됨을 의미

자료 : 충청남도(2013), 충청남도 중장기 통합계획(2011~2020)

그림 5-22. 충청남도 중장기 통합계획의 권역별 구분과 특성



자료 : 충청남도(2013), 충청남도 중장기 통합계획(2011~2020)



제6부

시군별 대응방안



## 제1절 소비교류 거점권역

표 6-1. 품목과 충남-시군의 대응방안 종합연계도 : 소비교류 거점권역

권역	지역	연관 부문	연관 품목 및 각종 자원	추진전략
소비교류 거점권역 (북부권)	천안	생산, 친환경	과일류, 과채류	과일류 및 과채류 친환경농업 지역생산기반 강화
		생산, 로컬푸드	밀, 호두, 팥	지역산 농산물(밀, 호두, 팥) 생산기반 확대 및 로컬푸드 확대
		6차산업, 친환경	천안호두과자	친환경 농업·농촌의 6차산업활성화
		브랜드, 홍보, 친환경	역사문화자원(독립기념관, 독립사적지)	친환경 농축산물 홍타령 브랜드의 역사문화자원 연계한 홍보 강화
		농촌체험, 도시농업	과일수확, 호두과자만들기, 도시양봉	농촌체험 및 도시농업 활성화
	아산	생산	전체(농산물)	지역식량의 안정적 생산체계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작부체계
		생산	쌀, 배, 소량다품목	주력품목과 소량 다품목별 다층적 생산-유통
		생산, 가공	전체(농산물)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과 농산물의 소규모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농촌일자리	마을공동체자원(푸른들영농조합법 인, 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통한 농촌공동체 일자리 창출
		역량, 거버넌스	3농혁신 농정거버넌스	농업인 역량강화와 아산 3농혁신 농정거버넌스 구축
	당진	마을	3농혁신 활력화 마을	3농혁신 활력화 마을 육성
		로컬푸드, 학교급식	관광자원(행담도 휴게소, 솔외성지, 합덕성당), 산업단지	지역자원과 연계한 로컬푸드,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생산	감자, 고구마, 양파 등 양념채소류 외에 과채류, 식량작물	식량작물 및 채소류 중심으로 지역특화품목 저변확대
		수출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등	중국 고급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농산물 수출 품목 육성
		농촌마을, 농촌체험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마을 및 농촌체험 활성화
		생산, 브랜드	바지락	당진 바지락 명품화와 첨단 양식단지 조성을 통한 지속성 강화
		로컬푸드,가공	내수면 수산물, 바지락, 굴, 향토음식	지역 수산물 로컬푸드 및 가공산업 육성
		해양관광, 소비, 어촌체험 및 관광	관광자원(애목항, 장고항), 어촌체험마을	수산물 푸드 투어 육성

## 1. 천안

## 1) 포지션과 특징

■ 천안시의 농림어업분야 지역 내 총생산 비율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

- 2012년 기준 천안시의 농림어업 GRDP는 전체의 약 1.5%로 충남의 평균 4.7%보다 약 3.2%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화품목이자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오이, 배 등 농산물과 호두, 대추 등 임산물임

- 피해 예상 품목은 농산물(옥수수, 콩, 팥, 오이, 배, 노지포도), 임산물(오미자, 산수유, 기타 약용작물, 조경수, 호두, 대추, 잣, 은행) 등
- 2014년 기준 천안시의 주요 11대 품목(배, 포도, 오이, 오미자 등)의 매출액은 약 1,800억 원으로 이중 배, 포도, 오이의 비중이 약 76%를 차지하고 있음
- 과수부문에서 배는 전국 대비 약 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2014년 기준 대만, 미국, 동남아 등으로 약 14,200천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림
- 2014년 천안시의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은 약 186,272천 달러로 이 중 중국으로의 수출은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6-2. 천안시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구분	농산물						임산물							
	옥수수	콩	팥	오이	배	노지포도	오미자	산수유	기타약용	조경수	호두	대추	잣	은행
특화도지수	1.92	1.23	1.25	9.11	1.48	1.98	5.85	2.49	2.73	2.71	15.26	5.52	4.13	2.42
충남 내비중(%)	13.0	8.3	8.4	28.6	43.1	57.7	16.8	7.2	7.9	7.8	43.9	15.9	11.9	7.0

주 : 특화도 지수 및 충남 내 비중은 수확면적 기준으로 산출, 특화지수 10이상이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자료 : 농업총조사(2010)

## ■ 참고 : 주요 자원현황

표 6-3. 천안시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자원유형	세부내용
관광자원	병천순대거리, 흥타령축제, 상록리조트
농어업자원	호두과자, 거봉포도, 성환신고배
마을공동체자원	입장거봉포도마을, 호두따기체험
문화자원	독립기념관, 아우내 3.1운동 독립사적지
역사인물자원	유관순열사 유적, 홍대용선생 생가지
환경생태자원	태조산공원, 광덕산 설경
지역 현안문제	천안 호두과자 원료의 국산화

자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추진현황 및 중점방향

### ■ 최근 5년간 정책지원 현황

- 한중FTA에 대비하여 천안시 자체적으로 2015년 785억 원의 예산 반영으로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품목 전환 지원, 농산물 브랜드 홍보 및 판촉 지원, 농산물 수출 지원 등의 정책 추진 중

### ■ 친환경 농업 육성의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농업인과, 깨끗한 농산물을 통한 건강한 소비자가 모여 아울러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천안시 만들기(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강화
- 친환경 농축산물 로컬푸드 유통 확대
- 웰빙 친환경 농업농촌 6차산업화
- 친환경 농축산물 브랜드화 및 홍보

### ■ 3농혁신 2단계 추진전략과 연계한 천안시의 주력정책

- 생산혁신을 위한 고품질 오이 명품화 사업
- 유통혁신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체계 구축

## 3) 세부 추진전략

### ■ 과일류 및 과채류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강화

- 제언배경(이유,문제제기) : 과실 및 과채류의 친환경인증비중이 높은 천안시는 2016년 저농약 인증 폐지로 인하여 친환경농업의 비중 감소 위기의식 팽배, 이를 기회로 전환 극복 필요
- 주요 내용1 : 과채류 중심으로 무농약인증 이상의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학교급식 납품으로도 활용
- 주요 내용2 : 과실류 작목에서도 점차 저비용, 저투입 구조의 환경친화적인 농법실천과 현장 기술지도 사업
- 주요 내용3 : 소비자(고정고객층)와의 강력한 교류와 연대를 통한 천안시 자체인증제 추진

### ■ 지역산 농산물(밀, 호두, 팔) 생산기반 확대 및 로컬푸드 확대

- 제언배경(이유,문제제기) : 도농복합시이자 충남도에서 가장 큰 소비처이기 때문에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유통구조 구축 및 원료 국산화로 호두과자 이미지 제고
- 주요 내용1 : 대도시 소비지 시장을 보유한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산지소 전략

- 주요 내용2 :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유통
- 주요 내용3 : 천안 호두과자 원료의 국산화 이슈와 문제제기에 대응한 농산물 직접 재배(밀, 호두, 팥)

#### ■ 친환경농업·농촌의 6차산업 활성화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도시지역 특성에 맞게 체험과 치유를 목적으로 한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이를 활용한 농업 6차산업 실시
- 주요 내용1 : 소비자체험활동, 도시민 치유공간, 협업농장의 방식과 친환경 농산물 가공의 결합
- 주요 내용2 : 타 지역과 차별성있는 천안시만의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화 실시
- 주요 내용3 : 천안호두과자의 천안산 농산물로 직접 재배하여 로컬푸드와 6차산업화 실현

#### ■ 친환경 농축산물 홍타령 브랜드의 역사문화자원 연계한 홍보 강화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천안시의 대표브랜드의 하나인 “홍타령”을 활용한 농축산물 브랜드 구축과 역사문화, 특히 독립운동의 역사를 활용한 브랜드 개발 필요
- 주요 내용1 : 천안시의 농축산물 브랜드 “홍타령”에서 별도의 친환경 농축산물 브랜드 라인 구축
- 주요 내용2 : 앞에서 친환경농업기반과 6차산업 기반이 조성된 이후 친환경적인 브랜드이미지 형성
- 주요 내용3 : 역사문화자원(독립기념관, 독립사적지, 열사 유적지 등) 스토리를 천안시 공동 브랜드와 결합

#### ■ 농촌체험 및 도시농업 활성화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천안시는 대도시이자 많은 학교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도 농교류 및 농촌체험에 적극 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16년 중학교 자율학기제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주요 내용1 : 충남 내에서 가장 큰 대도시로서 다양한 농촌체험 영역의 확장 전개
- 주요 내용2 : 호두과자 만들기 및 호두따기체험, 입장배, 거봉포도 등의 과일수확 체험 프로그램, 도시양봉 등 읍면별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 주요 내용3 : 유치원 및 학교교육(논만들기)에 농촌체험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농업농촌 경험을 통한 중요성 강조

## 2. 아산

### 1) 포지션과 특징

- 아산시의 농림어업분야 지역 내 총생산은 타 시군 및 충청남도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임
  - 2012년 기준 아산시의 농림어업 GRDP는 전체의 약 0.9%를 차지함. 이는 충남의 평균 4.7%보다 매우 낮은 수치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산시의 특화품목이자 한중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오이, 배 등 농산물과 분재, 잣 등 임산물 임
  - 피해 예상 품목은 농산물(대파, 노지오이, 노지화초, 배, 도라지), 임산물(오미자, 산양삼, 분재, 뽕은감, 호두, 대추, 잣) 등임
  - 현재 아산맑은쌀 브랜드 개발로 충남 내 인지도 1위 전국 만족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7,000백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아산원예농협을 주축으로 수출협의회가 구축되어 매년 배 수출을 하고 있음. 특히 아산 맑은 배는 2014년 3,500천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함
  - 아산시는 FTA에 대응하여 2011년 농수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2년 FTA 대응 T/F팀을 구성하는 등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표 6-4. 아산시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구분	농산물					임산물						
	대파	오이 (노지)	화초 (노지)	배	도라지	오미자	산양삼	분재등	뽕은감	호두	대추	잣
특화도지수	3.78	10.20	4.07	1.53	4.78	4.27	4.98	25.48	3.96	3.89	7.99	23.73
충남 내비중(%)	22.2	5.9	23.9	20.1	3.6	5.3	6.18	31.61	4.91	4.82	9.91	29.43

주 : 특화도 지수 및 충남 내 비중은 수확면적 기준으로 산출, 특화지수 10이상이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자료 : 농업총조사(2010)

## ■ 참고 : 주요 자원현황

표 6-5. 아산시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자원유형	세부내용
관광자원	온양온천, 성웅이순신축제, 온양온천문화예술제
농어업자원	아산맑은쌀, 아산배, 토종꿀
마을공동체자원	외암민속마을, 푸른들영농조합법인(한살림 등 생협/공동체)
문화자원	현충사, 외암리 참판댁
역사인물자원	이충무공난중일기 부서간첩임진장초, 이충무공묘, 김옥균 선생 묘지, 전세 맵고불 유물, 이충무공사적비
환경생태자원	신정호, 세계꽃식물원, 아산생태곤충원, 피나클랜드

자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추진현황 및 중점방향

### ■ 최근 5년간 정책지원 현황

- 수입쌀 개방과 유통활성화(1,969,980천 원), 과수, 원예, 특작 생산지원(792,000천 원), 귀농, 귀촌 및 농업경영비 절감지원(918,200천 원), 친환경농업 육성(189,000천 원), 농산물 수출 확대(286,500천 원) 지원

### ■ 아산시 농업발전 전략의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 지속가능한 농촌, 행복한 농업인(농발계획)

- 농업분야 : 시민과 순환공생시스템 구축으로 도농공동체 실현
- 농촌분야 : 지역자원 특성화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구현
- 농업인분야 : 농업인의 역량강화로 소득과 삶의 질 향상

### ■ 아산시는 산지유통혁신 추진 목표로 아산시 과수, 채소 유통의 통합마케팅조직을 육성하고 2018년까지 22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자 함(아산시 산지유통종합계획)

- 탄탄한 공선출하조직 육성 등 생산자 조직화
-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 운영 통합
- 광역통합마케팅조직과의 연계사업 강화
- 품목별 특성에 따른 마케팅 통합 및 차별화

### ■ 3농혁신 2단계 추진전략과 연계한 아산시의 주력정책

- 유통혁신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중심의 생산, 가공, 유통 연계형 지역순환식품사업, 아산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생산혁신을 위한 농기계 대여은행 확대운영, 맞춤형 유기질비료 펠릿화 시설지원, 친환경 벼 보관창고 시설
- 소비혁신을 위한 아산 농촌관광사업단 락(樂)운영
- 지역혁신을 위한 아산시 마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사업,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 3) 세부 추진전략

#### ■ 지역식량의 안정적 생산체계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작부체계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아산시는 농촌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식량의 안정적 자급과 순환을 위한 생산체계의 구축 필요
- 주요 내용1 : 생산부터 유통, 소비단계까지의 전체 도시형 성격의 식품계획 구상 필요
- 주요 내용2 : 품목별 작부체계, 식생활교육, 학교급식 및 공공조달, 자원재활용, 공공조달, 교육 등 포함
- 주요 내용3 :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지역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품목의 다양화, 자급률 목표치 설정

#### ■ 주력품목과 소량 다품목별 다층적 생산-유통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아산시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품목을 특화하기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방식으로 특성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1 : 아산의 주력품목인 배와 쌀은 친환경농산물 혹은 고품질상품으로서 최고급 상품화 전략
- 주요 내용1 : 그 외에는 다양한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보급 하되 특화품목방식보다는 다품목 구조 지향
- 주요 내용1 : 소량 다품목은 학교급식과 로컬푸드로서 납품할 수 있도록 전체구조와 재배작목 연계

#### ■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과 농산물의 소규모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소규모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도 지역 내에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규모 가공에 적합한 시설 지원
- 주요 내용1 :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안전한 아산 농산물을 공급하고 더 나아가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 주요 내용1 :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가단위 소규모 가공 지원(마을만들기 소득사업과 연계)
- 주요 내용1 : 아산시 농식품브랜드 계열을 원물만이 아닌 농가가공 상품으로까지 전면 확장

### ■ 사회적기업을 통한 농촌공동체 일자리 창출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아산시는 민간주도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
- 주요 내용1 : 푸른들영농조합법인(한살림 생산자공동체), 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지역내 주체와 농업의 일자리 결합
- 주요 내용1 : 지역 내 각종 공동체자원, 농업자원, 문화자원, 역사인물자원, 환경생태자원과 연계한 일자리
- 주요 내용1 : 외암민속마을, 이충무공, 현충사 등 역사자원의 활용은 아산시에게 매우 중요한 농촌일자리

### ■ 농업인 역량강화와 아산 3농혁신 농정거버넌스 구축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최근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재 다양한 주체를 아우르는 아산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강화와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주요 내용1 : 기존 생협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역량을 전체 농업인에게 확산시키는 작업
- 주요 내용1 : 이미 구성한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를 통하여 농업인의 역량강화 기반 토대위에 아산시 농정거버넌스 체계 초석 다짐
- 주요 내용1 : 농정거버넌스가 정착된 후 농업회의소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근거 마련

### 3. 당진

#### 1) 포지션과 특징

- 당진시의 농림어업분야 지역 내 총생산은 타 시군 및 충청남도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임
  - 2012년 기준 당진시의 농림어업 GRDP는 전체의 약 3.9%를 차지함. 이는 충남의 평균 4.7%보다 매우 높은 수치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당진시의 특화품목이자 한중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감자, 고추 등 농산물과 젓소, 육계 등 축산물, 대추, 복분자 등 임산물임
  - 피해 예상 품목은 농산물(감자, 배추, 무, 상추, 호박, 고추, 사과), 축산물(젓소, 육계), 임산물(대추, 복분자) 등임
  - 대표적 농산물로는 면적 및 생산량에 있어 전국 1위 품목인 파리꽃고추, 탐푸르트 대통령상 수상의 사과, 전국 면적 2위인 감자 등이 있음
  - 당진시는 그간 학교급식 활성화에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특히 당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약 60%가 당진시 학교급식센터에서 이용하고 있음(감자, 양파는 필요 물량의 100% 공급 중)
  - 그간 한미FTA대책 뿐만 아닌 한중FTA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시장개방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음

표 6-6. 당진시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구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감자	배추	무	상추	호박	고추	사과	젓소	육계	대추	복분자
특화도 지수	2.45	2.17	3.85	2.06	1.42	3.61	2.90	1.40	1.27	18.19	23.51
충남 내비중(%)	32.4	20.8	36.9	19.7	13.6	10.0	15.6	14.4	13.0	13.1	16.9

자료 : 농업총조사(2010)

주 : 특화도 지수 및 충남 내 비중은 수확면적 기준으로 산출, 특화지수 10이상이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 주요 특징(어업)

- 당진시의 해안선은 115km이고, 도서는 8개
  - 도서는 유인도서 3개, 무인도서 5개이고, 총 면적은 5km<sup>2</sup>
  - 유인도서의 세대 수는 195세대, 인구는 335명
- 당진의 어가 수는 1,789가구, 어업인구 4,602명이며, 어촌계는 7개소가 있고 어선어업과 복합 양식어업이 성행하고 있음
  - 어선은 총 578척(1385톤)으로 모두 동력선이고, 10톤 미만임

## 제6부 시군별 대응방안

- 어업권은 64건, 1,372ha이고, 이중 마을·정치어업이 33건(663ha), 양식어업 14건(134ha), 내수면 어업 17건(575ha)임
- 면허어업은 총 47건으로 주로 마을어업이 대부분이고, 신고어업은 7,241건, 허가어업은 14건임
- 당진시에는 당진수협이 있으며 조합원 수 2,290명이 소속되어 있음
- 당진에는 국가어항 1개소(장고항), 지방어항(난지도)가 있음
  - 장고항은 2021년까지 약 78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계류시설, 외곽시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82,305㎡)의 국가어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아산만권 거점어항으로 개발
- 주요 품목 현황
  - 수산물 어획고는 4,130톤이고, 주요 생산물은 굴, 바자락, 꽃게, 실치, 조피볼락, 넙치 등임
  - 어류 817톤, 갑각류 18톤, 연체동물 96톤, 패류 3,098톤, 기타수산물 101톤
  - 수산물가공품 생산고는 5,498톤, 생산금액은 86.1억 원

### 참고 : 주요 자원현황

표 6-7. 당진시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자원유형	세부내용
경관자원	서해대교 및 고속도로, 왜목마을 경관
관광자원	6차산업화: 면천 두견주, 삽교호 관광지, 낙시(바다낙시, 방파제낙시)
농어업자원	해나루쌀
마을공동체자원	왜목마을, 영전황토마을, 좋은 엄마품앗이 협동조합
문화자원	기지사줄다리기, 합덕제, 농촌생활체험: 황토염색체험(영전황토마을)
인물자원	심훈(민족저항시인), 김대건 신부(조선 최초)
환경생태자원	내포문화숲길, 대호방조제
역사자원	솔미성지, 합덕성당, 합덕농민항쟁
지역현안	일자리 창출 연계(현대제철(현대기아차 특수강 첨단신소재 생산시설) 등)

자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추진현황 및 중점방향

### 〈농업〉

#### ■ 농업부문 발전 비전으로는 살고싶은 농어촌 활짝웃는 농어업인

- 농업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
- 지역 향토자원 활용 극대화를 통한 선진농업 도약

#### ■ 당진시 3농혁신 비전으로는 변화와 기회의 3농혁신으로 행복한 농업! 살고싶은 농촌! 활짝웃는 농업인!

-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행복한 변화를 준비하는 3농혁신

- 농어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선진도시 건설
- 임업안·소비자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임산업 육성
-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삼교호
-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 확산으로 당진시민 행복시대 선도
- 농업인 중심의 3농혁신

#### ■ 3농혁신 2단계 추진전략과 연계한 당진시의 주력정책

- 유통혁신을 위한 당진시 로컬푸드 및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수산업〉

#### ■ 수산자원 및 수산생태계 보전·관리를 통한 어업생산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

- 친환경 고품질 수산물 생산을 위한 다양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 및 내수면 어업 육성
  - 내수면 양식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어종(동자개, 뱀장어) 육성
  - 어장환경 개선 및 패류어장 자원 조성
  - 친환경 바이오 플락 양식단지 조성
  -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첨단양식장 시설 확대
- 수산물 가공 및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수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피셔리(Fishery) 식품산업 거점센터 조성
  -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식품 연구개발
  - 맛김, 조피볼락포 등 수산물 가공식품 및 향토음식 개발

#### ■ 어항·어촌의 활성화 도모 및 어업인의 복지환경 개선

- 난지도 등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및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어업 육성
  - 해양낚시 공원 등 해양관광자원 기반 복합 해양관광 및 어촌체험공간 조성
  - 바다낚시 인프라 조성 및 숙박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
  - 바다 및 어촌관광과 연계한 해양·수산 축제 개최

### 3) 세부 추진전략

#### 〈농업 분야〉

#### ■ 3농혁신 활력화 마을 육성

- 제안배경(이유, 문제제기) : 농촌과 어촌을 결합한 당진형 3농혁신을 농어촌 마을단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 필요

- 주요 내용1 : 이미 출범한 당진시 3농혁신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마을단위별 3농혁신 정책의 적극 전개
- 주요 내용2 : 도단위 정책을 지역에서는 마을단위로 깊숙하게 침투하여 인식을 전환시켜 정책 환기
- 주요 내용3 : 3농혁신과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협업모델 구축을 동시에 실험하면서 지역전체로 확산

### ■ 지역자원과 연계한 로컬푸드,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당진시는 타 지역에 비해 앞선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 지역 내 기업체에 지역산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인근 수도권까지 확대할 계획임
- 주요 내용1 : 행담도 휴게소, 솔피성지 및 합덕성당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당진산 농산물 생산과 공급
- 주요 내용1 : 학교급식 만이 아닌 관내 기업, 공공급식 조달까지 폭넓게 고려하도록 함
- 주요 내용1 : 현대제철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 입주한 시민까지 고려한 16만 당진시 시민을 다양한 먹거리로 먹여살릴 수 있는 지역순환식품 체계 구축

### ■ 식량작물 및 채소류 중심으로 지역특화품목 저변확대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당진시는 쌀, 감자, 고구마, 양파 등 식량작물과 양념채소가 주산지이지만 향후 소득증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하우스 작목에 좀 더 집중할 필요있음
- 주요 내용1 : 감자, 고구마, 양파 등 양념채소류와 식량작물 집중 육성하고 있기에 경쟁력 강화 필요
- 주요 내용2 : 최근 지열을 이용한 시설하우스는 과채류 등과 같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참여에 용이
- 주요 내용3 :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6차산업화 등과 연계한 지역산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연계

### ■ 중국 고급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농산물 수출 품목 육성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2016년 서산시 대산항과 산동성 영성시 용안항간 여객선이 취항할 계획이기 때문에 요우커(중국관광객)와 중국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 농산품 개발 육성 필요
- 주요 내용1 : 서산의 대산항으로부터 30분, 서해안 고속도로와 9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입지 조건 활용
- 주요 내용2 :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등 중국 부유층의 웰빙소비 기호에 맞춰서 수출 품목 육성
- 주요 내용3 : 원물 재배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당품목을 가공, 포장하여 고급상품화 수출전략 구사

## ■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마을 및 농촌체험 활성화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수도권과 가까운 입지적 여건과 최근 슬피성지 등 천주교 성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해 이를 도농교류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1 :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서울 및 경기권 소비자를 가깝게 맞이할 수 있는 입지조건
- 주요 내용2 : 마을단위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농촌체험 활성화
- 주요 내용3 : 특히 기지시줄다리기, 합덕제, 영전황토마을의 황토염색체험 등을 적극 홍보

## 〈어업 분야〉

## ■ 당진 바지락 명품화와 첨단 양식단지 조성을 통한 지속성 강화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연안과 내륙지역을 있는 거점도시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수산물 유통, 첨단 양식단지 조성 필요
- 주요 내용1 : 광역 브랜드와 연계한 전략 수산물로서 바지락 육성
  - 내수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 브랜드 개발
  - 바지락 생산 어촌계의 조직화 및 광역단위 연계를 통한 전략 수산물의 가치 제고
  - 생산환경 조성 및 양식기술 개발, 종묘 공급의 체계화 일원화 추진
- 주요 내용2 : 바이오 플락 등 첨단 양식단지 조성을 통한 수산업 진흥
  - 바이오 플락 등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
  - 내수면 자원(동자개, 뱀장어) 관리·회복을 통한 상품화 추진
  - 친환경 첨단 양식장의 집적화를 통한 양식어업의 효율성 제고

## ■ 지역 수산물 로컬푸드 및 가공산업 육성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소비교류 거점권역의 연안 시로서 소비지(천안, 아산)와 인접해 있으므로 학교급식, 직매장 등의 수산물 로컬푸드 공급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
- 주요 내용1 : 당진을 소비교류거점권역 광역 수산물 학교급식 거점으로 활용하고, 중·남부권인 보령과 연계 추진
  - 당진(북부권)과 보령(중·남부권)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통한 유통·물류, 저온저장·냉동, 배송 등에 공동으로 대응
- 주요 내용2 : 내수면 수산물과 바지락, 굴 등의 양식 수산물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푸드 체계 구축
  - 인근 천안, 아산 등의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소비 촉진
  - 지역 축제, 행사와 연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활동 전개
- 주요 내용3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향토음식 개발
  -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지원
  - 맛김, 조피볼락포 등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가공품 생산 및 로컬푸드와 연계

- 당진 수산물 가공품을 충남 소비교류 거점권역(천안, 아산, 당진)에서 유통할 수 있는 유통체인 구축
-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전통 향토음식 개발 추진

### ■ 수산물 푸드 투어 육성

- 제안배경(이유, 문제제기) :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관광자원, 지역자원 및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수산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 내용1 : 지역 축제, 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한 수산물 소비운동 추진
  -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왜목 해맞이축제 등과 연계하여 지역 수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
  - 수산물을 메인으로 하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 개최
  -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한 소비자와의 꾸러미형 직거래 시스템 구축
- 주요 내용2 : 왜목항, 장고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과의 연계방안 모색
  - 거점형 마린항만 대상지로 선정된 왜목항을 중심으로 수산식품 레스토랑, 어촌체험관 등 해양레저와 관광이 결합된 휴양공간으로 육성
  - 국가어항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 장고항에 농수산물을 포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지역 레스토랑 운영 추진



## 제2절 융복합 거점권역

표 6-8. 품목과 충남-시군의 대응방안 종합연계도 : 융복합 거점권역

권역	지역	연관 부문	연관 품목 및 각종 자원	추진전략
융복합 거점권역 (서해안권)	태안	가공	배추/절임배추, 고추, 무, 마늘, 생강(양념채소류)+젓갈류(수산가공품)	태안의 건강한 양념채소류 종합육류 가공상품화
		로컬푸드	관광자원(해수욕장, 체험마을, 수목원)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유통	마늘, 고구마	서산과 태안의 통합마케팅 집중화
		가공, 생산	마늘, 고구마	마늘 및 고구마의 외식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가공원료 조달과 계약재배
		해양어촌관광, 소비	관광자원(안흥항, 대산항), 농촌/어촌체험마을, 낚시관광	충남을 대표하는 해양·어촌관광의 메카로 육성
		6차산업, 인력	호박고구마, 육쪽마늘, 절임배추, 태안해녀, 여성어업인	어촌마을기업 육성 및 6차산업화 추진
		해양생태	바다, 습지, 갯벌 테마(해양생태관광단지), 어패류 특화연구센터, 가로림 생태가치보전회	가로림만 해양생태산업 클러스터 조성
		어촌체험 및 관광	낚시어업 활성화, 어촌 테마파크, 주민협의회 구성	공생하는 안면도-원산도의 지속가능한 협력개발 방식
	서산	수출, 가공	산양삼, 표고버섯	대중국 수출을 위한 산양삼과 표고버섯 전략적 품목육성 및 농식품아이템 개발
		수출, 가공	전체(농산물)	대산항 중국 초입전초기지로서 충남산 농식품 전용매장 설치
		가공, 생산	마늘, 감자	마늘 및 서산감자의 외식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가공원료 조달과 계약재배
		기반(통계)	전체(수산물)	수산업 통계정보 구축 추진
		6차산업, 어촌체험	갯벌 어촌체험마을(바지락캐기), 농촌체험마을(고구마 캐기) 결합	농어촌 복합 6차산업화 추진
		해양생태산업	해양생태, 습지, 갯벌 테마(해양생태관광단지), 어패류 특화연구센터, 가로림 생태가치보전회	가로림만 해양생태산업 클러스터 조성

표 6-8. 품목과 충남-시군의 대응방안 종합연계도 : 융복합 거점권역(계속)

권역	지역	연관 부문	연관 품목 및 각종 자원	추진전략
융복합 거점권역 (서해안권)	보령	생산, 유통	품목(양송이버섯, 방울토마토, 취나물), 농업인(영세소농, 고령농)	농업인의 연령대, 계층별 역량을 고려한 차별화된 생산과 유통
		생산	양송이버섯, 방울토마토	양송이버섯과 방울토마토의 고품질친환경상품화
		가공, 문화, 수출	전통식품(장류)	보령 장인이 만든 전통식품(장류) 계승 및 보전 사업
		유통, 농촌체험, 어촌체험	관광자원(머드축제), 자연자원(섬, 산), 보령산 농수산물 전체	관광자원 및 자연자원과 결합한 보령시 농수산물 로컬푸드
		생산, 유통-소비-관광, 일자리, 인력	천북웰빙특화단지, 인프라(보령신항, 대전항, 오천항 등), 보령 수산식품 네트워크, 만세보령 수산음식(키조개, 꽃게)	충남 수산식품의 메카로 육성
		유통(로컬푸드, 학교급식)	전체(수산물)	광역 수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로컬푸드지원센터 운영
		어촌체험 및 관광	바지락, 키조개, 꽃게	“찾아오는 어촌마을” 운영
		수출	인프라(보령신항)	충남 농수산물 수출의 거점항으로 “보령신항” 육성
		어촌체험 및 관광	어촌 테마파크, 주민협의회 구성	공생하는 안면도-원산도의 지속가능한 협력개발 방식
	서천	생산, 순환	쌀(서래야)	경종과 축산 간 자원순환형 농업구조의 완성
		인력, 창업	귀농인, 귀촌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결합하는 새로운 창의형 농업 발굴
		생산-유통-소비, 순환	관광자원(한산모시축제, 수산물관련 축제), 자연자원(서천철새여행, 신성리갈대밭, 해수욕장), 기타자원(국립생태원), 전체(농산물, 수산물)	지역관광 및 자연자원과 농특산물 자원 간 결합
		생산, 유통, 수출	김	원초김 주산지에서 김산업의 메카로 이미지 변신
		해양생태	갯벌, 철새도래지	해양생태를 활용한 갯벌보전지구로서의 역할 강화
		소비, 로컬푸드	관광자원(전어, 꽃게, 주꾸미 축제)	홍원항의 지역 수산물 소비 거점화
		사회적 경제, 순환, 귀어귀촌	자율공동체	충남을 선도하는 수산업 사회적경제 메카로서의 역할 강화

# 1. 태안

## 1) 포지션과 특징

■ 2011년 기준 태안군의 지역내총생산GRDP 중 농림어업 비중은 10.3%로서 높은 편

- 2000년 17.9%에서 2011년 10.3%로서 충남 전체 평균이 2011년 9.8% 임을 감안할 때 비슷한 규모로 근접함
- 12개년간 연평균증감율 -4.6%를 보이고 있는데 충남 전체 연평균증감율 평균 -3.7%보다 빠른 감소 추세
- 태안군의 주력품목은 농산물은 마늘, 고추, 화훼이고 수산물은 바지락, 해삼임

■ 주요 특징(농림업)

- 식량작물의 경우 콩과 고구마 특화도 지수가 각 1.34, 1.03으로 충남 내 재배면적 비중 13.8%와 10.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
- 원예작물의 경우 양념채소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시설고추, 마늘 등이 특화도지수가 높고 특히 마늘은 충남 내 비중이 35.7%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음
- 임산물의 경우도 특화도지수가 취나물은 27.74, 약용작물은 8.00, 기타산나물은 1.51로서 높은 편에 속하고 특히 취나물은 충남 내 비중이 12.1%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음
- 이는 한중FTA 발효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농업구조를 보이는 만큼 향후 농업의 불안정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표 6-9. 태안군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구분	농산물(식량 및 원예작물)							임산물		
	콩	고구마	시설고추	마늘	땅콩	사과	시설포도	취나물	약용작물	기타산나물
특화도지수	1.34	1.03	2.44	3.28	2.88	2.56	1.05	27.74	8.00	1.51
충남 내비중	13.8%	10.6%	2.9%	35.7%	31.3%	1.6%	0.7%	12.1%	3.5%	0.7%

주 : 1. 특화도 지수 및 충남 내 비중은 수확면적 기준으로 산출, 특화지수 10이상이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 상기 소개된 품목은 한중FTA발효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보고서 2부, 3부) 중심으로 기술함

자료 : 농업총조사(2010)

■ 주요 특징(어업)

- 태안은 충남 최대의 수산郡으로의 위상 보유
  - 해안선 559km로 충남 1,242km의 45% 해당
  - 도서 117개로 충남 252개 중 46.4% 점유

- 어가 수 4,450가구로 40.3%, 어업인구 10,498명으로 약 38% 해당
- 어선 수는 1,751척(2,357톤)으로 충남에서 가장 많은 어선 보유
- 어업권은 598건(6,378ha)으로 건 수로 충남의 53.1%, 면적으로 36.2% 해당
- 면허어업 597건으로 충남의 54% 점유
- 어촌계는 89개소가 있어, 충남 162개소 중 50.6% 점유
- 지역 수협이 3개소 있으며, 총 조합원은 7521명
- 국가어항 2개소, 지방어항 13개소, 어촌정주어항 13개소, 소규모어항 14개소
  - 안흥항은 마리나 항만 대상지로 선정되어, 향후 350억 원을 투자하여 100척 규모의 대형 요트 정박지 및 클럽하우스, 편의 및 관리시설을 70,000㎡ 부지에 조성 예정
  - 모항항은 연간 3만 명이 찾는 해삼축제 개최 중

#### ■ 최근 5개년간 정책지원현황(시군별 수요조사, 2015.04.)

- 마늘, 고추가 태안의 주력농산물이었지만 안면도 호박고구마의 인지도가 높아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 인삼생산도 증가 추세에 있음
- 5대 주력품목에 대해 2010년 43억 원 투입, 2014년에는 12억 원으로 1/4이상 규모로 감소
-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후관리에 문제와 애로사항이 많음. 즉, 특정사업의 지원대상은 규모가 있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지원하지만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음

표 6-10. 태안군 최근 5년간 정책지원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원)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특화품목육성사업	마늘설비 등	980	980	490	300	—	2,750
고추비가림시설지원	고추비가림 지원	—	—	—	1,320	—	1,320
고추육성사업	부직포, 세척기, 건조기 등	610	119	17.5	35	27.5	809
마늘육성사업	마늘관련 지원	41	28.6	88.6	39.6	39.6	237.4
고품질화훼생산지원	생산시설지원	300	300	300	1300	300	2,500
해삼지원사업	해삼관련 사업지원	700	400	400	700	700	2,900
종패지원사업	바지락관련 사업지원	1,700	1,700	1,300	176	160	5,036
합계		4,331	3,527.6	2,596.1	3,870.6	1,227.1	15,552.4

#### ■ 충남 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 2013년 기준 충남 내 1,203개소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태안군은 총 36개소로 전통식품 6개소, 일반식품 3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태안군과 대중국과의 자매결연 실적은 산동성 타이안시 1건임

## ■ 참고 : 주요 자원현황

표 6-11. 태안군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자원유형	세부내용
관광자원	태안 꽃 축제, 해맞이 축제,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 태안 온국민 캠핑 축제
기타자원	지역별마: 밀국낙지, 연육교
농어업자원	육쪽마늘, 안면도 고추, 해초
마을공동체자원	체험마을(별주부마을, 벚가리마을, 노을지는갯마을, 만대어촌체험마을)
문화자원	태안마애삼존불, 독살체험
환경생태자원	천리포수목원, 안면도 자연휴양림, 신두리 사구, 꽃지해안공원, 안면도, 안면송림,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향포구, 꽃지해수욕장, 만리포
지역현안	어업자원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침식, 수산물 소비자 신뢰회복 문제

자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추진현황 및 중점방향

### ■ 한중FTA에 대한 태안군의 대응현황(시군별 순회간담회, 2015.06.)

- 정확한 피해규모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나 정부의 대응책을 기반으로 군 자체의 대응책 마련한다는 계획
- 군차원의 FTA 영향 분석은 어려운 실정으로 별도의 구체적인 시책 및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등의 추진체계 구축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향후 마련 예정인 정부의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지역 농업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추진체계 구축 마련 예정
-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제의 보상금이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만이고 FTA로 인해서 관세를 역으로 이용하여 대기업이 해외에서 재배를 통한 역수입이 큰 문제
- 대도시 매장개설을 통한 농산물 판매보다 태안군의 관광지역으로서 입지를 활용하여 지역내 매장개설을 통한 지역산 농수산물 소비시스템이 더 필요한 시점

### ■ 어업분야 추진현황

- 수산물 생산량은 18,429톤, 생산금액은 712억 원, 주요 품목은 꽃게, 바지락, 해삼, 전복 등
- 어류 10,436톤(76억 원), 갑각류 5,442(486억 원), 연체동물 1,325톤(95억 원), 패류 1,192톤(50억 원), 기타 수산물 34톤 (5.4억 원)
-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은 4,261톤, 생산금액은 29억 원, 냉동품이 96%이상 차지
- 자율관리공동체 57개소, 어촌체험마을 4개소,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 1개소,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1개소

### ■ 역외교류 네트워크 강화 통한 농어촌의 역동적 발전, 희망이 넘치는 신농촌 건설(농발계획)

-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농수산물 역외고객 확충, 농어촌 체험관광 관련 도농교류시설 및 소득

기반시설 활성화, 농어업 및 농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서산과 태안 산지유통의 규모화, 전문화(서산·태안 산지유통종합계획)

- 핵심전략을 서산태안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의 통합(서산태안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연합을 넘은 지역연합, 브랜드체계 확립으로 설정하여 2개 시군 산지유통종합계획 연계
- 서산과 태안의 공통 주력품목인 한지형 마늘을 중심으로 한 통합마케팅의 성공을 지역 농산물 확대하여 접목
- 태안군의 경우 마늘, 고구마, 화훼, 채소류 등 7개 조직을 중심으로 추진 예정

### 3) 세부 추진전략

#### 〈농업 분야〉

■ 태안의 건강한 양념채소류 종합육용 가공상품화

- 제안배경 : 한중FTA의 가장 큰 피해품목인 양념채소류 주산지로서 이를 극복할 대안 필요, 태안산 채소류에 대한 1차 가공상품화하여 부가가치 창출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1 : 태안군의 농산물 주력품목군인 양념채소류와 수산물 주력품목군과 결합한 종합상품 구성함
- 예를 들면, 대표적인 주력농산물인 배추, 고추, 무, 마늘, 생강, 수산물인 젓갈류를 김장김치용 육용상품화(배추는 절임가공 포함)
- 주요 내용2 : 충남 농사랑쇼핑몰을 1차적으로 시범운영, 기업자체구축의 제한적 쇼핑몰로 점차 확대하여 입소문 마케팅전략 구사, 혹은 로컬푸드의 일환으로서 시범적으로 김장철 양념채소류 전용 꾸러미사업(CSA) 실시346

■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 제안배경 : 해양관광 자원이 풍부한 태안군의 장점을 살려서 태안을 방문하는 외부인(관광객)에게 태안군 지역산 먹거리를 판매, 홍보, 소비자와의 교류 전략 구사할 필요
- 주요 내용1 : 각종 체험마을, 해수욕장, 수목원 등 주요 관광명소를 거점으로 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 주요 내용2 :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광명소를 유형별 구분, 품목구색도 이에 따라 구성하여 납품
- 주요 내용3 : 읍면별 로컬푸드 참여자 농가를 조직화, 작부체계 조정, 교육 등 이행 필수

■ 서산과 태안의 통합마케팅 집중화 전략

- 제안배경 : 충남 내에서 유일하게 2개시군간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출범하는 만큼 산지유통

#### 부문 집중할 필요

- 주요 내용1 : 마늘 등의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한 읍면별 산지조직화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
- 주요 내용2 : 최근 고구마 등 다른 소득작목으로 이동하는 추세와 더불어 통합마케팅 사업에 품목 추가
- 주요 내용3: 서산과 함께 대산항의 중국 초입전초기지로서 충남산 농식품 관문매장 입점 시 동참

#### ■ 마늘 및 고구마의 외식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가공원료 조달과 계약재배

- 제안배경 : 최근 농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유통 및 가공분야의 정책수요는 지역산 먹거리를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조달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 판로확보 차원에서)계약재배 선호함
- 주요 내용1 : 인근 지역의 외식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와 가공원료 조달 및 계약재배 협약 체결
- 주요 내용2 : 관련 업체에게 협약체결 및 이행시 각종 세금혜택과 법적, 제도적 애로사항 지원(특구 연계)
- 주요 내용3 :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농산물 품질의 명확한 기준 마련, 농가의 준수사항 및 기술지도 병행

#### 〈어업 분야〉

#### ■ 충남의 대표하는 해양·어촌관광의 메카로 육성

- 제안배경(이유, 문제제기) : 기존 휴양·관광지 이미지에 덧붙여 해양·어촌관광에 특화된 이미지 강화를 통한 어업외 소득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 내용1 : 안흥항의 마리나 항만 지정과 발 맞추어 해양관광·어촌관광이 결합된 블루투어리즘 추진
  - － 안흥항 인근 어촌마을의 어촌체험마을 조성
  - － 지역 수산물 레스토랑, 수산물 직매장 등 조성
  - － 산지위판장을 소비·관광·체험이 가능한 복합센터로 전환
  - － 군차원의 해양·어촌을 테마로 하는 4계절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전파·보급
- 주요 내용2 : 지역 내 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권역마을 아우르는 공동마케팅 조직 운영
  - － 상설 조직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을 아우를 수 있는 체험·관광 마케팅 전개
  - － 상근인력 확보 (사무국장 1명, 행정원 3명)
  - －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통한 통합 고객관리, 체험프로그램 개발, 회계·마케팅·행정 지원 등
  - － 태안 지역 이미지 및 체험마을에 대한 대외 홍보 강화(인터넷 마케팅 등)
  - － 대도시를 겨냥한 블루투어리즘 장소마케팅, 관계마케팅 강화
- 주요 내용3 : 낚시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 － 기존의 바다 낚시업은 어선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나, 태안군 차원의 낚시 어선에 대한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하고, 재미있는 낚시관광산업 육성

- 태안군이 인증한 낚시어선은 안전하다는 이미지 제고
- **주요 내용4 : 대산항 중국 여객선 취항에 따른 지역 특산물 소비여건 조성**
  - 지역 수산물의 대한 중국 관광객에 대한 홍보
  - 지역 어촌체험마을을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어업·어촌 명소로 육성
  - 서산시와의 연계 방안 모색

#### ■ 어촌마을기업 육성 및 6차산업화 추진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어업인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어촌 마을기업 및 6차산업화 육성 필요
- **주요 내용1 :** 현재 한 마을로 집중되어 있는 어촌특화사업, 6차산업화 등을 지역의 어촌마을로 전파하기 위한 어촌마을기업 육성
  - 1×3차 결합된 생산·관광형 6차산업화를 전략적으로 육성
  - 어촌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어촌마을 건전한 사회적 자본 형성 기여
  - 어촌마을의 일자리 중가를 통한 귀어·귀촌 확대 기여
- **주요 내용2 :** 지역 농업과 연계한 어촌 6차산업화 추진
  - 화훼산업 또는 꽃을 테마로 하는 어촌 6차산업화 단지 조성
  - 지역 호박고구마, 육쪽마늘, 절임배추 등과 연계한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지역 농산물과 수산물을 아우르는 향토음식(태안밥상) 개발 및 전파·보급
- **주요 내용3 :** 마을기업, 6차산업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여성어업인 역량 강화 추진
  -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촌감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 경영·회계·마케팅 교육, 향토음식 개발, 서비스 노하우 교육 등 여성 어업인의 능력 및 역할 강화
  - 여성 어업인 리더 육성을 통한 어촌사회의 여성 인권 신장 및 활력 부여
  - “태안 해녀”의 보전적 가치를 확대시키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 추진

#### ■ 가로림만 해양생태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가로림만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어업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이용방안 필요
- **주요 내용1 :** 가로림만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는 해양생태산업 육성
  - 가로림만 생태·환경 연구회, 학술대회 및 국제 포럼 운영
  - 해양·생태·습지·갯벌을 테마로 하는 해양생태관광단지 조성
  - 해양·생태·습지·갯벌 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
  - 서해 해양관학연구센터, 어패류 특화연구센터 등 위치를 위한 기반 조성
  - 가로림만 보전을 위한 「(가칭) 가로림 생태가치보전회」 운영
  - 서산시와 적극적인 협력관계 조성 필요

#### ■ 공생하는 안면도-원산도의 지속가능한 협력개발 방식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안면도-원산도 연육에 대비하여 태안·보령 주민들이 호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주요 내용1 : 보령시와 공생하는 원산도를 지향하고, 낚시어업 활성화, 어촌 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
- 주요 내용2 : 원산도와 안면도가 공생할 수 있도록 「안면도-원산도 주민협의회」 운영을 통한 현안과제 논의 및 해결

## 2. 서산

### 1) 포지션과 특징

■ 2011년 기준으로 서산시의 지역총생산 GRDP 중 농림어업 GRDP 비중은 4.1% 차지

- 2000년 6.5%에서 2011년 4.1%로 감소, 12개년간 연평균증감율은 -3.8% 수준
- 충남의 전체 연평균증감율 평균수준과 비슷한 추세로 서산시도 농림어업 비중 감소 추세
- 서산시 주력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마늘과 생강, 수산물의 경우 넙치, 조피볼락, 바지락, 굴

■ 주요 특징(농림업)

- 식량작물의 경우 감자가 특화도지수 1.77로 높고 충남 내 재배면적 비중은 22.1%로 높은 편
- 원예작물의 경우 양념채소류 등의 작목이 생산집중도가 높은 편
- 임산물의 경우 오미자, 산수유, 대추 등 특화도지수가 높고 특히 산수유는 4.68로서 충남 내 재배면적 비중이 17.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음
- 즉, 시설배추, 시설고추, 마늘, 양파 등 특화도지수가 높은 관계로 한중FTA가 발효되면 직접적인 피해발생이 예상되어서 서산시 전체 농업의 불안정성 내포
- 마늘 : 중국산 마늘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주산지 지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감자 : 생산량이 많지 않지만 대기업 유통업체에서 감자칩용 감자의 계약재배(법인형태) 중

표 6-12. 서산시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구분	농산물(식량 및 원예작물)							임산물		
	감자	시설배추	시설고추	사과	마늘	양파	땅콩	오미자	산수유	대추
특화도지수	1.77	4.79	1.48	1.51	2.11	2.25	1.52	2.62	4.68	1.44
충남 내비중	22.1%	11.7%	3.6%	3.3%	35.7%	38.0%	25.8%	9.6%	17.2%	5.3%

주 : 1. 특화도 지수 및 충남 내 비중은 수확면적 기준으로 산출, 특화지수 10이상이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 상기 소개된 품목은 한중FTA발효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보고서 2부, 3부) 중심으로 기술함

자료 : 농업총조사(2010)

■ 주요 특징(어업)

- 서산시는 태안군과 가로림만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긴 해안선과 넓은 갯벌 보유
  - 해안선은 148.99km로 충남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갯벌은 67km<sup>2</sup>로 충남의 19%를 점유
  - 도서는 총 27개로 충남의 9.9% 차지, 유인도서 4개, 무인도서 23개
  - 도서의 총 면적은 3km<sup>2</sup>이고, 유인도서의 세대 수 180세대, 인구 359명

- 어가 수는 973가구이고, 어업인구는 2,444명, 어선보유 수는 564척(1,311톤)
  - 전업어가 179가구, 겸업어가 794가구
  - 어선은 모두 동력선으로 대부분인 5톤 미만
- 어촌계는 17개소, 어업권은 136건(1,445ha), 면허어업 133건
  - 어촌계 17개소의 계원 수 1,234명
  - 마을·정치망 4건(145ha), 양식 129건(1,300ha), 내수면 3건
  - 면허어업은 해조류양식 5건, 패류양식 110건, 어류 등 양식 8건, 복합양식 6건, 마을어업 4건
- 국가어항 1개소, 지방어항 2개소, 어촌정주어항 5개소, 소규모 어항 7개소
  - 삼길포어항은 유희레저형 선박을 수용하는 어촌 마리나역으로 육성

#### ■ 최근 5개년간 관련분야 정책지원 현황(시군별 수요조사, 2015.04.)

- 마늘과 생각에 대한 최근 5개년간(2010년~2014년) 정책지원 규모는 총 19개 사업, 2010년 32억 원, 2013년 54억 원, 2014년 49억 원으로 높은 비중 차지

#### ■ 충남 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 2013년 기준 충남 전체는 1,203개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서산시는 전통주 5개소, 전통식품 30개소, 일반식품 18개소, 전처리반가공 5개소로 총 58개소 운영 중, 4.8% 비중 차지
- 서산시는 대중국과 자매결연 맺은 곳이 산동성 통청시, 우호협력을 맺은 곳은 안후이성 허페이시로서 총 2건, 서산시는 대산항 개항준비로 교류활동이 활발한 편

#### ■ 참고 : 주요 자원현황

표 6-13. 서산시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자원유형	세부내용
관광자원	서산한우목장, 서산버드랜드
농어업자원	서산 6쪽마늘, 생강, 생강한과, 간척지쌀, 팔봉감자, 6년근 인삼축제, 조피불락젓국, 양란, 어리굴젓, 밀국낙지탕
마을공동체자원	서산해미읍성축제, 팔봉산 감자 축제, 어송 에코빌리지(마을기업),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사회적기업), 서산 천수만 세계 철새 기행전(서산버드랜드), 서산 6쪽마늘축제
문화자원	농촌전통놀이체험: 벚가리축제(서산 회포마을)
환경생태자원	천수만, 대호방조제, 철새(도래지), 천수만과 가로림만, 아라메길, 팔봉산, 가야산, 중앙호수공원, 간월도
역사자원	해미읍성, 마애여래삼존상, 안경기념과
지역현안	<대산항 개발 관련>대산항 대중국 국제여객선 취항, 서산 9경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관광자원 활용)

자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추진현황 및 중점방향

## ■ 한중FTA에 대한 서산시의 대응현황(시군별 순회간담회, 2015.06.)

- 한중FTA 협상결과 서산시의 마늘과 생강 주산지로서 양념채소류 품목에 직접적 피해 예상
- FTA에 대응하여 마늘과 생강에 대한 유통분야 지원 및 소비촉진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기술센터가 작목전환(파프리카 및 체리) 및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새로운 품목을 받아들일 상황은 아님
- 한중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최저생산비 보장을 해주어야 농업이 유지, 보상금 지원방식보다는 고품질생산, 유통지원 등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지원 필요
- 산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규모화된 법인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2016년 대산항에 여객선이 취항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각종 관광기반 시설 구축 예정
- 수출경험은 신비디움(중국), 양배추(일본, 대만), 쌀(호주), 백합(일본), 표고버섯(일본) 등
- 생산혁신을 위해서 체험과 연계한 아로니아 생산, 가공산업 육성(2단계 3농혁신 추진과 연계한 서산시의 부문별 주력정책, 2015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 ■ 어업분야 추진현황

- 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굴, 바지락, 낙지 등이며, 멸치, 실치 등이 생산되고 있음
  - 주로 사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 없음
  - 최근 감태를 활용한 가공산업 움직임 있음
- 어촌체험마을과 어촌특화역량강화 사업 추진 중
  - 어촌체험마을로 서산 중리어촌체험마을
  - 서산 중앙어촌계와 웅도어촌계는 어촌특화 역량강화 대상지로 선정되어 추진 중
  - 지곡 어촌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중

## ■ 경쟁력 있는 농업, 활력이 넘치는 농촌, 주민이 행복한 복지 서산(농발계획)

- 고품질 생산지원 및 생산시설 현대화,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 단지경영체 육성, 산지유통 시설 지원 및 활성화, 에너지 절감, 홍보마케팅 활성화, 전통식품 및 가공식품의 육성, 식생활개선을 위한 각종 활동, 지역소비를 위한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친환경농업 체험행사지원 등
-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 위한 귀농귀촌 애로사항 지원, 농업인 교육컨설팅 지원, 조직육성

## ■ 서산과 태안 산지유통의 규모화, 전문화(서산, 태안 산지유통종합계획)

- 핵심전략을 서산태안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의 통합(서산태안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연합을 넘은 지역연합, 브랜드체계 확립으로 설정하여 2개 시군 산지유통종합계획 연계

- 서산과 태안의 공통 주력품목인 한지형 마늘을 중심으로 한 통합마케팅의 성공을 지역 농산물 확대하여 접목
- 서산시의 경우 마늘, 감자, 고구마, 생강, 채소류, 학교급식 등 12개 조식을 중심으로 추진

### 3) 세부 추진전략

#### 〈농업 분야〉

#### ■ 대중국 수출을 위한 산양삼과 표고버섯 전략적 품목육성 및 농식품 아이템 개발

- 제안배경 : 산양삼의 중국산과 확연한 차이가 있고 생산이력제 등록대상(산림청)으로 품질차 별화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서산시에서 활용할 필요
- 주요 내용1 : 표고버섯의 경우 톱밥배지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재배 하고 상위계층을 겨냥한 수출상품화(중국산과 품질차이 있어서 수출가능성 있음)
- 주요 내용2 : 산양삼의 경우에도 중국 내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출상품화

#### ■ 대산항의 중국 초입전초기지로서 충남산 농식품 전용매장 설치

- 제안배경 : 중국과 서해가 교류하게 되는 초입기지로서 대산항을 농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 하자는 취지
- 주요 내용1 : 충남과 서산의 매력과 맛을 자랑하는 농식품 전용매장 설치(인테리어, 홍보 동 영상 등)
- 주요 내용2 : 오감브랜드 농산물 및 산지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산물을 우선 납품하여 매대 진열

#### ■ 마늘 및 서산감자의 외식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가공원료 조달과 계약재배

- 제안배경 : 서산감자는 이미 대기업 감자칩에 납품을 위한 계약재배 사업 경험 있기에 이를 타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
- 주요 내용1 : 지역내 입점한 외식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와 가공원료 조달 및 계약재배 협약 체결
- 주요 내용2 : 관련 업체에게 협약체결 및 이행시 각종 세금혜택과 법적, 제도적 애로사항 지원 (특구 진의)
- 주요 내용3 :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농산물 품질의 명확한 기준마련, 농가의 준수사항 및 기술 지도 병행

## 〈어업 분야〉

### ■ 수산업 통계정보 구축 추진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현재 서산 수산업에 통계자료 부족으로 해양·수산정책 개발에 어려움 산재
- 주요 내용1 : 서산시 어촌계 및 어선어업 임의단체를 중심으로 생산량, 생산금액, 현황 등에 대한 통계정보 구축

### ■ 농어촌 복합 6차산업화 추진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대산항에 중국 여객선 취항에 따라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농어촌 복합 6차산업화 추진 필요
- 주요 내용1 : 삼길포항 어촌 마리나역 중심의 1×3차형 6차산업화 추진
  - 삼길포항을 지역 어업·어촌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여 수산물 로컬푸드 직판장, 로컬푸드 식당, 지역 축제·문화 공간으로 육성
  - 지역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하고 「(가칭) 삼길포 복합 다기능항 추진협의회」 운영
- 주요 내용2 :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갯벌 어촌체험마을 육성
  - 농촌과 어촌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어촌체험마을에서 농업·어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 고구마 캐기, 갯벌체험, 바지락 캐기 등 바다와 인접한 농어촌 체험 상품 개발
  -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상품(숙박, 외식 등) 개발
  - 계절마다 특색있는 제철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식상하지 않은 어촌체험마을 조성
  - 지역의 농·어촌 체험관광을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육성
- 주요 내용3 : 대산항 중국 여객선 취항에 따른 지역 특산물 소비여건 조성
  - 지역 수산물의 대한 중국 관광객에 대한 홍보
  - 지역 삼길포항 및 어촌체험마을을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어업·어촌 명소로 육성
  - 태안군과의 연계방안 모색

### ■ 가로림만 해양생태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가로림만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어업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이용방안 필요
- 주요 내용1 : 가로림만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보존하는 해양생태산업 육성
  - 가로림만 생태·환경 연구회, 학술대회 및 국제 포럼 운영
  - 해양·생태·습지·갯벌을 테마로 하는 해양생태관광단지 조성
  - 해양·생태·습지·갯벌 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
  - 서해 해양관학연구센터, 어패류 특화연구센터 등 위치를 위한 기반 조성
  - 가로림만 보전을 위한 「(가칭) 가로림 생태가치보전회」 운영
  - 태안군과 적극적인 협력관계 조성 필요

### 3. 보령

#### 1) 포지션과 특징

■ 2011년 기준 보령시 지역총생산GRDP 중 농림어업 비중은 7.3% 차지

- 2000년 16.3%에서 2011년 4.1%로서 12개년간 연평균증감율 -6.5%로 가파른 감소추세
- 충남 전체 연평균증감율 평균은 -3.7%로서 상대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도 보령시의 농림어업 비중 감소는 위축
- 보령시의 8대 주력품목은 쌀, 고구마, 고추, 방울토마토, 포도, 무화과, 한우, 버섯 등이고 이들의 매출액은 1,528억 원, 최근 취나물 추가선정, 전반적으로 다품목 소량생산 구조

■ 주요 특징(농림업)

- 식량작물로서 쌀과 고구마 특화도지수가 각 1.27~1.28로서 높고 충남 내 비중은 6.6% 차지
- 원예작물로서 양념채소류인 시설배추, 시설무, 시설고추 등이 특화도지수가 높아서 한중FTA 발효에 따른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고 향후 보령시 농업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
- 그 외에 시설토마토 및 시설포도도 특화도지수가 각 1.27, 4.17로서 높고 충남 내 비중은 포도의 경우 7.5% 차지
- 임산물의 경우 취나물의 특화도지수는 무려 20.61로서 매우 높은 편이고 그 외에 산양삼, 구기자의 특화도지수도 높게 나옴
-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에 따라서 양송이, 방울토마토, 취나물 재배증가 추세이고 경쟁력과 농가의 재배선호도가 높아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표 6-14. 보령시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구분	농산물(식량 및 원예작물)							임산물		
	쌀	고구마	시설배추	시설무	시설고추	시설토마토	시설포도	취나물	산양삼	구기자
특화도지수	1.27	1.28	4.11	4.06	2.23	1.27	4.17	20.61	8.37	2.56
충남 내비중	6.6%	6.6%	6.9%	6.8%	3.7%	2.1%	7.5%	18.7%	2.0%	2.3%

주 : 1. 특화도 지수 및 충남 내 비중은 수확면적 기준으로 산출, 특화지수 10이상이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 상기 소개된 품목은 한중FTA발효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보고서 2부, 3부) 중심으로 기술함

자료 : 농업총조사(2010)

■ 주요 특징(어업)

- 보령시의 해안선은 272km, 도서 수는 89개로 충남에서 태안에 이어 두 번째임
  - 도서는 유인도서 16개, 무인도서 73개이고, 도서의 총 면적은 26km<sup>2</sup>
  - 유인도서의 세대 수는 1,629세대, 인구는 3,386명

- 어가 수는 2,438가구, 어업인구는 6,095명, 어선보유 수는 1,322척(7,480톤)
  - 전업어가 640가구, 겸업어가 1,798가구
  - 어선은 동력선이 1,310척(7,435톤), 무동력은 12척(5톤)
- 어촌계는 28개소, 임의단체는 17개소, 지역수협 2개소, 어업권 169건(2,838ha), 면허어업 169건
  - 어촌계 28개소 중 21개소가 양식 또는 마을, 복합어업
  - 임의단체는 근해안강망, 선주협회 등 어선어업자 단체와 해삼어류종묘, 김생산자 등 양식어업자로 구성
  - 지역수협은 보령수협, 대천서부수협 2개소가 있고, 총 조합원 수는 4,766명
  - 어업권은 마을어업 90건(2,005ha), 양식어업 79건(833ha),
  - 면허어업은 정치망 1건, 해조류양식 4건, 패류양식 41건, 어류 등 양식 27건, 복합양식 7건, 마을양식 89건
- 국가어항 2개소, 지방어항 8개소, 어촌정주어항 2개소, 소규모 어항 13개소
  - 오천항은 간재미, 키조개로 유명하고, 외연도항은 빼어난 해양경관을 자랑함

#### ■ 최근 5개년간 정책지원 현황(시군별 수요조사, 2015.04.)

- 한.중 FTA 협상 타결에 대비한 우리지역 농산물 및 농가들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5년 농업기술분야 59억 원의 예산 반영으로 농가 및 영농법인(생산자 단체 등)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지역특화 품목육성사업, 버섯현대화 사업, 귀농지원 등
- 주력품목에 대한 농림부분의 예산지원은 2개부서 24억 원으로 농정과 20억 원, 농업기술센터 4억 원 투자

#### ■ 충남 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대중국 교류협력 현황

- 충남 전체는 1,203개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 중 보령시는 전통주 3개소, 전통식품 12개소, 일반식품 6개소로 총 21개소,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보령시는 귀농인을 중심으로 전통장류가 제조가 많고 유명한 곳도 많은 편
- 보령시는 대중국과 자매결연 맺은 곳이 상하이시 칭푸구, 우호협력을 맺은 곳은 텐진시 빈해 신구로서 2건

#### ■ 참고 : 주요 자원현황

표 6-15. 보령시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자원유형	세부내용
관광자원	보령머드축제,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축제, 무창포대항 전어축제, 대천항수산물 축제, 보령 독산리 독살
농어업자원	천북 굴, 만세보령 특미, 까나리 액젓, 사현포도, 키조개
마을공동체자원	사현포도조합법인
문화자원	석탄박물관, 갈매꽃성지, 성주사지(오충석탑, 삼충석탑, 중앙삼충석탑, 동삼충석탑, 석동, 지석불입상), 도미사당, 개화예술공원, 남포벼루제작
역사인물자원	토정 이지함선생, 청산리 김좌진장군, 신라 대학자 고운 최치원
환경생태자원	대천항, 해수욕장(오봉산, 원산도, 호도, 대천, 용두, 무창포, 삼시도, 장고도, 장안), 오천항, 섬(원산도, 효자도, 장고도, 고대도 등),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성주산, 보령머드, 오서산

자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추진현황 및 중점방향

### ■ 한중FTA에 대한 보령시의 대응현황 (시군별 순회간담회, 2015.06.)

- FTA로 인한 피해품목과 피해액 등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 국가차원의 거시적 대응방안 중요
- 농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필요, 소모성 지원사업 지양
- 고령화되는 농업인에 대한 작목전환 등 방향성 제시 필요

### ■ 어업분야 추진현황

- 수산물 생산량은 18,212톤, 생산금액은 1,096억 원
  - 어류 9,460톤(431억 원), 갑각류 3,516톤(355억 원), 연체동물 1,387톤(158억 원), 패류 3,211톤(138억 원), 기타 수산물 128톤(4억 원)로서 주요 품목은 꽃게, 바지락, 해삼, 김, 키조개 등
- 수산물 가공품은 생산량 3,616톤, 생산금액 57.4억 원으로 수산물 가공품은 전량 냉동·냉장
- 자율관리공동체 20개소, 어촌체험마을 2개소
  - 자율관리공동체(호도, 장고도, 무창포, 주교 어촌계 등 20개소), 어촌체험마을(장고도, 무창포 어촌계)
- 천북 굴단지가 “천북 웰빙특화단지 조성사업”대상지로 선정
  -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가공·유통 복합시설 설치로 수산식품산업 인프라 확대 기대

### ■ 특성화 및 융복합 활성화로 보령의 농업·농촌·식품산업 도약기반 형성(농발계획)

-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권역별로 차별화되는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만세보령 쌀가공 산업 육성사업, 특화발전을 위한 「보령버섯·힐링특구」 지정 개발, 농산물 및 식품산업 공동 브랜드마케팅 사업, 머드고구마빵 개발 및 마케팅 강화사업,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고부가가치 가치를 위한 저탄소인증 농축산물 특화사업,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사업, 영농여건불리 농지[한계농지]효율적 활용사업, 홍보지구 방조제복원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단지 확보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종합지원센터 설립, 농업생태단지(AEIP) 조성 사업, 농어촌경제지원센터 설립 사업, 농식품융합 마이스터고 설립 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 Three-안전」 사업
- 지역역량강화 및 농정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상생적 농정거버넌스 구축 사업, 농촌발전을 선도하는 지역리더 양성 사업
- 표고버섯 및 양송이버섯 유통시설 확충에 주력(2단계 3농혁신 추진과 연계한 보령시의 부문별 주력정책, 2015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 3) 세부 추진전략

## 〈농업 분야〉

## ■ 농업인의 연령대, 계층별 역량을 고려한 차별화된 생산과 유통

- 제안배경 : 영세소농 및 고령농, 전업농이 각기 다른 작목으로 특화되어 있는 특징을 살려서 이를 더욱 완고히 하는 생산과 유통기반 전략 구사 필요
- 주요 내용1 : 양송이버섯, 방울토마토, 취나물의 경우 고령농이 재배하기에 적합한 작물로서 점차 관련된 정보와 기술지도, 작목전환을 다른 영세농, 고령농에게 전파
- 주요 내용2 : 영세소농과 고령농을 위한 로컬푸드 사업 실시, 학교급식 조달을 위한 생산단계 관리, 지도
- 주요 내용3 :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지유통사업(양송이버섯)을 타주력품목에 접목하여 확산

## ■ 양송이버섯과 방울토마토의 고품질친환경상품화

- 제안배경 : 보령시의 주력품목이자 한중FTA발효에 따른 간접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으로서 사전 대비
- 주요 내용1 : 해당 농산물의 10%를 고품질 친환경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단계부터 유통, 소비단계까지 보령시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체계 구축
- 주요 내용2 : 산지유통사업 경험이 있고 현재도 시행 중인 양송이버섯의 경우를 사례로 확산하여 타품목에도 이를 접목하되 대규모 유통보다는 고품질친환경 상품으로서 승부

## ■ 보령 장인이 만든 전통식품(장류) 계승 및 보전 사업

- 제안배경 : 귀농인을 중심으로 전통식품 중에서도 장류제조 가공이 많고 유명한 곳이 많고, 수출을 위한 현지 위생기준 및 무역장벽 등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 필요
- 주요 내용1 : 지역 내에서 포기하지 않고 장류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계승 및 보전 활동
- 주요 내용2 : 지역 내 콩 생산농가와 연계하여 콩 생산 및 품질관리 시행, 농가와 전통식품 법인 간 안정적 계약 및 공급관계, 자연스럽게 지역 내 확산이 되면서 장류사업 지속가능

## ■ 관광자원 및 자연자원과 결합한 보령시 농수산물 로컬푸드

- 제안배경 : 들, 산, 바다 등과 같은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골고루 분포하여 관광객 유인요소가 상존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보령시 농수산물 로컬푸드 전략 추진 필요
- 주요 내용1 :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령머드축제, 그 외에 무창포 바닷길 축제, 전어 축제 등과 연계하여 보령산 농특산물 판매(기간은 일시적이거나 상품의 좋은 이미지를 적극 홍보)

보하는 기회)

- 주요 내용2 : 자연자원인 대천해수욕장, 각종 섬, 성주산, 오서산 등 지역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결합하여 고품격이고 소박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 〈어업 분야〉

### ■ 충남 수산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

- 제안배경(이유, 문제제기) : 천북 웰빙특화단지 조성을 계기로 충남을 대표하는 수산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 주요 내용1 : 수산물 생산, 가공, 외식산업을 아우르는 수산식품산업 네트워크 조성
  - 천북 웰빙특화단지 조성을 계기로 국가 수산식품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
  - 보령신항, 대천항, 오천항, 천북면을 잇는 「보령 수산식품산업 네트워크」 구성
  - 「보령 수산식품산업 네트워크」는 대천항(생산, 관광), 오천항(생산, 관광), 천북면(가공, 소비), 보령신항(수출, 소비)으로 연결되는 생산-유통-소비-관광의 네트워크 구조 창출
- 주요 내용2 : 여성어업인 중심의 “만세보령 수산음식 개발”
  - 꽃게, 키조개, 김 등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 및 보급
  - 여성어업인 중심의 “만세보령 수산음식 연구회” 조성 및 전문 수산물 레스토랑 설치
  - 지역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먹거리 보전 등 기대

### ■ 광역 수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로컬푸드지원센터 운영

- 제안배경(이유, 문제제기) : 충남 중·남부권의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거점지역으로 육성 필요
- 주요 내용1 : 보령을 중·남부권 광역 수산물 학교급식 거점으로 활용하고, 당진(북부권)과 연계 추진
  - 당진은 북부권, 보령은 중·남부권 담당하고 상호보완적 역할을 통하여 유통·물류, 저온저장·냉동, 배송 등에 공동으로 대응
- 주요 내용2 : 충남지역 학교 및 청소년에게 지역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주요 내용3 : 산지위판장 또는 FPC 등에 전처리 시설을 구축하여 광역단위 수산물 학교급식지원체계 구축

### ■ “찾아오는 어촌마을” 운영

- 제안배경(이유, 문제제기) : 현재 어촌관련 정책사업과의 뚜렷한 실적이 미비하므로 향후 어촌정책 개발을 통하여 도시민이 찾아오는 보령 어촌만들기 추진
- 주요 내용1 : 지역 특산물인 바지락, 키조개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이 찾아와서 어촌을 경험·체험하고, 지역 수산물(꽃게, 바지락, 키조개 등)을 맛볼 수 있는 소비지 육성

- 주요 내용2 : 어촌마을 중심의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해양수산부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충남 희망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 충남 농수산물 수출의 거점항으로 “보령신항” 육성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다기능복합항으로의 “보령신항”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충남 농수산물 대 중국·동남아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육성
- 주요 내용1 : 대 중국·동남아 수출을 위하여 충남 농수산물이 집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중국·동남아 대도시와의 항로 개설 등 필요

■ 공생하는 안면도-원산도의 지속가능한 협력개발 방식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안면도-원산도 연육에 대비하여 태안·보령 주민들이 호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주요 내용1 : 태안군과 공생하는 원산도 지향, 낚시어업 활성화, 어촌 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
- 주요 내용2 : 원산도와 안면도가 공생할 수 있도록 「안면도-원산도 주민협의회」 운영 통한 현안과제 논의 및 해결

## 4. 서천

### 1) 포지션과 특징

■ 2011년 기준 서천군의 지역총생산 GRDP 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0%

- 2000년 19.2%에서 2011년 13.0%로서 충남 내에서는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함
- 12개년 간 연평균증감율은 -3.2%로서 충남 전체 연평균증감율 평균 -3.7%과 비슷한 감소

■ 주요 특징(농림업)

- 서천군의 주력품목은 쌀로서 금강하구의 충적토를 기반으로 논농업 발달, 대표 농산물(하지만 한중FTA 피해예상 품목군으로는 포함되지 않음)
- 식량작물의 경우 팔, 원예작물의 경우 시설고추, 시설토마토, 시설포도 등, 특용작물의 경우는 참깨, 들깨 등이 특화도지수가 높은 편
- 임산물의 경우 산양삼, 헛개나무, 취나물 등이 특화도지수가 높은 편으로 충남 내 재배면적 비중이 각 15.3%를 차지하고 있음

표 6-16. 서천군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구분	농산물(식량 및 원예작물)						임산물		
	팔	시설고추	시설토마토	시설포도	참깨	들깨	산양삼	헛개나무	취나물
특화도지수	1.55	2.01	1.08	1.85	1.34	1.92	5.67	1.19	5.68
충남 내비중	6.0%	4.6%	2.5%	2.5%	5.0%	7.1%	15.3%	3.2%	15.3%

주 : 1. 특화도 지수 및 충남 내 비중은 수확면적 기준으로 산출, 특화지수 10이상이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 상기 소개된 품목은 한중FTA발효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보고서 2부, 3부) 중심으로 기술함  
 자료 : 농업총조사(2010)

■ 주요 특징(어업)

- 서천군은 서부지역에 해안선 111km를 접하고 있으며, 도서 수는 12개
  - 유인도서 1개소(유부도), 무인도서 11개소
  - 유부도에는 61세대, 106명 거주
- 어가 수 969가구, 어업인구 2,638명, 수협조합 2개소, 어선보유 수는 1,504척(4,945톤)
  - 전업어가 310가구, 겸업어가 659가구
  - 지역수협은 서천서부수협, 서천군수협이 있으며 총 조합원은 2,027명
  - 어선은 동력선 1,499척(4,943톤), 무동력 5척(1톤)
- 어촌계는 19개소, 어업권은 124건(4,742ha), 면허어업 123건
  - 어촌계는 19개소의 계원 수 1,462명

## 제6부 시군별 대응방안

- 마을·정치어업 66건(1,158ha), 양식어업 57건(3,584ha), 내수면 1건
- 면허어업은 정치망 1건, 해조류양식 24건, 패류양식 23건, 어류 등 양식 5건, 복합양식 5건, 마을 어업 65건
- 국가어항 1개소, 지방어항 3개소, 소규모 어항 3개소
  - 홍원항에서 전어·꽃게 축제를 개최하여 연간 15만명 방문 및 17억 원 경제효과

### 충남 내 식품제조가공업체

- 2013년 기준 충남 전체 1,203개소의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있는데 서천군은 총 49개소로서 4.1%를 차지하고 있음. 즉, 전통주 23개소, 전통식품 18개소, 일반식품 7개소, 전처리반가공 1개소임

### 참고 : 주요 자원현황

표 6-17. 서천군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자원유형	세부내용
관광자원	한산모시문화제, 홍원항 전어·꽃게 잔치, 동백꽃 주꾸미 축제 서천철새여행, 자연산 넙치도미축제
기타자원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 국립생태원
농어업자원	한산모시, 서래야쌀, 김, 전어, 임산물(밤, 버섯, 호두, 대추, 도토리, 은행)
마을공동체자원	달고개모시마을, 농촌체험마을
문화자원	한산소곡주, 기벌포(장항의 옛지명) 문화권
역사인물자원	성리학의 대가 목은 이색
환경생태자원	신성리 갈대밭, 철새 도래지인 금강하구 독, 춘장대해수욕장
지역현안	철새유입에 따른 가축질병 발생, 어업자원 감소, 연안침식 등

자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추진현황 및 중점방향

### 한중FTA에 대한 서천군의 대응현황(시군별 순회간담회, 2015.06.)

-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의 양허제외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냉동 및 가공식품 등 대체식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하락 등 피해발생 우려
- 농산물 소비량의 감소 및 가공식품 수입, 인근국가로 우회한 농산물 수입 증가, GMO농산물 가공식품 수입 등 우리농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대비 필요
- 쌀의 대체작목 육성은 전무한 실정으로서 밀, 청보리와 같은 대체작물 육성, 그 외 시설원에 작물(블루베리, 쪽파, 시설고추 등)의 적극적인 육성으로서 소득보전 방안 마련해야 함
- FTA 대책으로서 영세농, 고령농, 소농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폐업지원보다 해당 품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정책추진 바람직함

### 어업분야 추진현황

- 서천군의 수산물 생산량은 14,897톤, 생산금액은 560억 원

- 생산량은 해조류가 가장 많고, 생산금액은 어류가 높음
  - 해조류는 김 생산이 많으며, 서천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는 원초김 생산지
  -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24,046톤, 생산금액은 451억 원
    - 냉동품 862톤(80억 원), 연신품 34톤(1.1억 원)
    - 가공 김의 생산량은 23,150톤, 생산금액은 370억 원, 서천의 마른 김 가공공장 57개소
  - 갯벌을 이용한 어촌체험마을 운영 및 해양생태 관련 시설 입지
    - 월하성 어촌체험마을, 선도리 갯벌체험마을 등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추진
    - 국립 생태원 및 해양생물자원관 등 해양생태 관련 국가시설 입지
-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서천농업, 살기 좋고 매력적인 풍요의 도시,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농발계획)
- 지속가능한 농산업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건강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가공과 유통 활성화, 대농·전업농·가족농·중소농의 균형 육성,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
  - 창의적인 농촌경제를 위하여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활성화, 가공·유통·체험·관광 등 융복합 활성화, 전통식품·향토음식·전략산업 육성
  - 건강한 지역주민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내재적 발전 지향, 상생과 협력의 지역발전 모델 구축,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강화
- 2단계 3농혁신 추진과 연계한 서천군의 부문별 주력정책 (2015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 생산혁신을 위하여 주목할 키워드는 지속가능성과 자원순환 등으로 타시군과 차별성 있음
  - 유통혁신을 위하여 농특산물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가공식품 관련사업에 주력

표 6-18. 서천군의 분야별 역점 추진과제

분야	역점 추진과제
생산혁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기계지원
	쌀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서천쌀 경쟁력 강화
	이상기후 급증에 따른 병해충 및 기상재해 과학적 대응
	유기농 고추 생산단지 조성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는 자원순환농업단지 조성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특용자원을 조립하여 단기소득과 고부가가치 창출
	우량임목 보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서래야 명품 김 활성화 추진 (어업분야)
	판교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유통혁신	서래야 즉석밥 개발 마케팅사업
	한산모시 및 소곡주 관련사업 육성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 활성화
소비혁신	생활형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
지역혁신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역량혁신	농업인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교육

#### ■ 서천한산모시산업특구(2015)

- 2007년~2015년까지 9개년간 137억 원 예산 지원
- 전통적 명성을 보유한 서천 한산모시를 기계를 이용하여 제품화, 모시를 이용한 식품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모시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 모시산업과 연계한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자 함.
- 주로 한산모시현대화사업, 한산모시산업화사업, 전통한산모시 육성사업, 한산모시체험관광사업 등을 추진, 규제특례로선 총 5건

### 3) 세부 추진전략

#### 〈농업 분야〉

#### ■ 경종과 축산 간 자원순환형 농업구조의 완성

- 제안배경 : 서래야 브랜드쌀은 이미 참여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조직화 및 정책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고 있는 우수사례로 평판
- 주요 내용1 : 향후 서래야 브랜드쌀과 축산 간 자원순환되는 구조를 완성하는 시기로 삼고 농업분야에서의 지역순환경제 구조를 달성목표로 설정
- 주요 내용2 : 벼짚환원사업, 논 동계작물 재배확대, 조사료 공급 기반확대 등을 실행

#### ■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결합하는 새로운 창의형 농업 발굴

- 제안배경 : 다른 지역과 달리 귀농인, 귀촌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이 활발한 활동하는 곳,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타민간조직의 활성화도 상당수준 되어있는 현실을 적극 활용
- 주요 내용1 : 전업농업인 조직과 달리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 마련(서천군 농업창업 아이디어 발굴대회 등)
- 주요 내용2 : 인프라 지원, 법률 상담, 규제완화 등 장애요인 제거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창의형 농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

#### ■ 지역관광 및 자연자원과 농특산물 자원 간 결합

- 제안배경 : 지역내 관광자원, 자연자원, 농특산물 자원 등 각 영역간 자원들을 융복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와 교류할 수 있는 기반 구축할 필요
- 주요 내용1 : 관광자원인 한산모시문화제, 주꾸미축제, 넘치도미 축제 등에 덧붙여 서래야 쌀 축제 연계
- 주요 내용2 : 자연자원인 서천철새여행, 신성리 갈대밭, 춘장대 해수욕장 등 지역산 농특산물 자원을 결합하여 자연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고 지역산 농특산물을 판매



- 주요 내용3 : 최근 국립생태원의 개관으로 인하여 지역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내 농특산물 소비로 연계되고 생태체류형 사업으로 순환구조창출 완성

## 〈어업 분야〉

### ■ 원초김 주산지에서 김산업의 메카로 이미지 변신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전남 완도와 더불어 원초김의 주산지이나 상대적으로 김의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성 부진하므로 서천김의 부가가치 향상
- 주요 내용1 : 고부가가치의 김 생산 및 향토 김산업의 전략적 육성
  - 조미김, 맛김, 도시락김, 김스낵 등 다양한 상품 개발
  - 해외시장 적극 진출을 통한 국제적인 인지도 향상
  - 다양한 김 관련 콘텐츠 개발을 통한 원산지의 위상 강화
- 주요 내용2 : 김 주산지로서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마케팅 부서 설치 및 생산자 조직화 추진
  -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육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김 전담 마케팅 부서 설치
  - 김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 제고 및 시장교섭력 강화
- 주요 내용3 : 대중국 수출 브랜드 개발을 통한 중국 소비자가 좋아하는 조미김 산업 육성
  - 서천, 보령, 홍성 3개 시·군의 연계·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중국시장 공략방안 모색

### ■ 해양생태를 활용한 갯벌보전지구로서의 역할 강화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천혜의 갯벌, 철새 도래지 등 지역의 생태·환경적 자원을 보호 하면서, 이를 주민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전후방 산업 육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율적 이용방안 모색
- 주요 내용1 : 서천 갯벌의 자생적 회복력 증진 및 보호 추진
  - 지역 갯벌이 개발, 관광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군차원의 갯벌 보전·관리계획 수립
  - 갯벌을 총 3개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보전 (절대보전지역, 보전·관광지역, 관광지역)
  - 절대보전지역: 개발과 관광이 엄격히 제한되는 갯벌, 보전·관광지역: 보전과 관광이 양립하는 갯벌, 관광지역: 자유로이 관광이 허용되는 갯벌
  - 갯벌과 철새 등 생태학적 자원을 극대화시켜 어촌체험마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 ■ 홍원항의 지역 수산물 소비 거점화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관광객(도시민)이 서천의 어항, 어촌, 수산물에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어항과 연계한 수산물 판매·소비 촉진
- 주요 내용1 : “전어·꽃게 축제”등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지역 수산물의 소비지로 육성
  - 수산물 전문 레스토랑, 수산물 직매장·직거래 장터 운영
  - 추가“주꾸미”를 메인으로 하는 추가 관광·음식 상품 개발
  - 전어, 꽃게, 주꾸미 등을 활용한 지역 향토식품 육성 및 보급

■ 충남을 선도하는 수산업 사회적경제 메카로서의 역할 강화

- 제안배경(이유, 문제제기) : 지역순환경제, 귀농귀촌의 선도적인 郡으로서의 위상 제고 및 충남 어업·어촌분야의 사회적경제, 귀어·귀촌 확대를 위한 서천군의 역할 강화
- 주요 내용1 : 충남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의 메카로서 불모지인 수산업 관련 사회적경제 육성
  - 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 수협의 혁신을 통한 건전한 사회적 자본 형성
- 주요 내용2 : 귀어·귀촌의 메카로서 역할 강화
  - 귀농·귀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귀어·귀촌을 적극 추진하여 귀어·귀촌 모델로 성장
  - 고령의 베테랑 어업인과 귀어·귀촌의 멘토-멘티 제도 운영
  - 원주민과 귀어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영어법인, 어업회사법인 설립 지원
  - 귀어·귀촌인의 어촌계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

### 제3절 지역성 지속권역

표 6-19. 품목과 충남-시군의 대응방안 종합연계도 : 지역성 지속권역

권역	지역	연관 부문	연관 품목 및 각종 자원	추진전략
지역성 지속권역 (금강내륙권)	공주	생산, 가공, 브랜드	가공상품(밤 된장, 밤 고추장, 밤 조청), 밤연구소	명품공주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고도화
		유통, 인력,	로컬푸드 판매장	공주시 2단계 유통체계구축 안정화(로컬푸드 및 산지유통)
		유통, 가공, 농촌체험마을	밤, 은행, 헛개나무, 표고버섯, 각종 농촌체험마을	다양한 임산물 자원을 활용한 신유통 및 신가공시스템 구축
		문화, 소비, 가공, 농산촌체험	문화관광자원(백제문화관광벨트, 금강문화관광 협력벨트, 공주고도지구 사업), 밤연구소, 관광두레사업, 농산촌 체험관광	백제 및 금강과 연계한 문화가 있는 공주만의 농식품상품 개발
		환경, 생산	자연자원(금강권, 계룡산 등)	강과 산이 있는 환경친화적 농업생태벨트 구축
	계룡	도시농업	도시텃밭, 도시양봉, 시단위 푸드플랜	도시농업 기반구축 및 먹거리 전략계획 수립
		생산, 환경	삼채류, 식량작물(콩, 팥), 과채류(딸기, 토마토)	단계적으로 전품목의 환경친화적 농업화
		생산, 가공, 유통	은행, 도라지, 더덕, 산채나물류, 유통 및 가공기반	임산물(은행, 도라지, 더덕, 산채나물류) 재배단지 조성 및 연합유통사업
		유통	인삼, 들깨, 참깨, 팥	특용작물(인삼, 들깨, 참깨, 팥) 연합유통사업
	홍성	생산, 수출	유기농쌀	홍성 유기농업 특구와 친환경농식품 대중국 수출특화 지구 연계(유기농쌀)
		유통	산나물, 약용작물, 오감 공동브랜드	충남 오감공동브랜드 임산물(산나물, 약용작물)품목 추가, 공동연합사업 시행
		소비, 가공	유기농쌀, 유기농채소	유기농쌀과 유기농채소로 구성된 홍성밥상의 개발과 확산
		생산	팥, 감자, 고구마	팥, 감자, 고구마 등의 기초 식량작물의 자급률 확대
		가공	조미김, 새우젓, 까나리젓 등	충남 수산가공업의 메카로 육성
		생산, 가공	바지락, 바다송어, 새우류, 새조개 등, 브랜드(바지락), 전략품목(바다송어), 수산가공품(새우류, 새조개)	전략 수산물 육성 및 판로 확대
		문화, 역사	토굴새우젓	광천 토굴새우젓의 “세계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예산	소비, 가공	사과(과자, 토피용 상품, 잼)	사과의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과 확산
		유통, 소비, 교육	사과	학교 및 유치원 사과 간식공급 사업
		유통, 수출, 교육, 인력	과일류, 과채류	과일류와 채소류 중심의 산지유통 전문화, 조직화, 수출사업 전개
		생산, 수출	사과, 단지(덕산광역친환경단지, 황새생태농업단지), 특구(예산사과특구)	예산사과 특구 및 친환경농업단지와 대중국 친환경농식품 수출특구 연계
		문화	예당저수지	예당호 인근 에코뮤지엄(ecomuseum)도입

표 6-19. 품목과 충남-시군의 대응방안 종합연계도 : 지역성 지속권역(계속)

권역	지역	연관 부문	연관 품목 및 각종 자원	추진전략
지역성 지속권역	청양	생산	농산물(고추), 임산물(구기자, 표고버섯)	청양산 고추, 구기자, 표고버섯 고품질화를 위한 좋은 품질의 자재공급 기반 구축
		가공	농산물(고추), 임산물(버섯, 구기자, 맥문동)	거점지역별 소규모가공지원센터 설치와 다양한 농림산물 가공상품 개발
		유통(로컬푸드,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 원물과 가공상품 개발 연계	청양산 농림산물의 전량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생산, 수출, 가공	농산물(고추), 임산물(구기자)	청양고추 및 구기자 특구와 대중국 친환경농식품 수출특화 지구 연계
	금산	수출	인삼	명품 고려인삼 수출사업 내실 다지기
		제도, 교육	인삼	우리나라 우수 인삼종자 불법반출 단속강화 및 교육활동
		생산	농산물(인삼, 갯잎), 임산물(약초)	특화작목 생산기반 강화 전략(인삼, 약초, 갯잎)
		인력	전체, 금산농업대학	수확기 인력확보를 위한 인력지원센터 운영
		소비	산야초, 산나물	금산군 임산물의 인근대도시와 연계한 소비촉진
	논산	문화, 소비, 체험	지역 품목별 축제(딸기, 젓갈, 고구마, 대추, 꽃감)	지역의 품목별 축제와 연계한 새로운 소득 연계
		가공	딸기, 뚝은감, 대추	딸기, 꽃감, 대추 특산품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시스템 구축
		생산	전체	신품종 개발·보급 및 다양한 품목 재배 유도
		생산,가공,유통	쌈채류, 과채류, 임산물	쌈채류, 과채류, 임산물 부류별 특성에 맞춘 생산-가공-유통 특화단지 구축
		인력	원예작물	통합마케팅조직 운영활성화를 위한 참여농가 조직화 사업
	부여	문화, 가공, 소비	부여 야시장, 백제문화권	백제문화권 관광단지와 연계한 농식품 및 가공식품 개발
		수출	밤, 양송이버섯	시장개방에 대응한 밤과 양송이버섯 상품화
		생산	전체	다양한 소득작물 발굴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환경	과채류	토양살리기 보상 프로그램

## 1. 공주

### 1) 포지션과 특징

■ 충남 내 공주시의 농림어업(GRDP)비중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

- 전체 GRDP 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3%, 2004년 11.8%, 2008년 15.0%, 2011년 11.4%으로 타 산업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
- 12개년 간 연평균증감율은 -2.4% 포인트를 기록하여 충남 전체평균의 -3.7%보다 양호한 편

■ 주력품목 현황

- 특화품목이자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군은 식량작물, 임산물 등
- 식량작물은 옥수수와 팥, 원예작물은 시설키크추, 배추, 인삼, 토마토(시설), 배 등
- 임산물은 헛개나무, 밤, 은행 등으로 최근 다양화, 소규모 전환 추세
- 밤은 전국에서 상위 5위에 드는 품목으로 전국대비 생산비중 19% 차지, 2015년 기준 12,1278톤, 284억 원 규모, 정안밤으로 지리적표시제 등록, 산지유통 종합계획에서도 주력 품목으로 선정되어 집중 육성 중

표 6-20. 공주시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2010년 기준)

구분	농산물(식량 및 원예작물)							임산물		
	옥수수	팥	시설고추	배추	인삼	시설토마토	배	헛개나무	밤	은행
특화도지수	1.91	1.39	2.82	0.77	0.57	1.03	1.13	1.71	1.20	1.43
충남 내비중	11.8%	8.6%	17.3%	4.0%	3.0%	6.3%	4.5%	55.3%	38.7%	46.1%

주 : 1. 특화도 지수 및 충남 내 비중은 수확면적 기준으로 산출, 특화지수 10이상이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 상기 소개된 품목은 한중FTA발효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보고서 2부, 3부) 중심으로 기술함

자료 : 농업총조사(2010)

■ 최근 2-3개년간 관련분야 정책지원 현황

- 농산물의 경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29억 원) 및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4천만 원), 유통시설 지원사업(16.7억 원), 유통조직육성을 위한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금(제이팜스 및 동아농산, 각 10억 원), 주요곡물(콩) 기반조성사업(12.5억 원) 시행
- 임산물의 경우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등 16억 원 투입

### ■ 충남 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중국과의 교류협력 현황

- 2015년 현재 충남 내 공주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수는 6.1%로 전통주 7개, 전통식품 18개, 일반 식품 46개, 전처리반가공 2개 업체가 있음
- 밤은 약 1천톤 가량 수출되고 있는데 공주산 밤이 수출전문업체(법인)에서 구매, 중국에서 탈피과정을 거쳐 일본을 수출되고 있고 한중FTA가 발표되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중국의 랴오닝성 선양시와 우호협력을 맺은 상태이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않고 있음

### ■ 참고 : 주요 자원현황

표 6-21. 공주시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자원유형	세부내용
경관자원	갑사, 고마나루, 공산성, 금강, 마곡사
관광자원	공주시티투어- 계룡산 도예체험, 공주한옥마을,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백제문화제
기타자원	공주산성시장, 조선 십승지
농어업자원	공주알밤
마을공동체자원	5도2촌, 마을기업(꽃내미풀꽃이랑마을, 정안밤톨이정보화마을) 예비사회적기업-농업회사법인 미마지(밤물자연염색, 향토음식체험)
문화자원	무령왕릉, 박동진판소리 전수관, 임림미술관
역사인물자원	김중서(조선 전기문인, 명인), 박동진
환경생태자원	계룡산

자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중점방향

### ■ 주요 목표로서 지역생태순환형 농업공간, 부가가치창조를 위한 6차산업 공간, 문화가 있는 휴양체험의 공간 창출(농발계획)

- 친환경 생태농업기반 구축, 임업 경쟁력 강화, 농지이용계획 정비 등
- 농식품산업 전략강화, 산지유통체계화 추진, 농산촌자원 융복합산업화 등
-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 농산촌체험관광 활성화, 연계협력사업 강화 등

### ■ 농협과 농업법인 투트랙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을 통한 규모화, 전문화 목표(산지유통계획)

- 농협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오이, 밤, 딸기, 고추, 배 등 전략품목 중심), 농업법인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양파, 마늘, 대파, 감자 등 전략품목 중심)
- 공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및 경로 다변화 모색(도매시장, 대형유통, 로컬푸드)
-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신사업영역 확대(신규 APC건립, 농업법인 전처리시설 확충)
- 통합조직간 협조체계 구축 및 산지유통활성화 협의회 추진(농협조직, 농업법인조직 간)

- 2단계 3농혁신 추진과 연계한 공주시의 부문별 주력정책(2015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 소비혁신을 위해서 희망마을사업과 연계사업, 역량혁신을 위하여 미래농업 리더양성 교육, 유통혁신을 위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 1읍면 1특화작목 육성(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 공주는 현재 읍면별 작물구분이 뚜렷한 편, 공약사항으로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 본격화
- 공주5도2촌 알밤특구 지정(2010년, 2014년 일부 변경승인)
  - 2010년~2018년 9개년 간 284억 원으로 2010년 5도2촌 알밤특구로 지정받음
  - 2014년 밤 연구소 운영을 추가 신규사업으로 진행, 완료사업으로는 깎밤설비 및 일괄처리 시스템 도입, 패키지디자인 개발, 주말도시 운영기반시설 구축, 알밤재배 전문인력 및 주말 도시 지도자 양성, 운영평가 및 모니터링 등이 있음

### 3) 세부 추진전략

- 명품공주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고도화
  - 제안배경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현재의 공주 밤을 고맛나루 브랜드, 역사와 문화 등을 결합한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는 고도화 전략 추진 필요
  - 주요 내용1 : 밤 연구소 설립예정에 따른 다양한 밤 관련 가공식품 개발(밤 된장, 밤 고추장, 밤 조청 등)
  - 주요 내용2 : 고맛나루 브랜드 이미지와 정체성 확립
  - 주요 내용3 : 밤 관련 상품의 포장 및 디자인 리뉴얼
  - 주요 내용4 : 고품질 밤 및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기술컨설팅 등
- 공주시 2단계 유통체계구축 안정화 전략(로컬푸드 및 산지유통)
  - 제안배경 : 특화품목을 산지유통사업으로, 소량다품목을 로컬푸드 전략으로 추진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유통분야 정책의 완성도 높이도록 함
  - 주요 내용1 : 최근 우성농협 내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소비자와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
  - 주요 내용2 : 마을의 고령농, 영세소농, 가족농 실태조사(생산부터 유통, 소비, 출하단계까지 전단계)
  - 주요 내용3 : 주력 품목별 조직화를 위한 전문인력육성 교육사업 병행

■ 다양한 임산물 자원을 활용한 신유통 및 신가공시스템 구축

- 제안배경 : 단기소득임산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임산물 자원에 대한 전략은 부족한 상태로서 시장선도를 위해서 공주시가 임산물 신유통 및 신가공기반 구축에 관심을 가질 필요
- 주요 내용1 : 공주시 임산물 산지유통계획 수립을 통하여 생산보다는 임산물(밤, 은행, 헛개 나무, 표고버섯) 등) 신유통과 신가공시장 진출
- 주요 내용2 : 농촌체험, 휴양마을, 희망마을, 색깔있는 마을사업과 연계한 마을단위 소규모가공 창업지원
- 주요 내용3 : 소규모-중규모-대규모 임산물 생산자공동체 수준별 인력육성 프로그램

■ 백제 및 금강과 연계한 문화가 있는 공주만의 농식품상품 개발

- 제안배경 :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하여 백제 역사 및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추세, 이를 잘 활용하여 공주만의 고급스러운 농식품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1 : 백제문화관광벨트, 금강문화관광 협력벨트, 공주고도지구 사업과의 연계협력사업 강화
- 주요 내용2 : 관광두레사업, 농산촌관광 특성화사업, 문화관광형 산성재래시장 등 농산촌체험 관광 연계
- 주요 내용3 : 공주산 주력 농림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상품의 개발(예, 밤 연구소 활용)
- 주요 내용4 : 농림산물에 공주만의 문화와 이야기를 입힌 고급스러움과 옛멋이 함께 어우러진 상품 개발

■ 강과 산이 있는 환경친화적 농업생태벨트 구축

- 제안배경 : 아름다운 금강과 산이 어우러진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이미지 구축 필요, 농업생태벨트라는 전체적인 구상과 함께 생산기반에 대한 이미지 변화전략 구사
- 주요 내용1 : 금강권, 계룡산, 태화산, 연미산, 창벽산 등 아름다운 자연자원 이미지에 맞게 농업 환경리모델
- 주요 내용2 : 환경친화적인 농업방식(자원순환, 저비용, 저투입 생산구조 등)으로 단계적 전환
- 주요 내용3 : 아름답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줄 공주 전체 토양과 물환경 전수 프로그램



## 2. 계룡

### 1) 포지션과 특징

■ 충남 내 계룡시의 농림어업(GRDP)비중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 감소폭이 크고 충남 전체의 농림어업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

- 전체 GRDP 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0%, 2004년 1.6%, 2008년 1.4%, 2011년 1.2%로 타 산업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 감소폭이 큰 편
- 12개년 간 연평균증감율은 -7.6% 포인트를 기록하여 충남 전체평균의 -3.7%포인트보다 높아서 상대적으로 농림어업 비중감소가 심하다고 할 수 있음
- 충남 전체의 농림어업 비중 평균은 2000년 15.5%에서 2011년 9.8%로 대폭 감소하였고 계룡시는 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계룡시는 지역특성 상 대부분 농지가 군사지역으로 편입되어서 개발에 많은 제약조건 있고 이와 동시에 진흥지역이 많기에 농지전용 해제도 수월한 편, 농지 매년 감소추세

### ■ 주력품목 현황

- 계룡시의 주력품목은 5종(상추, 딸기, 컬러피망, 토마토, 화훼)으로서 생산액은 총 20억 원, 상추와 딸기가 62.6%점유하면서 주농가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고 적극 육성 중에 있음
- 주력품목 부족하지만 한중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된 주요 품목군인 특용작물(유지류)의 특화도지수가 높은 편
- 식량작물은 콩, 특용작물은 인삼, 참깨, 들깨, 원예작물은 무와 토마토(시설) 정도임
- 임산물은 특화도지수가 1이상인 품목 다수, 은행, 도라지, 더덕, 대추, 산나물 등이 있음
- 특용작물 중 인삼, 참깨, 들깨와 같이 다수 중소농 이하의 농업인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품목군을 계룡시도 많이 재배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할 것임(즉, 특화품목, 주력품목은 없지만 한중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품목군은 특용작물)

표 6-22. 계룡시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구분	농산물(식량 및 원예작물)						임산물		
	콩	무	인삼	참깨	들깨	시설토마토	은행	도라지	더덕
특화도지수	1.27	1.20	2.33	2.15	2.24	1.67	1.31	3.90	3.54
충남 내비중	0.3%	0.2%	0.4%	0.3%	0.4%	0.6%	0.3%	1.0%	0.9%

주 : 1. 특화도 지수 및 충남 내 비중은 수확면적 기준으로 산출, 특화지수 10이상이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 상기 소개된 품목은 한중FTA발효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보고서 2부, 3부) 중심으로 기술함

자료 : 농업총조사(2010)

### ■ 최근 5개년 간 정책지원 현황

- 농업부문 예산지원은 2개 부서, 809백만 원으로 농림과 497백만 원, 대업기술센터 312백만 원 등
-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농산물 브랜드 홍보 및 판촉 지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 등 2015년 21억 원 정책지원 투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등을 운영 중
- 그 외 지역산 원료사용 확대를 위해서“포스푸(식품기업)”같은 산업단지 내 기업이 지역산 원료사용시 일부 지원사업 시행 중

### ■ 충남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중국과의 교류협력 현황

- 2015년 현재 충남 내 계룡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수는 0.2%로 전통주, 전통식품, 일반식품 각 1개소씩으로서 식품제조가공기반 취약한 편
- 중국의 베이징시 회유구와 우호협력을 맺은 상태

### ■ 참고 : 주요 자원현황

표 6-23. 계룡시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자원유형	세부내용
관광자원	계룡군문화축제, 계룡대 안보건학 주초석, 통일탑, 새터산 황토 발놀이장
경관자원	계룡산
기타자원	국방과학도시, 육군 및 공군, 해군본부
농어업자원	쌈채류, 칼라피망, 팔(팔거리)
문화자원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사계고택 은농재
역사인물자원	김장생(조선초기 정치가), 김국광(조선전기 문신), 신아람(펜싱선수)
환경생태자원	계룡산 생태탐방 누리길 조성, 사계 솔바람길

자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중점방향

### ■ 한중FTA에 대한 계룡시의 대응현황(시군별 순회간담회, 2015.06.)

- 전반적으로 농업기반 취약, 도시농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 소규모 영농형태 유지
- 단독으로 산지유통사업을 하기에는 규모의 경제달성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
- 한중FTA 협상결과 계룡시 주력품목인 딸기와 상추는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되었기에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 하지만 점차 중국 딸기 재배면적의 증가와 고품질화 추세로 인해 영향이 미칠 것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계룡시, 2015.04.)

-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차원에서 다양한 품종육성, 재배기술 보급, 농가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력화 재배시설 지원, 인력육성 정책 지원 필요(계룡시, 2015.04.)
-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농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수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도입 필요(계룡시, 2015.06.)

#### ■ 2단계 3농혁신 추진과 연계한 계룡시의 부문별 주력정책 (2015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 생산혁신을 위하여 과채류 수경재배기술 확대보급, 시설원에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산채재배 단지 조성
- 유통혁신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활용한 향토음식 개발, 소비혁신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구축, 컬러빌리지 마을조성
- 지역혁신을 위하여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경관개선사업, 역량혁신을 위하여 농업대학의 운영 등
- 도시농업 형태를 지향하게 되면서 도시농업 공동체 개념으로 공동텃밭가꾸기 등 약 2곳에서 운영 중

### 3) 세부 추진전략

#### ■ 도시농업 기반구축 및 먹거리 전략계획 수립

- 제안배경 : 대전광역시의 배후지역으로서 도시농업 기반을 구축하기에 매우 적절한 지역으로서 생산-유통-가공-소비-식생활 및 영양-교육-폐기물에 이르는 전단계에 대한 먹거리 전략계획 수립 필요
- 주요 내용1 : 대전광역시 시민과 계룡지역내 군가족에게 농업과 농촌의 간접적 교육체험, 가치 홍보
- 주요 내용2 : 도시텃밭 분양, 도시양봉 등의 도시농업 기반, 학교 및 도심속 논만들기와 텃밭만들기 사업
- 주요 내용3 : 시단위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실행가능 전략과 사업 도출(식생활 교육, 학교교육, 시민의 건강과 영양, 지역내 일자리와 고용, 농민과 시민의 새로운 관계 등)
- 주요 내용4 : 계룡시 전체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적정생산량 규모 등의 농업유지수준(적정선) 도출

#### ■ 단계적으로 전품목의 환경친화적 농업화

- 제안배경 : 현재 일부 원예작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도시농업 전략에 맞춰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변화하는 전략 필요
- 주요 내용1 : 다양한 쌈채류, 식량작물(콩, 팥), 과채류(딸기, 토마토)을 단계적으로 전면 유기농업화

- 주요 내용2 : 환경친화적인 농법 보급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천적인 기술개발과 보급
- 주요 내용3 : 유기농법으로 전환 시 소득감소분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보상(시와 도 공동으로 직접지원)

■ 임산물(은행, 도라지, 더덕, 산채나물류) 재배단지 조성 및 연합유통사업

- 제안배경 : 단기소득임산물 자원에 대한 생산기반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임산물 자원에 대한 충남도의 연합유통사업과 연계하는 전략 구사
- 주요 내용1 : 과채류 뿐만 아니라 계룡시에 재배하고 있는 다양한 임산물 재배기반 조성
- 주요 내용2 : 1차가공(건조, 분쇄, 소포장 등)과 관련한 작목반 단위 소규모 가공시설 도입
- 주요 내용3 : 산림청의 임산물산지유통 지원사업과 연계, 인근 타시군(논산시, 금산군)과 연계한 연합사업

■ 특용작물(인삼, 들깨, 참깨, 팥) 연합유통사업

- 제안배경 : 인삼, 들깨, 참깨, 팥 등 식량작물과 특용작물 특화지수도 높은 편으로 그간 관심과 주목받지 않았던 작물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관심 필요
- 주요 내용1 : 인근 타시군(논산시, 금산군)과 연계한 유통분야의 연합사업 실시
- 주요 내용2 : 장기적으로 충남의 공동브랜드에 품목을 추가하면서 계룡시를 비롯한 인근 타시군과의 연계

### 3. 홍성

#### 1) 포지션과 특징

■ 충남 내 홍성군의 농림어업(GRDP) 비중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 감소폭이 크지만 충남 내 평균보다 높은 편

- 전체 GRDP 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4.3, 2004년 21.0%, 2008년 19.7%, 2011년 17.9%로 타 산업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 감소 추세
- 12개년 간 연평균증감율은 -2.5% 포인트 기록하여 충남 전체 평균인 -3.7%포인트보다 양호
- 충남 전체의 농림어업 비중 평균은 2000년 15.5%에서 2011년 9.8%로 대폭 감소하였고 홍성군은 충남 내 비중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함

■ 주력품목 현황 및 특징(농업)

- 식량작물은 팥, 감자, 고구마 등이고 원예작물은 시설배추, 시설고추, 사과, 특용작물로서 참깨, 들깨 등 특화도지수가 높게 나왔고 시설배추는 특화도지수 4.50로서 높은 편에 속함
- 임산물은 특화도지수가 1이상인 대표적인 품목으로서 기타산나물, 기타약용작물 등이 있음
- 유기농으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표 6-24. 홍성군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구분	농산물(식량 및 원예작물)								임산물	
	팥	감자	고구마	시설배추	시설고추	참깨	들깨	사과	기타산나물	기타약용작물
특화도지수	1.34	1.19	1.01	4.50	1.72	1.35	1.23	2.21	16.05	3.50
충남 내비중	11.1%	9.8%	8.3%	11.4%	4.4%	11.0%	10.0%	5.6%	18.2%	4.0%

자료 : 농업총조사(2010)

주 : 1. 특화도 지수 및 충남 내 비중은 수확면적 기준으로 산출, 특화지수 10이상이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 상기 소개된 품목은 한중FTA발효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보고서 2부, 3부) 중심으로 기술함

■ 주력품목 현황 및 특징(어업)

- 홍성군은 서쪽으로 천수만을 접하고 있고, 해안선 26km, 갯벌 14.4km<sup>2</sup>
  - 간척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었으나,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육지화되어 있는 곳이 많음
  - 도서는 유인도서 1개(죽도)이고,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에너지 자립섬으로 변화 추진
  - 죽도에는 31세대, 70명 거주 중이고, 무인도서는 10개
- 어가 수는 총 422가구, 어업인구는 1,037명, 호당 평균은 약 3.6명,
  - 해수면 394가구, 내수면 28가구이고, 전업 50가구, 겸업 372가구

- 어업면허는 총 36건(650ha), 어선보유량은 166척(436톤)
  - 어업면허는 총 36건으로 650ha으로 양식어업 29건(515ha), 마을어업6건(135ha)
  - 어선보유량은 166척(436톤)으로 충남의 2.7%
- 어항시설은 총 6개소가 있으며, 이 중 국가어항인 남당항은 2014년 복합다기능어항 대상지로 선정
  - 남당항의 구역을 4개소로 나누어 수산, 복합상가, 친수공원, 해양레저 등으로 공간별 특화 기능 부여(국가어항: 남당항, 지방어항: 궁리항, 어사항, 정주어항: 상황항, 판교항, 죽도항)
  - 남당항에 수산물 직판장 1개소가 있고, 인양기는 궁리, 어사, 판교, 죽도, 남당에 총 6대가 설치되어 있음

#### ■ 충남 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중국과의 교류협력 현황

- 2015년 충남 내 홍성군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수는 총 119개소, 19.9%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유형별로는 전통주 9개소, 전통식품 32개소, 일반식품 78개소, 주로 수산가공식품인 맛김, 토굴새우젓을 판매하고 있음
- 타지역과 달리 원물을 이용한 유통사업보다는 가공식품 산업이 더 발달되어 있는 지역
- 홍성군은 자매결연 도시로서 중국의 산둥성 린이시 이수이현 1건, 우호협력 도시로서 헤이룽 장성 하이런시 1건 맺은 상태

#### ■ 참고 : 주요 자원현황

표 6-25. 홍성군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자원유형	세부내용
관광자원	남당리 대하축제, 광천새우젓축제, 내포문화축제
기타자원	천주교 순교지
농어업자원	유기농법(우렁이농법), 오리농산물, 토굴새우젓, 남당리 대하, 한우
마을공동체자원	문당환경농업마을
문화자원	토굴새우젓관광단지, 홍주역사관, 조류탐사 과학관, 홍주성
역사인물자원	한용운선생 생가지, 김좌진선생 생가지,
환경생태자원	남당항, 천수만, 용봉산(자연휴양림)

자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추진현황 및 중점방향

#### ■ 한중FTA에 대한 홍성군의 대응현황 (시군별 순회간담회, 2015.06.)

- 수도작과 축산중심의 농업구조에 따라 원예작물 관련 산지유통사업을 하기에는 소규모 물량 및 작목별 조직화 힘든 상황
- 현재 지역산 농산물 공급을 학교급식 영역으로 점진적 추진 예정
- 생산기반지원 포화상태

## ■ 어업분야 추진현황

- 주요 생산 수산물: 대하, 꽃게, 주꾸미, 굴, 바지락 등 패류, 갑각류, 연체류 생산
  - 갯벌이 발달한 지형답게 갯벌어업이 성행하고 특히, 바지락 품질 우수
  - 김, 새우젓, 까나리 등 수산가공품의 전국적인 인지도 보유
  - 광천김은 서천, 보령의 원초를 활용하여 조미김으로 전국적인 인지도 보유
  - 광천김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고, 조미김 외 김 과자, 파래 조미김 등 상품 다양화 추진, 조미김을 수출량은 연간 약 700톤, 판매금액은 약 17억 원
  - 토굴새우젓은 2010년 2012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토굴을 활용한 새우젓 집적 단지로 위상
- 수산물을 메인 테마로 하는 지역 축제 및 어촌체험마을 운영
  - 남당리 “바다송어와 함께하는 새조개 축제”, “남당 대하축제”, “어사리 수산물축제” 개최
  - 어촌체험마을로는 속동갯벌체험마을이 운영 중에 있으며, “오감만족갯벌체험”을 테마로 바지락캐기, 배낚시하기 등 체험프로그램 제공

## ■ 2단계 3농혁신 추진과 연계한 홍성군의 부문별 주력정책(2015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 생산혁신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가축개량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자연친화적 선진축산업 육성, 산림소득 증대사업 등
- 유통혁신을 위하여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공활동 기술 지원을, 소비혁신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역량혁신을 위하여 거버넌스 홍성통 운영 주력

## ■ 향후 중기계획의 목표는 신뢰받는 농축산업, 상생하는 농촌경제(농발계획)

- 신뢰받는 농축산업을 위해서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자연과 인간이 순환하는 친환경농업, 얼굴있는 먹거리 유통체계, 행복한 농업인에 주력코자 함
- 상생하는 농촌경제를 위해서 지역자원으로 활성화되는 도농교류,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농식품산업, 지역먹거리가 순환되는 홍성푸드, 협력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공동체에 주력코자 함

## ■ 홍성유기농업 특구 지정(2014)

- 전국 최초의 유기농업 특구 지정을 통한 전략적 홍보 및 신성장동력 창출 기대
- 2014년~2018년 5개년 간 524억 원의 사업비 투입
-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유기농산물 품질향상 지원, 생산단지 조성, 가공시설 지원 등)
- 유통활성화 및 브랜드가치 제고(내수활성화 및 유통지원, 공동브랜드 활용 및 홍보 등)

## 3) 세부 추진전략

## 〈농업 분야〉

## ■ 홍성 유기농업 특구와 친환경농식품 대중국 수출특화 지구 연계(유기농쌀)

- 제안배경 : 중국산 고급층의 친환경농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충남에서 친환경농식품 대응
- 주요 내용1 : 현재 홍성군 유기농업특구를 수출특화 지구로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지정
- 주요 내용2 : 농산물 원물을 이용한 유기농쌀 가공식품(떡, 한과, 약과, 조청, 산자)개발 기반 마련

## ■ 충남 오감공동브랜드 임산물(산나물, 약용작물)품목 추가, 공동연합사업 시행

- 제안배경 : 농산물 중심의 정책지원에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할 필요, 임산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홍성군은 산나물과 약용작물이 특화된 만큼 충남의 공동브랜드에 합류 필요
- 주요 내용1 : 홍성에서 많이 재배하는 임산물인 산나물과 약용작물을 충남 공동브랜드로서 지정 건의
- 주요 내용2 : 임산물에 대한 중요성과 공동브랜드 영역의 확장을 위한 역할
- 주요 내용3 : 1차적으로 인근 임산물 주력시군(보령, 청양)과 시범적으로 공동연합사업 시작

## ■ 유기농쌀과 유기농채소로 구성된 홍성밥상의 개발과 확산

- 제안배경 : 유기농업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유기농쌀, 유기농 채소로 구성된 홍성군만의 특화된 상품 개발 필요
- 주요 내용1 :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쌀과 토굴새우젓으로 맛을 낸 김치, 각종 산나물 등으로 구성한 식단
- 주요 내용2 : 가공식품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지역 전통가공 비법 발굴과 전수
- 주요 내용3 : 내포문화라는 정체성을 밥상이라는 식단에 입혀서 문화와 음식이 융합된 상품의 개발, 확산

## ■ 기초 식량작물의 자급률 확대전략(팥, 감자, 고구마)

- 제안배경 : 쌀 이외의 식량작물로서 팥, 감자, 고구마 등의 특화도가 높은 만큼 이를 향후 더 적극 육성
- 주요 내용1 :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지역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 식량작물을 적극적으로 재배유도



- 주요 내용2 : 타작목에서 식량작물로 재배를 전환할 시 공익적 기능수행 보상으로 도와 군의 직접지원

## 〈어업 분야〉

### ■ 충남 수산가공업의 메카로 육성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새우젓, 까나리젓 등의 수산물 발효식품이 발달되고, 전국적인 명성의 광천김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수산가공업의 메카로 육성
- 주요 내용1 : 조미김, 새우젓, 까나리젓 등 6차산업화 지구 육성
  - 광천김, 광천 토굴새우젓 등은 전국적인 인지도 및 집적단지로서의 위상 확보 필요
- 주요 내용2 : 대중국 수출 브랜드 개발을 통한 중국 소비자가 좋아하는 조미김 산업 육성
  - 서천, 보령, 홍성 3개 시·군의 연계·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중국시장 공략방안 모색
- 주요 내용3 : 수산가공식품의 지역브랜드 창출
  -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으나, 시장 판로가 제한적이고,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광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브랜드 창출
  - 충청남도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수산가공식품 공급 추진
  - 수산가공품을 활용한 향토 먹거리 운동 전개
  - 수산가공품(광천 김, 광천 토굴새우젓) 지리적 표시제 추진

### ■ 전략 수산물 육성 및 판로 확대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망 수산물을 전략으로 육성하여 양식에 기반을 둔 지역 수산업 부흥 추진
- 주요 내용1 : 바지락의 생산량 확대 및 브랜드 개발
  - 지역의 깨끗한 갯벌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바지락에 대한 생산량 확대
  - 홍성 바지락의 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한 지역 브랜드 개발
  - 바지락의 광역 브랜드화를 통한 판로 확대
- 주요 내용2 : 바다송어를 전략품목으로 육성
  - 현재 생산량이 미미하고 추진주체가 개인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노르웨이산 연어의 대체품 종으로 지역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 가능성 높음
  -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바다송어를 지역 어촌계 또는 어업인단체가 운영·경영할 수 있도록 지역에 양식기술 이전 또는 보급
  - 바다송어 생산량 확대 및 수산가공공장, 대형마트 등으로의 판로 개척
  - 중국, 동남아, 미주 등으로 수출 확대 방안 모색
  - 향토식품 개발, 지역축제와의 연계를 통한 6차산업화로의 발전 가능성 높음
- 주요 내용3 : 지역의 대표적인 수산가공품, 축제테마인 새우류, 새조개의 생산 재건
  - 지역의 대표 수산물로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지역 생산량은 미비
  - 지역 생산량 확대를 통한 주산지로서의 위상 강화
  - 특히, 광천 토굴새우젓의 지역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새우 생산량 확대가 필수

■ 광천 토굴새우젓의 “세계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 제안배경(이유, 문제제기) : 주민의 생계수단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광천 토굴새우젓의 “세계농어업유산” 등재 추진을 통한 수산郡으로서의 홍성군의 위상 강화
- 주요 내용1 : 향토식품자원으로 전통적 가치가 있는 “토굴 새우젓”의 세계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 지역 산 원물 사용량을 확대시키고, “토굴”의 갖고 있는 농어업유산의 가치 부각

## 4. 예산

### 1) 포지션과 특징

■ 예산군의 농림어업GRDP비중은 전체 지역내총생산GRDP 중 2011년 기준 15.5%를 기록

- 2000년 24.8%에서 2011년 15.5%로 농림어업 비중이 계속 감소하여 12개년 간 연평균증감율은 -3.9% 포인트 기록
- 충남 내 전체평균인 -3.7%포인트 기록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요 특징

- 식량작물에는 콩과 팥, 원예작물에서는 시설패추 및 사과, 특용작물에서는 참깨, 들깨, 땅콩 등이 충남 내에서 특화지수가 높은 편
- 특히 시설패추는 충남 내에서 재배면적 비중이 46.5%를 차지, 사과는 53.5%를 차지하여 생산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
- 임산물의 경우는 구기자, 대추, 오미자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구기자는 충남 내에서 재배면적 비중이 18.6%를 차지하고 있음

표 6-26. 예산군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구분	농산물(식량 및 원예작물)							임산물		
	콩	팥	시설패추	참깨	들깨	땅콩	사과	구기자	대추	오미자
특화도지수	1.10	1.13	2.87	1.80	1.58	1.67	3.16	12.55	2.12	4.66
충남 내비중	6.2%	6.4%	46.5%	10.9%	9.6%	10.2%	53.5%	18.6%	3.1%	6.9%

주 : 1. 특화도 지수 및 충남 내 비중은 수확면적 기준으로 산출, 특화지수 10이상이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 상기 소개된 품목은 한중FTA발효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보고서 2부, 3부) 중심으로 기술함

자료 : 농업총조사(2010)

■ 품목별 동향(시군별 순회간담회, 2015.06.)

- 최근 예산 군내에서 소득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블루베리는 충남의 50%가량 생산하는 수준
- 그외 쪽파, 배추, 방울토마토 등의 작물도 많이 생산하나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은 수박, 쪽파, 버섯 순임
- 예산군의 대부분 품목은 특화도가 높고 생산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 외로 대규모 유통사업 방식이 적절한 구조
- 배추의 경우 내수가격 폭락으로 인해 대만으로 수출, 사과의 경우 중하품 품질사과가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음
- 사과는 대량납품처를 구하고 있고 최근 태릉선수촌에 사과를 납품계약 성사

■ 최근 5개년 간 정책지원 현황(시군별 수요조사, 2015.04.)

- 최근 5개년 간(201-2014) 보조금 지원액은 농정유통과 376억 원, 산림축산과 157억 원
- 생산분야 지원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앞으로는 유통분야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충남 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중국과의 교류협력 현황

- 충남의 1,203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예산군은 전통주 9개소, 전통식품 21개소, 일반식품 28개소로 총 59개, 4.9%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예산군은 중국의 헤이룽장성 지동현과 장시성 이춘시 2개도시와 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상태

■ 주요 : 참고 자원현황

표 6-27. 예산군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자원유형	세부내용
농어업자원	한우, 예산사과
마을공동체 자원	사과와인체험장
문화자원	사과축제, 추사추모전국최대대회, 재래시장, 옛이야기축제
환경생태자원	예당저수지, 삽교평야
인적자원	추사 김정희, 윤봉길 의사, 전흥수 대목장
관광휴양자원	덕산온천, 광시한우타운
역사자원	수덕사, 추사고택

자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추진현황 및 중점방향

■ 한중FTA에 대한 예산군의 대응현황 (시군별 순회간담회, 2015.06.)

- 예산군의 경우는 지역내 생산과 소비의 순환구조는 적절치 않고 지역 외로 유통되는 구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봄
- 산지유통 및 수출분야 진출이 필요한 실정이나 농업인입장에서는 물류비, 포장재비 등 지원이 없다면 수출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이고 내수가격이 좋으면 더욱 응하지 않게 되는 구조임
-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대농 중심으로 편중, 소농에게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품목별 지급이 아닌 소득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피해보는 농가계층에 대한 파악이 우선 시급함
- 보조금 혜택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농업인의 자체반성도 필요한 시점으로 의식개혁 교육 필요

■ 2단계 3농혁신 추진과 연계한 예산군의 부문별 주력정책 (2015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 생산혁신을 위하여 예산사과 수출단지 조성, 유통혁신을 위하여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추진, 소비혁신을 위하여 전통 식문화 계승보급 및 바른 식생활 실천에 주력
- 지역혁신을 위하여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구축 시범사업, 역량혁신을 위하여 귀농·귀촌 기반 조성사업에 주력

■ 지속가능한 순환형 농업·농촌 공간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와 6차산업화 기반조성(농발계획)

- 지속가능한 순환형 농업·농촌공간을 위하여 친환경·고품질 예산쌀 육성과 쌀산업 구조의 다각화, 대표 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기반 확대, 저비용·저투입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구조로 전환
- 농업의 고부가가치와 6차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축산물 융복합 산업 확대, 사과·은행 등의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전략 식품산업 육성, 지역생산-지역유통-지역소비의 지역순환 구조 창출
- 내발적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영농주체의 역량강화와 지역리더 발굴, 지역순환형 농정거버넌스 구축, 예산군 지역경제순환센터(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전략 수립토록 함

■ 예산군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통한 규모화, 전문화 목표(산지유통계획)

- 과수, 채소 분야별 전문화된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하여 예산농금농협은 사과와 배를, 연합사업단은 수박, 토마토, 쪽파, 배추를 주력 취급품목으로 함
- 예산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마케팅 창구의 일원화,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통합마케팅 조직에 일임
-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내 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원물확보, 상품화 진행)

■ 예산향토사과특구 지정(2007년)

- 2008년~2012년 5개년 간 307억 원을 투입하여 4대 분야, 14개 사업 지원, 5건의 규제특례
- 품질경쟁력 세계화사업, 첨단유통환경 조성사업, 블루오션상품 개발사업, 사과명소 마케팅사업

### 3) 세부 추진전략

■ 사과의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과 확산

- 제안배경 : 신선농산물로 공급하던 사과를 현재 소비자 수요에 맞춘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함

- 주요 내용1 : 지역내 식품제조가공업체와 기존 가공시설 기반을 연계활용하여 공동 기술개발 협업
- 주요 내용2 :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으로서 사과건조과자, 토픽용 사과, 사과잼 등 레시피 개발
- 주요 내용3 : 충남 내 공공급식사업, 지역내 관광 및 문화시설내 입점한 매장에 매대를 구성하여 판매

#### ■ 학교 및 유치원 사과 간식공급 사업

- 제안배경 : 도내 학교급식사업에 품질 좋고 친환경사과를 간식거리로 공급하여 미래의 세대들에게 예산사과를 홍보하고 학생들의 영양을 동시에 생각하는 정책구사 필요
- 주요 내용1 : 예산군 관내 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전체로 사과 간식공급 사업 실시
- 주요 내용2 : 지역내 기존 공급업체가 지역산 사과로 구입하여 공급시 손실분에 대한 현물 지원 보전
- 주요 내용3 : 초기에는 사과 단일 품목으로 시작하여 정착단계에 접어들면 천안 및 아산 배, 천안 포도 등도 함께 과일식단 구성하여 공동사업으로 전개

#### ■ 과일류와 채소류 중심의 산지유통 전문화, 조직화, 수출사업 전개

- 제안배경 : 과수와 과채류 중심으로 특화된 지역인만큼 해당품목 중심으로 조직화 구성에 전력
- 주요 내용1 : 조직화를 인력육성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적극 개입
- 주요 내용2 : 수출사업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술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등

#### ■ 예산사과 특구 및 친환경농업단지와 대중국 친환경농식품 수출특구 연계

- 제안배경 : 현재 개발 중인 속빨간사과 재배가 원활히 이뤄지면 수출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 있음
- 주요 내용1 : 기존 예산사과 특구, 친환경농업단지 등 대중국 친환경농식품을 겨냥한 수출전문 단지화
- 주요 내용2 : 덕산광역친환경단지, 황새생태농업단지 등과 연계한 청정지역 이미지와 여기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

#### ■ 예당호 인근 에코뮤지엄(ecomuseum) 도입

- 제안배경 : 예산의 내수면 어업을 기존의 관광자원과 환경자원을 결합한 형태, 새롭게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교육적 기능까지 겸비한 인프라 건립 필요
- 주요 내용1 : 예당저수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내수면 어업체는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원들의 의지가 강하여, 어업계 자체적으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인근에 예당생태체험관 운영

- 주요 내용2 : 예당생태체험관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학생의 생태·환경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근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의좋은 형제 공원 등이 위치
  - 예산군은 슬로우시티로 생태, 환경,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郡으로 이미지 보유
  - 예산군의 슬로우시티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예당생태체험관, 의좋은 형제 공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에코뮤지엄 도입 검토 필요
  - 기존의 하드웨어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내수면 생태·환경, 내수면 어로활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예당호 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 관광소득 창출 기여 가능
- ※ 에코뮤지엄(ecomuseum)이란 지역 고유의 문화, 생활방식, 자연환경 등을 보존·계승하면서 이를 대중과 향유하는 독특한 형태의 박물관임.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할 뿐 아니라 전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 가능 (출처: 두산백과)

## 5. 청양

### 1) 포지션과 특징

■ 충남 내에서 지역총생산GRDP 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 2000년 28.1%에서 2011년 19.7%로 감소, 12개년 간 연평균증감율은 -2.9% 포인트 기록

■ 주요 특징

- 식량작물로는 콩과 팥, 원예작물로는 시설고추와 노지고추, 시설토마토 특화도지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충남 내에서 재배면적 비중으로 각 13.9%, 12.2%, 6.6%로 높은 편에 속함
- 특용작물로는 참깨와 들깨 특화도지수가 각 1.45, 1.27로 높게 나타났고 충남 내에서 재배면적 비중은 5.9%, 5.1%를 보이고 있음
- 임산물의 경우는 구기자와 밤 특화도지수가 각 4.71, 1.22로 높게 나타났고 충남 내에서 재배면적 비중은 구기자가 74.2%로 압도적으로 높고 밤 또한 19.2%를 차지하고 있음

표 6-28. 청양군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구분	농산물(식량 및 원예작물)							임산물	
	콩	팥	시설고추	노지고추	시설토마토	참깨	들깨	구기자	밤
특화도지수	1.59	1.46	4.03	3.03	1.90	1.45	1.27	4.71	1.22
충남 내비중	4.7%	4.3%	13.9%	12.2%	6.6%	5.9%	5.1%	74.2%	19.2%

주 : 1. 특화도 지수 및 충남 내 비중은 수확면적 기준으로 산출, 특화지수 10이상이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 상기 소개된 품목은 한중FTA발효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보고서 2부, 3부) 중심으로 기술함  
자료 : 농업총조사(2010)

■ 품목별 동향

- 구기자(청양군 순회간담회 결과, 2015.06.)
  - 구기자는 면적이 감소하다가 시설지원 이후 소폭 증가추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관계로 아직까지는 판매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구기자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었으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농산물 가공이용 확대 중
- 고추(청양군 순회간담회 결과, 2015.06.)
  - 청양고추는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
  - 종자, 상토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배면적 감소 추세
- 밤 및 표고버섯(청양군 순회간담회 결과, 2015.06.)
  - 수출전용 생산기반 구축 준비
  - 표고버섯은 원목재배보다 배지재배 농가가 많고 배지재배는 물관리가 어려워 대부분 생표고로 출하하는 편, 중국산 표고배지를 쓰기보단 배지는 자체생산을 하고 있어서 품질에 문제가 없는 상황



## ■ 최근 5개년 간 정책지원 현황

- 농정예산 지원규모별로는 수도작, 고추, 구기자 순임(청양군 순회간담회 결과, 2015.06.)

## ■ 충남 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중국과의 교류협력 현황

- 충남의 1,203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청양군은 전통주 3개소, 전통식품 27개소, 일반식품 8개소로 총 38개, 3.2%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라오닝성 덩타시, 우호협력인 곳은 후베이성 수현시임

## ■ 참고 : 주요 자원현황

표 6-29. 청양군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자원유형	세부내용
관광자원	칠갑산도립공원, 천장호 출렁다리,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칠갑문화축제, 칠갑산천문대
농어업자원	구기자, 청양고추, 구기자한과, 맥문동
역사인물자원	채제공 선생 영정
환경생태자원	칠갑산자연휴양림, 칠갑산, 고운식물원, 천장호
지역현안문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주체문제)

자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추진현황 및 중점방향

### ■ 한중FTA에 대한 청양군의 대응현황(시군별 순회간담회, 2015.06.)

- 한중FTA가 발효되면 고추와 구기자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에도 일부작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밤, 구기자, 맥문동, 표고버섯, 토마토 등)
- 특히 값싼 중국산 약용작물이 수입된다면 구기자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농업인 모두 자체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

### ■ 2단계 3농혁신 추진과 연계한 청양군의 부문별 주력정책(2015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 생산혁신을 위해서 블루베리특화단지조성,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 주력
- 유통혁신을 위해서 청양구기자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활성화, 3농혁신 6차산업화센터 구축 운영, 두레기업 창업육성 지원사업 등에 주력
- 소비혁신을 위해서 도농교류센터 설치운영, 역량혁신을 위해서 2020행복한 부자농촌만들기 추진, 인구증가 및 농촌활력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등에 주력

■ 다원적 가치의 농촌다움과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부자농촌 청양(농발계획)

- 5대 목표를 “청정 친환경 농산업기반 지속가능한 청양, 공정 6차산업화로 활력있는 청양, 자연과 함께 살기 좋은 청양, 생애주기별 맞춤형 희망복지, 신바람 문화여가의 행복 청양, 해달별 역량강화로 매력이 통통 튀는 청양”으로 설정

■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지정(2014년)

- 2006년~2010년 5개년 간 276억 원
- 청양고추가공현대화사업, 친환경고추재배단지 조성, 청양고추문화마을 조성, 청양고추랜드 조성, 청양구기자특화시장 조성, 청양고추구기자 축제(매년) 총 6건의 지원, 규제특례(도교 통법, 식품위생법) 2건

### 3) 세부 추진전략

■ 청양산 고추, 구기자, 표고버섯 고품질화를 위한 좋은 품질의 자재공급 기반 구축

- 제안배경 : 중국산 농산물에 대응한 국내산 농산물의 경쟁력은 품질경쟁력 밖에 없기 때문에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필요
- 주요 내용1 : 농산물, 임산물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기초가 되는 각종 자재의 국산화, 더 나아가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주요 내용 2 : 고추 및 구기자의 경우는 토종종자 및 우수종자 보존관리 체계, 표고버섯의 경우 국내산 배지 사용 등

■ 거점지역별 소규모가공지원센터 설치와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

- 제안배경 : 거점지역별 소규모단위로 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신선농산물 일변도 정책지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
- 주요 내용1 : 구기자종합가공센터를 거점으로 하고 읍면 거점지역을 소규모가공지원센터 설치
- 주요 내용2 :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고추), 임산물(버섯, 구기자, 맥문동)을 1차 가공할 수 있는 시설마련(분쇄, 건조, 소포장 등)
- 주요 내용3 : 구기자 뿐만 아니라 청양군에서 많이 재배되는 임산물을 중심으로 가공상품 개발 시도
- 주요 내용4 : 기존 구기자종합가공센터의 기술노하우와 시설기반을 활용하여 새롭게 지역가공기반 창출
- 지역내 로컬푸드 직매장 등과 연계한 상품 개발 필요(소포장, 가공품인증, 브랜드, 디자인)

#### ■ 청양산 농림산물의 전량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 제안배경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청양산 농림산물 품목을 전면 확대.납품하여 청양 로컬푸드 체계 완성할 필요
- 주요 내용1 : 1단계로서 현행 직영체제로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역산 농림산물을 공급
- 주요 내용2 : 2단계로서 학교급식 만이 아닌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지역산 농림산물 전면사용
- 주요 내용3 : 현재 논의 중에 있는 생산자가 운영주체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적극 활용하여 청양산 농림산물 원물과 가공품의 판매(상품개발 사업과 연계)

#### ■ 청양고추 및 구기자 특구와 대중국 친환경농식품 수출특화 지구 연계

- 제안배경 : 현재 고추 및 구기자 특구지역을 활용하여 대중국 수출기지로써도 활용하고 고추와 구기자 원물이 아닌 가공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기반 마련 필요
- 주요 내용1 : 재배방식은 최소한 GAP 이상, 궁극적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이행하여 친환경농식품화
- 주요 내용2 : 고추 및 구기자의 가공상품 개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특구로 영역 확장

## 6. 금산

### 1) 포지션과 특징

- 금산군의 농림어업분야 지역 내 총생산 비율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
- 2012년 기준 금산군의 농림어업 GRDP는 전체의 약 7.5%로 충남의 평균 4.7%보다 약 2.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화품목이자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은 인삼, 갯잎 등 농산물과 산나물, 산양삼 등 임산물 임
- 피해 예상 품목은 농산물(인삼, 갯잎), 임산물(도라지, 더덕, 두릅, 산수유, 산양삼, 기타 약용작물)임
- 특구 지정으로 인삼 및 갯잎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특히 갯잎의 경우 업체류 중 최초로 특구지정을 받음
- 인삼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약 80%가 금산에서 유통되고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있을 만큼 국내 최대의 인삼유통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

표 6-30. 금산군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 (2010년 기준)

구분	농산물	임산물						
	인삼	도라지	더덕	두릅	기타산나물	산수유	산양삼	기타 약용작물
특화도지수	5.90	11.93	8.26	7.26	7.43	6.66	19.70	13.80
충남 내비중(%)	53.3	27.9	19.3	17.0	17.4	15.6	46.1	32.3

주 : 특화도 지수 및 충남 내 비중은 수확면적 기준으로 산출, 특화지수 10이상이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자료 : 농업총조사(2010)

### ■ 참고 : 주요 자원현황

표 6-31. 금산군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자원유형	세부내용
기타자원	금강어죽, 국제인삼시장, 다락원,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농어업자원	금산인삼, 추부들갯잎, 금산인삼제품
문화자원	금산인삼축제, 농바우끄시기, 물폐기농요, 금산풍물굿
환경생태자원	금강, 서대산, 대둔산, 만인산
인적자원	독립을 외친 인물(홍범식, 김용중, 양태웅, 유진산, 송철 등)
관광휴양자원	남이자자연휴양림, 진산자연휴양림, 금산인삼관
역사자원	칠백의총 이치대첩지, 태조대왕태실, 임진왜란 및 6.25 격전장(육백고지 전승탑)
마을공동체자원	체험마을(홍도인삼마을, 용화마을, 금강농바우마을 등), 금산 간디학교, 체험마을: 바리실마을

자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추진현황 및 중점방향

- 농산촌분야 주요 목표로 군민이 선도하는 행복한 농산촌 만들기 추진(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 효율적 농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혁신정책 만들기, 지역 균형발전과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특색있는 지역만들기,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희망찬 마을만들기, 활력있는 공동체와 정주환경 만들기, 휴양산촌조성 및 소득원 개발
- 3농혁신 2단계 추진전략과 연계한 금산군의 주력정책
  - 생산혁신을 위해 고품질 인삼경작지 조성, FTA대응 우량 인삼종자 보급사업, 깻잎재배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사업, 아로니아 가공품 생산시설 기반조성, 산채 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 추진 중
  - 유통혁신을 위해 로컬푸드 농산물 연중생산 하우스 설치 추진 중
  - 지역혁신을 위해 금산인삼농업 국가중요유산 선정 및 시계 중요농업유산 선정 추진, 금산추부 깻잎특구 지정,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귀농교육센터 조성사업 등 추진 중
- 금산 인삼약초 세계화명품화 실현(군수 공약사항)
  - 금산군의 특화작목인 인삼 및 약초를 대상,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금산인삼엑스포, 객토사업, 내수촉진, GAP 인증생산시설 확대 등 추진 중

## 3) 세부 추진전략

- 명품 고려인삼 수출사업 내실 다지기
  - 제언배경(이유,문제제기) : 현재 운영중인 수출지원정책, 수출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수출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의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1 : 인삼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뿌리삼에만 수출 물류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삼, 백삼, 태극삼 등 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확대
  - 주요내용2 :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무역 실무대학의 강사pool 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전략
  - 주요내용3 : 현재 주요 수출기지는 평택, 인천, 부산 등지 이지만 당진항, 대산항 등 충남의 항구를 이용하여 수출할 수 있는 전략적 수출항 육성방안 마련
  - 주요내용4 : 현재 수출량의 80% 이상이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에 편중됨. 새로운 수출시장 개발과 수입국에서 원하는 다양한 인삼제품 개발

■ 우리나라 우수 인삼종자 불법반출 단속강화 및 교육활동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2013~2014년도 중국으로의 불법반출 시도 중 적발된 국산 인삼 종자가 약 30여 톤에 달함
- 주요내용 : 재배여건이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좋고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국내산 우수 인삼종자가 재배된다면 국내산 인삼의 수출시장뿐만 아닌 역수출 되었을 때 국내 인삼시장의 가격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특화작목 생산기반 강화 전략(인삼, 약초, 갯잎)특화작목 생산기반 강화 전략(인삼, 약초, 갯잎)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인삼, 약초 등 특화작목의 재배가 금산지역에 많이 몰려있고, 특화작목의 고유한 특성 상 연작장해 등 재배의 문제점이 많음
- 주요내용1 : 인삼 및 잎들깨 등 특화작목의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객토지원
- 주요내용2 : 인삼, 약초, 갯잎 등의 단계적인 GAP 인증면적의 확대
- 주요내용3 : 인삼자조금 의무가입을 통한 생산, 유통, 가공기반 강화
- 주요내용4 : 기존의 임산물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임산물 재배 특화단지 육성

■ 수확기 인력확보를 위한 인력지원센터 운영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지속되는 농촌인구 감소 및 금산군 주력품목의 수확시기가 겹치는 관계로 수확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
- 주요내용1 : 수확기 인력부족 해결을 위한 인력지원센터 운영
- 주요내용2 : 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인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 금산군 임산물의 인근대도시와 연계한 소비촉진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대도시(대전광역시)와의 지리적 인접성을 이용하여 산야초, 산나물 등 금산의 임산물 홍보 강화
- 주요내용1 : 금산군 농림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통한 대도시 및 금산군 내 다양한 소비층 확보
- 주요내용2 : 임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 및 제품개발로 다양한 소비층 확보

## 7. 논산

### 1) 포지션과 특징

- 논산시의 농림어업분야 지역 내 총생산은 타 시군 및 충청남도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임
- 2012년 기준 논산시의 농림어업 GRDP는 전체의 약 17.8%를 차지함. 이는 충남의 평균 4.7%보다 매우 높은 수치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논산시의 특화품목이자 한중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딸기, 상추 등 농산물과 꿀벌 등 기타가축, 더덕, 복분자 등 임산물 임
- 피해 예상 품목은 농산물(상추, 딸기, 참외, 시설포도, 뽕은감), 축산물(기타가축, 꿀벌), 임산물(더덕, 대추, 복분자) 등임
- 상추, 참외, 딸기 등 주요 농산물의 경우 충남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양촌곶감특구, 청정딸기산업특구 지정을 통해 산업발전을 꾀하고 있음

표 6-32. 논산시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2010년 기준)

구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상추	딸기	참외	시설포도	꿀벌	더덕	뽕은감	대추	복분자
특화도지수	3.13	2.41	2.97	4.46	2.20	15.33	5.72	10.36	7.79
충남 내비중(%)	81.7	62.9	77.6	36.1	17.3	42.4	46.2	28.7	21.5

주 : 특화도 지수 및 충남 내 비중은 수확면적 기준으로 산출, 특화지수 10이상이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자료 : 농업총조사(2010)

### ■ 참고 : 주요 자원현황

표 6-33. 논산시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자원유형	세부내용
경관자원	논산 8경, 관촉사, 솔바람길(탐정호 주변 전통문화 및 관광자원활용)
기타자원	육군훈련소, 강경포구
농어업자원	논산딸기, 강경 젓갈, 가야곡 왕주, 연산대추, 오골계, 파평윤씨명재 종가의 장류와 참게장
인물자원	소설가 박범신
환경생태자원	탐정호, 대둔사 도립공원
역사자원	유교문화권
지역문화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논산딸기축제, 황산벌전투재현
지역주요계획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반 구축, 병영테마파크 조성, 탐정호 수변개발, 문화재를 통한 전통문화 체험(1박 2일)-문화이해, 논산문화원 건립, 조선시대 사육신 성삼문 묘역 성역화사업, 사람중심 도시환경 정비

자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추진현황 및 중점방향

### ■ 최근 5년간 유통분야 정책지원 현황

- 통합마케팅조직(1.5억 원), 산지유통활성화 조직(137.7억 원), 수급안정사업(15.4억 원), 표준규격 공동출하 (3천만 원), 일반APC(36.9억 원), 저온유통체계구축(8억 원), GAP시설보완 (10.6억 원), 물류표준화(1.4억 원), 예스민 딸기 클러스터 사업(52.4억 원)진행

### ■ 농업발전 전략으로 농업인의 권익 증진, 농업인의 실익 증진, 시민의 편익 증진(농발계획)

-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농정추진체계 개편, 비용절감 및 고품질 생산시스템 혁신
-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시스템 구축, 부가가치 제고형 농업으로의 지속적인 전환
- 논산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농민과 시민이 함께하는 협동조합 복합체 육성

### ■ 유통부문 주요 목표는 논산시 산지유통주체의 규모화 및 전문화 달성(산지유통 종합계획)

- 논산시 산지유통활성화 협의회 구성, 농업유통주체 통합
- 예스민 브랜드 관리 위임, 예스민 브랜드 품질관리체계 확립, 브랜드 품질관리기준
- 통합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시설연계 활용
- 통합마케팅조직 및 농협간 협력체계 구축

### ■ 3농혁신 2단계 추진전략과 연계한 논산시의 주력정책

- 역량혁신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교육
- 생산혁신을 위한 고소득 과수묘목 지원사업
- 지역혁신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

### ■ 강경 발효젓갈산업 특구, 양촌꽃감 특구, 청정딸기산업 특구 지정

## 3) 세부 추진전략

### ■ 지역의 품목별 축제와 연계한 새로운 소득 연계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새로운 콘텐츠, 농산물 판매장, 가공식품개발, 다양한 체험활동 등 수익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축제와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
- 주요내용1 : 지역 내 축제(딸기축제, 발효젓갈 축제, 얼음축제, 고구마 축제, 대추 축제, 꽃감 축제 등)를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주요내용2 : 기존의 행정주도 축제에서 벗어나 주민주도의 축제로 전환



#### ■ 딸기, 꽃감, 대추 특산품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시스템 구축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지역의 특산품은 생산물 가치로서의 소득도 많지만 가공이 용이한 품목이고, 가공을 통해 소득증대효과 기대
- 주요내용1: 딸기, 뽕은감, 대추, 복분자 등 특화계수가 높은 품목을 위주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가공품 개발
- 주요내용2 : 다양한 가공품 개발을 위한 가공품 개발 기술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

#### ■ 신제품 개발·보급 및 다양한 품목 재배 유도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논산시 주요 특산품(딸기, 상추 등)은 작물 특성상 유통기간이 매우 짧아 수출뿐만이 아닌 내수시장 유통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
- 주요내용1 :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딸기시험장, 농업기술센터 등) 저장성이 우수한 신제품 개발 및 농가교육보급 확대
- 주요내용2 : 딸기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면서 딸기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생산과잉으로 인력부족, 가격하락 등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새로운 품목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 ■ 쌈채류, 과채류, 임산물 부류별 특성에 맞춘 생산-가공-유통 특화단지 구축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재배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 유통효율화
- 주요내용 : 상추를 중심으로 한 쌈채류 특화단지, 딸기 및 참외를 중심으로 한 과채류 특화단지, 뽕은 감 및 복분자를 중심으로 한 임산물 가공 특화단지 조성

#### ■ 통합마케팅조직 운영활성화를 위한 참여농가 조직화 사업

- 제안배경(이유,문제제기) : 원예분야 작물의 경우 생산량은 많지만 유통부문에 있어 개별 출하가 많은 상황.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하여 출하되는 물량은 약 13% 가량으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함
- 주요내용 :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통하여 산지유통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브랜드 통합을 통한 브랜드가치 제고

## 8. 부여

## 1) 포지션과 특징

■ 부여군의 농림어업분야 지역 내 총생산은 타 시군 및 충청남도 전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임

- 2012년 기준 부여군의 농림어업 GRDP는 전체의 약 25.2%를 차지함. 이는 충남의 평균 4.7%보다 매우 높은 수치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개년간 농림어업 GRDP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부여군의 특화품목이자 한중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수박, 토마토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과 뽕은감, 밤을 중심으로 한 임산물 임

- 피해 예상품목은 농산물(시금치, 호박, 수박, 토마토, 기타버섯, 자두, 매실), 임산물(뽕은감, 밤) 등임
- 특히 수박, 토마토, 기타버섯(양송이)은 충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여군의 주요 소득작물인 수박은 약 4,500여 농가에서 1천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토마토는 세도지역을 중심으로 약 500여 농가에서 5백4십억 원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음
- 양송이버섯은 전국 제 1의 생산단지로 연간 250억 원의 소득창출과 2011년 양송이 특구지정을 받음

표 6-34. 부여군 주요품목의 특화도지수 및 충남 내 비중(2010년 기준)

구분	농산물							임산물	
	시금치	호박	수박	토마토	기타버섯	자두	매실	뽕은감	밤
특화도지수	1.59	1.64	1.70	1.32	2.21	5.80	3.01	3.86	1.19
충남 내비중(%)	41.5	42.8	44.4	34.4	57.6	19.8	10.3	13.2	35.1

주 : 특화도 지수 및 충남 내 비중은 수확면적 기준으로 산출, 특화지수 10이상이면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자료 : 농업총조사(2010)

## ■ 참고 : 주요 자원현황

표 6-35. 부여군의 유형별 주요 자원현황

자원유형	세부내용
관광자원	백제역사문화축제, 백제문화단지, 롯데리조트, 서동요 오픈 촬영세트장
농어업자원	부여(수박, 밤, 방울토마토, 양송이버섯, 멜론, 딸기, 표고버섯, 오이), 수박, 멜론, 굿뜨래 브랜드, 양송이 버섯
문화자원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 서동과 선화공주 사랑이야기
인물자원	계백
환경생태자원	낙화암, 부소산성, 궁남지, 백마강
지역주요계획	백마강 수상관광, 굿뜨래 친환경 농업관광단지 조성, 굿뜨래 제2창업 성공프로그램(을 위한 브랜드 스토리텔링 등), 백제문화의 역사성 회복, 대백제의 심벌 계백장군 동산 승상, 사비 전망타워 건립

자료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시군 특성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추진현황 및 중점방향

### ■ 주력품목의 최근 5년간 정책지원 현황(수박, 토마토, 양송이)

- 시설원에 연작장해방지(8.9억 원), 시설원에 에너지효율화(228억 원), 양액재배(8.4억 원), 시설원에 품질개선(46억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7.2억 원), 양송이 노후시설개선(14.7억 원), 버섯재배시설현대화(11억 원), 원예 브랜드사업(85억 원) 진행

### ■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주요 비전은 백제의 전통과 농심이 순환하는 굿뜨래 부여

- 비전에 따른 주요 목표는 친환경 농업기반 경쟁력 강화
- 지역순환 경제 활성화, 미래공동체 거점 육성
- 지속가능한 환경과 지역주민 중심의 교유체계 구축

### ■ 산지유통조직 역량강화로 현대화, 규모화된 유통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시장과 수출시장 점유 확대(산지유통 종합계획)

- 주요 추진 방향으로 산지 전문조직체 육성, 공동사업법인 육성, 규모화 전문화 조직 중심의 유통시설 구축 강화, 품목 중심의 전문조직화 육성, 시장 경쟁력 제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임

### ■ 3농혁신 2단계 추진전략과 연계한 부여군의 주력정책

- 생산혁신을 위한 기후변화 적합 품종 발굴 및 신소득작물 보급, 굿뜨래 양송이원예브랜드 육성사업
- 유통혁신을 위한 충남오감 남부권 과수포장재 지원사업, 충남오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 생산혁신을 위한 희망산촌 만들기 지원사업

## 3) 세부 추진전략

### ■ 백제문화권 관광단지와 연계한 농식품 및 가공식품 개발

- 제안배경(이유, 문제제기) : 기존 관광객 및 관광시설을 이용한 농산물 판매전략
- 주요내용1 : 백제문화권 및 조성예정인 야시장 관광객을 대상 부여의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개발
- 주요내용2 :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상품 개발

### ■ 시장개방에 대응한 밤과 양송이버섯 상품화

- 제안배경(이유, 문제제기) : 부여의 밤을 중심으로 한 임산물은 중국시장에서 안전성 및 품질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중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시장 공략 방법 마련
- 주요내용1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별 중국 수출시장 현황 조사 및 소비자 선호도 조사 실시
- 주요내용2 : 현지 수출시장 요구를 반영한 임산물 고품질화
- 주요내용3 :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양송이 가공품(통조림 등)은 대부분 중국산이 점유하고 있음. 원산지 표기규정 강화를 통한 국내산 양송이산업 보호전략

### ■ 다양한 소득작물 발굴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 제안배경(이유, 문제제기) : 농가 및 조직단체별 통계DB 구축을 통해 품목의 편중 지양과 과잉생산방지 계획 수립
- 주요내용1 : 젊은층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다양화 됨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신품종 개발계획 수립
- 주요내용2 :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의 신소득작목 개발

### ■ 토양살리기 보상 프로그램

- 제안배경 : 부여는 전국에서 과채류(수박, 메론, 토마토 등) 제1의 주산지로서 연중 내내 생산체계, 이에 따른 연작장에 피해, 토양고갈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심각
- 주요내용1 : 토양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농가별 자발적으로 휴경을 실시했을 때 해당연도 소득감소분만큼 농가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 보상
- 주요내용2 : 윤작 및 혼작 등을 실시했을 때 농가에게 일정수준의 직접적인 현금지원 보상

제7부

소요예산



# 제1절 소요예산

## 1. 연도별 소요예산

표 7-1. 2대 목표 및 5대 부문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가나다순 배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합계	(비중)
농촌생활소득의 보전		65,277	73,791	73,791	73,791	74,091	360,741	57.9%
	소득 및 권익증진	65,277	73,791	73,791	73,791	74,091	360,741	57.9%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		45,981	53,231	62,701	51,301	49,451	262,665	42.1%
	농림수산업	33,400	37,400	40,150	35,200	31,700	177,850	28.5%
	수출	310	310	1,710	2,010	1,660	6,000	1.0%
	지역경제	6,646	9,146	10,166	7,666	7,666	41,290	6.6%
	지역교류 및 협력	5,625	6,375	10,675	6,425	8,425	37,525	6.0%
총합계(5대 부문)		111,258	127,022	136,492	125,092	123,542	623,406	100.0%

표 7-2. 10대 전략별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가나다순 배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합계
농촌생활소득의 보전 (4대 전략)		65,277	73,791	73,791	73,791	74,091	360,741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확대	40,893	46,182	46,182	46,182	46,182	225,621
	농어민권익보호 및 증진	450	450	450	450	750	2,550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11,934	15,159	15,159	15,159	15,159	72,570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6대 전략)		45,981	53,231	62,701	51,301	49,451	262,665
	농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310	310	1,710	2,010	1,660	6,000
	농어업 구조 개선 및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6,646	9,146	10,166	7,666	7,666	41,290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4,500	6,000	6,000	4,500	3,500	24,500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28,900	31,400	34,150	30,700	28,200	153,350
	지역브랜드 강화	950	1,700	3,200	950	950	7,750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4,675	4,675	7,475	5,475	7,475	29,775
총합계(10대 전략)		111,258	127,022	136,492	125,092	123,542	623,406



표 7-3. 전략별 단위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가나다순 배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합계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확대	40,893	46,182	46,182	46,182	46,182	225,621
농업생태 직불 프로그램	0	5,289	5,289	5,289	5,289	21,156
농촌경관 직불 프로그램	2,193	2,193	2,193	2,193	2,193	10,965
식량자금 직불 프로그램	38,700	38,700	38,700	38,700	38,700	193,500
농어민권익보호 및 증진	450	450	450	450	750	2,550
농지보호를 위한 농민의 권한 강화	50	50	50	50	350	550
우리 농어업 가치 홍보 강화	400	400	400	400	400	2,000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11,934	15,159	15,159	15,159	15,159	72,570
각종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 일자리 창출	2,580	2,580	2,580	2,580	2,580	12,900
다기능농업의 육성과 다양한 소득원 발굴	3,354	6,579	6,579	6,579	6,579	29,670
충남 농촌사회보장 프로그램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R&D투자 제안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근본적 대책수립 제안(비예산)	0	0	0	0	0	0
법률 개정 제안(비예산)	0	0	0	0	0	0
수출방식 전환 제안(비예산)	0	0	0	0	0	0
농수산물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310	310	1,710	2,010	1,660	6,000
대중국 수출농산물 전문마케팅 조직 육성	200	200	700	700	850	2,650
대중국 수출용 농가공식품 산업 육성	0	0	400	400	200	1,000
충남 식문화 및 외식산업 대중국 진출지원	110	110	610	910	610	2,350
농어업 구조 개선 및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6,646	9,146	10,166	7,666	7,666	41,290
R&D개발을 통한 연계된 농어업 지속성 강화	1,300	1,300	2,000	2,000	2,000	8,600
농어촌 가치 중심의 농어업 구조개선	1,500	4,000	4,000	1,500	1,500	12,500
농어촌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사회적 농기업 육성	3,750	3,750	3,750	3,750	3,750	18,750
중국농업 이해 및 현지연수 프로그램 개발	96	96	416	416	416	1,440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4,500	6,000	6,000	4,500	3,500	24,500
수산물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600	600	600	600	600	3,000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1,800	3,300	3,300	1,800	1,800	12,000
충남 명품 수산물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1,800	1,800	1,800	1,800	800	8,000
환경해권 수산업 공동 상생발전 사업	300	300	300	300	300	1,500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28,900	31,400	34,150	30,700	28,200	153,350
건강한 토양물종자 만들기 프로젝트	24,300	24,300	24,300	24,300	24,300	121,500
농산물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500	500	500	300	300	2,100
마을단위 공동농장 육성과 소량 다품목 생산구조 전환사업	250	250	3,250	500	500	4,750
임산물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유통,지역가공 기반 강화	1,000	3,500	3,500	3,500	1,000	12,500
지속가능한 임산물, 산림자원 생산 및 가공 기반 구축	2,350	2,350	2,100	2,100	2,100	11,000
지역별 전략 농산물 육성 지원	500	500	500	0	0	1,500
지역브랜드 강화	950	1,700	3,200	950	950	7,750
ICT를 이용한 6차산업화 경쟁력 강화	300	300	300	300	300	1,500
도시농업 및 소비교류 사업	500	500	500	500	500	2,500
푸드 비즈니스 및 투어 육성 사업	150	900	2,400	150	150	3,750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4,675	4,675	7,475	5,475	7,475	29,775
대중국 교류,협력의 거점 확보	300	300	1,300	1,300	1,300	4,500
중국 농촌지도자 및 농정담당자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75	75	75	75	75	375
중국인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위한 지역단위 기반 구축	300	300	2,100	2,600	2,100	7,400
지역 농업 문화유산 계승 발전 사업	4,000	4,000	4,000	1,500	4,000	17,500
총합계(36개 단위사업)	111,258	127,022	136,492	125,092	123,542	623,406

주 :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은 총 108개 사업(예산사업 100개+비예산사업 8개)로 구성하였음. 이하 동일

2. 자원별 소요예산

표 7-4. 2대 목표 및 5대 부문 자원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가나다순 배열)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총합계
농촌생활소득의 보전		320,229	19,554	17,604	3,354	360,741
	소득 및 권익증진	320,229	19,554	17,604	3,354	360,741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		70,495	90,195	91,983	9,993	262,665
	농림수산업	51,170	64,120	59,610	2,950	177,850
	수출	825	2,680	2,415	80	6,000
	지역경제	14,875	9,458	12,183	4,775	41,290
	지역교류 및 협력	3,625	13,938	17,775	2,188	37,525
총합계(5대 부문)		390,724	109,749	109,587	13,347	623,406

표 7-5. 10대 전략별 자원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가나다순 배열)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총합계
농촌생활소득의 보전(4대 전략)		320,229	19,554	17,604	3,354	360,741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확대	225,621	0	0	0	225,621
	농어민권익보호 및 증진	0	2,250	300	0	2,550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34,608	17,304	17,304	3,354	72,570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	60,000	0	0	0	60,000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6대 전략)		70,495	90,195	91,983	9,993	262,665
	농수산물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825	2,680	2,415	80	6,000
	농어업 구조 개선 및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14,875	9,458	12,183	4,775	41,290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5,520	11,270	7,260	450	24,500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45,650	52,850	52,350	2,500	153,350
	지역브랜드 강화	1,525	2,000	2,938	1,288	7,750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2,100	11,938	14,838	900	29,775
총합계		390,724	109,749	109,587	13,347	623,406

표 7-6. 전략별 단위사업 자원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가나다순 배열)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총합계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확대	225,621	0	0	0	225,621
농업생태 직불 프로그램	21,156	0	0	0	21,156
농촌경관 직불 프로그램	10,965	0	0	0	10,965
식량지급 직불 프로그램	193,500	0	0	0	193,500
농어민권익보호 및 증진	0	2,250	300	0	2,550
농지보호를 위한 농민의 권한 강화	0	550	0	0	550
우리 농어업 가치 홍보 강화	0	1,700	300	0	2,000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34,608	17,304	17,304	3,354	72,570
각종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 일자리 창출	6,450	3,225	3,225	0	12,900
다기능농업의 육성과 다양한 소득원 발굴	13,158	6,579	6,579	3,354	29,670
충남 농촌사회보장 프로그램	15,000	7,500	7,500	0	30,000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	60,000	0	0	0	60,000
R&D투자 제안	60,000	0	0	0	60,000
근본적 대책수립 제안(비예산)	0	0	0	0	0
법률 개정 제안(비예산)	0	0	0	0	0
수출방식 전환 제안(비예산)	0	0	0	0	0
농수산물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825	2,680	2,415	80	6,000
대중국 수출농산물 전문마케팅 조직 육성	75	1,295	1,280	0	2,650
대중국 수출용 농가공식품 산업 육성	300	360	260	80	1,000
충남 식문화 및 외식산업 대중국 진출지원	450	1,025	875	0	2,350
농어업 구조 개선 및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14,875	9,458	12,183	4,775	41,290
R&D개발을 통한 연계된 농어업 지속성 강화	4,000	1,800	2,150	650	8,600
농어촌 가치 중심의 농어업 구조개선	1,500	4,125	4,625	2,250	12,500
농어촌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사회적 농기업 육성	9,375	2,813	4,688	1,875	18,750
중국농업 이해 및 현지연수 프로그램 개발	0	720	720	0	1,440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5,520	11,270	7,260	450	24,500
수산물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0	1,800	1,200	0	3,000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4,800	3,330	3,420	450	12,000
충남 명품 수산물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720	4,640	2,640	0	8,000
환경해권 수산업 공동 상생·발전 사업	0	1,500	0	0	1,500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45,650	52,850	52,350	2,500	153,350
건강한 토양물종자 만들기 프로젝트	36,450	42,525	42,525	0	121,500
농산물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450	1,050	600	0	2,100
마을단위 공동농장 육성과 소량 다품목 생산구조 전환사업	750	1,875	1,875	250	4,750
임산물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유통·지역가공 기반 강화	2,850	4,000	3,700	1,950	12,500
지속가능한 임산물, 산림자원 생산 및 가공 기반 구축	5,150	2,650	2,900	300	11,000
지역별 전략 농산물 육성 지원	0	750	750	0	1,500
지역브랜드 강화	1,525	2,000	2,938	1,288	7,750
ICT를 이용한 6차산업화 경쟁력 강화	750	225	225	300	1,500
도시농업 및 소비교류 사업	775	650	650	425	2,500
푸드 비즈니스 및 투어 육성 사업	0	1,125	2,063	563	3,750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2,100	11,938	14,838	900	29,775
대중국 교류·협력의 거점 확보	0	1,950	1,950	600	4,500
중국 농촌지도자 및 농정담당자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0	188	188	0	375
중국인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위한 지역단위 기반 구축	1,350	2,800	2,950	300	7,400
지역 농업 문화·유산 계승 발전 사업	750	7,000	9,750	0	17,500
총합계(36개 단위사업)	390,724	109,749	109,587	13,347	623,406

주 :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은 총 108개 사업(예산사업 100개+비예산사업 8개)로 구성하였음. 이하 동일

### 3. 연도별 자원별 소요예산

표 7-7. 10대 전략의 연도별.자원별 소요예산

구분 (*가나다순 배열)	2016년					2017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확대	40,893	40,893				40,893	40,893			
농수산물식품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310		155	155		310		155	155	
농어민권익보호 및 증진	450		390	60		450		390	60	
농어업 구조 개선 및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6,646	2,465	1,376	1850.5	955	6,646	2,465	1,376	1,851	955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11,934	5,632	2,816	2,816	670.8	11,934	5,632	2,816	2,816	671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어촌의 지속성 확보	4,500	880	2,250	1,370		4,500	880	2,250	1,370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	12,000	12,000				12,000	12,000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28,900	8,455	10,000	9,895	550	28,900	8,455	10,000	9,895	550
지역브랜드 강화	950	305	220	228	198	950	305	220	228	198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4,675		1,988	2,688		4,675		1,988	2,688	
총합계	111,258	70,630	19,194	19,061	2,373	111,258	70,630	19,194	19,061	2,373

표 7-7. 10대전략의 연도별.자원별 소요예산(계속)

구분 (*가나다순 배열)	2018년					2019년					2020년				
	소계	국비	도비	시군 비	자부 담	소계	국비	도비	시군 비	자부 담	소계	국비	도비	시군 비	자부 담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확대	46,182	46,182				46,182	46,182				46,182	46,182			
농수산물 의 대중국 수출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310		155	155		1,710	270	745	655	40	1,660	285	730	645	
농어민권익 보호 및 증진	450		390	60		450		390	60		750		690	60	
농어업 구조 개선 및 순환경제시 스템 구축	9,146	3,215	2,126	2,851	955	10,166	3,565	2,486	3,161	955	7,666	2,815	1,736	2,161	955
농촌사회안 전망 강화	15,159	7,244	3,622	3,622	671	15,159	7,244	3,622	3,622	671	15,159	7,244	3,622	3,622	671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어업.어 촌의 지속성 확보	6,000	1,730	2,370	1,675	225	6,000	1,730	2,370	1,675	225	3,500	500	1,910	1,090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안과제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31,400	9,405	10,850	10,645	500	34,150	10,080	11,800	11,570	700	28,200	8,380	9,725	9,795	300
지역브랜드 강화	1,700	305	445	753	198	3,200	305	895	1,503	498	950	305	220	228	198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4,675	750	2,238	1,688		7,475	450	2,738	4,088	200	7,475	450	2,738	3,938	350
총합계	127,022	80,831	22,195	21,448	2,548	136,492	81,826	25,045	26,333	3,288	123,542	78,161	21,370	21,538	2,473

## 제2절 자원마련 방안

###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농정분야 예산 현황

#### 1)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현황

표 7-8. 농식품부 예산규모 변화(2013-2015)

(단위 :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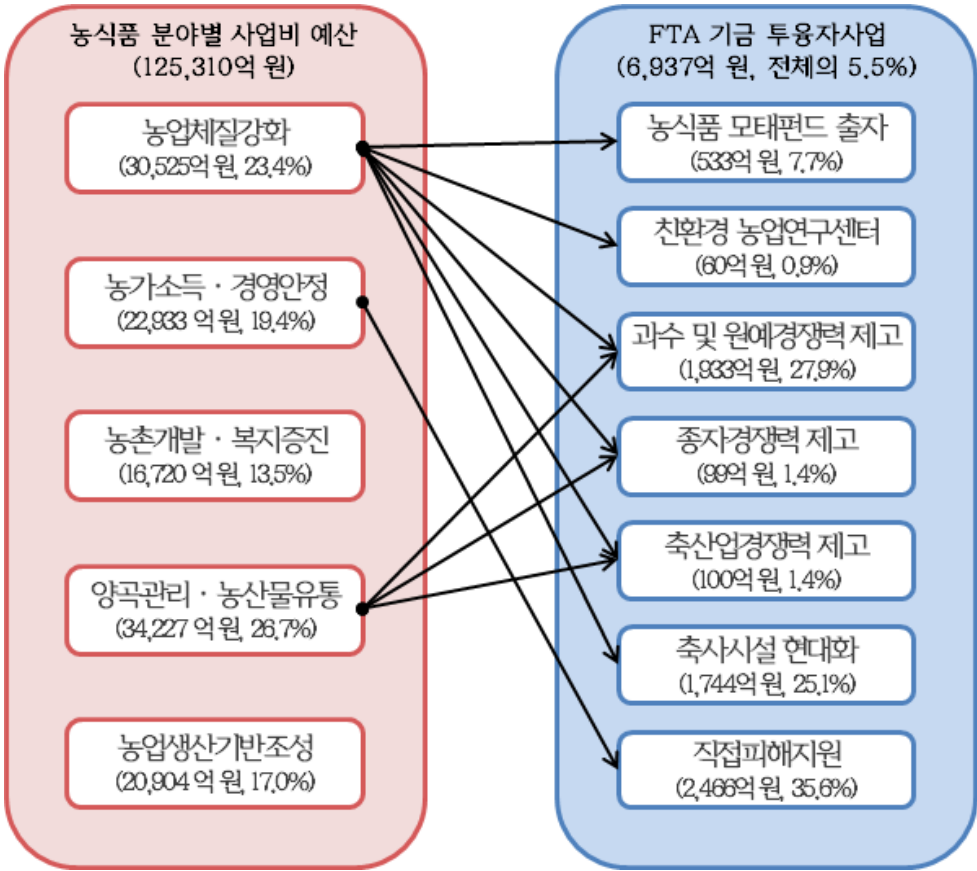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3개년 간 평균예산	(3개년 간 평균예산 비중)	연평균증가율
총지출(예산+기금)	135,268	136,371	140,431			1.9%
□ 예산 일반지출	82,225	83,548	86,087			2.3%
□ 기금 일반지출	53,043	52,823	54,344			1.2%
I. 사업비	131,746	132,881	136,860			1.9%
▣ 농업·농촌	123,953	124,528	127,451		100.0%	1.4%
○ 농업체질강화	30,673	31,059	29,844	30,525.3	23.4%	-1.4%
○ 농가소득·경영안정	20,907	23,230	24,663	22,933.3	19.4%	8.6%
○ 농촌개발·복지증진	16,484	16,449	17,229	16,720.7	13.5%	2.2%
○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4,995	33,656	34,031	34,227.3	26.7%	-1.4%
○ 농업생산기반조성	20,894	20,133	21,685	20,904.0	17.0%	1.9%
▣ 식품산업	7,339	7,723	8,401			7.0%
▣ 기타사업비	453	631	1,008			49.2%
II. 기본적경비	3,522	3,490	3,571			0.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각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림 7-1. 농식품부 분야별 예산 중 3개년 간 FTA 기금사업

(단위 : 억 원, %)

FTA기금사업	3개년 간 평균예산	(3개년 간 평균예산 비중)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533.3	7.7%
친환경농업연구센터	60.8	0.9%
과수 및 원예경쟁력 제고	1,933.8	27.9%
종자경쟁력 제고	99.2	1.4%
축산업경쟁력 제고	100.0	1.4%
축사시설현대화	1,744.1	25.1%
직접피해지원	2,466.7	35.6%
합 계	6,937.9	100.0%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 2014 회계연도 자유무역 협정이행지원기금 결과보고서



## 2) 충청남도 농정예산 현황

표 7-9. 국가-충남-시군의 재정규모

(단위 : 조 원)

구분	2007	2010	2013	2014	(2014년 비중)	연평균 증감율
국가 총규모(A)	237.0	292.8	341.9	355.8	—	5.9%
(증감율)	—	2.9%	5.6%	4.0%	—	
[단체별]						
충청남도(B)	3,5420	4,2413	4,9413	5,1492	39.6%	5.0%
비중(B/A)	3.8%	3.8%	3.6%	3.7%	—	-0.8%
재정자립도		28.0%	31.4%	29.3%		
시군(C)	5,4741	6,9412	7,3337	7,8631	60.4%	5.1%
총합계	9,0161	11,1825	12,2750	13,0123	100.0%	5.0%
[재원별]						
일반회계	6,5234	8,7772	9,9296	10,6272	81.7%	6.7%
특별회계	1,9446	1,7977	1,7535	1,7601	13.5%	-1.3%
기금	0,5481	0,6076	0,5919	0,6250	4.8%	1.9%
총합계	9,0161	11,1825	12,2750	13,0123	100.0%	5.0%

주 :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 세입\*100

자료 : 1. 충남재정정보공개시스템(도민참여예산제\_재정정보\_재정규모)

2.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알기쉬운재정\_한눈에보는재정)

표 7-10. 충남-시군 재원별 재정규모

(단위 :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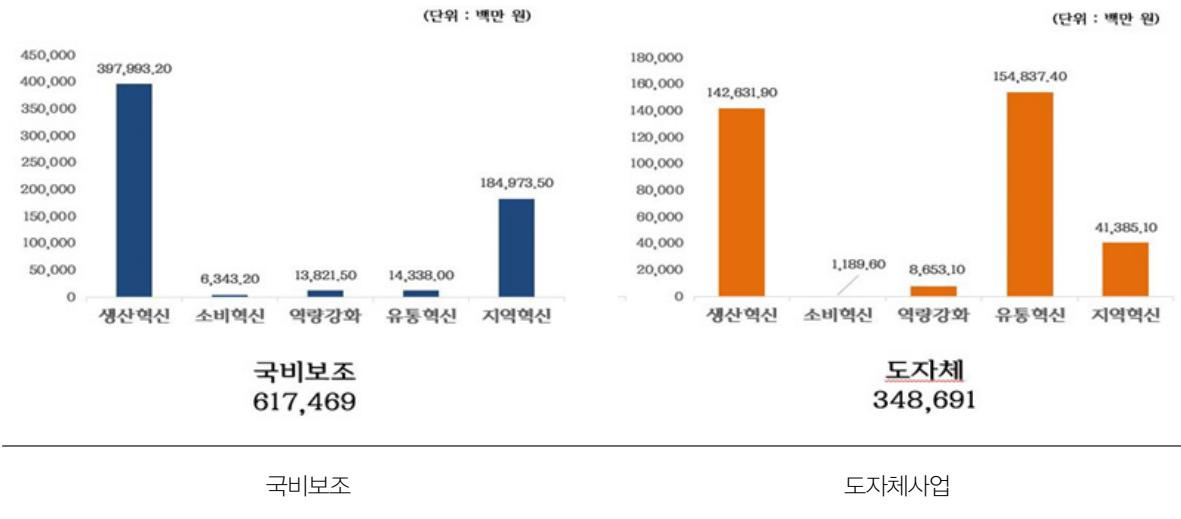
구분	2007	2010	2013	2014	(2014년 비중)	연평균 증감율
충남_일반회계	2,5562	3,3427	3,9500	4,1500	80.6%	6.5%
충남_특별회계	0,6238	0,5808	0,6367	0,6426	12.5%	0.6%
충남_기금	0,3620	0,3178	0,3546	0,3566	6.9%	-0.1%
충남_총합계	3,5420	4,2413	4,9413	5,1492	100.0%	5.0%
시군_일반회계	3,9672	5,4345	5,9796	6,4772	82.4%	6.9%
시군_특별회계	1,3208	1,2169	1,1168	1,1175	14.2%	-2.2%
시군_기금	0,1861	0,2898	0,2373	0,2684	3.4%	5.3%
시군_총합계	5,4741	6,9412	7,3337	7,8631	100.0%	5.1%

자료 : 충남재정정보공개시스템(도민참여예산제\_재정정보\_재정규모)

그림 7-2. 충남 농정구조 : 영역별 결산규모 (2014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

구분	개수	합계	(비중)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국비보조	154	617,469.4	63.9%	356,425.5	53,900.7	133,310.1	73,833.0
(비중)		100.0%		57.7%	8.7%	21.6%	12.0%
생산	107	397,993.2	64.5%	203,020.1	39,707.5	87,888.4	67,377.2
소비	8	6,343.2	1.0%	3,795.5	728.6	1,751.0	68.1
역량강화	10	13,821.5	2.2%	7,225.3	1,858.0	3,401.2	1,337.0
유통	11	14,338.0	2.3%	6,537.2	745.1	2,005.0	5,050.7
지역혁신	18	184,973.5	30.0%	135,847.5	10,861.5	38,264.5	0.0
도자체	186	348,697.1	36.1%		90,549.9	154,150.7	103,996.5
(비중)		100.0%			26.0%	44.2%	29.8%
생산	144	142,631.9	40.9%		29,036.3	67,286.5	46,309.0
소비	4	1,189.6	0.3%		346.0	471.6	372.0
역량강화	13	8,653.1	2.5%		2,462.5	6,033.7	156.8
유통	20	154,837.4	44.4%		38,357.4	59,331.3	57,148.7
지역혁신	5	41,385.1	11.9%		20,347.6	21,027.6	10.0
총합계	340	966,166.4	100.0%	356,425.5	144,450.6	287,460.8	177,829.5



자료 : 충청남도 농정국 내부자료(2015)

표 7-11. 충남 농정구조 : 사업주체별 현황 (2014년 기준 결산)

(단위 : 명, 개소)

구분	합계	농어업인	농어업법 인	농수축협	마을	도	시군	기업	농어촌공 사	교육청
국비보조	346,412	345,877	88	25		23	357	32	10	
생산	345,584	345,222	71	17		23	220	31		
소비	15	15								
역량강화	639	622	13				4			
유통	32	18	4	8			1	1		
지역혁신	142						132		10	
도자체	173,496	172,566	480	189	2	5	215	6		33
생산	172,760	172,344	258	101		2	49	6		
소비	144	130	12		1		1			
역량강화	74	5				3	66			
유통	419	87	210	88			1			33
지역혁신	99				1		98			
총합계	519,908	518,443	568	214	2	28	572	38	10	33

자료 : 충청남도 농정국 내부자료(2015)

## 2.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및 수산발전기금의 활용

### 1) 농업분야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약칭 FTA기금)

#### ■ 기금 개요<sup>29)</sup>

- 목적 및 근거 :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 (FTA 특별법 제13조)
- 근거법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제7207호)을 제정, 기금설치 근거 마련(2004.03.22.)
- 관리기관 : 관리주체(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수탁관리(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부)

#### ■ 기금 목적

-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농업 경쟁력 제고 지원
-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축산, 원예·식량 분야 등의 경쟁력 제고 지원
- 협정의 이행에 따른 직접 피해품목에 대한 단기적 직접 피해 보전

#### ■ 기금 자원 및 용도

기금 조성자원(FTA특별법 제14조)	기금 용도(FTA특별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금 : 정부, 정부외의 자, 마사회특별적립금</li> <li>- 차입금 : 한국은행, 다른 기금 및 회계</li> <li>- 수입이익금 : 관세할당물량(TRQ) 수입자 부담금</li> <li>- 기금운용 수익금</li> <li>- 전입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전입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등의 경쟁력 제고</li> <li>-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및 폐업지원</li> <li>-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가공업 지원</li> <li>-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li> <li>- 농산물 수입 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li> <li>-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li> </ul>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at.or.kr/contents/apko333220/view.action>)

#### ■ 현황 및 문제(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FTA 폐업지원제)

- FTA기금의 현재 예산체계는 수입관련 항목은 자체수입, 여유자금 회수, 정부전입금 항목, 지출관련 항목은 5개 프로그램, 7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융자사업 : 과수 및 원예경쟁력 제고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941억 원(27.6%)
  - 보조사업 : 직접피해지원 등 4,257억 원(60.5%)
  - 출연금 : 직접피해지원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 운영 45억 원(0.5%)
- 2004년~2012년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교부실적 없고 2015년

29)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at.or.kr/contents/apko333220/view.action>)

은 11월 중 지자체별 자금배정 요청을 받아서 12월초 자금 교부 예정

- 2009년~2012년은 폐업지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교부실적 없고 2015년은 11월 중 지자체별 자금배정 요청을 받아서 12월초 자금 교부 예정

#### ■ 제안내용<sup>30)</sup>

- 피해보전비용의 현행 90%보전에서 100%로 현실화 필요
- 지원액 하한선 설정을 통한 행정비용의 낭비 방지, 피해보전직불제 홍보 강화 필요
- 현행 법정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피해보전효과 확대
  - \* 한·EU 발효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법 제6조제1항)된 시행기간을 한중FTA 발효일로부터 10년간으로 연장, 영연방 FTA 여야정합의시 '24년까지 연장하기로 함
- 대상품목 결정에 대한 농업인 이의제기절차 제도화, 직불금신청·지급절차 간소화
- 자유무역협정기금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직접적인 피해보전 영역에 국한하지 말고 포괄적/간접적/종합적인 피해보전 영역으로 확대하여 보다 근본적 피해예측과 더불어 관련 최대한 지원 필요(아래의 참고사항과 같이 특별법 내용에 충실히 입각한 종합대책과 지원 필요)

#### ■ 참고사항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2.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3. 그 밖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3.8.13.>
  1.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 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30) 자료 : 1. 국회(2015), 농해수위 결산보고서 등 심사보고서  
2. 농식품부(2015), 2015년 국회 현안보고 자료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 어업분야 : 수산발전기금

### ■ 기금목적

-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FTA 체결 등 국제 어업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육성발전 도모

### ■ 기금설치 근거법률

- 수산업법 제 76조

### ■ 운용방침

-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명시된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수산물 안전관리,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관리 등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

### ■ 운용규모 및 주요 사업내용

- 수산발전기금 총 운용규모는 2013년 현재 7,455억 원, 이 중 수산어촌 분야 5,906억 원, 해양환경 분야 177억 원, 기금운영비 14.8억 원, 여유자금운용 1,356억 원(아래는 2015년 기준 자료)

사 업 명	지원액(백만 원)	지원기준
사업비 합계 (경상 + 용자)	843,405	
<input type="checkbox"/> 경상사업	124,762	FTA피해보전직불금(3,000), 폐업지원금(4,750), 산지 유통자금, 연안어장 환경개선, 해양정화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용자사업	461,000	대출금리 2%~4%, 양식어업 관련, 어선어업 관련, 수산물 구매지원, 해외수산시설투자, 유통자금 등
<input type="checkbox"/> 기금운영비	1,459	
<input type="checkbox"/> 정부내부지출	7,525	
<input type="checkbox"/> 여유자금운용	248,659	

자료 : 해양수산부(2015)

### 3. 농어촌 상생협력기금<sup>31)</sup>의 활용

#### ■ 쟁점사항

- 찬성론 : 자유무역에 따른 피해 보완 측면, ‘Kaldor-Hicks 보상 이론’ 및 ‘D. Kahneman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근거로 한 무역이득공유제의 이론적·법적 정당성, 경제민주화 측면, 정의(Justice)실현의 관점에서 무역이득공유제는 정당성 가지고 성립가능성 있음
- 반대론 : 시장개방으로 인한 산업별 발생 순이익 및 순손실 조사·분석의 기술적 문제, FTA 활용 유인저하에 따른 FTA 효과 반감, 이중과세 및 자유시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배 등 합헌성 및 법률 간 충돌문제, 한미 FTA 협정위반 문제, 수입과 수출의 연관성 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함

#### ■ 개요

- 방향 : 농업계와 산업계 간 상생협력관계 구축, 지속성 유지, 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 귀결 구조, 농업계의 자존감 회복 등
- 제도적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 필요
- 운영형태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경우와 같이 공동투자(대기업-자본, 중소기업-기술·아이디어) 유도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 재단이 기부금을 모금,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재원조달 방법 : 일본의 고향납세제와 같이 재단과 정부가 주체가 되어 특정지역이나 용도를 위해 기부, 축적된 자원을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에 재원으로 납입 등
- 운영주체 역할 : 축적된 자원 및 기부금의 용도와 사용경로, 효과에 대한 정보를 추적·수집하여 이해자와 공유할 수 있는 허브역할, 나아가 적절한 수요처를 개발하고 기부메뉴 개발 등의 사업 구성, 기부금 사용처의 불균형 완화
- 참여유도 방법 :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 출연금의 조성을 위해서는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보다 우대하는 수준의 소득 공제, 참여기업의 동반 성장지수 가점부여, 수출 컨설팅, 해외마케팅 지원 등
- 기금계획 : 매년 1,000억 원 씩 10년간 총 1조 원 기금 조성
- 주요 지원사업 : 농어촌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 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

#### ■ 제안내용

- 본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5대 부문과 10대 전략, 10개 핵심사업, 36개 단위사업, 108개 세부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는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31) 자료 : 1. 한국농업경제학회(2015),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 대한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 국회 보도자료(2015.11.30.), 추가 국내 보완대책





## 부록





## 부록1. 한중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sup>32)</sup>

### ■ 식량작물

품목	협상 결과
쌀	○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 : 양허 제외
콩	○ 식용 콩(487%, 콩나물용, 기타) : 현행관세유지 + TRQ 10,000톤 -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 양허제외 - 사료용 : 양허제외
감자 감자분	○ 칩용감자(304%), 기타 식용(304%) : 양허제외 - 칩용 : 양허제외 - 종자용 감자(304%) : 양허제외 - 냉동-건조(27%) : 양허제외 ○ 감자분(304%) : 양허제외
보리	○ 겉보리(324%), 쌀보리(299.7%) : 양허제외 - 맥아(북지 않은 것 269%) : 현행관세유지 + TRQ 5,000톤 - 맥주맥(513%) : 양허제외 - 보리 기타(299.7%) : 양허제외
옥수수	○ 팝콘용(630%), 사료용(328%) : 양허제외 - 종자용(328%) : 130%까지 감축(10년 균등) - 옥수수 기타(328%) : 양허제외
전분	○ 감자전분(455%), 옥수수전분(226%), 기타전분(800.3%) : 양허제외 - 밀전분(50.9%), 매니옥전분(455%) : 양허제외 - 고구마전분(241.2%) : 현행관세유지 + TRQ 5,000톤
기타	○ 고구마(385%, 냉동은 45%), 기타 서류(385%) : 양허제외 - 발효주정(270%) : 양허제외 - 팥 종자용(420.8%) : 양허제외 - 팥 기타(420.8%) : 현행관세유지 + TRQ 3,000톤 - 메밀(256.1%) : 양허제외 - 울무(800.3%)·기타가공곡물(800.3%) : 양허제외

32)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11.10.),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육류

품목	협상 결과
쇠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감한 8개 세번(40%) : 양허제외</li> <li>식용설육(족·꼬라허 등, 18%), 육과 식용설육(27%) : 양허제외</li> </ul>
돼지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라어깨살, 삼겹살, 기타(냉장/냉동, 22.5/25%) : 양허제외</li> <li>식용설육(18%) : 양허제외</li> <li>돼지고기 가공품(27~30%) : 양허제외</li> <li>소시지(18%) : 양허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시지 기타(30%) : 15년 철폐</li> </ul> </li> </ul>
닭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닭 다라가슴날개(냉장/냉동, 18/20%) : 양허제외</li> <li>통닭(18~20%) : 양허제외, 기타 미절단 냉장닭고기(18%) : 양허제외</li> <li>닭고기 가공품(30%) : 양허제외</li> <li>삼계탕(30%) : 양허제외</li> </ul>
계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란(41.6), 난황(27%) : 양허제외</li> <li>종란(27%) : 양허제외</li> <li>조란기타(27%) : 양허제외</li> </ul>
기타 육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리고기(18~27%) : 양허제외</li> <li>산양·면양고기(22.5%) : 양허제외</li> <li>칠면조고기(18~27%) : 20년 철폐</li> <li>녹용 전지(20%) : 양허제외</li> <li>녹용 기타(20%) : 양허제외</li> </ul>

낙농품, 꿀, 사료

품목	협상 결과
분유 연유 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지분유·전지분유(176%)·연유(89%) : 양허제외</li> <li>혼합분유(36%) : 양허제외</li> <li>조제분유(36~40%) : 양허제외</li> <li>유당(49.5%) : 양허제외</li> </ul>
치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즈(36%) : 양허제외</li> </ul>
밀크와 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밀크와 크림(36%) : 양허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함량 6% 이하 : 양허제외</li> <li>기타 지방함량 6% 초과 : 양허제외</li> <li>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 : 양허제외</li> </ul> </li> </ul>
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버터(89%) : 양허제외</li> </ul>
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용 유장(49.5%) : 양허제외</li> <li>사료용(49.5%) : 20년 철폐</li> </ul>
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연꿀, 인조꿀(243%) : 양허제외</li> <li>로알제리(8%) : 양허제외</li> <li>로알제라벌꿀조제품(8%) : 양허제외</li> </ul>
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료용 근채류(100.5%) : 양허제외</li> <li>보조사료(50.6), 배합사료(대용유, 71%) : 20년 철폐</li> <li>배합사료(양돈/양계/어류/축우유/기타 4.2~5%) : 15년 철폐</li> <li>기타사료(46.4%) : 현행관세유지 + TRQ 38,000톤</li> </ul>

## ■ 과일·과채류

품목	협상 결과
사과, 배, 단감, 수박, 딸기, 포도, 복숭아	○ 사과, 배, 단감, 수박, 딸기, 포도, 복숭아(45%) : 양허제외
감귤류	○ 감귤, 감귤류(144%) : 양허제외 ○ 맨더린(144%) : 양허제외
오렌지	○ 오렌지(50%) : 양허제외
키위	○ 키위(45%) : 양허제외
멜론	○ 멜론(45%) : 양허제외
기타 딸기 (45%)	○ 나무딸기(신선 45%, 냉동 30%) : 양허제외 ○ 초분류딸기(일시저장처리, 30%) : 양허제외 ○ 딸기(조제저장처리, 45%) : 양허제외 ○ 딸기 주스(50%) : 양허제외
토마토	○ 토마토(신선냉장, 45%) : 양허제외 ○ 토마토 주스(30%) :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30%) : 20년 철폐 ○ 토마토 케첩(8%), 토마토 소스(45%) : 20년 철폐 - 토마토 페이스트(5%) : 15년 철폐
오이, 호박	○ 오이(27%) : 양허제외 ○ 호박(27%) : 양허제외
가지	○ 가지(27%) : 양허제외

## ■ 엽근채류

품목	협상 결과
당근	○ 신선 당근(30%), 냉동(27%), 건조(30%) : 양허제외
무	○ 신선 무(30%), 건조(30%) : 양허제외 ○ 신선 순무(27%) : 양허제외
배추	○ 배추 신선, 기타(27%) : 양허제외
양배추	○ 양배추 신선(27%), 양배추 건조(30%) : 양허제외
기타	○ 연뿌리(설탕저장처리, 30%), 토란줄기(30%) : 20년 철폐 ○ 고구마줄기(30%) : 양허제외
기타채소	○ 더덕(신선 27%, 건조 30%), 건조한 도라지(8%) : 양허제외 - 도라지 신선/냉장(27%) : 20년 철폐 ○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냉동 30%, 설탕저장처리 15%) : 15년 철폐 - 스위트콘(기타/건조 370%) : 130%까지 감축(10년 균등) - 스위트콘(종자용 370%) : 양허제외
기타채소 혼합물, 균질화한 채소	○ 채소류의 혼합물(건조/냉동 27%) : 양허제외 - 채소류의 혼합물(27%) : 20년 철폐 ○ 기타채소(냉동/일시저장처리 27%, 건조 30%) : 양허제외 - 기타채소(조제저장처리 20%)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 균질화한 채소(유아용 퓨레콘, 20%) : 20년 철폐

## ■ 양념채소, 인삼, 특작

품목	협상 결과
고추	○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270%), 냉동고추(27%) : 양허제외
마늘	○ 통마늘·깐마늘·건조마늘·일시저장처리(360%) : 양허제외 ○ 냉동마늘(27%) :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30%) : 양허제외
양파	○ 신선 및 건조 양파(135%) : 양허제외 ○ 냉동 양파(27%) :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30%) : 양허제외
생강	○ 신선·건조·기타 생강(377.3%) : 양허제외 ○ 설탕저장처리(30%) : 양허제외
파	○ 건조 파(30%), 쪽파(27%) :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 쪽파(30%) : 양허제외
인삼	○ 인삼류 23개 주요품목 - 수삼(222.8%) 및 홍삼(754.3%)·백삼(222.8%) 등 뿌리삼류 : 양허제외 - 홍삼분(754.3%)·백삼분(18%) : 양허제외 - 홍삼엑스·홍삼엑스분(754.3%), 백삼엑스·백삼엑스분(20%) : 양허제외 - 홍삼타블렛(754.3%)·백삼타블렛(18%) : 양허제외 - 인삼완줄기, 인삼종자, 홍삼차(754.3%) : 양허제외 ○ 인삼차(8%) : 20년 철폐 ○ 인삼음료(8%) : 20년 철폐 - 추출한 올레오레진(백삼·기타인삼 20%, 홍삼 754.3%) : 양허제외
참깨, 참기름, 땅콩, 들깨, 들기름	○ 참깨(630%) : 현행관세유지 + TRQ (24,000톤) - 들깨(40%)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 참기름(630%), 들기름(36%) : 양허제외 ○ 땅콩(230.5%) :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63.9%)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 피넛버터(50%) : 20년 철폐

## ■ 가공식품

품목	협상 결과
김치	○ 김치(20%) : 기존 관세의 10% 이내에서 감축
설탕	○ 기타당류(8%)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대두유, 옥수수유	○ 식품용 대두유(5%) : 양허제외 - 바이오디젤용 대두유(5%) : 5년 - 대두유와 그 분획물(8%) : 10년 철폐 ○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8%) : 양허제외 - 옥수수유 기타/조유(5%) : 5년 철폐
혼합조미료 및 소스	○ 혼합조미료(45%), 기타소오스(45%) : 기존 관세의 10% 이내에서 감축
장류	○ 된장(8%), 간장(8%), 고추장(45%), 기타 장류(45%) : 양허제외 ○ 춘장(8%) : 20년 철폐
과자류, 빵류, 기타 식품류	○ 초코렛류(8%) : 5년 철폐 ○ 귀리빵, 파이와 케이크 등 빵류(8%), 건빵(8%) : 5년 철폐 ○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5%), 베이커리제품기타(8%) : 10년 철폐 ○ 커피(복지 않은 것/카페인 미제거(2%)) : 10년 철폐 ○ 라면(5%) : 5년 철폐 ○ 포도주(15%) : 10년 철폐 ○ 소주(30%) : 20년 철폐

## 부록2. 회의록

### 1. 착수보고회

#### (1) 개요

- 일시 : 2015. 02. 16.
- 장소 : 도청 영상회의실(409호)
- 참석 : 25명(자문단 13(당연직 3, FTA 전문가 2, 3농혁신위원 8), FTA추진단 10, 연구진 2)

#### (2) 토론 및 주요 의견

##### ■ 최필수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중 FTA가 양측이 방어적으로 협상, 따라서 대응방안은 협상 결과보다 한중의 현안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 필요
- 중국 제조업은 임금 상승보다 기술이 더 빨리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농업분야는 임금이 빨리 오르지만 기술이 빨리 높아지지 않아 우리나라에 유리한 측면
- 오는 2030년까지 농촌인구 4억 중 3억이 도시로 이동하는 것도 비용 측면에서 한국에 유리한 상황
- 지역 별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며 충남의 대표적 작목별로 어떤 지역이 우위인지 파악 필요
- 비관세와 검역(김치) 등에 대해서도 분석 필요

##### ■ 김돈곤(농정국장)

- 농식품부 차원의 대책도 품목별 피해 영향 분석을 하는지 궁금
- ⇨ (강동윤 서기관 답변) 연관관계와 소득상승분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특정 작목 생산의 감소액(15년)을 분석하게 됨. 4월까지의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임(농촌경제연구원)
- 금번 용역도 중앙정부의 피해분석 및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이 결과에 맞추어 우리 도 용역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 최근원(aT 충남본부장)

- 충남의 대표 품목(마늘, 생강, 고추 등)은 TRQ 설정으로 인한 피해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 없음.

- 양허가 제외된 품목이 많고 중국 농산물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내성이 생겼고 중국 시장 팽창이라는 수출에 우호적인 측면도 있음
- 중국 내 시장이 양보다 질로 바뀜. 즉 30대 이하 젊은 고소득층의 선호도 증가, 중국 온라인 시장 확대, 어린이 식품시장 유망 등의 상황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방안도 마련 필요
- ⇨ (강마야 박사 답변) 수출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분야별 전략에 고려할 계획. 정책 평가를 해야 하겠으나 수출 부문은 크지 않을 것임

#### ■ 윤일근(농협중앙회 연합사업단장)

- 근본적으로 소량 다품목의 구조하에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큰 문제, 50대 이상이 80%인 상황에서 조직과 규모화가 고민임
- 따라서 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로컬푸드로 소량 다품목으로 가고 젊은 층에 대해서는 농가 개별단위로 특화하는 투-드래프트로 전환

#### ■ 김영수(농업기술원장)

- 중앙정부에서 한중 FTA에 대해 대책을 준비하면서 충남 지역 단위로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한 시각은?
- ⇨ (강동윤 서기관 답변) ①지자체 대책은 중앙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 제공, 현장에서 와 닿는 대책이 무엇인지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②지방에서 잘 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의미. 물론 직불제와 같은 것은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임
- 한중 FTA의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음. 따라서 한미 FTA 대책을 잘 세우면 자연스럽게 한중 FTA 역시 잘 대비가 될 것임
- ⇨ (강동윤 서기관 답변) 기존의 대책에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데, 한중 FTA 대책은 이전에 대책에 비해 발농업 중심으로 돌린 것으로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 및 규모화를 하지는 것임. 즉 지역 맞춤형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임.
- 연구 결과가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함. 즉 주력 품목에 대해 한중 비교(생산성, 수급, 가격, 품질 등)가 되면 농가의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것임
- ⇨ (정무부지사) 의견을 듣고 강마야 박사가 마지막에 답변

#### ■ 김호(3농혁신위원장)

- 용역의 방향은 중앙정부에 제안, 건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농식품부에서 한중 FTA 낙관하는 것이 문제임. 농민들의 좌절감, 현장의 실태 파악이 필요함
- FTA로 인해 예상 밖에 수입되는 품목이 있어 포괄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방향이 맞음
- 관점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함. 즉 중국이 농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 지역 특성에 맞는 수출, 공급전략에서 인삼을 제외하고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움. 중점은 수출 증대가 아니고 사람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함.
- 모든 식재료에 원산지 표시가 필요함
- 충남도의 중국인 대상 판매 부문은 안해도 될 것임. 국가에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 고려.

■ 김재일(농촌지도자 충청남도연합회장)

-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보파리상의 규모가 공식 수입물량보다 많다고 하는데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박종숙(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장)

- 마트에서 팔리는 것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국산으로 둔갑할 때 더 큰 문제이며 이를 단속하여 제 값을 받도록 해야 함
- ⇨ (정무부지사) 파이공 물량에 대한 실태 및 대응, 원산지 표시제도를 통해 수입산 농산물 규제가 가능한가 살펴볼 필요

■ 이은만(한국쌀전업농충청남도연합회장)

- 발작물 위주로 지원한다는 것에 염려. 이득공유제를 확실하게 실시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

■ 김기일(임업후계자충청남도지회장)

- 기본적으로 1차 생산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있어야 하고 품목별 대안과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

■ 이두영(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장)

- 그동안 FTA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것은 농민으로 간접 피해에 대해 간과된 측면이 있음. 양허에서 제외되었다고 내세울 게 아니라 간접 피해 물품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함

■ 강동윤(농식품부 강동윤 서기관)

- 농업분야 현실이 어렵다는 것에 인식하고 있음. 피해 영향 분석 결과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기재부 등 외부에서 한중 FTA로 인한 직접 피해가 아니라 그간 수입으로 인한 누적된 효과로 보고 있어 이를 설득해 나가고 있음

- 그동안 발작물 부문에 상대적으로 덜 지원되었다는 설명으로 향후 표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 강마야(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시장 규제 부문도 고려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으로 연구
- 주력 작목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
- 미시적인 것 보다 큰 동향을 활용하겠음
- 품목 하나 하나 보다 좀 더 큰 틀에서 과제로 내는 방향으로 연구. 즉 품목群으로 나누고 일부 핵심 품목만 연구
- ⇨ (정무부지사) 품목별 전략, 특히 쌀이 중요.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차원. 추후 내부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겠음

## 2. 시군별 순회간담회

### (1) 개요

- 일시 : 2015. 06. 09.~ 06. 23.
- 장소 : 시군별 회의실
- 참석 : 충남연구원 연구진 6명, 도청 공무원 3명, 시군별 담당자 20명 이상

### (2) 주요 의견

- 한중FTA 대응현황
  - 그간 여러 차례 FTA등과 맞물려 특별히 한중FTA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 긴장감 저하
  - 농어업인 및 공무원 등 관심 저하와 관련 정보파악 미흡
  - 대부분의 시군들은 별도의 한중FTA 대응책 마련 부재한 상태, 정책방향 설정의 난감
  - 정부의 대책발표 결과와 시군에서의 현장체감도 차이 발생에 따른 불신 존재
- 시군 주력사항 및 이슈
  - 주력품목별 특구지정(금산 깻잎특구, 홍성 유기농업특구, 보령 버섯힐링특구) 품목경쟁력
  - 광역연합마케팅 및 공동마케팅 조직화 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 경주(해당품목 관계 시군)
  - 지역 내 농수산물 원료를 사용한 농식품산업 주제간 연계시스템 및 활성화 방안 고심
  - 한중FTA로 인해 원물보다 가공품 위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기반 가공산업 육성
  -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6차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 추세
- 그간 FTA관련 대책에 대한 평가
  - FTA에 대응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수립 실효성에 의문, 국가 차원의 정책차별성 부족
  - 농산물 생산비 보장, 가격안정, 농가 직접소득지원, 복지 등의 영역에 대한 정책 부족
  - 동일한 영역 내에서의 정책간 충돌과 오류 발생(예. 폐업지원제를 통해 타 작물 생산집중)
  - 수출물류비 및 포장비 지원은 최소한 수출장려를 위한 장치로서 좀 더 확대 필요
  - 수출지원정책은 국내 내수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시군차원의 대책보다는 국가정책의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함

## ■ 한중FTA 대책 수립시 반영사항

- 정책방향 설정의 변화 : 정책대상과 지원의 “선택과 집중” 차별화 정책
  - 내수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 정책, 구조조정 정책 시행
  - 복지 및 직접적인 소득지원 정책의 확대 점차 강조
  - 농업분야의 노동인력 유입 및 후계인력 육성 정책,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조
  - 생산-유통-소비 등의 영역별 명확한 정책목표의 설정과 연계
  - 도농간의 소득격차 및 농촌 내 소득격차 해소방안 마련 필요
  - 피해품목에 대해서 최저생산비 보장제도 마련
  - 피해보상금의 현실화(증액)
- 정책지원방식과 내용의 변화
  - 생산중심 보조금으로 인한 생산과잉, 가격폭락, 수익악화 등의 악순환 구조 해결
  - 보조사업 지원중심이 아닌 농가 및 소비자 인식을 위한 교육 부분의 투자 확대
  - 폐업지원 등의 농업포기 정책보다는 경쟁력 강화정책 필요
  - 생산정책과 유통정책 간 내용의 연계 확보 필요(예, 고품질농산물과 공선공출 간 연동)
  - 소모성 자재 및 시설지원 정책 지양(시설지원 확대에 대한 적절히 필요하다는 의견)
  - 다수의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사업 구상 필요
  - 고령화에 따라 신기술 수용능력이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서 생산지원 보다는 인력육성에 초점
- 시군별 특색에 맞는 농정예산 집행을 위한 재량권 및 자율성 확대방안
 

소량-다품목 생산구조, 다수 영세소농 분산 등 해결을 위한 농가조직화, 계약체계 구상

미작중심의 시군과 밭작물 중심의 시군, 시설작물 중심의 시군 간 지원내용 차등화

중국FTA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군 특색에 맞는 작목정보 제공
-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역발상의 전략구사, 중국 농식품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 중국산 농수산물 유통경로, 품목별 소비자 성향, 수출입조건, 정책동향, 위생검역조건 등
  - 한중FTA에 따른 피해와 이득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세부전략 마련 필요
  - 피해보는 품목만이 아닌 공격적으로 접근할 품목에 대한 제시 필요
  - 대중국 수출경험 부족, 특히 중국의 세부정보 파악이 미흡한 관계로 높은 장벽 해결
  - FTA 및 농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 필요
  - 수출증가를 위해서는 우리의 선호도 보다는 상대국의 선호도 맞춘 가공품 등의 개발 필요
  - 중국 내 고급시장 공략을 위해 우리나라의 안전한 농식품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책마련 필요
- 원물, 원재료에 대한 관심, 대형농식품 기업과 지역농가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기반(인프라, 소프트웨어)을 활용하는 전략 구상 필요
  - 대기업 농수산 식품산업 진출에 따른 조직화된 산지 장악력 확대에 따른 지역의 대응방안
  - 원물 생산보다 지역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품 및 기초원료 개발에 주력
  - 재배에 원료가 되는 부분에 대한 국내산 자재 사용기반 확충 필요(예, 버섯배지 등)
  - 지금까지 투자가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가공인프라 지원 필요(예, 수산물 가공)

• 국가-광역-기초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 차등화

- 국가차원 : 어족자원 보호, 불법유통(보따리상을 통한 교역) 실태파악, 원산지 표시, 불법조어단속 문제 해결, 비관세장벽 활용방법 안내 등
- 광역차원 : 기초통계 구축 철저, 수출기지화 지원, 브랜드 충돌문제 해결, 광역마케팅 등
- 지자체차원 : 로컬푸드 영역의 확장(직매장, 학교급식에서 벗어나서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변 판매장에 대한 인프라 및 지원방식 재정비), 농어촌 환경 및 경관정비
-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시 하여야 함. 기술센터, 농민들과의 면담 통한 목소리 청취 중요

〈요약〉 시군별 주력품목과 주요정책 및 이슈 요약(농업부문)

시군	주력품목	주요 정책 및 이슈
천안시	배, 오이, 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농약폐지로 인해 GAP인증 정책홍보 주력</li> <li>- 친환경5개년육성계획 수립 중</li> <li>- 배 등 수출사업 경험, 학교급식 문제</li> </ul>
공주시	밤, 오이, 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연구소 설립, 1읍면 1특화작목 육성</li> <li>- 농협 및 법인 양분화된 유통지원체계 구축 중</li> </ul>
보령시	방울토마토, 양송이버섯, 취나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섯힐링특구 지정, 고구마향토산업육성 준비</li> <li>- 친환경임산물유통센터 운영</li> <li>- 국내산 배지공급기반시설 구축 중</li> </ul>
	꽃게, 멸치, 바지락, 전복, 조미김, 주꾸미, 키조개, 해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천항 구역을 활용한 수산가공 기반 구축</li> </ul>
아산시	쌀, 배, 한우, 양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 농촌일자리, 6차산업, 도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과 농업부분간 연계 고민</li> </ul>
서산시	생강, 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산항 여객선취항('16)에 따른 지역연계방안</li> </ul>
	굴, 넙치, 바지락, 조피볼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따리상 난립에 따른 제재문제 고심</li> <li>- 양념채소류에서 과채류 등으로 작목전환 유도</li> </ul>
논산시	딸기, 배, 수박, 방울토마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중(농협 및 법인 중심)</li> <li>- 배 수출지원 경험</li> </ul>
계룡시	딸기, 상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으로하기에 규모의 경제달성에 많은 한계</li> <li>- 포스푸(식품기업)와 지역산 원물사용시 일부 지원</li> </ul>
당진시	쌀, 감자, 파리고추, 사과, 한우 근채류(감자, 고구마, 당근), 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농혁신 적극 도입</li> <li>-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제정 및 기금마련</li> <li>- 안전한 먹거리 및 고품질농산물 정책</li> <li>- 발전소 온배수 이용한 원예단지 조성</li> </ul>
	굴, 넙치, 바지락, 조피볼락	
금산군	깻잎, 약초, 인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깻잎특구 지정으로 활성화 기대</li> <li>- 인삼가공 제품 수출지원 정책 적극 전개</li> </ul>
부여군	밤, 수박, 양송이버섯, 토마토, 표고버섯/밤가공식품, 홍삼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력품목 다수 포진한 관계로 유지정책 주력</li> <li>- 밤 및 인삼가공 제품 기반 조성, 수출접근</li> </ul>
서천군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서래야쌀 집중육성, 지역순환경제 구축</li> </ul>
	김, 주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미김 시장선점을 위한 가공기반, 고급화전략</li> </ul>
청양군	고추, 구기자, 밤, 표고버섯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밤 및 표고버섯 단지, 수출전용 생산기반 구축</li> <li>- 농가통계 전수조사 실시하여 1차 DB구축</li> </ul>
홍성군	산양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업특구 지정 등 친환경농업육성 주력</li> <li>- 생산구조 양분화(수도작과 축산)의 해결</li> </ul>
	바지락, 조미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급식 영역으로 점진적 추진</li> <li>- 광천김 경쟁가열화로 인한 가공업체 지원고민</li> </ul>
예산군	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빨간사과 품종재배 적극 장려 중</li> <li>- 태릉선수촌 납품지원을 위한 접근전략 구사</li> </ul>
태안군	고추, 마늘, 화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수출 타격으로 화훼산업 위기 봉착</li> <li>- 대체작목 육성에 주력중(호박고구마)</li> </ul>
	바지락, 해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판장 인증제 도입</li> </ul>

〈요약2〉 시군별 주력품목과 주요정책 및 이슈 요약(어업 부문)

시군	주력품목	주요 정책 및 이슈
보령시	꽃게, 멸치, 바지락, 전복, 조미김, 주꾸미, 키조개, 해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수입량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li> <li>- 해삼의 경우 중국내 소비가 위축되면서 한국산 해삼소비 감소 추세</li> <li>- 고부가가치인 건해삼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기술지원 필요</li> <li>- 김공장 포화상태이기에 다른 상품라인으로 전환 중</li> <li>- 보령은 원초김 생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li> <li>- 주꾸미는 중국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고 국내산과 혼합되면서 중간상인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li> <li>- 대천항 구역을 활용한 수산가공 기반 구축</li> </ul>
서산시	굴, 넙치, 바지락, 조피볼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용 판매만으로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개방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음</li> <li>- 대산항 여객선취항('16)에 따른 지역연계방안</li> <li>- LA 등 교민사회 위주의 젓갈류 시장 형성</li> <li>- 오히려 중국시장에 이미 진입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공략 힘들 것으로 예상</li> <li>- 2009-2011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시행하여 2개 수산가공사업체 현대화시설 지원하나 지역산 수산물 사용비중은 높지 않은 편</li> </ul>
당진시	굴, 넙치, 바지락, 조피볼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을 중심으로 한 FTA에 대한 자체 대응책 수립경험</li> <li>- 3농혁신 적극 도입</li> <li>-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제정 및 기금마련</li> <li>- 안전한 먹거리 및 고품질농산물 정책</li> <li>- 발전소 온배수 이용한 원예단지 조성</li> </ul>
서천군	김, 주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조업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문제 우려</li> <li>- 북한산 패류가 중국을 거쳐 오는 문제로 품질 면에서 우려</li> <li>- 품질 좋은 김에 대한 수출활성화, 가공지원 방안 필요</li> <li>- 영세한 김 소규모업체에 대한 지원 필요</li> <li>- 조미김 시장선점을 위한 가공기반, 고급화전략</li> </ul>
홍성군	바지락, 조미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지락의 경우 판매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족자원 부족으로 중국산/북한산 증가, 기후 여건과 맞지 않아 폐사율 높음</li> <li>- 최근 썩 문제로 인해 바지락 서식에 많은 문제 발생</li> <li>- 광천김 경쟁가열화로 인한 가공업체 지원고민(김 생산량 중 95%이상 수출)</li> <li>- 김의 경우 다양한 김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바지락의 경우 이미 중국에서 많이 생산 되는 관계로 다른 어종 수출 필요</li> </ul>
태안군	바지락, 해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은 내수소비 물량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수입개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내수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염려됨</li> <li>- 자원남획으로 인한 자원고갈이 우려스러움</li> <li>- 수산물 유통은 수협에서 담당하는 부분 미흡</li> <li>- 해삼의 경우 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어가의 어려움 많음</li> <li>- 수산업의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 도입 필요</li> </ul>

### 3. 대응추진단 회의 및 분야별 워크숍

#### 3-1. 농림업분야 워크숍

##### (1) 개요

- 일시 : 2015. 6. 30(화) 10:00~12:00
- 장소 : 충남도청 소회의실 304호
- 참석 : 18명(충남연구원 연구진 4명, 정무부지사 외 도청 공무원 10명, 담당자 2명, 전문가 2명)

##### (2) 주요 의견

- 허승욱(충청남도 정무부지사)
  - 중국 내 3농정책의 비중이 높고 중요한 정책임에 틀림없음. 다양한 의제들 중 식량안보 등 충남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이 많음
  - 중국 내에서도 지역, 품목 간 가격편차가 심하고 시장동향 조사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도출함
  - 10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자연수입증가분에 초점을 두고 대응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을 하여야 할 것임
  - 전국농무센터 연합회는 어떤 조직인가?
  - 중국농산물 유통 연합회의 성격임. 협회가 민간조직처럼 되어있지만 유통분야에서는 권위적인 분야임. 상무부 산하기관 조직 성격임. 농산물 도매 및 소매시장, 관련기업이 회원으로 있음(약 700여개 단체)
  - 기재부 피해보전 예산은 FTA기금인가?
  - 기금예산이 아닌 FTA 피해보전대책 예산임
- 리금(전국도시농업무역센터 연합회 전문요원)
  - 그간 한국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방안을 연구해 왔음. 그간의 초점은 몇 톤이 나가고, 얼마의 수출을 했다는 통계수치에 포커스를 맞춰왔음. 앞으로는 통계수치에 맞출 것이 아닌 한국 농식품이 중국에 수출되어서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중국 내 유통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이 대응방안이 될 것임



- 한류열풍으로 한국 농식품의 인기는 높지만 정작 유통되는 곳이 많지 않아 구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단적인 통계수치 증가보다는 중국 내 한국 농식품의 유통 구조개선에 지원을 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안 임
- FTA는 농산물 수출입 문제가 관건임. 중국 내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 좋은 물건에 대한 수입이 많음. 수출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 한석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 한중FTA의 피해액은 적게나왔지만 발작물의 피해비중은 높음. 풍선효과로 인해서 발작물의 피해가 다른 작물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발작물 위주의 정책이 필요함
- 수출의 경우 원산지증명에 집중하여야 함. 우리가 이전 FTA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그간 원산지 특혜를 받는 비중은 24%가량밖에 되지 않음. 이에 관세특혜를 받지 못하고 FTA 이전과 같은 관세를 부여받고 있음
- FTA 대책은 그간 해오면서 홍수처럼 많이 나왔음. 너무 많은 대책은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음.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FTA대책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의 대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대응책이 나와야 할 것임

#### ■ 김종화(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합작사는 기업농형태이고 산동성에 많이 몰려있음. 산동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량이 많을 예정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합작사는 대표적 몇 개의 회사를 제외하고 원활히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음. 이보다 더 우려하여야 할 것은 수출재배기지등록을 한 농기업임. 수출재배기지에 합작사가 참여할 수 있음
- 비공식루트로 들어오는 물량을 더해서 피해액을 더 많이 잡아야 하지 않는가?
- 산동성 항구에 품목당 5kg단위로 포장을 해주고 있음. 최근에는 많이 없어지고 있음
- 비공식루트로 들어오는 물량은 통계수치로 잡기 힘들
- 가벼우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건고추, 참깨 등)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반입량 또한 낮아지고 있음. 또한 중국 내 농산물 자체가 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님

####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언론에서는 자연적 수입물량증가에 대한 내용은 홍보되지 않고 있고 국민이 잘 모르고 있음
- 축산 가공품에 대한 피해액이 거의 없다고 나온 부분이 의심스러움

[사진 자료]



## 3-2. 수산분야 워크숍

### (1) 개요

- 일시 : 2015. 7. 30(목) 14:00~16:00
- 장소 : 충남도청 소회의실 302호
- 참석 : 21명(충남연구원 연구진 6명, 도청 공무원 3명, 담당자 2명, 시군 수산분야 담당자 8명, 전문가 2명)

### (2) 주요 의견

#### ■ 박병규(충청남도 농산물유통과)

- 품목별 피해액은 나와 있지만 서해, 남해, 동해 등의 피해 계측은 없음. 구역별로 피해액 계측이 가능한가?
  - ▶ 계측은 가능하지만 발표는 하지 않음
- 충남의 피해업종, 피해품목 자료요청 시 협조 가능한가?
  - ▶ 국회비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발표가 어려움
- 한중 FTA 대응방안 용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어민들과 접촉하여 어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 필요함
- 중앙정부 시책을 따라하는 정책 보다 충남에서 정책을 개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어야 함

#### ■ 김중환(충청남도 해양정책과)

-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피해가 없다고 발표나 다름없음. 정부의 발표전에 어민과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고 생각됨
- 농업은 적극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 했는데 수산업은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됨
- 농업보다 상대적으로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충남도에서 어민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임
- 정부에 제출한 대책은 1년에 약 3백억 원 가량임.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의 대책으로 다소 아쉬움이 있음. 또한 이는 직접적으로 어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충남도 대책수립 또한 어업인이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문승국(한국수산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 해양수산부 대응대책을 본다면 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의문임
- 어떤 품목이 피해를 보는지 정확히 공개해줘야 농어업인이 발빠르게 대처하지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음
- 어업은 통계자료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어려움
- 냉동품이 들어오면 활어부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냉동부문 뿐만이 아닌 활어부문의 간접적 피해도 계측이 필요함
- 바지락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임. 또한 어업인의 생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품목임
- 충남에서 유일하게 경쟁력 있는 부분은 해삼과 해조류임. 이 두 품목부류에 대한 연구 필요함
- 중국에서 해삼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충남의 자연산 해삼임. 양식해삼은 중국에서도 이미 많이 생산되고 있음
- 수산업은 생산분야에 많은 투자를 함. 어촌복지, 지역개발 등 제도적 맹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지자체에서 농어업 관련 조례를 보면 어업은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제도, 규정마련이 먼저 필요한 상황임

■ 김양중(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체생산액의 0.1% 감축은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정부의 입장이 궁극함
  - ▶ 정부의 피해액 재산정 등 계획은 없음. 104억 원도 많은 협의과정을 거쳐서 줄어든 것임
  - ▶ 피해액 평가결과 자체가 예산과 연결되게 되어있음. 정부 내부적으로 협상한 결과임

■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대책 마련에 있어 농업분야 대책을 강화하느라 수산분야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 농업에 비해 피해액이 더 나왔기 때문에 대책사업 또한 많이 있음
- 농업쪽 피해보다 수산쪽 피해가 더 많이 나옴. FTA로 인한 직접 피해는 별로 없기 때문에 농업처럼 자연수입증가분에 대한 피해를 강조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 수산업은 분석하지 않았지만 향후 검토 후 반영할 계획
- 산동성 지역에서 가장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석도항 임. 평택, 군산에서 취항을 하고 있는데 불법어획물들이 대부분 석도항 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음
- 중국 해삼 서식지역이 유전개발로 인해 양식이 어려운 상황. 충남의 앞바다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중국해삼기술을 유치하여야 할 것임

■ 김종화(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충남지역은 어류보다는 패류의 영향이 클 것이고 김, 해삼, 전복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충남만이 갖고 있는 어종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 김, 해삼에 대한 전략적 수출방안 마련 필요
- FTA 체결의 영향과는 반대로 향후 수입증가로 인한 생산액 자연감소분의 계측 필요함

#### ■ 이관률(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냉동수산물과 활어의 대체성이 어느 정도인가?
  - ▶ 중국산과 국산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불완전 대체를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함
  - ▶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하여 우리나라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대책임
- 냉동과 활어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통구조 지원대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 강마야(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농산분야에서는 연간 77억 피해가 나타남. 수산은 연간 104억 원을 예상하였는데, 어가의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한 간접적 피해범위 궁금함
  - ▶ 어가의 간접피해부문은 고려하지 못함. 어가단위통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향후 고려해 보아야 할 상황임
  - ▶ FTA 효과만으로 본다면 충남의 피해는 적다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존의 사례로 보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응책 마련 필요함
- 소득규모별로 어떤 계층이 가장 피해가 큰 구간인지 궁금함

#### ■ 홍영신(충청남도 수산과)

- 현재 기르는 어업쪽으로 가는 추세인데 어가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음
  - ▶ 어업인구가 줄어드는 것 또한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촌계 진입이 가장 어려움. 어촌계의 폐쇄성을 깨지 않는다면 귀어귀촌을 늘릴 방법이 없음
- 충남에서 4대명품 중 하나가 해삼임. 해삼은 양식기술이 오히려 중국보다 못함. 과연 중국을 이길 수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의문이고 경쟁력 부문에서 가장 큰 숙제임
  - ▶ 해삼은 국내에서 인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양식기술이 없는 것은 현실임. 그렇지만 양식에 있어 자연환경은 매우 뛰어난 상황이기에 양식기술 발달은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정임

#### ■ 태안군 해양수산과

- 해삼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 경로가 미비한 상황임
- 해삼 전략수출사업을 시범사업 수준으로 해왔지만 완성단계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연차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 보령시 수산과



## 4. 중간보고회

### (1) 개요

- 때 · 곳 : ' 15.8.26(水) 14:00~16:00 / 소회의실(602호)
- 참 석 자 : 26명(주재 : 정무부지사, 도 10, 도의원 1, 학계·전문가 3, 농어업인 단체 5, 유관기관 2, 연구진 5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강마야 박사 등))
- 흐 름 :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2) 토론 및 의견수렴

- 김용필 의원(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2011년 도의회에서 한중FTA 전략연구회를 구성,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 쌀, 축산물 등은 양허제외 되었으나 중국에 가공하여 수입될 경우 안전하지 않음. 충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집중 연구 필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뿐 아니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국농민회 연구소(너름) 등과 함께 연구하여 통계 현실화
  - 중국 저가의 물고추가 유입되어 국내에서 건조 후 유통되고 있음
  -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를 통해 기금 조성하여 지원, 재원 부족한 상황  
⇨ (정무부지사)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 반영, 데이터 문제는 숙제임
- 박준기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
  - 중국의 데이터를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한중FTA에서 대부분 양허 제외로 피해는 작으나 관세체계의 문제로 20년 동안 10조원 넘는 피해 발생
    - 기존의 피해를 최소화 또는 극복하는 방안을 체계화 및 구체화 필요
  - 좋은 아이디어는 많으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 대부분 중앙 매칭사업에 투입. 현황에서 충남의 농업예산 분석이 필요
  - 한중FTA는 발농업에 집중.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단순정비에 그치고 있는 상황. 충남의 기계 화율 분석 및 꼭 필요한 대규모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언 필요
  -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구분이 필요.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 필요
  - 중앙정부에 건의, 도 추진, 농어민에 요구할 사안으로 구분
  - 직불제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
    - 직불금 등 대규모 경직적 예산 지출보다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방정부에서 특화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위기, 어려움과 함께 미래 가능성. 농업부문이 비농업부문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논리 개발
  - 농업 부문이 많은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이것이 농업이라는 사업 발굴
  - 조직화, 인력육성유치 등 충남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구체화
- 현재의 자원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창의적 인력을 육성할 것인가가 중요
  - ⇒ (정무부지사) 중앙, 도에서 가능한 정책대안 수립

#### ■ 장명진 의장(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 농업과 농촌의 분리에 회의적. 기존 FTA에서 피해는 농업이었음. 이로 인해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임
  - 손해만큼 보상(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농산물을 제값 받아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함
- 연구에서 제시된 피해 예상치보다 훨씬 피해가 클 것임
  - 중국이 향후 식량 수입국으로 전환되면 생산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고 농촌공동체가 무너질 것임. 이런 차원에서 농촌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도록 대리 농부(귀향, 귀농) 공간 확보 정책 필요
- ⇒ (정무부지사)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규모 계측은 의미가 없음. 이런 전제에서 각 정책을 중앙에 역제안, 도의 역할에 집중

#### ■ 정진호 박사(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

- 수산분야는 잘 피해갔다고 할 정도로 대부분 초민감품목에 선정
  - 대규모 양식장은 피해가 작지만 소규모 연안어업(다품종 소량생산, 활어)은 대체성이 높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연구에서 면적보다 어업인, 생산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
- 지자체의 대책은 중앙정부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매칭사업을 제시
- 여기서는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수산업은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의 산업적 분류가 가능하므로 이를 대책에서도 고려

#### ■ 문승국 회장(한국수산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 농업에 비해 조작·예산이 부족(11:1) → 보조사업 전달자 역할에 불과
  - 조작예산의 재점검 및 이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 수출 가능성이 높은 해삼, 김 등의 산업화 방안 제시

#### ■ 윤일근 단장(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연합사업단장)

- 농가 고령화, 소규모 영농을 어떻게 규모화할 것인가가 고민
  - 산지조직화, 공선출하 육성사업, 광역품목 등 도와 사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포함



- 중국은 장기적으로(소득수준 향상) 우리 농산물을 수입할 것으로 예측. 우리 입장에서 수출에 대비해 GAP 인증면적 확대하는 방안 마련

#### ■ 윤승식 부장(aT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 영향분석 피해액 산출시 생산면적보다 생산물 기준으로 연구가 필요
- 관세 인하로 인한 직접적 영향(수출입 물량 급격한 변화) 보다 수입선 대체효과 고려 필요
- 피해 배제 품목에 대해서도 연관산업에 대한 우회피해 및 대책 고려
- 포괄적인 대책보다 충남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 제시
  - 어떤 산업, 품목 육성이 필요한 것인지 제시
- 일본은 6차산업으로 성공. 지역에 맞는 6차산업 성장방안 제시

#### ■ 기타

- (박종숙 회장) 대를 이을 수 있는 농촌인력 키워낼 수 있는 방안 제시
- (이은만 회장) 농업의 근간인 쌀 분야의 수출방안 등 제시
- (김태훈 회장) 설문 인원 수(350명)가 부족. 설문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었으면 함
  - (정무부지사) 쌀 산업이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음. 다만 한중 FTA 연구로서 빠진 것이지만 공세적으로 수출방안 등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 추욱(충청남도 농산물유통과장)

- 3농혁신 1단계는 중소고령농 중심으로 추진. 이 과정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2단계는 시장정책(전업농)을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일반적인 정책은 이미 제시되어 있음. 따라서 이에 더하여 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과 중앙 정부에 건의해야 할 사안 보완 필요

#### ■ 정원춘(충청남도 농정국장)

- 도 전체 실령은 1800억 원, 이 중 농정국은 400억 원 정도 투자되고 있음
  - 상당수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임. 새로운 사업 추진 위해서는 일몰하거나 축소해야 함. 이것 이 애로사항임
  - 정부 건의해야 할 일, 자체 해야할 일, 농민이 해야할 일 등을 구분하면 좋은 결과물이 될 것

#### ■ 허승욱(충청남도 정무부지사)

- 착수보고에서 15개 사군의 수요 조사를 위해 순회 간담과 설문 실시
  - 한중FTA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농수산업,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생활소득 문제로 제안

- 그러나 오늘 보고회에서는 각 주체별로 해야할 역할, 조직화와 소득, 농업농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방향 요구
- 3농혁신의 정책을 패키지화하여 시군에 제안하고 도와 시군의 매칭 등을 담아서 시군이 참고할 수 있는 결과 제시 필요

■ 강마야 박사(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사군 순회에서 FTA에 대해 무더진 감각이 오히려 문제라는 생각
- 최종보고에서는 사군별, 품목별 정책 대안을 더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의 역할 구분에 대해 보완해 나가겠음
- 수산분야는 자료 확보에 애로가 있으나 균형적인 내용을 담겠음
- 6월부터 본격 시작하여 내용 보완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임

## 5. 전문가 워크숍

### (1) 개요

- 일시 : 2015. 9. 22(화) 15:00~19:00
- 장소 : 전북 전주시 '공간 봄'
- 참석 : 21명(충남연구원 강마야, 박경철, 김종화, 여민수, 충남도청 한보현, 전북대학교 양병우, 녀름 장경호, 전북발전연구원 이민수, 이정희, 대구경북연구원 채종현, 광주전남연구원 김준)

### (2) 주요 의견

- 대응방안에 대한 평가 및 제안
  - 이민수(전북발전연구원)
    - 전라북도 역시 충남과 마찬가지로 농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 농가가 많이 있고, 향후 농촌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기존 FTA에서 경쟁력 강화부분에 많은 부분을 투자한 것을 지양하고 기본소득제 등 많은 사업을 제시하였지만 실행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 농가들에게만 기본소득을 주는 정당성 마련 필요함.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전략(사업)으로 도출하기엔 현실성이 떨어짐
    - 충청남도 예산을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 검토가 필요함. 유럽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임
    - 농업직불제는 예산 자체도 많지 않고 농가당 수령액 또한 매우 낮음. 또한 기본소득제는 예산문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예산만이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일 듯함
      - ▶ 아일랜드의 사례를 바탕으로 충남농촌사회안전망 강화 부문에 사업을 간단하게나마 담음. 추후 세부사항 보강할 예정임
    - 전북은 한미, 한EU FTA대응대책을 수립하면서 전북도 차원에서 TF팀을 운영한 경험이 있음. 대응책 수립은 기존의 농업부문 예산을 활용하여 FTA대응책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었음
    - 당시 가장 피해가 가장 많은 품목이 축산이기 때문에 축산보조금을 약간 늘리는 정책을 수립함
    -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가장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축산을 억제하지 못한 것임. 환경문제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임. FTA 대응방안 역시 전략작물을 육성하는 등 한 가지 품목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한다면 당장은 소득증대에 도움이 많겠지만 향후 지역에 리스크가 될 수 있음
    - 이에 연장선으로 정부의 주 농업정책인 주산지 육성정책 등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전라북도의 농촌개발정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자원복합화사업 등 2개임. 이 사업을 잘 설계해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함

- 농촌개발을 하고 이 사업의 효과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기간 중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지도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임. 이에 맞추어 농촌개발사업 중 일자리창출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 중 한가지 임

• 장경호(년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 FTA 대응방안이라 하면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두에서 세울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사업과 지방정부의 사업이 매칭이 되지 않으면 실행에 어려움이 있음.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남도 차원에서 따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가야 함
-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야 함
- 포괄보조금 영역을 넓혀서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은 사업 위주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생산, 유통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인 생산자 조직이 부족한 것이 선진국 농업과 가장 큰 특징임
-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품목이 구조조정이 되고 결과적으로 농민또한 구조조정 되게 됨. 이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전국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전국단위 품목별조직 설립 필요함. 농협중앙회에서 하여야 하는 일이지만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 ▶ 우리나라의 경우 복합농이 많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됨
  - ▶ 주산지 및 주력품목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주력품목의 생산이 안정된다면 다른 품목 또한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될 것임
- 사회적 경제와 로컬푸드의 개념이 혼재되어 혼란스러운 경향이 있음. 따로 분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충남도 혹은 시군이 인증하는 자체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만드는 제도가 필요함. 인증 없이 단순히 이야기 하다보면 지역브랜드, 지리적표시제 등과 혼란이 생길 수 있음. 정책의 포커스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 ▶ 로컬푸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
- 전업화와 대규모화된 소수의 농가와 그렇지 않은 다수의 농가를 분리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직불금은 면적단위로 지급되고 있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적 상한제도를 시행하거나, 직불금을 반으로 줄이고 남은 금액을 농가에게 나누어주는 제도 등의 방법을 시행하여야 함
- 직불제 상한제도에도 상위구간, 하위구간을 구분하여 서로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 방법 또한 고려하여야 할 부분임. 이렇게 된다면 대농이 더 유리해지는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임
- 중앙정부의 실패를 충남도에서 떠안을 우려가 발생하기에 중앙정부는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면 충남도에서는 예산의 확보, 사업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지역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 중앙이 접근하여야 할 정책과 지역이 접근하여야 할 정책을 고민하여 과업을 진행하겠음
- FTA 협상은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와 체결했다고 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나라와 체결함.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더 이상 나올 정책은 적음
-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많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품목임.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 철폐율이 높아지면서 한중FTA와 다른 나라와의 FTA의 효과가 겹쳐서 피해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이에 개별 FTA에 대한 피해대책이 아닌 중복적이고 복합적인 FTA의 피해영향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 한중FTA만으로 피해가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함

• 김종화(충남연구원)

- 품목의 조직화는 동의함. 품목의 조직화가 이루어진다면 농업인의 힘이 강해지지만 해외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주산지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조직화는 어려운 과제임
- 충남의 경우 조직화와 비슷하게 산지조직 및 통합마케팅조직을 육성하고 있음
- 국가가 해야 할 일과 지역이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에 역제안 할 과업 발굴 역시 중요함

• 채종현(대구경북연구원)

- 조직화의 범위, 기능 등을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음. 생산량 조정의 경우 품목이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있는 경우 힘들 수 있음. 일부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강한 조직을 구성하여 기능, 범위,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로컬푸드 정책 등 유통망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함. 로컬푸드 인증제는 생산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 면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 인증제도는 제도화된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성 부분에서 한계가 존재하지만 로컬푸드가 다른 영역과 혼재되거나 외부의 충격을 보호해주는 장치로서 인증제가 필요함
- 새로운 대응방안을 수립한다는 것이 모순일 수 있음. 기존의 농업농촌 정책과 사업이 FTA를 고려하여 세운 정책이기에 따로 간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이유는 1. 피해액을 기준으로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2. 피해가 나는 부문에 피해액만큼 투자하는 것임. 기존의 대책 역시 이러한 방식을 택함
- 한중FTA 자체만보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시행한 시장개방을 바탕으로 하나의 변화방향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 지역관점이 아닌 중앙정부 관점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대안이라고 판단
- 시장개방이 거의 완료되고 기존에 대책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경쟁력 강화부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맞지 않음
- 기본소득, 직불제 등 농가에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선 일반 국민의 설득을 얻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명분, 논리개발이 필요함
- 경상북도는 마을영농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행정상의 이유로 마을주민에게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실정임. 대안으로 나온 일자리 창출방안이 행정상의 이유로 어려워 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됨
  - ▶ 중앙부처에서는 포괄적으로 시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싶지만 근거 및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포괄보조 형태는 많은 양의 예산할당이 어려움
- 포괄보조금 사업을 시작할 땐 지역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 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업이 꼬리표가 붙는 공모사업 형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많음

• 김 준(광주전남연구원)

- 민선 5기 전라남도에선 많은 예산을 통해 테마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음. 그러나 투자에 비해 모델이 될 만한 사례가 나오지 않음. 이에 섬의 생태, 문화, 주민주도를 기본바탕으로 테마섬 개발사업이 아닌 섬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궁극적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소득사업까지 가는 스펙트럼을 구성함
- 수산업, 어업, 어촌이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현재 정책은 따로 떨어져 가고 있음

- 충남의 대응방안은 진보적이고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다른 대응방안을 만들었지만 문제는 광역권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것임. 별도의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문화, 일자리창출, 관광, 예술, 교육 등과 결합되어 수렴되어야 할 것임
  - 4대수산물(해삼, 김, 바지락, 참굴) 중 해삼, 바지락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됨. 김은 원초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쟁력 부문에서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기에 품종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수산물마다 지역을 적어놨음(해삼, 전북-태안 등). 하지만 좀 더 세분화하여(해삼-가의도, 신진도 등)구분하였으면 좋겠음
  - 어촌에 수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 임산물과 결합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마을어장을 살리는 것만큼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함. 다른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어장의 관리, 회복에 대한 중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함
  - 어업인 스스로 우체국택배 등을 이용해서 수산물을 유통하고 있음. 유통에 대한 지원은 어업인 스스로 하고 있는 이러한 경로 등을 지원하였으면 좋겠음
  - 어촌과 수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어촌과 도시, 섬과 도시간의 연결고리가 필요함. 이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교통망 등이 필요함
  - 충남은 바닷가, 해수욕장, 수산물 등 관광여건이 훌륭하기 때문에 교통망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양병우(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지방정부 차원에서 FTA 대응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의문. 지방과 중앙의 차이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
    - ▶ 지방차원의 대책과 중앙의 대책을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는 상황임. 그러나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중
    - 좋은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마련이 필요함. 재정이 먼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계획은 허공에 뜬 상태가 되기 마련이기에 충청남도의 재정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자원마련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원을 끌어오는 방법과 자체자원마련 방법이 있음. 중앙정부의 재원을 끌어오기 위해선 합당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함
    - 대부분의 FTA대책은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직불제 등임. 지역별로 FTA가 발효되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좋은 방법임
    -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 즉 농산물 가격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어려운 상황. 전북의 경우 약정수매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WTO규정에 의거 지원이 힘듦. WTO규정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은 연구자의 몫임
      - ▶ 약정수매제는 전라도에서 진전이 있음. 1년에 2~3개 품목에 대하여 100억 원 가량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함
      - ▶ 충청남도 역시 T/F팀을 구성하여 준비 중
    - 대부분의 정부정책은 생산기반, 시설투자이기에 농어업인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재정부문에 있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 적제적소에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FTA 대응에 대한 올바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예산의 적절한 재배치가 필요함
    -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을 문제 삼기보단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아이템 발굴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대표적으로 완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등)

- 박경철(충남연구원)

- 어느 사업이든 사업 속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음. 예를 들어 마을 사무장 제도 역시 인건비가 지급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인건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됨. 이렇듯 하드웨어만 만들고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향후 큰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한 고민

- 장경호(너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 중앙정부에서 하는 경쟁력 강화대책은 충남에서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고 대신 지자체에서 소외된 사업들에 대한 중앙정부에 요구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장에서 경쟁은 불가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조건임. 다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방식이 지금처럼 자원과 예산을 갖고 한쪽에 몰아줘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쟁력 강화방식은 오래가지 못하고 자생력을 잃게 됨
-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하지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은 있음. 예를 들어 소득에 대한 안전망, 가격에 대한 위험회피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양병우(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피해를 보니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 경쟁력 강화임. 한중FTA 대응책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TA가 발효되면 우리 농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함

- 김 준(광주전남연구원)

- 전남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테마섬 개발을 하여 많은 사업 발굴을 하였지만 방향이 많이 바뀌어 사업제시 없이 방향성만 제시하여 계획을 다시 수립한 경험이 있음
- 시행 2년 후 주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해도와 역량이 많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남

- 이민수(전북발전연구원)

- 경쟁력강화엔 이미 많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정책들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많지 않고, 경쟁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면 직불금을 주는 정책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 채종현(대구경북연구원)

- 현재까지 경쟁력강화가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있음
- 시장의 경쟁구조가 단일국과 경쟁하면 되는 구조였지만 현재는 많은 시장개방을 통해서 많은 나라와 경쟁하게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만을 이야기 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경쟁력 강화대책 자체가 지원을 하더라도 나아지지 않는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됨. 이런 대책을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정책개발 필요함

- 박경철(충남연구원)

- 농촌에 사람이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생각됨. 이에 농촌에 인구를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게 하는 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함

[사진 자료]





## 6. 분야별 농림어업인과 현장간담회

### 6-1. 현장간담회 (농업분야)

#### (1) 개요

- 일시 : 2015.10. 20(화) 09:00~11:00
- 장소 : 보령시청 2층 상황실
- 참석 : 11명(충남연구원 강마야, 박경철, 김종화, 여민수, 충남도청 한보현, 농업인 금창영, 송용수, 정연순, 김삼현, 오연옥, 홍성군청 이선진)

#### (2) 주요 의견

##### ■ 대응방안에 대한 평가 및 제안

##### • 이선진

- 대응방안이 농민들에게 와 닿을 것 같지 않음

##### • 금창영

- 한미FTA와 분위기가 달라진 점은 농민들이 포기한 사람이 많이 늘어남
- 큰 수치는 나와 있지만 중소농에 대한 작목에 대한 통계치가 없음. 중소농이 얼마만큼 타격을 입는지 연차별로 피해는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필요함
- 규모별 혹은 작목별로 피해계측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피해액은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실감이 오지 않음
- 최근 진흥청에서 나온 대책 중 하나인 밭농사 기계화, 농업의 스마트화 등은 고령농이 많은 농촌 현실과는 동떨어진 대책임
- 농업의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농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임. 이러한 논리의 대책은 지양하여야 함. 이런 논리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대응방안이 도출되다보니 현장에서는 더욱 현실감이 없다고 느낌
- 전업농, 법인경영체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없다면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에 불과할 것임
- 사회안전망, 농어민 권익보호 등 대책은 타 연구와 중복된 것으로 판단
- 지역별 전략품목, 고품질, 명품농산물 등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단어는 지양하여야 함. 기본적으로 농민들은 본인의 농산물이 고품질이고 명품이 아닌 농민은 없음. 현장에서는 의미가 없음
- 마을단위 공동농장, 공동출하 등은 정서상 충남과는 맞지 않음
- 진정한 한식사업의 세계화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관광코스과 연계하여 한식을 먹는 것이 세계화라고 판단됨. 진출의 의미보다 방문의 의미로 생각하여야 함
- 가장 빠른 시일에 가장 많은 피해가 나올 품목, 품종을 판단해 주는 것 필요함. 현장의 농민에게 실감이 갈 수 있는 분석 필요함

-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농민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받는 예산을 따져보면 거의 없음. 지원은 대부분 법인 등이 가져가면서 개별농가에는 많은 지원이 없었음
-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중소농 육성, 진정한 의미의 로컬푸드 등을 활성화 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의미가 없음
- 송용수
  - FTA 대응에 대한 지원 기준이 기존 작목반 위주 지원에서 법인경영체 지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소규모 농가는 지원받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소농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
  - 정부가 바뀌면서 농촌정책의 중심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음. 일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
- 정연순
  -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FTA에 대한 지원으로 구목을 모두 품종갱신을 하였음. 그 과정에서 정부의 50% 보조가 있었는데, 이를 현금이 아닌 자재비로 지원을 함. 기존 농가에 있는 자재가 있음에도 또 자재를 사야하는 낭비가 발생하고, 정부의 보조가 들어간다면 상인들이 자재비를 올려서 상인만 돈을 더 버는 구조가 만들어짐.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함
  - 농업보조 중 많은 비중이 6차산업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1차산업이 없다면 6차산업 역시 없는 것이기 때문에 1차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
- 김삼현
  - FTA 대응하여 수출이 아닌 내수 위주의 정책으로 가야 함
  - 생산비 절감하는 농업 실현하여야 함(김삼현 농가의 경우 저비용 자가 태양초 고추 건조기술 보유)
  - 농가의 특정한 기술 특허신청 시 비용지원 필요
- 오연옥
  - 많은 농가에서 특정 아이템이 잘된다면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음. 지역별 특성을 살린 아이템 발굴 필요함(예를 들어 효소가 유행이면 모든 농가에서 발효효소를 시도하는 등)
  - 지원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농가)만 계속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사진 자료]



## 6-2. 현장간담회 (어업분야)

### (1) 개요

- 일시 : 2015.10. 20(화) 09:00~11:00
- 장소 : 보령시청 2층 상황실
- 참석 : 21명(충남연구원 강마야, 박경철, 김종화, 여민수, 충남도청 한보현, 주교어촌계 최병각, 궁리어촌계 한재문, 보령시청 황무연, 한 장수)

### (2) 주요 의견

#### ■ 대응방안에 대한 평가 및 제안

##### • 최병각

- 연구의 목적은 FTA에 대응하여 어민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고 판단됨. 대응방안이 포괄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맞이하는 어민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음
- 대응방안을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어민에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
- 수산물 수입으로 타격을 받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각 품목별로 대응방안을 수립하면 좋을 듯
  - ▶ 예를 들어 수입개방이 된다면 바지락의 생산량은 어떻게 조절하여야 하며,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면 다른 품목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품질향상에 투자를 하여야 하는가? 등 현실적, 구체적 대응방안 제시가 필요함
- 현재의 법, 규율 등을 잘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함. 예를 들어 원산지 표시, 어획물 수확량 제한 등을 잘 지키게 하는 것 등이 있음
- 바지락의 경우 종패의 수입제한이 많이 완화되어서(1~2cm까지 허가였다가 현재 2.8cm까지 허용) 몇 개월 국내에서 키워서 국내산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음
- 바지락 종패가 보령, 태안 등 충남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남 종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어장은 많이 형성되어있지만 개발을 하지 못해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 필요함
- 해삼을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함(건해삼 수출). 생 해삼보다는 건해삼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음
  - ▶ 해삼은 내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임. 중국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중국에서 어떠한 정책에 의해 소비가 줄어들면 갑자기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 건해삼은 수산가공품으로서 수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지만 충남의 해삼 품질이 썩 좋은 편은 아님
  - ▶ 해삼의 경우 종패를 뿌리고 채집(나잠어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뿌린 만큼 거두기가 매우 힘들고 채집 비용 또한 많이 들고 있음

- 해삼종패를 뿌려도 잠수기, 나잠 어업권이 없기 때문에 뿌린 사람이 거둘 수 없는 제도가 있음. 어업권을 신규로 주는 등 개선이 필요함
- 한장수
  - 보고서의 대응방안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 많이 있음
  - 어업인의 경우 할 수 있는 품목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규모 품목에 대한 피해액 산정이 필요함. 이에 따른 현실적인 품목별 대응방안이 필요함
    - ▶ 품목별 관세, 양허내용 등을 부록으로 넣어야 함
  - 김, 해삼을 제외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힘들 것이라고 예상됨.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하여 더욱 경쟁력을 키우게 할 것인지? 경쟁력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어촌 마을별로 중간거래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매가격이 많이 다른 상황임. 유통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해삼은 시작한지 3년가량 됨. 해삼을 대단위로 연합체를 구성하여 클러스터 형식을 도입하여 생산하는 방식이 유리할 것임
  - 해삼양식의 경우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여야 하지만 현재는 교육시스템이 없는 상황임. 서식환경이 좋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품종개량, 우수종패 생산기술은 전무한 상황
    - ▶ 앞선 기술과 자본이 있는 중국의 해삼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 대하는 보령에서 많이 생산되고 경쟁력이 있음. 방묘에 따라 생산량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방묘하고 있음
  - 꽃게, 대하 등은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방묘를 많이 하더라도 위험이 따르게 마련임
- 황무연
  - 보령신항이 개항되면 무역 등에서 많은 이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개항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 보령시 또한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사진 자료]



## 6-3. 현장간담회 (임업분야)

### (1) 개요

- 일시 : 2015.10. 20(화) 09:00~11:00
- 장소 : 보령시청 2층 상황실
- 참석 : 21명(충남연구원 강마야, 박경철, 김종화, 여민수, 충남도청 한보현, 임업인 김경태, 백승운, 김동윤, 김성천, 이상용, 이권흥, 이봉배, 김상기, 청양군청 명환민)

### (2) 주요 의견

#### ■ 대응방안에 대한 평가 및 제안

##### • 명환민

- 연구의 결과가 예산과 연계하여 시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감
- 표고, 밤, 산채류 등은 충남 임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임. 중국의 데이터가 있다면 충남에서 수급조절 등 대응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근본적으로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중국의 물량이 얼마나 될 것이고, 그로인한 우리나라로 수입량은 얼마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충남의 피해는 얼마가 될 것이라는 문제해결방안이 필요함. 제시한 내용들은 지협적인 것으로 판단됨
  - ▶ 기본적인 통계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 임업분야의 피해보전 직불금은 ha당 41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정책임. 농업과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고 공익과 사익이 조화된 발전 필요
-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고 좋은 공기를 내보내는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 탄소세를 걷어서 산주에게 다시 돌려주는 형태의 제도 도입 필요함

##### • 백승운

- 간단한 문제에서 시작하여야 함. 예를 들어 중국에서 a품목의 가격이 100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300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무관세로 들어온다면 우리 임가의 피해액은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임
- 충남은 산채생산량이 전국에서 2위임. 이렇듯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있는데, 중국의 농산물이 들어 오면서 임가 개개인별로 얼마의 수입이 감소될 것인지에 대한 접근 필요
- 우리나라 산채(고사리)소비량 중 7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수입되는 고사리의 품질이 저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사리까지 소비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산에는 경제림이 많지 않고 무작위로 심음. 미래세대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는 조림사업이 필요함

##### • 김동윤

- 많은 정책이 있고 개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함. 산양

삼의 경우 연작장해 때문에 충남엔 재배지 찾기가 매우 힘들. 각종 규제(공원지역, 보존지역 등)에 막혀있기 때문에 더욱 재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 각종 규제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막아놓고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모순
- 임산물도 직불금을 받을 권한이 있지만 시행하고 있지 않음.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함

#### • 이봉배

- 산림은 공익적인 가치가 많기 때문에 직불제 도입을 하여야 하지만 오히려 산주는 재산세만 내고 있음
- 밤은 탈피를 해야지 식용이 가능함. 탈피하는 가격이 밤 원가보다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 일본처럼 탈피에 유용한 품종개발 필요. 가공에 유리한 품종을 재배한다면 소비 증가에 도움이 될 것임
-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가 많이 싸지만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형태로 일하고 있음.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 김성천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시행중임. 친환경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농약을 쓸 수 없는데 오히려 친환경을 시행함으로써 제초비용, 친환경 농약 등 생산원가가 더 늘어나고 있음
- 친환경 직불금 대신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농가에겐 더 도움이 됨

#### • 김상기

- 생표고는 양허가 제외되었지만 건조표고는 양허기준이 있음. 건조표고는 식당 등에서 생표고 대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향후 관세가 인하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으로 중국은 많은 버섯을 생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가공품으로 들어오는 양이 국내 소비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함
- 중국에서 들어오는 톱밥배지에 재배한 표고버섯이 한국에서 키웠다고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있음. 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산으로 유통하여야 함
- 국유림, 도유림 등을 활용해서 후계임업인 위주로 임대해주는 제도 혹은 조림한 면적만큼 벌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원목재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 현재 충남도의 산은 나무는 많지만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참나무가 많이 없음. 참나무 조림을 많이 하여 후대에 버섯 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마련 필요
- 버섯 배지재배는 무겁지 않고 서늘한 작업환경 등 노령도 충분히 할 수 있음. 실제 현장에서는 노령노동력과 일자리 매치가 되지 않고 있음. 노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필요
-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고 있음. 표고버섯 재배사에서 지붕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고 혜택을 주고 있음. 이를 악용하여 형식적으로 재배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보조금만 수령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 김경태

- 충남에서 산채류 생산은 많지만 통계자체가 없음. 가공공장을 지어서 소득을 높이하고자 하는데 원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없으니 물량확보에 있어 불확실한 상황임
- 제초작업을 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부직포 설치작업 등을 시행하고 이에 들어가는 자재비 지원 필요함
- 충남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임산물에 대한 인증제도 필요함
  - ▶ 도지사 인증 Q마크제도 활용 고려
- 임산물 전용 쇼핑몰 활성화
  - ▶ 현행 운영되고 있는 농사랑 이용 고려

- 농민은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고 싶어도 재배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길이 많이 않음. 교육사업 등이 필요함
- Q마크, 농사랑 등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었지만 홍보가 되지 않아 농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사진 자료]



## 7. 최종보고회

### (1) 개요

- 일시 : 2015.11. 16(월) 14:00~16:30
- 장소 : 충청도청 대회의실
- 참석 : 48명(정무부지사, 도의회, 전문가, 도청 FTA 대응추진단, 농어업인단체, 농협, aT 등)

### (2) 주요의견

#### ■ 자문가 의견

##### • 김용필(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 중간보고회 지적사항이 많이 반영됨
- 한중FTA로 인한 어업분야에서 해수면뿐만이 아닌 내수면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예산지역은 내수면 어업이 발달되어 있지만 대책에서 빠져있음
- 충남도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임
- 수입자유화가 아무리 많이 진행되어도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할 수 있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농산물 유통에 투입된 예산의 대부분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실제 유통과 직접관련이 없는 예산투입이 많음. 실제로(진정한) 유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예산편성 및 정책개발 필요함
- 일부시군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많이 있더라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있음
- 국비를 어떻게 하여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이것을 시군의 농업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제시 필요함

##### • 하태윤(임업후계자충청남도지회)

- 임업분야에서는 조경수 부문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표고버섯, 산양삼 부문에서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중국 현지에서는 표고버섯 재배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것으로 판단됨

##### • 김우경(수협산경제연구원)

- 수산분야는 농업부문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예상됨. 농업분야는 FTA로 인한 피해액 이외에 자연수입 증가분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수산분야는 예측된 자료는 없지만 역시 많은 양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어선어업 지원분야는 정부의 지원은 있지만 충남은 빠져있음. 농업부문 보다 수산분야가 피해가 훨씬 크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선어업분야의 대책이 보강되어야 함
- 충남에서 많이 생산되는 바지락은 TRQ가 1만 5천 톤 가량임. 관세가 없기 때문에 생산자는 바로 피해를 입게 됨.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금마련 등의 정책 필요함
- 농업분야에서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산분야도 수산발전기금을 참고하여 수산직불금 지급도 보완하여야 함



- 농업분야 뿐만아닌 수산분야 피해보전 직불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동여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함(90→100%)
- 수산물 직불제는 피해보전, 해역진흥금, 조건불리 등 3가지 직불금이 있음. 휴어직불제 등 농업분야에 버금가는 직불제를 도입하여야 함

• **장경호(년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 기존 중앙정부의 FTA 대응정책은 경쟁력 강화, 시설보강 등에 신경을 썼지만 충남은 자체적으로 지속성, 소득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음.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충남에서 도입하려는 자체적인 FTA 대책 등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야 함
- 현재 많은 FTA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기존 각각의 FTA를 대상으로 피해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짐. 피해는 복합적이고 중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복합적 피해영향분석이 필요하고 복합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앙정부에 건의할 10대 역제안 과제는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 무역이득공유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실성이 높지 않기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음. 재원의 확보와 사용이 중요한 것임. 무역이득 공유제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다 보면 다른 좋은 정책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음
- 시장개방으로 인해 품목 간 경합과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 품목 간 구조조정의 피해를 완충할 수 있는 품목별(권역, 전국단위)로 전국단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직 등 국내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핵심임
- 개별농가의 경쟁력을 아무리 높여주더라도 사회적 흡수장치(품목별 조직 등)가 없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할 것임
- 쌀처럼 발작물에 대해서도 목표가격제 도입 등의 역제안이 필요함

• **윤일근(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 소량다품목은 정부정책(연합마케팅 조직, 산지조직 규모화, 전략품목사업 등)과는 배치되는 성격이 있음. 소량다품목은 로컬푸드로 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유통쪽으로 방점을 찍기 위해선 산지 중심의 마케팅정책이 필요함
- 농협에서 통합물류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물류를 한다면 5~6백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남. 생산, 유통부문은 통합물류 사업이 추가되어야 함

• **김태훈(충청남도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 유통부문에서 농협은 대물류를 담당하고 소물류(다품종 소량생산)에 대해 깊게 연구하여야 함
- 소비자를 리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우리나라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나라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방법 마련 필요함

• **박종숙(한국여성농업인충청남도연합회)**

- 식당 등에서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등에 대한 감시방안으로 감시요원이 필요함
  - ▶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과업에 이미 제시함

• **산림녹지과**

- 충청남도의 주요 품목은 표고버섯임. 그러나 자료수집이 잘 안되어 있음. 점검이 필요함
- 양허제외가 많은 품목에서 이루어 졌지만 고사리 등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책마련 필요함
- 임산물의 수출확대, 6차산업화, 시설 현대화, 가공유통 효율화, 안전임산물 생산, 인력양성, 임업의 기능 안전망 구축, 재해보험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충청남도 단독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역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함
- **이은만(한국쌀전업농충청남도연합회)**
  - 중간보고에서 언급하였으나 쌀 부문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이 되지 않음. FTA를 떠나서 어려움에 있고 농업소득의 50%가 쌀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책이 없어서 무심하단 생각이 듦
  - 어떤 품목이 우선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품목인지 판단하여야 함
- **이두영(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
  -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한 대응방안이 언급 필요
  - 농림수산물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언급이 필요
  - 무역이득공유제 등 조세수급방식에 따른 실용성 있는 법안 마련 필요
  - 애매모호한 피해보전 직불금 발동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김호(3농혁신위원회 위원장,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시군별 주요 공통전략 제시가 필요함. 시군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 전략에서 주요 공통적 전략이 필요함
  - 시군간 연합이 된다면 거점 권역별로 구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만 시군별로 따로 대응책이 시행된다면 권역을 구분할 필요성이 없음
  - 농업정책에서 지역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 농업, 지역, 환경이 융합된 정책이 도출되어야 함
  - 중앙정부가 하여야 할 일인지 지방정부가 하여야 할 일인지 지자체가 할 일인지 농어업인이 할 일인지 각각의 역할별 구분이 필요
  - 사회적 농기업 등 정책은 정부에서 강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 졌을 때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정책이 될 것임
  -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은 자제하여야 함.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임. 초기 시장개방 시절에 규모화, 효율화를 강조하던 대책이 많던 시절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사용하였음.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서 농가소득이 양극화되는 부작용이 있음
  - 정책축의 이동이란 표현보다는 정책축의 변화라는 표현이 맞을 것
  - 수출전문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아닌 생산자와 기존 수출전문조직과 연계가 필요함
  - 역제안은 정부가 제시한 제안을 토대로 다시 제안한다는 의미인데 정부는 아직 제시한 것이 없음. 이런 표현보다는 구조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에 대한 제안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GMO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빠짐
  - 국내대책과 충남대책의 비교에서 국가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충청남도 역시 국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혹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표현으로 수정 하여야 함
- **김중환(충청남도 해양정책과)**
  - 조피볼락, 넙치 등 용어를 학명으로 바꿔야 함
  - 충남도의 대응방안이 충남도 자체의 예산 확보방안이 없으면 활용가치가 없음
  - 도어교류 활성화가 충남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문
  - 대(對)중국 수출부문에서 수산물 부문에서 빠져있음
  - 권역별 대응방안에서 서산시의 경우 수산업 통계DB 구축을 사업으로 넣었음. 서산시만 구축하는 것은 아님
  - 보령시의 수산물 중 모든 품목을 선정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의문

## ■ 시군별 의견

### • 부여군청

- 부여군은 80년대 후반부터 시장개방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잘 활용하였음
- 김치로 예를 들면, 김치를 제조할 때 들어가는 국내산부재료의 가격이 높아 중국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은 김치공장이 폐업을 하는 상황임. 중국과의 가격경쟁이 어려운 않는 상황임
- 이론에 치중한 대책이 아닌 농업인이 필요한 실질적인 대응대책이 필요함
- 중국농업과의 경쟁력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인건비의 차이임

### • 금산군청

- 귀농인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70가구)임. 귀농인구의 이탈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먼저 농촌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후계농을 육성하여야 할 것임

### • 서산시청

- 공격적 측면과 방어적 측면에서 수출은 공격, 수입은 방어적인 전략을 취해야 할 것임
- 충남의 경쟁력있는 농산물 품목에 대한 거점별 수출 선도 경영체(수출단지) 육성을 하여야 함
- 서산의 대산항에 내년부터 여객선이 취항함. 가장 고민되는 문제는 중국의 농산물이 불법 유입될 것으로 판단됨. 서산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충남 전 지역에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 사진자료



## 부록3. 설문조사

### 【한중FTA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충남 농업인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중FTA 발효예정에 따른 충남의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중FTA 총괄 평가, 기존 FTA 대책 평가, 향후 충남의 한중 FTA 대책수립 방향 등 귀하의 고견을 연구내용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중FTA 발효시점을 2015년으로 예상)

2015년 8월

충남연구원장

※문의처 : 충남연구원 강마야 Tel. 041-840-1210 / Fax. 041-840-1219  
충남연구원 여민수 Tel. 041-840-1127 / Fax. 041-840-1219

#### ■ 응답자 기본사항 ■ 2014년 기준, 모든 질문에 대해 귀하의 주력 재배품목중심으로 답변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만 _____ 세																																																											
지 역	_____ 시/군 _____ 읍/면	경 력	만 _____ 년																																																											
학 력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이상																																																													
농가형태	① 전업농가    ② 겸업농가    ③ 자급농가																																																													
주요농법	① 일반관행    ② 친환경농업    ③ 기타(       )																																																													
경작규모	① 총면적(       )평 = ② 자가소유(       )평 + ③ 임대면적(       )평																																																													
농림산물 판매금액(1)	연간 총 _____ 만 원	_전년대비 변화	① 증가 ② 감소 ③ 동일 ④ 모름																																																											
경 영 비(2)	연간 총 _____ 만 원	_전년대비 변화	① 증가 ② 감소 ③ 동일 ④ 모름																																																											
농가소득(3)	① 농업소득 : 연간 총 _____ 만 원    ② 농외소득 : 연간 총 _____ 만 원																																																													
주력 농림산물 품목 (농림산물 판매금액의 50% 이상 기여한 품목)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한칸만 표시(√)</th> <th>①</th> <th>②</th> <th>③</th> <th>④</th> <th>⑤</th> <th>⑥</th> <th>⑦(기타)</th> </tr> <tr> <td>1.식량류</td> <td></td> <td>겉보리 쌀보리</td> <td>옥수수</td> <td>콩</td> <td>팥</td> <td>감자</td> <td>고구마</td> <td></td> </tr> <tr> <td>2.과수류</td> <td></td> <td>사과</td> <td>배</td> <td>포도</td> <td>복숭아</td> <td></td> <td></td> <td></td> </tr> <tr> <td>3.채소류</td> <td></td> <td>배추</td> <td>고추</td> <td>마늘</td> <td>생강</td> <td>쪽파</td> <td>토마토</td> <td></td> </tr> <tr> <td>4.특작류</td> <td></td> <td>인삼</td> <td>참깨</td> <td>들깨</td> <td>땅콩</td> <td></td> <td></td> <td></td> </tr> <tr> <td>5.임산물</td> <td></td> <td>버섯류</td> <td>취나물</td> <td>구기자</td> <td>약초</td> <td>밤</td> <td>은행</td> <td></td> </tr> </table>								구분	한칸만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기타)	1.식량류		겉보리 쌀보리	옥수수	콩	팥	감자	고구마		2.과수류		사과	배	포도	복숭아				3.채소류		배추	고추	마늘	생강	쪽파	토마토		4.특작류		인삼	참깨	들깨	땅콩				5.임산물		버섯류	취나물	구기자	약초	밤	은행	
구분	한칸만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기타)																																																						
1.식량류		겉보리 쌀보리	옥수수	콩	팥	감자	고구마																																																							
2.과수류		사과	배	포도	복숭아																																																									
3.채소류		배추	고추	마늘	생강	쪽파	토마토																																																							
4.특작류		인삼	참깨	들깨	땅콩																																																									
5.임산물		버섯류	취나물	구기자	약초	밤	은행																																																							

◆ 한중FTA 총괄 평가(농가경제 영향, 경영위험도, 경쟁력비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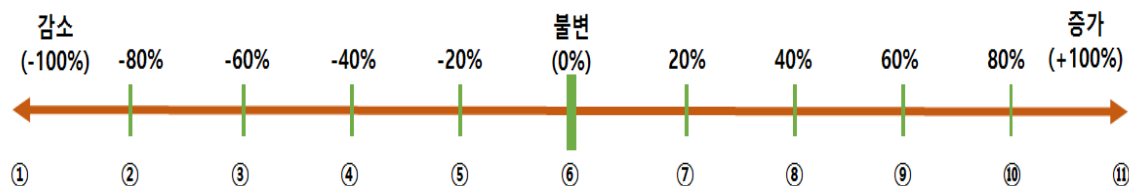
1. 귀하의 주력 농림산물에 대해서 중국산 농림산물 경쟁력에 대한 주관 평점은 몇점입니까?

번호	경쟁력 지표	A. 현재시점에서의 평가					B. 발효이후 시점에서의 전망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1	가격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유통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품질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수출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한중FTA 발효로 인하여 귀하의 주력 농림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력 재배품목 (앞장과 동일표기, 예. 과수류, 채소류)	매우 작은 영향	작은 영향	보통	큰 영향	매우 큰 영향
	①	②	③	④	⑤

3. 한중FTA 발효로 인하여 귀하의 주력 농림산물 생산량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4. 한중FTA 발효로 인하여 어떤 구간의 농가가 가장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까?(두 기준 모두 표시)

번호	4-1. 경지면적 규모 기준	표시(√)	번호	4-2. 농림산물 판매금액 기준	표시(√)
①	경지없음~300평 미만		①	실적없음~300만 원 미만	
②	300평~900평		②	300만 원~1천만 원	
③	900평~1,500평		③	1천만 원~3천만 원	
④	1,500평~3,000평		④	3천만 원~5천만 원	
⑤	3,000평~6,000평		⑤	5천만 원~1억 원	
⑥	6,000평~9,000평		⑥	1억~2억 원	
⑦	9,000평 이상		⑦	2억 원 이상	

5. 한중FTA 발효 이후 언제부터 귀하의 경영에 직접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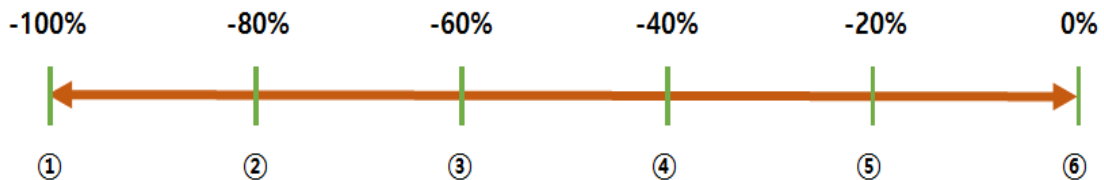
- ① 발효 이후 당해년도부터                      ② 1년~3년 뒤                      ③ 3년~5년 뒤  
④ 5년~7년 뒤                      ⑤ 10년 이후부터

6. 한중FTA 발효 이후 귀하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경영위험도 수준은 어떻다고 예상하십니까?

번호	경영위험 유형	주요 내용	매우 비위험	비위험	보통	위험	매우 위험
6-1	자연·기술적 생산 위험	자연재해, 병충해, 품종선택에 따른 위험	①	②	③	④	⑤
6-2	시장 및 가격위험	가격변동, 시장개방에 따른 위험	①	②	③	④	⑤
6-3	제도적 위험	법률, 제도, 정책변화에 따른 위험	①	②	③	④	⑤
6-4	재무적·경제적 위험	유동성 부족, 예상소득 미확득에 따른 위험	①	②	③	④	⑤
6-5	인적 및 책임 위험	안전사고, 도덕적 해이, 보증에 따른 위험	①	②	③	④	⑤

7. 귀하가 현재 소득대비 감소율 기준으로 경영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한계점은 어디입니까?

\* 주 : 한계점이란 농업경영인이 최대한 농업경영을 유지, 감내할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



8. 한중FTA 발효 이후 귀하의 경영위험에 대비한 자구책(전략)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① 경영다각화                      ② 유통시기 조절                      ③ 계약생산, 계약재배, 계약출하  
④ 정보수집 및 분석                      ⑤ 자원사용 유보                      ⑥ 준비사항 없음

9. 한중FTA 발효 이후 귀하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경영을 포기하시겠습니까?

- ① 경영포기 의향있음                      ② 경영포기 의향없음                      ③ 생각해 본 적 없음/모름

10. 귀하께서는 향후 농림업을 후대(자식, 손자 등)에게 경영승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경영승계 의향없음                      ② 경영승계 의향있음                      ③ 생각해 본 적 없음/모름

## ◆ 기존 FTA 대책 평가

11. 귀하께서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FTA를 1순위(     ), 2순위(     ), 3순위(     )로 표기 바랍니다.

번호	대상국가	진행상황	번호	대상국가	진행상황
①	한·칠레 FTA	발효	⑤	한·캐나다 FTA	발효
②	한·EU FTA	발효	⑥	한·중국 FTA	타결, 가서명
③	한·미국 FTA	발효	⑦	한·베트남 FTA	타결, 가서명
④	한·호주 FTA	발효	⑧	한·뉴질랜드 FTA	타결, 가서명

12. 정부가 발표한 “한중FTA 국내보완대책”의 정책별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번호	내용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필요
발농업 경쟁력 제고	12-1	발 공동경영체 육성	①	②	③	④	⑤
	12-2	농기계 임대	①	②	③	④	⑤
	12-3	농업수입보장보험	①	②	③	④	⑤
임업 경쟁력 제고	12-4	목재산업시설현대화	①	②	③	④	⑤
	12-5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①	②	③	④	⑤
수출촉진	12-6	임산물 수출	①	②	③	④	⑤
	12-7	수출기반 강화	①	②	③	④	⑤
수입안전 체계구축	12-8	동축산물 검역검사	①	②	③	④	⑤
	12-9	식물검역검사 등	①	②	③	④	⑤

13. 다음의 정책에 대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번호를 한 개만 선택기입해 주십시오.

① 농자재 지원정책	④ 6차산업화 정책	⑦ 생산기반확충 정책
② 직불금, 재해보험 등 소득정책	⑤ 연구 및 기술개발 정책	⑧ 농산물 수출지원 정책
③ 농산물 유통정책	⑥ 농업인력육성 정책	⑨ 친환경농업 정책
13-1	현재 가장 <b>공정</b> 한 정책	
13-2	현재 가장 <b>성공</b> 한 정책	
13-3	현재 가장 <b>실패</b> 한 정책	
13-4	현재 가장 <b>만족</b> 하는 정책	
13-5	FTA 대책으로서 <b>도움</b> 이 되는 정책	
13-6	향후 가장 <b>강조</b> 해야 할 정책	

## ◆ 향후 충남의 한중FTA 대책수립 방향

14-17.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에 각 √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정책효과 및 연계여부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4	한중FTA 대책이 농업을 살리는데 <b>효과성(실효성)</b>	①	②	③	④	⑤
15	충남 차원에서 한중FTA 대책 수립의 <b>효과성(실효성)</b>	①	②	③	④	⑤
16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과 한중FTA 대책 간 <b>연계 필요성</b>	①	②	③	④	⑤
17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과 시군 농업정책 간 <b>연계 필요성</b>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는 한중FTA 대응을 위한 **충남의 전략방향**은 무엇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방어적(농업보호 지향) 전략                      ② 공격적(수출지향) 전략  
③ 중립적 전략(①과② 적절 혼재)

19. 농업인이 말하는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 ① 현금지원 확대정책      ② 현물지원 확대정책      ③ 누구나 공평한 보조금 정책  
④ 농업인력(사람)에 대한 투자      ⑤ 관련 기반시설 확충정책      ⑥ 기타(                      )

20.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가 현재는 (     ), 미래는 (     )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적 가치(소득향상 등)                      ② 비경제적 가치(농정변화, 삶의질향상 등)  
③ 모름/없음

21. 귀하가 스스로 생각하는 **농업인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표기하여 주십시오.

- ① 경영위험 관리노력 부족                      ② 정부정책(보조사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③ 소비자화 함께 한다는 인식 결여      ④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개인역량 투자 미흡  
⑤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중요성 인식 부족      ⑥ 기타(                      )



\* 22번~24번은 특히 귀하가 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중심으로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2. FTA대책에서 각 주체별 강조할 영역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각 한개씩  
√표기)

정책 영역	①농산물 생산 영역	②농산물 유통 영역	③농산물 가공 영역	④농업 인력 영역	⑤소득 및 경영 영역	⑥농산물 수출 영역	⑦소비혁 신 영역
22-1. 중앙정부(농식품부)							
22-2. 광역지자체(충남도)							
22-3. 기초지자체(시.군)							
22-4. 생산자(농업인)							

23. FTA대책은 단계별·시기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각 한개씩  
√표기)

번호	정책 방향	① 가장시급함 단기(5년 이내)	② 보통시급함 중기(5년-10년)	③ 시급하지않음 장기(10년 이후)
23-1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23-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23-3	농산물 가공 활성화			
23-4	농업 인력양성 강화			
23-5	소득 및 경영기반 확대			
23-6	농산물 수출지원 육성			
23-7	소비자와 교류 활성화			

24. 충남도가 개방화에 대비해서 **영역별 우선 해결할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각 한개씩 √표기)

24-1	24-2	24-3	24-4	24-5	24-6	24-7
생산영역	유통영역	가공영역	인력영역	소득영역	수출영역	소비영역
①생산기반 재정비,규모화	①우수브랜드 육성	①지역산가공원료사용 확대	①후계농업인력 양성	①직불금 확대	①수출물류 지원확대	①도농교류 확대
②시설현대화 지원확대	②로컬푸드 확산	②농식품가공 산업육성	②귀농.귀향인력 전문성 강화	②재해보험 확대	②중점수출 육성 품목확대	②食과 農 연계
③농자재지원 확대	③연합마케팅, 공동마케팅	③지역가공업체 연계강화	③돌봄별경영체 방식 확대	③연금지원 확대	③농산물 검역강화	③도시농업 확산
④고품질안전 농산물생산	④불법유통 단속강화	④가공기술,연구개발지원	④농고계출신인력 양성	④농외소득 창출	④수출피해보상 제도 확대	④학교급식 확대
⑤친환경농업 육성 강화	⑤원산지표기 단속강화	⑤거점가공기반 시설 확충	⑤농업경영체 중심의 육성	⑤농업경영비 절감대책	⑤수출국 정보 상시제공	⑤농업공익 가치 교육의 확산

25. 그 외에 말씀하시고 싶은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

○

○

■ 설문에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한중FTA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충남 어업인(어촌계장)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귀 어촌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중FTA 발효예정에 따른 충남의 농림수산분야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중FTA 총괄 평가, 기존 FTA 대책 평가, 향후 충남의 한중FTA 대책수립 방향 등 귀하의 고견을 연구내용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중FTA 발효시점을 2015년으로 예상)

2015년 8월

충남연구원장

※문의처 : 충남연구원 강마야 Tel. 041-840-1210 / Fax. 041-840-1219  
충남연구원 여민수 Tel. 041-840-1127 / Fax. 041-840-1219

### ■ 응답자 기본사항 ■ 2014년 기준, 모든 질문에 대해 귀 어촌계의 주력품종중심으로 답변

개 인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만 _____세				
	지 역	_____시/군_____읍/면		경 령	만 _____년				
	학 령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이상							
	어가형태	① 전업어가    ② 겸업어가    ③ 자급어가							
	어가소득	① 어업소득 : 연간 총 _____만 원    ② 어업외소득 : 연간 총 _____만 원							
어 촌 계	어업유형	① 마을어업    ② 양식어업    ③ 어선어업    ④ 복합어업							
	어업세력	① 마을어장( )ha    ② 어선보유수( )척    ③ 양식어장( )ha							
	수 산 물 판매금액	연간 총 _____만 원	_전년대비 변화		① 증가 ② 감소 ③ 동일 ④ 모름				
	경 영 비	연간 총 _____만 원	_전년대비 변화		① 증가 ② 감소 ③ 동일 ④ 모름				
주력 수산물 품종 (수산물 판매금액의 50% 이상 기여한 품목)	구분	한칸만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기타)
	어류		조피볼락	넙치	동류	멸치류			
	갑각류		새우(대하)	꽃게					
	패류		바지락	피조개	홍합류	가무락	전복류	굴류	
	해조류		김	다시마	미역	돛	파래		
	연체동물		주꾸미	낙지					
	종묘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기타수산동물		해상	미더덕	멍게				

◆ 한중FTA 총괄 평가(어가경제 영향, 경영위험도, 경쟁력비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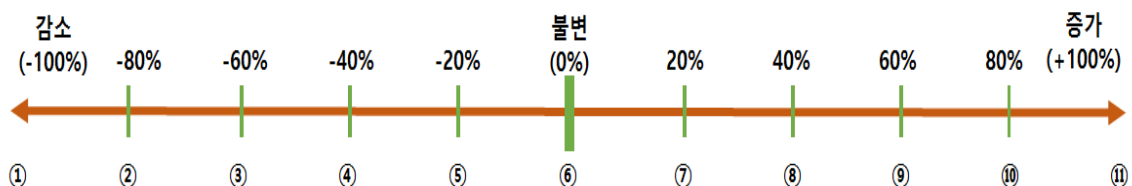
1. 귀 어촌계의 주력 수산물 품종에 비해서 중국산 수산물 경쟁력에 대한 주관적 평점은 몇점입니까?

번호	경쟁력 지표	A. 현재시점에서의 평가					B. 발효이후 시점에서의 전망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1-1	가격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유통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품질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수출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한중FTA 발효로 인하여 귀 어촌계의 주력 수산물 품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력 재배품목 (앞장과 동일표기, 예. 해조류, 패류)	매우 작은 영향	작은 영향	보통	큰 영향	매우 큰 영향
	①	②	③	④	⑤

3. 한중FTA 발효로 인하여 귀 어촌계의 주력 수산물 품종의 생산량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4. 한중FTA 발효로 인하여 어떤 구간의 어촌계 및 어가가 가장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까?(두 기준 모두 표시)

번호	4-1. 어장면적 규모 기준	표시(√)
①	1ha 미만	
②	1ha~5ha	
③	5ha~10ha	
④	10ha~15ha	
⑤	15ha~20ha	
⑥	20ha~30ha	
⑦	30ha 이상	

번호	4-2. 개별 어가소득 기준	표시(√)
①	실적없음~300만 원 미만	
②	300만 원~1천만 원	
③	1천만 원~3천만 원	
④	3천만 원~5천만 원	
⑤	5천만 원~1억 원	
⑥	1억~2억 원	
⑦	2억 원 이상	

5. 한중FTA 발효 이후 언제부터 귀 어촌계의 경영에 직접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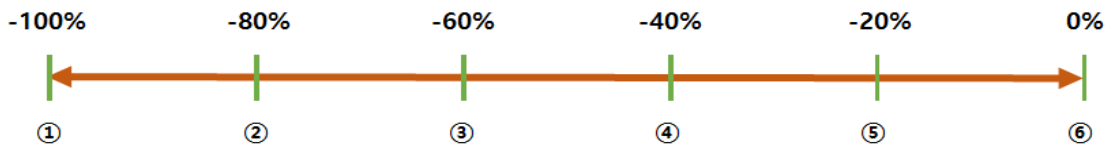
- ① 발효 이후 당해년도부터                      ② 1년~3년 뒤                      ③ 3년~5년 뒤  
④ 5년~7년 뒤                      ⑤ 10년 이후부터

6. 한중FTA 발효 이후 귀 어촌계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경영위험도 수준은 어떻다고 예상하십니까?

번호	경영위험 유형	주요 내용	매우 비위험	비위험	보통	위험	매우 위험
6-1	자연.기술적 생산 위험	자연재해,해적생물,품종선택에 따른 위험	①	②	③	④	⑤
6-2	시장 및 가격위험	가격변동, 시장개방에 따른 위험	①	②	③	④	⑤
6-3	제도적 위험	법률, 제도, 정책변화에 따른 위험	①	②	③	④	⑤
6-4	재무적.경제적 위험	유동성 부족, 예상소득 미확득에 따른 위험	①	②	③	④	⑤
6-5	인적 및 책임 위험	안전사고, 도덕적 해이, 보증에 따른 위험	①	②	③	④	⑤

7. 귀 어촌계가 현재 소득대비 감소율 기준으로 경영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한계점은 어디입니까?

\* 주 : 한계점이란 어촌계가 최대한 어촌계 경영을 유지, 감내할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



8. 한중FTA 발효 이후 귀 어촌계의 경영위험에 대비한 자구책(전략)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① 경영다각화                      ② 유통시기 조절                      ③ 사매 및 빈매 금지활동  
④ 정보수집 및 분석                      ⑤ 자원사용 유보                      ⑥ 준비사항 없음

9. 한중FTA 발효 이후 귀 어촌계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경영을 포기하시겠습니까?

- ① 경영포기 의향있음                      ② 경영포기 의향없음                      ③ 생각해 본 적 없음/모름

10. 귀 어촌계는 향후 어업경영을 후대에게 경영승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경영승계 의향없음                      ② 경영승계 의향있음                      ③ 생각해 본 적 없음/모름

## ◆ 기존 FTA 대책 평가

11. 귀하께서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FTA를 1순위( ), 2순위( ), 3순위( )로 표기 바랍니다.

번호	대상국가	진행상황	번호	대상국가	진행상황
①	한·칠레 FTA	발효	⑤	한·캐나다 FTA	발효
②	한·EU FTA	발효	⑥	한·중국 FTA	타결, 가서명
③	한·미국 FTA	발효	⑦	한·베트남 FTA	타결, 가서명
④	한·호주 FTA	발효	⑧	한·뉴질랜드 FTA	타결, 가서명

12. 정부가 발표한 “한중,한베FTA 국내보완대책”의 정책별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번호	내용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	12-1	어촌공동체, 수산종묘자금(이차보전)	①	②	③	④	⑤
	12-2	긴급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①	②	③	④	⑤
	12-3	어업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포함)	①	②	③	④	⑤
	12-4	어업경영체등록	①	②	③	④	⑤
어선어업 분야지원	12-5	연안어업인 자조단체 육성	①	②	③	④	⑤
	12-6	노후어선 부분개량	①	②	③	④	⑤
	12-7	친환경어구 보급사업	①	②	③	④	⑤
	12-8	불법조업 대응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12-9	연근해특정해역 수산자원정밀관리	①	②	③	④	⑤
양식어업 분야지원	12-10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①	②	③	④	⑤
	12-11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①	②	③	④	⑤
	12-12	친환경 에너지보급	①	②	③	④	⑤
	12-13	수산물 자조금 지원	①	②	③	④	⑤
	12-14	내수면 양식 지원	①	②	③	④	⑤
	12-15	천일염 산업 특화 지원	①	②	③	④	⑤
가공유통 인프라	12-16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①	②	③	④	⑤
	12-17	수산물유통자동화설비	①	②	③	④	⑤
수출지원	12-18	수산물해외시장개척	①	②	③	④	⑤
검역관리 강화	12-19	수산물원산지관리	①	②	③	④	⑤
	12-20	수산물이력제	①	②	③	④	⑤

13. 다음의 정책에 대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번호를 한 개만 선택기입해 주십시오.

① 수산자원관리정책	④ 어업.어촌 6차산업화 정책	⑦ 어로(양식,어선)시설현대화 정책
② 직불금, 재해보험 등 소득정책	⑤ 연구 및 기술개발 정책	⑧ 수산물 수출지원 정책
③ 수산물 유통정책	⑥ 어업경영인 육성 정책	⑨ 친환경양식업 정책
13-1	현재 가장 <b>공정</b> 한 정책	
13-2	현재 가장 <b>성공</b> 한 정책	
13-3	현재 가장 <b>실패</b> 한 정책	
13-4	현재 가장 <b>만족</b> 하는 정책	
13-5	FTA 대책으로서 <b>도움</b> 이 되는 정책	
13-6	향후 가장 <b>강조</b> 해야 할 정책	

#### ◆ 향후 충남의 한중FTA 대책수립 방향

14-17.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항목에 각 √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정책효과 및 연계여부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4	한중FTA 대책이 어업을 살리는데 <b>효과성(실효성)</b>	①	②	③	④	⑤
15	충남 차원에서 한중FTA 대책 수립의 <b>효과성(실효성)</b>	①	②	③	④	⑤
16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과 한중FTA 대책 간 <b>연계 필요성</b>	①	②	③	④	⑤
17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과 시군 수산정책 간 <b>연계 필요성</b>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는 한중FTA 대응을 위한 **충남의 전략방향**은 무엇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방어적(어업보호 지향) 전략                      ② 공격적(수출지향) 전략  
③ 중립적 전략(①과② 적절 혼재)

19. 어업인이 말하는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 ① 현금지원 확대정책      ② 현물지원 확대정책      ③ 누구나 공평한 보조금 정책  
④ 어업인력(사람)에 대한 투자      ⑤ 관련 기반시설 확충정책      ⑥ 기타(                      )

20. 충남도 3농혁신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가 **현재는 (     ), 미래는 (     )**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적 가치(소득향상 등)      ② 비경제적 가치(삶의질향상 등)      ③ 모름/없음





24. 충남도가 개방화에 대비해서 **영역별 우선 해결할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각 한개씩 √표기)

24-1	24-2	24-3	24-4	24-5	24-6	24-7
생산영역	유통영역	가공영역	인력영역	소득영역	수출영역	소비영역
①생산기반 재정비	①수산물 지역브랜드	①지역산가공 원료사용 확대	①후계어업 인력 양성	①직불금 확대	①수출물류 지원확대	①도농교류 확대
②시설현대화 지원확대	②빈매,사매 등 유통경로금지	②농식품가공 산업육성	②귀어인력 유입 확대	②재해보험 확대	②중점 수출육성 품목확대	②食과 農 연계
③어구,자재 지원 확대	③학교급식 수산물공급	③지역가공업 체 연계강화	③자율관리 어업 공동체활성화	③연금지원 확대	③수산물 검역강화	③축제방식의 변화
④고품질안전 수산물생산	④불법유통 단속강화	④가공기술. 연구개발지원	④어촌계진입 장벽 완화	④어업외소득 창출	④수출피해 보상제도 확대	④학교급식 확대
⑤친환경양식 업육성 강화	⑤원산지표기 단속강화	⑤수산가공기 반시설 확충	⑤어업경영체 제도 도입	⑤어업경영비 절감대책	⑤수출국 정보 상시제공	⑤어업공익 가치 교육의 확산

25. 그 외에 말씀하시고 싶은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

○

○

■ 설문에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연구보고서 및 기타문헌

- 강마야·허남혁·이관률(2014) “농업직불금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농정연구 51, pp.38-40
- 강마야(2014),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충남리포트 제140호, 충남연구원
- 강마야(2015), 한·중 FTA에 따른 충남 농림어업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구상, 충남리포트 제199호, 충남연구원
- 국회(2015), 농해수위 결산보고서 등 심사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2014), 2014 국정감사 자료집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알기쉬운재정\_한눈에보는재정)
- 김종화(2014),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수업의 위기와 기회, 충남리포트 제141호, 충남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각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5년 국회 현안보고 자료
- 리금(2015), 중국 약용작물산업 현황
- 문한필 외(2014),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 제8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경철, 강수현(2014),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협력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전략연구 2014-09, 충남연구원
- 박경철, 강마야(2015), 충남형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식품안전정보원(2015), 2014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
- 유학열 외(2014), 시군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정환(2015), “왜 신시대, 신농업, 신농정을 논해야 하는가”, 시선집중 GS&J 제208호, GS&J인스티튜트
- 정민국 외(2013), 한권으로 보는 중국 농업, 중국농업자료집 D3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현희·이관률·허남혁(2013), 농업의 다기능성과 다기능농업 활성화 정책, 전략연구 2013-06, 충남발전연구원
- 충남연구원 CNI 인포그래픽 제8호(2015.04.30.)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2012), 3농혁신과 연계한 충남농업의 품목별 FTA 대응전략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5)
- 충청남도(2015), 2015년 상반기 3농혁신 추진상황 보고
- 충청남도(2013), 충청남도 중장기 통합계획(2011-2020)
- 강마야·허남혁·이관률·여민수(2014),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방안, 충청남도
- 충청남도(2015), 3농혁신 2단계 추진계획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4),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컨슈머와이드(2015.08.03.),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권리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 2014 회계연도 자유무역 협정이행지원기금 결과보고서
- 한국농업경제학회(2015),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 대한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연도), KREI 동향스크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세계농업 제175호(2015.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2010), 중국농업동향, 2009년 가을호&2010년 가을호
- 한국임업진흥원(2015), 우리나라 임산물 생산지도
- 한국한의학연구원(2012)
- 허남혁.강마야.김중화.이관률.여민수(2013), 직불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충청남도, pp.14-22
- GS&J인스티튜트(2015), 농업.농촌의 길 2015 심포지엄
- OECD(2006), The Role of Compensation in Policy Reform, Document AGR/CA/APM/ WP(2007)7, p.60

### ■ 정부 보도자료 및 기타 자료

- 각 국가별 FTA 협정문 : 한미FTA 협정문(2012), 한EU FTA 협정문(2011), 한중FTA 협정문(2015), 한칠레 FTA 협정문(2004)
- 국회 보도자료(2015.11.30.), 추가 국내 보완대책
- 산림청(2015), 한중FTA 대응 경쟁력 제고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5-449호),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추가공고 중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11.10., 2015.06.05.), 개방시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책 : 한중 및 한베 FTA 국내 보완대책
-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4.11.10.),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 산업통상자원부(20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결과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4.11.10., 2015.06.05.)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15)
- 농림어업인 현장간담회(2015.10.20.)
- 시군 작성자료(2015)
- 시군별 순회간담회 자료(2015.06.09.~ 06.23.)
- 전문가 워크숍 자료(2015.09.22.)

## ■ 정부관련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 각종 법률
- FTA포털([www.fta.go.kr](http://www.fta.go.kr)) : 각 FTA별 주요내용, 상세설명자료 등 참고(FTA포털)

## ■ 언론 홈페이지

- 농민신문, 쌀생존전략리포트([http://www.nongmin.com/project/ar\\_se\\_detail.htm?se\\_id=1011&ar\\_id=256555](http://www.nongmin.com/project/ar_se_detail.htm?se_id=1011&ar_id=256555))
- 농촌여성신문(<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76>)
- 식품안전정보포털(<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연합뉴스
- 한겨레(2015.06.30.), 예외없는 ‘식품안전표시제’시행을
- 한겨레(2015.10.13.), 예외조항 투성이, 식품안전 소비자가 나뉘었다.
- 한겨레21칼럼(2006.09.20.), 식품안전표시제의 함정
  -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136000/2006/09/021136000200609200628010.html>)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1023175833244>)
  -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98201.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98201.html))
  -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712604.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712604.html))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at.or.kr/contents/apko333220/view.action>)
-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37>)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145>)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20370>)

## ■ 중국 통계자료

- 길림통계연감
-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연감 中国统计年鉴 (<http://www.stats.gov.cn/>)
- 중국 농산품가격조사연감 中国农产品价格调查年鉴
- 중국 농산품가공비연감 中国农产品加工业年鉴
- 중국 농업연감 中国农业年鉴
- 중국 농업통계자료 中国农业统计资料
- 중국 국가통계국 中国国家统计局 中国渔业统计年鉴 (양식면적)
- 중국 국가통계국(<http://data.stats.gov.cn>)
- 중국 통계연감(<http://www.stats.gov.cn>)
-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http://moa.gov.cn>)
- 전국농산물도매시장가격정보망(全国农产品批发市场价格信息网)
- 전국농산비용수익통계자료(全国农产品成本收益资料汇编)

■ 국내 및 국제기구 통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각연도), 농림업생산지수
- 농림축산식품부(각연도), 주요통계
- 농림축산식품부(각연도), 통계연보
- 농림축산식품부(각연도), 인삼통계자료집
- 농수산물유통공사(각연도),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aTkati, <http://www.kati.net>)
- 농촌진흥청(각연도),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
- 산림청(2015), 2014년 임업통계연보
- 충청남도(각연도), 통계연보 및 기본통계
- 충남재정정보공개시스템(도민참여예산제\_재정정보\_재정규모)
- 통계청(각연도), 농업면적조사
- 통계청(각연도), 농작물생산조사
- 통계청(2010), 농림어업 총조사
- 통계청(각연도), 농림어업조사
- 통계청(각연도), 농업면적조사
- 통계청(각연도), 소비자물가조사
- 통계청(각연도), 지역소득
- 통계청(각연도), 농가경제조사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KITA (<http://www.kita.net>)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
- 해양수산부(각연도), 수산정보포털(fips)
- 15개 시군(각연도), 통계연보
- FAO데이터(<http://faostat3.fao.org/home/E>)



## 주관 및 연구수행

- 주관기관 : 충청남도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연구수행 :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 연구진 구성 및 역할

구분	직급	성명	학위(전공)	집필내용
연구책임	책임연구원	강마야	경제학박사 (농업경제)	· 연구총괄 · 제1부~제7부 작성총괄
연구간사	연구원	여민수	경제학석사 (농업경제학)	· 연구보조 및 진행 간사 · 제2부~제6부 (자료수집 및 정리) · 제2부 중국 및 충남의 농림수산업 현황 · 제6부 시군별 대응방안(지역성 지속 권역 일부 시군)
연구참여	책임연구원	김양중	경제학박사 (미시경제학)	· 제3부 제2장 부문별 영향분석 · 제3부 제3장 분석대상 품목 도출 · 제4부 주요품목 종합분석(지역특화 분석)
	책임연구원	박경철	사회학박사 (농촌사회)	· 제4부 주요품목 종합분석(중국의 정책이슈 분석) · 제5부 충남의 대응방안(권익증진 지역 및 교류협력 지역경제 부문) · 제6부 시군별 대응방안(소비교류 거점권역)
	책임연구원	김종화	농학박사 (농업경제)	· 제5부 충남의 대응방안(수산업·수출 지역 및 교류협력 부문) · 제6부 시군별 대응방안(융복합 거점 권역)
	연구원	김정하	건축학박사 (공간개발)	· 제3부 분석대상 품목 도출(공간시각화) · 제4부 주요품목 종합분석(품목별 공간시각화, 종합분석도 등)
외부전문가	전국도시농업무역센터연합회 전문요원	리 금	경제학박사 (농업경제학)	· 제4부 주요품목 종합분석(중국 주요 품목별 통계 총괄수집 및 정리, 각종 참고자료 제공 등)
	중국 청도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	리중수	경제학박사 (농업경제학)	· 통상 전반해석, 중국 농업정책 동향 정리, 각종 참고자료 제공 등